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제1호(54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김 일 성

신 년 사

1988년 1월 1일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형제자매들!

우리는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보람찬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포부와 신심에 넘쳐 새해 1988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과 남녘의 형제들 그리고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우리 당 제6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7개년계획의 첫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기간공업부문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것을 경제건설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본건설에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첫 진군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음으로써 1987년을 자랑찬 승리의 한해로 빛나게 하였습니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우리의 발전소건설자들은 험산준령에 100리 물길굴을 뚫는 어려운 공사를 수행하고 방대한 규모의 송원언제 1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태천발전소 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서두수발전소 3단계공사를 힘있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최대규모의 수력발전소인 금강산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녕원발전소, 남강발전소를 비롯한 크고작은 여러개의 발전소 건설을 적극 다그쳤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을 높이는데서 관전적 의의를 가지는 종합적 대화학공업기지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 화력을 집중하였으며 위력한 경금속생산기지인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은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마침내 첫 카바이드로에 불을 지필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천지구 건설자들은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단천마그네샤공장 확장공사, 운송과쇄사별장 건설을 완공함으로써 마그네샤크링카 생산능력을 200만톤 수준에 이르게 하였으며 중요한 유색금속생산기지인 단천제련소 1단계건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북부철길건설을 담당한 청년건설자들은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길 전구간의 시설물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250여리 구간의 철길을 개통함으로써 이 지역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나라의 긴장한 수송문제를 푸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광복거리 건설자들은 수도건설자의 영예를 안고 대규모의 어렵고 복잡한 건설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침으로써 우리 수도 건설력사에 빛나는 새 장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랑할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과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령도따라 나갈 때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해동안에 그처럼 방대한 규모의 기본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수 있은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당의 령도밑에 간고분투하여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기때문입니다.

나는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건설행군에서 우리의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세운 로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988년은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중심적인 과업은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

무엇보다먼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10대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진행하고있는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서두수발전소 3단계공사를 상반년안으로 끝내여 120만크바이상의 발전능력을 조성하며 금강산발전소, 녕원발전소, 희천발전소, 남강발전소, 금야강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안주지구, 순천지구, 북부지구를 비롯하여 매장량이 많은 여러 지구의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탄광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단계확장공사를 1.4분기안으로 끝내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200만톤 능력의 새 강철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매장량이 풍부한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당면해서는 1,000만톤, 전망적으로는 1,500만톤 능력의 현대적인 대규모철정광생산기지로 꾸리는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에서 힘을 넣어야 할 중심고리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건설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건설하면 한해에 100만톤의 카바이드와 75만톤의 메타놀, 10만톤의 비날론, 90만톤의 질소비료, 25만톤의 염화비닐, 25만톤의 가성소다, 40만톤의 탄산소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과 30만톤의 단백질먹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건설하여 청단지구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카리장석을 한해에 300만톤만 처리하여도 51만톤의 카리비료와 42만톤의 알루미나, 1,000만톤이상의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게 됩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과 모든 건설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영웅적 투쟁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건설공사를 제때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 건설을 담당한 건설자들은 건설기일을 앞당기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도시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생산에 수송을 따라세우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에 큰 힘을 넣어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현시기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철도를 전기화, 중량화하는것입니다. 아직 전기화되지 못한 구간의 전기화를 마저 끝내며 8축전기기관차

와 100톤화차를 많이 생산하여 철도의 중량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이며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뜨락또르, 자동차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현대적 농기계들과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기 위한 50만정보의 분수식 발관개 건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석지개간과 새 땅 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하여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올해 과업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과업입니다. 올해 과업을 잘 수행하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뿐아니라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크게 고무할것이며 자주의 새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게 될것입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여부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것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구현하여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중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달려온 단련되고 세련된 영웅적 인민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또다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을 창조하고 주체조선의 혁명적 기상을 떨쳐야 할것입니다.

1987년은 우리 조국의 북과 남에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한해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에 따라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해에 단계적인 군축제안과 민족단합 5개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비호밑에 거의 30년동안이나 지속되여온 군사파쑈독재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옹근 한해동안 줄기차게 전개되였습니다.

파쑈적인 《4.13조치》 반대투쟁으로부터 6월인민항쟁과 7~9월 로동자들의 투쟁을 거쳐 12월의 군정종식투쟁에 이르는 영웅적인 투쟁의 나날에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자기들의 강렬한 념원과 불굴의 투지를 남김없이 시위하였으며 미국의 부추김을 받는 군부독재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천200만명의 인민들이 군정연장을 거부하고 민정을 요구하는 자기들의 의사를 뚜렷이 표시함으로써 누구도 이 위력한 투쟁력량을 무시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가혹한 군사독재체제밑에서도 굴하지 않고 반미반파쑈투쟁을 용감하게 벌려 자기들의 해방투쟁사에 자랑스러운 페지를 수놓아온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애국적 민주인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남조선에서는 군정종식과 민정수립에 대한 절대다수 인민들의 념원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머리우에는 여전히 군사파쑈독재가 군림하게 되였으며 《정권교체》가 된다 하여도 아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수 없게 되였습니다. 경험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인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사회적변혁에 대한 념원도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오직 자신의 단합된 투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반미자주화구호를 전면에 들고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열망은 막을수 없는것으로 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방안과 진지한 노력은 내외인민들의 더욱더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제정세도 점차 완화의 징조를 보이고있으며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통일문제해결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습니다.

현시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것입니다.

원래 조국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도 아니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문제도 아니며 북과 남이 다같이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며 분렬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대화를 하여도 성과를 기대할수 없으며 더우기 서로 힘으로 승부를 겨루려고 한다면 통일문제는 어느때가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분렬은 외세에 어부지리를 줄뿐입니다. 외세에 롱락되여 헤아릴수 없는 민족적 재난과 고통을 겪어온 40여년의 치욕스러운 력사와 결별하고 민족적 리익을 지키자면 동족끼리 서로 승벽내기를 할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며 통일을 위하여 힘을 합쳐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또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표명한바와 같이 군사적 대결상태는 쌍방이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는 요인으로 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신뢰하고 화해하자면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방대한 무력을 대치시켜놓고 민족참화를 가져올 전쟁요인을 그대로 둘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실 용의를 가져야 하며 북남사이에 서로 침략하지 않을것을 확약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은 현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높이고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그 리행이 담보될수 있을것입니다.

오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적 립장에만 선다면 누구와도 함께 손잡고 나라의 통일에 유익한 일을 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립장을 진실하게 보인다면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단체 및 재야의 각계 인사들은 물론, 집권자들과도 인민들의 의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아무때나 만나 대화를 할것이며 모든 사람들과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집체적으로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것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남조선내부형편으로 보나 북남관계로 보나 1988년도가 가장 긴장하고 복잡한 시기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사람들이 주시하고있는 올해의 조선반도정세를 결정적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올해안으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다국적 군축회담을 마련하

는 문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문제,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이 시급히 협의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과 남은 이상의 몇가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합니다. 북남련석회의가 마련되면 북과 남의 격페상태를 마스고 온 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의 관계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미국이 오늘까지도 3자회담을 회피하면서 남조선을 계속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있는것은 그들이 세계평화는 물론, 지역문제조차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공정한 립장에서 말한다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있지 않는 우리와 대치하여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곳을 핵기지로 만들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들이 다른 사회주의나라를 겨냥하고있는것이라면 그들은 쏘련과 핵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한 오늘에 와서 마땅히 남조선에서도 핵무기를 철거하여야 할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서로 좋지 못한 과거의 력사를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추세에 맞게 조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모든 조선사람들이 한결같이 성스러운 민족적 위업 실현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지난해에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가 더욱 튼튼하여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이 강화되였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새해의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현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입니다.

얼마전에 쏘련과 미국사이에 체결된 일부 핵무기를 철페할데 대한 조약은 전반적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에서 의의있는 출발점으로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조

선에 미국의 방대한 핵무기가 전개되여있는것으로 하여 항시적으로 핵참화의 위협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은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며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근본원인은 의연히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에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확대강화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버리지 않고 계속 군비확장과 군비경쟁에 매달리고있으며 신식민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적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날로 우심해지고있으며 그것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줄뿐아니라 제국주의나라들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를 군사화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며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데로 나감으로써 인류공동의 번영을 지향하는 력사의 기본흐름에 역행하고있으며 나라들사이에 불화를 조성하고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과 피압박인민들이 완전한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고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며 불공평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남남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적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거창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이며 그것은 언제나 당에 충실하여온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영웅적 위훈에로 부르고있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우리는 력사적인 1987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1988년을 맞이한다.

1987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5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기념한 매우 뜻깊은 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전당과 온 사회가 높은 혁명적 열정으로 들끓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다.

우리 당은 지난해에 기간공업부문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것을 경제건설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본건설에 힘을 집중하였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한 군인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협산준령에 100리 물길굴을 뚫는 어려운 공사를 수행하고 방대한 규모의 송원언제 1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태천발전소 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은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마침내 첫 카바이드로에 불을 지필수 있게 하였다. 청년건설자들은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길 전구간의 시설물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250여리 구간의 철길을 개통하였으며 광복거리 건설자들은 대규모의 어렵고 복잡한 건설공사를 빠른 속도로 힘있게 추진시켰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참으로 지난해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진군길에서 또하나의 빛나는 승리를 아로새긴 뜻깊은 한해였다.

우리 인민의 당면한 투쟁목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인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74페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력사발전단계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사회발전행정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전략적 목표이다.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나갔으며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뒤떨어진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의 잔재가 극히 부분적인 요소로 되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간개조사업에

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발전하였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 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수령, 당, 대중이 굳게 통일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의 튼튼한 담보가 있다.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재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려면 아직도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의 질적상태를 한단계 높여야 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를 극복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여야 하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순간의 답보와 사소한 침체도 허용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것은 우리 사회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제기되는 합법칙적 요구이다.

사회주의는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전진하는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사회주의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근로자들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주동적으로 활동하고있다. 또한 국가가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동원리용한다.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가지고있는 거대한 잠재력과 우월성이 저절로 발양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것을 발양시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직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사회제도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능숙한 관리운영능력을 소유하였을 때 비로소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남김없이 발휘될수 있는것이다. 력사적 경험은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의 향도자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사회주의가 사소한 답보와 침체도 모르고 상승의 한길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다그쳐나가는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일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지향은 목적의식성을 띤 그들의 생활적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가 사람들의 굳센 의지와 결합될 때 그것은 참말로 강렬한것으로 된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은 지난날에 겪은 쓰라린 처지를 되풀이하지 않고 남보다 먼저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오려는 굳은 각오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졌던탓으로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을 여지없이 짓밟히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왔다. 그러하던 우리 인민이 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겨레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며 혁명의 향도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잃었던 조국을 되찾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나갈 때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빛나게 수행하고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진군길을 다그쳐 남보다 빨리 달려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한결같은 념원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을 구현해나가는 전진과정에 발휘된 투쟁기풍에 기초하고있다.

참다운 지향은 튼튼한 생활적 바탕을 가지고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은 주체위업수행을 위한 수십년동안의 간고한 투쟁과정에 공고화되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와 속도전의 영광스러운 년대기는 우리 인민이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 기개로 빛나고있다. 이 시기에 우리 인민은 높은 민족적 자부심과 혁명적 긍지를 안고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올려세우며 공산주의에로의 진군길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디디는 기세로 전진하였던것이다. 이 과정에 굽임없이 혁신하고 굽임없이 전진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 특성으로,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로 고착되고 체질화되게 되였다. 이러한 투쟁정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진군운동을 더욱더 다그쳐나가려는 숭고한 지향이 우리 인민들속에서 굳어지게 되였던것이다.

이렇듯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진군속도를 다그치는것은 우리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맞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진군속도를 더욱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중심적인 과업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4페지)

사회주의건설의 올해 과업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과업이다. 올해 과업을 잘 수행하는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진행하고있는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서두수발전소 3단계공사를 상반년안으로 끝내며 금강산발전소, 녕원발전소, 희천발전소, 남강발전소, 금야강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안주지구, 순천지구, 북부지구를 비롯하여 매장량이 많은 여러 지구의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탄광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을 훨씬 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단계확장공사를 1.4분기안으로 끝내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200만톤 능력의 새 강철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당면해서는 1,000만톤, 전망적으로는 1,500만톤 능력의 현대적인 대규모철정광생산기지로 꾸리는 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힘을 넣어야 할 중심고리의 하나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과 모든 건설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영웅적 투쟁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건설공사를 제때에 질적으로끝냄으로써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 건설을 담당한 건설자들은 건설기일을 앞당기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도시로 전변시켜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에 큰 힘을 넣어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은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생산에 수송을 따라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현시기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철도를 전기화, 중량화하는것이다. 아직 전기화되지 못한 구간의 전기화를 마저 끝내며 8축전기기관차와 100톤화차를 많이 생산하여 철도의 중량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강령이며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우리는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뜨락또르, 자동차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현대적 농기계들과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기 위한 50만정보의 분수식 발관개건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늘이는것이 중요하다.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하여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한다.

올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앞에 맡겨진 가장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진군운동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간고하고도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는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는데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는 결정적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의 령도는 각급 당조직들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온갖 진군운동은 당조직들의 지도밑에서만 힘있게 그리고 실속있게 벌어질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몸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모든 진군운동의 생명력은 인민대중의 준비정도, 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

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인민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기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할수 없다. 이것은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의하여 증명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주체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적 수령관이 서고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수령, 당, 대중이 굳게 통일단결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게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혁명의 주체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똑똑히 알고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진군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생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것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당조직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구현하여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중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일군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일을 책임적으로 해제낄것을 바라고있다. 당조직들은 우리 일군들이 당풍을 튼튼히 세우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어깨를 들이밀며 제기된 혁명과업에 자신심을 가지고 대하며 모든것을 제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가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진군운동을 다그쳐 이 땅에 남보다 먼저 공산주의 미래를 앞당겨오려는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의도이며 우리 인민의 념원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이르는곳마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올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야 할것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김 형 일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밝히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는것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혁명의 주체에 대한 심오한 과학리론적 해명을 주시였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는 사상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주체에 대한 리해와 직접 련관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합니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요구에 따라 자기 힘으로 사회력사적 운동을 떠밀어나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통일체를 이룬 인민대중이 바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자주적인 주체로 된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적으로 발전하는 존재이다. 인민대중의 본질적 속성을 이루는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회력사적으로 발전하는것이며 인민대중의 사회적 결합도 력사적으로 변화발전한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오래동안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하였고 창조적 힘, 특히 사회를 개조하는 힘이 약하였으며 통일단결된 정치적 력량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력사를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담당자이면서도 소수 지배계급의 억압을 받아왔으며 자기 요구대로 력사를 전진시킬수 없었다.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그의 계급적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인민대중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룰수 있게 되였다.

로동계급은 자주성, 창조성이 가장 높고 조직성과 단결력이 강한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가운데서 핵심을 이루며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혁명적 능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립장에서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그와 관련된 리해관계를 반영한 혁명사상이 마련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통일단결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출현

하였다고 하여 인민대중이 곧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로동계급도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던 동안에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된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지 못하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밑에서만이 당이 조직되고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선봉적 정치조직인 당이 있어야 계급,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가 실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출현하여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내놓고 그것으로 무장한 선각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결속함으로써 당이 나오게 되며 당이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할 때 그들이 자주적인 주체로 결합되게 된다. 이 과정에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형성되는것이며 이 공고한 통일체가 다름아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주체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결속됨으로써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수령, 당, 대중이 통일되여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은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특출한 역할을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라고 하는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때문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8~19페지)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육체적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인간의 사회적 집단, 인민대중이 가지게 된다. 인간의 사회적 집단만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지만 온갖 사회적 집단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인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될 때 비로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수령, 당, 대중이 결합되여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다.

자주적인 생명력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니게 되며 자주적인 생명력에 의하여 사회정치생활이 보장된다. 따라서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져야 사람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수 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당의 두리에 결속된 인민대중이 가지는 자주적인 생명력은 영생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지니는 생명력은 그들의 조직화수준이 높아지는데 상응하게 그리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강화발전하는데 맞게 발전한다. 자주적인 생명력은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결합될 때 질적으로 새로운것으로 되며 전면적으로 발양되고 끝없이 발전하게 된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

수령의 령도밑에 당의 두리에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은 영생하는 자주적 생명력을 가진 영구불멸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된다.

수령, 당, 대중이 결합되여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은 최고뇌수의 지위를 차지한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인것으로 하여 이 생명체의 최고뇌수로 된다.

통일적 지휘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나선다.

사회적 집단은 개별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지지만 그들의 기계적인 집합체가 아니라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전일체이다. 사회적 집단은 개별적 사람들의 생활적 요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집단적 요구를 가지며 개별적인 사람들의 생활력을 기계적으로 합친것보다 비할바없이 위력한 집단적 생활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은 집단적 요구를 집단적 생활력으로 실현해나가는 집단적 활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은 통일적인 지휘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집단을 이루는 개별적 성원들의 생활적 요구와 생활능력이 같지 않기때문이다. 만일 통일적 지휘가 보장되지 않아 사람들마다 제각기 자기의 요구를 내세우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사회적 집단은 사람들의 리해관계의 충돌로 말미암아 혼란상태에 빠져 집단생활이 진행될수 없게 될것이다.

물론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결합된 인민대중을 이루는 성원들사이에서는 근본적인 리해관계의 대립은 없으며 동지적 단결과 협조의 관계가 맺어진다. 그러나 그들사이에는 구체적인 생활적 요구가 다르며 능력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통일적 지휘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보장하는데서 필수적 요구로 나선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에 대한 통일적 지휘가 보장되려면 하나의 지휘중심이 있어야 한다. 통일적 지휘는 중심에 의하여 진행되며 중심은 하나만이 있어야 한다. 지휘중심이 여러개로 갈리우면 집단의 통일적인 공동행동이 불가능한것이다.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생명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유일적인 지휘중심이 바로 수령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그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게 되는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과 마찬가지이다. 뇌수는 유기체를 이루는 각이한 기관, 조직들의 작용을 통일적으로 관할함으로써 유기체의 전일성을 보장하며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중심은 수령이다. 그렇기때문에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고 한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령도의 중심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활동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무엇보다도 집단자체의 통일이 보장되여야 한다.

통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집단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집단의 생명활동이 제대로 보장될수 없게 된다. 인민대중이 하나의 통일체에 결속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며 하나의 정치적 생명체를 이룸으로써 생명활동, 운명개척을 위한 활동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된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지 못한것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의 통일체로 결속되지 못하고 분산되여있었던것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의 통일은 그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의 통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 종합하여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지도록 통일시키는것은 최고뇌수인 수령만이 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면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될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려야 한다. 인민대중은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인민대중이 창조적 활동을 올바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려면 통일적인

목표를 내세울수 있게 되여야 하며 그것을 달성할수 있도록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이 통일적으로 작용할수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이 거대한 창조적 힘을 가지고있지만 뚜렷한 행동목표를 가지지 못하거나 또 목표가 뚜렷하다 하며라도 그 방향으로 창조적 힘이 통일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달성할수 없으며 자기 운명을 제대로 개척해나갈수도 없다. 인민대중에게 행동목표를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창조적 힘이 통일적으로 작용하게 하는것은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수령의 역할은 수령의 지위에 의하여 규정된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것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 그 실현방도를 밝혀주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마련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을 위한 활동의 앞길을 명시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적으로 단합시키며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을 건설하고 인민대중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시킨다. 그리하여 수령은 인민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된 자주적인 주체로 만든다.

수령은 인민대중이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자기 운명을 옳바로 개척해나가도록 령도한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면 통일단결된 주체를 이룰뿐아니라 주체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을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한다. 그리하여 수령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우여곡절없이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이끌어나간다.

수령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것만큼 수령과 인민대중을 분리시켜서는 안된다.

수령을 떠나서 대중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수 없는것처럼 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없다. 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수령이 아니라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과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에 결합된 수령은 결코 개인이 아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이고 최고뇌수이다.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서와 수령의 지휘기능이 마비되면 자주적인 주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통일이 파괴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 정지되게 된다.

수령의 역할과 인민대중의 역할도 결코 별개의것이 아니다. 수령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수령이다. 대중을 떠난 수령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역할을 떠난 수령의 역할이란 있을수 없다. 수령의 역할과 대중의 역할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수령의 역할은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주체로 키우고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령도적 역할인것이다.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항구적이다.

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투쟁이 발전하는것과 함께 굽임없이 계승되고 발전

한다.

인민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서만 자주적인 주체를 이룰수 있고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자기 운명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이 자주적 주체를 이루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자면 언제나 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이 옳바로 보장되여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져 주체가 강화될수 있으며 주체의 역할이 높아질수 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투쟁이 심화발전될수록 주체의 통일단결이 더욱 확대강화되고 그 역할이 높아지게 된다.

수령을 최고뇌수로 하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해명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인류사상발전과 인간해방위업에 이바지한 불멸의 력사적 공적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수령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 최고뇌수라는것이 해명됨으로써 력사의 주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지고 혁명적 수령관이 완성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력사의 주체를 보는 주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확립됨으로써 사회력사관이 더욱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참으로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통일단결된 강력한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시게 됨으로써 지난날 자주성을 잃고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은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을 가지고 자주적인 주체를 이룰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선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의 전통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자주위업실현에로 향도하는 전위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대진군운동을 진두지휘하고계신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방대하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한다.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려면 일찌기 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 또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 우리 당의 단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전당과 온 사회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온 사회의 통일단결을 확고부동한것으로, 불패의것으로 만드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겨 나갈수 있는 기본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

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결합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사람들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결합시키는것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것만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충실성에서 가장 숭고하게 표현된다.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는 개인들사이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작용하지만 그 어느 개별적 성원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 될수 없기때문에 그들사이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절대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있는것만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된다.

우리는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여 그것을 무조건 관철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도록 교양하는데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리론,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킬 때 그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새롭게 밝히신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는 사상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며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자주의 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보다 휘황한 전망이 펼쳐져있는것이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 령도방법

최 문 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가장 옳바로 해결하게 하는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의 전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과학적인 령도예술의 빛나는 귀감이다.

실생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일군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대중지도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에는 주체사상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밖에 그 어떤 다른 대중지도 사상과 방법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것이다.

* *

대중령도방법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대중령도방법을 가져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혁명과 건설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력사적 경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인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끊임없이 높일수 있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경제관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중지도 사상과 방법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구현하시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대중령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들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사업방법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85페지)

령도방법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지도사상을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령도방법의 본질과 특징 그 과학성과 혁명성은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 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적인 지도사상,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령도방법을 세울수 없다. 령도방법은 오직 옳바른 세계관에 기초하여 세워질 때에만 가장 우월한것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철학적 원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을 확립할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을 벌리게 되는 근본목적은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주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은 마땅히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사업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의 지위에 놓고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옳은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을 가져야만 가장 인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을 세울수 있다. 반대로 인민대중을 멸시하는 낡은 반동적 관점에 기초할 때에는 군중우에 올라앉아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통치계급의 사업방법이 나오게 된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체의 혁명원리에 기초함으로써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에 기초한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을 구현할수 있게 한다.

청산리방법은 특히 주체사상의 요구를 옳게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대중지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의식화, 조직화되지 못한 인민대중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적 역할을 다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하며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한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인민대중은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고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바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강화하고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인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가장 우월한 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

인 힘있는 존재로 키울수 있게 하는 사업방법이라는데 있다.

령도방법이 참다운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사업방법이며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며 군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는 혁명적 사업방법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단행본, 29페지)

공산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가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 요구로 된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늘 군중이 살고 일하는 아래에 내려가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 때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남김없이 조직동원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이 언제나 군중들이 살며 일하는 아래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그들의 창조적 힘을 발동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고상한 인민적 풍모와 탁월한 령도력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인민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목적과 활동 원칙, 방법이 담겨져있는 가장 우월한 대중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은 이와 함께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힘있는 령도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것은 대중지도의 중요한 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이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이 공산주의적으로 개조되였다고 하여도 사회의 주인인 사람, 근로인민대중 자체가 공산주의적으로 개조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 사회가 완전히 건설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 공산주의건설에 대한 령도에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내세우고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바로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교양

하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일깨워주어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우월한 대중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격식과 틀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언제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대하고 풀어나가는것은 원래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 요구이다.

공산주의운동은 온갖 낡은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운동이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은 각이한 시대적 조건과 구체적 환경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다 들어맞는 처방이란 있을수 없으며 모든것을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구체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성리론이나 남의 경험에만 매달려 일한다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격식에 맞추어 천편일률식으로 진행하는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을 없애고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구체적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생동하고 창조적인 사업방법이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이 언제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고리를 가장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생동하고 참신한 방도를 굴임없이 창조해나가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실천적 경험에 의거함으로써 주관주의를 없애고 모든 문제해결의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길을 찾아낼수 있게 한다. 따라서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대중지도에서 언제나 창조성과 과학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대중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이다.

혁명실천을 통하여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에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사업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고 그 본질과 내용, 력사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전당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당안에 남아있던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탁월한 방침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와 아래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조건에서 도와주는 사업체계, 당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할데 대한 방침 등을 제시하고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다른 모든 당조직들과 마찬가지로 황해북도안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

어나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와 연탄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당이 새워준 정연한 당사업체계에 따라 생기발랄하게 움직이고있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도안의 당조직들의 전투력은 한층 더 높아지고있다.

이와 함께 오늘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당 및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철저히 제도화, 습성화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내려가면 직장과 작업반, 분조에까지 들어가 정치사업도 하고 군중과 함께 걸린 고리를 풀기 위한 대책도 세우며 군중의 좋은 발기들을 존중하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게 적극 도와줌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오늘 우리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옹호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확고한 결의로 가득차있다.

우리 당 사업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명적 전환,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사회주의건설에서의 거대한 전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승리이며 전당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공화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성스러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대중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을 확고히 구현해나가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위대한 주체사상만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우리 식의 우월한 대중령도방법인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기본전략적 로선

김 철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특징과 그 완성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가장 혁명적인 공산주의건설리론이다.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과학성이 확증되고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굽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다. 우리 혁명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오직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로동계급의 당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적 로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로선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1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무엇을 전략적 로선으로 규정하고 관철해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이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변함없이 전진시켜나가자면 전략적 로선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이 심화발전하고 정세가 복잡하여도 아무런 편향이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 로선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발전의 단계와 내용, 그 실현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힌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전략적 로선으로 된다.

3대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전략적 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로선은 소여 혁명단계에서 혁명의 기본내용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혁명단계의 전기간에 걸쳐 견지하는 일반적인 투쟁방침을 제시한다. 그런것만큼 전략적 로선은 해당 혁명단계에서 진행되게 되는 혁명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혁명의 성격과 내용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주되는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그들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낡은 사회제도를 없애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할 때까지는 인민대중이 낡은 사회제도를 변혁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실현된 다음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전면에 나선다.

물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이다. 그러나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선차적 요구로,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전면에 나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에는 3대혁명이 주로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의 청산과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면 혁명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 자신이 선택한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이 제도상으로 담보되며 그들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실현된다. 여기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혁명과업은 제기되지만 사회제도자체를 교체할데 대한 과업은 제기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실현된다는 것은 결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며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이 전면에 나선다. 이 력사적 과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하에서 3대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진행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문화적 락후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들가운데서 사람자체가 가지고있는 요인이다. 사람은 사회의 주인인것만큼 사람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온갖 낡은 사상과 문화적 락후성에서 벗어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은 사상혁명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며 문화혁명을 다그쳐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만들어야 해결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물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은 기술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기술혁명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기술적 락후성을 없애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를 증진시키며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물질적 수요의 충족을 저애하는 요인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기술적 락후성에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기술적 락후성을 없애고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물질생활과 로동생활분야에서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있다.

이처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사상정신생활과 물질문화생활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킨다.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과 창조적 능력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공고발전되며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을 물질적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쳐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문화적 락후성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기술혁명을 벌려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이다.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 협동적 소유가 있게 되는것은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에 있다.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만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 사업이 3대혁명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진행되게 되며 이것으로 하여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3대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전략로선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기본전략로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라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기본전략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견지되는 로선이여야 한다. 만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일정한 시기, 일정한 단계에서만 견지되는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전략로선으로 될수 없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인것으로 하여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게 되는 전략적 로선으로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업이라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인것으로 하여 인류의 최고리상으로 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최종목적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실현된 다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3대혁명과업이 기본혁명과업으로 전면에 나서지만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여도 그 혁명과업은 완수되지 못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착취사회에서 오랜 기간 뿌리깊이 박혀 내려온 낡은 사상 잔재는 매우 집요하며 보수적이다.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인 낡은 사상 잔재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상혁명의 과업은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여도 수요에 의한 분배가 실현되지 못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도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과 창조적 능력을 높여나가며 생산력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만 해결되게 된다.

만일 사회제도의 교체만을 혁명으로 보고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혁명의 완성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최종목적을 이룩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라는것이 해명됨으로써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과 문화,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벗어나 자기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는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3대혁명로선의 제시,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 립장의 천명이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올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292페지)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걸이 밀고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우리 당이 3대혁명수행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한것은 사람의 사상의식개조의 특성과 사상의식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것이다.

인간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은 그들의 물질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다. 사람의 사상의식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이 변한다고 하여 저절로 개변되는것이 아니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야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해나가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서 나서는 그 어떤 과업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 열

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만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상혁명을 앞세운다고 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는것은 잘못이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사상혁명도 더 잘 수행해나갈수 있다. 여기로부터 우리 당은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그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통일적 과정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적극 밀고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운동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혁명적 령도의 기본요구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정확히 령도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적극 의거하고 대중의 창조적 힘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대중운동을 적극 조직진행함으로써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특히 우리 혁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 올라선 시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고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이 발기하고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전인민적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와 혁명적 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는 대중운동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 빨리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집단적 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속도전과 사상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 사상개조운동이며 인민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개조운동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그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중적 문화개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적 특징으로 하여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방도가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이 운동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한 3대혁명전반에 대한 당의 통일적 령도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3대혁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고 힘있게 벌려나간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구현한 현대적인 혁명지도방법이며 3대혁명에 대한 지도를 통일적으로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실현하는 과학적인 지도방법이다. 이 운동은 정치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 위력한 대중지도방법이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으며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의 의도에 맞게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과 기본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고 관철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는 일대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 주체의 혁명위업은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혁명의 정치적 력량은 더욱 튼튼히 마련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되여 오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은 기술혁명을 추진시켜 기술경제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나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모든 새 세대들이 완전한 중등교육을 받고있으며 고등교육이 발전하여 나라의 믿음직한 인테리대군이 육성되였다.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과학과 문학예술, 보건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이라는것을 다시금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튼튼히 키우고 사회의 전반적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리는것은 3대혁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3대혁명수행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와 향토애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

안 대 식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깊이 심어주는것은 당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에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향토애, 조국애를 철저히 지니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주체사상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향토애, 조국애를 심어주는것입니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향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그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땅과 조국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간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의 하나는 자기의 조국과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것이다.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있는 사람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자기의 향토에서 생활한다. 조국과 향토는 인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행복의 요람이다. 참된 삶과 행복은 정든 고향과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펴난다. 조국은 인민대중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는 위대한 품이며 고향산천은 누구나 생을 처음으로 받아안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보람찬 생활을 시작한 잊을수 없는고장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고향처럼 정답고 친근한고장은 없다. 그러므로 참된 사회적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고향과 조국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것으로 여기면서 열렬히 사랑한다.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초보적인 풍모도 갖추었다고 말할수 없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남달리 애국애족의 감정이 강하고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였다. 그들은 대대손손 태를 묻고 살아온 강토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피땀으로 걸구어왔으며 조국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애국의 기개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지난날의 모든 애국주의와 향토애는 력사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면할수 없었다. 착취사회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보장하는 진정한 조국이 있을수 없었으며 따라서 애국주의와 향토애도 많은 경우에 지배계급의 리용물로 되여왔다. 인민대중의 참다운 애국주의는 곧 사회주의애국주의이며 향토애도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게 된다.

사회주의애국주의와 향토애는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나서자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이 사상감정은 사회주의조국과 향토를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지켜나가며 향토를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알뜰히 꾸리고 조국을 부강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발현된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단순한 민족애가 아니다. 그것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 찬란한 민족문화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인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하고 참된 애국주의로 된다.

사회주의애국주의와 향토애는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고향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향토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강토의 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향토애는 곧 사회주의조국애의 중요한 발현으로 되며 향토애가 자라나 고상한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이 형성되게 된다. 향토애를 떠나서는 사회주의애국주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향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와 향토애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로 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투쟁행정에서 높이 발휘되고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망국노의 쓰라린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자기의 강토와 언어, 력사와 문화를 비롯한 민족적인 모든것을 유린당하고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에 묶이여 기아와 빈궁속에 허덕이다 못해 정든 고향까지 등지고 살길을 찾아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 당시 우리 인민의 처지였다. 이 민족수난을 통하여 진정한 조국과 향토가 더없이 귀중함을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적 존엄을 되찾고 이 땅우에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결연히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정든 고향산천과 짓밟힌 겨레의 운명을 잊지 않도록 교양하시였으며 몸소 조국애와 향토애의 가장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는 고상한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의 깊고 억센 뿌리가 내리였으며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의 하나로 되였다.

우리 인민의 고상한 조국애와 향토애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조국의 촌토를 지켜낸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과 이 땅우에서 로동당시대를 빛내인 사회주의건설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였으며 오늘은 숨은 공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속 발양되고있다.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가 우리 인민들속에서 이처럼 년대와 년대를 이어 숭고한 높이에서 발양되고있는것은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의 높이는 중요하게 그들이 지니고있는 세계관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자기 조국과 자기 나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모든 귀중한 재부를 지키고 늘여나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한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자기 당과 자기 나라 혁명, 자기 조국과 자기 향토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있다. 우리

인민은 조국의 운명을 언제나 자기자신의 운명과 련결시키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과 고향산천을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가는데서 삶의 보람과 영예를 찾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가 그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하여 생겨난것이 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는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과 직접 잇닿아있음으로 하여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고있다.

고상한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을 할 때에만 참다운 사회주의조국을 가질수 있으며 자기 향토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품은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이며 우리 당의 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앞길을 밝혀주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나라를 위력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였으며 조국땅우에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 꽃피는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떠나서는 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고향산천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과 당의 품을 떠나서는 조국의 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굳게 확신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는 가장 숭고하고 뜨거운것으로 되고있으며 날을 따라 계속 높이 발양되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는 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로 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가 높이 발양됨에 따라 우리 조국은 더욱 부강번영하고있으며 나라의 면모는 새롭게 변모되고있다.

우리 운흥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들의 행복한 삶이 꽃피난 성스러운 사회주의조국땅의 한 부분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영광의 땅에서 사는 운흥군 인민들의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은 매우 높으며 향토애 또한 뜨겁고도 열렬하다.

운흥군 인민들은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높이 발휘하여 자기고장을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나가고있으며 조국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향토를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키려는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림업과 채굴업이 있을뿐 가공공업이란 전혀 없던 운흥땅에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화전민들이 부대기농사나 짓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고 해발 1,000여메터를 헤아리는 덕지대들에도 농산과 축산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을 다 갖춘 발전된 고지대농업이 창설되였다. 또한 지난날

몇채의 쓰러져가는 귀틀집밖에 없던 대덕리를 비롯한 이르는곳마다에 세대별로 수도와 목욕탕까지 갖추고 갖가지 가구들을 일식으로 들여놓은 문화주택들이 그쯘히 일떠서 군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 뜨거운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는 자력갱생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양시켜 동포리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소형발전소를 훌륭하게 일떠세웠으며 모든 농촌리들에서 탈곡장을 비롯한 생산시설들을 알뜰히 꾸려놓았다.

운흥군 인민들의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는 날로 그 대렬이 확대되고있는 숨은 공로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투쟁성과를 통하여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군안의 숨은 공로자들속에는 지방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법랑철기와 유리를 생산하는 공정을 꾸린것을 비롯하여 30여년간에 수많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해마다 국가에 수십만원의 리익을 주고있는 기술자도 있으며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들의 집수리를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대중의 뜨거운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고있는 도시경영사업소의 로동자도 있다. 이들속에는 또한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거창하게 벌어지고있는 대건설전투의 후방초소에 서있는 심정으로 전투원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사업에서 특출한 모범을 보이고있는 가정부인도 있으며 이신작칙하면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고나가는 당세포비서, 리당비서들도 굳건히 서있다.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살며 일하는 고장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고상한 정신은 우리 당이 지펴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국영운흥농장의 여러 농산작업반들을 비롯하여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들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 향토를 알뜰히 꾸리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생동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이 모든것은 운흥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 수령관이 튼튼히 서있으며 그들모두가 고상한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방대한 과업을 안팎의 정세가 매우 복잡한 속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미제와 그 주구들은 우리 공화국의 위력이 강화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앙양되는데 질겁하여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있으며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 참된 애국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이다.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며 높은 민족자주의식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민족자주의식은 자기의 조국강토와 고향산천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속에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수 있으며

위력한 주체적 혁명력량에 튼튼히 의거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더욱 깊이 심어주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여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의 바탕에는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이 제일이라는 높은 민족적 자존심이 놓여있다. 자기 민족을 깔보며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의 조국과 향토를 사랑할수 없으며 결국은 자기 당과 혁명에 충실할수도 없다. 사람들은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자존심을 가져야 높은 애국적 헌신성과 혁명적열정을 발휘할수 있으며 주인다운 립장에서서 향토를 알뜰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칠수 있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철저히 지니도록 하려면 그들모두가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처럼 민족의 위대성도 무엇보다 그 민족의 지도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 가장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그 이름을 높이 떨치게 되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륭성번영하는 우리 인민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수령님의 혁명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시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살며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는 매일매시각의 실천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산 감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과 향토애를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은 마땅히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그 교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를 더욱 높일수 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임무수행에 충실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조국애와 향토애는 중요하게 혁명임무수행에서 나타난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의 혁명임무수행과정은 곧 그들의 가장 중요한 혁명적 실천활동과정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맡은 혁명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는 사람이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모두가 높은 혁명적 자각과 애국적 열의를 가지고 자기의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며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향토를 더 잘 꾸리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건설분야에서는 당면하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이 숭고한 애국적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말겨진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모든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절약하면서 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또한 그들모두가 자기 향토, 자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도록 이끌어주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는 자기 조국과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땅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것이기에 조국과 향토를 등지고 살수 없다는 사상감정이며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 조국, 자기 향토와 운명을 같이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의지이다. 우리는 자기의 진정한 조국을 가지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과 오늘 당과 수령의 은덕에 의하여 마련된 행복한 생활을 대비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조국애, 향토애를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그들모두가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향토를 더 잘 꾸리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조국과 향토를 목숨으로 지켜나가도록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이처럼 실천과 결부시켜 교양사업을 심화시킬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향토와 조국에 대한 사랑이 체질적인것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은 정다운 고향과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견결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키워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더욱 키워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는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이 찾아내고 내세워준 숨은 공로자들은 누가 보건말건 오로지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쳐오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숨은 공로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와 실천적 모범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고 빛내이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 숨은 공로자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평가해주며 그들을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조국을 부강발전시키고 향토를 더욱 행복한 보금자리로 꾸리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숨은 공로자로 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상한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지니도록 교양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은 조국과 향토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혁명적 영화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최근년간에 창작된 《도라지꽃》, 《월미도》를 비롯한 혁명적 영화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청년들을 자기 고향과 자기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는 숭고한 사회주의조국애, 향토애로 교양하는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영화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도록 영화실효투쟁을 심화시킴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의 청년들이 조국과 향토를 귀중히 여기고 그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애국자, 참된 혁명가로 키우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조국애와 향토애를 키워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사업기풍

김 시 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온 나라가 앙양된 정치적 분위기로 들끓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 대고조가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 분발해나설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혁명적 사업기풍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실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립장과 태도와 관련된 문제이며 모든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어떤 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여야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한다는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여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완강하게 돌진하며 마른일, 궂은일 가리지 않고 남먼저 몸을 내대면서 물불을 가림이 없이 헌신분투한다는것을 말한다.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혁명적 사업기풍을 지니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어렵고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혁명이 전진하고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기마련이다. 이러한 애로와 난관은 어디까지나 전진도상에서 생기게 되는 일시적인것이며 그것은 오직 굴함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수 있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승리와 성과는 련이어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달성되며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지도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매우 중요한 작용과 역할을 하게 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승리와 성과는 위대한 수령, 탁월한 지도자의 령도와 그 령도를 받들고 실현해나가는 충직한 전사들, 혁명의 지휘성원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룩되게 된다.

혁명을 전진시키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일군들의 투쟁기풍, 사업기풍에서 중요한것은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실천적 모범을 보이면서 광범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 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

다. 무슨 일에서나 책임진 일군들이 앞장에 나서고 모범이 되면 대중은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되며 일에서 성수를 내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지도일군들은 늘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먼저 발벗고나서야 한다. 군중은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면 지도일군들의 얼굴부터 쳐다보게 되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본다. 만일 지도일군들이 힘든 일에 투신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발벗고나서지 않으면 군중도 사기를 잃고 주저앉게 된다. 그러나 지도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몸을 적시면서 투신하면 대중은 거기에 고무되여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며 높은 열의와 앙양된 기세로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게 된다.

이것은 지도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것이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일군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위업을 완성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로 삼고있다.

우리 당은 일군들이 주체위업의 완성에 더 잘 이바지할것을 굳게 믿고 일군들에게 혁명의 중요한 초소를 맡겨주었으며 그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이 일군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준 여기에는 혁명과 건설의 매개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것을 바라는 크나큰 믿음이 깃들어있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당의 크나큰 신임을 받으면서 혁명의 중요한 초소에서 일하고있는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다해나가자면 자기 수령, 자기 당이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혁명적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간부들에 의하여 그 집행이 조직되고 포치되며 장악되고 지도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 집행대책이 옳게 세워진 다음 그것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어떤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혁명가의 삶의 가치와 보람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한다고 말할수 없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와 보람은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서가 아니라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다 발휘하여 투신하는데 있다.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지 않고 말만 하여서는 전사의 의무를 수행할수 없고 지도일군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당의 전사,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각오와 결심이 확고한 일군은 빈말이 아니라 헌신적인 실천으로 당정책을 관철하고 혁명임무를 수행해나간다. 말이나 결치레로서가 아니라 무한한 희생성과 적극적인 실천투쟁으로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팀이나 순간의 지체도 없이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몸을 적시면서 뛰고 또 뛰는 사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성과적 실현에 실

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영예는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서 몸을 내대고 투신하는 이악하고도 헌신적인 투쟁속에서 빛나게 된다.

참으로 일군들이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숭고한 사명감과 주체위업의 실현에 더 잘 이바지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면서 투신하는 바로 여기에 당과 수령이 맡겨준 영예로운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참된 길이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지금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려는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전례없는 규모에서 거창하게 벌어지고있는 건설사업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 수행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다. 아름찬 과업이 련이어 나서고 대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거창한 진군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일군들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과 혁명 앞에 어려운 일이 제기되였을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난관을 갖받아 돌진하며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것이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 투쟁기풍이며 전투적 일본새이다. 현실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어깨를 들이밀고 실천적 모범을 보이는 단위들에서는 례외없이 안되는 일, 안풀리는 문제가 없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여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돌격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앞장에서 과감히 극복하면서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줄 알아야 하며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 발벗고나서야 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혁명적 자각을 가지는것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혁명적 사업기풍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선차적 과업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 자각은 우리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근본열쇠이며 혁명과업수행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영웅주의를 낳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혁명투쟁과정에서 발현되는 사람들의 헌신성과 투신력은 그들이 지닌 충실성의 열도와 혁명적 자각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일군들이 얼마나 완강한 투신력을 가지고 사업을 조직하고 내미는가 하는것은 충실성과 혁명적 자각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충실성이 높고 혁명적 자각이 투철한 사람만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슴없이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할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은 참다운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다. 혁명가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 특질은 혁명적 수령관을 근본핵으로 하여 형성되며 그에 기초할 때 더 높이 발양되게 된다.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여도 혁명적 신념과 신조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되며 어떤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몸을 내대면서 투신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

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혁명적 수령관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지는 립장을 가지는것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주인다운 태도는 주체사상의 요구이며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투쟁해나가는 우리 일군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사업 태도이며 기풍이다. 주인다운 태도에는 자기 운명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적 각오와 일본새, 투쟁기풍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신하는가 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려는 립장과 태도가 얼마나 투철한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주인다운 자각이 높은 사람만이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으며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여도 주저함이 없이 자기 한몸을 내대고 헌신적으로 해제낄수 있다.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는것이다.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서는가 안서는가 하는것은 혁명가와 월급쟁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된다. 혁명가란 원래 개인을 희생하고 나선 사람이기때문에 자기를 보신할줄 모른다. 사업과정에 결함이 나타났을 때 또는 앞으로 결함이 나타날수도 있고 실패할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일군들이 책임지는 립장에 서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책임지는 립장에 서지 않는 일군들을 보면 혁명을 위해 투신할 생각보다 자기를 보신할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일하는 과정에 결함을 범하고 과오를 저지를수도 있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책임이 두려워 허물을 감추고 잘 보이기 위하여 요술을 피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과오를 범하고 비판을 받을가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지 않으면서 자리지킴이나 하고 눈치놀음을 하거나 일이 잘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에 밀고 아래에 밀면서 빠질 구멍만 찾는 요령주의적이며 보신주의적인 일본새가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난관이 조성되면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할 대신에 발뺌을 하면서 자기 몸부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는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고 경제건설도 추진시킬수 없다. 투신과 보신, 이것은 일군들의 희생성과 비겁성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할수 있다.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투신하는 사람은 혁명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여있는 사람이고 문제가 제기되면 발뺌을 하면서 보신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며 변질될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투신하면서 성실하게 일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배기혁명가인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답게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투신하는 참다운 실천가가 되여야 하며 사색하고 또 사색하고 뛰고 또 뛰는 정력적인 노력가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혁명적 사업기풍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적 열정과 패기에 넘쳐 일하는것이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게 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품성이다.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그것을 지체없이 받아들이고 관철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업태도, 헌신적인 일본새는 일군들이 얼마나 높은 열정과 패기,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정열에 불타고 패기에 넘쳐 일할 때 신심이 생기고 용기가 나게 되며 어떤 일에서도 두려움과 권태를 모르고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게 된다.

혁명투쟁도 열정과 기백이 있어야 하고 건설사업도 정열과 패기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리성만으로는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을 하자면 리성과 함께 불타는 심장을 가져야 하며 열정과 패기가 있어야 한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혁명을 전진시키고 건설사업을 추진시키는 힘의 원천으로 되며 위대한 창조와 성공의 열쇠로 된다.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투쟁의 기수들인 지도일군들은 누구보다도 더 높은 혁명적 열정과 패기를 가져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적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생기발랄하게 움직일수 있으며 온 사회에 약동하는 기백과 앙양된 혁명적 분위기가 차넘치고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게 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일이라면 불과 물 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그런 전투적 기백,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그런 불타는 정열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헌신분투하여야 한다.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혁명적 사업기풍을 지니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도일군들이 모든 일에서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자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에서나 모르고서는 시범을 창조할수 없으며 사업을 자신있게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다. 아는것이 힘이며 지식은 곧 창조적 능력이다. 알아야 주견도 생기고 배짱도 가질수 있다.

실력이 있는 일군들은 어떤 과업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도 주저하지 않으며 확고한 주견과 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시기 우리 당이 바라고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일군이란 바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려는 사상적 각오가 높고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도 능숙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휘관을 말한다. 지도일군들이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고 당정책과 경제관리지식, 현대과학기술도 더 잘 알아야 모든 사업에서 발언권을 가질수 있고 권위를 세울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항상 자기를 완성된 인간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자만과 답보를 모르고 투쟁하며 전진하는 혁명가답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리고 온갖 조건과 기회를 다 리용하여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높은 정치적 식견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실력있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우리 혁명과 건설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오늘 일군들에게 지워진 책임과 임무는 참으로 무거우며 일군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신임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신임과 기대에 높은 사업성과로 보답할 충성의 한마음안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혁명전통교양

주 용 세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은 다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진행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은 마땅히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맞게 진행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하여 밝히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문헌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전통의 본질과 지위, 그 형성발전의 합법칙성을 혁명의 주체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새롭게 밝히시고 혁명전통교양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5폐지)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의 력사적 뿌리,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 재부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으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의 피줄기, 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잇고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사상교양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혁명전통교양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이다. 혁명전통교양이나 주체사상교양은 다같이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것만큼 혁명전통교양은 철저히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의 모든 내용과 형식과 방법을 철저히 주체사상의 원리로 일관시키고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하여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복종시켜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

일체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결합되여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혁명의 주체는 자기의 력사적 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런것만큼 혁명의 주체는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하게 된다.

혁명의 주체가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력사적 뿌리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시기에 마련된다. 혁명의 수령은 혁명위업을 개척하기 위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결성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적으로 묶어 세운다. 수령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혁명의 주체가 형성된다.

혁명의 개척기에 형성된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혁명이 승리하고 전진하는 전 력사적 과정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야 한다.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는 혁명의 주체에 의하여 혁명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하게 되며 혁명위업이 전진하는 과정에 그 담당자인 혁명의 주체가 더욱 강화발전되여나간다. 혁명위업이 전진하는 과정에 혁명의 주체가 강화발전되고 강화발전된 혁명의 주체의 역할에 의하여 혁명위업이 더 빨리, 더 높은 단계에로 전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시기에 형성된 혁명의 주체가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강화발전하려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세대, 여러 혁명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인것으로 하여 그것을 추동하고 전진시켜나가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혁명단계들에서 노는 혁명의 주체의 역할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에 형성되고 강화발전된 혁명의 주체는 다음 단계의 혁명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혁명의 다음단계에서는 선행단계에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루어진 업적과 경험을 공고히 하고 확대발전시킴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혁명의 보다 큰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게 된다. 그리하여 혁명발전의 선행단계와 다음단계에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는 계승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각이한 혁명단계들에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계승성과 함께 일관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관성이 보장되여야 세대가 교체되고 혁명단계가 바뀌여도 유일한 혈통으로 련결된 위력한 혁명력량, 혁명의 강력한 주체에 의하여 혁명은 하나의 련속된 과정으로 줄기차게 계승발전되면서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 재부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혁명투쟁과정에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 가장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주체사상과 그 구현을 떠나서 주체의 혁명전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서 기본핵을 이루며 그 사상리론적 원천으로 되고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에

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의 생동한 모범이 담겨져있다. 이것은 혁명의 주체를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부로 되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의 선행단계에서 혁명선렬들이 발휘하였던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게 하여 그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력량, 혁명의 위력한 주체로 육성할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과정에서 창시하신 항일의 혁명전통과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나가는데서 이룩하신 업적과 경험 그리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나가시는 과정에 쌓아올리신 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되여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일심단결의 빛나는 전통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때문에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할 때만이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 혁명의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갈수 있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새로운 높은 차원에서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그리하여 주체의 혈통, 통일단결의 전통에 토대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이것은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힘있게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의 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도록 교양하는것이다.

일심단결의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도록 교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모범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자면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하고 그이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싸운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혁명의 초행길을 걸어오면서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손길밑에서 혁명의 진리를 배우며 혁명가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자기의 피끓는 심장과 청춘을 바쳤으며 꺼꾸러져 혁명은 더하

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군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켜나갔다. 만일 그들에게 자기를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념과 불굴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사선의 혈로를 헤치며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수 없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모범은 오늘도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만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우리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의 모든 고리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친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데 집중시킴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에 모신 우리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혁명전통에 구현되여있는 통일단결의 형성과 그 공고발전의 합법칙성을 똑똑히 알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여 혁명을 대를 이어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단결의 형성과 공고발전의 합법칙성을 똑바로 알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앞길을 개척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수령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을 이룩함으로써 대를 이어 공고발전하게 된다. 수령과 그 후계자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 통일단결을 이룩한 인민만이 혁명의 참다운 주체로 될수 있으며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변함없이 항구적인 혁명의 주체로 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벌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일심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심으로써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통일단결의 전통의 형성과 공고발전의 합법칙성을 똑똑히 알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이룩한 영광과 자랑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일심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신 조선혁명의 주체로서의 혁명적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참답게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전통교양을 보다 실속있게 짜고듦으로써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통일단결의 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혁명의 주체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하는 우리 당의 성격과 사명, 우리 혁명의 근본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한 방침이며 당사상교양사업에 대한 주체적 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귀중한 사상리론적 재부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수령과 당, 대중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당사상교양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활동방식이며 령도적 수완

강 정 석

령도예술을 확립하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옳바른 령도예술을 가지지 못하면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능란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가질 때에만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당이 옳바른 령도예술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당의 령도예술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정립하는것이다.

인식이 과학적 세계관 확립의 기초인것과 같이 당의 령도예술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가지는것은 일군들이 당의 령도예술을 소유하기 위한 출발적 전제로 된다. 령도예술의 전체계와 내용은 령도예술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다. 령도예술에 대한 옳은 리해가 밝혀져야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이 정확히 해명되게 되고 령도예술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할수 있으며 일군들이 그것을 깊이 체득하고 똑바로 지닐수 있다.

령도예술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집권한 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이 집권하게 되면 당앞에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높이 발양시켜 그들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옳바로 이끌어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가 나서게 된다. 그런데 로동계급의 당이 집권하면 혁명적 세계관과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소유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대중우에 군림하여 관료주의를 부리는 경향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하여 당이 대중으로부터 리탈되고 혁명의 전취물까지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이것은 령도예술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확립하는것이 리론실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이 제기한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령도방법, 령도예술에 관한 문제를 혁명사상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보시고 몸소 그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창조하시여 주체적인 령도예술의 원형을 마련하시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벌리는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맞게 그것을 발전풍부화시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몸소 창조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혁명적 사업방법을 총칭하여 부르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령도방법, 령도예술의 빛나는 구감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

식 사업방법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다 밝혀주고있는 로동계급의 당의 참된 사업방법의 집대성이며 혁명적 령도예술의 백과전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창조하신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혁명투쟁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당의 령도예술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령도적수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0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령도예술에 대한 정식화에는 서로 뗄수 없는 두 측면이 담겨져있다. 당의 령도예술에서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의 측면은 주로 당의 활동 규범과 질서에 관한 문제라면 령도적 수완의 측면은 주로 대중을 움직이는 일군들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은 당의 령도예술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이룬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의 활동방식이 령도예술의 근본요구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때문이다.

조직과 대중의 활동에서 분산성과 산만성, 자연발생성을 없애고 목적지향성과 통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당의 령도예술의 근본요구이다. 당은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정권과 근로단체를 비롯한 여러가지 정치조직들을 내오고 그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그들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간다. 당이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이러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조직과 대중의 요구를 하나의 공통된 요구로 통일시키고 그들의 힘을 합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통일시키고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활동규범과 질서이다. 당이 제정된 활동규범과 질서에 따라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야 그 활동에서 산만성과 분산성, 자연발생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목적지향성과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따라서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은 령도예술에서 중요한 측면을 이루게 된다.

령도적 수완은 당의 활동방식과 함께 당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측면의 다른 하나이다.

령도적 수완은 당이 조직과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능력과 솜씨, 묘술을 말한다. 당의 령도예술에서 당의 활동방식은 주로는 조직과 대중의 활동에서 통일성을 보장하는 객관적 기준에 관한 문제라는 의미에서 령도예술에서 객관적인 측면이라면 령도적 수완은 대중의 활동을 통일시키는 당의 능력과 솜씨라는 의미에서 령도예술에서 주체적인 측면이라고 말할수 있다. 객관적 측면과 주체적 측면이 통일되여 당의 령도예술을 이루는것만큼 령도적 수완을 떠나서 당의 령도예술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령도적 수완이 령도예술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것은 그것이 당의 활동규범과 질서에 따라 대중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서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데 있다. 당의 활동방식은 조직과 대중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활동규범과 질서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규정된 하나의 요구라

고 말할수 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사람의 요구의 실현정도가 그 힘의 준비정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과 같이 당의 활동규범과 질서의 요구대로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지휘하는 당의 통솔력과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데 의하여 좌우된다. 아무리 옳바른 활동규범과 질서가 세워져도 사람들을 지휘하는 솜씨와 능력이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당의 활동방식의 요구대로 대중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없다. 따라서 당의 령도예술에서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수완은 중요한 측면을 이루게 된다.

당의 령도예술을 이루는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은 밀접히 통일되여 있다.

당의 령도예술에서 당의 활동방식은 일군들의 지휘능력과 자질이 원만히 발휘되고 활용되게 하며 령도적 수완은 당의 활동방식이 실생활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도록 담보한다. 아무리 당의 활동방식을 정확히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군들의 원숙하고 능란한 지휘능력, 솜씨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사업과 생활에서 큰 은을 낼수 없다. 이처럼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은 밀접히 통일된 당의 령도예술의 두 측면을 이루고있다.

당의 령도예술을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으로 규정한것은 령도예술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정식화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의 령도예술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맞게 규정한데 있다.

당은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이다. 이것은 당이 대중과 그를 결속하고있는 여러가지 정치조직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이라는것을 말한다.

사회에는 여러가지 정치조직이 있다. 정권은 사회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행정을 맡아보는 주권기관이며 근로단체들은 자기 조직에 망라되여있는 성원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정치조직이다. 이러한 정치조직들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실현하는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의 당만이 모든 정치조직들과 그에 망라되여있는 대중의 정치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이끌어나간다. 바로 여기에 사회에서 정권기관이나 근로단체와 같은 정치조직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구별되는 당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이 있는것이다.

당의 령도예술은 당의 이러한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당의 령도예술에는 정치조직과 대중의 정치활동에서 목적지향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게 하는 당의 활동규범과 질서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령도적 수완을 담아야 하는것이다.

당의 령도예술을 사회에서 차지하는 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맞게 조직과 대중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으로 규정한데 우리 당이 밝힌 령도예술에 대한 정식화의 독창성이 있는것이다.

당의 령도예술을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으로 규정한것이 령도예술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정식화로 되는것은 또한 당사업의 특성에 맞게 규정한데 있다.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사람들이 뭉친 조직과의 사업이다. 이것은 당사업이 사람과 조직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움직이고 발동하는 사업이라는것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을 관할하는 보건사업이나 물건을 만들고 관리하는 경제사업과 구별되는 당사업의 특성이 있다.

조직과 대중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발동하는 당사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이끌어나가기 위한 당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질서와 제도를 세우고 그에 맞게 사람들을 발동하기 위한 묘술과 수법을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당의 령도예술은 당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직과 대중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이끌어나가기 위한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으로 되여야 하는것이다.

당의 령도예술을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으로 규정한것은 리론실천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당의 령도예술을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두 측면으로 규정한것은 령도예술의 구성부분을 정확히 정립하는 리론적 기초를 주었다.

당의 령도예술의 구성부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령도예술에 대한 리해를 어떻게 확립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좌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예술을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으로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시여 령도예술의 구성부분을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조직과 대중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당의 활동규범과 질서, 일군들의 지휘능력과 솜씨, 묘술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다.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는 조직과 대중을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질서와 제도이다.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은 당사업체계와 함께 령도예술의 필수적 구성부분을 이룬다. 령도예술에서 당사업체계는 조직과 대중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제도와 질서에 관한 문제이라면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은 조직과 대중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형식과 수법에 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함께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조직과 대중을 통일적으로 이끌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은 당의 령도예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업작풍은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치도덕적 풍모와 일본새 등을 담고있다. 일군들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지녀야 당사업체계도 튼튼히 세울수 있으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당의 령도예술을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의 두 측면을 담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야 당의 령도예술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령도예술을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신것은 당의 령도예술에 대한 리해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

당의 령도예술을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으로 정식화한것은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당의 령도예술을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으로 규정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령도예술에 대한 전일적인 견해를 세울수 있게 하였으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세워나갈수 있게 하였다. 당의 령도예술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질서를 전면적으로 확립할것을 요구하는 당의 활동방식과 령도적 수완으로 규정함으로써 령도예술이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더욱 강화발전하는데 적극 복무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두리에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하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령도예술을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신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령도예술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의 령도예술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이 옳은 령도예술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적극 따라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지하혁명활동과 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해방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수위에 서시여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령도하시는 전력사적 기간에 혁명적 령도예술을 창조하시고 몸소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심화발전시키시며 전당과 온 사회에 빛나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 령도예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체득하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당의 령도예술이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예술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자질과 실력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이 높은 실력과 자질을 가지지 않고서는 당의 령도예술의 근본요구대로 일해나갈수 없으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없다. 우리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학습과 실천활동을 결합하여 자신의 지도수준과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예술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지닌 숭고한 의무의 하나이다. 당의 령도예술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의 령도예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광범한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여나아가야 할것이다.

철강재생산을 늘여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최 만 현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금속공업에 큰 힘을 넣어 철강재생산을 더욱 늘이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지 않고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철강재생산을 늘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힘을 넣고있는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복잡한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물질적 부의 생산을 늘이는데는 많은 원료, 연료, 자재가 요구된다. 경제건설에 리용되는 여러가지 자재들가운데서 철강재는 그 재질적 특성으로 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널리 쓰이는 기본자재로 된다.

철강재생산은 금속공업에서 기본자리를 차지하며 공업부문들의 발전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은 전적으로 금속공업부문에서 생산하는 철강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금속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이다. 금속공업에서 여러가지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기계제작공업의 다방면적이며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중공업의 기간적 부문들인 전력공업, 채취공업을 비롯한 여러 공업부문들과 철도운수부문에서도 수많은 기계설비들과 금속자재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철강재생산을 늘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간공업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키며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철강재는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뿐아니라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모든 부문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도록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물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화학공업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있는 현시기 철대신 여러가지 화학합성제품들이 널리 리용되고있으나 철강재는 의연히 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에서 철강재가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전기간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철강재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왔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금속공업이 끊임없이 발전하여 철강재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전반적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철강재생산을 더욱 늘이는것은 현시

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제3차 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는 금속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들과 경공업, 농업 부문들에서 도달하여야 할 생산력발전수준이 뚜렷이 제시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금속공업에 큰 힘을 넣어 철강재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이미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늘이고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그 기술장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다그쳐 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할수 있다. 또한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철강재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더욱 강화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의 중요고지들인 석탄고지, 전력고지, 화학고지를 점령하자고 하여도 철강재생산을 늘여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수산물고지와 알곡고지를 점령하자고 하여도 현대적인 고기배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에 상응한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할수 있다.

특히 철강재생산을 늘이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대상건설을 빨리 끝내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광복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이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있다. 당의 구상과 지도밑에 진행되는 중요대상건설은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며 특히는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설계도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 보람찬 사업이다.

이 중요대상들을 하루빨리 건설하자면 더 많은 철강재가 요구된다. 건설에 필요한 철강재들을 규격별, 재질별로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건설속도를 높이고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빨리 다그칠수 있으며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재부들을 더 많이 늘여나갈수 있다.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것과 함께 중요대상들에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해주어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중요대상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빨리 은을 나타나게 하자고 하여도 철강재가 많아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분수식 발관개를 적극 실현하여 농촌테제의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문제도 구경은 철강재생산을 늘이는것과 많이 련관되여있다.

이처럼 철강재생산을 더욱 늘이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치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

금속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우리 당의 금속공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철강재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조직지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맡은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간다면 해결못할 일이란 없다.

금속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철강재생산을 더욱 높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철강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대오의 앞장에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나가는 투철한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일군들은 생산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공정에 맞게 원료와 연료, 협동품의 맞물림조직을 잘하며 당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도록 생산공정을 짜야 한다. 일단 생산공정이 놀려지면 그대로 생산조직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생산지령체계를 잘 세워 철강재생산에서 굼임없는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철강재생산을 늘일수 있는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날로 늘어나는 철강재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체적인 철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금속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주체적인 철생산기지들의 생산공정을 더욱 완성하며 철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을 질좋은것으로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주체적인 철생산방법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빨리 풀어야 한다.

원료, 연료, 전력을 제때에 충분히 생산공급하는것은 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철강재생산은 다른 공업제품생산과는 달리 방대한 규모의 원료, 연료, 전력을 요구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무산, 안주를 비롯한 광산,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여 정광, 석탄과 같은 여러가지 원료, 연료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철생산을 위한 원료보장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정광생산을 늘이자면 회전식착정기와 굴착기, 대형자동차들을 잘 보수정비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고 현대적인 채굴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며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건설대상들을 제 기일안에 어김없이 끝내야 한다. 이와 함께 련관된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전력, 합금원소, 전극들을 공급계약대로 무조건 생산보장하며 기계설비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 및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철소, 제강소들에서는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원료, 연료의 예비를 적극 조성해나가야 한다.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려면 이 부문에서 설비관리를 잘하는

데 힘을 넣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속공업부문 일군들은 자신들부터 자기 부문의 설비에 정통하고 설비상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용광로, 평로, 전기로, 소결로를 비롯한 중요부문의 운전공들을 고착시키고 로보수공들과의 사업을 잘 하며 설비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철저히 하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당면한 생산에만 치우치지 말고 야금설비들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보수와 계획적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대중적으로 활발히 벌려 설비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철강재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다그쳐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기술혁명을 동반한다. 철강재생산에서도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그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고 선진기술공정과 새로운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할수 있으며 철강재의 품종을 늘이고 질도 훨씬 높일수 있다.

금속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철, 제강 기지들을 자동화, 원격조종화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범위를 끊임없이 넓혀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철생산공정에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기술지표들을 개선하고 연료소비를 끊임없이 낮출수 있으며 로수명을 계속 늘여나갈수 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가열로들을 개조하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폐열과 폐가스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도 철강재의 톤당 에네르기소비기준을 극력 낮추어 같은 량의 원료와 연료, 동력, 자재로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할수 있다. 다양한 규격강재를 생산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 같은 강재생산량을 가지고도 더 많은 기계를 만들수 있으며 금속자재의 랑비를 없앨수 있게 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합금강을 생산해내기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그들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철강재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금속공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금속공업은 생산기술적 특성으로 하여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게 되며 금속공업의 발전은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금속공업을 발전시켜 철강재생산을 늘이는것이 곧 자기 부문 사업을 추켜세우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계획화사업으로부터 보장사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원료, 연료, 동력들을 제때에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군중적 운동으로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오늘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보장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더 많은 철강재를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생산보장하여 제3차 7개년계획수행과 당면한 사회주의건설전투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다시한번 힘차게 떨쳐야 할 것이다.

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중요과업

서 관 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다시금 밝혀주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테제를 관철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는 제3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 수행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 더욱 밝은 전망을 펼쳐주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 기치이다.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촌테제를 철저히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국, 전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

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농촌문제는 로동계급의 동맹자로서의 농민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관한 문제이며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촌경리의 생산력발전에 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이 중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농촌건설강령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편향없이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농촌문제해결의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는 강령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이며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강령적 지침이다.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면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기본문제는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

는것이다.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온갖 사회적 불행의 화근인 계급적 대립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는 오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만이 계급으로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의 폐절문제는 농촌문제를 해결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문제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여야 계급폐절의 력사적 과업이 종국적으로 완수되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게 된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여야 한다.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은 매우 거창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상적 준비와 물질적 준비를 잘 갖추어야 원만히 진행될수 있다.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해주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문제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문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킬데 대한 문제들을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있다. 농촌테제는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뿐아니라 이 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과업으로부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이르기까지 협동적 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들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농촌테제는 특히 사회주의사회에 전인민적 소유와 함께 협동적 소유가 있게 되는 근원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로동계급보다 낮고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공업보다 약한데 있으며 따라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을 수행하여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명시해주고있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기본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면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에서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농업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져 공업과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에서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이 없어질 때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상적 준비와 물질적 준비가 원만히 갖추어지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바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앨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또한 인민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게 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이 없고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일뿐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인민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식의주문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먹는 문제이

여이 문제는 농업의 발전을 떠나서는 해결할수 없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한다. 대규모농촌경리는 소규모적인 개인농경리와는 달리 농업생산의 전과정에 현대적인 기계기술과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공업적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농촌테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촌기술혁명과 농촌에 대한 지원,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비롯하여 농촌경리를 대규모경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명백히 제시해주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할 때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질뿐아니라 농업의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농업생산이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에 기초한 선진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되여 농업이 공업화되고 농촌경리가 대규모경리로 발전하게 된다. 농업이 공업화되고 농촌경리가 대규모경리로 발전하게 되면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의 리용률과 농업에서의 로동생산능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농촌테제가 철저히 관철됨에 따라 대규모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며 알곡과 공예작물을 비롯한 전반적인 농업생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농촌테제의 관철은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공업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농산물원료들을 충분히 보장할수있게 함으로써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의 발전을 다그치는데도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농업을 비롯한 전반적 인민경제의 발전을 추동하여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는 바로 여기에 농촌테제의 관철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커다란 역할의 하나가 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투쟁강령이다. 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우월성, 그 빛나는 생활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실천에서 이미 뚜렷이 확증되였다. 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전진해온 지난 20여년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거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농촌의 주인인 농민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되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통일단결되여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높고 그들이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온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20여년동안 농촌테제를 따라 전진해오는 과정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재부이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구성부문으로서 그 위력을 높이 발휘하고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농촌테제가 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0여년간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야말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 지침이

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농촌테제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농촌문제를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정확하게 해결하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해나가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테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하고도 훌륭한 농촌건설강령이다.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만이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우리 나라 농촌을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농촌으로 확고히 전변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력사적 위업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우리는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빛나게 완성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밝혀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가면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얼마든지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지도적 지침이다. 우리 인민이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토지개혁, 농업협동화를 비롯한 농촌문제해결과 전반적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가리키는대로만 투쟁하여왔기때문이다. 현시기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빨리 완성하기 위한 선결조건도 바로 당의 로선과 정책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튼튼히 간직하는데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테제는 가장 정확한 농촌건설강령이며 그것을 옹호고수하고 관철할 때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빨리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깊이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굳게 믿고 우리 식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끝까지 옹호관철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현시기 농촌테제를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이다.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주인으로 더 잘 준비시키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야 농촌테제를 빨리 완성할수 있다.

우리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결정적 고리는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는데 있다. 농민들이 로동을 헐하게 하고 생활을 문명하게 하도록 하는것이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본사상이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농촌문

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은것은 단순히 농업생산력이나 높이자는것이 아니라 바로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오늘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도 이 목적을 빨리 달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뜨락또르, 자동차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현대적 농기계들과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기 위한 50만정보의 분수식 발관개 건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늘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촌테제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가까운 앞날에 완전히 수행하자면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예를 빛내이게 하는 보람찬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을 다름아닌 자신의 사업으로 여기고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할수 있는 일을 스스로 맡아나서며 농촌을 정치사상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까운 앞날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완성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울릴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농촌테제를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지난 기간 여러차례의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보여준바와 같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농촌테제를 성과적으로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이 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도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조직들이 농촌테제 완성을 위한 투쟁을 직접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사업전반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옳은 방법론과 단계별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테제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특히 모든것이 부족하던 전후시기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실현하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농촌테제를 빨리 완성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농촌테제실현을 위한 방대한 과업은 일군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로 하여금 테제관철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며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자기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농촌테제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정당성을 시위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켜야 할것이다.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

김 경 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깊이 헤아리시여 그것을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나가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할데 대한 보람찬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2페지)

과학기술은 인간의 창조적 지혜의 산물이며 사람들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성의 발현이다. 사람들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창조적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인류는 태고로부터 자연을 개조하는 생산활동과 사회생활과정에 자연과 사회 현상들의 본질적 속성과 운동법칙을 인식하게 되였고 창조적 지혜를 축적해나갔다. 과학은 바로 사물현상의 본질적 속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지식의 체계이며 기술은 객관세계를 인간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구체적 방법을 밝힌 지식과 반복련습과정에 사람의 몸에 체득된 기능, 기계설비를 비롯한 로동수단들의 체계이다.

인간의 창조적 지혜의 산물인 과학기술은 발생된 이래 날이 갈수록 생산발전에서 더욱더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그것은 오늘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였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여 발전속도에서나 연구의 심도와 응용범위에서 지난날 인류가 상상하던 한계를 훨씬 벗어나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한걸음도 나갈수 없고 경제건설의 그 어떤 목표도 점령할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높일수도 없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가 없이는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없다. 지금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경제토대는 대단하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푼전을 아껴가며 건설하여놓은 공장, 기업소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우리 나라가 더 빨리 발전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도 생산과 건설을 더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며 새 전망계획 기간에 방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고 하여도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다그쳐야 하며 그러자면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기초과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을

빨리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은 세계경제발전추세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확고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오늘 미제가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로 되여있는 조건에서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함께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할 숭고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할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공화국북반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제때에 짓부실수 있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수 있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목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한다는것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수 있도록 나라의 경제전반을 기술적으로 개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경제는 주체화되고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경제이다.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며 공산주의적 사회경제관계의 물질적 기초가 확고하게 마련되게 된다.

현시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푸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입니다.》(《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3페지)

생산이 장성함에 따라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조건에서 그것을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를 주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옳게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현대적 탐사방법과 탐사수단을 연구개발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채광, 채탄, 선광기술을 발전시키고 성능높은 채굴설비들을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 없는 원료와 연료를 다른것으로 대용하며 원료, 연료, 동력을 극력 절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시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기계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것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기계설비를 비롯한 로동수단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것은 공업뿐아니라 농업, 보건, 기본건설 등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거나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창안도입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실현할수 있다.

기계설비의 현대화의 목표는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이다. 기술수단의 현대화는 생산공정전반의 현대화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생산공정의 기계화의 가장 높은 형태가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이다. 기계설비의 현대화의 이러한 목표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을 발전시켜 자동화된 설비, 로보트, 전자계산기들을 더 많이, 더 잘 생산해야 기계설비의 현대화를 빨리 다그칠수 있다. 기계공학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특히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우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전자공학부문에서는 전자재료를 개발하고 그 순도를 높이며 집적회로를 비롯한 전자요소와 전자계산기를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며 자동화공학부문에서는 자동조종리론을 발전시키고 자동화 요소와 장치, 자동조종체계를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로보트를 개발하고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도 푸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시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하기 위하여서는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특히 경영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관리에 전자계산기, 산업텔레비죤, 무선전화기 등 주로 정보를 처리하는 현대적 기술수단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관리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수단들을 받아들여야만 경제적 타산을 바로하고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 그 생산능률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생산실태를 제때에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종합하여 처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전망성있게 풀어나가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으며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현시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초과학의 성과에 토대하고있으며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자립성은 기초과학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기초과학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들의 합법칙성을 원리적으로 밝힘으로써 응용과학발전의 기초로 된다. 응용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기초과학의 발전없이는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그것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을 발전시키며 레이자와 플라즈마기술, 원자에네르기와 태양에네르기를 개발하여 인민경제에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적극 풀어나가야 한다.

현시기 과학기술앞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현상과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당적 및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앞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모든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 립장을 지킨다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모든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기 인민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우리 나라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사업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통채로 삼켜 기계적으로 본받거나 과학연구에서 남만을 쳐다보는 현상을 없애고 자기 나라의 현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려는 자력갱생의 립장과 모든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창조적 립장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결코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약화시킨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은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다. 모든 일군들은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요구와 자력갱생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 과학기술통보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야 한다.

과학기술앞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과학기술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서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과학기술발전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과 과학기술발전에서 목적의식성과 계획성,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망목표와 현실적 요구,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정확히 세우며 새로 연구개발된 가치있는 연구성과와 합리화안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앞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은 곧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기술혁명의 전초병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질을 높여야만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전공부문의 과학기술에 정통하며 외국어를 잘 알고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를 꿰들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과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결합시키고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과학기술발전분야에 구현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광범한 근로자들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풍부한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생산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과학자들이 생산자들로부터 생산실천경험을 배울수 있게 하며 생산자들의 대중적 지혜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을 군중적 지반우에서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기능이 높은 생산자들로 조직운영되고있는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와 《4. 15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과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는 우리 당이 이 기술혁신운동의 역할에 그처럼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의도를 똑똑히 알고 이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없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모든 생산자들이 한가지이상의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제기하고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하는데서 대학, 과학연구기관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과학과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것이 경제발전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대학과 과학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발전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과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이 제시된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교육과 과학연구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요구이다.

다른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것처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당적 지도가 정확히 보장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과학기술일군대렬을 잘 꾸릴수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적극 보장하도록 당적으로 잘 안받침해줄수 있으며 과학기술사업이 당의 방침에 기초하여 진행되도록 옳게 장악통제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최단기간안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부르고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과학기술발전의 훌륭한 성과들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사상사업을 심화시킨 구역당위원회의 경험

강 광 수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사상사업을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은 언제나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사상사업의 성과도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사상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사상사업과 혁명과업수행을 밀접히 결부시킨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상사업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철저히 복종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사상사업을 진행하는것은 사상사업의 목적과 관련된다. 당사상사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이며 그 목적은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기때문에 사상사업은 반드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쳐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혁명적 실천이 사람들의 사상개조의 위력한 수단이기때문이다.

원래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은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며 따라서 경제사업과 동떨어진 당사업, 당사상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사상사업은 반드시 경제사업과 밀착되여야 하며 그 성과도 경제건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하는것이다.

우리 모란봉구역당위원회는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한편 그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해마다 공업생산계획, 수출계획,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 기술발전계획과 재정예산수입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으며 구역앞에 매 시기 제기되는 여러가지 경제과업들을 원만히 해제끼고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당사상사업을 경제사업,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사상사업에서 일정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심화시키는데서 우리가 힘을 넣은것은 무엇보다먼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학풍을 세우고 주체사상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하도록 한것이다.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하는것, 이것은 사람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

을 높이 발휘하게 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저절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꾸준한 교양사업을 통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학습은 바로 교양의 위력한 수단이며 사람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사람들은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만 자주적인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진리성, 독창성과 혁명성을 체득할수 있으며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상사업에서 학습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구역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 학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우리는 학습을 철저히 정규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학습에 대한 자각성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자각적인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교양도 하고 몇개 단위에 시범을 창조한 다음 그것을 일반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학습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현상과의 투쟁도 강화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구역안에 혁명적 학풍을 철저히 세운 다음 일군들로부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원문학습을 통한 주체사상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조직들에서 그것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정독, 발취, 연구토론회, 해설강의, 문답식 토론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작과 문헌 원문학습을 통하여 주체사상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그들이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특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학습을 활발히 벌린 결과 그들속에서는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주체에 대하여 옳바른 리해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에 따라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혁명실천에서 높이 발양되게 하기 위하여 로작과 문헌에 대한 학습을 내용을 파악하는데 힘을 넣을뿐아니라 거기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활발히 벌리게 하여 그것을 더욱 심화시켰다. 모란화물자동차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 자체로 대용연료를 생산하여가지고 자동차의 연료로 리용하고있는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기 부문사업과 관련된 여러 로작과 문헌들을 학습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제시된 나라의 긴장한 연료문제를 풀데 대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학습토론을 진지하게 벌리였다. 그들은 토론끝에 대용연료를 생산하자는데 의견을 합치게 되였다. 대용연료를 생산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자동차연료로 쓰이는 많은 휘발유를 절약할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주인다운 립장에 서서 창조적 지혜를 모으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고심어린 투쟁끝에 500립방메터 능력의 대용연료생산설비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 사업소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대용연료로 휘발유 50%를 대신하고있으며 긴장한 수송과제를 매달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경험은 혁명적 학풍을 세우고 주체사상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사람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시킬 때 혁명과업수행에서는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한것이다.

경제선동은 사상사업을 당면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중요한 형식이다. 그런데 경제선동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하는것은 그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우리는 경제선동을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으로 벌리는것이 그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실지 체험하였다.

긍정적 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본받도록 하는것은 우월한 사상교양방법인 동시에 위력한 선동방법이다. 긍정적 모범은 아름답고 고상하며 생동하고 구체적인것이기때문에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고 대중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또한 부정에 대한 말없는 비판으로 되며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기때문에 사람들을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데로 고무추동한다. 그리하여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서뿐아니라 발동하는데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경제선동에서 이 방법을 옳게 구현할 때 혁명과업수행에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애국모란피복공장에서의 경제선동경험이 여실히 실증하여주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 생산계획을 놓고 시간별로 작업반성원들속에서 발현된 혁신적 성과와 여러가지 모범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즉시에 선동원들이 직관선동, 구두선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일터를 늘 혁신으로 들끓게 하며 작업반의 매 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자극을 받고 고무되면서 그날 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게 하는데서 큰 은을 내고있다. 동시에 그것은 개인간, 작업반안의 조호상간에 경쟁심을 북돋아주어 작업반적인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공장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년간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있다. 이렇게 경제선동에서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킨것은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심화시키는데서 우리가 얻은 또하나의 중요한 경험이다.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심화시키는데서 우리가 얻은 다른 하나의 경험은 군중속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킨것이다.

생산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는 군중이다. 따라서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발을 붙이고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그들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사상사업이 직접 은을 내게 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선전부를 비롯하여 구역당의 모든 부서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벌리는것을 제도화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당정책이 제시되면 제때에 군중속에 들어가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되였을 때 구역안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우리 구역의 실정을 놓고 조건타발만 하면서 그 관철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고있었다. 물론 우리 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하여 공장, 기업소가 적고 또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조건이 불리한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군중을 발동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다른 구역에 못지 않게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에 나가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예비를 적극 탐구하도록 사상동원을 하는 한편 동, 인민반에 들어가 해설선전사업을 널리 벌려 가내편의봉사원대렬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 들어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한몫을 단단히 하도록 일깨워주었다. 이렇게 군중을 발동한 결과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평양상표인쇄공장에서는 생필직장은 물론 온 종업원이 달라붙어 부산물로 여러가지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구역직매점에 내놓고있으며 손쉽게 지시봉 같은것이나 만들고있던 모란봉구역전물관리소에서는 폐설물을 가지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비누까지 만들어 직매점에 보내주고있다. 인민소비품의 질도 날로 좋아지고있다. 모란거울공장에서 만든 문발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호평을 받고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도 높아가고있다. 그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것을 새로 연구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의의가 있는것을 발명하여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인민소비품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한계단 높이고있다. 이렇게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품종과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였으며 최근 몇해사이에 그 판매액이 근 20배나 장성하게 되였다.

우리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동시에 이신작칙으로 군중을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함으로써 사상사업이 혁명과업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더 잘 복종되게 하였다.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하나의 힘있는 선동으로 된다.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실천행동이 더 큰 호소력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군중속에 들어가서는 당의 의도와 정책을 해설해주는 것과 함께 늘 이신작칙하면서 그들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개선연설 친필교시비건립을 위하여 비돌을 운반할 때 있은 일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개선연설 42돐을 맞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기 위하여 유서깊은 개선문광장에 수령님의 개선연설 친필교시비를 건립할데 대하여 몸소 발기하시고 그 영예로운 과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였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허다한 난관들이 있었다. 그가운데서도 700톤이나 되는 비돌을 장마철에 근 400리나 되는곳에서 운반해오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일로 나섰다. 공사기일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비돌운반에 달려있었다. 우리는 건설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비돌운반을 위한 힘겨운 전투를 벌리였다. 육중한 비돌을 실은 추레라 바퀴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어깨를 들이밀어 그것을 바꾸어맞추군하였으며 난관에 부딪쳐 전투원들이 맥을 놓고있을 때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으로 그들을 다시 일떠세우군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건설자들속에 살면서 실천적 모범과 정치사업으로 그들을 고무추동하였으며 가장 힘든 문제로 나섰던 비돌운반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개선연설 친필교시비를 착공한지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당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사업에서는 성과보다도 아직 부족점이 더 많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상사업을 혁명과업수행과 더 잘 결부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가겠다.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제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리 정 준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제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투쟁원칙이며 혁명적인 일본새이다. 이러한 투쟁원칙을 견지하여야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주동적으로 극복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으며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합니다.〉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제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마땅히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원칙과 일본새를 견지하여야 한다.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제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투쟁원칙이다.

전후의 가장 어려운 나날에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안고 자체의 힘으로 세기적 변혁과 기적을 창조한 그 숭고한 투쟁 정신과 기풍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이 고귀한 투쟁 정신과 기풍을 이어받아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대담하게 박차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켜왔으며 조국땅우에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시대를 펼쳐놓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정은 자체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의거하여 완강히 투쟁하는 인민은 불패의 위력을 지니며 끊임없는 변혁과 비약을 창조해나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개천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일군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군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움직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 요구이며 당일군들앞에 맡겨진 본신임무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그 주인이며 추동력인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조직정치사업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업에서의 성

과의 비결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한 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당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사람들속에서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움직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군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일군들속에서 당과 수령의 의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 기풍이 높이 발양됨으로써 생산과 건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군소재지에는 오늘 군급의 여러 기관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알뜰하게 꾸려지고 아담한 다층문화주택들이 수많이 건설되여 거리의 면모를 돋구어주고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각종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서고 그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군안에 큰 석탄생산기지들이 자리잡고있고 탄부들을 비롯한 로동계급이 밀집되여있는 조건에서 그들에게 고기와 알, 남새를 비롯한 부식물을 원만히 공급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는 알곡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면서 축산업발전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군안의 거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모범축산농장의 칭호를 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우리는 특히 지대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부침땅을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남새가 바르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난해에는 군의 수요를 넉넉히 보장하고도 수천톤의 여유남새를 다른 지방에 넘겨주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10월 우리 개천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부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장의 영농사업과 살림집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농장원들이 농업생산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마을을 알뜰히 꾸린데 대하여 높은 평가의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이 농장에서 부침땅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남새의 풍년작황을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개천땅은 살기좋은고장으로 전변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격동된 심정으로 받아안은 개천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남다른 궁지와 행복감에 휩싸여있으며 당과 수령의 크나큰 기대에 높은 생산적 성과로 보답할 충성의 일념에 불타고있다.

우리 군이 당이 맡겨준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개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인민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온 결과이다.

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투쟁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때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경험도 얻을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이다.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이며 기풍이다.

이러한 기풍을 지녀야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대중을 힘있게 움직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은 그자체가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것이다. 요행수를 바라면서 사업에 어깨를 들이밀지 않고 투신하지 않는것은 혁명전사의 일본새가 아니다.

말만으로는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할수 없으며 당과 수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말은 적게 하여도 사업에 대한 높은 신심을 가지고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실천투쟁으로 당정책을 받들어나가는 일군이 혁명적 신념이 투철하고 사상적으로 순결하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이다.

우리 군당위원회는 군앞에 어려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일군들에게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사업에 투신하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었으며 요구성을 높이였다. 이것은 확실히 실천투쟁에서 커다란 은을 나타냈다. 개천지구 탄광마을의 탄부들의 새 살림집건설과정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부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풀어주시기 위하여 천여세대의 문화주택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우리들에게 주시였다. 이 과업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건설에 필요한 강재와 세멘트, 목재를 비롯한 막대한 량의 자재를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뿐아니라 그것을 100리가 넘는 먼거리를 오가며 운반하는 문제도 걸리였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걸리는 문제를 우에 요구하여 해결을 받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국가적인 큰 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때에 좀 어려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여 국가에 손을 내밀수는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일군들을 믿고 맡겨주신 과업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행과제는 그대로 보장하면서 모든 예비를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1년남짓한 기간에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달라붙으면 수가 생기고 길이 열리기마련이다.

군당위원회는 탄부들의 살림집건설문제를 놓고 집행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 토의하였고 해당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도 소집하였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전격전의 방법으로 훌륭히 완수할것을 결심하고 기관, 기업소의 사무원들로 살림집건설돌격대를 무어 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한편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 기관, 기업소들에 일정한 주택동수를 나누어주어 건설을 밀고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부터 순조롭게만 진척되지는 않았다. 조건타발을 하는 표현도 나타났으며 건설을 제 기일안에 끝내기가 어려울것 같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군당위원회는 여기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일군들의 사상에 있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들속에서 당적인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들이댔으며 지도일군들 자신이 어려운 일에 적극 투신하며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건설의 진척정형을 일별, 순별, 월별로 장악하고 사업에서의 공부정을 당적 원칙에서 똑똑히 총화하고 넘어가는것을 제도화하였다. 특히 긍정적인 사실들과 모범적인 단위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데 큰 주목을 돌리였다. 이렇게 하니 일군들속에서 당적 자각이 높아지고 사업에 투신하는 모범적인 기풍이 더욱 발양되였다. 이리하여

살림집건설장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일이 하루가 다르게 크게 자리가 났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에서 당일군들이 앞장에서 모범을 보이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자각과 혁명적 열의를 높이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모범을 보이는것은 우리 당일군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며 혁명적인 지도작풍이다.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적극 투신하고 모범을 보여야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부서별로 여러 동의 살림집건설을 맡아 경쟁적으로 일을 다그쳐나감으로써 다른 단위들에 비하여 건설을 빨리 진척시켜나갔다. 군당책임일군들자신이 살림집건설을 틀어쥐고 지휘하면서 현장에서 블로크도 만들고 벽체도 쌓는 등 실천적 모범을 보이였다. 이것은 모든 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자극을 주었으며 전반적 건설과정을 다그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였다.

이렇게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당의 의도를 깊이 심어주고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자각을 높이며 어려운 일에 적극 투신하는 기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듦으로써 방대한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거의 한달이나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헌신성을 가지고 어려운 일에 적극 투신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때 어떤 애로와 난관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사업에서 놀라운 변혁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더욱 절실히 체험하였다.

우리는 또한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제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는 사업방법을 철저히 견지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늘 군중속에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해주어야 하며 실정을 료해하고 군중과 협의하여 혁명과업 수행을 위한 옳은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08페지)

군중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우리 당활동에서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의 하나이며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의 중요한 요인이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야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을수 있으며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당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철저히 제도화하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제기되는 과업을 수행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는 중요한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 군이 남새생산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룩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은것도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군안의 일군들과 함께 군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창발적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그들의 힘을 옳게 조직동원한데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남새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결심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진지하게 의논하는 과정에 우리는 중간지대이고 기온이 비교적 찬 우리 군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는 새로운 합리적인 재배방법을 찾아낼수 있었다. 그리하여 같은 포전에서 정보당 강냉이수확고는 제대로 보장하면서 뒤그루로 심은 남새에서도 높은 수확을 거두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중은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누구보다도 아래의 실태를 잘 알고있으며 생산과 관련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진지하게 의논하고 대중의 힘을 움직이면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는 모든 사업, 특히는 경제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일군들이 반드시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서 지혜를 얻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사업기풍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적 경향을 극복할수 있었으며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해제낄수 있었다. 실천적 경험은 당일군들이 자신뿐아니라 모든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이 철저히 대중의 힘을 믿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때 참으로 커다란 변혁을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자면 그들이 높은 혁명적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였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당의 위업에 대한 높은 충성심에 바탕을 두고있는 일군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가 높아야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내려는 담력을 가지게 되며 통이 크게 잡도리를 하고 일을 모가 나게 해제끼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답게 언제나 높은 혁명적 정열과 패기를 지녀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다. 우리는 오늘 일하다가 래일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할 때에는 밤이 새고 끼니때가 지나는것도 잊는 그런 높은 열정과 패기를 지녀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사업에서 높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일을 대담하게 내밀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 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었으며 모든 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업기풍을 발휘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군소재지에 있는 식료공장의 청량음료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과정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사업은 일부 설비들을 개조하는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짓고 압력파기, 발효탕크, 증기가마를 비롯한 근 70종에 이르는 설비들을 군자체의 힘으로 제작설치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안의 행정, 경제기관 일군들과 련관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합심하고 높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되니 어렵게 생각되던 여러가지 자재들과 설비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되였으며 전반적인 공사가 빨리 추진되게 되였다. 우리는 군의 제지공장과 도자기공장을 확장하고 그 생산능력을 몇배로 높이기 위한 사업도 이러한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수할수 있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일군들의 사상, 그들의 혁명적 열정과 기백에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군내 인민생활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군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으며 우리의 전망은 휘황하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속에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높이고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혁명적 수령관 확립과 문학예술창작

강 능 수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문학예술이 자기의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관건적 문제로 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 주되는 힘을 넣는것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적 세계관, 주체의 혁명관의 근본핵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적 수령관으로 철저히 무장할때만이 튼튼히 세울수 있다.

혁명적 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이다. 다시말하여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무조건 받들고 관철해나가야 한다는 자세와 립장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데서 문학예술은 위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예술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인간개조에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문학예술은 다른 사회과학과는 달리 개념이나 론리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동한 형상의 힘,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든다.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이 늘 느끼고 접하는 생활처럼 산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작품세계에 쉽게 끌려들어가게 하며 공감과 반감,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작품에 그려진 인간의 운명문제해결에 적극 참가하게 한다. 다시말하여 문학예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을 깊이 체험시킨다.

문학예술은 이처럼 커다란 인식교양적 역할을 하는것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데 적극 기여한다.

혁명적 문학예술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한 풍모와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를 생동한 화폭으로 재현하여 보여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질수 있게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은 저절로 서는것이 아니라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서게 됩니다.》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은 수령관 확립의 근본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게 할수 있으며 결국 그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수령을 형상한 혁명적 문학예술은 력

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가장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며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수령의 위대성을 생활적인 화폭으로 진실하고 감명깊게 펼쳐보인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력사를 전진시키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관점을 확고히 세움으로써 그들모두가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가질수 있게 한다.

혁명적 문학예술은 또한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가질수 있게 한다.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자면 수령에 대한 견해와 관점뿐아니라 수령을 모시는 올바른 자세와 립장까지 소유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관점이 올바른 자세와 립장과 결합될 때 수령관은 사람들의 실천과 통일된 참다운 혁명투쟁의 무기로 될수 있다. 수령을 모시는 혁명적인 자세와 립장이란 끝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무조건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자세와 립장이다.

혁명적 문학예술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구감으로 되는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깨끗한 량심으로 수령께 충성다한다는것은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것을 의미하는가를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을 절대화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무조건 받들어나가는 올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며 실천투쟁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적극 불러일으킨다.

이 모든것은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는데서 문학예술이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며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문학예술만이 진실로 혁명적인 문학예술로서의 사명을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력사적 위업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해결되고있다.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은 수령을 형상한 작품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현실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신데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 형상창조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시고 수령형상창조와 관련한 사상리론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을 충성심을 다하여 최상의 높이에서 그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영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실데 대한 문제, 인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할데 대한 문제, 력사적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 등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그 구현방도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이 사상리론들은 수령형상창조에서 튼튼히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으로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4.15문학창작단, 백두산창작단, 만수대창작사 등 수령형상창조를 전문으로 하는 창작집단들을 몸소 무어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수령형상창조문제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렇듯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밝히시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한편 매 수령형상작품들에 대하여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수많은 혁명소설들과 혁명영화 《조선의 별》,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여러가지 문학예술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고귀한 재보로 되고있을뿐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서 귀중한 사상정신적 량식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구감으로 되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로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안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숨은 영웅들과 3대혁명의 전위들을 형상할데 대한 문제 등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심오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예술영화 《보증》, 《혁명가》, 《열네번째 겨울》, 《평범한 사람》,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대지의 아침》(제1부)을 비롯한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수많은 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혁명적 수령관을 구현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할 성스럽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더 잘 창작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에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일떠세우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한 위업에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실로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대를 두고 노래하여도 끝이 없을 창조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반세기가 넘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마련되고 빛나게 매듭지어진 력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을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 담겨진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밝혀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철학적 깊이가 있게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는것이다. 철학적 깊이가 없고

형상이 잘되지 않고서는 설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력사적 사건과 사실에 대한 설명과 해설로밖에 달리 될수 없으며 따라서 수령님의 위대성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줄수 없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철학적 깊이가 있게 예술적으로 형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자료들에서 뜻깊은 종자를 발견하고 실지 생활이 그러하였던것처럼 그것을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수령님의 극적인 체험세계를 통하여 천명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에 아로새겨진 매개 사건과 사실은 그 어느 하나도 결코 쉽게 마련되고 진척된것이 없으며 모두가 수령님께서 몸소 진두에 서시여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풀어나가신것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체험하신 극적 세계를 잘 형상하여야 실지 혁명투쟁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겪으신 온갖 간난신고를 진실하게 펼쳐보일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할수 있게 된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에 있다. 수령의 풍모는 걸출한 사상리론가, 정치가로서의 풍모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에 기본을 두고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혁명적 수령관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데서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는 수령관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예지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발전풍부화시키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영명한 령도자이시며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우리 인민 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고 숭고한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정치적 생명의 은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인민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그이께 충성다하는데 조국의 륭성번영과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여있음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바로 그들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당의 위대성을 잘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 업적은 그 내용의 폭과 깊이, 다면성과 영향력에 있어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며 노래하고 또 노래하여도 다함이 없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사람들을 새로운 형의 인간들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주시고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묶어세우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예술은 이 모든 업적속에 스며있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 인민에 대한 끝없

는 사랑과 믿음을 잘 그려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은 이미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노래인 서정시 《어머니》, 가요 《당중앙의 불빛》, 《내 언제 다 알가》를 비롯하여 예술영화 《보증》, 서사시 《불타는 해》 등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주는데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문학예술은 우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서사시적인 화폭속에 정면으로 모시는 력사적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생활의 단면을 통하여 보여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서사시적 화폭속에 정면으로 모시는것이다. 그래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건설과 경제건설, 문화건설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나가시는 위대한 풍모를 전개된 화폭으로 보여줄수 있다.

이와 함께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을 천명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인민의 의사와 념원,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구현한것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가장 과학적인 지도적 지침이다.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진리성이 형상적으로 론증되고 감동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은 그러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현실속에 구현해나가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게 된다.

우리 문학예술은 또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공산주의적 덕성일면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령도자이신 그이의 숭고한 풍모를 보여주는데 기본을 두면서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중요한 형상분야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청춘도 생명도 혁명을 위하여 다 바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투사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수많이 배출되고있는 숨은 영웅들과 3대혁명전위들의 원형에 기초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을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창작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작가, 예술인들의 준비정도에 달려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먼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그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위대한 풍모에 매혹될 때 비로소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높은 사상예술적 수준에서 형상할수 있다.

또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체험을 강화하고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의 약동하는 현실속에서 수많이 배출되고있는 숨은 영웅들을 찾아내여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지향을 자신의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책임적인 사업이며 문학예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매국정권

박 동 근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괴뢰정권의 예속적이고 매국적인 성격을 가리워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얼마전에 있은 《대통령직접선거》를 그 무슨 남조선정치사상 처음 있은 일이라느니, 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부합되는것이라느니 하면서 앞으로 서게 될 《정권》은 인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정권》으로 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군정종식과 민정수립에 대한 절대다수 인민들의 념원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머리우에는 여전히 군사파쑈독재가 군림하게 되였으며 《정권교체》가 된다 하여도 아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에서는 리승만괴뢰정권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남조선괴뢰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교체》가 여러번있었으나 남조선괴뢰정권의 매국적 성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경험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인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사회적 변혁에 대한 념원도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서가 아니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을 집행하는 도구이며 나라와 민족을 상전인 미제에게 팔아먹는 매국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권이 애국적이고 반제적인 정권이라면 남조선〈정권〉은 매국적인 〈정권〉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73페지)

남조선의 《정권》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예속적이고 매국적인 정권이라는것은 무엇보다도 력대《통치자》들과 정권에 들어앉은 《요직》인물들이 례외없이 민족반역자, 사대매국노들로 구성되고있는데서 드러나고있다.

외세의 앞잡이, 민족반역자들이 정권의 자리를 타고앉으면 그 정권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정권으로 전락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길러낸 철저한 사대매국노들로 이루어져 왔다. 리승만, 박정희 역도가 그러했고 오늘의 전두환, 로태우역도 역시 나라와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 없고 오직 상전에게 아부굴종하는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들이다.

괴뢰우두머리뿐아니라 《립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군부의 요직에 앉아있는자들도 다 민족반역행위에 앞장서고있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다. 이와 같은자들이 괴뢰정권의 요직들을 독차지하고있기때문에 남조선괴뢰정권이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 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괴뢰정권에 사대매국노들이 들어가게 되는것은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사회정치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다.

오늘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괴뢰헌법과 악명높은 《정당법》, 《국가보안법》들에 의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지배와 략탈, 민족의 분렬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주장하는 자주적이고 애국적인 정당조직은 《법》적으로 금지되고있으며 그러한 정당의 조직에 가담하는것은 그것이 아무리

적은것이라 하더라도 《보안사범》으로 가장 엄중히 취급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자주적이고 애국적인 정당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떠받들고 받아들이는 우익보수정당의 활동만을 허용하고있다. 이와 같은 《정당제도》에 기초하고있는 남조선에서 괴뢰대통령이나 괴뢰국회의원 선거란 사실상 매국적이고 반동적인 우익보수정당대표들을 괴뢰정부의 요직에 들어앉히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책에 불과하며 그들이 실시하고있는 정책이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지난날 미제의 손때묻은 주구 리승만과 박정희역도가 괴뢰대통령감투를 쓴것이나 오늘의 전두환역도가 《대통령》감투를 쓴것은 다 남조선인민들이 그들을 좋아서 선출한것이 아니라 미제의 뒤받침을 받는 반동적인 남조선사회정치제도에 기초하여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이 남조선에서 한짓이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만을 감행한것뿐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이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매국정권으로 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이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철저한 매국정권이라는것은 또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상전에게 송두리채 팔아먹고 있는데서 드러나고있다.

정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실현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외세에 팔아먹는데 복무하는가 하는것은 자주적이고 애국적인 정권과 예속적이며 매국적인 정권을 가르는 중요기준으로 된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제가 그것을 제멋대로 유린하는데 써먹는 도구로 되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지배와 략탈을 가리우는 병풍노릇을 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정권을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는 기본공간으로 써먹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인 세계전략과 남조선에 부여하고있는 군사전략적지위로부터 출발하여 방대한 침략무력을 이 지역에 항시적으로 주둔시키고 《팀 스피리트》를 비롯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빈번히 감행하고있으며 남조선을 핵전초기지화하고 미국, 일본, 남조선괴뢰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다그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정권사이에 조작된 이른바 《조약》과 《협정》들에 의하여 《합법화》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남조선과 미국과의 《방위조약》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미제의 륙해공군을 남조선과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미제에게 주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조선의 전 령토와 령해, 령공을 미국의 《령토》, 《령해》, 《령공》과 다름없이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남조선괴뢰정권은 미국과 맺은 이른바 《행정협정》을 통하여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매우 굴욕적으로 보장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시공간적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합법화》하고있으며 그들에게 민사, 청구권, 로무문제, 시설, 토지 수용 등 필요한 온갖 특전을 부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면서 징발한 개인 또는 단체소유의 토지, 건물이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놈들은 이에 대한 아무러한 보상의무를 지니지 않고있으며 현재 남조선에 늘여놓은 수십개의 군사기지도 무료로 사용하고있다. 이밖에도 괴뢰정권은 《공익사업》과 용역(수송과 통신시설 및 기관, 전기, 가스, 수도, 난방, 전열, 전등, 동력 및 하수오물처리) 사용권, 각종 면세제도, 선박, 항공기의 입항

료, 착륙료 면제, 물품세, 통행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영업세 면제 등 제반특전을 미제침략군에게 제공하고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출판물까지도 《외국군대를 우대하면서 자기 땅의 민중을 학대하는 정부는 식민지정부임이 명백》하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처럼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온갖 비굴한 책동을 다 감행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고 그 예속화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라는것은 특히 괴뢰군의 작전지휘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섬겨바치고있는데서도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한 민족이 외세에게 지배와 종속을 당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정치, 경제적 자주성을 완전히 옹호실현하자면 해당정권이 군사적 지휘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민족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무결하게 장악해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괴뢰정권은 민족의 자주성옹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는 군대에 대한 통수권마저 미제침략자들에게 넘겨주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과 리승만괴뢰역도가 당시 유엔군총사령관으로 있던 맥아더에게 보낸 《국군》의 작전권 이양에 관한 편지, 미국과 남조선 련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남조선괴뢰군의 작전지휘권과 인사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다. 오늘 남조선에는 근 100만에 달하는 괴뢰군이 있지만 그 작전지휘권, 통수권은 미제가 쥐고있다.

남조선괴뢰군의 작전지휘권상실은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되고있다. 괴뢰군이 비대하고 괴뢰군부가 정치권력의 중추를 형성하고있는 남조선의 현실적 조건에서 미제침략군에 의한 남조선괴뢰군의 작전지휘권의 행사는 순수한 군사적 지배에 국한될수 없다. 미국장성에 의한 남조선괴뢰군의 작전적 지휘권의 행사는 남조선괴뢰군을 미제침략군의 고용군대화할뿐아니라 괴뢰군부에 대한 지배를 통한 군사파쑈정권의 지배로 된다. 그리하여 미제는 남조선의 군사독재정권을 마치도 저들의 하나의 행정기관처럼 여기면서 온갖 내정간섭을 마음대로 자행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남조선의 량심있는 사람들은 남조선《국군》의 《군사작전의 미군예속은 세계에서 유일한 주권상실의 형태》라고 말하고있으며 얼마전에 남조선 미국 련합사령관을 지낸바있는 스틸웰도 남조선《국군》의 작전권상실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실토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이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고 《경이적인 주권포기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조금도 민족적 량심가책을 느끼지 못하고있으며 도리여 남조선괴뢰군이 미제침략군에 종속되여 그에 《복무》하게 된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된다고 얼빠진 소리를 줴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군통수권을 상전에게 송두리채 섬겨바쳤을뿐아니라 모든 대내외정책의 작성과 집행도 철저히 미제의 대아세아전략과 대남조선정책에 따라 미제의 지령과 각본에 맞추어하고있다.

물론 남조선에는 형식상으로는 괴뢰국회, 괴뢰행정부, 괴뢰사법부가 있다. 그리고 《대외업무기관》들과 해외주재 《외교공관》들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다 하나의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자기스스로는 그 어떤 결정도 채택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실제적으로 주인노릇을 하고있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일찌기 그 조작 첫시기에 벌써 미제와의 《재정 및 재산이양에 관한 협정》을 만들어 미군정청 또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체 현행법률 및 규칙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할것을 맹세함으로써 남조선《정권》이 미

군정의 단순한 연장에 지나지 않는 허수아비정권임을 자인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그후에도 조선전쟁도발과 함께 조작해낸 미국과의 《통수권 이양에 관한 협정》 그리고 전후시기에 조작해낸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이른바 《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과 《경제 및 기술원조 협정》 등 수많은 《조약》과 《협정》 그리고 미국과 거듭 벌리고있는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등에서 저들이 실시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및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물론 매 시기 주되는 정책내용들을 지령받고있으며 그것을 충실히 집행해나갈 《의무》를 지니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괴뢰정권은 서울주재 미국대사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부, 미중앙정보부남조선지부와 미국정부의 대남조선관계부서들의 체계적인 감독통제밑에 있으며 괴뢰정권의 매개 활동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미제의 배후조종과 로골적인 내정간섭밑에 이루어지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이 표방하고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의 제반시책, 력대괴뢰정권이 들고나왔거나 또 지금도 들고있는 주되는 정책구호들은 다 미제가 립안하고 쥐여준것이다.

이처럼 남조선괴뢰정권은 자주정권으로 분식되고 치장된 현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매국정권이며 미제의 대남조선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도구로 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괴뢰정권이야말로 철저한 친미사대매국노들로 구성되여있으며 그들이 실시하고있는 정책은 철두철미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가장 매국적인 《정권》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고 미제에 의하여 부지되고있는 남조선괴뢰정권을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발전과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괴뢰정권을 끝장내고 참으로 자주적이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다.

매국적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오직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고 미제의 내정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군통수권을 넘겨받고 미국과 맺은 모든 예속적이고 매국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페기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권을 내올수 있으며 인민들의 자주적인 권리와 번영을 보장하는 참다운 정책을 실시할수 있다. 남조선이 미제의 지배와 예속 밑에 있는 조건하에서는 그 누가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다 해도 그 《정권》이 민주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정권으로 될수 없다. 이것은 지난 40여년동안 남조선현실이 보여준 엄연한 사실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깨닫고 자신의 단합된 투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반미자주화구호를 전면에 들고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인민들의 의사를 거역하고 외래침략자들에게 의거하고있는 반동적인 정권이 꺼꾸러지고 진보적인 정권이 수립되는것은 하나의 막을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없이 애국적인 정권을 수립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이다.

미제의 아세아, 태평양 전략과 3각군사동맹조작책동

황 헌

오늘 아세아, 태평양 지역은 방대한 침략무력이 집결되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가 들어찬 하나의 화약고로 전변되였으며 세계에서 정세가 가장 긴장하고 첨예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정세가 조성된것은 미제가 아세아, 태평양 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전쟁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세계전략이다. 미제는 현시기 세계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더욱더 중시하는데로 나가고있다. 그들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리익》을 위한 《사활적인 지역》,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관건적인 지대》라고 하면서 세계전략의 중심을 구라파로부터 아세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새로운 아세아, 태평양 전략을 들고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미국은 〈21세기는 태평양시대〉라고 하면서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돌리고있습니다.

미제가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추구하는 기본목적은 〈힘〉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 력량을 견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려는것입니다.》

미제의 아세아, 태평양 전략은 더욱더 많은 미군무력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묶어세워 나토형의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반제자주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려는데 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힘》의 우세로써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극히 모험적인 군사전략이다.

미제가 아세아, 태평양 전략을 들고나오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옛 지위를 회복하고 식민지통치를 유지확장하려는데 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혁명적 폭풍우가 가장 세차게 휘몰아치는 지대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다. 바로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생명선이 끊어져가고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참패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이래 동남아세아에서도 련속 패배를 당하였으며 서남아세아에서도 쫓겨났다.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미제가 조작하였던 침략적 군사쁠럭인 세아토와 센토는 붕괴되고말았으며 안쥬스는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결과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지배권과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아세아침략정책은 전면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런 형편에서 미제는 그 어떤 침략적 전략도 마음대로 실현할수 없는것은 물론 이 지역에서 종국적으로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급격히 증파하고 추종국가들과 괴뢰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을 견제하고 반제자주력량을 압살하며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다시 확립하는것을 중요한 전략적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는것이다.

미제가 아세아, 태평양 전략을 들고 나오게 된것은 또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략탈을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는 천연고무, 주석, 티탄, 석유 등 전략자원이 풍부하다. 아세안나라들에서 생산되는 천연고무는 세계시장에서 80%, 주석은 60%를 차지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대륙붕 석유자원의 대부분도 이 지역의 해저에 매장되여있다. 이것으로하여 오늘 아세아, 태평양 지역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의존도는 날을 따라 커가고 있다. 미국의 수출입총액에서 구라파가 차지하는 몫은 1970년에 31.5%였던것이 1982년에는 25.7%로 줄어든 반면에 아세아, 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몫은 같은 기간에 26.1%로부터 34.8%로 늘어났다. 미국은 아세안지역으로부터만도 게르마니움, 티탄, 탕그스텐은 수요의 90%이상을, 석과 천연고무는 수요의 80%를 수입하고있다. 미국의 대외무역의 중심은 구라파지역으로부터 아세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략탈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미국은 더는 제국주의적 경제를 지탱할수도 없고 세계에 대한 경제적 팽창을 실현할수도 없게 되였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안정된 원료 및 연료 공급지로, 상품판매시장과 자본투하지로 튼튼히 확보하려는것이 또한 미제가 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되고있다.

미제가 아세아, 태평양 전략을 들고 나오게 된것은 또한 이 지역이 저들의 새로운 세계군사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군사전략적 의의를 가지고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지금까지 미제는 서구라파나토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전면대결을 하며 세계의 다른 지역의 군사쁠럭들을 나토와 련결시킴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력량관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러한 군사전략이 더는 통할수 없게 되자 미제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전략적 의의를 새롭게 부여하고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저들의 주도하에 새로운 군사쁠럭을 조작하여 동서 두 방향으로부터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려 하고있다. 미제의 아세아, 태평양 전략은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군사전략의 직접적인 산물인 것이다.

미제의 아세아, 태평양 전략은 《힘》에 의거하여 이 지역에 대한 끝없는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철두철미 침략과 전쟁의 전략이다. 그것은 미제의 야망과 탐욕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들은 살찌고 배가 부를수록 야망과 탐욕이 더욱더 커지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한층더 집요하고 횡포하게 감행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인 아세아, 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데서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인 아세아전략을 수행하는데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남조선 사이에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을 한층 로골화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58～459페지)

동맹자들과 추종자들을 군사동맹에 묶어세워 저들의 침략목적에 리용하며 앞잡이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그 지역나라 인민들을 공격케 하는것은 미제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데서 쓰고있는 상투적 수법의 하나이다. 미제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반제자주력량과 사회주의력량에 저들의 힘만으로는 맞설수 없게 되자 이와 같은 교활한 수법에 더욱더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은 미제의 침

략적인 아세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위험한 침략적 군사괴력이다.

미제는 3각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일본을 저들의 아세아, 태평양 전략수행에 전면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아세아, 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데서 미제는 커다란 군사경제적 잠재력과 풍부한 침략전쟁경험을 가지고있는 일본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을 3각군사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함으로써 아세아의 《맹주》로, 저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그를 통하여 아세아나라들을 틀어쥐며 이 나라들에 대한 식민주의적 지배를 실현하려고 하고있다. 특히 3각군사동맹을 통하여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결탁을 강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군사적 침투를 촉진하며 저들의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책동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깊이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고 그것을 안쥬스와 련결시키고 다른 나라들을 여기에 끌어들여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구라파의 나토와 같은 《아세아, 태평양집단안보체계》를 새로 만들것을 추구하고있다.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도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서 그들대로의 침략적이며 반동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미제의 아세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그들은 이러한 야망으로부터 미제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일본의 재무장을 다그치는 한편 남조선괴뢰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3각군사동맹을 발판으로 하여 남조선을 비롯한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일상전의 아세아 침략정책을 앞장서 집행함으로써 남조선을 미일반동들의 2중의 식민지로, 침략적 군사기지로 완전히 내맡기고 그 대가로 저들의 더러운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며 식민지파쑈통치를 전조선에 확대해보려 하고있다.

3각군사동맹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들은 《운명공동체》로 밀착되여있다.

미제는 3각군사동맹의 창끝을 조선에 돌리고있다.

조선반도는 아세아대륙에 직접 잇닿아있으며 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린접해있다. 미제는 저들의 아세아, 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데서 조선반도를 군사전략적 요충지로서 특별히 중요시하고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고있는 목적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계속 틀어쥐려는것이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 나아가서는 전아세아대륙을 침략하려는것이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시기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과의 《안보조약》과 남조선괴뢰도당과의 《호상방위조약》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군사적으로 더욱 밀착시킴으로써 미일남조선의 군사적 일체화를 다그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밑에 지금까지의 미국과 일본,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공동작전체제는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공동작전체제로 전환되고있다.

미군과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을 련결하는 통신, 정보, 군사용어, 각종 군사업무 등 작전지휘수단들이 일원화되였다. 남조선에 있는 미군과 괴뢰군

의《련합사령부》를《유사시》에 미군과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의 《련합사령부》로 개편하며 그의 지휘밑에 공동작전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척되고있다.

조선반도를 목표로 하여 일본《자위대》무력의 배비변경이 진행되고있다. 지난 기간 홋까이도를 중심으로 편중되여있던 《자위대》무력이 그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조선반도에 면한 일본의 서남부에 집중배치되고있다.

3각군사동맹이 완성되여감에 따라 미군과 일본《자위대》, 남조선괴뢰군의 군사행동을 일체화하기 위한 공동군사연습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매해 벌어지고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와 함께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일본은 이 군사연습의 발진, 작전, 보급, 중계 기지로서 미군병력과 군사수단들을 남조선에 실어나르기 위한 수송수단들도 제공하였으며 《자위대》장교들이 《참관》이라는 이름밑에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련결시키는 실제적인 미일남조선공동작전훈련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이 본질에 있어서 조선반도의 《유사시》에 일본《자위대》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진행하기 위한 침략적 군사뿔럭이며 그것이 아직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움직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의하여 오늘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는 더욱 첨예화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히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제가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고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지역전쟁으로 머무르지 않고 섭사리 세계적인 전쟁, 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으며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줄수 있다. 오늘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아세아인민과 세계인민들에게도 새로운 재난을 들씌우는 중요한 화근으로 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미제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고도의 경각성을 높이며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은 반제, 반전, 반핵, 평화의 기치밑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하며 침략의 마수가 뻗쳐있는 모든곳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은 반미투쟁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해외팽창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반제, 반전, 반핵, 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중국공산당 제13차대회에서 한 조자양동지의 보고

조자양동지는 중국공산당 제13차대회에서 제12기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길을 따라 전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된 사업보고를 하였다.

조자양동지는 보고에서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이후 9년동안에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여 나라의 면모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데 대하여 개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 제12차대회는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로선을 견지하고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전면적으로 열어놓기 위한 강령을 내놓았다.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로부터 시작하여 당 제12차대회를 거쳐 이번 대회에 이르기까지 9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다. 이 9년동안에 건국이후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성과가 이룩된 기초우에서 당의 력사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열려졌으며 나라의 면모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단단히 틀어쥠으로써 인민경제의 지속적이며 안정한 장성을 이룩하였다. 9년동안에 국민총생산액과 국가의 재정수입 및 도시와 농촌 주민의 평균수입이 대체로 다 배로 장성하였다. 지금 같아서는 현세기말에 이르러 당 제12차대회가 제시한 경제발전목표를 실현할수 있으리라는 충분한 자신이 있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가 골머리를 앓던 엄중한 사회경제문제들이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해결되기 시작하였거나 그 해결책을 찾게 되였다.

10억 인구의 절대다수가 먹고 입는 면에서 걱정없이 지낼수 있게 되였다. 일부 지역들은 비교적 유족한 생활수준에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아직 일부 지역들에서는 먹고 입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으나 개선은 가져왔다.

도시와 농촌에서 취업의 길이 널리 열려졌으며 도시에서 새로 취업한 로력이 7천만에 달한다.

시장공급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지난날 장기간에 걸쳐 소비품이 극히 모자라던 국면이 기본상 개변되였다.

인민경제의 중대한 비률관계가 엄중히 파괴되였던 상태가 현저히 개변되였으며 인민경제가 대체로 균형적인 발전의 궤도에 점차 들어섰다.

그는 지난 9년동안은 건국이후 국가의 경제력이 가장 빨리 장성하고 인민들이 실제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시기이며 당이 인민들을 령도하여 정치, 사상, 문화, 국방, 외교 등 령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시기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안정단결된 정치적 국면이 공고발전되였다.

부르죠아자유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견전하게 전개됨에 따라 사람들의 각성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정치운동을 하지 않고 긍정교양과 옳바른 비판에 의하여 그릇된 사상을 반대하는 경험이 가일층 축적되였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법제의 건설이 점차 발전하고있다. 헌법에 기초한 사회주의법률체계가 초보적으로 이루어졌다. 인민들의 정치생활은 갈수록 더 활기를 띠고있다. 애국통일전선이 전례없이 확대되였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여러 당들이 합작하고 협상하는 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있다. 여러 민족들간의 형제적 단결이 더욱 튼튼해졌다.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이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리상교양과 도덕교양, 법

제교양이 전사회적 범위에서 광범히 전개되고있다. 교육, 과학, 문화, 예술, 보도, 출판, 보건, 체육 사업이 줄기차게 발전하고있다. 9년제의무교육이 점차 실시되고있다.

국방건설은 지도사상면에서 전략적 전환을 가져왔다. 군대의 정돈개편과 개혁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군대 100만명을 축감함과 동시에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에서 새로운 진보를 가져오고 방위작전능력이 새롭게 높아졌다. 인민해방군은 조국을 보위하며 위험과 재해를 제거하며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는 등 여러 면에서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한 나라 두 제도》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영국, 중국과 뽀르뚜갈은 홍콩문제와 마카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보았다. 우리는 또한 이 원칙에 따라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힘쓸것이다. 《한 나라 두 제도》의 원칙에 따라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구상과 실천이 중화민족의 정치적 지혜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는것을 력사는 실증해줄것이다.

국제정세와 우리 나라 현대화건설의 요구에 따라 평화와 발전이라는 두 주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구성태와 당의 대외관계를 조절하였으며 독립자주적이고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대외정책을 발전시켰다. 국제적으로 우리의 벗이 더 많아졌다.

그는 지난 9년동안의 실천은 중국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당으로서 손색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이래의 로선이 정확한 맑스주의적 로선이라는것을 실증해주었다고 하면서 이 로선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등소평동지는 맑스주의적인 리론활동과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난 9년동안에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굳게 뭉쳐 힘차게 싸운 결과이라고 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이름으로 당을 신뢰하고 지지해온 인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마땅히 긍지를 느낄수 있으나 자만할 리유는 추호도 없으며 앞으로의 로정이 더욱 멀며 임무가 더욱 어렵고 무겁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이래의 로선을 견지하고 발전시켜나간다면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길을 따라 계속 전진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가 지금 처해있는 력사적 단계를 정확히 인식하는것은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며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근본기준점인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당은 이미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의 낮은 단계에 놓여있다는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이 론점은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첫째, 우리 나라 사회는 이미 사회주의사회라는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를 견지해야지 그것을 떠나서는 안된다.

둘째,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사회는 아직 낮은 단계에 놓여있다는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현실로부터 출발해야지 이 단계를 뛰여넘어서는 안된다.

그는 중국의 사회주의가 반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싹트고 자라났기때문에 그 생산력수준이 뒤떨어져있으며 생산의 사회화정도가 아직 매우 낮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중국처럼 뒤떨어진 동방의 큰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것은 맑스주의발전사에서 새로운 과제로 된다.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현실은 맑스주의창시자들이 구상한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기초우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도 아니고 다른 사회주

의나라들과도 똑같지 않다.

책에 씌여져있는것을 교조적으로 옮겨놓아도 안되며 외국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도 안된다. 반드시 나라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맑스주의기본원리를 중국의 현실에 결부시켜 실천과정에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그는 사회주의 낮은 단계의 실제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현대화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개혁을 견지하며 대외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고 안정단결을 전제로 한 민주정치를 건설하며 맑스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정신문명건설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의 낮은 단계에서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기본로선은 전국 각 민족인민들을 령도하고 묶어세워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4개기본원칙을 견지하며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자력갱생, 간고창업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고 문명한 현대화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는것이다.

사회주의길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며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견지하는 이 4개기본원칙은 우리의 건국대본이다.

그는 경제발전전략에 언급하여 중국의 경제건설은 전통적 산업혁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계의 새 기술혁명을 빨리 따라잡아야 할 두가지 임무를 걸머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임무는 장기간에 걸쳐 순차성있게 단계별로 노력을 경주해야 완수할수 있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이후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전략적 포치는 대체로 세 단계로 나뉘게 된다. 첫단계는 국민총생산액을 1980년의 배로 늘여 인민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이 임무는 이미 기본적으로 실현되였다. 둘째단계는 현세기말에 가서 국민총생산액을 또 배로 늘여 인민생활을 비교적 유족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것이다. 셋째단계는 다음세기중엽에 가서 한사람당 국민총생산액이 중등정도로 발전한 나라의 수준에 이르게 하여 인민생활을 비교적 부유하게 하고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기초우에서 계속 전진할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것은 둘째단계를 잘 거치는것이다. 둘째단계의 임무가 실현되면 우리 나라의 현대화건설은 새로운 거족적 전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사회의 경제적 효과성, 로동생산능률 및 생산물의 질이 현저히 높아지고 국민총생산액과 주요 공업, 농업 생산물의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고 한사람당 국민총생산액의 세계적 순위가 뚜렷하게 올라갈것이다. 공업의 주요령역은 기술면에서 대체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의 70년대 또는 80년초 수준에 이를것이며 농업과 기타 산업부문의 기술수준도 비교적 크게 높아질것이다. 도시와 대부분의 농촌들에서 초등교육이 보급되고 대도시에서 고중교육과 고중에 대등한 직업기술교육이 기본적으로 보급될것이다. 인민대중은 비교적 실속있는 유족한 생활을 하게 될것이다. 인구가 많고 기초가 뒤떨어진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이 보편적으로 잘 입고 잘 먹으며 즐겁게 일하며 생활할수 있도록 한다는것은 의심할바없이 거창하고도 매우 간고한 사업이다.

둘째 단계의 투쟁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많은가하면 곤난과 모순도 적지 않다. 모순의 초점은 경제활동의 효과성이 너무 낮은것이다. 그것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잘하여 해마다 진보를 이룩해야만 인민경제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성을 중요시하고 질을 높이며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정

하게 장성시키는 전략을 확고부동하게 관철집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진보를 다그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세계에 눈길을 돌리면서 발전의 방향과 중점을 정확히 틀라잡아야 한다.

과학기술사업의 선차적 임무는 인민경제를 진흥시키는것이다. 대규모적 생산의 산업기술과 장비현대화를 주로 추진시킴으로써 농업, 에네르기, 원자재, 교통, 통신, 기계제작 등 중점산업기간부문의 기술면모를 현저히 개선하여야 하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일반화하며 기업소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치며 농촌경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불꽃계획》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완이 있고 일솜씨가 능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고도기술연구, 특히는 극소전자기술, 정보기술, 생물공학기술 및 새로운 재료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며 기초연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

교육사업의 발전을 특별한 전략적 위치에 놓고 지력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비를 해마다 늘이는것과 함께 사회 각 분야의 력량이 자금을 모아 학교를 꾸리는 것을 계속 장려해야 한다.

교육이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현실의 요구에 따라 교육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교육에서 현실과 리탈되고 일면적으로 진학률을 추구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가일층 조성하며 인테리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계속 개선하여 모두가 재능을 다 발휘하며 있는 재능을 다 써먹도록 해야 한다.

광범한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현대화건설을 위하여 특출한 성과를 올린 사람들을 다 장려해야 한다. 모든 힘을 집중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재직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훌륭한 자질을 소유하고 규률을 엄격히 지키는 로력대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우리자체의 과학기술일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동시에 외국과의 인재교류사업도 적극 벌려야 한다.

효과성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인민경제를 안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의 총적 수요와 총적 공급간의 대체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전사회의 고정자산투자총규모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그것을 국력에 적응시키며 생활소비의 장성정도를 옳게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생산발전에 적응시키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종합적 균형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함으로써 재정, 신용대부, 외화 및 물자의 자체균형과 호상간의 기본적 균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농업을 계속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고 농촌경리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소비품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초공업과 기초시설을 충분히 중시하며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네르기공업, 강철, 유색금속, 화학 공업원료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재공업, 종합적 운수체계와 정보전달체계를 주축으로 하는 운수업과 통신업의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그리고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현대화건설에 갈수록 더 많은 선진적 기술장비들을 제공하며 건축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건축업이 점차 인민경제의 기본사업으로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초공업과 기초시설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 기초공업과 기초시설도 고립적으로 발전시킬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발전과 조화시켜야 한다.

농업의 안전한 장성과 농업산업구조의 개선은 전반적 인민경제의 장기적이

며 안정한 발전의 기초로 된다. 우리나라는 농업생산조건이 아직도 비교적 락후하고 그 발전이 매우 불안정하기때문에 농업건설을 강화하는것은 각별히 절박하고 중요하다. 우리는 알곡생산에 깊은 주의를 돌려 앞으로 10여년동안에 알곡생산량이 비교적 큰 장성을 가져오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은 현세기말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기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그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체제개혁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깊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면한 주되는 임무에 언급하였다.

그는 전인민적 소유의 기업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소들에서 로동규률을 바로세우고 과학적 관리를 엄격히 하며 종업원들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발휘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횡적 경제련합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무엇보다먼저 대, 중 도시를 다기능적이며 현대적인 경제중심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시장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는 가격개혁을 적극적으로, 안정하게 추진시키고 상품가격과 각종 생산요소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사회주의 낮은 단계에서는 로동에 의한 분배를 위주로 하고 기타의 분배방식을 보충으로 하는 여러가지 분배방식과 정확한 분배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제체제개혁의 임무는 매우 어렵고 무겁다고 하면서 그 간고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실적 조건에 립각하여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정치체제문제에 언급하여 개혁의 목적은 모두 당의 령도밑에 그리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회생산력을 더 잘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는데 있다고 하면서 개혁을 진행하는것은 바로 리로운것을 발전시키고 해로운것을 없앰으로써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정치를 건설하기 위해서이라고 지적하고 고도로 민주주의적이고 법제가 완비되고 능률이 높고 활력이 차넘치는 사회주의정치체제를 수립할데 대하여 말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의 현대화건설은 복잡한 사회모순에 직면하고있고 안정된 사회정치적 환경을 요하는것만큼 국가법제를 파괴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대민주》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인민대표대회제도, 공산당의 령도밑에 여러 당들이 합작하고 정치적 협상을 하는 제도,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사업하는것은 우리의 특징이며 장점인것만큼 이 특징과 장점을 버리고 서방의 《삼권분립》과 다당륜번식 집권제를 옮겨와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나라의 사회주의위업의 령도핵심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세하에서 오직 당의 령도제도와 령도방식, 령도작풍을 개선해야만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국가정권을 수립하고 군중단체와 각종 경제, 문화 조직을 내온것만큼 당은 마땅히 정권조직이 지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담보하여야 하며 군중단체 및 기업사업단위의 사업을 가로탈것이 아니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며 당조직의 활동과 당원들의 모범적 역할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이끌어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는 당중앙은 내정, 외교, 경제, 국방 등 여러 방면의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정치적 령도를 실현하여야 하며 당의 규률검사위원회는 력량을 집중하여 당규률을 틀어쥐고 당위원회들을 도와 당풍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적 민주정치의 본질과 핵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공민의 모든 권리를 참답게 향유하며 국가와

기업을 관리할 권력을 향유하는것이다. 현단계의 사회주의적 민주정치건설에서는 실제적인 효과성에 주의를 돌리며 기층 및 대중의 적극성을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여 기본제도를 완성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나라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다. 최근년간 각급 인민대표대회사업은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계속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모든 직능을 완비하며 립법사업과 법적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대중과의 련계를 가일층 밀접히 하여 인민대표대회가 인민을 더 잘 대표하며 인민의 감독을 더 잘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인민정치협상회의는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을 망라한 애국통일전선조직이다. 정치협상회의 자체의 조직건설을 강화하여 점차적으로 국가의 기본방침, 정책과 군중생활에서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치협상과 민주주의적 감독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공산당령도하의 다당합작 및 협상제도를 완성하며 국가정치생활에서의 민주당파와 무소속 애국인사들의 역할을 가일층 발휘시켜야 한다.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 등 군중단체는 언제나 당과 정부가 로동계급 및 인민대중과 련계하는 인전대 및 뉴대로서 사회주의적 민주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조국의 통일을 수호하며 민족적 평등과 민족적 단결을 견지하며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촉진하는것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되고있다. 민족들의 지역자치제도를 가일층 완성하며 소수민족간부를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각 민족의 대단결을 계속 공고히 하고 강화하며 평등, 단결, 호상협조의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발전시키며 전당이 당의 민족정책을 착실하게 집행하며 민족사업을 잘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다.

국가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독재의 여러 고리들에서 법에 철저히 의거하며 법을 철저히 지키며 법을 엄격히 집행하며 위법행위를 반드시 추궁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제를 틀어쥐여야 한다. 립법사업을 강화하고 법을 집행하는 활동을 개선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의하여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공민의 법의식을 높여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으로 무장된 당이며 장기간에 걸친 투쟁에서 단련된 강의한 당이다. 이번 대회가 확정한 간고하고도 복잡한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며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위대한 력사적 책임을 보다 훌륭히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조건에서의 당건설 리론과 실천에 대해 연구하여야 하며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지 않는 관념과 방법을 가일층 개변하고 당건설을 철저히 강화하여야 한다.

당건설문제는 언제나 당의 정치로선과 긴밀히 련관되여있다.

새 시기의 당의 모든 사업은 당의 기본로선의 관철집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건설에 있어서는 당의 기본로선을 전면적으로 선전하여야 한다. 당의 각급 조직들과 당학교들에서는 전체 당원, 특히 지도간부들의 사상과 행동을 당의 기본로선과 일치시키며 광범한 공산당원들로 하여금 당적 과업의 실현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투쟁하는 선봉투사로, 리상과 도덕이 있고 문화성과 규률성이 있는 모범당원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낮은 단계의 현실과 밀접히 결부시켜 당원들에게 당의 기본로선교양과 당의 기본지식교양을 정상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사상정치사업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야 할뿐아니라 새로운 정세에 맞는 여러가지 효과적인 형식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적극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의 사회주의적 적극성과 창조적 열정, 헌신성을 북돋아주며 전민족의 력량을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에 묶어세워야 한다.

간부대오의 자질은 당의 로선을 관철 집행하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이후 당의 정치로선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간부대오의 혁명화, 년경화, 지식화, 전문화 방침은 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증명되였다.

혁명화를 견지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기본로선을 견결히 관철집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다. 덕재를 겸비하고 또 공정하고 정직한 즉 당의 로선에 충실하며 당의 로선을 창조적으로 집행해나가는 간부들을 많이 등용하여야 하며 말공부만 하고 실속있게 일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적 현대화위업에 대해 열정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중요한 직무에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당은 로동계급의 선봉대이며 고도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대오이다. 당원이라면 어디까지나 당원징표에 부합되여야 하며 당규률을 엄격히 지키며 당원의 모범적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당 및 정부의 지도기관에서 사업하고있는 당원들, 특히 중요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당원 간부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칙과 규범을 세워야 하겠다.

옳은것을 춰세워야만 그릇된것을 눌러버릴수 있다. 당성이 강하고 자각적인 헌신성을 가지고있으며 일심전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생각하며 모범적으로 당정책을 집행하고 당적 과업을 수행하는 훌륭한 동지들을 제때에 적극 표창해주어야 하겠다.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는 맑스주의의 기본원리가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결부된 산물이며 현시대의 중국에 뿌리를 내리고있는 과학적 사회주의이다. 그것은 전당의 동지들과 전국인민이 인식을 통일하고 단결을 강화하는 사상적 기초이며 우리 위업의 전진을 향도하는 위대한 기초이다.

맑스주의는 실천과정에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이다. 맑스주의가 새로운 큰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것은 현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세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있고 인류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위업에는 새로운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맑스주의자들이 새로운 시야를 열어놓으며 새로운 관념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지에 이를것을 요구하고있다.

맑스주의가 우리 나라의 실천과 결부되여온지는 60여년이 된다. 이 과정에 두 차례의 력사적 비약이 있었다. 첫번째 비약은 신민주주의의 혁명시기에 있었다.

중국공산주의자들은 거듭되는 탐구를 통하여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총화한 기초우에서 중국의 특색을 가진 혁명의 길을 찾아내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두번째 비약은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이후에 있었다. 중국공산주의자들은 건국이후 30여년동안의 경험을 총화한 기초우에서 그리고 국제적 경험과 세계정세를 연구한 기초우에서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길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력사가 우리에게 준 과업은 위대하고 간고하다.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 그리고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와 함께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기치밑에 더욱 굳게 뭉쳐야 하겠다. 우리 대륙동포들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및 해외교포들과 함께 조국통일과 중화부흥의 애국주의의 위대한 기치밑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야 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근본담보이다.

우리의 위업은 미래에로 나아가는 위업이다. 당과 인민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최대의 희망을 미래를 대표하는 생기발랄한 청년들에게 걸고있다. 중화민족의 진흥,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 사회주의현대화위업의 승리는 전체 인민의 노력에 의거하며 종당에는 광범한 청년들이 먼저 간 사람들의 위업을 계승하고 앞길을 개척해나가면서 착실하게 간고분투하는데 의거하게 된다.

당면한 국제정세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유리하다.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세계 각국 인민들의 거대한 노력의 추동밑에 군비경쟁과 침략팽창을 저지시키며 진정으로 군비를 축소하고 지역적 충돌을 조속히 해결할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미국과 쏘련은 중거리미싸일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합의를 본것은 군비축소의 첫걸음을 내디딘데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겠다. 군비경쟁이 중지되자면 아직도 멀었다. 《열점》은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으며 개별적 지역에는 충돌이 더 격화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국제정세가 진정으로 완화되자면 아직도 기나긴 어려운 과정, 지어는 곡절많은 과정을 거치게 될것이므로 각국 인민들은 계속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다.

중국은 계속 드팀없이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실시하며 평화공존의 5개 원칙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것이다.

우리는 전세계 평화애호적인 나라 및 인민들과 함께 국제정세가 세계인민들에게 유리하고 세계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도록 추동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일것이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은 인류의 진보적 위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은 세계를 진감시켰으며 세계 진보적 력량과 맑스주의의 영향력을 넓혔다.

중국의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성공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적 위업에 새로운 기여를 하게 될것이며 과학적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가일층 강화할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현대화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는 로정에서 이미 첫단계의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는 두번째 단계, 세번째 단계의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싸워나가야 하겠다.

근 로 자 1988년 제1호(루계 549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8년 1월 3일 발 행 • 1988년 1월 5일
ㄱ—75233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第2号(55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오늘 사회주의는 력사의 주역을 놀면서 광명한 미래를 힘차게 개척해나가고있다. 시대가 전진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의 견인력은 끊임없이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에로 나가려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으로 되였다.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세상사람들이 그 우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지도 퍽 오래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의연히 위험한 세력으로 남아있으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에는 첨예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현시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가장 투철한 혁명적 립장이며 공산주의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미룰수 없는 력사적 과제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이 마련해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투쟁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이 제도를 더욱더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람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사회제도를 세우는것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갈망하여온 숙원이다.

그러나 력사가 알고있는 모든 사회제도가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 그러한 사회제도는 아니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낡은 사회에서 오래동안 사회제도와 대치되여 생활하여왔다. 원시공동체사회를 제외하고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유린하는 사회제도가 수천년동안 인류사회를 대표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자기들의 지향을 구현한 사회, 인간의 본성에 맞는 사회제도를 동경하여 투쟁에 나섰던것이다. 노예폭동자들이 그러하였고 농민봉기자들이 또한 그러하였다.

부르죠아지는 근로대중의 이러한 념원에 편승하여 그것을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널리 리용하였다.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제도가 《자연적인》제도, 《자유》와 《평등》을 구현한 사회제도인듯이 설교하면서 임금로동에 기초한 착취제도에 《영원성》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이러한 기도는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하면서 완전히 파산되고말았다.

로동계급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나서고 선진적 혁명사상이 출현하자 사람의 본성에 맞는 사회제도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마련되게 되였다. 혁명적 로동계급과 그 대표자들은 사회주의제도를 자본의 착취가 청산된 터전우에 세워지는 선진적인 사회제도로,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사회제도로 정식화하였다. 이때로부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근절,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형태의 지배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으로 인정되여왔다.

사회주의제도와 그 우월성에 대한 이

러한 견해는 오래동안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릴수 있는 사상적 무기로 되였으며 승리한 사회주의혁명을 옹호보위할수 있는 지침으로 되였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와 더불어 사회주의제도와 그 우월성에 대한 견해도 심화발전한다. 이것은 력사적 필연성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사회주의제도는 여러 나라들에서 실재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는 진보적 인민들속에서 동경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있다. 변천된 조건은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더한층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려면 사회주의제도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이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과 리상에 상응하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리해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 이것은 특히 현대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와 경제적 압력을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하고있으며 세계적 범위에서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경제적 압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지닌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숭고한 사상감정과 이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허물어버리려고 준동한다. 제국주의자들이 벌리는 모든 반사회주의책동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말살하려는데 돌려지고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의 준동을 박차고 사회주의의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와 그 우월성에 대한 인식을 변천된 력사적 조건에 맞게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여 사회주의제도와 그 우월성에 대한 견해에서 력사적 전환을 마련하였던것이다.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이며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완벽한 인식을 줄수 있는 방법론이 확립되고 이 제도의 우월성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정식화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만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맞게 살며 발전할수 있는 사회적조건을 보장해줄수 있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모든 사회성원들이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맞는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하는 선진적인 사회제도라는것을 밝혀준다.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주체적 견해에는 이 제도의 계급적 성격이 뚜렷이 구현되여있다.

사회제도의 계급적 성격은 그 주인이 어떤 계급 또는 어떤 사회적 집단으로 이루어져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사회제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은 제도의 진보성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사회제도를 요구하는 계급은 로동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가는 선진적 계급이다. 로동계급의 령도밑에서만 근로인민대중은 온갖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는 그 로동계급적 성격으로 하여 사회성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맞게 살며 발전할수 있는 전제를 마련해준다.

사회주의제도의 로동계급적 성격을 해명하는것은 자본주의제도와의 차이의

중요한 측면을 밝히는것으로는 되지만 사회주의제도의 전모에 대한 완성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완성된 견해를 정립하려면 이 제도의 주인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 실질적 조건이 어떻게 마련되여있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밝혀져야 한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기준으로 하여 고찰할 때 비로소 해명될수 있다.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그들이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될 때 비로소 보장될수 있다.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결합된 사람들만이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가장 보람있게 살며 죽어서도 영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이야말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맞는 생활이다. 사회적 집단과 떨어져서 개인의 육체적 생명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면서 사는 생활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으며 그것은 동물의 생활과 다름이 없다.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 대립이 청산되고 온갖 착취와 압박이 없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의 두리에 결속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사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집단의 성원으로서 지니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리상으로 여긴다. 사람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지 못하면 아무리 생산력이 발전하고 물질적 재부가 늘어나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만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맞게 살며 발전할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활동방식에 맞게 생활하여야 한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성에 맞는 생활원칙, 활동원칙은 집단주의이다.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이 집단주의적 생활원칙에 따라 활동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하며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로 되고있다. 오직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을 누릴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주체적 견해는 이렇듯 이 제도의 우월성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제도라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맞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라는데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주체적 견해가 확립됨으로써 사회주의사회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사회라는것이 밝혀지고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이 새롭게 정식화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이 제도의 계급적 측면에서만 보던데로부터 인간의 자주적 본성을 기준으로 하여 고찰하는데로의 방법론적 전환이 이룩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와 그 우월성에 대한 주체적 견해야말로 이 제도의 계급적 성격과 함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적과 리상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혁명리론이다.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주체적 견해의 정당성은 우리 나라 현실에 의하여 남김없이 확증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 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수령, 당, 대중이 굳게 통일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 사회적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사회공동의 리익이 철저히 옹호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이 있으며 이 제도의 공고성의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주체적 견해가 확립되고 그것이 혁명실천에서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이 제도의 계급적 성격과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과 리상을 경시하고 목전의 경제적 리익의 견지에서만 사회주의를 평가하려는 그릇된 주장들과 사회주의사회에 이질적인 사상요소를 불어넣고 시장경제를 고취하려는 계급적 원쑤들의 온갖 시도들에 결정적 타격을 줄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를 잘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설과정에 반드시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제도의 혁명적 개조문제가 이미 해결된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아무리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다 하여도 그자체로써는 고유한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것을 발양시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잠재력만 보고 그 우월성이 스스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한다면 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이 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의 관리운영에서 심중한 착오를 범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것은 지난날 경제,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들의 경우에 더욱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는 과거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물려받은 나라들에서도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 남아있었던 상대적 락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업을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과업과 한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낡은 사회제도에서 벗어나자마자 사람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요구하는 높이에 이르게 되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소유하며 뒤떨어진 경제를 선진수준에로 끌어올리기까지에는 일정한 시일이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면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의 잔재를 극복하고 뒤떨어진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어려운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수세기동안 존재해온 자본주의제도에 비하여 매우 짧은 력사밖에 가지고있지 못한 사회주의제도는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분야에서 해놓은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킨다는것은 그 본질과 성격에 맞게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길은 사회주의제도의 주인인 근로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는 관리운영 원칙과 방법을 철저히 견지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를 옳게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사회성원들의 질적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문제는 그 제도자체와만 관련되여있는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 특히는 사회제도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 수준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있는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본질적 특징과 관련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제도의 우월성이 훌륭히 발양될수 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회의 주인인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의 발전정도에 따라 사회제도가 개선되며 그 수준이 규정된다. 새로운 사회제도가 아무리 우월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에 상응한 선진사상과 그것을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있지 못할 때에는 마치 서투른 기대공이 새 기계의 우월한 성능을 제대로 다 내게 할수 없는것처럼 새로운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지 못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훌륭히 발양시키자면 사회성원들의 질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주의제도는 그 본질과 성격으로부터 응당 잘 관리운영될수 있을것으로 인정한다면 이 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자동론》에 빠질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스스로 발양될수 있다고 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사람의 개조활동과 동떨어져 작용하는것으로 보는 견해를 반영한것이다.

사회의 주인은 사람이며 력사의 창조자도 사람이다. 사람의 창조적 활동밖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사회발전법칙의 작용이란 있을수 없다. 모든 력사적 과정은 사람들의 주동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발생발전한다. 오직 사람들의 사상문화적 및 정치적 수준을 높여 그들의 창조적 활동을 강화하여야 사회주의제도를 그 본성에 맞게 옳게 관리운영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이 제도의 본성에 맞는 관리운영 원칙과 방법을 견지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어디까지나 집단주의적방법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제도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사이에는 뗄수 없는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제도는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되여야 한다. 해당 사회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지 않는 관리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해나가려고 하면 사회제도와 관리방법사이에 모순을 산생시킬수 있다. 사회의 관리 원칙과 방법을 해당 사회제도의 본질적 특성에 맞게 옳게 선정하는것은 사람들의 주동적 활동에 의하여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켜야 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의 생명은 어디까지나 집단주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여있으며 그들사이에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동지적 협조와 단결의 관계가 지배한다. 집단주의적 생명관이 지배하는 사회주의제도는 집단주의적 원칙과 방법으로 관리운영되여야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될수 있다. 집단주의에 기초

한 사회주의제도를 개인주의적 원칙과 방법으로 관리운영하게 되면 제도는 사회주의적인데 그에 대한 관리는 비사회주의적으로 하는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집단주의적 관리운영방법은 매개 사회성원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집단주의의 본질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 있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공동의 리익을 존중할뿐아니라 집단에 속한 모든 성원들의 리익을 다 귀중히 여긴다. 집단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야 매개 성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더 잘 옹호되고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분산된 개인들로서는 생각할수 없는 큰 위력이 발휘될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개인주의적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없다.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는 개인주의적 방법은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기때문에 집단의 위력을 발양시킬수 없게 하며 나아가서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도 제대로 발동시킬수 없게 한다.

사회주의제도를 옳게 관리운영하려면 경제관리분야에서 집단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사회생활의 어느 한 분야에서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야 한다. 경제생활분야에서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여야 사회주의의 전인력을 강화할수 있다. 그러자면 경제관리에서 집단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의 하나는 협동적 소유형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집단주의적 관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경리운영방법은 소유형태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협동경리는 집단적 소유형태인것만큼 마땅히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되여야 한다. 협동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소유형태와 관리방법사이에 그 어떤 모순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보다 낮은 형태이고 협동농민의 의식수준이 로동계급의 그것보다 뒤떨어져있다고 하여 협동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방법 례컨대 개인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협동경리제도를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라 뒤걸음질치게 하는것으로 된다.

협동적 소유는 과도적 성격을 띠고있지만 사적소유에 가까운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유이며 전인민적 소유에 비하여 그 사회화수준이 뒤떨어져있을뿐이다. 전망적으로 볼 때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에로 발전하는것은 합법칙적인것이다. 농촌에서 소농경리의 요소는 이미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과정을 통하여 극복되였다. 협동농민들의 부업경리는 협동적 소유형태자체안에 사적소유의 요소가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농민들의 사상적 준비정도와 나라의 생산력발전수준과 관련하여 있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협동적 소유에는 협동경리형태를 소부르죠아적 방법, 개인농경리시기의 경영방법으로 운영하여야할 그 어떤 요소도 없다.

그리고 생산력수준을 놓고보더라도 협동경리에서 집단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경영방법을 받아들여야할 근거는 없는것이다.

협동적 농촌경리는 대규모경리로서 공산주의경리에로 쉼없이 전진한다. 만일 대규모경리를 개인주의적 경영방법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생산력발전의 시대적 추세에도 맞지 않을수 있다. 협동경리는 방대한 생산기술적 수단들을 가지고있고 많은 로력을 관리한다. 이러한 대규모경리는 생산의 사회화정도가 높기때문에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많은 물질적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협동경리를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개인주의적 방

법으로 경영하면 관리방법이 생산의 사회화수준에 맞지 않게 되고 생산력발전에 제동적 작용을 하게 된다.

경제를 집단주의적 원칙에 기초하여 관리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전인민적 소유형태를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운영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전인민적 소유의 담당자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절대적 경영권도 가지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자가 경영권을 가지는것은 응당한것이다. 국가소유의 공장, 기업소들은 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전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생산기술적 수단들과 로동력을 관리운영하여야할 책임을 지고있다. 여기에서 공장, 기업소들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관리사업을 진행한다. 공장, 기업소들이 관리운영에서 가지는 상대적 독자성은 전인민적 소유의 담당자로서의 사회주의국가에 고유한 절대적 경영권과 대치되는것이 아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장, 기업소의 리익과 권한은 국가의 리익과 권한과 상반되지 않으며 국가의 리익은 공장, 기업소의 리익보다 웃자리에 놓인다. 따라서 국가의 리익, 사회적 집단의 리익과 공장, 기업소의 리익, 개인의 리익이 같은 위치에 놓일수 없다.

인민대중이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주체를 이루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조건에서 개인은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으며 공장, 기업소의 소집단도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다. 공장, 기업소가 경제관리에서 완전한 독자성을 가진다는것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성에 어긋나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밑에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는것이 전인민적 소유의 성격에 맞게 공장, 기업소를 관리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을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관리운영하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정연한 생산보장체계와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마련해놓았다. 여기에서는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은 단결과 협력의 위력이며 집단주의적 관리방법이 낳은 위력이다.

이처럼 전인민적 소유나 협동적 소유를 막론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모든 사회적 소유형태는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되여야 한다. 집단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견지하는 여기에 경제관리분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참된 길이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자

사회주의제도는 끊임없이 전진하며 발전한다.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며 우월성이다.

사회주의는 한자리에서 답보하면서 낮은 단계에 머물러있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갖추고있다. 사회주의가 가지고있는 거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은 근로인민대중의 주동적 활동에 의해서만 옳게 발현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혁명의 주체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을 높이는것, 이것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방도

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9폐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주인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사람은 자주적인 요구를 내세울수도 없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우리 당은 이로부터 사회주의제도의 운명이 근로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보고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개조에 1차성을 부여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다.

우리 인민은 고상한 정신문명의 힘을 깊이 체험하고있다. 이 땅에 마련된 모든 슬기로운것들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 깊이를 보여주는 산 증거물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안고 남들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디디는 기세로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한 생활적 토대우에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사람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이는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한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제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여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사상과 물질, 사람과 경제의 두 고리를 다같이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정치사상사업과 경제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지 않고 인간개조만을 내세우거나 경제건설을 먼저 한 다음 인간개조, 사상개조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결국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발양시킬수 없게 되는것이다.

혁명의 주체로서의 자각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투쟁과 생활의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 때 높이 발양될수 있다.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의 한 성원이라는 높은 자각,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혁명적세계관과 수령관이 투철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 진리로,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안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과 국가관리기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에는 의식화된 전체 사회성원들이 참가하며 사회의 모든 물질적 수단들이 동원리용된다. 이 복잡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할 사명을 지니고있는것은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의 추동력인 로동계급의 당이다.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향도적 력량으로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에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간고하고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

는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는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의 령도는 각급 당조직들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과 수령이 마련해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결국 각급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할 선구자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과 일군들이다. 당조직들은 혁명의 핵심력량인 일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일을 책임적으로 해제끼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어깨를 들이밀고 마력을 내여 일하는 혁명적 기풍과 일본새를 가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할 행정적 책임은 국가, 경제 기관들에 있다.

국가기관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로서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담당하고있다. 사회관리를 책임진 국가, 경제 기관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국가, 경제 기관들은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쳐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여러가지 새로운 인민적인 문화시책들을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원만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맞는 올해에 우리 당은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제3차 7개년계획의 두번째 해의 방대한 과업을 앞당겨 완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야 할것이다.

주체의 혁명적 당 건설전통의 위대한 생활력

강　석　숭

백두밀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당건설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창시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 튼튼한 력사적 뿌리에 토대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된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건설위업의 독창적인 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위대한 향도자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으로 수놓아진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위업을 개척하시던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전통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력사적 시기에 창시된 고귀한 혁명적 재부이다.

탁월한 수령은 혁명투쟁의 길을 개척하면서 혁명의 전위조직을 결성하고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며 세련된 령도예술로 대중을 혁명투쟁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한다. 이 과정에 당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수립되고 그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된 로동계급의 당건설전통이 형성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이러한 력사적 뿌리에 기초하여 굽임없이 강화발전되며 당건설위업의 완성의 길을 걷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 당창건의 길을 개척하심으로써 우리 당 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을 통하여 수많은 공산주의적핵심들이 자라나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졌으며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하고 귀중한 투쟁경험이 이룩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창조되였습니다. 그리하여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닦아졌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27페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옳바른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나가는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여 우리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고 주체형의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을 마련하시였다.

《ㅌ.ㄷ》의 결성으로 혁명적 조직건설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1930년 7월 3일에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력사적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기층당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결성하시고 그것을 중추로 하는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수립하시여 조선혁명에 대한 당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의 나날에 주체사상이 구현된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 방법이 확립되였으며 당조직건설의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였다. 주체적인 당건설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는 새로운 사상리론적 및 실천적 재부들로 이루어진 이 위대한 전통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당 건설위업은 참으로 성스러운 행로를 걸어오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은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그 전통의 형성과 함께 계승성을 가지고 수행되며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건설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이 창시한 당건설의 전통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자기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전통계승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당의 혁명적 성격이 변질될수 있으며 결국 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의 력사가 그토록 빛나고있는 것은 바로 위대한 당건설전통을 가지고 있는것과 함께 그것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 그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가는데 있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된 당건설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해방후 짧은 기간에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강위력한 대중적 정당으로서, 주체가 튼튼히 서고 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한 당으로서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맞이할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일관하게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며 드팀없는 신념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우리 당 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전통계승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당이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을 당건설위업수행의 총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데서 전면적으로 구현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 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6페지)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며 우리 당을 명실공히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숭고한 사업이다.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은 이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으며 당건설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지도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키도록 한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사상은 수령의 혁명사상이며 그것은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당이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려면 당안에 반드시 자기의 지도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자기의 지도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지 못하는 당은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말할수 없다.

《ㅌ.ㄷ》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당의 창건력사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행로였다. 창건된 우리 당이 처음부터 자기의 지도사상으로 삼고 당사업과 당활동에 구현한것도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였다. 이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는것은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과 면모, 위업을 옹호고수하는 사업과 직접 잇닿아있는 원칙적 문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원칙적이고도 중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추켜들고 그것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주체사상을 세계관적 기초로, 방법론적 무기로 삼고 진행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으며 모든 사상사업을 철저히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복종되도록 하시여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사상으로 사고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 기풍을 수립해놓으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는것은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우리 혁명대오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투쟁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억세게 싸워온 전통의 빛나는 계승이며 그 높은 단계이다. 이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지도사상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당 건설위업이 계승성을 띠고 곧바른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한것이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것은 당건설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이다. 당발전의 력사적 견지에서 볼 때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은 당의 공고한 조직사상적 기초에 토대하여 진행되며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하지 못할 때에는 정치적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보장할수 없고 당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없게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었다.

우리 당은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발전시켜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벌렸다. 그리고 충실성과 실력을 기본으로 간부들을 선발배치하고 로, 중, 청을 배합하여 간부대렬을 전망적으로 꾸리도록 하였으며 후비간부양성사업과 간부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통하여 그 질적 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갔다. 한편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고 말단단위에 이르기까지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며 당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혁명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을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조직적으로 공고한 불패의 당으로 반석같이 다지고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지도체제를 튼튼히 세우는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당 대렬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 전일적인 부대로 튼튼히 꾸려지고 전당에 당의 령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이것은 당을 공고화하는 사업,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도록 한것이다.

통일단결은 혁명하는 당의 생명이며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당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보장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전력사적 기간에 당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갈수 있으며 수령의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혁명적 당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력사적 투쟁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단결에 관한 사상을 옹호고수하고 가일층 풍부화하시였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우리 당의 이 투쟁은 매우 첨예하고 복잡하였다. 반당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물리치고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우리 당은 내외 원쑤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던 시기에 머리를 쳐든 반당수정주의분자들과의 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헐뜯고 거세하면서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부식하려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그것을 낱낱이 폭로분쇄하시였으며 그들이 퍼뜨린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이끄시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저히 보장하시였다.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걸어온 우리 혁명은 1970년대에 이르러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맞게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중심의 통일단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며 계승할데 대한 일심단결에 관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여 세대가 바뀌우고 혁명이 아무리 복잡하여도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보다 더 강화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길을 마련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의 기본원칙들을 밝히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나가시였으며 이 사업을 당의 유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벌려나가게 하심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령도체계를 확립하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당조직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옹호고수하고 이 사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끊임없이 심화시키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단결의 전통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활짝 꽃펴났으며 당건설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발전시키도록 한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하는 정치적 령도자이다. 대중과 리탈된 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룰수 없고 무력할뿐아니라 자기의 존재까지도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당의 위력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데 있다.

당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는 우리 당의 시원이 열리던 때로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계승발전되였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당은 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의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켜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과 그것이 발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조건에 맞게 구현되고 발전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 확립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지도를 훌륭히 실현하였다. 당조직들과 일군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게 하는 과정에 우리 당은 당사업의 행정실무화와 관료주의, 당세도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복하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배낭을 지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적중한 투쟁구호와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총동원하여 수행하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당의 령도적 권위와 조직적 수완을 끊임없이 높였다.

우리 당은 대중에 대한 혁명적 령도를 통하여 그 어떤 힘으로도 끊을수 없는 대중과의 혈연적 뉴대를 이루었으며 당과 대중과의 혼연일체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풍부한 경험들을 쌓았다. 이것은 주체형의 당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또하나의 커다란 성과로 된다.

이렇듯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은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으며 그것은 당건설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만년초석으로 튼튼히 다져졌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위대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

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당,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당의 위업 계승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해나가는 혁명적 당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령도밑에 주체의 당건설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져있다.

우리 당의 력사에서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이 창창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당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는 우선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전통의 빛나는 계승에 의하여 우리 당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영원히 고수해나가는데서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 재부들을 계승해옴으로써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고있으며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놓았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은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쳐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의 전체 당원들은 그가 항일혁명투사들이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라난 새 세대들이건 할것없이 당을 열렬히 흠모하고 진심으로 따르고있으며 삶의 순간순간을 충성으로 빛내여나가고있다. 이것은 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기본인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옳게 해결되고 그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체계가 철저히 세워졌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을뿐아니라 그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과 일관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여기에 우리 당과 혁명의 보다 휘황한 전도가 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는 주체의 당건설전통을 빛나게 계승함으로써 우리 당이 혁명위업을 오직 주체의 한길로 꿋꿋이 전진시켜나가는데서 튼튼히 담보되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이 개척한 길로 혁명을 전진시켜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세련된 령도력과 함께 불패의 위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은 오랜 기간에 걸친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속에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불패의 위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이 위력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밑에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에서 나서는 그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 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데서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오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이 끊임없는 전진을 가져오고있는 것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남의 정신, 남의 풍이 아니라 독자적인 신념과 주견을 가지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소한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며 자그마한 동요나 흔들림도 없이 주체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 있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전도를 끝없이 밝게 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주체의 당건설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 간고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당건설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

백　　범　　수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단결의 힘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으며 오늘도 그 완성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굽임없이 강화하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불패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을 공고발전시키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업적은 우리 혁명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재부로 된다.

이 위대한 업적과 재부를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튼튼히 고수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고 공산주의에로의 전진과정을 힘있게 다그치는 참다운 길이 있다.

*　　　　*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합니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심각한 계급투쟁과 사회적 변혁을 동반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주체의 역할에 의하여 수행된다.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떠나서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적과의 투쟁에서나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투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언제나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원래 혁명의 주체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대중이 저절로 력사를 개척하고 떠미는 주동적 역할을 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며 수령은 그 중심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됨으로써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 따라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공산주의운동의 오랜 력사는 혁명의 강력한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하고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문제가 령도자와 그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단결에 귀결된다는 진리를 확증하여주고있다. 단결된 대오는 언제나 승리하고 단결되지 못한 대오는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는것이 혁명운동의 력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언제나 단결을 중요시하여왔으며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견결히 투쟁하여왔다. 이 전로정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단결, 위대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행로였다.

혁명의 개척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한별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치자는 단결의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혁명적으로 굳게 단결하였으며 이 대오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것이였다. 이러한 단결이 있었기에 항일혁명대오는 굳건히 다져지고 단결의 위력으로 강도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마련된 통일단결의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안팎의 계급적 원쑤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단결의 기치를 목숨으로 지킬수 있게 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겹쌓인 난관과 시련도 단결의 힘으로 이겨내고 미제를 타승할수 있게 하였다.

전후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고질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쓸어버리고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천리마대진군과 같은 기적을 창조하여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던것도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혁명의 근본으로, 당의 생명으로 여기고 투쟁한데 있다.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력사적 시기에 와서 더욱 순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 위업이다. 그런것만큼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도 대를 이어 계승되고 공고발전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6페지)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은 혁명의 개척과 전진 시기에는 물론 그 완성을 위한 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위업은 력사적 계승성을 가지고 전진하며 완성되게 된다. 그런것만큼 혁명의 개척기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도 혁명의 전진과 완성과정에 끊임없이 계승되여야 한다. 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과정과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일치시키는것은 혁명위업수행의 합법칙적 요구로 된다. 그러므로 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인민대중은 단결을 공고발전시켜 혁명위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수령이 개척한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대를 이어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의 순결성을 수호할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것이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순결성은 그 기초를 이루는 사상적 유일성에 달려있다.

하나의 유기체는 하나의 피형으로 이루어져있듯이 수령, 당, 대중을 가장 공고하고 순결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통일체로 되게 하자면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적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사상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통일단결의 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당사업과 당활동의 총적 임무로 규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철옹성같이 묶어세우는데 중심을 두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새롭게 밝히고 그것을 유일한 규범으로, 행동준칙으로 삼고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리하여 각급 당조직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유일사상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힘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전당에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게 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유일사상교양이 강화됨으로써 당안에 사상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조적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발전풍부화시킴으로써 통일단결의 사상적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을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적 통일체로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가자면 그 사상적 기초인 수령의 위대한 사상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야 한다. 그래야 수령의 혁명사상이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전투적 기치로 될수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지향과 목적 실현에로 묶어세우는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우리 혁명에서 강력한 주체, 참다운 통일체가 이룩되게 하는 사상적 기초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문헌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사상의 원리들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이리하여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

상의 견인력과 영향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주체사상은 수령, 당, 대중이 자주위업을 실현하려는 하나의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투쟁해나가는 가장 순결한 통일체로,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되게 하는 공고한 사상적 기초로 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이 더욱 발전풍부화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발전됨으로써 수령, 당, 대중의 사상의지적 통일체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혁명대오 안에는 사상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있으며 오직 주체의 사상의지, 당의 숨결로만 숨쉬고 행동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해나가려는 신념만이 차넘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는 그 어떤 험한 산악이 가로놓이고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오직 당의 의도대로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하나의 사상의지를 가진 순결체로 이루어지게 되였다. 바로 이것이 혁명위업계승완성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이 이룩한 수령, 당, 대중의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적 통일체의 모습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또한 통일단결의 순결성을 보장할수 있는 공고한 조직적 기초를 마련한것이다.

통일단결의 순결성을 보장하자면 대오안에서 사상적 유일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순결한 조직적 기초가 마련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튼튼한 지반우에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령도자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하나와 같이 묶어세워 공고한 조직적 통일체를 이룰수 있다.

우리 당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순결한 조직적 통일체로 만드는데서 힘을 넣은 문제는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대렬을 공고히 하며 군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철저히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하도록 한것이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징표로 하고 능력과 자질이 겸비된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렸으며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성단련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의 질적 구성이 더욱 강화되고 당과 운명을 영원히 같이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골간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적 군중로선에 기초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었다. 군중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사회계급적 지반이다. 때문에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당의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며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원칙적 문제로 나선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것은 당의 대중적 지반을 공고히 하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당과 혼연일체를 이루게 하는데서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이 취한 현명한 조치는 참으로 공산주의운동에서 보기 드문 믿음의 새 력사를 창조한것과 같은 위대한 사변이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이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대를 이어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새로

은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비범한 사상리론과 특출한 령도력과 조직력을 지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됨으로써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다음으로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순결성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도록 한것이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의 순결성은 빈터우에서 마련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마련되고 강화발전되여나간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의 순결성이 끊임없이 보장되게 하는 중요한 원천은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이다. 특히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된 통일단결의 전통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고귀한 혁명적 재부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는것을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고 《조선의 별》과 같은 혁명영화와 문예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그 실효투쟁을 강화하도록 한 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의 려명기에 배출된 김혁, 차광수와 같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오가 오늘에 와서는 전당과 온 사회적 규모에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두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령도자의 두리에 신념과 의리로 굳게 뭉쳐 당의 령도따라 견결히 싸워나가고있다. 이것은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이 앞으로 혁명의 세대가 아무리 바뀌여져도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창조된 단결의 전통이 영원히 순결하게 계승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은 그 사상적 기초의 공고성에 있어서나 단결의 중심의 확고부동성에 있어서 그리고 력사적 계승성과 순결성에 있어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였다. 이 불패의 통일체가 이루어진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승리이며 크나큰 궁지이다.

단결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앞에는 더욱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 계속되고 제국주의, 기회주의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있는 한 우리는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우리 당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발전시킴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인간개조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

주 현 옥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력사적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오늘처럼 강력한 혁명의 주체,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결속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는 것은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힘있는 자주적인 존재로 키우는데서 사회발전, 혁명승리의 근본열쇠를 찾았으며 인간개조사업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의 중요한 특성과 혁명성이 있으며 우리 혁명이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오직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비결이 있다.

* *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개조사업이 사회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 그 본질과 목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인간개조사업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사상교양사업은 다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2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인간개조사업은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발전은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는 사회발전의 기본령역이다.

사회발전을 다그치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3대개조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가운데서도 인간개조사업에 가장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회의 발전수준은 사람들의 질적 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 운동을 벌려나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을 떠밀고나간다.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자신을 힘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울수 없을뿐아니라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다.

사회발전,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간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 하나로 련결되여있고 그에 적극

이바지하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참다운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 때 력사를 발전시키고 혁명운동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게 된다. 본래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다. 사회력사적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도 인민대중에게 있고 이 운동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것은 아니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력사를 발전시키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있으면서도 그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만을 받아왔다. 인민대중이 착취계급사회에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었던것은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의식화되지 못하고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조직화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 력사를 발전시키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굳게 결속되여야 한다.

인간개조사업은 바로 인민대중을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 그것은 인간개조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가치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나라와 인민을 위한 투쟁에 어떻게 복무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된다. 그런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발휘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빛내여나가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인간개조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개조인것만큼 인간개조사업을 통해서만 인민대중이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의식화되고 그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될수 있으며 력사의 참다운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 이것은 인간개조사업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고 혁명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성스러운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 공통된 목적과 지향밑에 투쟁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개조사업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더 잘 이바지하게 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그 주인이며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울것을 요구한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혁명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며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전진하는 혁명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된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여기에 사회주의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 있으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의 원천이 있다.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게 된다.

인간개조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

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인간개조사업은 언제나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이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혁명발전단계에서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하는 중대하고도 성스러운 사업으로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업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당의 주체의 인간개조리론을 발전풍부화한 위대한 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리론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적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강력한 주체적 혁명력량을 마련할수 있는 길이 휘황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인간개조사업, 사상교양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개조사업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는 주체의 인간개조사상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교양개조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고 그 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관건적 문제로 나선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개조, 사상개조를 위한 우리 당의 사상교양사업이 철두철미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며 우리 당의 사상교양사업은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우리 시대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며 그들의 사상정신적 특질은 주체사상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이며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속에서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그들이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이라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여 지니게 되는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이며 그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결합시키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이 모든것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참된 길이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그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고 주체사상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을 주체사상학습의 기본교재로 내세우고 그 원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과 그것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쟁취한 모든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업적이 폭넓고 깊이있게 총화되여있으며 우리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원칙과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은 혁명과 건설에 관한 진리를 집대성한 백과전서이며 주체사상의 총서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에 대한 학습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게 하시였으며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을 발표하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키시였다.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의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신것은 주체사상교양을 심화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게 되였으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빛나게 구현해나가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또한 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게 하는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가 천명된것은 충실성교양을 심화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이 밝혀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위력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그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수령을 모시는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충실성이 신념으로부터 우러나올수 있으며 혁명적 의리로 변함없이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인식시

키며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는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충실성교양이 심도있게 진행된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전례없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그에 따라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 혁명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또한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그들속에서 혁명적 수양과 단련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전당, 전사회적으로 벌려 인간개조, 사상개조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여기에서 빛나는 결실을 가져오게 되였다.

오늘 전당과 온 사회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결속되게 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자기자신이 지니고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 혁명적 수령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들은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있기에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당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면모이며 그것은 거대한 견인력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떠미는 위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 투쟁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당의 경험은 인간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혁명사업에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우리의 혁명대오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오로 강화발전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인간개조사업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으로 이끌어주신 령도의 위대성과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당과 전민이 떨쳐나 불타는 열정으로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야 할 어렵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과업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 책동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인간개조사상으로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장엄한 력사적 진군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어머니당

박 승 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민족적 륭성과 대번영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른다. 어머니당이라는 이 칭호에는 자기 당을 열렬히 흠모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사상감정이 흘러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우에 군림하는 관료기관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늘 세심하게 보살펴주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의 품을 진심으로 어머니품으로 여기며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13페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어머니당,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로동계급의 당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로 된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정치적 령도자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명과 임무는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고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가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이러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인민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바로 가지고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바와 같이 인민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가진다는것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모든것을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판단하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립장과 관점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립장과 관점은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철저히 고수하고 시대와 력사 앞에서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당의 믿음직한 지반을 이루고있으며 혁명의 동력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한결같이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압박을 없애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는 오늘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난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이란 생각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관철할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로동계급의 계급

적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투쟁하는 당으로 하여금 언제나 인민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것을 요구한다.

인민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바로 가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당만이 광범한 대중을 자기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곧 인민대중의 어머니당으로 되는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징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말해주며 어머니다운 립장에 서서 당활동을 벌려나가는 여기에 당의 전투적 기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의 어머니당으로 되려면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며 당의 모든 활동을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일관시켜야 한다. 인민의 운명에 대한 철저한 책임성과 그들을 위한 헌신적 복무는 어머니당의 고상한 풍모를 이룬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어머니당의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보고 판단하며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불멸의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립장과 관점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의 출발점으로, 기초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을 력사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적인 립장과 관점을 확고히 견지하고있기에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에 가장 뜨겁게 대하고 있으며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여 그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어머니당으로 될수 있었다.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풍모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데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관심사로 되는것은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문제이다. 운명문제란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개척되고 유지되며 끝을 맺는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사람들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과 후대들이 어떤 운명의 길을 걸을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주고 보살펴주는 품에 안기는것을 제일 큰 행복으로 여기게 된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중하고 은혜로운것은 다 어머니와 결부시켜 부르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것도 어머니가 자기들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것을 다하여 따뜻이 보살펴주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어머니당으로 되려면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하며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전체 인민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고 그들의 모든 생활과 전도에 대하여 따뜻이 보살피고 돌봐주어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나가는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운명문제는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해결된다.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그들에게 비참한 운명을 가져다주는 근본요인이며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과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물이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온갖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였으며 우리 민족과 인민의 처지와 운명을 개변하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총로선으로 제시하여 인민대중을 낡은 사상과 힘든 로동, 문화적 락후성에서 해방하기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으며 전체 인민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어머니가 자식을 차별하지 않듯이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뿐아니라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을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고있으며 정치사상생활로부터 경제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지난날과 오늘뿐아니라 후대들의 먼 앞날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의 운명을 완전히 책임지고 이끌어주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그들속에서 어머니당으로 자랑스럽게 불리우고있는것이다.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풍모는 또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당활동을 일관시키고있는데서 높이 발현되고 있다.

한생을 오로지 아들딸들을 위하여 고스란히 바쳐나가는것을 떠나서는 참다운 어머니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언제나 자기 활동을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일관시키는것을 떠나서는 어머니당의 풍모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당활동을 일관시킨다는것은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활동을 조직전개하며 인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느것이 인민에게 리로운것이며 어떻게 하면 인민의 복리를 더 빨리 증진시킬수 있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당활동을 조직전개해나가는 당만이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어머니당인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견결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이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되게 하고있다. 언제나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을 견지하는 우리 당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을 하나 세워도 먼저 인민들의 편의부터 고려되고있으며 공장의 로동환경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줄 때에는 아무리 필요하고 밑천이 많이 든것이라도 대담하게 개조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실천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고상한 풍모를 지닌 어머니당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대중속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감이 계속 높아지고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될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풍모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풍모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수령의 혁명적 사업방법과 고매한 풍모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백전백승의 전투력을 가진 불패의 대오로, 인민들속에서 다함없는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으로 하여금 그들을 한품에 안고 보살피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로동계급뿐아니라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우리 당이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여온 로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뜻을 철저히 실현하여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인민이 값높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당의 기치따라 혁명의 한길에서 존엄있고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사람들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정치생활이다. 사람들의 정치생활은 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담보해준다. 사람에게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자주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회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란 곧 그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모두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그들의 정치사상생활을 세심히 돌보아주시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주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항일혁명선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의 이름과 위훈은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인민들의 심장속에 살아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우리 당원들이 지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계속 빛나고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계층들과 일시적으로 과오를 범한 일군들에게도 뜨겁게 미치고있다. 인민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그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있음으로 하여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도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혁명전사로, 값높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당당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심지어 혁명앞에 엄중한 과오를 저지르고 정치적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던 사람들까지도 소생의 길에 들어서서 보람찬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한생을 바칠수 있게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어머니당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품이라고 긍지높이 말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만 억세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당의 품속에서 전체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어머니당은 사람들의 정치사상생활뿐아니라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서도 완전히 책임지고 보살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언제나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과 통이 큰 목표들을 제시하시고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인민들에게 보다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계속 일떠서고있으며 경공업혁명, 봉사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오늘 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들은 모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은덕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킨 결정적 요인이며 대중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를 비상히 높인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은 당에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각계각층 군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동요없이 싸워나가고있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7폐지)

오늘 우리 인민들은 한결같이 우리 당의 품을 어머니품으로 굳게 확신하고있으며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어머니당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자신과 후대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살며 투쟁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생활신조이며 활동원칙이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생활신조는 남포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화선입당의 영예를 지닌 당원들은 맡은바 혁명과업수행으로 당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면서 뜨락또르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으며 당의 품속에서 당원이 되고 중요한 혁명임무를 받아안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여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는것으로 당을 받들어나가고있다.

누가 보건말건 오로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온 숨은 공로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어머니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생활신조를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의 숨은 공로자들가운데는 강철기둥으로 당을 받들어나갈 일념으로 가족들까지 강철생산초소에 내세우고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가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한 작업반장도 있으며 20여년 세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용접연구소의 과학자도 굳건히 서있다. 숨은 공로자들속에는 또한 40여년 세월 당과 운명을 같이 해오면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피로써 조국을 보위하고 전후시기부터는 오늘까지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 앞장서온 항구구역 도지협동농장의 한 당세포비서도 있으며 12명의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길러 사회주의건설장들에 굳건히 내세움으로써 당에 커다란 기쁨을 드린 상업부문의 한 일군도 있다.

어머니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

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풍모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는데서 높이 발양되고있다.

당을 받들어나간다는것은 중요하게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구상을 관철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이러한 혁명적 기풍에 의하여 자체의 기술과 노력으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고압관을 생산해내고 남포유리회사에서는 공업용 유리관을 만들어내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라의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닌 강서구역 대보산리와 약수리의 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위대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창안하였으며 천리마구역에서는 식료공업에서 효과성이 높은 고속분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당의 의도에 맞게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이처럼 어머니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일군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철저히 관철되고 우리 당의 권위는 비상히 높아지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을 인민의 어머니당으로 계속 강화발전시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무거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우리 당을 오늘과 같은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발전시키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잘 보호하고 빛내여나가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당의 의도에 맞게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인민들에게 돌려지는 당의 배려가 제때에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주체사상교양을 심화시키고 당과 인민대중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며 당풍을 더욱 확고히 세우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당면하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모를 박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여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적인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튼튼히 갖추어야 하며 언제나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 정치적 생명의 기사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대중속에서 당의 권위를 비상히 높이고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우리 당을 인민의 어머니당으로 계속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김 형 봉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 대중령도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질뿐아니라 옳은 령도방법,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당의 전투적 기능과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불패의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당건설과 대중령도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전당과 온 사회에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이 철저히 확립된 결과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날로 강화발전되는 우리 당의 위력과 불패의 령도력에서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가지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 *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기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던 첫시기에 벌써 혁명투쟁에서 옳바른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준엄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대오안에 훌륭히 구현하심으로써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의 참다운 원형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벌리고있는 조성된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 맞게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더욱 구체화하시고 발전시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기간 지하혁명활동과 무장투쟁, 당 및 국가사업과 군사사업,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몸소 그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당활동,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다 밝혀주는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의 참된 사업방법이며 혁명적 령도예술의 백과전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빛나게 구현하는 바로 여기에 당건설위업을 완성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해나가는것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중요한 고리로 내세우시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방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찾으시고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며 수령님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은 마땅히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방법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서 당건설에서 필수적인 구성부분을 이룬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인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자체의 본성에 맞는 고유한 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당조직들과 인전대들, 광범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당안에는 수령의 사상밖에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사업방법에서도 수령의 사업방법밖에 다른 사업방법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업방법과 인연이 없는 다른 사업방법이 있게 된다면 그 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수령의 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 발전풍부화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을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되여있는 위대한 사업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 대한 고전적 정식화를 내리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리론과 함께 령도방법, 수령님식 사업방법에 의거하여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사업에서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을 없애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한것이다.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우리 당안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것이다.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은 한때 우리 당안에 기여들었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부식하여놓은것으로서 군중우에 올라앉아 호통치고 대중을 강박하는 관료주의적 사업방법이며 뒤를 캐고 자료를 묶어가지고 내리치는 암행어사식 사업방법이며 실속없이 일하고 격식화된 틀에 얽어매놓는 형식주의적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은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할수 없게 하는 반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따라서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당활동을 참신하게 벌려나갈수 없으며 당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없었다. 고질적으로 내려오던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는 오직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였다.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되고 발전풍부화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구현하는 바로 여기에 군중을 동원하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격식과 틀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는 참다운 길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리 당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기하고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지고 아래에 내려가 군중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을 생활화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틀이나 차리고 사무실에서 잡다한 문서와 회의로 사업을 대치하던 낡은 사업방법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군중속에 들어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현실에 맞는 옳바른 대책을 세우도록 사업방법을 고쳐나갔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이 현실에 침투할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올라와서 재무장, 재작전하고 다시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함으로써 각급 당위원회들이 언제나 아래당조직들의 활동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실정에 맞는 지도를 보장할수 있게 사업체계를 세웠다. 그리하여 생산과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공장과 농촌으로 달려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정치사업을 벌리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고 진공적으로 대담하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었다.

우리 당은 고정격식화된 낡은 틀에 얽매여서 소소하게 벌려오던 형식주의적이며 수공업적인 낡은 사업방법을 대담하게 버리고 당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벌리며 투쟁목표를 크게 내걸고 모든 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속도전》의 방법으로 제기된 과업을 불이 번쩍나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당안에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진공적으로 해제끼는 로동계급적인 사업기풍이 서나가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모든 당일군들이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전개력, 대담성과 완강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니게 되였다.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일군들이 사업전개의 구체적 방법론을 가지고 일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도록 힘있게 이끌었다.

옳은 방법론을 세우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에서나 대중을 령도하는 당활동에서 언제나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다. 원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옳바른 로선과 방침, 투쟁목표를 제시해주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킬뿐아니라 그들이 제기된 투쟁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전과정을 끝까지 이끌어줄것을 요구한다. 혁명적 령도의 이러한 요구는 구체적 조건에 맞는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나갈 때 해결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중지도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방법들과 함께 그것을 구현하여 사업을 전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전면모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대중령도에서 백전백승할수 있는 완벽한 방법론적 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업전개의 구체적 방법론은 대중에 대한 령도와 사업방법의 원리와 요구들을 실제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하여 모든 사업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과학화한 묘술을 말한다. 당사업방법론을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사업을 설계하고 포치하는데로부터 그것을 수행하고 총화하는데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공정을 대상의 특성과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대책안을 세운다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업방법론에는 사업전개의 방향과 목표, 그 수행단계와 순차, 구체적인 사업방식과 수법, 사업과정에서 부닥칠수 있는 정황과 그 처리방도 등 하나의 사업을 벌려나가는 전과정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구체적인 대책들과 묘술이 빠짐없이 반영되게 된다.

우리 당은 사업전개의 구체적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당정책관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공정으로 내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시되면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게 묘술과 대책안을 세워 일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당정책이 제시되면 외줄로 포치만 하던 사업방법을 버리고 쌍선으로 과업과 함께 방법론까지 세워주도록 하였으며 중앙적인 방법론과 지방적인 방법론이 다르게, 당내부사업방법론과 행정경제문제를 다루는 방법론이 다르게 세우도록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철저히 근거하여 옳바른 사업방향과 목표,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당사업을 주동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였으며 사업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편향들을 미리 막고 제때에 능숙하게 처리해나가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구체적인 사업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일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내용을 담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더욱 심화발전되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수준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의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적극 벌린것이다.

대중운동은 대중동원의 위력한 방법이며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 사업방법이다. 대중운동은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높이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집단적 혁신에로 대중을 추동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혁명적 지향,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적극 추진시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려 일제사

상잔재와 봉건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전국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또한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천리마운동을 발기하고 힘있게 벌리심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발기하시고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게 벌리심으로써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에서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이 련이어 일떠서는 보람찬 현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 사업방법, 대중운동이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다.

참으로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게 한 거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은 전당과 온 사회에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는 거대한 생활력이 나타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전반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습니다.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며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면모이며 사업기풍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74페지)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는 당의 령도가 더욱 확고히 보장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이 확립된 결과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저애하던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고 당안에는 혁명적인 당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당조직들의 령도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당안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연한 당사업체계가 철저히 서게 되였다. 일군들속에 서는 아래에 내려가는것이 제도화, 습성화되였으며 아래에 내려가서도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생산자들속에 깊이 들어가고있다.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이 없어지고 소탈하고 겸손한 인민적 사업작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정신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산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높이 발양된 결과 그들속에서는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는 숨은 영웅들의 대렬이 늘어나고있으며 모두가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과 앞날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이 확립된 결과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높은 수준에서 공고화되였다.

대중령도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이 철저히 관철되고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사

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확립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강화되고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결속되여 우리 혁명의 주체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통일단결로, 가장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영원한 통일단결로 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드높이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의 위대성과 과학적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방법이 구현된 결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끊임없이 개조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땅우에 민족적 룡성과 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치시고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심화발전시켜온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부문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무겁고도 중요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혁명의 자랑찬 승리의 로정우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령도사를 깊이 연구체득하여 거기에 담겨져있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이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이 빛나게 구현되여 자랑찬 결실을 가져온 위대한 로정이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당의 령도방법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과시된 영광스러운 행로이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사에 담겨져있는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배움으로써 혁명적 사업방법과 령도예술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한마디로 말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다. 이 방법의 기본요구는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에 맞게 옳은 대책을 세우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눈덮인 이른봄에 청산리의 논두렁길을 걸으시며 우리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령도방법을 따라배우며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사업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사업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할데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보다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주체적 문학예술 발전의 만년초석

장 철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적 문학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고있으며 우리 시대 혁명적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찬란히 빛내이고있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가 오늘 《주체예술의 조국》으로 세상사람들로부터 높이 찬양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기쁨이며 행복이다.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고 우리 문학예술을 세계예술발전의 상상봉에 높이 올려세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와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주체적 문학예술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완수해나갈것이다.

*　　　*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고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완성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면서 주체적 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적문예활동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적 문예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이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문예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나라 문학예술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혁명에 복무하고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는 주체적인 사회주의민족문학예술이 활짝 꽃펴나게 되였다.

발전하는 현실은 문학예술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혁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함에 따라 문학예술도 그에 맞게 발전하고 더욱 철저히 혁명화되여야 하였다.

우리 당앞에는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이 중대한 요구를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을 고수하고 발전시키시여 주체의 문학예술을 더욱 활짝 꽃피우실 원대한 구상밑에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되고 인류문화사에 불멸할 고귀한 업적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 문학예술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06페지)

우리 당이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다그쳐지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심화발전시켜 공산주의문예리론을 완성한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들을 원리적으로 심오하게 전개하고 그 실현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공산주의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독창적인 문예리론과 명제들로 그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시였다.

인간학에 관한 새로운 사상과 독창적인 종자론, 수령형상창조와 주체형의 인간형상리론, 작품의 철학적 심오성에 관한 리론과 감정조직론, 주체적인 영화리론, 《피바다》식 혁명가극리론과 《성황당》식 혁명연극리론을 비롯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문예 사상과 리론들은 주체시대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과학적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지도 사상과 리론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예리론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완성된 공산주의문예리론을 확립한 바로 여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인류문예사상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 이바지하신 가장 위대하고 특출한 공적이 있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은 또한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의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킨것이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과 그 완성의 합법칙성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기초하시여 혁명적 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여러가지 문학예술형식에 옮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의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이 영화와 가극, 연극과 장편소설 등에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옮겨짐으로써 혁명적 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력사적 위업이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수행되였다.

이 과정에 혁명적 영화예술전통이 확립되고 주체의 문예전통이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우리 문학예술전반이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오르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주체의 문학예술이 성과적으로 창작되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본성과 사명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수령의 후계자에 의해서만 밝혀질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을 깊이 헤아리시여 수령형상문제를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시고 수령형상 원칙과 방도들을 새롭게 밝혀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과 다부작혁명영화 《조선의 별》,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그리고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사상예술적으로 빛나게 형상한 여러가지 형식의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생동한 예술적 화폭이며 당의 령도밑에 개화발전하는 주체적 문학예술의 혁명적 모습이다.

문학예술의 본성과 새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리해하는것은 주체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게 하는 출발점으로 된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주체시대에 맞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본질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문학예술의 인간학적 본성과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혁명적 본질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창작원리와 요구들을 작품창작에서 철저히 구현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의 지도밑에 창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작품의 종자를 똑똑히 잡아쥐고 주체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그림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 인간을 혁명적 수령관을 체현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으로 훌륭히 형상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대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 되게 되였다.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전형의 창조와 절박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해명으로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최상의 수준에까지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길, 투쟁의 길을 가르쳐주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오른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 면모와 특징이 있다.

문학예술혁명은 문학예술의 내용과 함께 그 형식을 개조하고 혁신할것을 요구한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주체의 요구대로 형식을 개조하고 변혁하는것은 문학예술혁명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는 원칙에서 문학예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여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를 새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정서에 맞게 개조하고 혁신하도록 하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류문예사상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이 불과 10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다. 그리하여 주체영화예술의 새 력사와 《피바다》식 혁명가극,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새 기원이 열려지게 되였으며 이와 함께 문학, 미술, 무용,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 70년대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고 80년대에 그 위용을 더욱 빛내이게 되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적 수준에 올라 세상사람들로부터 《세계 최고봉의 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보기》라는 높은 찬양을 받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뚜렷한 시위로 된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또한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확립하고 창작력량을 믿음직하게 마련한것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조하고 발전시키자면 문학예술사업을 올바

로 지도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혁명적 원칙에서 똑바로 세워야 한다.

당이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는 지도 체계와 방법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적 지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문학예술에 대한 주체적인 령도원칙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공산주의적 창작 지도체계와 지도방법, 혁명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확고히 세워주시였다.

우리 당의 새로운 창작지도체계와 혁명적인 창조체계는 문학예술분야에 오래동안 남아있던 자본주의적 낡은 틀과 교조주의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없애고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게 하는 가장 우월한 지도체계, 창조체계이다.

우리 나라의 문학예술이 그처럼 높은 속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바로 우리 당이 재래식 창작지도체계, 창조체계와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확립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킨 결과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이 작가, 예술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재능있는 작가, 예술인으로 키워준데 그 중요한 요인이 있다.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당과 수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믿음직한 문예전사로 자라난 영광스러운 성장의 력사이기도 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예술적 준비와 작품창작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창작 및 창조 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후비육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지난날 사대주의, 교조주의, 자유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에 물젖어있던 작가, 예술인들이 오늘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으로 자라나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위업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치고있다. 이것은 주체문학예술건설과정에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고귀한 업적의 하나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부문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 문예 사상과 리론의 보물고를 더욱 빛나게 장식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문학예술 발전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시는 인류문예사적 공적을 이룩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에서 높이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끊임없는 개화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력사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은 선행단계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밑천으로 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승리적으로 완성된다.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불멸의 업적들은 주체문학예술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주체적 문학예술건설의 옳바른 사상리론적 지침을 줌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을 끝까지 고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 지침이다. 주체적문예사상에는 주체적 문학예술건설의 총적 방향과 문학예술작품창작의 근본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 문예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전개된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문예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적 문예 사상과 리론의 모든 원리와 명제들은 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으며 따라서 주체의 문예 사상과 리론의 생활력과 견인력도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이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새형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 지침으로 되게 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혁명을 벌려 주체적 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하여온 과정은 곧 주체적 문예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이다.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우리 당의 업적에는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 방침이 집대성되여있는것만큼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때 우리의 문학예술은 영원히 주체의 문학예술로 개화발전되여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은 또한 그것이 주체적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의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풍부히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적 문학예술의 높은 사상예술적 수준을 견지하고 문학예술창작에서 굽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귀중한 창조적 밑천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문학예술은 그 사상예술성이 높은 경지에 이른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이며 주체시대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우리 문학예술이 당의 지도밑에 이룩한 높은 사상예술적수준과 우리 시대 문학예술건설에서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계속 튼튼히 고수해나갈 때 그것은 주체적 문학예술로 더욱 찬연히 발전하고 세계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활짝 꽃펴나게 될것이다.

혁명적 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 창조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기념비적 대작들을 비롯한 수많은 걸작들은 현시대의 혁명적문학예술을 대표할뿐아니라 미래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이 귀중한 재보들의 높은 사상예술적 성과들을 고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문학예술을 발전시켜나감으로써만 우리 문학예술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주체의 문학예술로 빛나게 개화발전되여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또한 혁명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 주체적인 창작력량에 확고히 의거할수 있게 함으로써 주체적 문학예술의 장래발전을 조건짓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결정적 담보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공산주의적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는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창작지도체계이며 창조체계이다. 우리 당의 새로운 창작지도체계는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

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준다. 모든 창조활동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벌리는 당적원칙을 비롯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의 책임성의 원칙과 집체성의 원칙, 창작과정과 생활의 규범화, 조직화의 원칙들을 확고히 지키게 하고 이에 대한 당위원회의 령도를 보장하게 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 당의 혁명적인 창조체계의 위력과 우월성이 있다.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의 주인은 창작가, 예술인들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작가, 예술인대오가 튼튼히 꾸려진것은 주체적 문학예술건설위업을 완수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창작력량문제를 더욱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밑천이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경험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 창작력량을 보존강화하여야만 문학예술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 우리 문학예술이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참으로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부이며 주체적 문학예술건설에 무궁무진한 활력을 주는 위력한 힘의 원천이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주체적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쌓아올린 우리 당의 업적을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주체적 문학예술건설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의 문예업적을 고수발전시켜나가야 우리 문학예술을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한길로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주체적 문학예술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수 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언제나 우리 당이 이룩해놓은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일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리론, 방침을 견결히 옹호관철하고 당이 마련한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 창작력량을 보존강화하며 당의 지도밑에 창작된 혁명적 문학예술작품들의 높은 사상예술적 수준을 확고히 견지하고 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분야에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바로 여기에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의 더없는 영예와 보람이 있으며 주체적 문학예술발전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의 문예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건설되는 주체적 문학예술의 앞길은 휘황찬란하고 그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앞날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주체적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충실성

김 완 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초를 원리적으로 옳바르게 해명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내용으로 한다.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적 집단,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견해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에 따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참다운것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심오히 밝힘으로써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 해명을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이라는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있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3페지)

집단주의적 생명관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생명관이다.

생명은 생명체의 본질적 특성이다. 인간도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있다. 물질적 실체의 속성이 변하면 그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것처럼 생명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체도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속에서 사는 사회적 존재이다. 때문에 인간은 인의 육체에 체현되여있는 생명으로, 의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 가지게 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에게만 고유한 생명이다. 사람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참된 삶의 보람을 향유할수 있다.

이처럼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결코 부모로부터 넘겨받는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사회정치적 집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회정치적 집단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결속된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육체적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자주적 생명력을 지닌 영구불멸의 생명체이다.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개인의 생명의 모체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개별적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다.

그러므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보는 생명관이 바로 집단주의적 생명관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는것은 수령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로 결합되여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수령, 당, 대중을 .소로 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생 이다. 때문에 수령, 당, 대중을 서로 분리시키거나 대치시켜서는 안된다.

수령의 령도를 떠난 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는것처럼 대중과 떨어진 수령도 력사를 향도하는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없다. 인민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수령이 아니라 개인이다. 수령은 어디까지나 당의 수령, 인민의 수령인것만큼 수령, 당, 대중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도 하나로 통일되여있는것이다. 당에 대한 충실성이나 인민에 대한 충실성만을 가진다는것은 있을수 없으며 또 그러한 충실성은 참다운 충실성이라고 말할수 없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결합되여서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것만큼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과 분리시켜서는 안된다. 수령과 사회정치적 집단을 통일시켜보는 관점에서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옳바로 밝힐수 있다.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한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는것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라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생명체에는 그 생명체의 생명활동의 중심이 있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체의 모든 기관들과 구조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생명활동의 중심이 뇌수이다. 뇌수의 통일적 지휘와 통제 밑에 온 유기체가 움직이게 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은 수령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것으로 하여 인간생명의 모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형성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며 사람들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게 된다.

수령은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당을 창건하며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마련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출현하여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내놓고 그것으로 대중을 의식화하고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선각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함으로써 당이 나오게 된다. 당이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할 때 그들이 자주적인 주체로 결합되게 되며 이 과정에 인간생명의 모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수령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개별적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펴준다.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존재하고 보존되자면 그 량식으로 되는 혁명사상과 그 생명선으로 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령도가 있어야 하며 그 생활방식으로 되는 혁명조직이 있어야 한다. 수령은 사람들에게 혁명사상을 주고 그들을 정치적 조직에 묶어세워 이끌어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은 인간생명의 진정한 모체로 되며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는것을 마땅한 혁명적

의리로, 본분으로 여기는것이다.

물론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개인들사이에는 혁명적 의리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그 어느 개별적인 성원도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으로 될수 없기때문에 그들사이의 혁명적 의리는 절대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으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있는것만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되게 된다.

사람들이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려는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육체적 생명보다 비할바없이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려고 하며 그것을 지닌 사람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 빛내이려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요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은 저절로 빛내여지는것이 아니며 그 누구나 그것을 보호해주고 발전시켜줄수 있는것이 아니다. 육체적 생명의 모체인 부모도 그 어떤 특출한 개인도 사람들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고 빛내여줄수 없다. 오직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수령만이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발전시켜줄수 있다.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창조적인 투쟁속에서 유지되고 빛나게 된다. 생명은 생명활동을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하는 법이다. 사람들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창조적 활동을 적극 벌려 수령의 혁명위업 수행에 이바지함으로써만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강화하고 자신이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도 빛내여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 사회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실현되게 된다.

사람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려는데로부터 가장 값높고 존엄있는 생활을 요구한다.

생활은 인간의 존재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속성은 운동을 통하여 발현되며 그것을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하고있다. 한편 물질의 운동은 물질의 속성에 의하여 규제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생명은 생명활동, 생활을 요구하게 되며 인간의 생활은 인간의 생명에 의하여 규제된다. 생명은 생활을 요구하며 생명관은 생활관을 규제하는것만큼 어떤 생명관을 지니고있는가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좌우되게 되는것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간은 사회적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에게 충성다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수령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의 대표자라는 관점에서 자기자신이 지니고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충실성이라는 사상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생명관적 기초가 가장 정확히 해명되게 되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다는 사상은 수령, 당, 대중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수 있는 리론적 근거가 정확히 해명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자기 생명의 대표자인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다하는 바로 여기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는 진리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다는 진리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력사가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였다. 자기 생명의 진정한 모체를 가지지 못했던 우리 인민들은 목숨은 있었으나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자주적인 생명을 지니지 못하고 천대와 멸시 속에 한생을 마치군하였다. 지난날 비참한 운명에 처했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게 됨으로써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한 성원이 되여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생명, 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였으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히 빛내이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삶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의지는 흔히 그들이 추켜든 구호에 반영되고 그것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표현되게 된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의 심장인 한별동지를 보위하자!》라는 구호를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자!》라는 충성의 구호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 싸웠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 한생을 빛나게 바쳤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옹호보위하였고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충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라는 충성의 구호밑에 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숨쉬려는 철석같은 신념, 경애하는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행복은 있을수 없다는 신념과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혁명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실성은 그들자신이 지닌 생명의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한없이 순결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이다.

이처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는 충실성이라는 사상은 리론적으로뿐아니라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과학성과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대한 사상리론으로 된다.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인민과 운명을 같이해나가게 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간다.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닌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신임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게 된다.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생명의 모체와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려는 혁명적 신념을 가지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하여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간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닌 사람들은 수령, 당, 대중이 통일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깊이 간직함으로써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패배주의에 빠지는 법이 없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혈연적 련계를 맺고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기때문에 절대로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자기 나라 혁명의 주체를 굳게 믿고 자기 생명의 모체에 대한 의리를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없다.

오직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닌 사람만이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생명의 모체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갈수 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온갖 난관과 애로를 뚫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수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확고한 담보라는것을 자각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리로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혁명적 의리는 동지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는 품성이며 그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주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 충실성에서 가장 숭고하게 표현된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리로 간직하여야 수령을 진심으로 따르고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리로 간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는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리로 간직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은 수령에 대한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고있는것만큼 수령이 어떤분인가를 잘 알아야 수령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질수 있으며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한 사람만이 언제나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할수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리로 간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사람들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에게 충실하여야 한다는것을 리치적으로 깨우쳐준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리로 간직하자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심오히 체득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리로 깊이 간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여야 할것이다.

당성을 높이는것은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방 남 섭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일심단결되여있으며 당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이 확립되였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위력은 불패이며 주체위업은 끝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니고 주체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당안에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당풍이 확고히 서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당풍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사업기풍, 당생활기풍이다. 여기에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당의 활동방식과 투쟁기풍으로부터 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도덕적 풍모와 생활기풍에 이르는 모든것이 다 포괄되여있다.

당안에 혁명적 당풍을 세운다는것은 당의 성격과 사명에 맞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며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적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령도적 정치조직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령도적 정치조직인것만큼 당안에는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풍이 확고하게 지배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이 수령의 사업기풍, 사업 방법과 작풍대로 일하고 생활하게 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그러나 당안에 수령의 사업기풍과 사업방법, 사업작풍대로 일하고 생활하는 혁명적 당풍이 확고하게 서있지 못할 때에는 당의 전투적 기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일수 없으며 따라서 당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확립하는 사업은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기간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지만 특히 그것은 당건설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당앞에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 제기되며 혁명의 내외정세가 복잡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서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혁명적인 당사업기풍과 당생활기풍을 세워 주체위업을 능숙하게 조직령도해나가고 있는 로숙하고 권위있는 전투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당건설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 우리 당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그리고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도 더욱 긴장하고 복잡하다.

이런 조건에서 당안에 혁명적이며 주

체적인 당풍을 더욱 튼튼히 세워야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을 보다 철저히 세우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주변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당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당안에 혁명적 당풍을 세우는 문제는 이처럼 당 건설과 활동의 합법칙적 요구로 보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혁명과업과 주변의 복잡한 정세로 보나 매우 중대하고도 심중한 문제로 제기된다.

당안에 옳은 당풍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당성을 지니도록 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당안에 옳은 당풍을 세우자면 무엇보다도 당원들에게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도록 당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당성을 지니는것은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당성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과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높은 자각으로부터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높은 당성을 지녀야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나갈수 있으며 당안에 옳바른 당풍을 세울수 있다.

당성은 무엇보다도 높은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계급적 자각인것으로 하여 당풍확립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확고한 혁명적 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려는 숭고한 계급적 자각으로부터 나오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가의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당성은 바로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 신념,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자각인것으로 하여 혁명적 당풍 확립의 중요한 사상적 요인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은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 행동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작풍으로서 그것은 일정한 세계관,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당사업기풍과 당생활기풍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가지고있는 사상, 세계관의 종합적 표현이며 따라서 그것은 당성을 얼마나 높이 지니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성격상의 문제이거나 실무능력에 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있는 사상, 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상문제이다. 물론 기술실무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업능력이나 감정, 기분, 습관과 관련되는 성격상의 문제가 일군들과 당원들의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능력과 성격은 사상의식, 세계관에 의하여 제약되게 되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상, 세계관을 거쳐서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하여 사업능력이나 성격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지니고있는 세계관, 당성의 높이에 의하여 당풍을 세우는데 약하게 작용할수도 있으며 강하게 작용할수도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실무능력이나 성격은 혁명적 당풍, 당사업기풍과 생

활기풍의 개별적 측면에 일시적으로 작용할뿐이지 그 본질적 측면에 전반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업기풍과 생활기풍, 당풍은 전적으로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계급적 자각, 당성을 얼마나 높이 지니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이처럼 혁명적 당풍이 일군들과 당원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의식, 세계관에 의하여 규제되며 당성이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 높은 계급적 자각인것만큼 당성을 높이는것은 혁명적 당풍 확립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이다.

당성은 또한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인것으로 하여 혁명적 당풍 확립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군들과 당원들의 투쟁기풍은 사상, 세계관에 의하여 규제될뿐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견결한 투쟁정신을 지니고 살며 싸워나가는가 하는데 의해서도 규정되게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계급적 자각에 기초한 세계관으로 무장하였다 하더라도 당과 수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견결히 싸워나가는 투쟁정신, 혁명정신을 지니지 못한다면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높이 발휘할수 없게 된다.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군들과 당원들의 혁명적 기풍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투쟁정신, 혁명정신의 구체적인 발현이다. 그런것만큼 얼마나 강의한 투쟁정신을 지니고 일하며 생활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이 좌우된다.

당성은 자기 당과 자기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한 투쟁정신이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이러한 투쟁정신, 높은 당성을 지닐 때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적 원칙을 고수할수 있으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소한 마음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완강한 의지와 투쟁력으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 기풍을 발휘할수 있다.

만약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의 결정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정신, 당성을 높이 지니지 못하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있게 되는 자그마한 애로와 난관 앞에서도 주저하고 동요하게 되며 신심을 잃고 조건타발을 앞세우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당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할수 없으며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살며 일할수 없게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오직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결정지시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끝까지 관철하는 견결한 투쟁정신을 지녀야 높은 당성을 소유할수 있으며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울수 있다.

이 모든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며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강의한 혁명정신, 당성을 지니는것이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 옳은 당풍을 확립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조성된 정세로부터 당안에 혁명적 당풍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함경남도당위원회는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

성을 높여 당조직들안에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당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는 우선 각급 당조직들이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당풍확립의 중요성과 의의, 그 혁명적 본질과 당풍을 세우기 위한 방도들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혁명적인 당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도당위원회는 조직부와 선전부의 배합작전을 힘있게 벌려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높이고 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장악지도사업을 강화하면서 사상교양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동시에 이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우결함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우점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고 나타난 부족점은 강한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극복해나가도록 하는 사업을 꾸준히 조직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도당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당조직들의 책임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이 관철되는 생산현장에 내려가서 어깨를 들이밀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였다. 당성을 높여 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이 생기발랄하고 패기있는 산 전투적 조직으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관철하는 높은 당성을 지니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고있다.

높은 당성을 지니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도안의 간부들과 당원들의 투쟁기풍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분수식 발관개 건설과 바다가양식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비롯하여 도앞에 맡겨진 전투적 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도안의 모든 단위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신포시당위원회안의 간부들과 당원들은 분수식 발관개 건설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올해 봄까지 분수식 발관개총면적의 많은 량을 해제낄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걸린 문제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혁명적 기풍으로 투쟁해나가고 있다. 한편 락원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수산사업소들에서는 다시마, 미역, 섭조개 양식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기 위하여 계획을 똑바로 세우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동원하여 필요한 자재들을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면서 바다가양식사업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그리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안의 당조직들과 일군들도 당원들의 당성을 높여 혁명적 당풍을 세우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경험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당풍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본질을 똑똑히 알고 자신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해나갈 때 우리 당의 위력과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야 할 혁명임무가 나서고 있다.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 주체적인 당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당안에 당풍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성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당성은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자각이며 당성을 단련하는 과정은 곧 혁명적 세계관,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과정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유일한 혁명적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이며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서 핵은 혁명적 수령관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이다. 수령은 단결과 령도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는것은 곧 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는것으로 된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높은 당성을 지니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혁명가의 옳바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근본원천이 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높은 당성을 지니고 혁명적으로 사업하고 전투적으로 생활하는 기풍을 튼튼히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높이고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이다.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혁명적으로 단련되며 당성이 강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찬 혁명투쟁이며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기의 혁명적 본분을 다하고 삶을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은 언제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순탄한 환경에서 쉽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는 불타는 강이 앞을 막아나설수도 있으며 넘기 어려운 진펄도 있을수 있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 있게 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투쟁을 통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게 되며 혁명가로서의 참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이 준 혁명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발편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삶의 보람과 기쁨을 오직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찾는 높은 당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하여 당과 수령이 제

시한 로선과 정책이 한치의 드팀이나 순간의 지체도 없이 철저히 관철되게 하여야 하며 투쟁과 생활의 순간순간이 그것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속에서 당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나 강한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사상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다. 사람들은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적 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조직을 자기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가게 하는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언제나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조직사상생활을 강한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하는것이다. 투쟁이 없이는 전진할수 없으며 비판이 없이는 낡은 사상잔재와 사업방법을 뿌리뽑을수 없다. 원칙적인 비판과 강한 사상투쟁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단련시키며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고치고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게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생활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결함을 제때에 발견할수 있으며 조직과 동지들의 방조를 통하여 빨리 고치고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갈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당조직에 솔직하게 보고하며 조직의 지도밑에서 끊임없이 교양받고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해나가야 한다.

겸손하고 소박하며 청렴하고 결백하게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성을 높이고 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참다운 생활은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데 있다. 개인의 안락한 생활, 육체적 생명의 요구나 충족시키기 위하여 결백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하게 사는 생활은 동물의 생활과 다름없으며 그러한 생활은 사회적 인간의 본성과 배치되는 값없는 생활로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겸손하고 소박하며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며 일하여야 당적 원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으며 당정책 관철에서 요구성을 높이고 온갖 그릇된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당안에 건전한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높은 당성을 지니고 겸손하고 소박하며 청렴하고 결백하게 생활함으로써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선봉투사가 되여야 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당안에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당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영예롭고도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는 당성단련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당안에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당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함으로써 주체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모든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열쇠

리 성 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크나큰 감격과 기쁨 속에 받아안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일군들이 드높은 혁명적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전진의 추동력이며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요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 정열과 패기는 모든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품성입니다.》

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한다는것은 로쇠와 침체, 권태와 해이를 모르고 언제나 왕성한 의욕과 투지를 가지고 전투적으로 일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 열의와 씩씩한 기상을 가지고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제낀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요인들에는 자연경제적 조건과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비롯한 객관적 요인도 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적 준비정도와 열의, 사업능력을 비롯한 주체적 요인도 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것은 주체적 요인이다. 그런것만큼 주체적 요인, 사람이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되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여야 어떤 사업에서나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투쟁에 생기와 활력을 주고 사람들의 활동에 적극성과 완강성, 지구성과 헌신성을 부여하는것으로 하여 모든 사업의 성과를 담보해주는 열쇠로 된다.

사업의 성과는 그것을 맡아수행하는 사람들, 일군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헌신적이며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다.

일군들의 사업과정이란 곧 수령의 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혁명투쟁의 승리는 혁명가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룩되며 건설사업에서의 성과도 일군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달성된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보람과 행복은 혁명적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투쟁하는데 있다. 리성만으로는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을 하자면 리성과 함께 불타는 심장을 가져야 하며 열정과 패기가 있어야 한다. 혁명투쟁도 정열이 있어야 하고 건설사업도 정열이 있어야 할수 있다. 혁명가의 불타는 열정과 패기는 혁명의 전진에 생기와 활력을 주는 원천으로 된다. 정열이야말로 위대한 창조의 원천이며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의 추동력이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상이고 또 무엇보다 위력한것이 사상의 힘이지만 그 사상이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패기와 결합되여야 참다운 위력을 나타낼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

을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인 사상과 불타는 열정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요인으로 된다. 일군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고 정열에 불타오르면 혁명적 열의와 지칠줄 모르는 투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결단성있게 조직하고 패기있게 밀고나간다. 그러나 일군들이 정열이 식어지고 패기가 없으면 사업에 투신하지 않고 일에서 열성을 내지 않으며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하는것이 아니라 오늘 못하면 다음날 하자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기만 하고 자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또한 당정책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일이 잘되지 않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슴아파하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지내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악한 투쟁을 벌려나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일해가지고서는 백날 가도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게 된다.

사업에서의 높은 성과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이악하고도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당이 제시하는 모든 정책적 문제들이 다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자면 그것을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에게 적극성과 헌신성, 완강성과 지구성과 같은 강의한 기질이 있어야 한다. 일군들의 활동에 이러한 기질을 부여하는것이 바로 정열과 패기이다. 사업에서의 적극성과 헌신성, 지구성과 완강성과 같은 기질은 혁명적 열정과 패기에 기초하여 발현된다. 정열과 패기는 사람들의 활동이 의욕적이고 적극적인것으로 되게 추동하여준다.

혁명적 열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혁명임무수행에 다 바쳐 싸우게 하는 완강성과 헌신성, 용기와 투지를 낳으며 꾸준하고 근기있게 사업을 밀고나가 끝장을 보고야마는 결단성과 지구성을 가지게 한다. 사람의 창조적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며 완강하고 결단성있게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가 지니고있는 혁명적 열정과 패기가 얼마나 뜨겁고 높은가 하는데 달려있다.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불타는 열정, 당의 로선과 정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려는 높은 정치적 자각,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활동을 적극적이고 헌신적인것으로 되게 추동하여주는 힘의 원천이며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또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법론과 정확한 방도를 찾아내도록 추동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열쇠로 된다.

옳바른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내고 정확한 대책과 방도를 세우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훌륭히 관철하고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방법론을 잘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면밀한 작전과 포치, 정확한 장악과 지도, 철저한 총화와 재포치에 이르는 전반사업과정에 대한 주도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묘술을 찾아내야 한다. 일군들이 아무런 연구와 타산, 방법론도 없이 우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그대로 아래에 되받아넘기면서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이나 하거나 수행방도도 대주지 않고 안한다고 추궁이나 하고 빨리 하라고 독촉이나 하는 식으로 일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오직 구체적인 방법론과 묘술, 정확한 대책과 방도를 세워가지고 실천활동을 벌려야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사업전개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묘술, 정확한 대책과 옳바른 방도는 정열적인 창조적 사색에 의하여 탐구되고 마련된다. 정열적으로 사색하고 꾸준히 탐구하여야 책략이 나오고 묘안이 생기며 좋은 착상이 떠오르고 수가 생긴다. 사업에 대한 정열적인 연구가 없는 사람에게서 창조적인 사색이 나올수 없으며

적극적인 실천이 있을수 없다. 사색의 빈곤은 직무의 태만을 동반하게 된다. 꾸준히 탐구하고 정열적으로 사색하는 일군만이 구체적인 방법론과 옳바른 묘술을 가지고 일할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사업에서의 성과는 어느것이나 다 불타는 열정과 끊임없는 사색의 열매이다.

패기와 정열에 넘친 일군은 왕성한 창조적 의욕을 가지고 옳은 방법론과 묘술, 구체적인 대책과 방도를 가지고 사업을 창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가지고 늘 사색하고 탐구하여 정확한 방법론과 실천적 대책을 세워가지고 당정책관철에 실속있게 이바지하는 사람이 충실한 정열가, 기백있는 혁명가이다.

언제나 자기 사업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효과적인 방도와 대책을 찾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사색하고 아글타글 애쓰면서 이악하게 일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비결이 있는것이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모든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열쇠로 된다.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는것은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일군들이 확고한 주견과 완강한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자면 수준이 높아야 하며 실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에서 일군들의 주견과 전개력은 높은 자질과 실력에 기초하고있다. 충실성이 높고 욕망이 아무리 커도 실무와 지식, 수준과 능력이 안받침되지 않으면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할수 없고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남을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일군들은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확고하며 기술실무적으로 밝고 유능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도 잘하고 생산과 건설도 능숙하게 조직지도할수 있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아는것이 적고 수준이 낮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무식한 소리를 하게 되며 아무런 근거와 주장도 없는 빈말을 하게 된다. 일군들이 무식한 소리를 하고 빈말을 하게 되면 사업에서 씨가 먹지 않고 날이 서지 않아 종당에는 피동에 빠져서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일군들이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실하며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당과 수령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려면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전개력,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아는것이 힘이며 지식은 곧 창조적 능력이다. 힘이 되지 않는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장 훌륭한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산 지식을 풍부하게 가져야 모든 사물현상을 똑바로 보고 느끼고 받아들일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실천활동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쉬임없이 탐구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높아지게 된다.

지식은 열정의 산물이며 피타는 노력의 열매이다. 일군들이 언제나 자기를 원만한 인간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열적으로 학습하고 꾸준히 배울 때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능력있고 실력있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준비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혁명적 열정과 패기가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여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열쇠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정력적인 령도의 위대한

모범으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열의인》, 《정의인》으로 칭송받으시며 20대의 청년장군으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였으며 오늘도 항일의 산발을 달리시던 그 왕성한 기백으로 휴식도 피로도 잊으시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령도의 나날을 이어가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비의 담력으로 투쟁목표를 항상 높이 세우시고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과 강의한 의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고 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 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신적 안목과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 왕성한 사업의욕과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계신다. 탁월한 예지와 비상한 정력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력사적 진군은 가장 곧바른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지니고계시기에 전당과 온 사회에는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패기가 약동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체현하고계시는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혁명가들이 영원히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야 할 혁명가적 품성의 위대한 모범으로 빛나고있다.

지난 기간 함남도수산총국 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령도풍모를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는 패기와 정열을 가지고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수산부문 지도일군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필수적인 사업기풍으로, 고유한 품성으로 만들도록 하는데 깊은 당적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는 학습과 해설담화, 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군들속에서 정열과 패기는 사업과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며 로쇠현상을 극복하고 정열과 패기에 넘쳐 일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인식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총국당위원회는 그것이 실지 사업에서 구현되고 표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열과 패기에 넘쳐 일하는 일군들의 긍정적 모범을 널리 소개일반화하는 한편 로쇠병에 걸려 앉아뭉개는 현상들을 자료적으로 종합하여 정상적인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총국안의 일군들속에서 사상적인 로쇠현상을 철저히 극복해나가도록 하였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패기와 정열로 들끓고 앙양과 혁신의 기상이 차넘치게 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드높은 혁명적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비서들은 또한 로쇠와 침체를 반대하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슴깊이 간직하는것은 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기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 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 전투적 기백과 패기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게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참다운 혁명가,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투쟁기풍, 일본새를 규제하는 요인으로 된다.

사람들의 정열과 패기는 결코 타고난 기질이 아니며 나이나 생리적 조건에 관계되는것도 아니다. 나이가 많지 않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여도 충실성이 부족하면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이 나올수 없으며 사업을 패기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지칠줄 모르고 식을줄 모르는 혁명가들의 정열과 기백, 열정과 패기는 바로 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열렬한 충성심에 기초하여 분출하게 된다. 일군들이 정열과 패기에 넘쳐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불태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정열있는 혁명가, 패기있는 실천가, 능동적인 활동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투쟁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투쟁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 사상정신적 로쇠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다.

일군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야 사상정신적 로쇠를 막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해나갈수 있다.

지난날 아무리 잘 싸운 사람도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지 않으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갈수 없고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혁명을 끝까지 할수 없게 된다. 혁명가는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자신을 혁명화하여야 한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람없이 보낸 백날천날보다 혁명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며 산 하루가 더 값있고 귀중하며 빛나는것이다.

만약 일군들이 자체수양을 게을리하게 되면 머리에 녹이 쓸고 사상정신적으로 로쇠하게 된다. 혁명가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로쇠되면 혁명적 열정이 식고 정열이 식으면 투신할수 없다. 때문에 일군들은 비록 생리적으로는 로쇠되더라도 사상정신적으로는 로쇠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늙어가는 나이는 숨길수 없으며 육체적 로쇠는 막을수 없다. 그러나 생리적으로는 로쇠하여도 사상정신적으로는 로쇠하지 않는 바로 여기에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혁명적으로 생활하고 전투적으로 일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일군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 사상정신적 로쇠를 철저히 막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는것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주인다운 태도는 주체사상의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려는 립장과 관점이다. 주인다운 태도에는 혁명가의 사상적 각오와 일본새, 투쟁기풍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불타는 혁명적 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 넘치는 패기는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에 기초하고있으며 그 구체적 발현이다. 누구나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불타는 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패기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대담하게 구상하고 기발하게 착상하며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일군은 다 주인다운 자각이 높은 지휘성원이며 책임성이 강한 사람들

이다.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이 없이 일을 되는대로 하거나 만일의 경우에 지게 될 책임이 두려워 앞뒤만 재면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답게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자면 또한 사생활을 검박하게 하고 풍부한 정서를 가져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기풍은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생활기풍의 연장으로 된다.

흔히 패기와 정열은 젊음의 상징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젊음은 결코 사람들의 겉모습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나이를 더해주고 육체적인 젊음을 덜어간다고 하여도 늘 왕성한 정열과 패기에 넘쳐 사업하고 생활하는 사람에게서는 언제나 젊음과 열정이 떠나지 않는 법이다. 때문에 일군들의 일거일동은 항상 정열적이여야 하며 기백에 넘쳐있어야 한다. 나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젊음이 약동하고 생기에 넘치는것이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지도일군이다.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절도있게 해야 하며 무슨 일을 전개하여도 활기있게 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말을 하여도 기백이 있고 쇠소리가 나게 하며 걸음을 걸어도 씩씩하고 패기있게 걸어나가는 정열가다운 생활기풍, 투쟁기풍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사생활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경제생활에서 청백하지 못하고 사생활에 지나치게 머리를 쓰게 되면 점차 혁명사업에 무관심하게 되고 혁명적 열정이 식어지게 되며 결국 혁명가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청백하지 못한 사람은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지 못하고 날을 세우지 못하며 눈치를 보고 요술을 피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모든것을 혁명사업에 바쳐나선 혁명가답게 하루를 살아도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빛나게 살아야 하며 절대로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지 말고 혁명밖에 모르는 사람,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풍부한 정서를 가져야 한다.

왕성한 사업의욕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은 풍만한 정서에 기초하여 나오게 된다. 인간생활에 정서가 없다면 그런 생활은 꽃이 없는 화단이나 같다고 말할수 있다. 문화적 소양이 높고 정서가 풍부하여야 심장도 더 뜨거워질수 있으며 왕성한 사업의욕과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가지고 패기에 넘쳐 일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뜨거운 열정과 풍만한 정서를 가진 지성적이며 감성적인 인간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의 핵심력량이다. 일군들의 열정과 패기는 곧 대중의 패기와 열정으로 되며 온 사회에 혁명적 투쟁기풍을 세우는 전제로 된다. 일군들이 열정에 불타고 패기에 넘쳐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들끓고 온 나라에 투쟁과 전진,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당의 혁명전사답게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식의주문제해결에서 현시기 틀어쥐고나가야 할 결정적 고리

김 달 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을 올해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중심적인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대상의 하나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쳐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건설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5페지)

식의주문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의 착취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여 그들을 사회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것과 함께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이며 이 문제는 인민생활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식의주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떠나서는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들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식의주문제는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인것만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제기된다. 수많이 제기되는 과업들가운데는 전반적인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다른 과업들의 수행에 규제적인 작용을 하는 보다 중요하고도 반드시 먼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 있다. 이 중요한 과업이 해당 시기 식의주문제해결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결정적 고리로 된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식의주문제해결의 결정적 고리를 옳게 찾아내고 력량을 집중하여 그것을 제때에 풀어나가야만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전반적인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식의주문제해결의 결정적 고리를 옳게 찾아내고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

우리 혁명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종합적 대화학공업기지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현시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결정적 고리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게 된다.

먹는 문제는 식의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이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데서 기본을 이룬다. 입고 쓰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잘 풀렸다고 하더라도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할수 없다. 먹을것이 풍족해야 인민들의 의식상태도 더 좋아지고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간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먹는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전반적인 투쟁에서의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먹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기본고리는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있다. 농업을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알곡, 고기, 알을 비롯한 식량과 부식물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다.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농사제일주의방침,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화학비료생산을 더욱 늘이는것이다.

현시기 화학비료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것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건설되면 질소비료만 하여도 90만톤 생산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생산하는 같은 종류의 화학비료와 합치면 우리 나라의 모든 부침땅들에 질소비료를 충분히 주고도 남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농사제일주의방침,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정보당 알곡과 남새, 과일, 공예작물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해결할수 있다.

알곡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때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라는 구호밑에 쌀공급에서부터 먼저 공산주의적 분배를 실시하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의 건설은 고기와 알 생산도 더욱 늘일수 있게 한다. 지금 우리 나라 전국의 여러곳에 건설하여놓은 돼지공장과 닭공장, 오리공장들의 생산능력은 대단하며 이 공장들에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면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부식물을 더 많이 공급할수 있다.

고기와 알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단백질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건설되면 30만톤의 단백질먹이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으로는 이미 마련된 축산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고기와 알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바다가양식을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수산물을 넉넉히 보장해주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건설되면 바다가양식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를 많이 생산보장하여 수산물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다.

이처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먹는 문제해결에서 매우 큰몫을 담당하게 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또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는 문제는 먹는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먹는 문제와 함께 입는 문제가 잘 풀려야 인민들은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푸는데는 식물성섬유, 동물성섬유와 같은 자연섬유와 합성섬유, 인조섬유와 같은 화학섬유를 리용하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을수 있다. 이가운데서도 우리 나라 조건에서는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화학섬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비날론생산을 더욱 늘이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목

화가 잘되지 않으며 또 잘된다고 하여도 부침땅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비날론공업을 발전시켜 비날론섬유를 많이 생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체적인 공업이다. 비날론공업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우리 식의 공업이며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이나 원료, 연료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결심대로 얼마든지 발전시킬수 있는 주체공업의 본보기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비날론은 면보다 몇배나 더 질기며 열이나 화학약품에도 잘 견딘다. 비날론의 물빠는 성질은 합성섬유가운데서 제일 좋다. 비날론만 많이 생산하면 방직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튼튼히 보장할수 있으며 우리의 자원으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다.

우리 인민이 힘을 넣어 건설하고있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앞으로 질높은 10만톤의 비날론이 생산되게 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나오는 비날론과 지금 있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하는 비날론은 제3차 7개년계획의 마지막해에 이르게 될 22만 5,000톤의 화학섬유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의 하나인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주체섬유인 비날론의 가공기술이 더욱 발전하고있는 오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빨리 건설하면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해결할수 있게 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조업하여 10만톤의 질좋은 비날론이 쏟아져나올 때 고급양복천과 샤쯔천, 코트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옷감과 뜨개옷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옷문제를 더욱 다양하게 풀수 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건설되면 비날론섬유뿐아니라 모비론섬유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의 건설은 또한 인민들의 살림집문제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가지 소비품을 해결하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종합적 대화학공업기지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100만톤의 카바이드, 75만톤의 메타놀, 10만톤의 비날론, 90만톤의 질소비료, 30만톤의 단백질먹이와 합계 25만톤의 염화비닐, 25만톤의 가성소다, 40만톤의 탄산소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게 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염화비닐로는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질좋은 화학건재를 많이 생산할수 있다. 세멘트와 같은 건설용 기본자재들을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화학건재생산을 더욱 늘이면 보다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해결할수 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나오는 염화비닐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제품들로는 신발과 일용필수품, 가정용품들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이 현시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결정적 고리이며 생명선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이야말로 우리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건설되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 념원을 더 잘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건설되여 조업할 때 우리는 로동당시대를 더

욱 빛내이는 또하나의 풍만한 재부를 마련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있으며 주체조선의 위력과 영예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힘있게 떨칠수 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단계별 목표와 수행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이 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방대한 건설을 빨리 다그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건설에 착공한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 벌써 기본생산시설들과 보조생산시설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으며 날을 따라 그 면모가 달라지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과 모든 건설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영웅적 투쟁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건설공사를 제때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페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련합기업소 건설을 담당한 건설자들이 당이 준 임무수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투쟁기풍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이 준 임무를 절대화하고 무조건 수행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으며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 당과 수령이 준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혁명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최근시기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이 20리 날바다를 가로막는 방대한 규모의 서해갑문 건설공사를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할수 있은것도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은 지난 40여년간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확증된 고귀한 진리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아야 하며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어머니당에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건설자들의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기풍은 맡겨진 공사과제를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는데서 표현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 참가한 모든 건설자들은 서해갑문 건설자들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그날 과제는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공사일정계획을 최대한으로 앞당겨나가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건설을 담당한 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종합적대화학공업기지를 마련하는 매우 거창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많은 건설력량과 현대적인 기계설비, 여러가지 자재가 동원리용되고있으며 건설대상의 규모는 매우 크다. 이 중대하고 방대한 건설공사를 얼마나 빨리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건설을 책임진 지도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건설을 담당한 경제지도일군들은 전반적인 공사의 추진정형을 일상적으로 튼튼히 료해장악하며 들끓는 건설장에 깊이 들어가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건설을 기동성있게 지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특히 건설공사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록 직접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며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건설자들을 끊임없는 로력적 혁신에로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조직지도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기술혁신운동을 옳게 조직진행해나가는것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시작한 때로부터 얼마 안되는 기간의 경험이 뚜렷이 보여준바와 같이 기술혁신운동만 힘있게 벌려도 건설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으며 방대한 건설공사를 앞당겨 수행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건설장에 나와있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고 모든 건설자들을 기술혁신에로 적극 불러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우리식의 새로운 공법과 작업방법들을 더 많이 창안해내고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빨리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나라의 재부를 더욱 늘이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며 우리 인민모두를 위한 공동의 사업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가 빨리 완공될수록 그만큼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밑천이 풍부해지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게 된다. 그러므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자면 전당, 전국, 전민이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빨리 끝내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상설비와 건설자재를 제때에 어김없이 대주는것이다. 지금 많은 금속공장들과 기계공장들에서는 여러가지 금속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적극 생산보장하고있으며 건설을 다그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이 공장, 기업소들에서처럼 전반적인 건설에서의 성과여부가 자신들에게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맡은 대상설비와 건설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자면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뿐아니라 온 나라가 다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과 온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로력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설계도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빨리 완공함으로써 나라의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더 큰 밑천을 튼튼히 마련해나가야 할것이다.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요구

한 인 호

오늘 우리 당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원리대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경제관리를 개선함으로써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오늘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는것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이미 지난해에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첫 진군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강력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계속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놓은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524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나라의 재부는 국가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한 만년대계의 밑천이며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담보하는 귀중한 사회적 공동재부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와 집단이 가지고있는 재산과 자연부원이 다 나라의 재부를 이룬다. 사회의 물질적 부의 견지에서 보면 나라의 재부에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국가재산과 협동단체의 재산이 속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라의 재부는 근로인민대중의 재부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에 리용된다.

생산수단을 비롯한 국민부의 기본부분이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짜내는 착취수단으로 리용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국민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는것은 자본에 의한 로동의 보다 가혹한 착취를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재부가 늘어날수록, 그것을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쓸수록 나라가 부강하여지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복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것이 사회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더우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때문에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계속 큰 규모에서 진행할수 있으며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마련해주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는데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는것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라의 재부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 나라의 재부는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많이 창조할수록 증대되며 이미 창조한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하고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늘어난다.

사회적 재부를 늘이는데서 노는 요인들의 작용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경제관리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는 보다 적은 지출로써 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공동로동과 경제활동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합리적으로 조직지휘하여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더 큰 규모에서 보장하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더욱더 높아지며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월썩 높아지는데 맞게 사회적 로동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여야 확대재생산을 더 큰 규모에서 진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관리를 개선할수록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을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는데로 지향시키고 그에 철저히 복종시켜나갈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여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며 확대재생산의 균형과 속도를 원만히 보장하여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일수 있는 길을 명시해준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모든 경제적 과정의 본질적 련관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사회적 생산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으며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 경제관리분야에서 해결하여야 할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크다.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킨다면 우리앞에 나선 경제건설과업이 아무리 방대하여도 그것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재정을 옳게 관리하며 생산지도를 잘할수록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할수 있으며 나라의 재부를 더욱 늘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관리를 개선하는것은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중요한 담보로 되며 국가적 부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투쟁기풍으로 된다.

경험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기 위해 이악하게 달라붙어 적극 투쟁할 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증대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속에서 불사신처럼 일어나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투쟁함으로써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었다. 특히 우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반대하면서 모든것을 망탕 때려먹자고 할 때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경제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져왔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국가적 재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오늘까지 류례없는 빠른 속도로, 거창한 규모로 늘어났다.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히 축성되고 그 생산잠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간다면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원리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때문에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고 또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446페지)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회적 생산이 확대된 규모에서 끊임없이 반복, 갱신되는 과정이며 그 목적은 근로자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데 있다.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과정에 나라의 재부를 이루는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이 빨리 장성하게 되며 그것을 더욱 더 늘일수 있는 담보가 튼튼히 마련되게 된다. 그러므로 확대재생산을 떠나서는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는 문제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인민생활의 밝은 전망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원리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진 일군만이 나라의 재부를 하나라도 더 늘이려는 확고한 립장에 서서 있는 밑천을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원리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애써 마련한 나라의 귀중한 경제적 밑천을 되는대로 쓰게 되며 나아가서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원리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비롯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들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선, 정책에는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에 관한 리론은 물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과 그 해결방도들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원리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지고 나라의 재부를 더 많이 늘이기 위하여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휘할수 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생산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되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전제로 된다.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과정이란 생산이 늘어나는 과정이며 곧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나라의 재부는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문제는 생산의 증대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생산의 증대는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을 원천으로 하고있다.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현시기 생산을 빠른 속도로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에 로동생산능률을 공업부문에서는 1.6배, 기본건설부문에서는 1.5배로 높이며 공업총생산액 증가의 80%이상을 로동생산능률장성에 의하여 보장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생산장성에서 이처럼 중요한 작용을 하는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더욱 높이고 기술의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하는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이 높아질수록 그들은 생산과 관리에서 자각적열성과 창조적 능력을 적극 발휘하게 되며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 로동을 절약하면서도 단위시간에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할수 있게 된다.

공업을 비롯한 전반적 인민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로력사정이 긴장되고있는 오늘 로동력의 증가만으로는 생산의 장성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으며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없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산을 장성시켜야 한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금을 빨리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도 상품화폐관계가 있는것만큼 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확대재생산을 원만히 실현하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는데는 로력과 설비, 자재와 함께 자금이 요구된다. 그것은 화폐자금이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계획실행과정을 보장하며 통제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자금을 빨리 회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류통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화폐는 류통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류통조직을 잘해야 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생산을 적극 추동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반드시 생산에 투입된 시초자금보다 더 많은 화폐자금, 화폐축적이 조성되도록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자금회전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자금을 끊임없이 회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류통조직을 잘하는것과 함께 그 회전속도를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거창한 규모에서 추진되고있는 현실은 그에 맞게 화폐자금의 회전속도를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자금회전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되며 나라의 재부가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재정계획을 세우는것으로부터 그 집행과 총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자금회전속도를 높이는것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지출된 자금을 빨리 회수리용하며 더 늘일수 있도록계획화사업과 생산에 대한 조직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자금을 빨리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을 확대해나갈데 대한 요구는 외화자금을 리용하는데서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한다.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밑천을 많이 조성하는것과 함께 이미 마련된 밑천을 극력 절약하고 랑비를 없애는데도 힘을 넣어야 한다.

축적과 소비사이의 호상관계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은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축적과 소비는 다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리용된다. 그러나 축적과 소비사이의 호상관계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일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수 없다.

축적과 소비는 국민소득을 리용하는 두 측면이므로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치면 다른것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경제토대를 강화한다고 하여 축적에만 치우치면 소비의 몫이 감소되여 근로자들의 당면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반대로 소비에만 치우칠 때에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지 못하고 생산을 빨리 확대할수 없으며 구경에는 나라의 재부를 늘이지 못하여 인민생활도 체계적으로 높여나갈수 없게 된다.

축적과 소비사이의 호상관계문제를 잘 풀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도는 우리 당의 정책대로 국민소득분배에서 축적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소비를 동시에 늘이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보장원칙은 축적과 소비의 밀접한 련관관계와 적극적인 호상작용에 기초하여 확대재생산의 규모와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를 다같이 동시에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적극적인 균형설정원칙이다.

축적과 소비사이의 이 독창적인 균형설정원칙을 계속 견지하는 바로 여기에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축적과 소비의 원천은 국민소득이다. 국민소득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키는 조건에서만 축적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소비도 동시에 늘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비생산로력을 결정적으로 줄이고 생산로력을 늘이며 종업원 한사람당 순생산액을 늘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생산적 축적에 비한 생산적 축적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국민소득을 잘 분배하며 기본건설투자의 방향을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확대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사회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과 농촌테제의 완성을 위한 투쟁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인민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해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려지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어깨를 들이밀고 수신하며 제기된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실적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더 많이 마련해나가야 할것이다.

련합기업소는 우리 식의 우월한 기업관리조직형태

박 영 근

기업관리조직형태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옳바로 설정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기업관리조직형태를 개선해나가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을 합리적으로 련결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관리조직형태를 개선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성적 요구와 경제발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제때에 기업관리조직형태를 개선하는 사업을 옳바로 진행하여야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기업관리조직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주의기업소조직의 새로운 형태인 련합기업소를 창설하고 관리운영하도록 하시였으며 그 과정에 이룩된 경험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련합기업소를 광범히 조직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입니다.》

련합기업소는 일정한 생산물생산에서 생산기술적으로나 관리경영상으로 긴밀한 련계를 맺고있는 기업소들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통합한 기업소조직형태이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적 분업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이 집중되고 생산의 사회화가 촉진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생산단위들의 련합을 요구하며 그것을 반영하여나온 기업소조직형태가 바로 련합기업소이다. 련합기업소가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되자면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잘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기업소조직형태라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우월한 기업관리조직형태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련합기업소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기업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기업관리형태라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경제관리에서 집체성을 보장하며 생산자대중의 열의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 범위에서 사회화된 대규모의 집단경리이며 그 관리운영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생산자대중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그 어

면 개인의 주관이나 독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제도의 성격에 맞게 집단주의적 방법에 의해 관리운영되여야 한다. 따라서 경제관리에서 집체성을 더 잘 보장하며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완성해나갈 때만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우리 당은 일찌기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기업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참가시키는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핵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지도방법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를 옳게 구현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경제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기업관리조직형태이다.

그것은 우선 우리 당이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면서 당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당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련합기업소에 소속된 당조직들을 직접 틀어쥐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련합기업소적인 경제과업수행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통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집체적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모든 사업이 당의 의도대로 목적지향성있게 진행되도록 그 활동방향을 옳바로 제시해줄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당의 의도와 요구, 생산자대중의 지향에 맞게 경영활동을 옳바로 벌려나갈수 있게 된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련합기업소와 아래 공장, 기업소의 가장 중요한 부문에서 일하며 해당 부문의 사업을 알고 대중의 의사를 옳게 반영할수 있는 핵심들로 구성되는것만큼 집체적 토의를 거쳐 당정책적 요구와 기업소의 구체적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옳은 활동방향을 규정하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집체적 지도밑에 경제과업수행의 방향과 방도를 옳바로 제시할뿐아니라 그 집행에서 련합기업소의 모든 단위들과 고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옳바로 이끌어나간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련합기업소당비서나 지배인, 기사장이 다 당위원회의 결정과 분공에 따라 자기 위치에서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더 잘 집행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당정치사업과 행정경제조직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옳게 결합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련합기업소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책임진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3위일체가 되여 기업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사업과 경제사업이 밀접히 결합되여 통일적으로 진행되게 하였으며 당사업을 경제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산 당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훌륭히 풀어나가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경제관리체계는 반드시 그에 알맞는 사업방법과 결합되여야 참으로 위력한

것으로 된다.

련합기업소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물론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을 적극 발동하여 생산자대중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게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기업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가지고 맡겨진 과업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군중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기업관리에서 집단주의가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기업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련합기업소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가 우리 식의 우월한 기업관리조직형태라는것은 또한 그것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와 기업소의 책임성, 창발성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업관리조직형태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경제관리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 요구의 하나이다. 전사회적 규모에서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에 의하여서만 원만히 움직여나갈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 강화되여야 하며 그 기초우에서 기업소들의 창발성이 높이 발양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한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기업소의 책임성, 창발성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문제를 사회주의사회의 특성, 경제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정확히 해결한 산 모범으로 된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는 직접 기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될때 현실에 접근한 실속있는 지도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진 조건에서 국가가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직접 다 대상하여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은 힘들지 않을수 없다. 련관된 기업소들을 묶어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면 경제의 규모가 커진 조건에 맞게 기업소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로서의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가 위원회, 부를 거쳐 련합기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에 보다 접근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산 지도로 되게 하였다.

한편 련합기업소는 기업소로서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경영 활동을 직접 조직지휘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당과 국가 앞에 완전히 책임진다. 이것은 련합기업소로 하여금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게 한다.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의 합리적 결합은 련합기업소를 통한 기업관리의 개별적 분야들에서 구체화되고있다.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계획화에서

균중로선을 관철하는 가장 정당한 길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오직 계획화사업을 국가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계획기관 일군들이 현실에 들어가 생산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지표들을 세부적으로 맞물릴 때에만 인민경제계획이 당의 정책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으로 될수 있으며 계획화에서 기업소와 생산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이 높이 발휘될수 있다.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국가계획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기업소를 대상하여 세부적으로 맞물린 과학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계획화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가 더 잘 관철되게 되였으며 인민경제의 통일적 발전이 세부지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보장되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는 한편 국가계획기관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적인 계획과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을 직접 책임지고 자체로 세운다. 이것은 련합기업소로 하여금 계획작성사업에서 계획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성을 높이게 한다. 또한 아래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계획지표들을 서로 맞물리며 련관된 련합기업소들과도 계획을 맞물리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게 한다.

이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한 련합기업소관리운영체계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기업소들이 책임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하며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기업관리조직형태이다.

력사적 경험은 사회주의의 기치를 고수하며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면 기업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기업소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최대한 발양시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련합기업소가 우리 식의 우월한 기업관리조직형태라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기업관리조직형태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의 하나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통일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확한 계획, 계산, 통계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화하고 과학적으로 맞물려나가지 않고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을 정상적인 궤도우에서 진행해나갈수 없다.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것은 모든 경제조직사업을 객관적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현대적인 기술수단들과 수법들을 경제관리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경제관리 전반에서 높은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과학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규모의 련합기업소들이 광범히 조직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게 되였다.

련합기업소조직은 우선 모든 경제사업에서 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해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준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은 서로 다른 내용과 요구를 가지고 인민경제 매 부문, 매 단위에서 동시에 그리고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작용한다.

경제법칙작용에서의 련관관계는 경제법칙들을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밀접한 련관속에서 전면적으로 파악하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능숙하게 타산리용할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를 정확히 지킬때만이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사회적 로동의 효과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오늘 련합기업소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련합기업소와 산하 공장, 기업소들의 각이한 부문과 생산단위들

에서 일하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의사와 발기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분석할수 있는 체계인것으로 하여 련합기업소범위에서 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울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범위에서 생산의 여러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생산조건들을 정확히 보장함으로써 정치사업을 통하여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위력한 물질적 힘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행할데 대한 경제관리과학화의 요구는 련합기업소들에서 실시되는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에 의하여서도 확고히 관철되게 된다.

전반적인 경제관리사업을 과학화, 합리화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련합기업소에서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하게 된것이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확고한 원칙이다. 련합기업소들에서는 이러한 원칙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독립채산제를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 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계획적 관리운영의 수단으로 삼고있다. 우리 당은 련합기업소를 2중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2중독립채산제는 련합기업소와 그 아래 기업소들로 하여금 자기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하여 물질적 리해관계를 가지고 생산활동과 경영활동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벌리며 기업관리를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게 한다.

우선 련합기업소가 예산제단위가 아니라 독립채산제단위로 됨으로써 기업소들이 련합기업소적으로 경제적 타산을 바로하고 적은 지출로써 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기업관리를 최대한 합리화해나가게 되였다. 그리고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아래 기업소들도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매 기업소들의 독자성,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나가게 되였다.

련합기업소에서의 2중독립채산제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독립채산제를 련합기업소적인 경영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실시된다. 2중독립채산제는 련합기업소와 그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리해관계를 일치시키고 련합기업소 전체 종업원들의 련대적인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이것은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련합기업소가 개별적 공장, 기업소의 테두리를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독립채산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기업관리를 합리화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참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한 련합기업소관리운영체계야말로 객관적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모든 경제조직사업을 바로하고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하게 함으로써 기업관리를 높은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우리 식의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기업관리조직형태이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련합기업소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련합기업소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양시키는데서 기본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기업관리를 우리 식대로 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4~485페지)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실천을 통하여 그 위력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그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당의 의도대로 경제관리분야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며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련합기업소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해야 한다.

련합기업소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현대과학과 발전된 기술에 토대하고있는 련합기업소를 옳바로 관리운영하며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공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더 잘 실현하고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을 개선하며 로동조직과 설비관리를 잘하고 협동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련합기업소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경영활동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는것이다.

련합기업소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영활동을 창발적으로 벌려 국가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련합기업소가 조직된 오늘에 와서 계획수행과 설비갱신을 비롯한 경영활동의 전반사업의 성과여부는 련합기업소와 산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여하에 달려있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자기 단위에 맡겨진 경제과업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높은 사상적 각오와 책임성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영활동을 능숙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 일군들은 당정책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며 보수주의, 소극성, 형식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업태도가 발로되지 않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업에 어깨를 들이밀고 적극 투신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으로 당의 령도적 권위를 옹호하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련합기업소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양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기업관리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련합기업소를 창설하시면서 련합기업소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당적 지도체계를 세워주심으로써 련합기업소와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기업소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당사업을 경제과업수행과 밀착시킴으로써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련합기업소의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조 병 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군중로선의 기본요구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에게 호령하고 인민우에 군림하는 관료가 될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7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당활동의 최고원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할뿐아니라 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인민의 충복은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심부름군이다. 그것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칠줄 아는 일군을 말한다.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굽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의 숭고한 발현이다. 우리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것은 그들이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된다.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각이 높으면 그것이 곧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강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것으로 된다.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의 충복답게 일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확고한 결심밑에 또다시 사회주의건설의 거창한 작전을 펼치시고 그것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면서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군들속에는 당의 요구가 바로 인민의 요구이며 인민을 위해 일하는것이 곧 당의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이 요구하는것이라면 다 해결해주려는 고상한 사업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당과 혁명이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서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된 오늘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우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조건에서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하는것은 당의 절대적 권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이로부터 은률군당위원회는 당의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기 위하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해나가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갔다.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혁명의 지휘성원들속에서 인민의 충복이라는 옳은 관점을 세우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8페지)

무슨 일에서든지 일군들이 관점과 립장을 바로 가지게 하는것은 실천활동의 첫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그들의 사상관점의 반영이다. 지도일군들이 자신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복이라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할수 있으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성실히 풀어줄수 있다.

우리는 당 및 행정경제, 근로단체 일군들에게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는 길은 곧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는데 있다는것을 똑바로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언제나 정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였다.

한때 일부 일군들은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겠다는 결의는 크게 다지면서도 당과 수령이 베풀어주는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면 인민의 충복이라는 높은 자각부터 가져야 한다는것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있었다. 지어 일부 일군들가운데는 오늘의 생활을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과 대비하는것으로써만 만족하고 당과 수령의 크나큰 은덕이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더 잘 닿도록 하는데 관심이 부족한 현상도 발로되였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밀접히 결부시켜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주체적인 관점, 혁명적 군중관점을 세우게 하는것과 함께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자면 일군들이 혁명의 주체이며 그 추동력인 인민의 충복답게 일해야 한다는 옳은 관점을 가지도록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 당정책교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을 잊지 말고 인민의 심부름군답게 일하여야 한다는것,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길이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그리고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투쟁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는것, 조국애는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는것 등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켰다.

우리는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공정감화교양에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인민의 충복답게 말없이 수걱수걱 꾸준히 일하는 일군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모를 박았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지도일군들속에서 인민성이 없는 현상, 자기의 직책을 그 어떤 벼슬자리로 생각하면서 인민우에 올라서고 군중의 리익을 침범하며 군중에게 까다롭게 굴고 관료주의

를 부리는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였다.

이러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반복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일군들속에서는 그 어떤 사업을 조직하여도 거기에 인민의 의사와 리익이 반영되게 하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대소경중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그리고 당과 혁명, 인민에게 리로운 일이라면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헌신분투하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군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군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속에서는 길을 걸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자면 어떻게 할것인가, 주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며 뛰여다니는 사업기풍이 확립되였다.

지난날 기후조건이 불리하고 척박한 곳으로 알려졌던 은률군이 논벼, 강냉이 정당 수확고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최근 10년간에 알곡생산은 배로, 축산물생산은 3배로 늘인것, 최근 한두해 동안에 수백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함으로써 근 70%를 지방원료에 의하여 인민소비품을 생산할수 있게 한것 등은 일군들속에서 인민의 충복답게 일해나가려는 자각이 높아진것과 관련된다.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이 실천행동에서 구현되도록 당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인민의 충복이 될 때 진짜 당에 충실한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관점은 말과 결치레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하며 그러한 실천행동은 당정치사상사업에 치밀한 당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 성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한때 군안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려는 결심을 가졌다고 하지만 앉아서 걱정만 하고 말공부만 하거나 당에서 인민생활을 풀기 위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 아래일군들에게 계단식으로 되받아넘기면서 자신은 머리를 쓰지 않는 현상까지도 발로되였다.

지난 시기 군당위원회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인민의 충복답게 일해나가기 위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강화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할 때마다 모든 당조직들이 대담한 작전과 동원적인 계획, 정확한 분공과 구체적인 포치 그리고 실속있는 장악과 정상적인 총화, 끊임없는 재포치로 그것을 혁명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특히 지난 시기 군당위원회가 힘을 넣은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여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조건타발을 할것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투신하게 하여야 한다는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기간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이다.

지난 기간 우리 군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는 언제나 유리한 조건만 있은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인민들에게 리로운 일이라면 힘들어도 해내야 한다는 철저한 립장을 가지고 투신하는 일군들에게는 결코 부분적인 불리한 조건, 애로와 난관이 문제로 될수 없었다.

우리는 일군들이 불리한 조건도 얼마든지 머리를 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면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다는 자세를 똑바로 가지고 원료가 더 요구되면 원료

기지를 더 꾸리며 설비능력이 모자라면 그 해결대책을 세우는데 투신하도록 하였다.

은률군 일군들앞에 남포와 은률을 련결하는 서해갑문 공사를 전사회적 운동으로 지원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추켜세우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벅찬 과업들이 겹쳐있었을 때 군당위원회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유리한 조건을 확대하기 위한 창조적 탐구를 심화시키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면서 일군들이 누구나 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투신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당에서 마련해준 서해갑문 공사에 의하여 장차 은률군의 물문제가 해결될수 있는 유리한 전망조건을 타산하여 물길공사와 간석지개간을 수도전의 방법으로 해제끼면서 여러 방대한 건설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심고리인 세멘트공장을 비롯하여 자체의 건재기지를 꾸리는데 일군들을 발동시켰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세멘트공장건설에 동원된 책임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걸린 고리들을 직접 푸는데 투신하면서 자재설비의 예비를 찾아내고 군안의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 지혜를 남김없이 발동하여 수십건의 기술혁신을 하게 함으로써 현대적인 설비로 장비된 지방세멘트공장을 2년동안에 자체의 힘으로 완공할수 있었다. 군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타지방에까지 세멘트를 보내줄수 있는 세멘트기지가 꾸려짐으로써 우리는 수천정보의 논밭에 물을 공급할수 있는 물길공사와 근 백정보의 간석지내부망건설, 수십동의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군안의 주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의의있는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해제낄수 있었다.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빠짐없이 제때에 풀어주는데 발벗고나서야 한다.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은 정치사상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다 포괄하여 말하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들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당과 수령에게서 부여받으며 자기의 물질문화생활을 당과 국가에 의탁하여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준다는것은 정치사상생활, 물질문화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빠짐없이 다 풀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주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당일군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일군들은 인간의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가르치심을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당일군들이 누구나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보호해주고 빛내여주기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일신의 수고를 생각하지 않는 사업기풍을 세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특히 군당위원회는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는 사업을 당정책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켰다.

우리는 당정책이 진행되는 현실속에,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으며 사람들속에 맺혀있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정치적 생명을 보호해주면서 생산자대중을 혁신에로 불러일으켰다.

특히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기본을 두고 사람들을 평가하였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꾸준히 일을 잘해온 숨은 공로자들, 로력혁신자들을 장악하여 조선로동

당원의 영예를 지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당의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당정책관철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훌륭히 만들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 밑천이 있으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정확한 시책들과 방도들이 다 세워져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은률군안에도 수많은 현대적인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그 생산능력도 대단히 커졌다. 이것만 잘 리용하여도 군안의 인민생활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할수 있다. 문제는 일군들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가에 달려있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정형을 늘쌍 알아보고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돌려지는 당의 배려가 근로자들속에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는 군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당일군들자신이 군안의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높이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이나 하면 그만이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 책임은 행정경제일군들에게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인민의 참된 충복이라고 말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였다.

또한 군당위원회는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지방산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온갖 정열을 쏟아붓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발기하고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당적으로 밀어주었다. 우리는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투쟁이 큰 은을 내게 하기 위하여 군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가내작업반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동시에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모조리 회수리용하여 인민들에게 차례질 소비품생산을 갖가지로 늘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었다.

군내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지난 기간 깊은 주의를 돌린것은 상업, 편의봉사, 량정, 도시경영 등 인민봉사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린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봉사부문 일군들의 기본임무는 철두철미 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잘 돌보는것이다. 우리는 인민봉사부문 일군들속에서 그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후방공급자로서 집에서는 주부, 군대에서는 사관장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립장을 가지고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상 요구와 애로를 자기 집의 일처럼 여기고 성심성의로 해결해주며 봉사조직과 봉사방법을 개선하고 봉사성을 높여 봉사혁명을 일으

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여 인민생활과 직접 련계되여있는 상점들과 군직매점, 식당을 비롯한 편의봉사망들에 자주 나가 그곳 봉사일군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월판매대장과 제품 및 원료, 자재 인수대장, 주문수첩 등을 일일이 검토해보면서 주문제에 의한 상품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상품수요연구와 상품확보, 상품배정과 공급 사업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게 하였다. 우리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 참가하고있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책임일군들이 군직매점에 수시로 나가 자기들이 만든 인민소비품을 다른 단위에서 만든것과 대비해보고 끊임없는 자극을 받게 하였다.

특히 우리는 상업관리소와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관리소 일군들이 자체원료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상업관리소일군들은 한창 바쁜 농사철에 농촌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면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1인당 한정보에 맞먹는 원료기지를 조성하여 여기에서 나온 원료로 상업봉사활동을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조직하였다.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관리소 일군들도 수십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함으로써 자체로 생산한 원자재만 가지고서도 일년내내 급양망을 높은 수준에서 운영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안고 어떻게 하면 인민생활을 더 높이겠는가에 대하여 늘 머리를 쓰고 인민의 충복답게 일에 투신하도록 한다면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으며 당과 수령,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시기 군당위원회가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군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더욱더 튼튼히 꾸려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우리 군에서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충성의 보고를 올리겠다.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자

전 금 진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비호밑에 거의 30년동안이나 지속되여온 군사파쑈독재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용근 한해동안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6월인민항쟁을 통하여 쟁취한 직선제에 기초한 지난해 12월《선거》는 남조선에서 계속되여오는 군정통치를 종식시키고 민간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주화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군정종식과 민정수립에 대한 절대다수 인민들의 념원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머리우에는 여전히 군사파쑈독재가 군림하게 되였으며 《정권》교체가 된다 하여도 아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가 계속되는한 인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사회적 변혁에 대한 념원도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로태우역도가 괴뢰정권의 권좌에 올라앉게 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밑에서 계속 신음하게 되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게 되였다.

로태우역도는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저주와 증오를 받는 민족반역자이다. 로태우역도는 미제의 손때묻은 주구이며 총칼로 동족을 무참히 학살한 군사불한당이며 사기와 협잡의 능수이며 교활하기 그지없는 민족의 역적이다. 이러한놈이 괴뢰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이 있었기때문이다. 원래 지난해에 진행된 《선거》는 처음부터 미국이 각본을 짜고 전두환, 로태우 일당이 연출한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를 연장하기 위하여 로태우역도를 음으로 양으로 적극 밀어주는 한편 야당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바로 미제의 배후조정과 뒤받침이 없었더라면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로태우도당이 감히 《선거》에서 당선될수 없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것이다.

지난해 12월《선거》이후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모든 애국세력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을 힘차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모든 조선사람들이 한결같이 성스러운 민족적 위업 실현에 떨쳐나서야 합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13페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민족적 리념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는데 있다. 이것은 우선 통일문제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 요구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민족중대사이며 전민족의 리익을 위한 거족적인 사업이다.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민족자신이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민족자체에 있다.

통일문제의 주체는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에 대해서는 북의 사회주의

력량이나 남의 애국적 민주력량이나 꼭 같은 리해관계를 가진다. 그렇다고 하여 조국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조국통일은 오직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 민주력량이 단합하여 거족적 투쟁을 벌릴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오해와 불신을 가시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오해와 불신은 제도와 신앙의 차이로부터 생긴것으로서 그것이 조국통일이라는 전민족적 위업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되여서는 안된다.

력사에는 한 나라, 한 민족사이에 제도와 신앙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서로 단결한 사실이 있다. 북과 남이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호상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기 위하여 힘쓴다면 능히 민족적 단결을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것은 또한 조국통일이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할수 있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범죄적인 《두개 조선》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두개 조선》조작을 위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실력》을 《배양》하여 우리를 힘으로 압도해야 한다고 떠드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므로 민족분렬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을 상대로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북과 남사이의 민족내부투쟁이 아니라 외세와 민족자주적 력량과의 투쟁이며 애국세력과 매국세력간의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외세와 매국세력을 타승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에 비한 우리 민족내부의 애국세력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극소수의 분렬주의자들을 제외한 북과 남의 애국세력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오직 통일을 념원하는 북과 남의 애국세력이 힘을 합쳐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함으로써만 성취할수 있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것은 현시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대결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은 《반공국시》를 내걸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좌경용공》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사소한 평화통일론의마저 총칼로 억누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반공의 구실밑에 동족인 우리를 공공연히 《적》으로 선포하고 《사생결단》으로 《격멸》하겠다고 광기를 부리면서 민족대결을 고취하며 북침전쟁소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리고 놈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저들의 반공모략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온갖 파렴치한 책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계속 떠들면서 도처에서 반공관제행사들을 끊임없이 벌리는 한편 저들의 《통치》에 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각종 반공모략을 조작하여 우리에 대한 극히 비렬하고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벌리면서 남조선인민들속에 공화국북반

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악랄하게 고취하고 반공대결의식을 불어넣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하고있는 이와 같은 반공대결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도모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은 놈들의 민족분렬책동에 민족적 화해와 민족의 대단결로 맞서야 하며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단결은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굳게 단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은 민족대단결을 실현함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도 충분히 있다.

물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민족적 단결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장애로 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민주주의력량이 단결하지 못할 결정적 조건으로는 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한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40여년간에 형성된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된 민족적 공통성은 그보다 훨씬 더 뿌리깊다.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근본문제이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이 땅에 생을 두고 사는 조선사람치고 극소수의 분렬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나라와 민족이 통일될것을 한결같이 념원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고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도 아니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문제도 아니며 북과 남이 다같이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그렇기때문에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고있고 사상과 리념을 달리하고있다 하더라도 조국통일문제에서는 모순이 있을수 없다.

지금 사회제도가 다를뿐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서로 다른 사람들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결하고 협력하고있는데 하물며 조국통일이란 민족최대의 공동목적을 앞에 놓고 같은 민족인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민주주의력량이 단결하고 힘을 합치지 못할 리유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의 본질과 분렬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줄기찬 투쟁을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련방국가창설방안이 실현되면 북과 남이 자기의 현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대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이것은 련방국가창설방안이야말로 진심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을 가지고있고 어떤 계층과 당파에 소속되여있건 관계없이 누구나 아무런 부대조건도 없이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민족통일방안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이처럼 련방국가창설방안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도 온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굳게 단결하고 힘을 합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진보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반공국시》를 반대하고 련공통일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북과 남이 민족적 리념밑에 굳게 단결할수 있다는것을 현실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단결하고 힘을 합친 훌륭한 경험이 있다.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앞에 위험이 닥쳐올 때마다 빈부귀천을 가림이 없이 힘을 합쳐 투쟁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온 민족성과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로동자, 농민, 중소상공업가, 종교인들 지어 민족주의자들의 독립군부대들과도 굳게 손잡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렸다.

특히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분렬의 위험이 짙어가던 해방직후 뜻있는 민주인사들은 말할것도 없고 지난날의 반공민족주의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구국통일의 기치따라 공산주의자들과의 련공합작의 길에 나섰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렸던 력사적인 북과 남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는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북과 남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의 경험은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또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해도 굳게 단결할수 있으며 반드시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해주고있다.

북과 남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반공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련공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

원래 반공은 절대다수 인민대중에 대한 가혹한 파쑈독재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통치를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무기이다.

과거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유지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공을 써먹었고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반공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군사화와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획책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그것을 온갖 반인민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만능의 방패로 써먹었다.

현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악랄한 반공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수 없는것은 물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최근 남조선 정계와 사회계에서 《반공국시》를 배격하고 《통일국시》를 주장해나서고있는것은 정당하며 그것은 애국적 소행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내돌리는 《남침위협》설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미제와 함께 남조선의 력대 독재자들은 때마다 리진강이 일어불으면 북이

얼음을 타고 쳐나온다고 하였고 수풀이 무성해지면 인민군대가 록음을 리용하여 《남침》하려 한다는 남조선전을 벌리는 한편 온갖 《사건》을 조작하여 《남침위협》을 떠들었다.

남조선괴뢰들은 우리가 당면하여 현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다국적 군축협상방안을 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일방적으로 10만의 병력을 축감한 오늘에 와서까지도 《남침긴박성》을 계속 내돌리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내돌리는 《남침위협》설은 저들의 북침책동을 가리우며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유지연장하기 위한 기만설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상 조선반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것은 《남침위협》이 아니라 북침위협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와 민족이 분렬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으며 그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고 사회주의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엄숙히 천명하지 않았으며 남조선에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절대로 거기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히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이러한 립장을 그 무슨 《위장평화공세》라고 하면서 우리를 걸고드는 한편 침략과 전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현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게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려는것이 아니라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추구하면서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옳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인간들이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20여성상을 풍찬로숙하면서 비발치는 적의 총탄을 무릅쓰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무장투쟁을 벌린 참다운 애국자들이 바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라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감히 부인할수 없는것이다.

조국이 광복된 다음에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지난날의 공로를 생각한것이 아니라 자신을 민족의 아들로, 인민의 충복, 심부름군으로 여기고 오직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나가는 진정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에 올려놓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되여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완고한 민족주의자이며 반공을 신념으로 자처하던 김구가 단 며칠사이에 온 민족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여하를 불문에 붙이고 한품에 안아들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넓고 깊은 도량과 인품에 매혹되여 련공의 길에 돌아와 남은 여생을 서슴없이 그이께 의탁하게 되였던 사실은 지금도 만사람에게 심각한 교훈을 가르쳐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자들이 퍼뜨리는 반공, 반북 선전에 속지 말고 놈들의 반공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하며 련공의 길에 나서야 한다.

북과 남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난 40여년간의 민족분렬의 력사는 파쑈통치가 있는 조건에서는 민족의 단합도 나라의 평화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파쑈통치는 반공의 구호밑에 민족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 민족대결체제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로태우역도의 집권을 강력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로태우역도의 《대통령선거당선》은 순전히 강권과 금권, 사기협잡으로 날조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재야민주세력이 로태우역도의 《대통령선거당선》을 무효로 선포하고 전국민적인 부정선거반대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은 응당한것이다.

만일 로태우파쑈정권을 허용하면 남조선인민들은 무서운 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게 될것이며 북남관계도 더욱 악화되고 조선반도에는 전쟁, 핵전쟁위험이 한층 더 짙어지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6월인민항쟁에서 단합된 힘으로 파쑈독재자들을 굴복시켰던것처럼 다시한번 강력한 반미, 반독재 투쟁을 벌려 로태우역도의 집권을 결정적으로 저지파탄시키고 진정한 민주정권을 세워야 할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한것은 로태우역도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민주세력이 단합하지 못하고 야당이 단일후보를 내세우지 못했기때문이다.

남조선의 민주세력은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민주세력내부의 단합을 이룩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만 간악한 파쑈세력을 타도하고 민주화를 실현할수 있다.

북과 남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북과 남사이에 광범한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북과 남의 장벽이 가로놓이고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래왕도 못하고 접촉도 하지 못하면 언제가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수 없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파쑈도당은 통일문제는 당국의 주도하에 해결되여야 하며 개별적인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은 당국의 《통일정책》에 묵묵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전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를 배제하고 소수 특권층이 독점하려는 독선적인 사고방식이며 배타주의적인 행위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에 래왕의 문을 열고 자유롭게 대화와 접촉을 실현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장벽이 깨여지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쌍무적, 다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대화도 나누어야 호상 리해를 깊이 할수 있고 신뢰를 도모할수 있으며 민족적으로 화해하고 단결할수 있다.

당면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가 지체없이 소집되여 올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정계에서 통일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민중통일론》이 대두하고있는것은 응당하고도 정당한것이다.

북과 남의 전체 애국세력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적 리념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대결정책과 분렬정책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그날을 기어이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

강 석 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대외정책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전로정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와 아세아,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일관되여있다.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활동에는 우리 국가 사회제도의 평화애호적인 성격과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 그대로 체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입니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며 인류공동의 념원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97페지)

우리 공화국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며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다.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은 철저히 평화애호적인 립장과 원칙으로 관통되여있다. 공화국의 평화애호적 성격은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본질과 그 지도사상, 력사적 사명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공화국은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평화를 요구하며 평화애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인민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나갈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사회에는 집단주의적 원칙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 진정한 동지적 관계가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계급적 대립이란 없으며 사람들호상간에 반목하고 질시하며 적대감과 증오심을 고취하는 그 어떠한 요소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경제적 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결합되여있으며 그들사이에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작용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다른 나라와 인민을 침략하고 략탈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그 어떤 계급이나 세력도 없어진것만큼 대외관계에서도 우리 인민은 다른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고 협조하며 친선과 화목을 도모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가 그 본질에 있어서 평화애호적이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는 전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며 침략과 전쟁을 견결히 반대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활동을 진행하고있다. 공화국정부와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적극적인 활동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적 존재인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종시킬것을 요구한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그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침략과 전쟁이 없는 새 세계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인류의 세기적인 숙망을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 열리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그 혁명적 본성으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침략전쟁을 근본적으로 배격한다. 평화를 옹호하고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주체사상자체의 필수적 요구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할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밝혀준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친선과 협조, 평화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평화는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기초우에서만 유지되고 공고화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가장 야만적인 형태는 침략전쟁이며 그 주되는 세력은 제국주의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튼튼히 지킬뿐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의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자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것을 반대할뿐아니라 남의 자주성을 짓밟고 억누르는것도 반대하여야 평화를 옹호하는 참다운 립장에 섰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삼고있기때문에 언제나 평화애호적인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며 조선반도에서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도 적극 투쟁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력사적 사명으로부터도 평화를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 임무이며 공화국정부의 력사적 사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힘있게 밀고나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이 어렵고 거창한 사업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요구한다.

전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지연시키고 중단시키는 근본요인이며 평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 전제이다. 따라서 평화로운 환경이 보장되여야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나라의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공화국정부는 바로 자기가 수행하여

야 할 이러한 력사적 사명으로 하여 평화를 요구하고있으며 평화적 환경의 보장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공화국이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며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로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시종일관하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확고부동하게 실시하고있다.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은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평화애호적 본질의 발현이며 우리의 평화애호적 대내정책의 대외적 연장이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대외관계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리념은 자주, 친선, 평화이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자주적이고 친선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반영하고있으며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 있는 공화국정부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이 기본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류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6페지)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는 안팎으로 겪고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는 경제를 군사화하고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핵무기를 휘두르면서 이르는곳마다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과 핵무기증강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구우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으며 인류는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며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들과 발기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군비철페의 실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군사뿔럭을 비롯한 모든 군사뿔럭의 해체,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 군사기지들의 철페 및 외국군대의 철거를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고 핵무기들을 축감하며 나아가서 모든 핵무기들을 완전히 페기할데 대한 문제,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나갈데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내놓고있는 긍정적인 평화제안들과 발기들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세계적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그것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힘쓰고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이렇게 하나 새 전쟁을 막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표시이며 평화애호적인 립장의 발현인것이다.

공화국정부의 평화애호적인 립장은 특히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고있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오늘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긴장상태가 가장 첨예한 지역으로,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1,000여개의 각종 형태의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끌어들이였으며 새로운 핵무기들을 계속 배치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각종 핵무기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소동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핵전초기지로, 핵전쟁발원지로 전변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최근 《올림픽의 안전개최》라는 미명밑에 미국 태평양함대의 무력을 남조선연안해역에 배치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더욱 큰 규모에서 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전쟁도발책동뿐아니라 그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조선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조선의 평화는 세계평화의 한 부분이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아세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여있다.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도 무서운 핵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 자기의 창조적 로동으로 조국땅우에 일떠세운 귀중한 재부가 파괴되고 재더미로 되는것을 원치 않으며 나아가서 인류가 핵전쟁의 참화속에 말려드는것도 바라지 않는다.

조선에서의 사태발전은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개척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취할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와 미국, 남조선사이의 3자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 북남국회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제안, 군사당국자회담제안,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제안 등 일련의 평화제안들을 련이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였다. 그리고 주동적으로 15만명의 조선인민군 군인들을 평화적인 사회주의대건설에 동원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또한 북남사이에 날로 격화되고있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대화와 완화, 평화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거듭 양보와 아량을 표시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다.

공화국정부는 이와 함께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으

며 미국이 남조선에 새로운 핵무기를 끌어들이지 말며 이미 끌어들인 모든 무기들은 축감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드는것이 이 지역에서의 저들의 리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줴치면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제안을 거부해나서고있다. 공정한 립장에서 말한다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와 대치하여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곳을 핵기지로 만들 아무런 명분도 없다. 미국의 핵무기들이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겨냥하고 있는것이라면 그들은 쏘련과 핵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한 오늘에 와서 마땅히 남조선에서도 핵무기를 철거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제안대로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가 창설된다면 그것은 이 지역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를 조성해준것이며 아세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도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공화국정부는 지난해 7월 또다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서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무력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국정부가 천명한 군축제안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는 정당한 제안이다.

공화국정부는 이 제안을 내놓은후 조선반도에서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다국적 군축협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무장관도 함께 참가하는 북남외교부장회담을 개최할것을 발기하고 이를 위하여 부부장급 예비회담을 가질것을 제기하였으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와 미국, 우리와 남조선사이의 두갈래의 쌍무적 예비회담을 하는것도 무방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우리의 협상제안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설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공화국정부의 군축제안과 주동적인 무력축감조치 그리고 군축협상제의들은 어떻게 하나 군축을 실현하여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일관한 평화애호적 립장과 노력의 뚜렷한 표시이다.

그렇기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은 공화국정부의 평화제안들과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열렬히 지지찬영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다국적 군축협상을 진행하는데 지체없이 응해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평화제안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대신 도리여 그 무슨 《위장평화공세》니 뭐니 하면서 침략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며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것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현시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1988년을 조선반도의 정세를 결정적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하여 올해안으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다국적 군축회담을 마련하는 문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문제,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시급히 협의해결하기 위한 북남련석회의를 소집

할데 대하여 제의하였다.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가 마련되면 북과 남의 격폐상태를 마스고 온 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모든 사실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진실로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절절히 바라며 조선에서와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으며 반면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긴장격화의 장본인,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오늘 인류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하고 수호할수 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반제, 반전,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군비확장과 무력증강 책동을 저지시키고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며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 군사기지를 철폐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철수시키며 침략적 군사쁠럭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평화애호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단결은 평화애호력량의 힘의 원천이며 평화애호력량의 단합된 힘은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평화애호력량이 굳게 단결하면 무적의 강자로 될수 있으며 평화애호력량이 단합된 힘으로 투쟁하면 능히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평화애호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하며 침략의 마수가 뻗쳐있는 모든곳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집단적인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자주화된 세계는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침략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근로자 1988년 제2호(루계 550호)

편집위원회

낸곳• 근로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8년 2월 1일　발행• 1988년 2월 3일

ㄱ—8512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3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제 3 호(55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1988년은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매우 뜻깊은 해이다.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의 두번째해전투에 들어선 우리 인민은 올해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경사이다.

최근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채택하고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발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 일관되여 있는 정신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나게 맞이하려는데 있다.

당의 새로운 전투적 호소에 접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크나큰 감격과 열정에 넘쳐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88년은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3~4페지)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40년의 력사는 가장 흉악하고 간교한 내외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민족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을 영예롭게 지켜낸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며 가장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뒤떨어진것으로부터 선진적인것에로 끊임없이 비약해온 위대한 창조와 혁신의 력사이다. 그것은 또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단결의 힘에 의하여 백전백승하여온 자랑찬 승리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지난 40년동안 승리와 영광, 창조와 번영으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국가주권의 주인이 되여 자기의 운명을 자체로 개척해나가는것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완전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모두가 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에서 주권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밝히시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주체의 혁명정권 건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면서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공화국정권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조국강토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 국방력을 가진 강유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나라와 주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실로 지난 40년동안 우리 나라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멀리 전진하여왔다.

올해 9월에 맞이하게 되는 공화국창건 40돐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주체의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빛내여나가는 명절입으로 하여 우리 인민모두에게 가장 뜻깊은 대경사로 되며 승리자의 자랑스러운 대축전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고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공화국이 나아갈 곧바른 길을 뚜렷이 밝히시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공화국정권의 기능과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 우리 인민은 해방후의 어려운 새 조국 건설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간고한 전후복구건설과 복잡한 사회주의혁명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수 있었다.

우리 공화국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이 가져다준 자랑찬 열매이다. 3대혁명의 불길속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사회제도는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이 실현되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강화하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온 자랑찬 투쟁로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뜻을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여 우리 공화국정권의 최종목적을 밝혀주시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를 뚜렷이 명시하여주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정권기관들의 활동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구

현하며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서 성과적으로 관철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지난 40년간 우리 공화국이 세기적인 변혁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이며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확고히 담보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하기에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우리 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 영광스러운 당의 품이라고 긍지높이 말하고있으며 오늘은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고 주체조선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도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치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최종목표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투쟁과업이다. 이 과업을 수행하려면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며 경제건설분야에서 당면하게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차 7개년계획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이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은 바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켜 올해의 경제과업을 앞당겨 수행해나감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할것이며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 앞에 더욱 양양한 전도를 펼쳐놓을것이다.

이 투쟁은 또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적극 고무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고 자주의 새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고무하는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 전진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왔으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우리가 이번에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벌려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게 되면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온 누리에 떨치게 되고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은 더욱 빛나게 된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러한 승리와 성과들은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아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무거운 철추를 내리는것으로 되고 자주의 새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는 주체사상의 불패의 진리성과 정당성, 거대한 생활력을 산 현실로 뚜렷이 보여주어 그들의 투쟁에 큰 고무로 될것이다.

이렇듯 공화국창건 40돐을 기념하는 올해 9월의 대축전은 우리 조국의 력사와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일대 경사로 되며 자주시대의 밝은 미래를 확증하여주는 뜻깊은 명절로 된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의도이고 결심이며 우리 인민의 일치한 지향이다. 당중앙위원회는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공화국창건 기념일까지 200일전투를 진행할것을 호소하였으며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한 구호를 발표하였다.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지만 혁명의 앞길은 의연히 험난하다. 미제는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사회주의동방초소에서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력사는 반혁명세력의 공세가 우심해질 때마다 혁명에 대한 신념이 약하고 비겁한자들은 혁명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투항하는 길로 나가지만 참다운 혁명가들은 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적들의 공세를 맞받아나가며 혁명을 보다 큰 앙양에로 이끌어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안팎의 정세와 혁명임무를 깊이 명심하고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한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온 나라가 앙양된 정치적 분위기로 들끓게 하여 우리 혁명대오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모든 당원들이 당중앙의 지휘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단행본, 37페지)

공화국창건 40돐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한 일심단결을 과시할 대정치축전이다.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그 일심단결에 있다. 일심단결을 실현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대오는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니고있으며 바로 이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힘있게 시위할 때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9월의 명절은 가장 의의있는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된다.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순결한 통일단결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전체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으로 다져진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이다. 이 위대한 일심단결을 공고발전시키려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를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혁명적 수령관을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해나가야 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며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온 사회를 앙양된 정치적 분위기로 들끓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대중정치사업을 심화시키는데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에 대한 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충직하게 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공화국을 오늘과 같이 부강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사상적 기초이며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사상사업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당조직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주체사상교양의 원전들에 대한 학습을 계속 심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의 원리를 깊이 체득하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신념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고 어떤 환경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며 자기 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현시기 중요하게 나서고있는 문제의 하나는 당풍을 바로세우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세워주신 혁명적인 당사업기풍과 당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당앞에 나선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일군들은 혁명적 군중로선의 요구대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하며 온 사회에 우리 당만을 믿고 혁명적 열정에 넘쳐 일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온 사회가 앙양된 정치적 분위기로 들끓게 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일대 경사로 뜻깊게 장식할수 있는것이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우리 공화국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켜야 당의 의도에 맞게 올해에 제3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의

거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과 주체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는 공화국창건 기념일까지의 200일전투기간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투과업들이 뚜렷이 제시되여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맡겨준 전투과업을 단순한 지시나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200일전투에서 주공전선은 기본건설이다. 우리는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발전소건설, 탄광건설, 금속공업기지건설, 대화학공업기지건설, 경금속기지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건설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한다. 특히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 9.9절까지 비날론 10만톤 생산능력의 공장건설을 완공하여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의 가장 훌륭한 선물을 드려야 한다.

평양시 건설자들은 광복거리와 중요대상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함으로써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우리 인민의 념원과 주체조선을 동경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기대에 맞게 더욱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도시로 전변시켜야 한다.

올해에 우리는 주공전선에 힘을 넣으면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국가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력과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농업은 의연히 우리가 큰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전선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빨리 완성해나가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수산업과 수송, 무역과 대외경제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공화국창건 40돐에 더 큰 로력적 선물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제건설과 함께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과학교육부문에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인민의 정서생활을 풍부히 하고 근로자들의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고무하는데 적극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군장병들은 전군혁명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전투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며 원쑤들의 악랄한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조국의 방선을 경각성있게 지키면서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한 대건설투쟁에서 일당백의 힘과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것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며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대중의 열의를 더욱 높이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전투적인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건설의 과업은 참으로 방대하다.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투쟁이 긴장할수록 우리는 혁명성을 더욱 높여 혁명적으로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밑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달려온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보람찬 대건설행군에 용약 떨쳐나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발휘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스스로 조건을 만들면서 맡겨진 과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하며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 특히 경제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쥔 일군들은 높은 책임감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전투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며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대중의 높은 열의를 현대적 과학기술의 성과와 결합시키는 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가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키면서 기세높이 경제사업에서 성과를 부쩍 올릴 때 공화국창건 40돐은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더욱 빛나게 된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우리 조국은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을 겪고있다. 조국통일은 유구한 세월을 두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우리는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마련하여 북과 남의 격폐상태를 마스고 온 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사회주의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튼튼히 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여왔다. 우리는 올해에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적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나아가는 앞길에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새로운 투지와 굳은 신심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영웅적 인민의 힘이 있기에 우리에게 못해낼 일이란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빛내이자.

주체사상은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리 수 근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리론, 지도방법과 관련되는것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주성을 실현하여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정확히 령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옳바른 지도사상과 함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리론과 지도방법을 가져야 한다.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져야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에게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줄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승리의 곧바른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명하고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지도리론과 지도방법 문제에 완성된 과학적 해답이 주어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줄뿐아니라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르쳐줍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8페지)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에 대한 령도와 대중에 대한 지도에서 지침으로 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당의 지도사상을 이루는 세계관에 기초하여 밝혀진다. 그러므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이 옳은것으로 되자면 그 기초에 놓이는 사상, 세계관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철학적 세계관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그것이 인간의 자주성을 얼마나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옳바로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세워진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이라야 완성된것으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이 가장 완성된것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세계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 역할을 밝혀줌으로써 인간의 운명 개척의 참된 길을 명시하여주는 사람중심의 원리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는 주체사상의 출발적 기초를 이루는 근본원리이며 주체사상의 모든 구성부분들에 일관되여있는 세계관적 원리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의 리론적 내용들과 방법론적 원칙들은 다 이 원리를 세계관적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를 혁명운동에 구현하여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힌데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은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준것으로서 주체사상에 의하여 새롭게 천명된 혁명의 근본원리이다. 주체사상이 독창적으로 밝힌 혁명운동의 이 근본원리는 혁명리론을 전개하며 전략전술을 작성하는데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지침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준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리론의 주되는 특징이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 창조적 능력과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의 일반원리와 매단계에서 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는 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이다. 자주성을 떠나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을 벌리는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을 벌리는 근본목적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함으로써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데 있다. 자연과 사회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벌리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바로 혁명이다.

혁명의 본질과 함께 혁명운동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문제는 혁명리론이 해명하여야 할 중요한 원리적 문제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의 근원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유린되거나 구속되는데서 찾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짓밟히는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유린된다고 하여 곧 혁명이 일어나는것은 아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대중의 높은 자주의식과 정치적 준비는 혁명이 일어나는 직접적 원인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 전진하고 승리하게 되는 객관적 조건에 관한 문제도 새롭게 밝혀준다. 혁명이 일어나 승리하자면 객관적 조건이 일정하게 조성되여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은 저절로 조성되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서만 옳게 마련되고 리용될수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이처럼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의 본질과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히 밝혀준다.

로동계급과 그 당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옳은 혁명리론과 함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을 가져야 한다.

혁명리론이 혁명의 합법칙성을 체계

화한 원리이라면 전략전술은 그 원리를 혁명운동에 직접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밝힌 방법론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옳은 전략전술을 가지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완성된 전략전술을 밝혀준다.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이란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조직동원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세워진 혁명투쟁의 방침이다.

주체의 전략전술은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인것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반혁명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혁명대오를 편성하게 하며 대중의 준비정도와 실정에 맞는 투쟁 형태와 방법을 제시하여 인민대중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주체의 전략전술은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인 주체적 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기때문에 가장 완성된 전략전술로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운동의 원리와 일반적인 투쟁방침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우리 시대에 와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세계적 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시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수많은 리론실천적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였다.

주체사상은 해당 시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창조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집대성하였다.

주체사상은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속되는 혁명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독창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근원으로 된다. 때문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전략적 목표인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합법칙적 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사회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더 잘 실현될수 있도록 사회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는 과정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할수 있으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쳐야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을 높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게 사회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은 사회생활을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사회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 공산주의라는 유명한 창조적 명제를 천명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민정권을 강화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을 사회주의, 공

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심오히 해명하였다.

이처럼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길을 완벽하게 밝혀주는 여기에 주체사상이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령도리론과 령도방법 문제에도 가장 완성된 해답을 준다.

령도리론과 령도방법 문제는 혁명의 전략전술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면서도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령도리론, 령도방법 문제와 전략전술문제는 다같이 혁명투쟁에 대한 령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혁명의 전략전술문제가 주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적 방향과 근본방도, 행동방침을 규정하는 문제라면 령도리론과 령도방법 문제는 전략전술적 방침을 실현하는데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문제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자면 과학적인 전략전술적 원칙이 밝혀질뿐아니라 광범한 대중에 대한 령도문제가 옳바로 해결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아무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을 세웠다 하더라도 대중령도에 관한 리론과 방법을 옳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령도리론과 령도방법 문제는 혁명의 전략전술문제와 함께 혁명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으며 그것을 대중령도분야에 적용하여 혁명적 군중로선을 밝혀준다.

혁명적 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바로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완성된 과학적 해명을 준다.

령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령도리론을 전개하며 령도방법을 확립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원리적 문제이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령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될 때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을 이룬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

하는 중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창조적 활동에 대한 수령의 통일적인 령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서 인민대중에 대한 수령의 통일적 령도를 보장한다.

대중령도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주체적 리해는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것으로서 주체의 령도리론전개의 출발점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령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의 령도리론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원리적 문제들을 체계화하여 전면적으로 해명하고있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질서와 제도로서 그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 령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에 비추어볼 때 당사업체계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사업체계의 이러한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이다. 당안에 당과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가 튼튼히 세워져야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실현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다.

대중령도에서는 령도체계와 함께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세워 옳은 령도예술을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

령도예술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을 잡기 위한 투쟁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주체사상이 밝힌 령도방법은 혁명적 군중로선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을 잡기전이나 잡은 다음이나 할것없이 대중과의 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법과 작풍에 완성된 과학적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령도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 사업방법이다.

주체의 사업방법은 혁명적 군중로선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를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갈수 있게 한다. 이것으로 하여 주체의 사업방법은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당사업작풍을 옳바로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작풍은 당의 사업기풍이며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도덕적 풍모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당사업작풍은 군중로선을 구현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이다. 여기에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군들과 당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사업기풍과 정치도덕적 풍모들이 다 밝혀져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적 기풍과 인민적 품성을 지녀야 로동계급의 당은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인민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될수 있다.

이처럼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령도의 본질과 령도체계, 당사업방

법과 당사업작풍 등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를 세계관적 기초로 하고 혁명적 수령관과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당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완성된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으로 된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굽임없이 전진시켜왔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우리 당의 올바른 로선과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련이어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빛나게 실현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자주적인 정권과 자립적 민족경제, 자위적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이 제시한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3대혁명수행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었다.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사회생활의 기본령역인 사람들의 사상생활, 로동생활, 문화생활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청산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상과 기술, 문화가 창조되고있다. 그리하여 계급적인 착취와 민족적인 예속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들은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까지 벗어나 자주성을 보다 원만히 실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의 령도리론의 요구대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창조하고 그것을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다.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이 구현됨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되여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철저히 보장되게 되였다.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에 의하여 또한 우리 당안에는 관료주의적 사업방법과 행정식 사업방법이 극복되고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상하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의 사업기풍과 일군들의 정신도덕적 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당의 면모가 더욱 새로와졌다. 모든 사람들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일하게 되였으며 당과 대중의 련계가 비할바없이 공고해지고 당의 위력은 불패의것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혁명과 건설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결한 혁명정신

서 윤 석

지금 온 나라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올해 신년사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 장엄한 진군속에서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나라의 면모는 더욱더 새로와지고있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투쟁기풍이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우리 인민이 언제나 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굳게 확신하고 락관에 넘쳐 억세게 투쟁하여온 자랑찬 행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 *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혁명하는 인민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결한 풍모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모두가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싸운다면 어떠한 곤난도 이겨낼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해낼수 있습니다. 동무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6권, 230페지)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진다는것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락천적으로 대하는 관점을 지닌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언제나 비관과 실망,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생기발랄하게 살며 용기백배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는것은 인간생활에서나 혁명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이 일생을 값있게 살자고 해도 승리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하며 혁명가들이 만난을 뚫고 자기의 목적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도 언제나 필승의 신심을 잃지 말고 락관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전진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지니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존엄과 영예를 끝까지 고수할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한몸바쳐싸울것을 굳게 결심하고 스스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다.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지향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숭고한 일은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

리의 필연성을 굳게 확신하고 용기백배하여 전진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가져야만 자신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해쳐나갈수 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 위업이다.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제도,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계속된다. 주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이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종국적으로 승리한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에서 자기 세대에는 비록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가 이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반드시 완성하게 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져야 변함없이 혁명의 한길을 따라 락천적으로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못가지면 기껏해야 공산주의동정자로밖에 될수 없으며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동요할수 있고 지어는 혁명을 포기하고 마는 길로 굴러떨어질수도 있다. 앞날의 승리를 확신하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공산주의혁명가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며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올해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또다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을 창조하고 주체조선의 혁명적 기상을 떨쳐야 할것입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중심적인 과업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매우 방대하고 거창한것이며 그것은 우리 조국의 륭성번영과 우리 인민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약속해주는 휘황한 설계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다그쳐나갈 때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귀중한 재부들이 보다 훌륭히 마련되게 될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의 밝은 앞날에 대한 끝없는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우리모두를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그것을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결속된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있으며 그 어떤 대규모의 건설도 능히 감당할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가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정신과 기풍을 가지고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굳게 믿고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 열정을 발휘할 때 올해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빛나게 수행될것이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미래를 굳게 확신하고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인민의 혁명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투쟁경험은 무엇보다도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전진할 때 언제나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인 동시에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이 투쟁과정에는 수많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며 엄혹한 시련의 고비도 있게 된다. 혁명의 승리는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필승의 신심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이다. 전진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난관과 시련이 아무리 엄혹한것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승리에 대한 신심이 확고한 사람들은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국가적 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력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간고한 혁명전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는 형언할수 없는 곤난과 엄혹한 시련도 있었으며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사들은 추호도 승리의 신심을 잃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생활은 언제나 락천적이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이끌고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녔기에 원쑤들의 겹겹한 포위속에서도 철창속에서도 결코 비관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고 혁명의 지조를 꿋꿋이 지키면서 끝까지 싸웠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기어이 성취할수 있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도 전후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재더미우에서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것도 우리 인민이 혁명의 밝은 앞날을 확신하고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한데 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굳게 믿고 락관에 넘쳐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정신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 진군속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80년대속도》가 창조되여 서해갑문과 같은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건설물이 몇해사이에 솟아났고 송원언제와 같은 거창한 창조물들이 단숨에 일떠섰으며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광복거리 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련이어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이것은 광명한 미래를 확신하고 전진하는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힘있게 과시해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은 혁명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고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인민은 그 어떤 어려운 난관과 준엄한 시련도 용감히 이겨내고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나간다는 귀중한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투쟁경험은 또한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전진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길에는 순탄한 때도 있고 어려운 시련의 시기도 있다. 혁명가들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계급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굴함없이 싸워나가게 되는것은 필승의 신심을

간직한데 있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이 부족하고 비겁한자들은 계급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적들에게 투항하는 길로 나가지만 승리에 대한 신심이 확고한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반제적 립장을 철저히 견지하고 혁명을 보다 큰 앙양에로 이끌어나간다.

오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력과 위협에도 절대로 굽어들지 않으며 만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또다시 덤벼든다면 단매에 쳐부실 굳센 각오에 넘쳐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미제가 제아무리 핵무기를 휘두르며 전쟁준비에 미쳐날뛰여도 결코 무적의 존재가 아니며 놈들과 싸우면 자체의 힘으로 능히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간직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확신하기때문에 오늘과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 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가고있는것이다.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자들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을 절대로 놀래울수 없으며 건드릴수도 없다.

현실은 광명한 앞날과 혁명의 승리를 굳게 믿고 전진하는 인민들은 또한 언제나 생기발랄하게 살며 용기백배하여 싸워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의 생활기풍, 투쟁기풍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관점, 혁명에 대한 립장의 발현으로 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가 원대한 사람만이 혁명적 락[illegible] 열정을 가질수 있고 생활을 락천[illegible]로 해나갈수 있다.

[illegible]명승리에 [illegible]고한 신심을 가진 [illegible]들은 [illegible]적인 부르죠아생[illegible]격하고 생활을 어[illegible]천적으로 해나간다. 혁명의 전도,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든 개인의 리익과 안락만을 앞세우면서 자기만 잘먹고 잘살자는 태도는 혁명하는 사람의 립장이 아니며 이러한데서 오는 만족은 결코 혁명적 락관이라고 말할수 없다. 혁명가의 참다운 락관은 조국과 민족의 번영속에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혁명적으로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고있으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끝없는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고있다. 우리 인민의 이 고결한 풍모는 실로 주체조선의 기개를 과시하고 조국의 앞길에 휘황한 전도를 펼쳐주고있는것이다.

백두밀림에서 우리 혁명이 개척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 이 기간에 우리 조국은 근본적으로 전변되고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의연히 혁명의 길우에 있다. 혁명투쟁이 장기화되고 어려운 혁명과업이 제기될수록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전진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갈 때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은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길에서 간직되게 되는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확고부동한것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간직하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투쟁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이 한

걸음도 전진할수 없고 승리해나갈수 없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리론,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언제나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싸워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미래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혁명하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심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그때로부터 이루어지고 굽임없이 다져져왔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속에서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의 혁명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굳은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전진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체득하여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고 혁명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볼수 있으며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5폐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전진할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 기초이며 원천이다.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를 빛나게 구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투쟁할수 없고 전진할수도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도 없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지닐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관한 리론과 혁명위업계승완성에 관한 리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그리고 오늘의 대건설행군방침을 비롯한 모든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들은 어느것이나 다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가장 정확한 지침이다. 이것은 나라의 끝없는 륭성번영과 우리 인민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요구

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여기서 특히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이 일단 결심하고 정책적 과업으로 제시한것은 벌써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정신과 기풍을 가져야 한다.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전진하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백두밀림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숭고한 혁명정신과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우리 인민이 높이 발휘한 투쟁 정신과 기풍을 계속 살려나가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앞날의 승리를 확신하고 진진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강도 일제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였다. 그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간직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이 고귀한 혁명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전후에 우리 인민은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있었다. 그때에는 성한 벽돌 한장 없었고 자재도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인민생활도 매우 어려웠다. 남조선괴뢰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북진나발을 불어대고 당내 종파분자들은 외부의 불건전한자들과 결탁하여 우리 당을 정면으로 공격해나섰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재더미우에서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가지고 일떠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대고조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오늘 항일혁명투쟁시기와는 더 말할것도 없고 전후시기와도 대비도 할수 없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대전설행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강력한 혁명의 주체가 마련되여있고 튼튼한 경제적 밑천이 있는 조건에서 지난날 우리 인민이 발휘한 그런 혁명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기본건설과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학공업기지건설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상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방대한 과업도 능히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시기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숭고한 투쟁 정신과 기풍을 계속 살려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발전법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하고 전진하는 투쟁 정신과 기풍이 지배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을 일정한 체험과 경험적 인식에 기초하여서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신심이 체험과 경험적 인식에 머무를 때에는 충분한 공고성을 가질수 없다. 그것은 원리적인 인식과 결합될 때에만 참으로 공고하고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는 사회발전법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인식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사회발전의 법칙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대전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줄기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일군들의 조직적 수완

조 세 웅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우리 인민은 오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을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견인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우리 인민앞에는 특히 당이 펼쳐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야 할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류례없이 높은 목표이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 장성시켜 우리 나라를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특히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키고 공화국창건 기념일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당, 전민을 총진군에로 부르는 편지와 구호를 발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관철하는 투쟁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를 새로운 위훈으로 수놓기 위한 보람찬 진군이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서 제시된 방대한 과업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이 방대한 과업을 당의 의도대로 빛나게 완수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조국의 분렬과 항시적인 새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남다른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방대한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난관과 시련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하는 인민, 투쟁하는 인민, 전진하는 인민답게 커다란 포부와 드높은 신심, 혁명적 열정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당이 펼쳐준 휘황한 설계도를 빛나게 실현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조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더욱 떨치여야 한다.

심화발전하는 사회주의건설과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휘능력과 조직적 수완을 소유하고 대건설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인민들의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그 어떤 어려운 혁명임무도 책임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해나가는 능력있는 지휘관으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의 능력이란 곧 그들의 사업조직력을 말합니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군사사업에서는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을 말하는것이며 당, 정권기관 사업과 경제사업에서는 일군들의 조직적 수완을 말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432페지)

조직적 수완이란 혁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조직전개하며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능력, 일솜씨를 말한다.

조직적 수완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치실무적 자질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적 자질, 실력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그리고 대중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능력 등을 포괄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과 높은 정치적 안목을 지니는것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높은 창조적 능력을 지닐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갈수 있다. 정치적 안목과 과학적인 지식은 창조적인 사색과 활동을 담보하는 힘으로 된다.

일군들은 이러한 정치실무적 자질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사업을 조직전개하며 대중을 능란하게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조직적 수완을 지녀야 한다. 높은 조직적 수완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며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일군들은 능숙한 조직적 수완을 지녀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 당정책의 철저한 선전자, 옹호자, 관철자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원만히 갖출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위업수행에서 굽임없는 위훈과 변혁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능숙한 지휘능력과 조직적 수완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징표이다. 충실성이 일군들의 풍모에서 기본핵으로, 생명으로 된다면 지휘능력과 조직적 수완은 충실성을 꽃피워나갈수 있게 하는 밑천으로 된다고 볼수 있다.

일군들이 능숙한 지휘능력과 조직적 수완을 소유하는것은 그들이 당과 수령에게 참답게 충실하며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옳게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능숙한 지휘능력, 조직적 수완을 가지고 일하여야 충실성을 빛내일수 있으며 당과 수령의 숭고한 의도를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주관적으로는 당과 수령의 믿음에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보답하려고 하여도 높은 자질과 조직적 수완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그것을 옳게 실현할수 없다. 오직 충실성과 함께 높은 자질, 능숙한 조직적 수완을 가지고 일할 때만이 당과 수령에게 참답게 충실할수 있는것이다.

또한 일군들은 높은 조직적 수완을 소유하여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최상의 수준에서 옳게 관철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지도하는 일군들의 활동에 의하여 보장된다. 지도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의 조직자이며 그 관철자이

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어떻게 충실히 보장하며 당의 결정과 지시, 방침을 얼마나 훌륭히 관철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얼마나 높은 자질과 조직적 수완을 소유하고있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의 조직적 수완은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데서 표현된다.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깊이 사색하고 사업을 참신하게 설계하며 일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것은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일본새이며 능숙한 조직적 수완을 지닌 일군들의 사업기풍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류례없이 복잡하고 거창한 사업이며 그것은 일군들이 높은 조직적 수완을 가지고 모든 일을 참신하게 설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것을 통이 크게 생각하고 설계도 작전도 담이 크게 하는 맛이 있어야 한다. 앞뒤를 재면서 일판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것은 혁명하는 시대 일군들의 일본새가 아니다. 이러한 일본새를 가지고서는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감당해낼수 없다.

인간개조사업이나 자연개조사업에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것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당과 국가 앞에는 더욱더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는것만큼 일군들은 언제나 사업을 참신하고 대담하게 설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혁명적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당이 제시하는 모든 정책과 방침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보수주의와 요령주의, 소극성에 사로잡혀 아무러한 작전적 구상도, 전개력도 없이 구태의연하게 앉아뭉개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기풍과는 인연이 없다.

경험은 일군들이 언제나 머리를 쓰고 모든 사업을 참신하고 대담하게 설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조직적 수완을 가지고 일할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높은 성과를 거두고 당과 수령의 숭고한 의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의 능숙한 조직적 수완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마력을 내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데서 표현된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초소에서 적극 움직이고 능력껏 일하도록 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사업의 원칙적 요구이며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포치한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세밀한 조직사업이 안받침되여야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책임성과 열성을 가지고 자기 몫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움직이게 할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일군들의 조직적 수완은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집행의 전과정을 세밀하게 짜고들고 능숙하게 밀고나가는데서 높이 발휘된다. 조직적 수완이 능란한 일군들은 사업을 포치할 때 머리를 써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묘술을 대주며 높은 요구성과 치밀성을 가지고 사업수행정형을 장악지도하는것을 활동의 철칙으로 삼는다. 이러한 일군들은 사람들에게 과업을 줄 때에는 명백히 주고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똑똑히 장악지도하며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활력을 가지고 마력을 내여 일하게 한다. 일군들은 아래사람들에게 과업을 줄 때에는 무엇을 어느때까지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알려주며 그것이 당의 의도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제때에 보장되도록 그 수행정형을 수시로 장악하고 지도와 방조를 똑바로 주어야 한다. 아래일군들에게 과업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똑바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은 일군들이 조직적 수완과 지휘능력을 키우며 당사업을 발전시키고 당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아래일군들에게 과업을 맡기기만 하고 똑똑히 장악하지도 않고 제때에 총화하지도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업을 포치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실속있는 수확을 거둘수 없으며 당의 령도적 권위와 규률도 옳게 세울수 없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그 전과정에서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일때만이 모든 사람들이 성능높은 기계가 세차게 돌아가듯이 창조적 열의를 가지고 활기있게 움직일수 있으며 수시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특히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관리운영하는것만큼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은 나라의 살림살이와 인민생활에 대하여 자신이 당앞에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실태에 맞는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은 그것이 사람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요령주의, 주인답지 못한 태도, 일을 발라맞추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현상 등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원칙적인 사상투쟁과 결합될 때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일군들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전진에 저애를 주는 부정적 요소들도 있을수 있다는것을 인식하고 그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제때에 집중적인 사상적 포화를 들이대여 극복해나가는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렇듯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요구성을 높이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며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견지하고 실천투쟁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사업기풍으로 된다.

일군들의 능숙한 조직적 수완은 또한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 담당자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옳게 조직동원하는데 혁명승리의 열쇠가 있다.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고있는 지도일군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은 일군들의 숭고한 임무이며 령도예술의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능숙한 지휘능력과 조직적 수완을 소유해야 하는것도 바로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과정,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으며 난관과 시련에 부딪칠수 있다. 전진도상에서 나서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대담하게 물리치고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어떻게 성과적으로 완수하는가 하는것은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지도일군들이 사업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휘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능력이 있고 조직적 수완이 있는 준비된 일군들은 아무리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도 만만한 자신심을 가지고 천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능숙한 일솜씨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일을 해제낀다. 이러한 일군들은 언제나 힘을 집중하여 사업의 중심고리, 요진통을 틀어잡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사업전반을 장악하고 섬멸전을 들이대므로써 방대한 경제건설의 전투장들에서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놓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변혁과 기적을 창조해나간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군들이 능숙한 조직적 수완을 가지고 일하는곳에서는 당이 제시하는 모든 문제들이 거침없이 훌륭히 풀려나간다.

이 모든것은 일군들이 능숙한 조직적 수완을 소유하는것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갖추며 심화발전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일군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들의 지휘능력과 조직적 수완을 결정적으로 높여 자기의 혁명적 본분과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고 지휘하는 능력있는 지휘관으로 훌륭히 자라났으며 당의 위업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능력과 수완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당정책을 최상의 수준에서 드팀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언제나 깊이 사색하고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모든 사업을 참신하고 대담하게 설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일솜씨가 높이 발양되고있다. 그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과 묘술을 세우기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며 조직사업을 하나 하여도 파녁이 명백하고 분공이 세밀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 열의를 가지고 활력있게 움직이도록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세련되고 능숙한 지휘능력을 가진 지도일군들은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는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일이 잘되는 단위의 경험은 옳게 살려 제때에 일반화하며 맥을 추지 못하고 뭉개는 단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채고 실속있게 도와주어 추켜세우는 등 모든 단위와 일군들이 사회주의대건설행군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가 높이 나래치고있으며 새로운 변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그리고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의 혁신적 성과들은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과 함께 대중의 앞장에서 그들을 능숙한 조직적 수완으로 믿음직하게 이끌어나가는 지도일군들의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일군들의 지휘능력, 조직적 수완에 대한 요구에는 한계가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할수록 일군들이 더욱더 능숙한 지도능력과 조직적 수완을 소유할것을 요구하는것은 합법칙적인것이다.

일군들이 분발하여야 전투대오가 큰 힘을 낼수 있다. 일군들은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관

철을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밀고나감으로써 진격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굽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창조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지도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이 굽임없이 전진하는데 맞게 자기의 자질과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일군들의 지도능력, 조직적 수완은 무엇보다도 정치리론적, 기술실무적 지식을 전제로 한다. 일군들은 이러한 넓고 깊은 지식이 있어야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모든 문제를 원숙하게 다루고 처리할수 있으며 대중을 능란하게 조직하고 이끌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주체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이렇게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실무적으로 준비되여있어야 당 정책선에서 능란하게 사업을 조직하고 자신있게 내밀수 있으며 또 실속있는 열매를 거둘수 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능란한 조직적 수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아래의 실태를 환히 장악하는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는것은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실정에 맞게 옳게 풀어나갈수 있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아래실정을 손금보듯이 환히 꿰뚫고있어야 아래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포착할수 있고 아래일군들에게 필요한 과업을 주어 모두다 움직이게 할수 있다.

일군들이 아래실태를 료해하고 장악하는데서는 삼면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듯이 정면으로도 보고 측면으로도 보고 뒤면으로도 보는 식으로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그래야 일면성을 면하고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범하지 않을수 있다.

일군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더욱 발전풍부화해나가시는 우리 당의 령도예술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는 주체의 령도예술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그대로 본받고 따라배워야 할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주체의 령도예술을 깊이 체득하고 실천활동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자신을 높은 지휘능력, 능숙한 조직적 수완을 소유한 당의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승리의 확고한 신심과 커다란 포부를 안고 새 전망계획과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의 발걸음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당의 영광스러운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창조적 사색과 혁명적 전개력

박 일 형

창조적 사색으로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아내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사업기풍이다.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지휘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지도일군들을 통하여 직접 집행되고 관철된다. 우리 당은 지도일군들을 믿고 나라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겨주었다. 당이 매 시기 제시하는 정책적 과업을 실속있게 관철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바로 지도일군들에게 지워져있다.

당의 로선과 방침이 정당하고 그 수행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어떻게 사색하고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인식과 실천은 사람들의 활동의 두 측면을 이룬다. 사람들의 인식활동에서 중요한것은 창조적 사색이며 그들의 혁명실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적 전개력이다.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여야 혁명실천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자력갱생, 창조적 사색, 이것이 일군들의 사업기풍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람은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을 가지고있으며 창조성은 창조적 활동에서 표현된다.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사물현상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며 여기에서 능동적인 사고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해서만 사물현상의 본질을 파악할수 있다. 사물현상들이 가지고있는 많은 속성들가운데는 여러가지 부차적이며 비본질적인것과 함께 필수적이며 본질적인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가운데서 사물현상의 본질적인 속성을 찾아내자면 머리속에서 여러가지 속성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분석종합하는 능동적인 사고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창조적인 사색과정으로 된다.

사람들이 행동계획, 행동방법을 설계하는 과정을 놓고보아도 그것은 객관세계에 대한 단순한 직관적인 반영이거나 이미 반영된것을 머리속에서 되새기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문제의 본질에 깊이 파고들면서 머리속에서 새것을 구현해나가는 창조적인 사색과정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창조적으로 사색할수 있는 이러한 인식능력을 가진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는 것으로 전변시켜나가는 창조적 활동을 벌릴수 있는것이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에게 있어서 창조적 사색이란 당정책의 본질을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자기단위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방도, 묘술을 찾기 위한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말한다.

모든 사업은 언제나 일군들의 구상과 작전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상과 작전은 투쟁목표를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수단들을 탐구하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이 옳게 구상하고 작전을 잘하자면 언제나 당정책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부문에 맞게 구현해나가기 위한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지금 모든 부문에서 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높은 창발성을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매개 부문, 단위마다 당정책을 집행하는 조건과 환경, 실정은 각이하며 이것은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을 자기 부문에 맞게 구현해나갈것을 요구한다.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한다는것은 결국 일군들이 자기 부문의 실정에 맞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도를 탐구하고 그에 따라 당의 방침을 철저히 집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정책관철의 방법론과 묘술을 찾기 위하여 머리를 쓰지 않고 우에서 내려오는 과업을 그대로 아래에 전달하기만 하며 보수성과 소극성에 사로잡혀 일을 발라맞추는 식으로 실속없이 하는것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는것과 함께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집행해나가는것은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일본새이며 사업기풍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무리 수령님과 당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능력이 없으면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벌려나갈수 없습니다.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려면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전개력,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잘 해나가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함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능력에는 인식능력뿐아니라 실천능력이 있다. 실천능력은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창조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실천능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적 전개력이다.

창조적 사색은 창조적 활동의 전제이지만 그것만으로써는 혁명실천이 이루어질수 없다. 사람들이 창조적 사색을 하는것은 사물현상의 본질을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제기된 문제의 해결방도를 찾고 그 해결을 끝장보려는데 있다.

혁명적 전개력이란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주동적으로 펼치고 진공적으로 적극 밀고나가며 그것이 빛나는 열매를 맺도록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벌려나가는 정도, 걸린 고리들을 솜씨있게 풀어나가는 수준, 난관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의지와 정열들에서 나타난다.

사회주의사회는 원래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고 모든것이 맞물려돌아가며 모든 부문들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움직이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매개 집단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옳은 조직지도사업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할수 없다.

특히 혁명의 길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과업들이 련이어 나서게 되며 여러가지 난관과 시련이 제기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든 사업을 끝장볼 때까지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내고 계속 혁신, 계속전진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쥐고있는 일군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전투적 기백에 넘쳐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며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진공적으로 해제껴야 대중의 앙양된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지도일군에게 혁명적 전개력이 있어야 기업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의 요구를 더 잘 구현할수 있으며 생산을 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계획을 일별, 월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할수 있다.

창조적 사색과 혁명적 전개력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그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혁명투쟁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여야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옳바른 길을 찾을수 있으며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일해야 창조적 사색이 은을 낼수 있다. 사색의 목적은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려는데 있다. 혁명실천과 동떨어진 사색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리고 창조적 사색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전행정에서 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 언제나 진행되여야 한다. 바로 모든 사업을 끝맺을 때까지 사색을 심화시키면서 일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는것이 일군들의 혁명적 사업기풍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며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은 발현이다.

깊은 창조적 사색과 혁명적 전개력의 기초는 충실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색한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이 나서거나 애로가 제기되여도 사상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당이 요구하는것이라면 어려운것과 쉬운것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말겠다는 옳은 립장에서 언제나 높은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패기있게 조직하고 전개해나간다.

지난 기간 우리 만년보건총국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일군들이 당정책을 기어이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옳은 립장을 가지고 자나깨나 창조적 사색을 거듭하며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들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며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일을 대담하게 밀고나가도록 세심히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만년보건총국 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우리 당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실성교양에 모를 박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의약품생산을 어떻게 늘일것인가를 끊임없이 사색하며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일판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한편 당조직의 지도밑에 총국 행정경제일군들은 어떻게 하면 여유로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효능높은 보약과 의약품의 가지수를 더 많이 늘이며 자체 원료원천지와 생산기지, 위탁생산단위를 확대할것인가를 모색하면서 각 방면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모든 일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해에 총국을 꾸리기 위한 건설사업을 수많이 벌려놓으면서도 5개의 제약공장들을 현대적 설비로 장비할수 있었고 그전해보다 공업생산액은 295.8%로, 수출액은 104%로 장성시킬수 있었으며 년간계획을 생산액적으로 100.8%로 초과수행할수 있었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해 늘 머리를 쓰며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는것이 일군들의 인식과 실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체득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된 새로운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창조적 사색을 더욱 깊이있게 하며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는것이 절실한 문

제로 제기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은 더욱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였으며 복잡해지고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제토대는 날로 위력해지고 그 생산잠재력은 더욱더 커지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군들이 머리를 더 쓰고 사업을 더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야만 날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있으며 복잡해지고있는 인민경제를 잘 움직일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이 더 큰 은을 내게 할수 있다.

특히 오늘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며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대건설행군을 다그치는 장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이 내세운 대건설은 그 규모와 내용, 속도와 질적 수준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건설전투로서 그것은 우리 인민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매개 초소들을 담당하고있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기 위하여 머리를 더 쓰고 당조직정치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을 짜고들면서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밀고나갈 때 도처에서 보다 많은 예비가 나올수 있으며 당의 의도대로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창조적 사색과 혁명적 전개력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의도에 맞게 사고하고 사업을 벌려나가는 것이다.

일군들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는것은 결코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자의대로 사고하거나 일을 제멋대로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의 의도는 일군들의 사색과 사업전개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어느것이나 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따라서 당의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모든 일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당의 의도에 맞게 사색하고 사업을 전개한다는것은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하여 사고하며 사업을 전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적 임무로부터 모든 단위들에서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과 구체적인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창조적 사색과 혁명적 전개력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무슨 일에서나 자기가 주인이라는 립장,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나가려는 정신, 그 어떤 간난신고도 이겨내는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없이는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할수 없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되자면 자주성을 옹호하는 립장, 자주적 립장을 견지해야 하며 그러자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여야 한다.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며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진 일군들은 언제나 창조적 사

색을 깊이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혁명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다. 또한 아무리 곤난한 조건이 조성되여도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어 온갖 곤난을 이겨내는 강의한 투쟁기풍,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진 일군들은 걸린 고리를 풀기 위하여 머리를 쓰게 되고 모든 사업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끝까지 내밀수 있다.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감을 스스로 찾고 조건을 자체로 마련하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일감이 스스로 차례질것만을 바라거나 유리한 조건이 저절로 조성될것을 기다리는것은 혁명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립장이 아니다.

혁명의 주인이라는 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동적으로 일거리를 만들고 자체로 일을 찾아할줄 알아야 하며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은 저절로 진행될수 없다. 지도일군들일수록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찾아서 해야 당정책이 빛나는 현실로 전변되고 그것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보다 행복한 생활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할 일은 그 어디에나 많다. 일군들이 일감을 찾고 그것을 하기 위해 창조적 사색을 더 깊이 하면서 창발적으로 일한다면 커다란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쥐고있는 지도일군들에게 있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조성해나가는 강의한 기풍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일군들이 조건과 환경을 잘 타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불리한 조건을 타개하고 그것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머리 쓰며 온갖 난관을 완강한 기백을 가지고 뚫고나가며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다.

일군들이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며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일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의 정치경제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정치경제실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에 지도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열심히 학습하여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경제실무수준을 빨리 높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4권, 8페지)

일군들의 높은 정치경제실무적 자질은 그들이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며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열성을 낸다 하여도 정치경제실무수준이 낮으면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할수 없고 일을 혁명적으로 내밀수 없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일해나간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높은 정치경제실무적 자질은 곧 힘이다. 창조적 능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정치경제실무수준과 많이 관련된다. 특히 지식은 인식과 실천활동에 적용되여 사람의 정신적 및 물질적 힘으로 전환되고 창조적 능력을 이루게 된다. 일군들은 정치경제실무적 자질이 높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사업을 자유자재로 조직하고 전개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정치경제실무수준을 높여야 어떤 사업이든지 주견있게 밀고나가며 객관적 법칙과 과학적 리치, 구체적 조건에 맞게 모든 일을 참신하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일군들이 창조적

으로 사색하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기준이며 지침이다.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정통하여야 그것을 자로 하여 사업을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과학기술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에 와서 그 어떤 사업이든지 과학기술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다. 지도일군들이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할수 없으며 행정경제사업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해나갈수 없다.

그리고 일군들은 자기 부문에 대한 실무에 밝고 능숙한 조직지휘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실무에 밝아야 자기 사업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모든 일을 해나갈수 있는 정확한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낼수 있으며 능숙한 조직지휘능력이 있어야 어렵고 불리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당황함이 없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중심고리와 선후차를 정확히 가려내고 필요한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사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당정책에 정통하고 자신의 과학기술수준과 경제실무수준, 조직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언제나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워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래야 창조적 사색을 깊이있게 할수 있고 높은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당의 의도에 맞게 끝까지 해제낄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주체조선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이룩하여야 하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펼쳐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야 한다. 이 영예로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자기앞에 제기된 사업을 언제나 깊이 연구하여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방도를 제때에 찾아내며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혁명적 학습기풍은 우리 인민의 사회적 풍조

전 주 남

혁명적 학습기풍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되게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누구나 학습하는것이 전사회적 풍조로, 전인민적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장래발전과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일할수도 전진할수도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며 책읽는 운동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풍조란 사회의 전반적 추세이며 사회에 일관된 기풍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습기풍이 우리 인민의 사회적 풍조로 되게 한다는것은 학습하는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추세로, 우리 인민의 사업과 생활에 일관된 기풍으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혁명가의 본분이다.

혁명가는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나가는 창조적 활동가이며 자각적 투사이다. 혁명가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서지 못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낼수 없으며 혁명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혁명하는 사람은 오직 꾸준하고 정력적인 학습을 통하여 풍부한 혁명의 량식을 가져야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학습기풍은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업과 생활의 뗄수 없는 한 부분으로 되였으며 사회적 풍조로, 전인민적 기풍으로 되고있다.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확립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 학습기풍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명확한 목적과 뚜렷한 지향을 가지고 학습하는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어떤 지향을 가지고 학습하는가 하는것은 학습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되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뚜렷한 목적과 명백한 지향을 가지고 학습하는것은 그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그것이 전사회적 풍조로 확고히 전환되게 하는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의 전사, 혁명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려는 뚜렷한 지향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기 위한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학습하여야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항구적인 사업으로, 전사회적 기풍으로 확고히 전환될수 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는 학습을 꾸준히 하여 혁명적 량식을 얻고 투쟁목적과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체득해야 혁명을 잘해나갈수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는것이 확고한 신조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학습

을 순수 개인의 리익을 위한 인식활동이나 탐구과정으로가 아니라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체득하고 사회적 진보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과 기술을 습득해나가는 혁명활동과정으로, 중요한 혁명임무로 간주하고 있다. 학습하지 않고서는 살수도 투쟁할수도 없으며 학습을 해야 앞을 내다볼수 있고 알아야 힘이 생기고 전진할수 있다는 투철한 자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을 학습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첫공정으로, 어길수 없는 생활준칙으로 여기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학습을 잘하여 높은 기술실무적 자질을 소유하는것이 곧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조건, 위력한 수단을 마련해나가는 길이며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드팀없는 립장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매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전원이 대학을 졸업한 룡양광산 금산갱 영웅광부들과 은하리의 청년분조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려는 뚜렷한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학습하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명백한 증시로 된다. 이것은 학습을 혁명하는 사람의 첫째가는 임무로, 혁명가의 본분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학습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학습기풍이 사회적 풍조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일생동안 학습하는것은 혁명적 학습기풍이 우리 인민의 사회적 풍조로 되고있는 다른 하나의 표현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학습에 일생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학습이 해당 사회의 사회적 풍조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학습을 정규적인 교육을 받는 시기만이 아니라 일생동안 한시도 어길수 없고, 놓을수 없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학습할 때만이 그것이 전사회적 풍조로 확고히 전환될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학습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다같이 학습하고 다같이 발전하는것이 보편적 현상으로 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밑에 높은 학습열의를 가지고 누구나 빠짐없이 일생동안 학습하는것을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직업과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청년학생 그리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공부하고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물론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대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 불타는 열정을 안고 학습과 탐구의 보람찬 나날을 이어가고있다. 온 나라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정연하게 세워진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습체계에 망라되여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들에서 꾸준히 배우고있으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학습회와 강연회, 집중학습, 강습을 비롯한 집체학습과 2시간이상 자체학습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혁명가는 학습으로 투쟁을 시작하고 학습으로 일생을 마쳐야 한다는 혁명적 립장을 가지고 학습을 생애의 어느 한 시기만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끊임없이 하는것이 전인민적 기풍으로 되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 누구를 물론하고 일생동안 배우고 또 배우는 우리 인민의 성실한 학습태도, 정열적인 학습열의는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혁명적 사업기풍과 함께 혁명적 학습기풍이 우리 인민의 고상한 기풍으로 전환되고있는데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고있는것은 혁명적 학습기풍이 우리 인민의 사회적 풍조로 되고있는 또하나의 표현으로 된다.

환경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는것은 학습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유리한 환경과 좋은 조건만을 바라거나 부여된 시간에만 학습하려는것은 혁명적인 학습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학습관점을 가지고서는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울수 없다.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우리 인민은 항일유격대식으로 학습을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하고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환경과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시간을 아껴가며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학습하고있다. 항일유격대식 학습기풍을 본받아 발고랑을 타고나가면서도 문답의 방법으로 주체농법을 체득하고있는 농장원들, 천길지하막장에서도 당정책을 학습하고있는 광부들, 나무마다에 문답식 학습판과 여러가지 공식을 붙이고 그것을 익혀나가고있는 벌목공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모두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학습하고있다. 학습에서는 결코 유리하거나 불리한 환경, 좋거나 나쁜 조건이 따로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투적인 학습관점이며 혁명적인 학습본새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학습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철저히 생활화, 습성화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정열적인 학습기풍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학습을 어길수 없는 생활준칙으로 삼고 모두가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고있는 사회적 풍조, 바로 이것이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인민의 참다운 모습이며 우리 사회에 일관된 기풍이다.

이와 같이 학습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전체 인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일생동안 배우며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생활화, 습성화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숭고한 학습기풍의 본질적 특징이며 학습이 전인민적 기풍으로, 전사회적 풍조로 되고있는 뚜렷한 표현이다.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이 차넘치고 그것이 전사회적 풍조로 확고히 전환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구나 다 배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와 교육체계를 세워주시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일생동안 학습할수 있는 정연한 학습체계를 마련해주시여 우리 나라를 《배움의 나라》로 전변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의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시고 그 성과적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습은 혁명가의 본분이라는것을 밝혀주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올바른 학습관점을 세워주시였으며 학습내용과 학습에서 지켜야 할 원칙 등 학습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학습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선차적 힘을 넣도록 학습방향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온갖 조치와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모두가 학습

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한편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답식 학습방법의 본질적 우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할데 대한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일찌기 문답식 학습의 시범을 창조하시고 문답식 학습경연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전당과 온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 학습기풍은 당의 온정깊은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온 나라에 마련된 튼튼한 학습기지, 훌륭한 학습조건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우리 당은 배움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열의를 깊이 헤아리고 수도의 중심부에 3,000만권의 장서능력을 가지고 매일 1만 2,000명이 학습할수 있는 전민학습의 대전당,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중심기지인 인민대학습당을 세워주시고 전체 인민이 다 리용할수 있는 운영체계와 조건을 훌륭히 갖추도록 하였다. 오늘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하고있는 독특한 형식의 강의와 광범한 근로자들을 공부시킬수 있는 우월한 운영체계, 동서고금의 귀중한 장서들은 우리 인민에게 최상의 학습조건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우리 당은 또한 도, 시, 군들과 대학들에는 물론 기관, 기업소들과 지어는 몇명의 등대원들이 사는 외진섬에도 도서관과 도서실, 열람실을 꾸리도록 해줌으로써 온 나라를 하나의 도서관으로 전변시켜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모든 청소년학생들은 정규적인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정상적인 재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온 사회에 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도 급속히 발전되고 사회개조와 자연개조에서도 놀라운 전변이 이룩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에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확고부동한 혁명적 세계관으로 삼고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행동하고있으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청소년학생들이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질이 훨씬 높아지고있다.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에 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으며 위력한 자립적 민족경제는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맞게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심화시켜야 할 숭고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학습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기풍을 세우며 책을 더 많이 읽기 위한 투쟁은 당기관, 인민정권기관, 학교, 공장, 기업소, 농촌, 인민군대 할것없이 그 어느 부문에서나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사회에 학습기풍을 세우며 모든 사람이 매일 2~3시간씩 책읽는 운동을 벌려야 하겠습

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278페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은 학습에서 성과를 거두게 하는 근본문제이다. 학습하는것이 곧 혁명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사업이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라는 관점과 립장에 설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에 더욱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게 되며 나아가서 혁명적 학습기풍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심화발전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가는 일생동안 학습해야 한다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학습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며 어렵고 복잡할 때일수록 학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류례없이 간고했던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은 혁명적 학습방법의 귀중한 본보기이다. 전투사이에 진행된 학습과 적을 코앞에 둔 곳에서 벌린 《군정학습》,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행군길에서 정열적인 토론과 론쟁으로 진행된 문답식 학습방법과 책을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리용한 《행군도서관》, 앞사람의 배낭뒤에 글을 써붙여가지고 행군길에서도 학습에 전심전력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방법, 수준이 각이한 실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담당하여 가르쳐주는 방법과 산 현실을 통하여 참신한 경험과 방법을 배우는 방식상학 등 항일유격대원들이 보여준 모든 학습방법은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학습방법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늘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것을 습성화하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함으로써 대건설행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사업과 생활이 학습으로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사회적 풍조가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자면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과 모든 일군들이 학습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지도통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과 모든 일군들이 학습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적극 지도통제할 때 대중의 학습열의를 비상히 높일수 있으며 이미 꾸려진 훌륭한 학습조건도 더욱 큰 은을 나타낼수 있다. 학습을 목적지향성있게 이끌어나가자고 하여도 지도통제가 안받침되여야 하며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태공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없애고 온 사회에 건전한 학습기풍을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자고 하여도 자각성과 함께 지도통제가 안받침되여야 한다.

모든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과 일군들은 학습에서 지도통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수준과 사업상 특성에 맞게 학습계획을 바로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옳게 지도통제하며 학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학습결과를 똑똑히 총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해나감으로써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풍조가 더욱 공고발전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주 용 목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공화국창건 40돐을 앞두고 대전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환경속에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의 55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령도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왕재산회의는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 11일, 당시 조성된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바로 이 회의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원쑤들의 책동이 악랄하고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일무장투쟁을 반드시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6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창설하고 공고화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국내에 반유격구를 창설하고 공고화하는것은 결국 항일무장투쟁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할수 있는 튼튼한 정치군사적 거점과 후방기지를 마련하는것으로 되며 국내에서 항일유격대오를 급속히 확대강화할수 있는 대중적 지반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반일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굳게 결속하여야 하며 무장투쟁과 함께 이에 광범한 대중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앞에 제기된 어렵고 복잡한 임무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려면 혁명의 참모부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창건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 방침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행동강령이며 투쟁의 지침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당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이후 한해동안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발전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혁명의 첫 상비적 혁명무력으로 탄생한 항일유격대는 자기 대오를 급속히 늘이고 무장적 토대를 강화하였으며 력사적인 남북만원정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정치군사

적으로 더욱 단련되고 장성강화되였다.
또한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유격대의 군사정치적 기지와 후방기지가 마련되고 조선혁명의 책원지가 창설되였으며 혁명의 대중적 지반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중국인민의 반일투쟁기세가 급격히 높아지고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 환경도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었다.

항일무장투쟁과 그 영향밑에 각성된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급속히 강화된것은 조선을 대륙침략의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려고 미쳐날뛰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조선혁명의 주도적 력량인 항일유격대와 유격근거지를 그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1932년 봄에 조선주둔군 라남19사단의 보병, 기병, 포병, 공병들로 《간도파견대》를 조직하여 동만에 투입한 일제는 1932년말에는 이른바 《간도지방공산군소멸요령》까지 조작해가지고 항일유격대에 대한 공세를 대대적으로 벌리기 시작하였다. 1933년 1월에는 관동군, 헌병대, 조선주둔군《간도파견대》, 함경북도 경찰부와 조선국경경찰대 및 만주경찰기관의 두목놈들이 간도총령사관에 모여서 1932년 하반기의 《토벌》정형을 총화하고 1933년초부터 새로운 《토벌》공세를 감행하기 위한 대책을 모의하였다. 일제는 대규모적인 군사공세와 함께 《집단부락》의 설치와 중세기적인 보갑제도의 실시 등을 통하여 유격근거지를 고립시키고 봉쇄하는 한편 《민생단》을 비롯한 간첩주구단체들과 각종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유격근거지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항일유격대의 국내 진출과 혁명적 영향을 막아보려고 조선의 북부국경일대에 침략무력을 증강배치하고 국경비진을 강화하기에 미쳐날뛰였다.
일제는 유격근거지와 잇닿아있는 함경북도의 국경지대에만도 두만강기슭으로부터 20~40키로메터 지대를 《국경경비선》으로 정하고 1선과 2선으로 구분하였으며 무산군 농사동으로부터 선봉군 우암리에 이르는 1선 지역에 약 60여개의 경찰기관들과 각종 방위시설을 구축해놓고 항상 전시태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두만강연안의 국경경비가운데서도 일제는 온성일대에 특별히 폭압력량을 증강하였다. 놈들은 온성, 남양, 훈융의 세곳에 경찰서를 두었으며 온성경찰서의 소속으로 강안특별경비대까지 배치하였다.

일제는 국내에서 혁명조직을 파괴하고 전국도처에서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일제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내 혁명조직들의 활동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일제에게 강점당한 우리 나라는 하나의 감옥이나 다름없었으며 인민들의 원한은 하늘에 사무쳤다. 조성된 정세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고 항일유격대의 위력을 시위함으로써 국내 혁명조직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며 그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로 이러한 시기에 몸소 조국땅 온성지구에 진출하시여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이 요구는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내 진출과 왕재산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발전에서와 조국광복위업을 수행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내 진출과 왕재산회의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적 권위를 더욱 높이게 하였다.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와 흠모의 정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막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러 받들면서 일제의 갖은 천대와 멸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조국광복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만 들어도 새 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필승의 신념으로 가슴들먹이였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고있던 국내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는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땅에 모시게 된 국내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감격은 비할데 없었으며 혁명적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왕재산회의 이후 반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을 단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령도를 더욱 빛나게 실현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을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이미 1930년 10월 1일, 온성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되는 당조직을 내온데 뒤이어 국내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를 확립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왕재산회의 이후 국내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과 국내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투쟁방침들이 제때에 침투되고 광범한 대중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성이 널리 소개선전됨으로써 인민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내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따라 조국광복의 한길에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게 하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내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또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일제를 때려부시고 우리 조국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함으로써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위대한 투쟁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이러한 목적은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야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을수 있었고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적 과업도 실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고 반유격구를 꾸릴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기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 혁명활동시기에 벌써 온성을 비롯한 북부조선일대를 앞으로 조직전개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군사적 거점,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채수항, 김준동지들을 온성을 비롯한 륙읍일대에 파견하시여 혁명조직들을 조직확대하도록 하시였으며 1930년 10월에는 온성지구의 두루봉에, 1931년 5월과 10월에는 종성지구의 공수덕과 광명촌에 몸소 나오시여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무장투쟁준비를 적극 다그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이후에도 1933년 3월 하순에는 류다섬에, 5월에는 신흥촌에 몸소 나오시여 왕재산회의 방침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과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조국진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1930년대 후반기의 남호두회의, 동강회의, 서강회의, 북대정자회의들에서 국내 진출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에 걸쳐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한 북부국경일대에서 진행한 여러 회의들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고 당창건준비사업과 조국광복회 운동을 전국적판도에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들과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초기혁명활동시기에는 자신께서 국내에 진출하시거나 새 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시여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마련하도록 하시였으며 항일유격대창건 이후 시기에는 왕재산진출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소부대, 소조들과 정치공작원들을 몸소 이끄시고 국내에 나오시여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가져오기 위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후반기에는 보천보와 무산지구 일대에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을 승리적으로 이끄심으로써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전반적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는 또한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였다.

당시 우리 혁명의 주체를 세우는것은 갓 탄생한 항일유격대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는 일제의 반혁명적 공세와 함께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우심해진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조선혁명에 대해서 그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이 시기에 와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혁명의 주체 로선과 방침들의 실현을 각방으로 반대해나섰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이 명확히 천명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혁명의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부인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모방하여 《무산계급혁명》이니, 《사회주의의 즉시 실현》이니 하면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 《쏘베트》로선을 주장하여나섰다.

특히 이자들은 교조주의적이며 좌경기회주의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일통일전선로선을 반대하여나섰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운운하면서 반일투쟁에 인입할수 있는 계급과 계층들까지 《계급전쟁》의 원쑤로 간주하였으며 광범한 반일대중을 배척하고 멀리하였다. 이것은 능히 일제를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할수 있는 중간계층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대중을 적의 편에 넘겨주고 항일유격대를 고립무원한 처지에 놓이게 함으로써 반혁명세력을 돕고 혁명세력을 약화시키는 극히 유해로운 행위였다. 또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을 외곡하면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만을 절대화하고 반유격구를 확대하는것을 악랄하게 반대하여나섰다. 이자들

온 유격구와 적통치구역을 《적색구역》과 《백색구역》으로 갈라놓고 서로 대치시켰으며 유격구와 적통치구역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인민들을 《량면파 군중》이니, 《일제의 앞잡이》니 하면서 배척하고 멀리하였다.

종파사대주의자들과 편협한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민족지상의 임무인 조선혁명을 수행하는것을 반대하였다.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이 모든 책동의 본질은 조선혁명의 주체를 세우는것을 반대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이 승승장구해나가는것을 방해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력사적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는 실로 조선혁명을 주체의 기치밑에 줄기차게 발전시키는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온갖 원쑤들이 조선혁명을 압살하려고 그처럼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던 엄혹한 시기에 사선을 헤치시고 몸소 조국땅에 진출하시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오직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에게 맡겨진 가장 숭고한 임무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수행해나가는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권리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찬연한 서광을 안겨주고 조선혁명을 주체의 기치밑에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게 한 휘황한 등대였다.

참으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적 권위를 더욱 높이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게 함으로써 우리 혁명이 주체의 기치밑에 승승장구해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재산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던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이 행정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실현하고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서도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력사는 우리 인민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길은 주체사상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283페지)

조선혁명은 장구한 기간 일제와 미제를 대상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다같이 수행해야 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이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혁명이였다. 따라서 조선혁명은 첫시기부터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세련된 령도와 헌신적인 투쟁으로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혁명의 앞길에 난관과 시련이 막아나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힘을 더욱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적극 조직동원하시여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 자위적 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참으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반

세기가 넘는 력사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온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의 자랑찬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기치밑에 개척하시고 전진시켜오신 우리 혁명은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위업은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투쟁하는 혁명가답게 언제 어디서나 자기 힘을 믿고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우리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나가며 전진도상의 난관과 애로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이다.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전략적 로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모든 로선과 정책에는 주체사상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길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이보다 더 좋은 로선과 정책은 없다. 우리는 우리 당이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수십년간의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로선들을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견지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 임무이다.

지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일치단결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간다면 지난날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온 민족이 단결하여 강도일제를 타승하였던것처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수 있는것이다. 그러자면 세상사람들이 주시하고있는 올해의 조선반도의 정세를 결정적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 온 민족의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난해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첫 진군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는 길은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우리는 이 귀중한 진리를 명심하고 그것을 올해의 대건설행군에서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한다.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높이 들었던 주체의 기치, 이것은 우리가 지난날에나 오늘에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들고나가야 할 혁명의 기치이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당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진 명 수

당풍을 바로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당풍을 바로세워야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당풍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생활기풍, 당사업기풍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공고화해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이 진행하는 이와 같은 당건설과 당활동은 그 어느것을 물론하고 당생활과 당사업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당건설과 당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일군들과 당원들의 일상생활과 사업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생활기풍, 사업기풍의 종합적표현이 바로 당풍이다.

당풍은 당의 면모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사람의 사상이 행동을 통하여 평가되는것과 같이 당의 면모는 중요하게 당풍을 통하여 비추어볼수 있다. 당이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당인가 아닌가, 당이 세련되고 로숙한 당인가 아닌가 하는것 등은 당안에 지배하는 당풍에 의하여 잘 알수 있다.

당건설, 당활동에서의 성과여부는 당풍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이 지배하는 당만이 자기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며 우리 당안에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당건설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추어나가게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워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학습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당풍을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개선완성해나가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하였다.

모든 사업과 생활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귀착시키는 기풍, 당의 결정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혁명적인 규률밑에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며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기풍, 원칙적이고도 공명정대한 사업기풍 등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안에 확고히 지배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의 중요한 특징이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당풍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기 위하여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그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하여 당조직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당풍을 세우는데서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 당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당생활기풍은 당풍의 한 측면으로서 그 중요한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것만큼 당풍을 바로세우자면 당안에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생활은 당조직을 통하여 진행된다. 당조직을 떠나서는 당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자면 당조직에 대한 관점, 립장과 태도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에 기초하여 당생활이 옳바로 진행되게 되며 당안에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서게 된다.

당조직에 대한 옳바른 관점, 립장과 태도는 바로 당조직관념을 높일 때 지니게 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우선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게 한다.

당은 당원들에게 있어서 어머니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조직은 당원들의 어머니와 같고 당원은 당조직의 아들과 같다. 당은 당원들을 혁명가로 키워주고 혁명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싸워나가도록 늘 보살펴준다. 그렇기때문에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것은 당조직을 대하는 옳바른 관점, 립장과 태도로 된다.

당조직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는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는데서 나타난다.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한다는것은 당조직의 의사, 당조직의 결정을 존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조직의 결정은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당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적 의사로서 그것은 당원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과업이다. 그러므로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곧 당조직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게 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또한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게 한다.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모든것을 당조직에 의탁하고 당조직의 의견과 방조 밑에 사업과 생활을 해나가는 립장과 태도이다. 당원은 당조직을 통하여 정치생활, 혁명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당원들은 당조직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생활을 하게 되며 혁명활동을 벌려나가게 된다. 따라서 당원들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혁명가로서 자기의 정치생활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이 당조직을 대하는 옳바른 관점과 태도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또한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한다.

당원은 자각적인 혁명투사이다. 그러나 당원은 늘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하

여야 한다. 누구나 완성된 사람은 없다. 비록 오늘은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지 않으면 변질될수 있다. 당원들이 참된 혁명가로 살며 변함없이 당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교양을 받으며 의식적으로 자신을 단련하여야 한다.

당은 당원들을 혁명가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갖추도록 손잡아 이끌어준다. 당원들이 당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는것은 마치도 어린 아이가 어머니품에서 벗어나는것과 같으며 그렇게 되면 위험한 길로 굴러떨어질수 있다. 당원들은 자기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당조직의 통제속에서 일상적으로 교양을 받고 혁명적 수양을 쌓아나가야 참된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당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 따라서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것은 당조직을 대하는 올바른 립장과 태도로 된다.

이와 같이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한다. 당조직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에 기초하여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확립되게 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 당풍을 바로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 리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 당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당안에 혁명적인 당사업기풍을 확립하게 하기때문이다.

당사업기풍은 당생활기풍과 함께 당풍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있는것만큼 당풍을 바로세우자면 당안에 혁명적인 당사업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혁명적인 당사업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그것은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성을 키워주기때문이다.

사람들이 어떤 기풍으로 일하는가 하는것은 주로는 그들이 지니고있는 품성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공산주의적 품성을 소유한 사람은 혁명적인 사업기풍으로 일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혁명가적 기풍과는 어긋나는 온갖 그릇된 일본새로 사업하게 된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기풍이 지배하게 하려면 일군들과 당원들이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우선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키워준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적인 품성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몸바쳐 투쟁하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자기의 혁명적 본분을 다하는 참된 길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는것이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면 수령이 이끄는 당조직을 사랑하며 당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알고 당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하는것을 철칙으로 삼는 고상한 품성 즉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또한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 조직성, 규률성을 키워준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의 생명이며 공산주의자의 고유한 품성이다. 당은 당원들이 모인 정치적 조직체이다. 수많은 당원들로 이루어진 당이라는 조직체를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이 하나의 조직원칙에 따라 제정된 행동 규범과 준칙대로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원들이 강한 혁명적 조직성, 규률성을 가질것을 요

구한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당을 참말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불패의 전투적 부대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높은 당조직관념에 기초하여서만 형성되게 된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면 당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생활에 충실하며 조직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고상한 품성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높은 조직관념에 기초하여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니게 될 때 일군들과 당원들은 사업에서 온갖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 당의 혁명적인 규률밑에 사업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안에 당사업을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밑에 진행하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혁명적 사업기풍이 확립되게 된다.

이 모든것은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 당안에 혁명적인 당사업기풍, 당풍을 바로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승호구역당위원회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조직관념을 높일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적인 당풍을 확립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으며 귀중한 경험도 체득하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당풍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고 그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끊임없이 심화해나갔다. 우리는 늘 아래에 내려가 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조직관념이 바로서지 못한 현상들을 형태별로 구체적으로 장악하는 한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상별로 면밀한 지도대책을 세우고 교양과 투쟁을 꾸준히 벌리였다. 이렇게 당생활지도를 구체적으로 짜고든 결과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는 점차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확립되여가게 되였으며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에서 혁명적인 사업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광정리와 립석리를 비롯한 구역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새해 농사차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으며 특히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4대기술혁명과업에 따라 분수식 발관개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투쟁에서 구역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 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경험은 당위원회가 당조직관념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당생활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간다면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고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풍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은 잠시도 늦추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당과 혁명이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심화해나가야 한다.

당풍을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가야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력량인 당을 불패의 전투적 부대로 강화발전시키고 그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아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 어느때보다도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고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는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더욱 높이고 혁명적인 당생활기풍, 당사업기풍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고유한 당풍이 전당에 확고히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관념을 높여 당풍을 바로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게 하는것이다.

당조직관념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그것은 당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서만 형성되게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 당이 자기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호자이라는것을 똑똑히 체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있다. 당원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고 돌봐주는 보호자라면 당은 당원들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이끌어주는 보호자이다. 당원들속에 당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똑똑히 체득시켜야 그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있어도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으며 당의 품속에서만 자기들의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는 정치적 자각을 가지게 할수 있다. 당원들의 이러한 정치적 자각이 높을 때 당조직에 대한 올바른 관점, 립장과 태도, 당조직관념이 바로서게 되며 그렇게 되면 당안에 혁명적인 당생활기풍, 당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을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는것은 당조직관념을 높여 당풍을 바로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당조직관념은 당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조직생활과정에 공고화되게 된다. 조직생활과정에 당원들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고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습성을 키우게 되며 그에 따라 조직관념을 자기의 고상한 품성으로 깊이 간직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조직관념을 높여 당풍을 바로세우자면 일군들과 당원들을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일군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당조직생활이란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며 그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는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적 규률의 첫째가는 요구이다. 따라서 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그들이 엄격한 당적 규률속에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조직관념을 높여나갈수 있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을 단련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이 당적 분공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원들은 당적 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과의 관계를 맺게 되며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당적 분공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에 대한 관점과 태도와 관련되는 문제이며 당조직이 주는 위임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은 조직관념이 바로 서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검열받는 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에서 받은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직적 단련을 강화하여야 그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조직생활을 통한 단련을 강화하여 조직관념을 바로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고 당조직의 방조밑에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는것이다. 당조직관념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는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는것이다.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허심하게 보고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는가 안하는가 다시말하여 조직관념이 서있는가 서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평가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당조직에 보고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조직관념을 높여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는데서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각급 당위원회의 조직부는 당생활지도부서로서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조직부는 자기 직능대로 언제나 당생활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일상적으로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대책을 면밀히 세우는것이다.

의사가 병을 고치자면 우선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가 하는 진단을 바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린 다음에는 그에 알맞는 약을 써야 한다. 한편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것만큼 치료대책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세워야 한다. 당생활에 대한 지도대책을 세우는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당조직일군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당생활정형을 깊이 료해장악하고 구체적인 교양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지도해나가야 한다.

특히 간부들이 당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 모범을 보이도록 옳게 지도통제하는것이 중요하다. 간부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간부들은 아래일군들과 당원들을 교양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다. 따라서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는데서 간부들이 노는 역할은 실로 크다. 그러므로 간부들이 누구보다도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으로 일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당풍을 바로세우기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당 조직들과 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우리는 당풍을 바로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위원회 편지에서 제시된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할것이다.

당일군은 혁명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장 제 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편지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대건설행군이 새로운 일대 앙양속에서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조직동원하고 힘있게 이끌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의 기수이며 대중의 교양자인것만큼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14페지)

일반적으로 혁명의 기발은 혁명적 의지와 기개를 상징하며 혁명의 승리적 진군을 추동한다. 그러므로 혁명의 기수가 기발을 들고 앞장서나가야 전대오가 따라나서게 되며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서 기발을 들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며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당일군들이 높이 발휘하여야 할 혁명적 풍모이다. 수많은 일군들을 발동하고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 당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여야 하며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기발을 들고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실천적 모범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는 거창한 창조적 사업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언제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리상적인 환경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그런것만큼 혁명이 전진하고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있게 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며 혁명의 앞길에는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이게 된다. 애로와 난관이 없는 혁명과 건설이란 있을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승리하며 전진하게 된다.

어떤 사업이나 반드시 핵심이 있고 선구자가 있어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나가는 전위투사가 있어야 한다.

당은 혁명의 핵심력량이고 당일군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혁명의 전위투사이다. 당일군들이 직업적인 혁명가, 혁명의 전위투사답게 군중의 앞장에 서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것은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혁명의 승리는 혁명가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룩되며 건설사업에서의 성과도 당일군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달성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승리와 성과는 결국 탁월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의 사상과 당의 령도를 받들고 실현해나가는 충직한 전사들, 당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룩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실현해나가는 당일군들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것이다.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자면 지휘관이 대담한 전투행동으로 돌격로를 열어나가야 하는것처럼 경제건설투쟁에서도 성과의 비결은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있다.

당일군들은 늘 군중의 앞장에 서야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고 애로와 난관에 부닥치면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전투마당에서 어려운 정황이 조성되면 전사들이 지휘관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고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대중은 당일군들의 얼굴부터 쳐다보게 되며 그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투쟁하는가 하는것을 지켜보게 된다. 만일 당일군들이 애로와 난관 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앞에서 당황하게 되면 군중도 사기를 잃고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당일군들이 사소한 주저나 동요도 없이 혁명의 전위투사답게 앞장에서 애로와 난관을 뚫고 힘차게 전진하면 군중도 신심과 용기를 내여 따라나서게 된다.

원래 난관과 시련 앞에서 주저하거나 후퇴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 직업적인 혁명가, 혁명의 전위투사들인 당일군들은 난관앞에서 물러서거나 주저하여서는 안된다. 난관앞에서 한걸음 물러서기 시작하면 두걸음 물러서게 되고 나중에는 맥을 놓고 아주 주저앉게 된다. 난관앞에서 물러서는데 버릇된 사람은 아무 일도 할수 없다. 혁명에서 승리하고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난관을 맞받아 돌진해야 한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전진하는 사람만이 창조의 기쁨을 향유할수 있고 투쟁의 보람을 느낄수 있다. 때문에 전진하는 대오의 앞길에 불타는 강과 험한 산악과 진펄이 막아서더라도 당일군들이 혁명의 전위투사가 되여 앞장에서 내달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야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단숨에 해제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된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는것은 대중의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들은 대중의 정치적 교양자이며 조직동원자이다. 당일군들의 기본사업대상은 사람이며 군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은 당일군의 본신임무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임무로 하는 당일군들의 모든 활동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진행되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 인민대중을 떠난 당일군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하고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떠난 당일군의 본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일군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며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발동하고 조직동원하기 위한 위력한 방법은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이다.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불러일으키는데서 당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게 된다. 당일군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거나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지시나 하고 요구만 하여서는 사업권위를 세울수 없고 발언권을 가질수 없다. 당일군들이 실천투쟁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군중은 잘 듣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당일군의 말이 씨가 먹지 않고 날이 서지 않아 광범한 대중은 고사하고 몇사람도 불러일으킬수 없게 된다.

당일군은 앉아서 말공부나 하고 남들을 보고 하라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일군들이 말만으로는 혁명가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고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사업을 잘하고 일을 본때있게 해제끼는 당일군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며 실지 행동으로 혁명임무를 수행해나간다. 옛날부터 일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당일군이 어렵고 힘든 일에 발벗고나서서 모범을 보여야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당일군의 호소에 광범한 대중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직동원하자면 당일군들자신이 먼저 기발을 들고 앞장에 나서야 하며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당일군들이 정치활동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으며 대중의 조직동원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책임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여 앞장에서 달려나가야 아래일군들이 따라나서게 되며 모든 일군들이 선봉적 역할을 하게 될 때 군중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된다.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벌려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우리 전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이 보여준 실천적 모범이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전천군은 강하천이 비교적 많은 고장이다. 우리 군에 있어서 강하천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큰물피해를 미리 막고 도시와 마을, 토지와 공장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국토관리사업이였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면서도 작업량이 방대하고 일이 어렵다는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군안의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고있었다.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 한두번의 포치나 조직사업만 하여서는 강하천관리사업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없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였으며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이 필요하였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당의 모든 일군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장자강의 둘제방을 보기 좋게 선참으로 쌓아놓았다. 군당일군들의 선봉적 역할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른새벽에나 깊은 밤에나 군중이 있고 국토관리사업이 벌어지는 전투장에는 언제나 당일군들이 앞장에 서있었다. 화암협동농장의 뙈기논을 규격포전으로 정리하는 앞장에도 생눈길을 헤치면서 무평리의 비탈밭에 퇴비를 실어내는 농장원들속에도 당일군들이 함께 있었다.

당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은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그들을 고무추동하였다. 군당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에 고무되여 군급 기관일군들모두가 따라나섰고 기관, 기업소 종업원전체가 떨쳐나섰다. 온 군이 국토관리사업으로 들끓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군안의 크고작은 강하천들에 수십여리의 제방을 쌓고 10여정보의 새땅을 얻어내였으며 군을 보다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실로 군당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은 사람들이 당일군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의 호소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대중을 가르치고 이끌어나갈 때 안되는 일, 안풀리는 문제가 없으며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당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불러일으키게 한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여 대중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지금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대건설행군에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전례없는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대건설행군은 나라의 정치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조국의 일대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탁월한 령도력과 비상한 조직력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총동원하여 굽임없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단련되고 세련된 인민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오랜 기간 간고분투하여 마련하여놓은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한 토대가 있다.

문제는 우리 당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떻게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조직들이 활기있게 움직이고 당일군들이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게 하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훈이 창조되게 할수 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이야말로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이끌고 힘차게 전진할 때이다.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련이어 나서고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거창한 진군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당일군들로 하여금 혁명의 기수가 되여 힘차게 전진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당일군들은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왔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대오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억세게 싸워왔다.

해방직후의 복잡한 정세속에서 안팎의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을 물리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 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것도 혁명의 지휘성원들이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결사전의 앞장에서 혈로를 헤치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간것도 우리의 정치일군들이였다. 전후 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중의 앞장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것도 당일군들이였으며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조성되였을 때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천리마대진군의 앞길을 열어나간것도 그리고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대비약을 이룩하는 투쟁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선구자들도 바로 우리 당 일군들이였다. 영광의 70년대를 거쳐 비약의 80년대를 이어가는 오늘의 보람찬 진군의 앞장에도 당일군들이 굳건히 서있다.

참으로 우리 혁명의 자랑찬 로정우에는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난관과 시련 앞에서 순간의 주저나 추호의 동요도 없이 견결하게 투쟁하며 전진해온 당일군들의 빛나는 위훈이 아로새겨져있다.

당일군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굽임없이 투쟁하며 전진하는 혁명가답게 대오의 앞장에 서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적교양자이고 기수입니다. 그런것만큼 당일군들은 마땅히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당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지니는것은 혁명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과업이다.

혁명성은 혁명가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투쟁이 없는 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혁명성이 없는 혁명가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혁명성은 혁명과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며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숭고한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다.

혁명성의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사람들이 지닌 혁명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하여 높이 발양되게 된다.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과 희생성도 혁명성에서 발현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혁명의 기치를 고수해나가는 확고부동한 신념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있다. 혁명성이야말로 사람들을 언제나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혁명가들은 혁명의 길에 나서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일생동안 혁명성을 견지하여야 혁명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영원히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참된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될수 있다.

당일군들은 높은 혁명성을 지닌 혁명의 기수가 되여야 하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것이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는것은 당일군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고상한 풍모이다.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혁명의 참된 기수가 될수 있다.

아무런 연구와 타산도 없이 혁신의 구령만 웨치거나 혁명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적시지 않는것은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이며 충실하지 못한 행동이다. 충실한 일군은 말이 아니라 헌신적인 실천투쟁으로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해나간다.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말만 하여서는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치울수 없고 가벼운 종이장 하나도 들어옮길수 없다. 우리에게는 말보다 실천으로 일을 많이 하면서 몸을 적시고 투신하는 일군이 필요하다. 말이나 걸치레로써가 아니라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면서 뛰고 또 뛰는 사람이 진짜 의리와 신념이 있고 사상적으로 순결한 일군이며 진심으로 령도자를 받들고 실천행동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혁명전사이다.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전사, 당일군의 영예는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200일전투의 앞장에서 투신해나가는 이악하고도 헌신적인 투쟁속에서 빛나게 된다.

당일군들은 200일전투의 앞장에 서서 실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줄 알아야 하며 걸린 문제를 푸는데 발벗고나서야 한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고 불러일으키는것은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당일군들은 정치활동가이며 정치사업은 당일군의 본분이다. 당일군들은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본성적 요구와 정치활동가로서의 본래의 사명에 맞게 모든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하는데 복종시키고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켜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당일군들이 대전설행군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된다는것은 결코 앞에 나서서 구령이나 치고 나가자고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래 당일군은 구령을 치고 명령하는 사령관이 아니라 대중을 교양하고 떠밀어주며 불러일으키는 정치위원이다. 혁명의 기수로서의 당일군의 역할은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데서뿐만아니라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표현된다.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고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여기에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당일군들은 어떤 조건에서나 명령을 내리고 구령을 치는 사령관이 될것이 아니라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대중을 일깨워주고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고무하고 이끌어나가는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혁명의 기수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당일군의 활동은 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된다는것은 곧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중과 떨어진 혁명의 기수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 사업을 떠난 당일군의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때문에 당일군들이 대중과의 련계와 접촉을 강화하며 그들을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고 불러일으키자면 아래에 내려가고 대전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야 한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야 대중의 앞장에 서서 실천적 모범을 보이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전설행군의 성과적 수행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대중이 살며 일하는곳에는 어디에나 당일군들이 내려가고 당일군들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 전진과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며 의도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고있는 현실에 침투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키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서도 제기만 받는 일군이 되지 말고 자신이 발벗고나서서 풀어주는 적극적인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성스러운 주체위업의 한길에서 혁명의 기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당일군들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으며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을 이끌어 혁명을 전진시키는 기수가 되고 선봉투사가 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당의 전사,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김 윤 혁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받들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날을 따라 더욱더 튼튼히 다져지고 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올해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중심적인 과업은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중심적인 과업은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4페지)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규모의 대건설행군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에 들어서던 지난해에 벌써 기간공업부문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것을 경제건설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본건설에 힘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첫 진군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현실태와 전망적인 요구,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것을 호소하고있다.

대건설전투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거창한 사업이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기간공업은 자립경제의 기둥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밀접히 맞물리는 문제나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의 발전을 추동하는 문제들은 중요하게 경제의 골간을 이루는 기간공업부문에서 전력과 석탄, 철강재를 비롯한 동력, 연료, 자재와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얼마나 많이 생산보장하는가에 달려있다.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와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결국 기간공업을 튼튼히 꾸리는가 못꾸리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푼전을 아껴가며 일떠세운 우리의 자립적 기간공업토대는 위력하며 그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경제건설에서 큰 역할을 하는 기간공업은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에 비하여 비교적 투자가 많이 들고 건설기간도

긴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인민경제발전에서 기간공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생산기술적 특성으로 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예견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지금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대건설행군은 바로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있다.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 중요대상건설을 빨리 끝내면 발전능력과 채탄능력, 강철생산능력 등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이 훨씬 더 높아나게 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가 확대강화될 때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와 1억 2,000만톤의 석탄고지, 1,000만톤의 강철고지를 비롯한 제3차 7개년계획에 예견된 이 부문의 중요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 석탄, 강철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날로 높아가는 식의주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다.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인민들의 전반적 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의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떨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생활과 련관되여있는 경제부문들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경제부문들을 발전시키는데서 현시기 큰 역할을 하는것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대상건설이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종합적 대화학공업기지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건설하면 한해에 100만톤의 카바이드와 75만톤의 메타놀, 10만톤의 비날론, 90만톤의 질소비료, 25만톤의 염화비닐, 25만톤의 가성소다, 40만톤의 탄산소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과 30만톤의 단백질먹이를 생산하게 된다.

위력한 경금속생산기지인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건설하여 청단지구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카리장석을 한해에 300만톤만 처리하여도 51만톤의 카리비료와 42만톤의 알루미나, 1,000만톤이상의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뜨락또르, 자동차와 현대적 농기계,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기 위한 50만정보의 분수식 발관개 건설을 다그치면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할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 진행하고있는 간석지개간과 새 땅 찾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리면 부침땅면적도 늘어나게 된다.

이 모든 여러가지 과업들을 빨리 수행하고 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할수록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경제부문들의 발전을 다그쳐 알곡과 고기, 알생산을 훨씬 더 늘이고 질좋은 다양한 천과 일용필수품들을 많이 생

산할수 있으며 현대적인 살림집도 대대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대건설행군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 때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보다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평양은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유서깊은곳이며 조선혁명의 중심지이다. 자랑찬 승리로 빛나는 우리 혁명은 평양의 유서깊은 만경대에서 시작되였으며 오늘도 평양은 변함없는 조선혁명의 심장으로 되고있다.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발원지를 잘 꾸리고 수령의 혁명업적을 빛내이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은 없다.

우리 당은 이미 1970년대와 1980년대초에 비파거리와 창광거리,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웅장화려하게 꾸리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로동당시대를 더욱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새로운 건축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대건설작전을 펼치시였다.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 건설은 대건설행군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것은 조선혁명의 발원지인 만경대와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도시로 전변시키는 규모와 폭, 수준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의 거창한 건설사업이다.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 건설이 완공되면 혁명의 수도 평양은 주체조국의 수도로, 인민의 락원으로 웅장화려하게 꾸려지게 되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이 마련되게 된다.

이처럼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대건설행군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 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길수 있을뿐아니라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크게 고무할것이며 자주의 새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달려온 단련되고 세련된 영웅적 인민이 있다. 이미 마련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한 물질기술적 토대와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풍부한 경험도 있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룩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7페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3대혁명을 적극 벌려나가는것은 대건설행군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혁들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여러차례의 방대한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원만히 수행하여 우리 나라를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수 있은것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왔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3대혁명을 벌려오는 장엄한 진군과정에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우리 혁명이 오늘과 같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였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주체사상과 3대혁명로선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는것이 올해 대건설행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대건설행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벌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것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여부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힘있는 무기는 바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구현하여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대중과 의논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혁명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 혁명성을 가지고 투쟁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기풍이며 고유한 일본새이다. 우리 인민은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투쟁함으로써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왔다.

오늘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대건설행군은 거창한 규모의 건설을 진행하는 어렵고 방대한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이다. 올해의 대건설행군을 통하여 우리는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귀중한 물질문화적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하게 되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우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다 휘황찬란할 앞날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대건설행군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이 한번 결심하고 정책적 과업으로

제시한것은 그 어느것이건 벌써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대건설행군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끝까지 집행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것은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금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대건설에는 방대한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이 동원리용되고있으며 건설장들은 창조와 혁신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쥔 경제지도일군들의 조직지도사업에 크게 달려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오늘의 대건설행군을 조직지휘할 영예로운 임무를 맡겨준 당의 두터운 신임과 인민들의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투신하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며 능숙하게 조직지휘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에서 큰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고리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여야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생산에 수송을 따라세울수 있다.

우리는 새 철길 건설을 다그치고 아직 전기화되지 못한 구간의 전기화를 마저 끝내며 8축전기기관차와 100톤화차를 많이 생산하여 철도의 중량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생산에 수송을 따라세울수 있다.

대건설행군을 다그치자면 건설을 담당한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을 담당한 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며 건설 력량과 자재,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그날 과제는 그날로 질적으로 어김없이 완수함으로써 공사일정계획을 최대한으로 앞당겨 수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때일수록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풀어나가며 실천적 모범으로 건설자들을 끊임없는 로력적 위훈에로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은 대단하며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대건설행군을 더욱더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내부예비를 모조리 동원하고 증산과 절약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중요대상건설과 련관된 공장, 기업소의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건설용 자재와 설비,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모든 힘을 집중하여 건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거창한 대건설행군에 발을 맞추어나가야 한다.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대건설행군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시한 중요한 구호이다. 우리는 당의 이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를 타고 내달려 전후재더미우에 튼튼한 경제토대를 쌓아올린 그 기세로, 속도전을 벌려 20리 날바다우에 세계적인 대갑문을 일떠세운 그 기백으로 대건설행군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것은 올해의 중요한 경제건설과업

홍 성 남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고조를 이룩하여야 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과업이다. 우리앞에 나선 경제건설과업에서 중요한것은 200일전투를 다그쳐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에 예견된 이 부문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는데서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의 휘황한 진군로를 따라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서 커다란 로력적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4페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지금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대건설행군에서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기간공업은 인민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로 되는 공업의 골간부문이다. 다시말하여 기간공업은 전력, 석탄, 금속, 기계, 화학 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발전에서 골간적 의의를 가지는 부문들로서 생산수단을 창조하는 물질생산분야인것이다. 기간공업은 자립경제의 기둥이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대건설행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기간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곤난을 아껴가며 일떠세운 우리의 자립적 기간공업토대는 위력하며 그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어떤 어려운 과업도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특히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대진군운동을 벌리면서 기간공업부문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는것을 경제건설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본건설에 힘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첫 진군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첫 진군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기간공업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은 올해에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확고한 결심밑에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의 의도대로 기간공업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여야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력사적 로정은 바로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였으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고 그 위력을 튼튼히 다져온 빛나는 력사적 로정이였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랑찬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현대적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튼튼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힘있게 떨칠수 있었다.

우리 혁명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실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도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여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날로 늘어나는 물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다.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현시기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원료, 연료, 동력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는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데 있다.

전력, 석탄, 금속 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에서 기본건설에 힘을 넣어 새로운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고 매장량이 많은 여러 지구 탄광들의 개건확장과 새로운 탄광들의 개발을 다그치며 강철생산능력을 늘이면 이 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가 훨씬 확대강화되게 된다. 기간공업의 생산기술적 토대가 확대강화될 때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골간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의 규모는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의 생산능력의 크기에 규제적인 작용을 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여 원료와 연료, 동력을 자체의 생산으로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록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게 되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은 보다 강화되게 된다.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기간공업부문의 발전에 달려있다.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큰 역할을 하고있는 오늘 전력, 석탄, 금속 공업뿐아니라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면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전자, 자동화 요소와 장치들을 많이 생산보장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할수 있다.

이것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곧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풀고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적극 다그쳐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의 의도대로 기간공업의 생산기술

적 토대를 확대강화하여야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전례없이 높은 목표이며 나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생산의 높은 장성을 예견한 방대한 계획이며 여기에 반영된 기간공업부문의 중요한 목표들은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여야 실현할수 있는 높은 목표이다. 이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쳐 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특히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가 공업생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여 보장할것을 예견한 방대한 경제건설계획이라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기간공업부문의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되며 공업발전수준도 훨씬 높일수 있다. 그리고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위력한 기간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술개건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가 확대강화될수록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의 전력고지, 석탄고지, 금속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는 석탄과 전력, 철강재를 비롯한 원료, 연료, 동력을 충분히 생산보장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나갈수 있다.

이처럼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대건설행군에서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참으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올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데서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그것을 위한 건설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보다 능률적이고 정밀한 현대적설비로 개조하고 생산능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4페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도는 기본건설을 다그쳐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이다. 기본건설을 다그쳐야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큰 규모에서 더욱 확대할수 있으며 현대적인 기술로 그것을 튼튼히 장비할수 있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더욱 힘

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문의 중요대상건설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기본건설 대상과 방향, 건설규모와 건설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지금 진행하고있는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서두수발전소 3단계공사를 상반년안으로 끝내여 120만크바이상의 발전능력을 조성하며 금강산발전소, 녕원발전소, 희천발전소, 남강발전소, 금야강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력공업을 앞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업이다.

전력공업과 함께 석탄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원료, 연료,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안주지구,순천지구,북부지구를 비롯하여 매장량이 많은 여러 지구의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탄광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을 훨씬 늘여야 한다. 그래야 연료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연료의 수요를 더욱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금속공업을 발전시켜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는것은 전반적인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단계확장공사를 1.4분기안으로 끝내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200만톤 능력의 새 강철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매장량이 풍부한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당면해서는 1,000만톤, 전망적으로는 1,500만톤 능력의 현대적인 대규모철정광생산기지로 꾸리는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수행해야 할 기간공업부문의 대상건설은 규모가 방대할뿐아니라 그 대부분이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의 건설기간을 줄이고 조업기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건설로력과 자재, 대상설비와 건설기계설비들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오늘 당의 부름을 받들고 대건설행군에 떨쳐나선 근로자들과 군인건설자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으며 물질적 보장사업만 잘한다면 건설속도를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물질적 보장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정무원 위원회, 부 일군들과 기관, 기업소 일군들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자재와 설비, 로력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이 부문의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의 힘있는 지원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에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요구되며 그것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때문에 전국, 전민이 떨쳐나 힘있게 지원하여야만 기본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이 부문에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현대화하여 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공업건설정책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오늘 기간공업부문에는 커다란 생산능력이 마련되여있다,

지금 있는 기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설비를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정비보강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높인다면 큰 투자를 들이지 않고서도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더욱 확대강화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금속공장을 더욱 정비보강하여 철강재생산능력을 늘이며 기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쳐 륜전기계, 공작기계 생산능력을 높이고 자동화요소, 전자장치들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공업의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기술적 조건의 변화에 맞게 생산공정을 더욱 정비보강하여야 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기본건설에 리용되는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건설속도와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담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없이는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울수 없다. 우리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간공업부문의 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올해에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것만큼 건설설비들을 능률적이며 현대적인것으로 개조하고 건설공정을 기계화하며 새로운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지도기관들과 건설기관들에서는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드는것이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 사업은 기본건설과 기술개조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사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많은 건설력량과 물자자원을 원만히 동원해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기간공업부문과 건설부문 일군들이 계획화사업, 자재보장사업, 설비관리사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관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며 현실에 기초하여 정확히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할 때만이 기본건설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물자재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는것이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에 동원되는 물자재산과 기계설비, 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해 투쟁할 때 우리는 올해 전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적은것을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며 자체의 생산으로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의 중요한 열쇠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정연하게 움직이는 강한 규률과 질서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우리 사회의 어느 부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거기에는 당과 국가가 제정해준 제도와 질서가 있다.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의무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앞에 나서는 방대한 과업,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특히 계획규률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계획은 어길수 없는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자재보장계획, 수송계획, 로력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 원가계획을 비롯한 생산 및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계획을 제때에 수행하여야 한다. 계획규률을 어기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법적, 행정적 투쟁을 힘있게 벌려 철저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의 담보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투쟁과업은 명백하며 그것을 수행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겨진 과업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열쇠이다. 이와 함께 우리 일군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올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계획은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할것을 요구하는 계획이며 간고분투를 전제로 하는 투쟁목표이다. 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맡겨진 과업을 자기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는 확고한 립장과 견결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적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진펄길을 걷는 정신, 불타는 강을 건느는 정신으로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으로서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추세

전 정 희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에 떨쳐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앙양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을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밝히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를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 지혜의 산물이다. 과학기술의 역할에 의하여 로동도구와 로동대상들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범위가 더욱더 넓어지게 된다.

사람들의 실천투쟁속에서 발생한 과학기술은 오늘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시대는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과학기술은 지나온 여러 세기들과는 비할바없이 넓은 범위에서 고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사람들의 창조적 힘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추세이다.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낡은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끊임없이 교체되고있다. 그리하여 경제발전에서 노는 과학기술의 역할은 더욱 더 커지고있으며 사회적 생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참으로 인간의 창조적 지혜의 산물인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준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일수 있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세계경제발전의 기본추세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것을 더욱 절실

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2～483폐지)

오늘 우리앞에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당면하게는 올해 대건설행군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담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없이는 새 전망계획의 과업들을 수행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없다.

기술혁명의 시대인 오늘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기 위한 위력한 방도의 하나는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열쇠의 하나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날로 늘어나는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원료와 연료, 동력은 가장 많이 소비되고 가장 많이 요구되는 생산의 중요 요소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큰 규모에서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는 오늘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도 바로 원료, 연료, 동력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원료, 연료, 동력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최근년간 기초과학은 자연을 사람들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효과적인 새 방법들을 수많이 발견하였으며 그 적용에 의하여 원료와 연료, 동력 자원의 원천이 늘어나고 생산과 리용 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합성원료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원자력을 리용하여 동력생산을 급속히 늘이고있다. 또한 새로운 금속재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재료들이 련이어 창조되여 리용되고있으며 연료와 원료 생산도 새로운 자원에 의거하여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정책적 요구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널리 개발하며 없거나 부족한 원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탐사와 채취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만 광물과 석탄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으며 새로운 수력자원개발 방식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전력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초무연탄과 저열탄을 비롯한 지방의 연료자원을 널리 리용하고 여러가지 열설비를 개조하며 석탄을 가지고 화학공업의 원료를 생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가공 및 합성 원료를 생산하는 긴절한 문제들은 오직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문제의 성과적 해결여부는 새로운 원천의 개발뿐아니라 리용기술을 발전시키는데도 많이 달려있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은 원료와 자재에 대한 수요의 적지 않은 부분을 절약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발전이 열어주는 이러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리용할 때 물자소비기준을 훨씬 낮추고 폐열과 폐설물, 부산물까지도 모조리 회수리용하여 생산의 보다

높은 장성을 보장할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기술장비를 고도로 현대화하여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기술장비의 현대화의 기본방향은 기계설비들의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 자동화이며 그것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생산의 효과성과 높은 속도는 결정적으로 과학기술적 구상이 물질화된 기계설비들의 발전에 달려있다. 기술경제적 수준이 높은 기계설비들로 장비하여야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할수 있게 된다. 새로운 자원절약기술공정을 받아들이며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것도 생산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기계수단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게 된다. 기계수단들의 현대화에서 오늘 특징적인것은 생산공정의 자동화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높은 자동선, 자동직장, 자동공장들이 창설되고 나아가서 사람의 생산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수행하는 자동로보트가 도입되고있다.

생산의 기술장비를 고도로 현대화하자면 전자공학, 자동화공학, 기계공학을 발전시키고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중요한 과학기술적 발명의 하나인 전자계산기는 사람의 여러가지 《지적》기능을 대신할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수단으로서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생산의 장성을 비할바없이 촉진시키게 된다. 기술공정의 자동조종체계와 설계체계에 전자계산기를 리용하면 그 생산능률이 훨씬 높아지며 동력소비가 여러배로 줄어든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기계설비들을 고도로 현대화하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새로운 기술로 개건하여 추가적인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게 한다. 특히 현시기 대전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늘이는데서 과학기술발전에 의한 최신기술수단들의 도입은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적극 도입하여야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적게 쓰면서도 생산토대의 건설을 질적으로 빨리 다그쳐 그 조업개시를 앞당길수 있으며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고도로 현대화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확고히 이룩해나갈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로 되는것은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워 생산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는데도 있다.

지금 생산장성의 예비의 하나는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예비는 큰 추가적 투자없이 생산을 비교적 쉽게 장성시킬수 있는 예비이다.

현대적인 기술수단과 새로운 원료, 연료 조건에 맞게 생산 기술공정과 방법을 개선하면 폐설물을 적게 내거나 모조리 리용할수 있게 된다.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의 개선은 어디까지나 기술공학과 기초과학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분야를 적극 개척하며 최신과학기술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기초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 토대우에서 진행하는것은 생산장성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고있는 현대적 공업은 낡은 수공업적 방법으로는 원만히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을 보장할수 없다.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경제관리는 경제조직사업을 객관적 경제법칙

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특히 현대적인 기술 수단과 수법을 관리운영사업에 적용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현대적 기술 수단과 수법에 의한 경영활동의 과학화는 경제적 과정과 생산실태를 신속정확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취할수 있게 하며 경제적 타산을 정확히 하고 최량계획방안을 세울수 있게 한다. 이것은 생산과 관리활동에서 있을수 있는 온갖 랑비와 손실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생산적 결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이처럼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 무한한 원천으로,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83 폐지)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다그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며 결심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힘을 넣음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은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발전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새로운 과학연구분야를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벌리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예견한 계획이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잘 세우고 정확히 수행하여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고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빨리 해방할수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반드시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하고도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정확히 반영하여 생산계획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에서 이 요구를 구현하여야만 과학기술이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는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게 되며 특히 경제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연구해내는데는 비교적 오랜 기일

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우는데서는 우선 전망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년간과학발전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잘 세우기 위하여서는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수준과 속도를 고려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선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적 요구를 옳게 타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에는 전망계획기간에 도달하여야 할 과학기술발전목표와 단계별 과업,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년간과학기술발전계획은 벌려놓지 말고 인민경제발전에서 당면하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부터 풀어나가도록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기술발전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정확하게 세울뿐아니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도의성》을 철저히 없애고 그것을 생산계획과 같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과학연구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그 성과를 생산에 제때에 받아들이는것이다.

현대과학은 지난 시기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비상히 높은 기술공학적 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의 위력한 원천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고있다. 오늘 생산과 기술의 그 어떠한 발전도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원만히 이루어질수 없다.

과학연구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자면 생산과 기술발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연구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과 기술발전에 요구되는 과학적 문제들을 빨리 풀어나갈수 있으며 과학을 생산과 기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우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호상관계를 옳게 설정하는것이다. 응용과학의 발전은 기초과학의 발전이 없이는 생각할수 없으며 기초과학은 응용과학의 발전에 전적으로 복무한다. 그러므로 기초과학을 언제나 응용과학에 앞세워야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과학자체의 발전, 응용과학의 발전을 다그칠수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생산실천에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생산의 과학기술수준의 제고,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는 결국 과학연구의 성과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 그것이 어떻게 은을 내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더우기 과학기술발전속도가 비상히 빠른 오늘의 조건에서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것이 인차 뒤떨어진것으로 되여 쓸모가 적어지거나 없어지게 된다.

과학연구성과를 빨리 받아들이자면 연구성과를 실천에 제기한 때로부터 실지 적용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결정적으로 줄일수 있도록 그것을 도입하는 매 단계들의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진행하며 련관된 고리들의 사업을 병행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원칙에서 과학과 기술, 생산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는것은 과학연구성과를 생산에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생산혁신자들을 망라한 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힘있

계 벌려 과학연구사업을 생산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연구성과의 생산적 도입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 도입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보장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는 많은 자금과 물자가 요구된다.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고서는 높은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할수 없다.

과학기술발전에 요구되는 자금은 과학기술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 과학과 기술의 발전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에 요구되는 자금과 함께 여러가지 설비, 자재들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인민경제적 의의가 큰 과학기술연구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빠른 기간내에 완성할수 없고 그 성과를 생산에 제때에 도입할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보장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세우고 필요한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줄데 대한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적,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과학기술을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을 기술혁명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도에서 기본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행정사업을 바로하는것이다.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대중에게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똑바로 인식시키며 과학기술발전에서 성과를 이룩한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줄 때 그들로 하여금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서 온갖 열성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할수 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적 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과학기술행정사업에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잘 보장하며 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도입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직접 담당하고있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오늘 우리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표시하고있으며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과학기술발전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는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화학을 비롯한 중요한 과학부문들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자신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새로운 과학기술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연구해낼수 있도록 안목을 더욱 넓혀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한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문제이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의도대로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와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김 명 훈

오늘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서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특히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절실한 문제이다. 교육의 질을 높여 능력있는 혁명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내야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이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데서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은 교육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면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32페지)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로동계급적 성격을 고수하고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교육은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적인 교육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교육사업에서 언제나 로동계급적 립장과 원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으며 이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군당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자기 단위의 정치, 경제 사업과 함께 교육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전국의 교육사업을 당의 의도대로 올바로 진행할수 있으며 당의 교육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우리 토산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 문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높이 받들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교육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계속 빛내일수 있었다.

우리 군에서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초기에 벌써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에로 넘어가던 시기에 우리는 그 준비사업에 힘을 넣음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우리 군의 교육사업실태를 깊이 료해하시고 토산군이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현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시면서 전국의 모범이 되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무한히 격동된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학교건설과 여러가지 실험실습기재와 교구비품을 마련하는 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조직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넓은 꽃대문을 앞당겨 열어놓고 학생들의 교육교양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남먼저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우리는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안고 교육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모든 교육조건을 현대적으로 마련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고 후대교육교양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우리 군에서는 그사이에 수많은 교실들을 새로 짓고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과목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현대적인 실험실습기지들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환등기, 투영기를 비롯한 실험실습기구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았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최근시기 고등중학교들에 전자기계실습실, 외국어시청각실을 잘 갖추고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다. 교원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실력도 훨씬 높아졌다.

교육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군안의 교원들과 학생들, 근로자들 속에서는 사상문화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그들모두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게 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가 《모범교육군》칭호를 쟁취하고 그 성과를 공고발전시킬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교육테제와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구현을 위하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여온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군당위원회가 내세운 새로운 목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과 수령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교육 환경과 조건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련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받을 때보다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그 영예를 계속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일정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였다.

그것은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자면 무엇보다먼저 일군들속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우고 그들이 이 사업에 계속 낯을 돌리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교육사업에 대하여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일군들속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하여야 그들로 하여금 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늘 노력하게 할수 있다.

우리는 《모범교육군》칭호를 쟁취한 이후에도 교육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경제사업일면에만 치중하였다. 그러다나니 당 및 행정경제 기관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교육사업에 낯을 돌리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지어 학교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제기되여도 시답지 않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였다.

우리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그릇된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모범교육군》의 영예마저 고수할수 없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다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에서도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우리는 우선 일군들속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도취하여 교육사업에 낯을 돌리지 않는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에 불을 걸었다. 군당위원회는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그릇된 현상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사상관점과 립장에 관한 문제로 심각하게 제기하고 사상투쟁을 벌리였다.

사상관점을 바로잡는 문제는 몇차례의 사상투쟁으로써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며 끊임없는 사상전을 통하여서만 해결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집행위원들을 비롯한 군안의 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교육테제와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토산녀자고등중학교에 주신 교시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토산군의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강령적인 교시와 결부하여 연구시키고 그 관철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족점과 구현방도를 찾는 방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그릇된 사상관점을 점차 바로잡고 그들이 교육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군당위원회가 내세운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는 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과 부장이상 간부들,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에게 군안의 학교를 하나씩 고정분담시키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사업을 지도방조하게 하였다. 그리고 군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할 때마다 일군들의 학교지도사업정형도 함께 총화하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렇게 군당위원회가 일군들과의 사업을 짜고든 결과 그들속에서는 자기 맡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나가 강연사업도 하고 교직원, 학생들과 자주 만나 담화도 하며 교수참관도 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교양에서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는 혁명적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교육행정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는 수시로 교육행정일군들과 마주앉아 사업정형을 알아보고 당의 교육방침 관철에서 걸린 문제들과 그 해결방도를 토론해줌으로써 그들이 자립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군안의 교육행정일군들은 학교들에 깊이 들어가 교수교양사업을 비롯하여 학교를 더 잘 꾸리고 관리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지도할수 있게 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고수하고 계속 빛내이자면 군당위원회가 일군들속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늘 후대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지도를 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고수하고 교육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본보기단위를 잘 꾸리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학교들을 더 잘 꾸려야 한다는것이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의 하나이다. 이 방법은 본보기단위를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로 하여금 풍부한 경험을 쌓게 하며 그 모범을 일반화하여 많은 일군들을 실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작전하고 내밀수 있게 한다.

우리는 본보기단위를 잘 꾸리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군당위원회가 결심한 새로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돌리였다. 우리는 교실들과 실험실습실들을 현대적으로 새로 꾸리고 여러가지 실험기구와 교구비품을 완비하며 학교의 교육적 환경과 조건을 더 잘 갖추기 위한 시범단위창조대상으로 토산녀자고등중학교를 선정하였다. 이 학교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군을 현지지도하실 때 학교를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려놓아야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신 교시를 받은 단위이다.

우리는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24개의 교실과 11개의 각종 실험실습실, 체육실, 강당을 갖춘 3층 청사를 속도전을 벌려 빠른 기간안에 지을것을 결심하고 달라붙었다. 군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후원단체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물리치면서 학교건설을 다그쳤다. 특히 책임일군들이 앞장섰다. 그들은 모자라는 자재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높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교구비품들과 기초과학과목 전용실습실들을 꾸리는 사업도 빨리 진척되여 계획보다 훨 앞당겨 토산녀자고등중학교는 현대적인 학교로 건설되였다.

우리는 인차 이 학교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한 단위에서 창조한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꾸준한 조직정치사업을 안받침하여야만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토산녀자고등중학교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과정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학교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우선 군안의 모든 학교 교장, 부교장들과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당비서들을 학교참관을 시키고 방식상학을 조직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일군들은 모두 토산녀자고등중학교 못지 않게 자기 단위의 학교를 전면적으로 개조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교들의 개조사업이 우리가 시범으로 내세운 토산녀자고등중학교의 수준에서 진행된것은 아니였다. 매봉고등중학교를 비롯하여 토산남자고등중학교, 합탄고등중학교 같은 데서는 그곳 일군들과 학교지도를 담당한 군당일군들이 합심하여 사회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교실을 새로 짓고 교구비품을 갱신하며 실험실습실을 현대화하는데서 모범을 보이고있었으나 적지 않은 학교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우리는 토산녀자고등중학교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기간에 분기에 한번씩 군안의 학교 교장, 부교장,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당비서들이 매 학교를 돌아보게 하면서 학교꾸리기정형을 집체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이것은 물론 일군들에게 학교를 꾸리는데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부족점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일반화하는 사업이 다 원만하게 해결된것은 아니였다.

일부 학교들이 물질적 토대를 갖추는 사업에서 현대화수준이 낮은 원인은 그 학교 일군들의 열성이 부족한데도 있었지만 주로 여러 부문의 실천능력을 가진 기술일군들과 전문가들이 딸린데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군안에 있는 유능한 목공들과 미술원들 그리고 교육실험실습기구들을 만들어본 경험있는 기능공들과 학술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써 기술집단을 무어 물질적 토대를 갖추는데서 뒤떨어진 학교들에 내려보내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 학교에 20일씩 묵으면서 물질적 토대를 현대적으로 갱신하는 사업을 적극 도와주도록 지도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군안의 모든 학교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다 새롭게 꾸릴수 있었다.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모든 교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5~26페지)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을 더욱 존엄있고 힘있는 존재로 키워내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으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교육교양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교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교육사업의 성과와 조국의 미래인 새 세대들의 질적 상태가 규정된다.

교원들이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자면 자질을 높여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은 곧 학생들의 학과실력으로 나타나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고리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들이 교육실무적 자질을 끊임없이 따라세우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우리는 특히 군교원재교육강습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교원들의 자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군교원재교육강습소 지도교원들은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사업을 실속있게 보장하는것과 함께 시범상학, 방식상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원들속에 교수내용을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의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힘썼다. 이렇게 한 결과 교원들은 자기가 맡은 학과목에 대한 충분한 리해를 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수 있게 되였다.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며 내세우는것은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내세우는것을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만들어야 그들로 하여금 후대들을 우리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 혁명가라는 높은 긍지를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한몸바쳐나서게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교원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는 사업을 잘하지 못한 결과 이러저러한 편향을 낳게 하였다. 그것은 군안의 일부 지도일군들속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었다. 일부 일군들은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하여 교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꼭 풀어주어야 할 문제가 제기되여도 그저 스쳐버리는가 하면 어쩌다가 학부형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학부형으로서가 아니라 지도적 지위에 있는 간부로 행세하면서 문제토의에 성실하게 참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릇된 현상을 한시바삐 극복하지 않고서는 교원들이 교권을 세우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올수 있었다.

우리는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내세우는것을 사회적 기풍으로 만들기 위하여 누구보다 먼저 책임일군들이 후대교육에 남모르는 수고와 정열을 바치고있는 교원들을 례절있게 대하며 그들의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교권을 세워주는데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우리는 여러 계기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교원들을 내세우는 사업도 활발히 조직진행하였다. 지난해 여름 군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조선인민군 영웅들과 군안의 교원, 학생들과의 상봉모임은 교원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에게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준 하나의 실례로 된다.

상봉모임에 초대된 2명의 인민군영웅들로 말하면 그들은 다같이 토산남자고등중학교출신이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인 서해갑문 건설에 참가하여 인민군군인으로서 위훈을 떨침으로써 영광스럽게도 로력영웅으로 되였던것이다.

우리는 상봉모임에서 영웅들의 위훈을 소개하면서 우리 토산군의 자랑인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날수 있게 된것은 우리 군안의 교원들이 당의 방침대로 교육사업을 잘하였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상봉모임에 참가한 모든 교원들은 《모범교육군》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긍지를 가슴깊이 지니고 교육사업을 더 잘해나가게 되였으며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진심으로 교원을 따르고 존경하게 되였다.

우리는 특히 교육사업에서 공로있고 능력있는 교원들을 적극 내세워주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이 후대교육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나설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교원들을 존경하고 믿어주며 내세워주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아줌으로써 교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생활상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오직 교육사업에 힘과 지혜를 다 바칠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 군안의 모든 교원들은 가장 훌륭한 문화주택에서 살고있으며 독신교원들은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려진 아담한 교원합숙에서 생활을 즐기고있다.

우리는 이처럼 교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그들모두가 교육자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고있다. 오늘 우리 군안의 모든 교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현실문제들을 옳게 결부하여 교수준비를 잘하며 교수와 실험실습을 비롯하여 과정안에 예견된 모든 형태의 교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혁신하고있다. 우리 교원들은 교수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을 계획적으로 지도하고있으며 그들이 학습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하고 사회정치활동을 비롯한 과외생활을 실속있게 하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군안의 학생들속에서는 학습제일주의기풍이 지배하게 되였으며 모든 학교들이 우등생, 최우등생 학급대렬을 더욱 늘여가고있다.

우리가 위대한 교육테제와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구현하여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는 당의 기대와 요구에 비추어볼 때 아직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족점들도 적지 않다. 우리 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모범교육군》의 영예드높이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것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자

허　　　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지난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정당한 제안들과 그 실현을 위한 노력,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실현하고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시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수 있는 획기적인 구국방침, 북남련석회의 방안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은 북과 남사이에 오래동안 격페되여있는 장벽의 문을 열고 첨예한 반목과 대결에 종지부를 찍으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분렬의 비운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구국통일의 휘황한 등대이며 고무적 기치이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통일문제와 관련한 원칙적 립장을 철저히 구현하고 북남련석회의방안을 조속히 실현하여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할 확고한 신심과 결의에 넘쳐있다.

1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것은 오늘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것입니다.》

(《신년사》, 1988년, 단행본, 10페지)

오늘 나라의 통일위업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는가 하는것은 이 문제해결의 직접적 당사자들인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다시말하여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 문제가 제기된다.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상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인 동시에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다시 합치는 문제인것만큼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동족을 반대할것이 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켜야 하며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면서 반목질시하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수천년을 두고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오며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인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은 본연의 자세이다. 반목과 대결자체가 지배와 예속을 추구하는 적대적 국가들사이의 관계문제로서 동족사이에는 있을수 없는것이다. 물론 북과 남에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

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지 못할 리유로는 될수 없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서로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민족적 리익을 앞에 내세운다면 북과 남은 능히 화해하고 단합할수 있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주의주장이나 당파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적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나서야 한다.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하는것은 다음으로 지난날 대화는 있었어도 진전이 없었고 합의는 있었으나 실천이 없었던 북남대화의 력사적 경험의 총화로부터 제기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하려는 애국애족의 립장으로부터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을 거듭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84년 가을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따뜻한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막대한 량의 구호물자를 제공한것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기울여온 인내성있는 노력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우리는 대화분위기를 마련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군사훈련을 중지할 결단을 내렸으며 1986년에 전연과 초소에서 15만여명의 병력을 떼여내여 사회주의대건설장에 돌린데 뒤이어 지난해에는 10만명의 병력을 축감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다. 사실상 우리의 이러한 성의있는 노력에 상대편도 우리에게 성의를 보이면서 상응한 긍정적 조치를 취했다면 오늘 북남관계는 개선되고 조선반도정세는 나라의 통일위업에 리롭게 호전되였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위장평화공세》니, 《적화전략》이니 뭐니 하면서 미국과 함께 대결과 분렬 정책을 추구해나섬으로써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대화들은 중단되고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있다.

현실은 속에 칼을 품고 대결과 분렬을 추구한다면 북남대화자체도 열릴수 없는것은 물론 힘으로 승부를 겨룰내기를 해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민족최대의 숙원인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면 북과 남이 민족적으로 화해하고 단합하며 통일을 위하여 힘을 합쳐나가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하는것은 또한 첨예한 현정세의 요구이기도 하다.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공동의 구국대책을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집결된 가운데 오래동안 지속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는 쌍방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끝없이 조장시키고있으며 그것이 쌓이고쌓여 오늘에 와서는 그 어떠한 우발적인 사소한 사건으로 해서도 온 나라를 전화에 휩싸이게 할수 있으리만큼 극도로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미 1,00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여있는 남조선에 《랜스》 미싸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핵운반수단들이 련속 투입되고 대규모의 핵저장고들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언제 폭발을 일으킬지 모를 위험한 핵화약고우에 올라앉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과 함께 핵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고있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침략전쟁계획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전쟁연습을 그칠새없이 감행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내부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정세를 더욱 첨예한 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더우기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올림픽의 《성과적 보장》을 운운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북남대결소동을 더욱 강화해나서고 있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은 올림픽경기를 앞두고 올해에 남조선에로의 미군무력의 신속한 전개, 공중경보체계의 확립, 새로운 탄약의 대대적인 비축, 남조선해역에 미태평양함대의 상시적인 배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강화 등 새로운 군사적조치를 취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미군의 《군사특별지원》조치들이 공공연히 추진되고있다. 이것은 전쟁전야에나 볼수 있는 험악한 사태이다. 지금 세계가 남조선내부형편으로 보나 북남관계로 보나 1988년도가 조선반도에서 가장 긴장하고 복잡한 시기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만일 오늘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그대로 지속시킨다면 북과 남사이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긴장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결국은 조선땅에서 또 한차례의 전쟁이 터지는것도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수수방관할수 없는 사태이다.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분렬을 지속시키는 것은 통일대화를 가로막고 민족의 영구분렬과 《두개 조선》조작을 추구하는 외세에 어부지리를 줄뿐이다. 대결과 분렬로 헤아릴수 없는 민족적 재난과 고통을 겪어온 40여년의 치욕스러운 력사와 결별하고 민족적 리익을 지키자면 동족끼리 승벽내기를 할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이 길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을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적 요구로 내세우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립장을 진실하게 보인다면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단체 및 재야의 각계 인사들은 물론, 집권자들과도 인민들의 의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아무때나 만나 대화를 할것이며 모든 사람들과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집체적으로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것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롭게 살아가려는 립장만 가진다면 누구와도 만나 통일대화를 할데 대하여 밝혀주신 방침은 오늘 격페상태가 지속되고 대결상태가 극도에 이르고있는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방침으로 된다.

2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서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을수 있다. 그 여러가지 방도들가운데서 현시기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실현하는것이다.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은 현시기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획기적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는 매우 정당한 구국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남련석회의가 마련되면 북과 남의 격페상태를 마스고 온 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무엇보다도 오늘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들을 풀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구국방안이다.

현시기 북과 남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

지하고 다국적 군축회담을 마련하며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호상비방중상을 중지하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서 현실적으로 걸리고있는 매듭을 푸는것으로 된다. 핵공격을 전제로 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만 놓고보더라도 이것은 민족내부에 불화와 대결을 조장시키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위험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는 준전시상태에 들어가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에 놓이고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하는것이야말로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군축이 실현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조성될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 무장충돌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수 없다. 북과 남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롭게 살려면 쌍방이 무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군축회담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 있는 다국적 군축회담이 마련되여 순조롭게 진척되게 되면 북과 남의 무력은 10만명이하로 축감되고 외국군대도 없어지게 될것이며 조선반도는 북침도 없고 남침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 완충지대, 비핵평화지대로 되고 우리 나라에는 완화와 평화의 새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현시기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고있는 첨예한 문제의 하나는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문제이다. 평화와 친선, 단결의 국제적인 체전인 올림픽경기대회가 분렬된 우리 나라에서는 대결을 조장시키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데 악용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중대한 발기를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가 지난 1월 12일부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이 단독으로 개최하려는 올림픽경기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제24차 올림픽경기참가신청마감날자에 관계없이 공동주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는 립장을 밝힌것은 전적으로 정당한것이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도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가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두개 조선》 조작에 리용되는것을 반대하면서 공동주최를 실현할데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 절박한 문제를 풀지 않고 올림픽의 단독개최를 강행한다면 북과 남사이의 대결은 더욱 첨예해지고 통일위업에 더욱 더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게 될것이다.

민족내부에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시키는 비방중상도 시급히 해결되여야 할 선결문제의 하나이다. 사실상 지금 벌어지고있는 비방중상은 단순한 비방선전의 한계를 넘어 동족을 원쑤로 적대시하며 지어 있지도 않는 각종 모략사건을 날조하여 상대방을 악랄히 비난공격하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북남사이의 민족적 단합과 긴장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소한의 문제들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문제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대로 북남련석회의를 열고 이러한 초미의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면 이 땅우에는 의심할바없이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다음으로 첨예하게 제기되고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현시기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면한 문제들로 말하면 그 어느것이나 다 민

족의 리익과 관련되고 온 겨레의 의사에 맞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다. 이처럼 첨예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좁은 울타리안에서 몇몇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마주앉아 협의해결할수 없다는것은 지난 시기의 대화가 남긴 력사적 총화이며 귀중한 교훈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교훈일뿐아니라 오늘 절대다수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요구이기도 하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여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히 대두하고있으며 통일문제해결에 직접 참가하려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요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더우기 지난해 12월에 남조선에서 있은 《대통령선거》결과는 집권자들이 결코 절대다수 인민들의 의사를 대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전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토의에 특정한 정당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각 당, 각 파, 각계 인사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또한 올해에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몇가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1988년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다.

1988년은 남조선내부형편으로 보나 조선반도정세로 보나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복잡한 해로 될것으로 예견된다. 이것은 남조선의 절대다수 인민들과 청년학생들 그리고 조선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세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견해이며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고있는 응당한 우려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민주세력을 일방으로 하고 극소수 매국적이며 분렬주의적인 군부파쑈세력사이에 치렬한 대결이 벌어지고있으며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 첨예해지고있다. 지난해 파쑈적인 《4.13조치》반대투쟁으로부터 6월인민항쟁과 7~9월 로동자들의 투쟁을 거쳐 12월의 군정종식을 위한 투쟁에 이르는 영웅적인 투쟁의 나날에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위력한 투쟁력량으로 자라난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애국적 민주세력은 기어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정을 종식시키고야 말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또다시 대중적 항쟁에 궐기하면 남조선에서 민주세력과 군부파쑈세력사이에는 전면대결이 벌어지게 될것이며 그 결과로 남조선내부가 걷잡을수 없이 혼란되고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군부독재체제에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게 되면 군부강경파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어떤 부질없는 짓을 할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북과 남이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북과 남사이에는 진실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기운이 조성될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은 더욱 첨예화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지도 않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침》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떠들고 그 누구를 《응징》하고 《보복》하겠다고 하는것자체가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내외인민들의 념원에 배치되게 강행하는것으로 하여 위기가 조성되는 경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면서 불장난을 하려는것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실로 올해 1988년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길로 돌아서는가 아니면 극단한 대결끝에 돌이킬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는 분수령을 이루는 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는 가장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구국대책으로 된다.

북남련석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

제를 비롯하여 당면한 문제들이 협의해결되면 무겁게 드리운 전쟁위험은 가셔지고 민족에게 핵참화를 가져올 핵전쟁요인을 없앨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의 확고한 전제가 마련될수 있을것이다. 또한 북남련석회의가 열리고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북과 남사이에는 반목과 대결로 굳게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는 봄날의 눈석이처럼 녹아내려 중단된 여러갈래의 대화들도 재개될수 있고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길도 열리게 될것이며 진실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새력사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의 고려민주련방국가창설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지금 전반적인 국제정세는 완화의 징조를 보이고있으며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하여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데 대한 방침은 시대의 흐름과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참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 방침과 방안들은 조국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자주적 립장과 이 문제를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창조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한 매우 의의있는 제안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구국의 진로와 민족번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탁월한 령도력과 넓으신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획기적인 구국대책이다.

3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들과 방안들을 철저히 관철하고 구현함으로써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모든 조선사람들이 한결같이 성스러운 민족적 위업 실현에 떨쳐나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3페지)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에서 단선, 단정음모가 로골화됨으로써 국토와 민족이 영구분렬의 위기에 처하였던 1948년에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고 구국통일의 방도를 명시하시였던 력사적인 4월련석회의의 40돐이 되는 해이다.

온 민족은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대로 북남련석회의를 열고 북과 남사이에 절박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할것이다.

지속되는 분렬과 대결로 말미암아 겪는 민족적 재난이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고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열망이 더욱 간절해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의 기치밑에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제 정당, 사회단체들은 올해에 어떻게 하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지난 1월 13일 평양에서 련합회의를 열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실천대책을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북남련석회의의 북측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남조선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북남련석회의소집과 관련한 구체적 제안들이 담겨진 우리의 편지는 남조선측에 전달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북남련석회의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지금 내외의 이목은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게 될 북남련석회의방안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데로 쏠리고있다.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반역,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렬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바라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애국애족의 높은 뜻이 담긴 이 력사적인 제안에 주저하여 응해나오지 못할 아무런 리유와 구실도 있을수 없다.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은 우리의 애국적이며 평화와 통일지향적인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지체없이 응해나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도 대화부정적이고 통일부정적이며 평화부정적인 자세와 립장을 버려야 하며 온 민족의 총의를 구현한 우리의 폭넓은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또한 자기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미국이 우리와의 회담을 회피하면서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소동을 강화해나서고있는것은 시대착오적인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위업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있지 않는 조건에서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일 명분이 없으며 그것이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겨냥한것이라면 쏘련과 핵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한 오늘에 와서 남조선에 끌어들인 핵무기를 유지해야 할 그 어떤 리유도 있을수 없다. 미국은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모든 침략무력을 철거시켜야 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여하에 달려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가혹한 군사파쑈독재체제밑에서 용감하게 싸웠으나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한 쓰라린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자신의 단합된 투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조선의 평화는 세계평화와 직결되여있다.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막는것은 끝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평화와 진보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와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새로운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 북남련석회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백방으로 협력해나서리라고 확신한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 긴장완화와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하나로 뭉쳐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안팎의 분렬주의자, 호전분자들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우리의 북남대화와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당한 제안들이 실현되게 되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나가는데서 가로놓인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나갈것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로므니아공산당 전국대표자회보고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는 1987년 12월 14일 로므니아공산당 전국대표자회에서 보고를 하였다.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로므니아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단계

로므니아에서의 거대한 혁명적 전변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룩되였다. 사회민족적 해방혁명이후 첫시기에 로므니아는 파쑈를 짓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에 적극 참가하는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일련의 사회적 개조와 농업혁명을 수행하는데로 넘어갔다.

1948년에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이행이 실현되였다. 산업, 은행 및 기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것과 함께 부르죠아지주제도가 청산되였으며 공업을 비롯한 기타 분야가 사회주의적 발전에로 넘어가게 되였다.

농업협동화는 1949년부터 1962년까지의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였으며 모든 사회경제분야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다. 이 시기는 실제적으로 약 20년이 걸렸다고 말할수 있다. 이 기간에 국가 및 협동적 소유 그리고 모든 사회경제분야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의 첫 단계의 승리가 이룩되였다.

로므니아경제의 이러한 모든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은 낮은 수준의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로 남아있다.

1965년 당 제9차대회는 공업 및 다른 분야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농업생산을 크게 늘이며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를 공고히 할데 대한 문제를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이것은 약 10년동안에 진행되였다.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생산력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이것은 로므니아가 사회주의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 즉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에로 이행할수 있게 하였다. 이 기간은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끝날것으로 예견하고있다.

이 모든 단계는 로동과 생활 그리고 분배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가장 좋은 조건에서 실현하며 높은 발전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로므니아의 사회주의적 조직과정과 사회주의적 발전과정의 전일적인 구성부분으로 된다.

우리는 생산력을 힘있게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의 성과적 전진의 결정적 요인으로 되는 지도의 완성과 사회적 관계의 완성 그리고 혁명적 로동계급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지금 로므니아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사회에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서 결정적인 단계에 있다. 당 제13차대회결정에 따라 199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가 발전도상에 있는 사회주의나라의 수준으로부터 새로운 높은 단계인 중간급의 발전수준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로므니아는 1인당 생산량에서 이미 많은 중간급 나라들의 수준에 있으며 일부 주요공업분야에서는 지어 고도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있다는것을 지적해야 한다. 이 모든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당 제13차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1990년까지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마련되여있다는것을 담보하여준다.

이와 함께 우리는 2000년까지의 전망

계획에 관한 당의 강령에 기초하여 생산력과 공업, 농업 및 다른 활동분야의 발전을 위한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할것이다. 로므니아는 발전된 나라들과 비교할수 있는 위력한 공업과 농업을 가진 나라로 될것이며 모든 활동분야의 전반적 진보를 보장할것이다. 그리하여 온 사회의 조화롭고 다방면적인 발전이 이룩될것이며 로므니아의 전체 공민들에게 보다 좋은 로동 및 생활조건과 인간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휘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게 될것이다. 나는 생산력발전과 공업, 농업의 발전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로므니아는 소유, 분배, 륜리 및 공명정대성에 관한 사회주의적 원칙들을 실현함으로써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을 훨씬 앞섰다. 우리는 50년동안에 걸쳐 당강령을 실현한후 즉 2000년 전후에 가서야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며 사회경제분야에서와 전체 인민의 물질적 및 정신적 복리를 실현하는데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적 발전에서 사회주의가 자기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로므니아민족과 단일민족국가의 발전, 로므니아의 전체 공민들 사이의 권리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통일단결 및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로므니아 공산당의 정책

로므니아는 단일민족국가이다. 민족의 발전과 단일민족국가의 형성은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이룩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하에서 새로운 성격,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동시에 오랜 세기를 걸치는 과정에 로므니아인민과 함께 각이한 민족의 공민들이 살게 되였다. 그들의 모든 발전은 로므니아 인민, 로므니아민족의 발전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우리 조국의 전체 인민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이들의 미래는 로므니아단일민족국가의 끊임없는 발전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로므니아민족의 로므니아공민들이나 다른 민족의 로므니아공민들이 다같이 함께 살고있는 모든곳에서 이룩된 성과는 그들의 공동의 로동의 열매이다. 미래와 그들의 복리는 그들사이의 단결과 협력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로므니아공산당이 권리의 가장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였다는것을 만족감을 가지고 말할수 있으며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것에 대하여서도 자랑할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계층이나 민족별을 가림없이 우리 조국의 모든 공민들사이의 통일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모두는 같은 인민의 아들, 같은 나라의 공민들이다! 우리 인민의 미래는 13차당대회결정과 나라의 사회주의발전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의 모든 아들들의 단합된 로동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우리는 민족주의, 민족배타주의, 유태인차별주의의 그 어떤 표현이나 잔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차별 또는 멸시의 형태를 결정적으로 배격한다. 같은 조국의 아들들로서 단결과 통일 그리고 협조의 감정을 힘있게 발전시키자.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파쑈적이며 인종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야기시키려는 일부 신파쑈반동분자들의 그 어떤 시도도 결단성있게 물리쳐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근로인민을 더 쉽게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분리시키려고 책동해온 가장 반동적인 세력들이 벌리는 외곡선전을 반대하는 확고한 립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평등, 친선, 협조, 평화의 정신에 따라 국제적 단결과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협조를 힘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상 및 정치 교양사업, 사회주의의식을 발전시키고 혁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사상사업, 정치교양사업은 언제나 특별한 의의를 가졌다. 사회, 민족적 해방혁명의 시기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시기에 생활한 세대들은 비합법적 투쟁의 나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나날들에 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희생성과 헌신성에 대하여 잘 기억하고있다. 참으로 사상정치교양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의 길에서 전체 인민의 힘을 묶어세우는데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이 길에서 우리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많은 난관을 이겨냈다. 생활은 우리 인민의 기대와 희망이 실현되였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는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간혹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난관을 이겨냈는가를 잊군한다. 오늘은 몇십년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런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이 보장되여있다.

동시에 우리는 헌신성과 희생성을 약화시키는 일부 현상 즉 자체만족감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있다는것을 말해야 할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희생성, 혁명성이 더는 필요없게 된것처럼 생각하고있다. 지어는 유감스럽게도 치부하려는 일부 경향들과 그리고 사회주의륜리와 공명정대성, 혁명성과 인연이 없는 다른 현상들도 나타나고있다.

생산력의 발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비하여 사람들의 사상, 정치 및 교양수준이 일정하게 뒤떨어져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민족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력발전에만 부단한 관심을 돌린 결과일수도 있으나 정치사업을 일정하게 소홀히 한데서 온 결과일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해당한 결론을 내리며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당간부들을 비롯한 전당의 사상수준을 높이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순간도 당의 강령인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자각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정치사상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모든 근로인민의 사회주의적 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로므니아사회발전의 새 단계에서 사상사업의 중요성은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커지고있다.

우리 나라와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들이 제기하는 복잡한 문제들은 폭넓은 사회정치적 견해를 요구하며 사회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국내 및 국외의 각이한 현상들 사이의 호상관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지식을 요구한다.

혁명의 새 단계는 모든 활동분야에서 보다 강한 혁명성과 투쟁정신, 헌신성을 요구하며 사회주의륜리와 공명정대성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것을 모든것의 첫자리에 놓을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은 모든것의 첫자리에 사회의 전반적 리익과 우리 모든 민족의 리익을 놓아야 한다.

나는 시인 죠르제 꼬슈복의 시 한구절을 다시한번 반복하려고 한다.

> 불평을 부리며 투쟁하는자들
> 제아무리 1선에 섰다한들
> 우리에게는 같은자들로 보인다.
> 도망치는 비겁분자와 한가지로!
> 불평은 오늘도 그 언제도
> 불필요한 울음으로밖에 되지 않으리!

모든 사상 및 정치 교양사업은 로므니아공산당의 과학적이며 유물변증법적 관점을 대표하는 당강령과 사상강령, 그밖에 당대회결정들, 당대표자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들, 우리 당의 다른 문헌들, 과학적 사회주의의 혁명적 원칙들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인민의 혁명의식을 높이

기 위하여 활발한 선전, 정치, 문화 사업을 벌려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출판물, 라지오, 텔레비죤과 같은 모든 대중보도수단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수단들은 정상적으로 모든 근로인민이 당의 결정과 나라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당의 정책을 정확히 알고 리해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중조직과 공동조직들의 사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문화회관, 구락부, 극장 및 다른 문화단위들이 근로인민의 혁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모든 사업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창조성을 힘있게 과시하는 계기로 되는 전국축전 《로므니아 노래》가 활동의 모든 측면을 다 포괄하게 함으로써 인민의 과학기술문화적 창조물과 인민의 창조적 재능을 꽃피우도록 하여야 한다.

창작동맹들은 선진적인 공산주의적 사상들을 긍정하고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새 인간 육성과 교양에 기여할수 있는 애국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의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하는 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웅대한 창조적 활동을 여러가지 형태로 형상한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소설, 시, 연극작품 기타 창작품들을 만들어 전민족의 활동에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발전의 새 단계를 반영하는 보다 새로운 혁명가요들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모든 정치교양사업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 우리의 공산당에 대한 사랑, 인민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른바 《인권》의 명목밑에 유혹과 매수 활동을 적극 벌리며 특히 오늘 국제적 판도에서 이름지어 부르는 기술인재들에 대한 지혜도적을 일삼는 외국의 선전에 대하여 더 확고한 립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판물, 라지오 및 텔레비죤은 이러한 책동을 폭로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떼여내며 그들을 사람들의 로동과 지혜를 착취하는자들에게 복무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책동을 보다 결단성있게 배격하여야 한다. 인간의 권리는 이것이 아니라 일할 권리, 배울 권리, 집을 가질수 있는 권리, 자기 나라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로므니아인민은 자기가 태여난 땅을 한번도 버린적이 없다. 이곳에서 2000년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많은 난관에 부딪쳤으나 그것들을 이겨냈으며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민족, 단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 땅이 그 어떤 차이에 관계없이 매 로므니아공민이 있을 자리이다.

애국주의교양은 사회주의건설발전, 새 인간의 형성과 뗄수 없는 한 부분이다. 우리 조국의 근로인민과 청년들의 의식속에 사회주의로므니아의 공민된 긍지와 세계에서 가장 정당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적극 참가한다는 긍지, 어떤 환경에서나 인민과 조국, 로므니아의 독립과 자주권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긍지의 감정을 심어주자!

전민족의 생명의 중심인 당의 지도적 역할의 끊임없는 강화, 조직정치사업의 개선과 책임성 및 당적 규률의 강화 그리고 모든 활동의 정확한 조직지도에서 당기관들과 당조직들, 간부들과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책임성 제고

모든 거대한 변혁과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발전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들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공산당의 령도밑에 이룩되였다. 당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새로운 길에서 전민족의 지도적 정치력량으로서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여왔으며 또 수행하고있다.

94년전 첫 로동자당의 창건 그리고 그후 66년전 로므니아공산당의 창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르죠아지주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의 시기에 로동계급과 선진적 민주주의력량들이 진행한 주요전투들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로므니아의 독립과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회민족적 투쟁의 조직자 및 령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사파쑈독재의 어려운 시기와 전쟁의 시기에 로므니아공산당과 사회민주당사이에 로동자유일전선이 형성되고 다른 로동자조직들이 형성되였으며 이 조직들은 사회, 민족적 및 반파쑈, 반제해방혁명수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44년～1948년 기간의 큰 혁명전투들의 시기에 로동계급의 통일과 로동자유일전선은 심각한 변혁과 사회개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놀았으며 공화국을 창건하고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할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였다.

1948년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합당에 의한 통일적인 로동자당의 창건은 약 150만명의 성원들이 망라된 위력한 당의 기초를 쌓았다. 이 당은 로동계급의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가장 옳고 정당한 사회제도를 건설하는데로 로므니아인민들을 이끌어나가는 책임을 걸머졌다.

지금 로동계급의 통일실현과 통일적인 로동자당창건 40돐을 앞두고 우리가 현실과 부정할수 없는 사실들에 기초하여 말할수 있는것은 로동계급의 통일과 로동계급의 통일적 당인 로므니아공산당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조국의 물질적 력량을 강화하는 길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할수 없었을것이라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370만명이상의 당원을 망라하고있는데 그중 53%는 로동자, 16%는 농민, 21%는 인테리, 나머지는 다른 사회계층이다.

녀성당원들의 수가 34%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은 강조할 가치가 있는것이다. 우리의 민족구성은 좋다. 또한 나이로 보면 40살까지의 당원이 약 50%를 차지하며 40～60살사이의 당원은 40%, 나머지는 60살이상이다.

제13차 당대회이후 입당한 새 당원들중 거의 80%는 공청출신이며 52%이상은 녀성당원, 70%는 로동자들이다.

우리는 기본사회계급들인 로동자, 농민, 인테리, 전체 인민과 굳게 단결된 위력한 당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응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수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는 7만 6천개이상의 기층당조직들과 공장, 기업소, 농업단위 그리고 기관들에 8,330개의 당위원회를 가지고있다. 나라의 모든 리, 도시들에 당위원회를 다 가지고있다.

우리는 위력한 당조직이 없는 사회경제단위가 없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모든 활동에서 당이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력사적 사명과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우리 당과 국가의 대내 및 대외 정책수행에서 전민족의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작하였으며 또 참작하고있다.

당은 우리 민족의 생명의 중심이며 여기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확고한 전진을 향도하는 창조적 정신이 빛을 뿌리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모든 활동분야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들이 직접적으로 당조직들과 공산당원들 그리고 당이 어떻게 활동하였으며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를 반영한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솔직히 말해야 할것은 이러저러한 분야에서 때로는 심각하게 나타났던 결함과 부족점들은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활동에서의 부족점과 결함들을 반영한다는것이다.

지금 거대한 혁명적 변화들을 총화하고 2000년까지의 전망을 제시하는 마당에서 혁명의 새로운 요구와 현 5개년계획과 2000년까지의 전망과업실현의 새

로운 요구에 맞게 당기관들과 당조직들이 지도적 정치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를 분석하여야 하며 아직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을 철저히 없애기 위한 필요한 대책들을 세우고 당기관, 당조직들의 활동을 바로잡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부터 나는 당기관, 당조직들이 각이한 분야의 활동을 조직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업, 농업 및 기타 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에서 해당 분야의 당기관, 당조직들의 사업에서의 부족점을 직접 찾아보게 된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야 할것은 여러 활동분야의 일부 당간부들을 포함하여 일련의 당조직들에도 자체만족, 자체위안의 현상들이 발로되였다는것이다.

이것은 각이한 부정적 현상들을 반대하는 활동과 모든 사업을 잘 조직하고 진행해나가는데서 부정적으로 반영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앞에서 일련의 부족점들과 부정적인 현상들을 솔직하게 말하는것은 취약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자기비판적으로 분석할줄 알며 사회에서의 자기의 역할 그리고 우리 민족을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로 령도하는데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줄 아는 우리 당의 힘을 보여준다.

우리는 매 당조직과 매 당기관이 모든 활동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결단성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당 및 국가 간부들의 정치사상적 준비정도와 기술 및 전문수준, 일반지식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광범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경제발전의 복잡한 문제들은 당 및 국가 간부들이 배우고 연구하며 또 배우고 연구할것을 요구한다는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정치사상수준과 과학기술전문수준을 일상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리해하지 못하고 뒤떨어질수 있다.

훌륭한 당 및 국가일군, 훌륭한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옳게 리해하여야 하며 생산력의 발전과 과학문화의 발전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계에 대한 발전으로 하여 나타나는 변화들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기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인민앞에 지닌 력사적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한다는것을 확증한 위력한 당, 참신한 당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발전, 지도와 계획화의 완성, 혁명적 로동계급의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전체 인민의 완전한 단결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주어야 한다.

혁명가, 직업적인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 당 및 국가 일군들은 당과 국가, 인민이 요구하는곳에서 그 어떤 임무도 수행할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사회주의의 전반리익, 인민의 전반리익 그리고 로므니아의 독립과 자주권의 전반적 리익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을수 있도록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옳게 리해하여야 할것은 간부나 일반사람들, 일군들을 보살핀다는것은 그들의 부족점과 잘못을 눈감아주는것이 아니라 철저한 비판적 립장에서 그들이 좋은 일군으로 남아있도록 이끌어주는것이라는것이다. 우리 당의 특징으로 되는 혁명적 인도주의정신의 요구대로 사업한다는것은 언제나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는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업에서 결함을 시정할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맡은 과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융화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공산주의자, 혁명가로서의 임무를 다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에 모든 분야의 부정적 현상들을 퇴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지도와 계획화 사업과 당 사업을 완성하며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현 5개년계획과 2000년까지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우리 조국에 사회주의를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중요한 단계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며 이것은 위력한 당, 높은 혁명성과 투쟁정신, 요구성 그리고 모든 활동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 매 당조직과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고서는 실현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 로동계급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당의 역할을 약화시키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당이 가장 선진적이고 자각적인 력량으로서의 역할, 전체 인민의 력량을 하나의 방향으로 단결시킬 사명을 지닌 민족의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고있다. 아니 그보다도 이 길을 계속 개척해나가고있다고 말하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이미 당 제10차대회에서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아스팔트길을 걸어오지 않았으며 또 그러한 길을 걷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왔다. 우리는 아직도 공산주의의 휘황한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 아직도 부족점들이 나타나고있으며 난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며 극복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한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위업, 인민의 자유위업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다. 사회주의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새로운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현한 모든것은 이 과업들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담보로 된다.

우리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우리가 내세운 웅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다 가지고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우리 사회의 령도적 계급으로서의 혁명적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는 훌륭한 로동계급이 있다. 우리에게는 로동계급과 굳게 단결하여 새 사회주의농업의 길로 확고하게 전진하고있는 새 농민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로동계급, 농민, 전체 인민과 밀접히 련결되였으며 높은 과학지식수준을 가지고 모든 사회경제발전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위력한 인테리가 있다.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통일전선을 통하여 다른 사회계층들과 굳게 단결하여 당의 령도밑에 진보와 문명, 복리와 행복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로의 로므니아의 확고한 전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국대표자회의 높은 연단을 빌어, 우리 당과 인민의 민주주의적 법정을 통하여 조국의 사회경제발전의 웅대한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며 언제나 혁명성을 가지고 행동할것이며 우리의 모든 사업을 통하여 당과 인민, 로므니아의 사회주의위업과 독립, 자주권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것을 결의한다!

핵군축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현 용 칠

지난해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70돐을 계기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미하일 쎄르게예비치 고르바쵸브동지의 문헌집 《엠. 에쓰. 고르바쵸브문헌집》을 출판하였다.

문헌집에는 1985년부터 1987년사이에 저자가 집필하여 발표한 일련의 문헌들이 수록되여있다. 이 문헌집에는 쏘련공산당 제27차대회결정을 관철하며 세계적 범위에서 핵군축을 실현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쏘련공산당의 대내외 정책이 반영되여있다.

문헌집에 수록된 문헌들에서는 중요하게 오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핵군축을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쏘련공산당과 쏘련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저자는 문헌들에서 현시기 국제긴장상태가 날을 따라 격화되고있는 사실들에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의 군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군비확장과 군비경쟁에 그 어느때보다도 열을 올리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배치를 다그치고 있을뿐아니라 모험적인 《별세계전쟁》계획까지 추진시키면서 열핵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지구우에는 핵무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며 이것은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사태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핵군축을 실현함으로써 날을 따라 증대되는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요구로부터 쏘련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은 핵군축을 실현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을 자기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미하일 쎄르게예비치 고르바쵸브동지는 《평화와 군축 방침은 쏘련공산당과 쏘련정부의 대외 정책의 핵이였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할것이다. 쏘련은 이 방침을 적극 실행함으로써 리성과 선의를 가지고 전쟁과 무기가 없는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나서는 모든 사람들과 광범히 협동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1986년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가까운 15년동안인 현세기말까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철페할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제기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세개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쏘미가 우주타격무기의 제작, 시험, 전개를 그만두는 조건에서 서로 상대방 령토에 도달할수 있는 핵무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남아있는 핵무기운반수단들은 각각 6,000개이하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미국이 자기의 전략미싸일과 중거리미싸일을 다른 나라에 배치하지 않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이러한 무기를 늘이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지는 조건에서 구라파지역에 있는 쏘련과 미국의 중거리미싸일을 완전히 철페한다. 이와 함께 쏘련과 미국은 모든 핵폭발을 중지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중지조치에 호응해나서도록 호소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1990년전에 시작되여 5—7년간 계속된다.)모든 핵렬강들이 핵군축에 합류하여 자기의 핵무기들을 동결시키고 다른 나라 령토에 핵무기를 두지 않

을데 대한 의무를 진다. 쏘련과 미국은 중거리핵무기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는것과 함께 자기의 전술적 핵무기들을 동결시킨다. 그다음에는 모든 핵렬강들이 1,000키로메터의 사정거리를 가진 전술적 핵수단들을 철폐하며 핵무기시험을 중지하고 그 소멸능력에 있어서 핵수단이나 기타 대량살륙수단과 맞먹는 새로운 비핵무기의 제작을 금지한다. 셋째 단계에서는(늦어도 1995년전에 시작될것이다) 남아있는 모든 핵무기의 철폐를 끝내며 핵무기가 더는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합의를 이룩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세개 단계를 거쳐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인류가 핵무기가 없는 2000년대에 들어설것을 제기하였다.

저자는 문헌들에서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계속 추진시키고있는 모험적인 《별세계전쟁》계획은 핵무기를 철폐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군비경쟁을 우주에까지 확대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세계적 규모에서 핵군축을 실현하며 우주에로의 군비경쟁의 확대를 막고 그곳을 평화적 목적에만 리용하자면 미국이 《별세계전쟁》계획의 추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자는 쏘련정부가 핵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적인 제안들을 내놓는것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핵시험동결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쏘련정부는 1985년 8월부터 1987년 1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모든 형태의 핵폭발동결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연장하면서 미국도 쏘련의 모범을 따라 핵시험을 중지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핵군축에 관심이 없는 미국지배층의 무성의한 태도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군비경쟁은 더욱 강화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쏘련정부는 어떻게 하나 핵군축을 실현하며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철폐하려는 립장으로부터 신축성있는 여러가지 평화제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엠. 에쓰. 고르바쵸브동지는 핵무기철폐를 위한 쏘련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제안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해말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쏘련과 미국사이에 일부 핵무기를 철폐할데 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은 전반적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에서 의의있는 출발점으로 된다고 볼수 있다.

쏘련과 미국사이에 일부 핵무기를 철폐할데 대한 조약이 체결된것은 세계적 규모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핵군비경쟁을 저지시키고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철폐하며 핵전쟁이 없는 세계를 지향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온 쏘련인민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저자는 자기의 문헌들에서 현시기 지구상에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핵전쟁의 위험뿐아니라 화학무기에 의한 전쟁의 위험성도 더욱 커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화학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무기와 이 무기를 생산하는 공업기지자체를 완전히 없애며 다무적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에 화학무기를 전파하고 배치하지 않을데 대한 협약을 체결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현세기안으로 핵무기를 철폐하는것과 함께 대량살륙무기인 화학무기도 완전히 철폐할것을 주장하였다.

엠. 에쓰. 고르바쵸브동지는 문헌들에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이 현시기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엠. 에쓰. 고르바쵸브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극도로 첨예화되여가고있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제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저들의 세계전략수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보면서 70년대후반기부터 이 지역에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조선반도에 커다란 군사전략적 의의를 부여하고 여기에 수많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들과 침략군을 배치하였으며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의 주변지역들에도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있다. 그리고 해마다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미제의 사촉밑에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세아, 태평양 지역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이 들어찬 하나의 전쟁화약고로, 핵전쟁발원지로 되였으며 정치군사적 대결의 마당으로 전변되였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사태가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근원으로 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엠. 에쓰. 고르바쵸브동지는 문헌에서 《우리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파하며 증강하는것을 저지시킬것을 주장한다.》, 《쏘련은 아세아에서 무력과 상용무기를 리성이 자라는 한계까지 대폭축감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모든 공정적인 제안들과 발기들은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무모한 핵전쟁책동의 위험으로부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쏘련 공산당과 정부의 책임적인 립장과 레닌적 평화애호정책의 확고부동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엠. 에쓰. 고르바쵸브동지는 문헌들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적 발기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특히 조선의 통일에 기본장애로 되고있는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남조선으로부터 철수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제안이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자는 계속하여 조선과 쏘련사이의 친선과 협조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선로동당과 쏘련공산당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있으며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련계도 적극 발전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저자는 쏘련인민은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땅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과 쏘련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 친선은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하였다.

《엠. 에쓰. 고르바쵸브문헌집》의 출판은 우리의 독자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미하일 쎄르게예비치 고르바쵸브동지의 활동과 쏘련공산당의 대내외 정책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며 계급적 동맹관계에 기초하고있는 조쏘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근로자 1988년 제3호(루계 551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8년 3월 1일 발 행•1988년 3월 3일

ㄱ—8548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제4호(55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

〔경제건설론설〕

〔문화건설론설〕

〔조국통일문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의 창시자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60여성상 주체위업을 굽힘없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는 행정에서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력사적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밝히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혁명의 한길에서 걸어온 지난날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빛나게 구현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을 영예롭게 지켜낸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이 투쟁의 력사적 행정에서 굽힘없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올수 있었으며 드디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가 뚜렷이 바라보이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설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주체의 조국》으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사람들의 자주성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보람찬 미래를 내다보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영광의 혁명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불후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대를 이어 끝까지 충성다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 *

시대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는 새로운 혁명학설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누구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보며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계급투쟁의 법칙,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깊이 통찰하고 새로운 혁명 사상과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모든것을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는 확고한 주체적 립장에 서시여 자주성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9권, 422페지)

매개 력사적 시대는 자기 시대에 상응한 혁명학설을 요구하며 모든 사상리론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발전한다. 이로부터 혁명학설은 어떠한 력사적 시대를 반영하며 그 요구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가에 따라 자기의 력사적 지위가 규정된다. 로동계급의 첫 혁명사상인 맑스주의는 구라파에서 자본주의

가 발전하고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 등장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왔고 레닌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간 새로운 력사적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왔다.

로동계급이 계급적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벌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혁명투쟁은 멀리 전진하여 지금 우리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 시대, 자주성의 시대에 살고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게 되였으며 그것은 지난 시대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는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혁명사상을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천리혜안의 빛나는 예지로 지난 시대들과는 구별되는 우리 시대의 근본특징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이에 기초하여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밝히시였으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의 근본요구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를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자주시대의 요구에 상응하게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을 전개해나갈수 있는 철학적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전개하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리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으로 되게 하였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7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혁명리론을 전개한데 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을 이루는 본질적 속성이다. 사람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고있다.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는 주위세계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므로 사람은 주위세계를 지배하고 그 주인으로 되여야 자유로울수 있다. 세계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 다름아닌 자주성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혁명투쟁이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 종국적 목적은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사상의 혁명성도 그것이 인간의 자주성을 얼마나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은 바로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혁명학설이며 그것으로 하여 이 혁명학설은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이며 정당한것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데 사회력사적 운동, 혁명투쟁의 본질과 근본목적이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고 그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 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가 발전하고 력사가 전진하며 혁명이 추진된다는 사회력사적 운동,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해명해주시였다.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투쟁의 본질과 근본목적,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한 주체적 견해는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에 의하여 확립된 새롭고 독창적인 견해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본질적 속성에 맞게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 모든 형태에 대한 리론을 가장 정확히 해명할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안겨주었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들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독창적인 주체의 혁명리론이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어느 한 사회적 변혁의 단계만을 거쳐서는 그 종국적 승리가 이룩될수 없다. 그것은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예속을 청산하며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등 사회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혁명발전단계를 거쳐서만 종국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헤아리시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혁명투쟁으로서 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완성하시였으며 계급적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으로서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리론을 완성하시였다. 그리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이 이룩된 다음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 인간해방의 위업을 종국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지켜나가려면 무엇보다도먼저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완전한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민족해방에 관한 문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혁명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리론실천적 문제이다.

민족적 예속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근본요인이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으면 그 나라 인민들의 자주성이 실현될 모든 가능성이 배제된다. 그러므로 민족적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것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로 나선다. 특히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는것은 계급적 예속을 청산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 선결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빼앗긴 민족의 자주

권을 되찾기 위한 혁명투쟁으로 새롭게 규정하시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 해답을 주시여 민족해방의 휘황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혁명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반봉건적 과업이 나서고있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옳게 실현할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인간에 대한 온갖 착취와 예속을 청산하고 완전한 계급해방을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착취 근로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해방을 이룩할뿐아니라 온갖 형태의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착취계급의 정치경제적 지배를 뒤집어엎고 계급적 예속을 청산하는 혁명적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청산하고 계급적 예속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창시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학설발전에 불후의 공헌을 하신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사회로 나아갈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과업으로 제시하신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없앨뿐아니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을 없애고 인간해방의 위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과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이 낡은 사상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주되는 요인으로서 낡은 사상과 힘든 로동, 문화적 락후성이 남아있게 되며 이것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3대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혁명과업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 인간해방의 과업을 종국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력사적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혁명문제를 새롭게 해명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학설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자주성을 구속하는 마지막요인을 없애고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누리려는 그들의 숙망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고 로동계급의 혁명학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학설로, 사회개조와 함께 자연개조, 인간개조까지 포괄하는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으로 발

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혁명학설발전에 이바지하신 가장 빛나는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밖에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 방침들과 원칙들,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온 세계의 자주화,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공동투쟁,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 쁠럭불가담운동, 전쟁과 평화문제 등 국제적 범위에서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새롭고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학설을 혁명투쟁의 근본원리와 모든 단계, 분야의 혁명리론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적 방침들과 원칙들, 령도리론과 령도방법, 자기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총적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완성된 혁명학설로 집대성하시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은 그 진리성과 독창성, 정당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 혁명적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존경하며 흠모하는 마음은 날로 더 커가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관한 혁명리론을 전개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학설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결실을 맺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어린 싸움을 벌려왔으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으로 일제침략자들과 착취계급들의 압박과 착취에서 벗어날 참된 길을 찾을수 없었다. 하기에 민족수난의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할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고 투쟁의 옳바른 길을 찾으려는것은 력사의 가장 비참한 수난자로 되였던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였으며 력사적 숙원이였다.

령도자에 대한 온 겨레의 피타는 갈망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비로소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참된 혁명학설을 가질수 있었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행로는 결코 순탄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두 제국주의 침략자들과의 피어린 전쟁, 혹심한 파괴속에서의 복구건설투쟁, 온갖 원쑤들과의 심각한 투쟁, 북과 남이 분렬된 조건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다같이 다그쳐야 하는 복잡한 투쟁 등 실로 걸음걸음마다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야 할 투쟁행로였다.

그러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탁월한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을 지니시고 매 시기 혁명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이 모든것들을 정확히 타개하실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제기되는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여 영광스러운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과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해방된 조국땅에서 두 단계의 사회혁명,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게 하고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오랜 세기를 두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무참히 짓밟히우던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거창하고 심각한 혁명과업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인간해방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될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이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다.

우리 인민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 영광에 찬 투쟁로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오늘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되고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실 숭고한 념원과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끝없이 넓고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새로운 리론적 명제와 원리들로 풍부화하시고 빛나게 구현해나가고계신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창시하시고 심화시키시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신것은 오랜 기간 자주성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려온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자각하고 자기의 창조적 역할을 높여 시대의 앞길을 개척해나가게 하는데서 세계사적 사변으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밝히고 그 빛발로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을 창시하시였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끊임없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자주성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주체의 조국》에서 혁명하는 것은 가장 높은 영예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는 이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수행의 한길에서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 담보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함으로써 수령, 당, 대중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확증한 위대한 진리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옹호하는것이 곧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업이라는 높은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이 내놓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하며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발표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편지에서 공화국창건 기념일까지 200일전투를 진행할것을 호소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관철하는 투쟁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형언할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높은 령마루를 따라 전진해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를 새로운 위훈으로 수놓기 위한 장엄한 진군운동이다.

공화국창건 40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당이 내세운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과학과 교육, 인민보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전국적 범위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조국통일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안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자기 나라 인민들의 자주성을 지킬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국제적 의무이다.

우리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일심단결

림 춘 추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장엄한 력사적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오늘처럼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친적은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에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일심단결,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가장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며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이 오직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은것도, 그 양양한 전도가 굳게 약속되여있는것도 전적으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데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칠 때 그것을 당해낼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혁명은 승승장구할것입니다.》

공산주의운동의 전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의 승패는 주체적 혁명력량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을 실현하여 주체적 혁명력량,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문제이다.

주체사상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그들이 저절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자면 반드시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의식화되고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조직화되여야 한다. 이렇게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이라야 혁명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벌려나가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따라서 이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

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인민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통일단결될 때만이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게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결국 혁명의 주체를 공고발전시키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혁명의 운명과 직접 잇닿아있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혁명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 갖은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오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참다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온 세상에 자랑떨치고 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 단결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게 된다. 수령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조직을 창건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 단결을 위한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한다.

수령은 혁명조직들에 망라된 성원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적 조직생활과 실천을 통하여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한편 그들을 움직여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고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혁명의 편에 묶어세운다. 이 과정에 혁명조직들의 대렬이 늘어나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조직적 단결이 강화됨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지고 강화발전되여나간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계급적 원쑤들의 온갖 분렬파괴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불멸의 업적에 토대하여 해방직후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을 창건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높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시였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있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게 된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에 기초하여 지체없이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 당을 건설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의 혁명적 단결을 위한 조직적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것은 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망라하는 대중적 당으로 되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선봉대로

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있으며 인민들과 혼연일체를 이룰수 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당을 광범한 근로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 힘을 조직동원할수 있는 통일적인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성숙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당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조직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공산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결성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였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전환으로 되였다.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로단체는 근로대중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당의 인전대이다. 근로단체는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은 근로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련계를 실현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대중단체건설경험에 기초하여 계급별, 계층별로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해당한 계급과 계층을 통일적으로 망라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직업별, 계층별 대중단체들이 조직되고 그에 대한 당의 통일적 지도가 확고히 보장됨으로써 수백만 군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고 혁명대오가 하나의 전일적인 대오로 조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대중단체조직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한편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통일전선을 실현하는것은 당의 사회적 지반을 확대강화하며 반혁명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모든 애국력량이 우리 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합되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과 애국력량을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린 결과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었으며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혁명적 단결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가시였다.

전후 공화국북반부의 사회경제형편은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개인농민경리와 개인상공업 등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지 않고서는 생산력의 발전도 인민생활의 향상도 보장할수 없었으며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도 더욱 강화할수 없었다.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 이것은 각계각층 군중을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만들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단합시키는 위대한 혁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바른 계급정책을 내놓으시고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성하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단결시킬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새형의 인간으로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나가기 위한 주체적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고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오늘과 같이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따르며 수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과 건설의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 이것은 백두령봉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결정적 담보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이룩하시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공고발전시켜오신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되고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묶어세우자면 혁명적 단결의 향도적 력량인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에 따라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사업의 총적 과업으로 규정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의 유일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위력한 담보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는 한편 군중과의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것을 요구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군중사업방침과 그 구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군중과의 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보다 공고발전시킬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중과의 사업에서 본인의 현재의 사상과 행동을 기본으로 하여 매 사람들을 평가하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당을 믿고 따르며 사업에서 열성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정치생활에서 차별하지 말며 혁명과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들의 사업성과와 공로를 공정하게 평가하여주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군중속에 맺혀있는 문제는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며

군중사업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내지 않도록 옳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당원들과 핵심군중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주시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구현하도록 하시였으며 당조직들이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능숙하게 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각계각층의 군중은 당과 수령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높은 자부심과 자기 전도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활기있게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이 지난 수십년동안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하여왔지만 오늘과 같이 큰 승리를 이룩한 때는 없었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일대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오랜 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굳게 다져진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 통일단결, 일심단결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은 가장 공고하고 불패의 통일단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목적밑에 의식적으로 단결한다. 따라서 인민대중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사상이 그들의 리익과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단결의 공고성이 규정되게 된다. 인민대중은 자기들의 리익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대변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진실하고 공고한 혁명적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혁명사상은 탁월한 수령만이 창시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억압,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혁명리론,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와 함께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대중령도방법까지 다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길,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불패의 통일단결로 되는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혁명적 단결의 사상적 기초로 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또한 그것이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수령과 인민대중의 혁명적 단결이 얼마나 공고한가 하는것은 인민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어떤 높이에서 간직하고있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깊이 간직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혀주며 그 실현에로 옳바로 이끌어주는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게 되며 따라서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게 된다.

혁명적 신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투철한 수령관에 기초할 때 깊이 간직하게 된다. 혁명적 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장 위대한분이라는것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 수령관을 바로 세울 때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혁명적 신념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높이 모셔야 험난한 혁명의 앞길이 개척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갖 시련을 헤치며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간을 살아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며 싸워왔다.

이렇듯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이야말로 가장 공고하고 영원불변한것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단합되여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또하나의 위력한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되고있다.

수령과 인민대중의 혁명적 단결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할 때 그 공고성이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그것은 수령과 전사들, 인민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 단결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단결이기때문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굳게 결합시키는 근본요인이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그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람들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결합시키는데서 힘있는 작용을 하게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특히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있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표현되게 된다. 이것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수령과 인민대중을 굳게 결합시키는 근본요인이며 그에 기초할 때라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혁명적 단결로 되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고계신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빛내이도록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은 수령과 전사들, 인민들 사이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이러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고있기에 그 공고성과 불패성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민이 일심단결되여있는것은 우리 혁명의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여온 영광스러운 승리적 로정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온 력사적 로정이다.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을 어떻게 강화발전시키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 위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이 성스러운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통일단결의 중심이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절대적인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통일단결의 전통을 력사적 뿌리로 하여 형성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이다. 통일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야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을 위한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옳게 보장할수 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움으로써 항일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의 빛나는 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또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일적 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일적 지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만 대를 이어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은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

우리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일적 지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

우리 인민은 올해에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200일전투를 진행할것을 호소하고 그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은 올해에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이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이 혈연적으로 련결된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과시하여 당이 내세운 200일전투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숭고한 력사

정 준 기

오늘 우리 인민은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에서 끝없는 행복과 참된 삶을 향유하고있으며 휘황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지난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이 크나큰 행복과 보람찬 삶을 누리고 높은 영예와 존엄을 지니게 된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데 있다.

거창한 창조와 위대한 변혁으로 수놓아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는 조국과 혁명, 민족과 인류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자랑찬 력사이며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 복무의 숭고한 력사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이상의 장구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로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변함없는 신념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인민에 대한 자애로운 사랑과 헌신적 복무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장구한 혁명투쟁력사는 절출한 인민적 수령만이 창조할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참다운 정치생활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은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의 길우에 아로새겨져있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그 사랑, 그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결의에 차넘쳐있다.

(1)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숭고한 력사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다. 진정한 인민의 수령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고있을뿐아니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수령이 지녀야 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과 인민적 품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오시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시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수령의 고매한 덕성과 풍모를 낳게 하는 기초로 되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실수 있은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고상한 정신은 사상의식, 세계관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은 세계관의 직접적 표현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에 기초하여 발현되게 된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세계관문제이며 관점문제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하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게 한다.

인민에 대한 옳은 관점은 사람,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데 기초하여 확립된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 인민대중을 귀중한 존재로 보고 대하는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의 중요한 내용이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상정신적 바탕이다.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그들을 존엄있게 대하는 관점을 가져야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과 태도를 새로운 높이에서 확립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이 불멸의 사상에는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차넘치고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며 모든것을 바치려는 숭고한 혁명적 관점과 립장이 체현되여있다.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다. 주체사상은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과 태도를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정신을 체현할수 있는 세계관적 기초를 준다.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그에 관통되여있는 근본립장이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 풍모와 덕성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는 위대한 사상,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체현하고계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흘러나오고있다.

바로 이러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철학적 신념으로 삼고계시였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숭고한 력사를 창조하실수 있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부럼없는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해나가는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2)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해주시고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우리모두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정치적생명의 어버이이십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게 하고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수령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의 정치생활은 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참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기본생활분야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자면 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정치생활과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기의 정권을 가지고 존엄있게 살아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념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일제침략자들을 소탕하고 마침내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광복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정권형태인 인민정권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인민정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과 우월성은 바로 그것이 인민을 위한 정권이며 인민자신의 정권이라는데 있다. 인민정권의 주인은 인민대중자신이며 인민정권을 운영하고 여러가지 주권행사에 참가하는것도 인민대중자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러한 인민정권을 세우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적 신임과 크나큰 은덕으로 지난날 정치적 무권리속에서 헤매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여 주권을 행사하고있으며 정당, 사회단체들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면서 가장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참으로 이것은 인민을 위한 좋은 제도를 세워주시고 인민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실시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사람중심의 사상을 지니시고 인민위주의 정치를 베풀어나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만이 안겨주실수 있는 혜택이며 은덕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빛내여주신 은인이시다.

정치적 생명은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 정치적 생명을 지녀야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은 혁명의 수령이 베풀어주는 정치적 신임에 터전을 두고 태여나고 수령의 사랑을 자양소로 하여 키워지며 그 사랑의 품속에서 빛을 뿌리며 영생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값높은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가려는 전사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깊이 헤아려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게 계급의 눈을 띄워주시고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시였으며 투쟁속에서 단련시키시여 자신의 믿음의 보증으로 당원의 영예로운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그들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잊지 못해하시는 평범한 전사들과 혁명가유자녀들도 있고 어제날의 막로동자와 머슴군도 있었으며 로박사도 있었다. 그들속에는 청춘을 바쳐 당과 수령의 구상을 실현한 숨은 영웅도 있었고 방선의 초병도 있었으며 방직공영웅과 젊은 3대혁명소조원도 있었다. 또한 그들속에는 어제날의 개인상공업자도 있었고 월남자가족들도 있었으며 이역살이 천대속에서 살아온 3부자운전사도 있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품속에서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충성의 전위들이 자라났으며 또 자라나고있다.

오로지 당과 혁명에 충성다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이 진심으로 믿고 아량있게 품어주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 한사람한사람을 차별없이 뜨겁게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믿음의 손길은 초소를 맡기고 과업을 안겨주는데서뿐아니라 공로를 평가해주고 영예와 표창을 안겨주는데서 뜨겁게 미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그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구김살 없이 마음펴고 희망과 랑만에 넘쳐 참된 삶을 누리고있으며 모두가 투사로, 영웅으로, 혁신자로 자라나고 있는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이 넓은 도량과 포옹의 품이 있었기때문이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기게 됨으로써 아직 그 누구도 지녀본적이 없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닐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가로서의 값있고 보람있는 삶과 최대의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 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땅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크나큰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 바쳐 오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기 위한 가장 주되는 내용의 하나로 된다.

원래 사람들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수령은 경제건설을 다그쳐 근로자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수 있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력사는 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인민들이 잘사는데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도록 하시였으며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도록 하시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실현된 토지혁명과 중요산업국유화, 농업협동화와 사회주의공업화는 다 근로인민이 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고매한 덕성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휴식없는 낮과 밤을 이어오시며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편히 쉬시지 못하시면서 인민생활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풍족히 먹이시려고 눈오는 아침에는 몸소 닭공장을 찾으시였고 만민이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리며 단하루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바라는 생신날마저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였다.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적 복무의 정신을 지니시였기에

때로는 진창길에 빠진 자동차를 손수 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한 가스냄새로 눈을 뜰수 없는 랭동공장에 들어가 보기도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수천수만리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인민의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북변의 백두고원으로부터 남으로 분계연선마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밟고 또 밟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마다에서 현대적인 공장들과 웅장한 도시, 아담한 농촌마을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 메마른 땅이 기름진 옥토로, 버림받던 산이 과일동산으로 다스려져 이 땅은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누구나 다 식의주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으며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나이가 되면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줄뿐아니라 로동보호제와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와 정휴양제의 혜택으로 안전한 로동조건과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농업현물세제와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였으며 사회보장제가 실시되여 우리 인민들은 세금없는 세상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혜택을 받으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살림집을 지어주도록 하시였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은 국가로부터 거저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도록 해주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물질생활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공산주의적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변들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더욱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의 고귀한 결실이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들의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인 시책이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숭고한 력사적 사명의 하나이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되여야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리게 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오로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모든것의 앞자리에 놓고 로동자들의 안전한 로동조건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한톤의 강재가 귀중하던 때에도 로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진제강소의 원철로를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강령을 제시하시고 이 땅우에 자동화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데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찬서리 내린 이른봄의 들길도 뙤약볕 내리쪼이는 삼복철의 논두렁길도 밟으시고 차거운 가을비와 한 겨울의 칼바람도 맞으시며 우리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뜨거운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농민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도록 하시였으며 모내는 기계가 나왔

을 때에는 농민들의 어깨에서 또하나의 힘든 일을 벗겨주게 된것이 못내 기쁘시여 자동차의 전조등을 논판에 비치게 하시고 모내는 기계의 시운전을 보고 또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숭고한 사랑, 높은 은덕으로 지하마장과 고열로앞에서 힘들게 일하던 우리 로동자들이 원격조종체계와 산업텔레비존, 로보트를 도입하여 헐하고 흥겹게 일하고있으며 오랜 세월 고된 로동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있다.

진정 사람이 처음으로 로동도구를 만들어 문명의 첫걸음을 뗀 때로부터 노예의 로동과 농노의 등짐과 로동자의 피땀으로 억만금의 재부를 긁어모은 기록은 전하여지고있어도 로동자,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없애기 위하여 온 사회, 온 나라가 달라붙어 기술혁명을 벌려온 력사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로동당시대에만 창조될수 있었다.

(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참다운 행복을 누릴수 있는 문화적 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는 인민들의 생활과 민족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참다운 문화가 없이는 인민들의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도, 민족의 륭성과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문화는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며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것은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 조건의 하나이다.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는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그리고 먹고 입고 쓰고사는 걱정을 모르고 살게 될수록 더욱 높아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시고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시고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세기적 념원을 풀어주시였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다 공부시켜 그들의 전반적 문화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는것이다. 사람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쌓아놓은 과학과 문화를 습득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 교육제도를 세워주시고 제일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시여 온 나라가 배우고 전체 인민이 공부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남들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도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에 뒤이어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였으며 1972년부터는 가장 우월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이리하여 보통교육의 의무화가 빛나게 완성되게 되였고 우리의 새 세대들은 누구나 다 국가의 혜택에 의하여 어려서부터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새 세대들을 위한 의무교육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마음껏 공부할수 있도록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를 잃었던 성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오늘은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가

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있다.

전체 인민, 온 나라 청소년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책임지고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숭고한 뜻에 의하여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가 마련되였고 인민적 교육시책이 련이어 펼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전변되게 되였다.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과 예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인민들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그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도록 하시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공장과 농촌의 광범한 근로자들이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하게 하시여 우리의 문학과 예술이 참다운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는 문학예술로 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문학과 예술의 진정한 창조자로, 사회주의문화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였다.

사람들의 건강은 그들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상이지만 그 사상이 건전한 육체와 믿음직한 건강으로 안받침될 때에만 참다운 위력을 나타낼수 있다.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생활과 건강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크나큰 배려를 돌리시였으며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때에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할 대담한 결심을 하시였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는 그 어떤 객관적 조건이나 곤난에도 구애됨이 없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단호한 결심과 대담한 조치에 의하여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있던 바로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태여나자부터 국가의 완전한 의료상 보호를 받으며 일생동안 무상치료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또한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고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이 끊임없이 개선강화되고있으며 농촌리의 병원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현대적인 전문병원들이 새로 수많이 건설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제도와 인민적 보건시책의 혜택에 의하여 전염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누구나다 최상의 의료상 방조를 받으면서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며 무병장수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문화적 요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풀어주는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실현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 ⁂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로동당시대에 와서 참다운 인간의 존엄을 되찾았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려는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위대한 시대의 번영을 위하여 반세기이상의 기나긴 세월 참으로 커다란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자신께서 겪으시는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인민의 행복이 되고 민족의 번영이 된다면 그것을 더

없는 기쁨과 락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바라던 모든 념원과 리상을 다 풀어주신 오늘에도 그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온갖 정력과 심혈을 다 바치고계신다. 우리 인민에게 하나를 주시고는 열백을 주시려고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행복의 락원으로 진변된 우리 나라에 또다시 공산주의리상사회를 앞당겨주시려고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에서부터 먼저 공산주의적 시책을 실시할데 대한 비상히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고계신다.

오늘뿐아니라 먼 앞날까지 깊이 헤아리고 인민생활을 전망적으로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예견성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인민에게는 언제나 더 큰 행복과 유족한 생활이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돌이켜보면 세계에는 력사에 이름을 남긴 사상가, 정치가, 명인들도 많았고 한생을 혁명투쟁과 인류해방위업에 고스란히 바쳐온 혁명의 령도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같이 인민의 념원, 인민의 지향, 인민의 의지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오로지 근로대중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그러한 인민의 수령은 이 세상에 없다.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보다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불면불휴의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려오신 모든 활동, 모든 투쟁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일관되여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로정은 위대한 인민적 수령의 투쟁력사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으며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간직하고계시는 생활의 신조이며 투쟁의 신념이다. 이것으로 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의 하루하루는 곧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색과 실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룩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이 막대한 자금을 아낌없이 돌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일떠세운 현대적인 공장들과 살림집들, 최신설비를 갖춘 학교와 병원, 학습당과 유원지 그리고 우리 당이 끊임없이 베풀고있는 은혜로운 인민적 시책의 그 하나하나에는 조국의 륭성번영과 우리 인민의 보다큰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끝없는 사랑이 깃들어있다.

진정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그들의 존엄과 가치, 영예와 행복을 최상의 높이에서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한평생을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의 한길에 고스란히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참으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이며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것은 수령님의 은덕으로 행복과 영광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이 신념과 의지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우리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어나가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

윤 기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을 제시하시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이다.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됨으로 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경제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 경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야말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이며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관리분야에 구현하여 독창적인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시였다.

경제관리체계를 옳게 세우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확립한 다음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96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혁명적인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을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근로자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경제관리체계를 옳게 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사회적 집단의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투쟁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경제관리체계를 옳게 세워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적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제도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사이에는 뗄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와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 방법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질의 구조를 변경시키면 그 물질의 기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물질의 기능에 일정한 영향을 주어 그 작용을 변경시켜도 점차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것처럼 사회주의경제를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관리운영하지 않으면 사회주의경제에 변화가 생기고 나아가서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 문제와 혁명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들은 중요하게 경제관리체계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경제관리체계를 잘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경제관리에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옳게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생산력이 빨리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적응시키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완성하고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의 중요측면을 반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게 된다. 확립된 토대에 맞게 경제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여야만 사회주의경제를 원만히 관리운영하여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전면적 기술개건사업이 촉진된 새 환경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새롭게 해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기초축성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에 따라 선진적인 대규모사회주의적 경리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다. 그러나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은 이에 맞게 미처 개편되지 못하였으며 일군들의 능력과 수준도 이에 따라가지 못하였다.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는 빨리 밀고나갈수 없었다.

이처럼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체계를 세우고 완성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과업이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그것은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낡은 전통과 질서에 깊은 뿌리를 박고있는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사업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리론과 실천이 제기한 이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0년 2월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여 우리

당의 전통적이며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구현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에 이어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 잘 관철할수 있도록 공업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우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였으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리론실천활동에 의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과학적인 계획화체계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창조되고 그것이 우리 나라의 경제관리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신것은 로동계급의 경제건설리론, 특히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 탁월한 기여를 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607페지)

경제관리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기 위한 근로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산활동을 조직지휘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마땅히 생산에 참가하는 근로대중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며 생산활동에서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경제관리체계가 아무리 새로운것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잘 보장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경제관리체계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로 될수 없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는 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경제관리체계의 성격과 사명을 규정하는 주되는 척도는 그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한 체계이며 누구의 리익을 옹호하는가 하는데 있다. 경제관리체계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누구의 리익을 옹호하는가에 따라 경제관리의 원리와 원칙, 방법이 규정되고 그것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로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문제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만일 생산수단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관리체계를 세운다면 생산의 주인인 사람, 생산자대중은 단순한 로동력으로 다른 생산요소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며 경제관리문제를 물건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인 문제로만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관리체계가 구경에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지 않게 물건을 생산하는 사업 일면에 치우치는 질서와 제도로, 사업체계로 되게 되며 경제관리의 전반과정을 인민대중의 리익에 철저히 복종시키지 못하게 된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생산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는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있다.

사회적 생산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것은 사람, 근로대중이다. 근로대중은 사회적 생산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로동수단과 로동대상은 로동력을 가진 사람의 능동적인 작용에 의하여서만 결합되고 사람에게 복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생산에 대한 조직지휘를 실현하는 경제관리체계에서는 마땅히 사람, 근로대중을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과학적인 계획화체계를 비롯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서는 생산의 담당자인 근로대중을 철저히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으며 경제지도기관으로부터 경제관리운영단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위의 사업에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보장하는것을 철칙으로 하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제관리요소도 허용되지 않으며 경제관리의 모든 환절과 측면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고수한다. 바로 여기에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적 경제관리체계나 지난날의 여러가지 낡은 경제지도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가장 인민적인 경제관리체계,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로 된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들의 창조력을 옳게 조직동원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의 성과적인 해결여부도 대중의 힘과 지혜를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근로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양시키자면 그들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켜 대중으로 하여금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고수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근로대중을 경제관리에 널리 참가시킴으로써 대중의 집체적 힘과 지혜를 발양시켜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에서 기본핵을 이루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이다. 경제기관, 기업소의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해당 단위에서 당경제정책의 관철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

경제기관, 기업소의 당위원회는 당일군과 행정경제일군, 근로단체일군, 핵심적인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망라하고있으며 일상적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다. 그러므로 경제기관, 기업소 당위원회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받아들일수 있게 되며 그것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된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에서 당위원회는 늘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에게 제기된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를 똑똑히 알려주고 문제해결의 방도와 대책을 군중과 토의하며 이 과정에 나오는 대중의 창발적 의견들을 종합하여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게 된다. 대중의 창조적 지혜는 실천활동을 통하여서만 실질적으로 경제관리문제해결에 기여할수 있다. 경

제기관, 기업소 당위원회는 문제해결의 방향과 방도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 다음에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경제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경영활동의 전과정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대중에 의거하여 대중의 집체적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로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경제관리체계이라는 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사회주의경제건설, 특히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게 되며 현실로 확고히 전환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목적도 바로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자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한 결과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충족시키자면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획화된 경제이며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제인것만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그것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에서는 전체 인민의 리익을 반영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며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경영활동을 벌리며 사회주의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관리운영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독립채산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경제적 공간들을 적절히 배합해나가고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에서는 당의 정책적 요구와 객관적 경제법칙뿐아니라 현대적인 사회주의적 생산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과학성과 합리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현대적인 기술에 기초하고 발전된 분업과 협업에 의하여 밀접히 련결되여있는 대규모생산이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이러한 특징은 그에 맞게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에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량을 망라하고있는 참모부의 역할을 높여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계획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며 공장, 기업소의 참모장인 기사장이 생산과 직접 련관된 모든 부서들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함으로써 생산지휘에서 통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생산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조건도 통일적인 체계에 따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이처럼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제관리체계이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야말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

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군중로선을 구현한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로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식대로 경제관리문제를 해결하여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이 자랑찬 력사적 과정에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발휘하였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의 가장 위대한 생활력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한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경제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시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원만히 마련할수 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된 결과 경제 기관, 기업소의 당위원회들이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되고 공장, 기업소들의 모든 경영활동을 해당 당위원회들의 집체적 지도밑에 통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당위원회들이 경제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옳바로 사업해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맡겨진 경제과업수행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정치적으로 힘있게 이끌어주게 되었다. 경제 기관, 기업소 당위원회들이 당경제정책 집행정형을 늘 총화하고 재포치함으로써 당의 경제정책이 중도반단됨이 없이 철저히 관철되여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 기관, 공장, 기업소의 당위원회들을 통하여 당중앙위원회의 결정, 지시가 정확히 침투되고 집행되고있으며 전반적인 인민경제에 대한 당적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여기에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의 가장 큰 불패의 생활력이 있으며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위대성이 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의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데 있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만 절대화하면서 대중의 창발성을 소홀히 하면 경제지도기관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할수 없으며 아래단위와 생산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수 없다. 반대로 대중의 창발성을 발양시킨다고 하면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약화시킬 때에는 경제건설에서 자연발생성과 무질서가 나타날수 있으며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계획적인 발전에 혼란을 조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와 대중의 창발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반드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대중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원칙에서 량자를 잘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와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이 옳게 결합되고있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된 결과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으로부터 그 수행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이 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전국가적, 전인민경제적 리익에 맞게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밑에 진행되고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경영활동에서 창발성이 적극 발양되고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생산을 직접 지도하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에게 당정책적 요구를 깊이 침투시키고 그들의 창발적 의견을 종합하여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전반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이 옳게 결합되고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에 맞게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게 되였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은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일본새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비약을 일으킨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일본새는 사회적 생산, 특히 경제관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역할을 높이도록 추동하는 경제관리체계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일본새가 달라지게 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결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혁명적, 집단주의적 생활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을뿐아니라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는데도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고 튼튼한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가 마련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 우리 나라 인민경제가 그 어떤 편향도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수 있은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해온 고귀한 결과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 경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야말로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이며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혁명의 근본리익과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옳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혁명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는 오늘 우리앞에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를 적극 벌려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계속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실천을 통하여 생활력이 확증된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

최 태 복

오늘 우리 인민은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면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위대한 령도로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령도방법,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을 창조하신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로정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로정인 동시에 거창한 혁명실천속에서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그 내용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오신 력사적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 사업방법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우리 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 사업방법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번영과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적 사업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행정에 혁명적 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서 리론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력사상 가장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민대중이 적극 동원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인민대중을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조직동원하자면 과학적이며 원숙한 사업방법이 있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옳바른 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 발양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혁명운동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로동계급의 당은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시기에 와서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주의적 경향도 막을수 있으며 인민

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령역을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업방법문제를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대중동원방법을 새롭게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던 시기에 벌써 혁명투쟁에서 혁명적 사업방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등 여러 혁명단계를 거치는 혁명투쟁과정에서 그것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맞게 빛나게 구현되고 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력사적 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의 본보기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몸소 이룩하신 모든 사업방법들을 총칭한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창시의 경위로 보나 전면적 확립의 과정으로 보나 명실공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완전히 독창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그것으로 일관된 주체의 사업방법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의 독창성과 위대성, 혁명성과 과학성을 규정짓는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반동적 착취계급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고 대하기때문에 그들에게는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문제자체가 제기될수 없으며 인민대중에 대하여 오직 다스리는 방법, 착취와 억압에 복종할것을 강요하는 관료주의적 통치방법만이 있을뿐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 방법의 전체계와 내용은 근로인민대중을 주인의 지위에 내세우는 견지에서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과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새롭게 밝힌 주체의 사업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혁명적 사업방법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고 그 변혁적 역할로 하여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창조,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정력적인 투쟁속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 사업방법발전의 영광스러운 로정우에 세워놓으신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은 장구한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빛나게 확증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식사업방법은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입니다.》

사업방법은 혁명투쟁의 무기이며 혁명실천은 사업방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해주는 기본척도이다.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인민대중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검증된다.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따라서 혁명투쟁의 성과는 인민대중의 활동의 결실인것만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실천활동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사업방법이라야 참으로 위대하고 생활력있는 사업방법으로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는 혁명실천의 힘있는 무기가 되여 빛나는 결실을 가져온 사업방법일수록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조선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되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한데서 그 불패의 생활력이 검증되였다.

조선혁명은 인류해방투쟁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개된 새로운 혁명이였다. 조선혁명은 계급과 민족의 운명을 주체의 힘으로 새롭게 개척해나간 혁명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풀어나간 혁명이며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창발적으로 풀어나가는 고귀한 모범을 창조한 혁명이다. 조선혁명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자주와 창조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조선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운 위대한 혁명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속하는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청산하기 위한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의 로정을 걸게 되였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뿐아니라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민족에 의한 민족의 예속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것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단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침체하고 뒤떨어진것을 반대하는 폭넓고 심오한 투쟁의 길을 걸어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바로 조선혁명의 이러한 실천적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으며 이 거창하고 심각한 투쟁속에서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반휘하면서 발전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무엇보다 주체위업을 개척하는 실천속에서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혁명적인 령도방법, 사업방법의 생활력은 그것이 창시된 혁명실천의 특성과 련관되여있다. 혁명위업의 개척기에 창조된 사업방법은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는 사업방법의 전통으로 되며 사업방법의 발전을 추동하고 거기에 활력을 넣어주는 원천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과정은 곧 수령에 의하여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 창시되는 과정인 동시에 혁명을 추동하는 무기로서의 그 위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력사적 과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을 개척하는 실천속에서 그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확립된 사업방법은 주체위업을 개척하고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복무하여오게 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주체위업을 새롭게 구상하시고 그 위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방법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마침내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찾으시였다. 따라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도록 각성시켜나가시였으며 그들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참다운 주체로 되여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위업이 개척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 확립되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개시와 더불어 발전되고 활용된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야말로 주체위업의 개척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에 훌륭히 복무하는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또한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그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사업방법의 혁명성은 사업방법의 위대성과 생활력의 원천이며 그 뚜렷한 표현이다. 사업방법이 얼마나 혁명적인가 하는것은 그것이 창조되고 활용된 혁명실천의 간고성과 복잡성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실천속에서 나오고 활용된 사업방법이라야 혁명이 심화되고 전진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그 어떤 난관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는 가치있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위력하고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되게 된데는 조선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과 관련되여있다.

조선혁명은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세계제패의 야망을 가지고 침략과 략탈에 광분하는 미일 두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야 하는 간고한 혁명이였으며 민족해방의 과업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동시에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소한 길을 자체로 헤쳐나가야 하는 복잡한 혁명이였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에도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분렬된 조건에서 혁명을 하여야만 하였으며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처지에서 그것도 3년간의 가렬한 전쟁으로 모든것이 페허로 된 조건에서 새 생활을 창조하여야 하였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력사적 로정에는 실로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위력은 조선혁명의 이렇듯 간고하고 복잡한 력사적 행정에서 확고해졌으며 그 혁명성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전진해온 영광스러운 로정에서 실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성과 복잡성으로 일관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은 끝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구현되고 활용되여 커다란 결실을 가져온 빛나는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난관과 시련이 가로막아나설 때마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과 의논하여 그것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갈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였으며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을 밀고나갈

작전을 펴실 때에는 언제나 중심고리를 정확히 틀어쥐고 그 해결을 통하여 사업전반을 혁명적으로 밀고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업을 대담하게 구상하시고 목표를 크게 내세운 다음에는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섬멸전을 벌리심으로써 부닥치는 그 어떤 난관도 단숨에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역경이 순경으로, 《화》가 《복》으로 전환되는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 사업방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는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력사적 위업을 가장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남들이 수백년 걸려서 한 공업화의 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부닥치는 난국을 용감히 극복하면서 이 땅우에 이룩하여놓은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종일관 견지하고 능숙히 활용하시는 사업방법의 혁명성과 그 불패의 위력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또한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해나가야만 하였던 우리 혁명의 실천속에서 그의 견인력과 생활력이 확증된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중요한 특성은 창조성에 있다. 창조적 방법으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견인력과 생활력은 이 사업방법이 창조되고 활용된 혁명실천속에서 비상히 높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창조되고 적용된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창조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 혁명을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모든것을 자기 머리로 새롭게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사업방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의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리론과 전략전술이 밝혀져있지 않은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기존공식, 기존명제에 구애됨이 없이 혁신적 안목에서 대하고 새롭게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이 그 어떤 표본도 모범도 없는 조건에서 진행되는 혁명이였지만 오직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을 믿고 혁명의 구체적 실정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로선과 전략전술도 새롭게 세우고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해나가심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나라와 민족이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안팎으로 론의가 분분할 때에도 기존공식, 기성관념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우리 인민을 창조와 혁신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요구와 힘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삼고 현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모든것을 새롭게 풀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창조적 사업방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그 어느 시기,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보지 못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초행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창조적 위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나라도 주권도 새롭게 세우고 자기 힘, 자기의 로력, 자기의 기술로 사회주의경제도 독창적으로 건설할수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자주성과 창조성의 원칙에서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시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과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생활력이

확증된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식사업방법은 반세기의 오랜기간 수령님께서 지하혁명활동과 무장투쟁, 당 및 국가 사업과 군사사업,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지도하시면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사업방법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는 혁명투쟁의 련속적인 과정이며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포괄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변혁과 창조의 과정이다.

사업방법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완성된 무기로서의 위력을 가지려면 그것이 로동계급이 수행해야 할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검증되고 커다란 결실을 가져와야 한다.

조선혁명이 전진하여온 장구한 력사는 로동계급이 수행해야 할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혁명투쟁을 다 거쳐온 거창한 과정이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 사업방법이 구현되여 거대한 승리를 가져온 빛나는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활동을 벌리시는 과정에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서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종국적 완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혁명발전로정을 발견하시였으며 그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들을 가장 철저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혁명적 사업방법을 창조해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민족해방투쟁과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등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고 검증된 일반적이며 근본적인 방법들과 함께 단계별, 시기별, 부문별 특성에 맞는 특수한 방법들을 다 담고있는 폭넓고 다양한 사업방법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대중지도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업작풍들이 전면적으로 포괄되여있다. 늘 군중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여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 특성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중요한 내용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는 또한 일군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는 방법,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 사업을 구체적으로 빈틈없이 맞물리며 제때에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심화시키는 방법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과학적 방도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이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일군들로 하여금 대중지도에서 사소한 편향도 범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활동방법을 밝혀주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는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언제나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는 혁명적 사업기풍과 일군들이 지녀야 할 겸손하고 소박하고 너그러운 품성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 구현되여있는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할 때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가지고 참다운 인민의 충복답게 훌륭히 일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혁명발전단계

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 맞는 구체적 방법론,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풍모들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어느 시기 그 어떤 혁명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는 백과전서적인 대중지도방법, 혁명적 사업방법의 전형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장구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실천속에서 자기의 위력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혁명의 발전과정,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기적과 혁신의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되고 그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 사업방법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위대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사업방법을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새롭게 정식화하시고 그 본질과 특징, 기본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을 심화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대중속에서 혁명의 주인된 자각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더욱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기본방도로서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이 근본적으로 일신되고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이 확고히 실현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생활력이 확증되고 그 위력이 더욱더 발휘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혁명적 본분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통일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리 창 선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20성상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여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신데 이어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생을 다 바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평화, 반통일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도 조국통일의 3대력량이 전례없이 장성강화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주객관적 조건이 유리하게 변화되여 가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긍지높이 되새기면서 앞으로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우리 세대에 기어이 완수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1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자주적인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북남으로 갈라지면서 생겨난 문제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나라의 분렬은 자주적인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미제를 반대하고 민족의 비운을 가시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할 력사적인 과업이 제기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현대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를 대상으로 하고있어 처음부터 간고성과 복잡성을 띠였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력사적 환경과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임무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복잡하게 얽힌 조국통일의 진로를 열어나갈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하는 문제는 오직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풍부한 혁명투쟁경험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이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온 민족의 통일념원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조국

통일을 위한 독창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밝히심으로써 그 위업수행의 곧바른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여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45~346페지)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처럼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성은 생명이다. 그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권을 가지지 못하면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없으며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민족으로서의 자주권은 오직 령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이 이룩된 조건하에서만 보장되는것이며 자기 나라 령토와 민족의 한 부분이 외세에 강점당하여 지배되고 있는 한 민족적 자주권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바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이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는 또한 민족내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북과 남으로 분렬된 민족의 단합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계급적 요구를 성취하는 문제도 아니며 어느 일방이 타방을 먹고 먹히우는 문제도 아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의 혈통과 언어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으로서 력사적으로 오해와 불신의 근원이 없으며 더우기 둘로 갈라져야 할 리유와 근거가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일시적으로 둘로 갈라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민족분렬책동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산생된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한 피줄을 나눈 겨레들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명철하게 밝혀주심으로써 통일위업에 대한 견해와 립장을 바로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과 그 실현방도 등 통일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기초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본질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밝히심으로써 통일문제해결의 방향을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이다. 자주적 원칙을 핵으로 하여 민주주의적 원칙과 평화적 방법을 통일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정세발전의 매 시기마다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특히 1970년대초에 이르러 전체 조선인민들속에서 통일기운이 전례없이 앙양되고 오래동안 격페되였던 북과 남사이에 접촉과 대화의 문이 열린 변화된 정세하에서 위대한 수령께서는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갈라진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할데 대한 세가지 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177～178페지)

자주, 민족적 대단결, 평화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원칙에는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총적 목표와 방향이 뚜렷이 제시되여있으며 그 실현의 방도와 원칙적 요구가 집약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에 명시된 자주적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하며 평화통일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북남쌍방이 무력에 의거할것이 아니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리념,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단합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 인민의 념원과 자주를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공명정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남조선당국자들도 그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고 우리와 함께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통일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제시된것은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서 북과 남이 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와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 지침을 마련한 력사적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제시하심으로써 겹쌓인 애로와 난관을 뚫고 통일위업을 촉진시키는 지름길을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매시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남북총선거안과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남북련방제방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통일방안을 내놓으시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변화된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4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제도가 함께 존재할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통일국가형성의 기초와 원칙, 방법, 국호와 국가의 성격, 활동방식에 이르기까지 련방국가의 형성과 관련된 모든 원칙적 문제들을 제기하고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통일헌장이다.

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형성의 기초문제를 주체적 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해결한 통일방안이다. 분렬된 나

라에서 통일국가형성의 기초를 무엇으로 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나라가 분렬되여 수십년동안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굳어져서 하나의 사상과 제도로써는 도저히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게 된 현실태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이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하나의 공통성, 수천년동안 한강토우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민족의 동질성, 민족적 리념을 기초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구국통일방안이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또한 통일국가창립의 방법문제도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을 주고있다.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버릴수 없는 조건하에서 북남쌍방은 각각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련방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북남쌍방은 다같이 자기의 리익을 손상시킴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다음으로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거나 그 어떤 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통일국가로 만듦으로써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 자주권을 확고히 담보하는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적 리념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유일하게 정당한 통일방안으로서 진심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애국애족적인 구국통일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에 의한 새로운 조국통일방도가 밝혀짐으로써 날이 감에 따라 북과 남의 두 제도가 굳어져 민족통일의 전도를 우려하던 사람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락관을 안겨주었으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을 달리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설수 있는 확고한 길을 열어놓았다.

2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앞에 가로놓인 겹쌓인 애로와 난관들을 타개하시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힘있게 개척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최대의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매 시기마다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시여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들을 극복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자면 무엇보다도먼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227폐지)

미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근원적으로 볼 때 조선문제가 생겨난것도 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기인하고있다. 미제는 아세아와 세계제패를 위한 대조선전략의 기본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 정책에 매여달리면서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미제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필수적이며 선결적인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로부터 조국의 자주적 평

화통일의 주되는 장애세력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대신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제기되는 기본문제이다.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일시 중단할데 대한 협정이지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미제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조선의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요구로 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주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에서 모든것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는 실제적 통치자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에 회피할수 없는 정치적 의무를 지니고있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여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고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없어지면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근원이 없어지게 될것이며 그러면 조선사람들자신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원칙적 립장으로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협상방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발표하신 여러 로작들에서 조미회담을 열고 여기에서 우리와 미국사이에 체결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였으며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에서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리와 남조선당국간에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 대결상태와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국회회담제안, 군사당국자회담제안, 북남고위급 군사정치회담제안,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 등 수많은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북남사이에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취하신 이 모든 평화애호적 조치와 현명한 령도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의 합리적인 평화제안들과 그를 지지하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외면하고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떠들면서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키는데로 나갔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전쟁전략에 평화전략으로 맞서 놈들의 침략과 도발 책동을 걸음마다 견제하면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인민군장병들을 축소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각종 도발적인 책동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비록 불안정한 상태로나마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평화애호적 립장과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십년간 격페되였던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북남대화의 문을 열어놓으시여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3권, 419페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다시 합치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이며 끊어진 민족적 뉴대를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로서 조선사람들사이에 전쟁을 해야 할 아무런 까닭도 없다.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평화를 지향하는 현 국제정세발전의 요구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의 길을 개척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려 200여차례의 제안을 내놓은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1971년 8월6일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접촉할데 대한 폭넓은 협상방침을 제시하시여 북과 남의 어떤 접촉도 한사코 반대하던 남조선괴뢰들을 대화의 마당에 끌어내시였다.

그리하여 나라가 분렬된후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에 적십자회담이 열리고 그를 돌파구로 하여 북남고위급 정치회담이 마련되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 사변이였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기운을 급격히 앙양시킨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4반세기이상 격페되였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통일의 열망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겁을 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배신적으로 북에 대한 대결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로골화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를 파탄에로 몰아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대화파괴책동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신축성있는 제안들을 내놓으시고 회담분위기를 주동적으로 조성하면서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시였다. 이에 따라 1979년에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의 접촉, 1980년 2월 쌍방총리접촉을 위한 실무대표들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1984년 9월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구호물자 전달을 계기로 적십자회담이 재개되고 북남간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북남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경제회담 등 실로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가 마련되였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물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배신적인 대화파괴책동과 민족분렬책동,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고말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신 북남대화는 수십년간 격페되였던 북남의 장벽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나라의 통일을 어떻게 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것으로 하여 큰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

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이에 겁을 먹고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공공연히 짓밟으면서 통일이 아니라 분렬의 길로 나갔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더욱더 외세에 매여달렸으며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부르짖으면서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미쳐날뛰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각방으로 추진시켜오던 남조선괴뢰도당은 드디여 1973년 6월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민족분렬을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여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미제의 대조선전략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도상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이 더욱더 커가고있었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남조선괴뢰도당이 들고나온 반민족적 주장을 제때에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온 민족앞에 민족통일의 확고한 전망과 뚜렷한 방도를 밝히는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언제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정세발전의 전망을 환히 내다보시고 통일의 앞길을 헤쳐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사태하에서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통해 놈들의 《두개 조선》 정책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명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조국통일5대방침은 민족의 분렬을 막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강령이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을 철저히 옹호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통일강령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국통일5대방침은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로 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의 《특별성명》은 그 즉시에 풍지박산나고말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언제나 정세발전의 추이와 놈들의 동향을 명철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제때에 그에 대처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그 실현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에 관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확고한 신심과 드높은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확신성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였으며 북반부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던것처럼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아무리 험난한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더라도 기어이 우리 대에 나라의 통일위업을 이룩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최 수 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국제적 위업, 반제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신 고귀한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다. 일찌기 세계혁명위업수행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실천활동을 벌려오시였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이 세계적범위를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운동으로 확대되고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자라나 세계의 혁명적 변혁과정과 국제정치생활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있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활동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쁠럭불가담운동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나라,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계시며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여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전진하는 과정에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신흥세력이며 세계의 수많은 인구와 나라들을 포괄하고있는 가장 폭넓은 국제적 운동이다.

청소한 쁠럭불가담운동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앞길을 밝혀주는 사상과 리론이 절박하게 요구되였다. 옳바른 사상과 리론을 가지느냐 못가지느냐 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도와 그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쁠럭불가담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이 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출현하고 확대강화됨에 따라 세계반제혁명력량은 결정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였다. 세계혁명발전과 국제정치생활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지위와 역할은 날을 따라 더욱 커가고 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해방과 자주권, 평화와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권을 지키며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민족해방위업을 추동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세계의 광활한 령토와 많은 인구를 망라하고있고 원료와 연료의 무기를 가지고있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킬수 있다. 또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긴밀히 지지하고 협조한다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은 곧 세계반제혁명력량의 강화를 의미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계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쁠럭불가담운동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사상은 이 운동에 대한 가장 옳바른 평가를 주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쁠럭불가담운동에 관한 사상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제자주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이며 그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가는것은 이 운동의 근본원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49페지)

반제자주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이며 근본원칙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위한 운동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이 운동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정권이 있어도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자주성이 없는 민족은 식민지적 예속과 노예적 굴종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마땅한 권리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인것처럼 쁠럭불가담운동에 있어서도 생명으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며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가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특성이다. 만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쁠럭불가담운동은 불가피하게 변질을 가져오게 된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성스러운 임무로 나서고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

력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할 때 세계에는 지위하는 나라와 추종하는 나라도 없어지고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를 받는 민족도 없어지게 될것이며 따라서 매개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는 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구현하여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여야 하며 그 어떤 지배세력에도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근본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을 본래의 원칙과 목적으로부터 리탈시키려는 온갖 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 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이 운동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근본원칙은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쁠럭불가담운동이 편향과 곡절없이 성과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쁠럭불가담운동에 관한 사상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단결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단결을 떠난 쁠럭불가담운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단결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킬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성원국들사이의 단결을 이룩함으로써만 인류력사를 힘있게 전진시키는 위력한 력량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목적과 리념을 실현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 리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언제나 서로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하며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발생한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단결의 원칙에서 풀어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어디까지나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나가는 형제들사이의 내부문제이므로 서로 싸우거나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는 어디까지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단결의 원칙에서 쌍방의 민족적 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 리익에 맞게 당사자들끼리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한 립장에 서서 분쟁문제를 쌍방의 리익에 맞게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지지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는것은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 협조를 발전시켜나간다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자립적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때 참으로 위력한 힘을 나타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쁠럭불가담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운동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지도적 지침으로, 전투적 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이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고 국제무대에서 그 역할을 높이는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세계적 범위를 포괄하는 폭넓은 운동으로 확대발전되여온 과정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엄중한 도전을 짓부시면서 전진하여온 간고한 로정이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이 운동을 분렬, 와해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쁠럭불가담운동안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이 운동은 엄중한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와해 책동을 짓부시고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쁠럭불가담운동이 발전도상에 조성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류력사를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모든 성원국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이 시대와 인류 앞에서 지닌 무거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3권, 369～37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엄중한 시련을 겪을 때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와해 책동에 대처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중요회의 전야이나 조성된 긴박한 정세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들을 소집하시고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련합회의들에서 쁠럭불가담운동앞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이 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성원국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굳게 단결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목적과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은 반제자주화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하며 새 세계 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은 자기의 내부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한편 집단적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남남협조를 실현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하며 불공평한 현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원칙들은 이 운동의 통일단결을 수호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고 이 운동이 옳바른 길을 따라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많은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의 당과 국가지도자들을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과 만나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의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와 외교부장회의들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시고 그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분렬의 위험을 막고 통일을 수호하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목적과 리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쁠럭불가담운동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이 운동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심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남남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은것이다.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완전한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여야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인 락후와 빈궁, 기아와 병마에서 인민들을 해방할수 있으며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집단적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남남협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형편과 국제경제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남남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을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남남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를 비롯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국제회의가 련이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회의들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남남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남남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 기초우에서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호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남남협조를 긴요하고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실현하며 경험을 쌓고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점차 확대하여나가는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당면하여 무역과 금융통화 분야,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농업분야, 과학기술분야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하며 이밖에도 자원개발분야, 공업분야, 교육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적극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남남협조에 관한 국제회의들에서 내세운 과업들을 리행하고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1년 8월 평양에서 열렸던 식량 및 농업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토론회에 참가한 동서아프리카나라 농업부장들을 접견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나라 농업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그리고 아프리카나라들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기후풍토에 맞는 새로운 농법을 연구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러한 부대조건도 없이 서아프리카에서는 기네에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를, 동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에 농업과학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시였으며 다른 나라들에는 시험농장을 꾸려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보내시였으며 연구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자동차, 뜨락또르를 보내주시였다. 이것은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산 모범으로 되였으며 남남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력사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27년전 25개의 신생독립국가들로 첫 진군을 시작한 쁠럭불가담운동은 오늘 100여개의 신흥세력나라들을 망라한 매우 폭넓은 국제적 운동으로 확대되고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자라나 세계의 혁명적 변혁과정과 국제정치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리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은 그 어떤 반동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력한 반제자주력량으로, 인류력사의 힘있는 추동력으로서 자기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걸어온 전로정은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쁠럭불가담운동의 생활력을 보여주고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킴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쁠럭불가담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실천활동으로 쁠럭불가담운동,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과 반제자주위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속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로, 《반제자주위업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수령》으로,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

전세계인민들이 그처럼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영예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영예와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적 인생관의 핵

강 민 구

혁명적 인생관 확립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는것은 인생관의 핵을 정확히 밝히는것이다.

인생관의 핵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과학리론적으로 밝혀져야 그에 기초하여 혁명적 인생관의 모든 체계와 내용을 옳바로 전개할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한생을 값높은 삶으로 빛내이게 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은 혁명적인생관의 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4페지)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적 인생관의 핵이다.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의 핵이라는것은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는것이 혁명적 인생관 확립에서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생은 인간의 삶이며 인생관은 인간의 삶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이다. 인간의 삶은 생명과 생활을 내용으로 한다. 인간의 생명이 사람이라는 사회적 존재의 성질이라면 그 운동은 생명활동, 생활이다. 일정한 물질적 존재는 자기의 고유한 성질에 맞는 방식으로 운동하는것만큼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인 사람도 자기의 방식으로 살며 활동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삶의 근본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이며 어떠한 삶이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인가,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이 바로 인생관인것이다.

사람은 일정한 정도로 자기 나름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또 살고있다. 그런데 어떠한 인생관을 지니고 사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활동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진다. 사람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생을 혁명가로서 참답게 살아나갈수 있으며 삶의 마무리를 잘 지울수 있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인생관을 확립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는것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와 관점, 수령을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혁명적 수령관의 사상리론적 기초를 이룬다면 수령을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은 혁명전사의 사고와 행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는 립장과 자세,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로부터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대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진데 기초하여 옳은 립장과 자세를 취하는것만큼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는 립장과 자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자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리론적으로 깊이 알아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혁명적 신념으로 받아들이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에 대한 옳바른 견해로부터 가지게 되는 높은 정치적 자각이며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준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보답이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인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충실성은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마음속깊이에 자리잡은 확고한 혁명적 신념이며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이다.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만이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진정한 충실성으로 될수 있다. 사람들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참다운 충실성을 지니였을 때 혁명적 수령관이 서게 된다. 이것은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을 지니는것이 바로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혁명가의 참된 삶은 수령의 령도밑에서 개척된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한 옳은 견해, 관점과 립장은 수령관에 기초하여 세워진다.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적 인생관의 근본바탕에 놓여있으면서 그 확립의 기본으로, 핵으로 된다.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는것이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하여금 가장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한다는데 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어떻게 리해하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 인생관을 확립하는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인간의 삶, 생활은 인간생명의 활동이며 그것은 생명의 구체적 발현과정이다. 사람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 사회정치적 생명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며 영생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고찰은 인생관의 출발점으로 된다.

사람은 생명유기체의 장구한 진화발전의 산물이면서도 사회적 존재인것만큼 생명유기체로서의 생명인 육체적 생명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인간의 참된 생명이며 영생하는 생명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육체적 생명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사회정치적 생명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육체적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할 때 지니게 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이며 중심인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요구이며 따라서 그것은 집단을 개인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관점과 립장의 집중적 표현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라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정치적 집단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지닐수 없는 새로운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능력을 가진 하나의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집단이며 그 자체에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체현되여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사회적 집단에 체현되여있다는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모체가 개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정치적 집단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질수 없다는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람들은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게 된다는것이다. 생명체는 그 모체에 생명이 존재하기때문에 그 생명체를 구성하고있는 모든 세포가 생명을 가지는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모체인것으로 하여 그를 구성하고있는 개별적 성원들에게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게 된다.

집단의 한 성원으로 사는 개별적 사

람들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자주적인 존재인 사람은 사회정치적 집단과 함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게 되며 그속에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알게 된다.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삶을 자각하게 됨에 따라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려고 한다.

그러나 자주성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여 결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되는것은 아니다. 개별적 사람들은 수령을 뇌수로 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여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고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여야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수 있다. 그것은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을 대표하기때문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인도하기 위하여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조직을 창건한다. 개별적 사람들은 사회정치적 집단을 통하여 수령과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끊을수 없는 혈맥으로 이어지고 사회정치적 생명의 자양분을 받아안게 된다.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련결된 수령과의 조직사상적 뉴대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생명선이다. 이 조직사상적 뉴대가 있음으로 하여 혁명하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빛내여나갈수 있다.

혁명하는 사람의 값높은 한생은 수령으로부터 받아안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수령의 품속에서 그것을 빛내여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지 않고서는 정치적 생명을 지닐수도 없고 보존할수도 없다는것을 증시하여준다.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여도 수령으로부터 받아안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한다. 그러나 혁명적 수령관이 서지 못한 사람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지 못하기때문에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보존할수 없으며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저버리게 되는것이다.

결국 혁명적 수령관이 섰는가 안섰는가 하는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는 기본척도로서 혁명적 인생관 확립의 기본으로, 핵으로 된다.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되는것은 또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는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적 인생관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을 내용으로 하는것만큼 인생관의 핵은 인간의 생명뿐아니라 생활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에서도 기초로 되여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릴수 있는 길을 밝혀줌으로써 생활관의 기초로 되는것이다.

사람들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쳐 사는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행복으로 느낀다. 화목하게 단합하여 사는 집단주의적 생활은 집단적인 사회적 존재라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유한 생활방식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쳐사는 인간의 생활은 참다운 생활이며 화목한 집단생활의 가장 높은 형태로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야 참답게 보장될수 있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는 통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관계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과 혁명전사와 혁명전사들 호상간에서 발현된다.

수령은 혁명전사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며 혁명전사는 수령을 충성과 신뢰로서 높이 모신다. 바로 이것이 수령과 전사들 사이에 맺어지는 동지애

와 혁명적 의리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전사에 대한 수령의 사랑과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의 보답의 원리라고도 말할수 있다.

수령과 전사들 호상관계에서 발현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적 집단으로 결합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다 더 큰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닐것을 바라며 그것이 실현될 때 거기에서 보다 큰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성원으로 되자면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하여야 하며 그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살아나가야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고통은 고독하게 사는것이며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버림을 받는것이다. 혁명전사들은 수령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자기의 가치와 존엄을 자각하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수령에게 충성다함으로써 그 사랑과 신임에 보답하며 거기에서 또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

혁명전사들사이에서 맺어지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도 어디까지나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여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혼연일체의 통일체를 이루자면 그 유일중심인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야 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야 집단의 모든 성원들사이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더욱 공고하고 건전한 관계로 될수 있다.

사실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물질생활에서 《향락》을 누리는것은 사람다운 생활이 아니며 인심단결하여 화목하게 사는것이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한 것이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길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서로 굳게 뭉쳐 사는데서 삶의 참된 보람과 행복을 맛보게 된다.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쳐사는데서뿐아니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준다.

혁명투쟁은 그자체가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그것은 혁명투쟁이 가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라는데 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에 맞는 생활이며 그로부터 흘러나온다. 혁명투쟁이 사람의 본성에 맞는 생활인것만큼 사람들의 삶의 보람과 행복은 혁명투쟁속에 있는것이다. 혁명투쟁의 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에 의하여 수행된다. 사람이 한생을 자기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러한 생활은 사람의 참된 생활이라고 할수 없으며 목적없는 동물의 생활과 다름이 없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인민대중을 위하여 살아야 그 삶이 값있고 보람있게 사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혁명에 한몸바치는것보다 더 큰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을수 없다.

그런데 혁명위업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위업인것만큼 혁명하는 사람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자면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여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수령이 이끄는 혁명위업에 몸바쳐 투쟁하여야 하며 바로 이 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

이처럼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게 하고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에서 핵으로 된다는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혁명투쟁발전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된다는 사상이 과학리론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무엇보다 인생관발전에서 새로운 경지가 빛나게 개척되게 되였다.

인간의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때로부터 사람들은 이렇게나저렇게나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사색을 거듭하여왔다. 그러나 지난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인생관이 확립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생행로에는 파란곡절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수전노로서 황금의 노예로 일생을 마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착취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피하여 목가적인 생활속에서 락을 찾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상아탑》속에서 정신적 만족을 느꼈다. 지난 시기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종교적 환상에 마취되여 살았거나 순간순간 시세에 순응하여 살아간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부르죠아사상가들은 착취계급의 개인《전기》나 회고담을 엮어 이른바 《인생론》을 전개하였다. 물론 개인의 생활을 떠나서 인생관을 세울수 없지만 인생관은 개인전기나 회고담과는 전혀 달리 어디까지나 인생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고찰인것이다.

선행로동계급의 리론에서는 인간의 해방의 제조건에 관한 문제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인간의 운명 개척문제는 해결될수 있는것으로 봄으로써 혁명적 인생관 확립의 전제를 마련하였다.

주체사상은 혁명적 세계관과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인생관을 확립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 수령관과 주체의 인생관의 내용을 천명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에서 핵을 이룬다는 귀중한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의 인생관은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인생관으로 되였으며 인생관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되였다.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된다는 사상이 과학리론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또한 사람들의 참된 생활의 진리가 똑똑히 해명되게 되였다.

참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여나 한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옳게 밝히는것은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 수령관을 심오히 밝히신데 기초하여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성다할 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개척되며 사람들은 거기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을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앞에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사는 휘황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된다는 심원한 진리가 새롭게 천명됨으로써 혁명적 인생관의 모든 체계와 내용이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되게 되였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이 깊이있게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혁명하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값높은 삶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 무기를 받아안게 되였다.

참으로 혁명적 수령관이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된다는 사상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혁명적 수령관을 인생관적으로 받아안을수 있게 하여준 불멸의 사상적 기치이며 사람들이 언제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좌우명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인생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본질적 특징

박 승 덕

오늘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앞길을 가장 정확히 밝힌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삼고 살며 싸워나가고있는 커다란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인류의 진보적 사상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공헌한 특출한 공적과 세계의 혁명적 변혁과정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으로 하여 주체철학의 비상한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다.

주체철학이 인민대중의 참다운 혁명적 세계관으로서 인류의 앞길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력사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더 커다란 변혁적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그것이 사람을 위주로 하여 모든것을 대하고 평가하는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인간을 위주로 하는 철학발전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였으며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　　　*

주체철학은 사람위주의 철학이다.

주체철학에서 사람을 위주로 한다는것은 인간을 첫자리에 놓고 그와의 관계에서 온갖 사물현상을 보고 대하며 모든 세계관적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세계관을 세우며 인간의 지위와 결부시켜 모든 철학문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주체철학의 본질적 특징이 있다.

철학은 원래 세계관을 준다.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주는 보편적인 과학이며 인간의 리해관계에 맞게 세계에 대하는 근본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는 사회적 의식형태라는데 철학의 본질이 있다.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와 근본관점을 담고있는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사람자신이다. 인간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과 호상작용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철학이 옳바른 세계관을 주려면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그와의 관계속에서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밝혀야 하며 인간의 근본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에 대하는 주동적인 관점과 립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것이 세계관을 주는 철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임을 보여준다.

주체철학이 위주로 하는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다. 이러한 본질적 속성은 력사의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에게 고유하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가장 발전되고 우월한 존재로 되며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될뿐아니라 가장 귀중하고 값높은 존재로 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가장 발전된 존재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세계의 본질과 특징을 해석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인 인간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사물현상

의 변화발전을 해명하며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의 리익을 척도로 하여 모든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확립되였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을 위주로 하는것은 옳바른 세계관을 밝히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인간을 위주로 하여야 사람을 세계의 단순한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세계의 특수한 위치에 내세울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외부세계를 인간에게 복무시키기 위한 세계관을 세울수 있다. 객관세계를 사람에게 더욱더 쓸모있는 대상으로 개변하기 위한 세계관을 밝히려면 자연과 사회에 목적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그것을 자기의 의사에 맞게 변혁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인 인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사람을 위주로 하여야 인민대중의 근본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것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고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환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세계관을 마련할수 있다.

주체철학에는 그 리론과 방법, 모든 내용과 전반체계에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대상을 보고 대하며 해석하고 평가하는 특징이 일관되고있다. 주체철학의 사상과 지식, 리론과 방법, 원리와 개념, 내용과 체계는 사람위주의 특징을 구현하여 이루어지고 전개되여있다. 사람을 위주로 하는것은 주체철학을 다른 모든 철학과 구별하는 본질적 특징이며 이 철학이 가지고있는 여러가지 특성들가운데서 기초적인 의의를 가지는 근본특징일뿐아니라 주체철학의 모든 측면들에 관철되여있는 일반적 특징이다.

사람을 위주로 하는 주체철학의 본질적 특징에는 두가지 내용이 담겨져있다. 그 하나는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히는것이다. 주체철학에서 그 특징의 첫째 측면은 철학적 고찰의 특징을 이루며 둘째 측면은 사명에서의 특징으로 된다. 주체철학의 고찰의 특징은 철학적 고찰의 중심문제에 대답을 주며 사명의 특징은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준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우선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는것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확립하시였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페지)

사람을 위주로 하는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고찰의 중심에 사람을 놓는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이 인간을 고찰의 중심에 놓는다는것은 세계를 연구하는데서 사람의 근본요구로부터 출발하고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내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를 보고 대하며 평가하는데서 사람의 자주적 요구를 출발점으로 삼고 인간을 세계의 주인으로, 세계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내세운다는것이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이 세계를 고찰하는데서 사람을 그 지배자, 개조자의 위치에 놓는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첫자리에 내세우는데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다.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세계의 주인, 세계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인 사람을 첫자리에 내세워야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인간을 놓게 된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사람을 주인

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세계의 주인, 지배자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세계를 사람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전일체로, 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파악하게 하였다. 사람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오늘의 세계는 가장 발전된 세계이다. 인간은 물질세계발전의 최고산물이며 사람보다 더 발전되고 고급한 존재가 출현하지 않는다는것은 물질세계진화의 합법칙성이다. 사람이 살고있는 오늘의 세계는 물질세계의 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고있다. 세계에 대한 고찰에서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세계의 본질과 발전수준에 대한 새로운 리해가 확립되였다.

지난 시기의 과학적 철학은 물질을 세계의 시원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을 밝혀 세계가 물질이며 물질로 통일되여있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세계의 물질성이 사회현상에까지 확대되여 밝혀진것은 관념론에 대한 유물론의 승리를 확증한 획기적 사변이였다. 주체철학은 세계가 물질이라는것이 해명된 다음에 나서는 인식발전의 요구를 구현하여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를 고찰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심화된 리해를 확립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들은 세계를 물질로 통일되여있다고 보는 리해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전일체로 보다 깊이있게 인식하게 되였으며 세계를 인간의 의식밖에 그와는 독립해있는 객관적 실재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보는 더욱 심오한 견해를 가지게 되였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역할에 기초를 두고 세계가 변화발전하는 합법칙성이 밝혀짐으로써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그들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세계가 변화발전한다는 진리가 천명되였다. 세계는 사람의 주동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인간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변화발전되여 나간다.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세계의 더욱더 넓은 령역과 보다 높은 운동형태가 사람의 조절통제밑에 들어가는 양상을 띠고 세계의 변화발전이 이루어진다. 사람을 세계의 개조자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변화발전을 고찰함으로써 사람을 위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가지게 되였으며 세계의 발전 방향과 양상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인식이 확립되였다.

지난 시기에는 세계를 이루는 사물들 자체에 원천을 두고 이루어지는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세계가 물질자체의 객관적 법칙에 의하여 부단히 변화발전한다는것을 밝힌것은 형이상학에 대한 변증법의 승리를 확정한 커다란 공적이였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세계가 변증법의 법칙에 의하여 끊임없이 운동발전한다는 견해가 밝혀진 다음에 나서는 인식발전의 요구를 구현함으로써 사람을 위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 보다 심오한 리해를 확립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들은 사물이 자체에 원천을 두고 자기운동, 자기발전한다는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세계가 변화발전되여나가는 합법칙적 과정에 대한 새로운 리해를 가지게 되였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이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고 세계에 대한 견해를 세우는데로부터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한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사회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사회를 사람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로 리해하게 하였다. 사람은 사회의 주인인것만큼 사회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 원래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는 다 사람이 창조하는것이

다. 사회적 재부는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체현된 물질문화적 수단이며 사회적 관계는 사람들의 사회적 결합방식으로서 사람의 자주적 리익에 맞게 개변되여나간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의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사회를 주인인 사람과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 사회적 재부와 사회관계로 보는 새로운 철학적 리해가 확립되였다.

지난 시기의 과학적 사회력사관에서는 사회의 본질을 사회적 관계, 그가운데서도 경제적 관계의 체계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사회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무시하고 사회를 개인들의 기계적 집합체로 본 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견해를 타파하고 사회의 본질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견해를 세운것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철학은 사회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견해가 확립된 다음에 나서는 인식발전의 요구를 구현하여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사회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의 본질을 보다 심오하게 해명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회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주인인 사람과 그에 의하여 창조되고 지배되는 사회적 재부와 사회관계로 파악하는 새로운 철학적 리해가 확립되였다.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의 변화발전이 고찰됨으로써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적 재부가 창조되고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여나가는것이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것도 해명되게 되였다. 사람을 주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일체로서의 사회는 그 구성요소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변화발전하게 된다. 사회의 기본구성요소인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발전하는데 따라 사회의 다른 구성요소인 사회적 재부와 사회관계가 창조되고 개변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의 주인인 사람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그리고 창조적 능력에 의하여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가 창조되고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게 된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변화발전이 고찰됨으로써 고유한 구조를 가진 전일체로서의 사회가 변화발전하는 합법칙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립되였다.

지난 시기에는 경제적 기초의 변화에 따라 상부구조가 변혁되는 합법칙성이 밝혀졌다. 이것은 사회발전의 경제적 필연성을 해명하고 력사에 대한 유물론적 견지를 확립한 중요한 공적이였다.

주체철학은 사회발전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가 세워진 다음에 나서는 인식발전의 요구를 구현함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발전하는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을 기본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의 구조가 밝혀지고 주인인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사회가 변화발전한다는것이 해명됨으로써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보다 심오한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철학은 대상의 본질과 발전의 합법칙성을 해석하고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나 사람들의 사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물현상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서나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륜리도덕적 및 미학적 관계를 해명하는데서 언제나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는다. 여기에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는 주체철학의 근본특징이 있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고찰의 중심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관주의적 및 객관주의적 철학에 대립한다.

주체철학이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는다는것은 사람만을 보고 객관세계를 무시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발전된 물질적 존재라고 하여도 물질세계전체를 대신할수 없으며 사람에 대한 견해가 곧 세계관으로 될수는 없다.

객관세계를 무시하고 인간의 주관적 욕망과 심리적 체험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며 개인의 내면세계와 인간존재에 대한 연구만을 철학의 대상과 과업으로

보는것은 주관주의적인 인간철학의 특성이다. 세계관을 주어야 할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인간을 철학의 유일한 연구대상으로 보며 사람의 주관적 욕망만 절대화하는 실존주의, 《철학적 인간학》 등의 인간철학은 주체철학에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는 주체철학은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세계를 보고 대한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사람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밖에서 세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주체철학에서는 세계와 동떨어진 순수 인간이나 사람과의 관계밖에서 고찰되는 세계 그자체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철학연구에서 세계를 인간과 련관시켜서는 안되며 사람과 떨어져 세계에 대한 해석을 주는데 철학의 과업이 있다고 하는 《객관적 존재론》과 같은 부르죠아적인 객관주의적 철학에 주체철학은 정면으로 대립한다.

주체철학은 바로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고찰의 중심에 사람을 놓고 그와의 관계속에서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대하는 특징을 가진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또한 인간의 운명 개척의 방도를 밝히는것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근본특징과 비할바없는 우월성도 바로 그것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준다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5페지)

사람위주의 주체철학은 인간의 운명문제를 원칙적인 철학상의 문제로 전면에 제기하였다. 사회적 인간의 근본요구와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것이다. 주체철학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 숙망과 절절한 지향을 과학으로 전화시켰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철학의 근본사명이 있다는 과학적 정식화가 주어졌다. 사람의 모든 인식과 실천 활동의 근본목적은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으며 철학의 목적과 사명, 임무와 과업도 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철학이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는것도 결국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기 위한데 있다. 그러므로 철학의 진보성과 생활력은 결국 그것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근본사명으로 전면에 내세웠을뿐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주체철학에서 인간의 운명 개척의 방도를 밝힌다는것은 운명개척의 주체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관의 원리와 명제를 제시하고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인간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합법칙성과 방법론을 해명한다는것을 말한다. 지난 시기의 철학들도 인간의 운명문제를 론하였으나 물질과 의식의 관계가 철학의 근본문제였던 조건에서 거기에 종속시켜 운명문제를 취급하였으며 따라서 운명개척의 방도를 전면적으로 해명할수 없었다. 인간을 철학적 사유의 중심에 놓는다고 표방하는 철학류파의 경우에도 사람과 세계 또는 사회에 대한 옳바른 리해에 기초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개변하기 위한 과학적 방도를 밝힐수 없었다.

주체철학이 사람의 운명 개척의 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하게 된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위주로 하기때문이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의 운명개척의 합법칙성과 방법론을 옳게 밝히

는가 밝히지 못하는가가 좌우되게 된다. 사람의 운명이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되는것만큼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수 없다고 보면 사람의 운명 개척의 옳은 방도를 밝힐수 없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사람이 사회관계에 제약되여있다는 리해에만 머물러서는 인간의 운명문제에 심오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과정에 개척되기때문에 인간에게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본질적 속성이 있다는것이 밝혀져야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가 해명되게 된다. 주체철학은 사람에게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본질적 속성이 있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었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모든 내용은 사람의 운명문제에 심오한 해명을 준다. 인간의 운명 개척의 합법칙성과 방법론을 밝힌 원리와 명제들이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내용을 이루고있다.

주체철학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야 할 사명에 맞게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새로운 근본문제로 제기하였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여야 개척되기때문에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는 운명개척의 근본문제로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는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에 옳바른 해명을 준것으로 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원리로 된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세계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 역할이 커질수록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며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가 강화되고 그 힘이 커질수록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인간의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합법칙성을 해명해준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에 자주적으로 대하는 립장과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방법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견지하여야 할 옳바른 방법론을 준다. 사람의 자주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에 대하여야 세계를 인간의 운명 개척에 복무하는 대상으로 전변시킬수 있으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하게 하여야 사람의 창조적 능력을 적극 발양시켜 세계를 사람의 운명 개척에 리롭게 변혁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우월한 존재,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 가장 귀중하고 값높은 존재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철학상의 모든 문제를 고찰하며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힌 바로 여기에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특징과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철학의 본질적 특징이 전면적으로 심오히 해명됨으로써 이 철학의 독창성과 위대성이 과학적으로 론증되고 철학사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개척한 주체철학의 빛나는 공적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또한 주체철학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고 력사발전에 대한 이 철학의 혁명적 작용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참된 길이 있다.

우리는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심원한 내용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혁명적 신념으로 만듦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을 옹호보위하는 불패의 혁명대오

리 봉 원

백두밀림에서 우리 혁명무력이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56돐이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무력은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주체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을 굳건히 옹호보위하며 자랑찬 승리의 전투적 로정을 걸어왔다. 이 과정에 우리 혁명무력은 자기의 영웅적인 투쟁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우리 군대는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갖춘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인민군장병들은 주체의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1)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을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은 혁명위업수행의 승리적 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투쟁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13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이 위업은 거창한 사회적 변혁과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방대한 침략무력에 의거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말살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한다. 원쑤들의 반혁명적 폭력에는 혁명적 폭력으로, 반혁명전쟁에는 혁명전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우지 않고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을 옹호보위할수 없으며 완성해나갈수도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자면 그것을 군사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 강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교훈으로부터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섰으며 우리 인민의 세기적 념원이였다.

지난날 조선인민은 자체의 진정한 혁명적 무장력을 가지지 못한탓으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겼으며 비참한 식민지노예생활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한것도 자체의 약점과 함께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진정한 인민의 군대, 참다운 혁명무력이 없이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할 수 없으며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우리 인민의 세기적 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의 참다운 혁명무력건설문제를 옳게 해결하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무장력이 가지는 의의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군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참다운 혁명무력건설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인 건군로선을 구현하여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상비적 혁명무력건설방침은 우리 인민이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민족해방혁명위업을 실현하며 반제민족해방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무력건설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빛나게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침으로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무력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력한 혁명무력창건을 위한 튼튼한 정치군사적 토대와 무장투쟁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데 기초하여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보위하고 그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투쟁목적으로 삼는 참다운 주체형의 첫 혁명적 무장력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반제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오래동안 망국의 비운속에서 피절많은 수난의 길을 걸어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여 줄기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무력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다음 조선인민혁명군을 제때에 혁명적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정규무력은 혁명무력에서 기본을 이루며 정규무력을 가지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 요구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강력한 정규무력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피로써 쟁취한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을 잡은 다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현대적 정규무력을 건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강력한 정규적 혁명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의 나날 백두밀림에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무르익혀오신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로선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우리 나라의 첫 주체형의 혁명무력이였던 조선인민혁명군이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현대적 정규무력으로의 강화발전이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위력을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그 위용을 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당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옹호보위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 정규무력을 건설하신 다음 새 사회건설의 전기간 크나큰 정열과 심혈을 바치시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문제, 혁명군대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할데 대한 문제, 군대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전군을 혁명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전군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주체적인 군사전략사상과 주체전법에 기초하여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군대의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며 군인들의 군사기술적 자질을 높이고 여러 군종, 병종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게 하시였다.

혁명무력건설에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무력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군인대중자신이라는 확고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시고 혁명무력의 골간을 꾸리는 사업으로부터 무장장비를 갖추는데 이르기까지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그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 진군속에서 보다 높은 단계에로 줄기찬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군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으로부터 시작된 혁명무력의 주체사상화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전군의 주체사상화는 인민군장병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을 옹호보위하는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전군주체사상화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의 성격과 사명이 더욱 뚜렷해지고 투쟁 목적과 과업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인민군대는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옹호보위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본성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전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울데 대한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다. 이와 함께 군대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할데 대한 방침, 군대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인민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세련된 령도력과 능숙한 조직적 수완,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자위적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

하여주심으로써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무력으로 옹호보위하고 대를 이어 완수하는것을 자기의 투쟁목적으로 삼고 창건된 우리 군대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전군위업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지닌 최대의 민족적 긍지이며 더없는 영광이고 자랑이다.

(2)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무력은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전투적 로정을 자랑스럽게 걸어왔으며 오늘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때려부시고 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보위하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왔으며 당과 혁명 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은 창건 첫날부터 인류전쟁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혁명무력의 영광에 찬 투쟁로정에서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 후방도 정규무력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정예무력을 가진 일본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운 피어린 혁명전쟁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언제나 승리를 확신하고 혁명적 락관에 넘쳐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100만의 일제관동군을 격파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 불멸의 위훈을 떨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혁명과업은 성취되고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 사회 건설의 보람찬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계승하여 해방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전투행로에서 조국해방전쟁은 세계반동의 괴수이고 원흉인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가장 준엄한 현대전쟁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자주위업을 옹호보위하는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한 영웅적 투쟁이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군사적 안목으로 적들의 기도와 전선정황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전쟁의 매 단계마다 독창적인 군사 전략과 전술을 내놓으시여 인민군대를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

어놓았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령군술, 주체전법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낸 우리 인민군대는 전후시기에도 적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고있다. 인민군대는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이 강화되고 혁명의 배신자들이 당과 혁명에 도전해나섰던 전후 어려운 시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들고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사수하였다. 또한 인민군장병들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과 대형 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당의 혁명위업을 튼튼히 보위하였다. 인민의 참다운 군대인 조선인민군은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설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여 영웅적 위훈을 떨치였다. 오늘 인민군군인들은 속도전을 벌려 20리 날바다우에 세계적인 대갑문을 일떠세운 그 기백으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하여 무비의 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로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충직하게 수행하여온 자랑찬 행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걸어온 우리 군대는 오늘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혁명이 멀리 전진할수록 혁명군대를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옹호보위하는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의 전도와 그 종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근본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수령과 그 위업을 직접 계승한 후계자에 의하여 전진하며 완성되는 력사적 위업이다. 그것은 또한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승리해나가는 간고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 위업을 옹호보위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군대가 수령의 위업을 계승한 후계자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수 있는 대오로 강화발전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인민군대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된것은 무엇보다 전군에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이 차넘친데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군대의 생명이며 모든 위력의 근본원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확고히 지배하는 군대만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 무장

력으로 될수 있다.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충실성은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되고 오래고도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굿굿이 이어져온 우리 군대의 전통적인 풍모이다. 지금 우리 인민군대안에는 지난날 조선혁명군 대원들이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장군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해나가던 그 신념대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나가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은 백배해지고있다.

인민군대의 핵심인 혁명적 골간이 튼튼히 꾸려진것은 우리 혁명무력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끝까지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혁명군대는 혁명적 골간이 튼튼하여야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고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될수 있다.

우리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은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여온 력사는 혁명적 골간이 자라난 행로였다. 우리 혁명무력이 창건될 때에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단련된 혁명적 골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는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오랜 투사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적 골간이 수많이 늘어났다. 특히 전군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군장병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나게 된것은 인민군대의 혁명적 골간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되였다. 이러한 혁명적 골간력량이 꾸려진 것은 전반적 혁명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인민군대가 오늘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옹호보위하고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된것은 또한 전군에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강철같은 군사규률과 명령지휘체계가 튼튼히 확립된데 있다.

혁명군대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전군에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는 혁명군대의 생명이다. 혁명군대의 규률과 질서는 곧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관철하기 위한 규률과 질서이다. 그러므로 전군에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가 확립된 군대만이 당의 령도를 옳게 받들어나갈수 있다.

지금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당의 의도가 병사대중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신속정확히 침투되고 전군이 숨을 쉬여도 당과 함께 숨쉬고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이 우리 군대의 자랑찬 면모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 지휘관들은 전투정치훈련을 조직하고 부대를 관리하여도 어떻게 하면 당의 의도대로 해나가겠는가 하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모든 지휘관과 전사들은 당의 지시를 순간의 지체와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사상과 의도와 어긋나는 그 어떤 사소한 요소도 발붙일 틈이 없는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적 통일체로, 당의 부름이라면 전군이 한결같이 일떠서는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되고있다. 반세기가 넘는 우리 혁명무력건설력사에서 오늘처럼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자각적인 규률이 확립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군대오의 철석같은 통일단결과 당의 명령집행을 위한 지휘체계는 그 어떤 군사적 의무감이나 질서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실지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

민군대의 위력은 고도의 자각적인 규률로 되고있으며 당과 군대를 하나의 유기체로 굳게 결합시키는 비상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당과 사상의지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려는 이러한 혁명적 무장력이 있기에 우리 당의 높은 령도적 권위가 견결히 옹호보위되고 당의 위업이 순결하게 고수되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군대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주체위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온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이며 앞으로 그 어떤 풍파가 부닥친다 하더라도 당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주체위업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강위력한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된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앞에는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당과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가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지금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다.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인 방안들을 외면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놈들은 려객기사건을 조작하고 우리를 비방중상하며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평화제안에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섰다.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의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매우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국과 혁명을 튼튼히 보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대오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충성다하는것이다.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무력의 수위에 모시고있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당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인 기풍과 명령지휘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또한 전군의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 인민군대를 당이 이끄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워나가는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전투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인민군대를 원쑤들의 그 어떤 침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준엄한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은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방선을 경각성있게 지키며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한 대건설투쟁에서 일당백의 힘과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영예를 떨쳐야 할것이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우리 인민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의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나 필승불패이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대건설행군에서 힘을 넣어야 할 투쟁과업

리 지 찬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경제건설과업의 하나는 전력공업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여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4페지)

전력은 현대적 생산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업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기본동력을 생산공급하는 기간공업부문이다.

전력공업을 앞세워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재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전력공업을 앞세워 발전시켜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대건설행군에서 힘을 넣어야 할 투쟁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늘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기간공업은 인민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기초이다. 기간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자재와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을 확고히 앞세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수 있다.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기간공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기간공업가운데서 중요한것은 전력공업이다. 현대산업은 원료, 연료, 기계설비와 함께 동력이 있어야 제대로 움직일수 있다. 여러가지 동력가운데서 전력은 생산의 기본동력으로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여야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지장없이 대주고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다른 기간공업부문의 전력수요도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여러가지 원자재와 기계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해낼수 있다. 전력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을수록 이 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데 기초하여 모든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특히 웅대한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경제건설과업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공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는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 장성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석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고리는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있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대건설행군에서 힘을 넣어야 할 투쟁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생활을 획기

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을 빨리 끝내며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에서 힘을 넣어야 할 중심고리의 하나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광복거리 건설 그리고 농촌테제의 완성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은 그 규모와 속도, 질적 수준에서 일찌기 없었던 거창한 대건설이다. 이 모든 대건설장들에서는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고있다. 전력공업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모든 대건설장들에 공사용 전력을 충분히 보장하며 대상설비와 자재 생산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여도 운영단계의 동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전력건설을 앞세우지 못하면 생산을 제대로 보장할수 없으며 그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발전소건설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대건설행군에서 힘을 넣어야 할 투쟁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조를 실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담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있어야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울수 있다.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축성을 위한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쳐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전력의 충분한 보장이 없이는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적극 실현할수 없으며 대건설행군을 적극 다그칠수 없다.

이 모든것은 전력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시간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질, 량적으로 충분히 공급할수록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발전소건설에 큰 힘을 넣어 전력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서두수발전소 3단계공사를 상반년안으로 끝내여 120만크바이상의 발전능력을 조성하며 금강산발전소, 녕원발전소, 희천발전소, 남강발전소, 금야강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폐지)

발전소건설을 적극 다그쳐 전력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은 현시기 전력공업발전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발전소건설을 다그쳐야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울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는 지금 진행하고있는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서두수발전소 3단계공사를 상반년안으로 끝내여 120만크바이상의 발전능력을 조성하며 새로운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상반년안으로 120만크바이상의 발전

능력을 조성하자면 여러기의 발전설비를 생산하여 조립하고 언제축조와 물길굴포장을 하며 운영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등 방대한 과제를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한다.

이 방대한 과업은 발전소건설자들은 물론 자재와 대상설비 생산을 맡은 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상반년안으로 120만크바이상의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에 력량을 집중할것을 요구한다.

발전소건설과 련관된 모든 부문들에서는 대건설행군을 다그치는데서 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발전능력조성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설계를 비롯한 기술준비를 시공에 철저히 앞세우며 시공과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전력계통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전력계통을 더욱 잘 꾸리는것은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에 원만히 공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전력계통을 튼튼히 꾸려야 새로 건설되는 대규모공장들과 산업시설들에 전력을 충분히 대주어 그것이 제때에 큰 은을 내게 할수 있다.

따라서 전력계통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은 발전소건설과 동시에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전력계통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송배전망들을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경제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선후차를 옳게 가려 전망성있게 구성하여야 하며 도중손실을 낮추고 력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새로운 송배전선로와 변전소들을 건설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송변전건설부문에서는 상반년안으로 조업하게 될 발전소들의 인출선공사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단계확장공사에 필요한 전력을 지장없이 보장하기 위한 송전선, 변전소 건설공사를 끝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

당면한 송변전건설공사와 함께 전망을 고려하여 초고압송전망구성을 위한 기술준비를 잘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송전선, 변전소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게 대상의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기술준비와 시공에 대한 통일적 지휘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대상별 조업기일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소건설을 다그치며 전력계통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산을 떠옮기고 강줄기를 돌리며 송전선과 변전소들을 건설하는 사업은 어느 한 부문의 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여기에는 많은 설비와 자재, 로력이 요구되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전력공업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 사업의 성과여부가 좌우되게 된다.

건재, 금속, 기계 공업부문에서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 발전설비와 전기조작기구들을 시공에 앞세워 제때에 보장하여야 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특히 발전설비와 전기조작기구 생산을 맡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 6월5일전기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과 세멘트공장, 금속공장들에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 설비, 자재를 대주는것처럼 발전소건설장에도 그것들을 앞세워보장해주어야 발전소건설을 적극 밀고나갈수 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많이 쓰는 변압기와 전선, 현수애자, 각종 전기조작기구들을 비롯한 설비자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할뿐아니라 운수부문에서 그것을 지체없이 공사현장에 날라다주어야 송전선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지금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방들에서도 중소형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방들에서 벌어지고있는 중소형 발전소 건설은 지방의 자재와 설비, 로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지방 당,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자기지방의 특성에 맞게 자재와 설비, 로력 동원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더 많은 중소형 발전소들을 건설함으로써 늘어나는 전력에 대한 지방적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지금 있는 전력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 생산과 공급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전력 생산과 공급을 정상화하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전력 생산과 공급을 정상화해야 탄광, 광산들을 만부하로 돌려 연료와 원료를 가공공업부문에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다.

수력발전소들에서 언제와 수문, 수로, 도중취수구 등 수력구조물들에서 한방울의 물도 새지 않도록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도중취수구에서 흐르는 물을 모조리 잡아 리용하는 한편 새로운 물원천을 적극 탐구하며 가능한 모든곳에 도중취수구를 더 건설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야 한다.

전력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중요한 예비는 석탄을 잘 보장하여 화력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는데 있다.

화력발전소들에 석탄을 보장하기로 된 탄광들에서는 석탄 생산과 공급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며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에 대한 석탄수송계획을 일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화력발전소들에서 석탄예비를 조성하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발전소들에서는 이미 마련된 물과 석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설비와 시설물을 정비보강하며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설비와 구조물을 철저히 정비보수하는 한편 낡고 뒤떨어진 수차를 보다 능률적인것으로 개조하며 발전기의 낡은 권선을 새것으로 바꾸어 그 능력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화력발전소들에서 저열탄을 땔수 있도록 보이라와 미분화설비들을 개조하며 새로운 연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도 많은 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다.

송배전부문에서는 과부하되고있는 변압기들을 개조하여 능력을 높이며 송전선과 배전선 전압단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나라의 전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력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전기를 쓰는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기랑비를 없애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전기절약을 위한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쳐 제품단위당 전력소비를 훨씬 낮추며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전력계통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전력 생산과 공급을 정상화하는 과업들은 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짜고들어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실속있게 해나감으로써 대건설행군에서 힘을 넣어야 할 전력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데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공업을 앞세워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전반적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높이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는것은 수송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

리 길 송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려는 드높은 혁명적 열정을 안고 당이 제시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높은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고 대건설행군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전례없는 거창한 규모와 높은 속도로 벌어지고있는 대건설행군의 전투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더 많은 자재와 설비들을 빨리 실어다줄것을 요구한다.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록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수송은 곧 생산이며 건설이다. 수송을 통하여 원료와 자재, 설비들이 생산단위에 운반되며 생산된 제품들이 소비지에 옮겨진다. 수송을 떠난 현대적 생산이란 있을수 없으며 수송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제건설의 빠른 속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수송이 노는 거대한 역할로부터 수송문제를 잘 풀어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수 있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대건설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수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생산에 수송을 따라세우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에 큰 힘을 넣어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6페지)

철도의 수송능력은 일정한 구간에서 이미 있는 수송수단으로 화물을 수송할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해당 선에서 운수기재들의 끌기능력과 적재능력, 구간별 통과능력과 운수수단의 리용수준, 운행조직방법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는것은 수송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는것이 수송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교통운수에서 철도운수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교통운수는 여러가지 수송수단들을 리용하여 려객이나 짐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경제부문이다.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수형태들은 서로 다른 기술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나라의 수송수요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그가운데서도 철도운수는 그 특성으로 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운수부문으로 된다.

철도는 방대한 수송수단을 가지고 자연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수송을 보장하는 운수형태이다. 철도운수는 비교적 수송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많은 물동과 대형 및 중량 화물을 쉽게, 빠른 속도로 먼거리에 운반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우월

성으로 하여 철도운수는 수송의 압도적인 몫을 담당하는 교통운수의 기본형태로 된다. 그러므로 철도운수를 발전시켜야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 설비의 대부분을 대량적으로 빨리 수송해줄수 있으며 경제부문들사이, 도시와 농촌사이, 공장, 기업소들 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밀접히 맞물려줄수 있다.

전반적인 교통운수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맞게 철도운수를 발전시켜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 힘을 넣어 그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일수록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원료, 연료, 자재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재생산을 적극 실현할수 있으며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벌려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는것이 수송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철도운수부문에 화물수송능력을 높일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많은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날 심히 락후하던 우리 나라 철도운수가 오늘은 현대적인 전기기관차와 내연기관차, 많은 차량과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가진 위력한 철도운수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다. 철도의 전기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기기관차에 의한 견인비중은 전체 화물수송량의 89%에 이르렀으며 튼튼한 기재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전기기관차와 여러가지 차량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해내고있다. 또한 이미 있던 좁은 철길이 넓은 철길로 개건되고 새로운 기본선과 지선들이 많이 부설되였다. 철도운수의 전반적인 물질기술적 토대가 비상히 강화된 오늘 이 부문에는 화물수송을 높일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매우 많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가 빨리 발전하고왔으나 아직도 철도운수는 의연히 화물수송의 압도적 부분을 담당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면 단꺼번에 많은 짐을 소비지, 생산지에 날라다주어 생산과 소비사이의 련계를 더 잘 맞물려줄수 있으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방대한 수송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는데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지만 그가운데서도 철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이 현시기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철도를 현대화하여 운수수단들과 운수시설들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고 수송의 전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면 비교적 적은 자금과 로력, 자재를 가지고도 철도의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짧은 기간안에 높일수 있으며 더 많은 화물을 빠른 속도로 제때에 운반할수 있다.

이처럼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는 문제는 생산과 소비사이의 련계를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우리 나라 철도운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방침이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철도를 전기화, 중량화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6페지)

현시기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도 철도의 전기화를 빨리 완성하는것이다.

철도의 전기화는 우리 나라 철도운수발전의 기본방향이며 수송능력을 높이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철도의 전기화는 철도의 통과능력과 수송능력을 빠른 시일안에 높일수 있는 커다란 기술경제적 유리성을 가지고있다. 철도를 전기화하면 연료소비를 줄이고 로력을 절약하여 수송원가를 낮출수 있으며 렬차운행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높일수 있다. 철도를 전기화하여 견인기를 전기기관차로 쓰면 그 견인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따라서 철도의 수송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철도운수를 전기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짧은 기간에 중요간선의 철도전기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전기기관차에 의한 일원화수송체계를 튼튼히 세울수 있게 하였다.

온 나라의 철도전기화를 가까운 몇해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아직 남아있는 철도의 지선과 인입선들을 전기화하여 전기기관차에 의한 일원화수송체계를 보다 더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아직 남아있는 철도전기화건설대상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한개 대상씩 섬멸전의 방법으로 완성해나가야 한다. 특히 철도전기화의 은이 충분히 나타나게 하자면 탄광, 광산을 비롯한 생산지들에 직접 전기기관차가 들어갈수 있도록 지선과 인입선들을 전기화하여야 한다.

현시기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철도의 중량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철도의 중량화는 륜전기재와 운수시설의 기술적 개조를 실현하여 수송능력을 높이고 긴장한 철도수송을 푸는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도이다. 철도를 중량화한다는것은 륜전기재와 운수시설을 중량화하여 렬차의 견인중량과 적재중량을 훨씬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철도수송의 긴장성은 렬차의 통과능력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가지 방도로도 풀수 있다.

렬차의 통과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철도수송을 원만히 해결하자면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는것과 함께 중요하게는 새 철길을 건설하는 문제가 나서게 된다. 새 철길을 건설하는것은 국가적인 투자가 많이 들뿐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게 되므로 어디까지나 전망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철도를 중량화하는것은 주로 륜전기재와 운수시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기때문에 새로운 철길을 건설하는데 비해 적은 투자를 들이면서도 짧은 기간에 수송능력을 높일수 있다. 철도의 중량화는 현대화를 동반하게 되므로 철도운수의 전반적인 발전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오늘 철도의 중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8축전기기관차와 100톤화차를 많이 생산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에 8축전기기관차와 100톤화차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륜전기재들의 견인능력과 적재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운수시설의 중량화에 힘을 넣어 레루를 중량레루로 바꾸고 콩크리트침목을 대대적으로 깔아 철길의 강도를 높이며 차굴, 철다리를 비롯한 철도구조물들의 부담능력과 전기화 구간에서의 급전능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

철도의 전기화, 중량화를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고 그 위력을 발양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과학과 기술발전에서 일대전환을 가져와야 철도를 최신과학과 기술로 튼튼히 장비할수 있으며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철도운수부문에 복무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 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은 철도를 전기화, 중량화하며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비롯한 모든 수송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빨리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운수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도록 이 부문 근로자들속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철도의 전기화를 완성하고 중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철도를 적극 지원하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철도운수부문앞에는 철도의 전기화와 중량화, 현대화를 다그치며 집중화물역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기기관차와 중량화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이 모든 사업들은 련관된 부문들에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줄 때에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철도를 지원하는데서는 정무원 위원회, 부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이 지원사업을 짜고들어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철도를 전기화, 중량화하고 륜전기재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와 자재들을 계획에 예견된대로 어김없이 생산보장해주어야 당의 수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특히 철강재와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철도는 온 나라에 혈관처럼 뻗어있는것만큼 그것을 리용하지 않는 공장, 기업소, 지방과 단위는 없다.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부문들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고상한 미풍이다. 모든 지방들에서 자기 지역에서 진행되는 철도의 전기화, 중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사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공장, 기업소들과 지방들에서는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하여 자기가 맡은 집중화물역을 더 잘 꾸리고 짐을 싣고부리는 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며 쓰기 편리하고 견고한 여러가지 짐함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를 많이 리용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철도를 지원하는 기풍을 세워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수록 철도수송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철도를 전기화, 중량화하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자면 이 부문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은 우리 당의 수송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의 역할에 따라 철도전기화를 빨리 완성하고 중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지도일군들이 분발하여야 전투대오가 분발하고 지도일군들이 앞장서나가야 전대오가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철도의 전기화, 중량화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진행하며 어려운 일에서 언제나 어깨를 들이밀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해나가야 한다. 전기화, 중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철도운수부문에서의 중요한 기술개조사업이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은 철도의 전기화를 완성하고 중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작업대상의 선후차를 옳게 정

하며 모든 공사를 계획된대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문전기재생산을 위한 경제기술적 대책을 잘 세우고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걸린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그 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철도를 전기화, 중량화하는 한편 이미 마련된 철도운수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는것이다. 수송 조직과 지휘를 잘하여야 렬차의 정시운행을 정확히 보장하고 화차회귀일수를 훨씬 줄여 렬차의 통과능력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나아가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철도운수부문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철도의 전기화, 중량화를 실현하여 철도운수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된다.

철도운수부문의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철도운수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당의 의도에 맞게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기 위한 옳은 대책을 세우고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적극 발양시켜 제기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철도운수부문의 당조직들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수송혁명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철도운수부문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일군들은 현장에 직접 내려가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철도의 전기화를 빨리 완성하고 중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며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비롯한 대중적 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증송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를 전기화, 중량화하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힘있게 벌리고있는 대건설행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철도의 전기화, 중량화를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여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우리 인민의 대중적 진군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장 국 찬

지금 전당과 전체 인민은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하여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대건설행군을 다그쳐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이며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뚜렷이 명시해준 위대한 강령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반드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문제는 로동계급의 동맹자로서의 농민의 사회경제적 및 계급적 처지를 개선하는 문제이며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촌경리의 생산력발전에 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히 집대성되여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풀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참된 길이 있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기술혁명에 힘을 넣어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빨리 완성하는것이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 당의 이 결심에는 무엇보다도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하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세운 당면한 투쟁과업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농민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사회경제적 처지를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에 이르게 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누릴수 있게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계급이 없는 사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농촌테제가 밝혀준대로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의 사상문화적 락후성을 없애는것과 함께 농촌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쳐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4대기술혁명과업의 완성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물질경제적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하자면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계급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두 계급이 있게 되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그러므로 계급을 폐절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하자면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그 담당자인 사람의 질적 상태와 사회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이루어진다. 사회주의사회에 전인민적 소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사회화수준이 낮은 협동적 소유가 있게 되는것은 로동계급에 비하여 농민이 사상문화수준에서 뒤떨어져있으며 농업이 공업에 비하여 그 물질기술적 토대가 약한것과 관련되여있다. 그러므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자면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의 사상문화수준을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공업의 선진적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하면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현대적 기술공정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다.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 모든 농사일을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으로 할수 있게 될때 전인민적 소유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농업생산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업협동경리의 사회화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며 따라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길수 있는 물질경제적 조건이 확고히 갖추어지게 된다. 이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하는것이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앨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하는것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할수 있게 한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농촌테제가 제시한 기술혁명의 목표이다.

공업부문에 비하여 힘든 로동이 많이 남아있는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그들에게 로동생활에서 참다운 평등을 보장해줄수 있다. 로동생활에서 농민들의 자주적 요구를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자면 농업로동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한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하면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 현대적인 기술수단들과 전기,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에서의 로동강도를 낮추고 농민

들도 로동계급과 같은 시간의 로동을 할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농사를 공업적 방법으로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해내게 될것이다. 그때에 가면 우리 농민들의 로동생활은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며 로동계급과 농민은 로동생활분야에서 평등이 실현되게 될것이다.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의 완성은 한편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해줌으로써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치는데도 이바지하게 된다.

이 모든것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하는것이 우리 농촌을 농민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유족하고 문명하게 사는 공산주의적 농촌으로 전변시키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에는 또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고 그들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중요한 고리는 농업생산을 더욱 늘이는 것이다.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여 더 많은 쌀과 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도 강화할수 있다.

농업생산을 늘이는 중요한 담보는 농촌테제가 제시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빨리 완성하는것이다.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이 완성되면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고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다.

농업생산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으며 생명체를 길러 결실을 얻어내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에서는 농작물의 생물학적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며 그것이 싹트고 자라며 열매맺는데 영향을 주는 불리한 자연기후적 조건과 여러가지 해로운 인자들을 얼마나 극복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생산의 성과여부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기후적 조건과 여러가지 해로운 요소들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술혁명을 완성하면 능히 극복해나갈수 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화학화는 농작물이 싹트고 자라며 열매맺는데 필요한 물과 영양물질들을 충분히 보장해주며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병해충을 막아내는데서 기본고리로 된다. 그리고 기계화와 전기화는 농사일을 영농공정별에 따라 제때에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육과 결실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이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완성하는 여기에 자연지리적 조건과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농작물의 생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완성하는것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고도로 집약화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농업생산의 장성은 중요하게 경지면적을 늘이는것과 함께 농사를 집약화하여 단위면적에서 수확고를 높일 때 이루어진다. 농업의 집약화는 단위부침땅면적에 투자를 많이 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을 집약화하자면 농사에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많이 리용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면 단위 경지면적에 관개시설과 전기동력설비,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여러가지 화학수단들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됨으로써 그 비중이 비상히 높아지게 된다. 단위경지면적에 투하되는 이러한 물질기술적 수단의 비중이 높아지고 농업의 기술장비도가 증대됨에 따라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물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김과 병해충을 미리 없애고 구색에 맞게 비료를 줄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체적 집약농법인 포기농사의 우월성이 과시되고 농업생산은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가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기 위한 50만정보의 분수식 발관개만 하여도 알곡과 남새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다.

이 모든것은 농촌테제가 제시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빨리 완성하는 여기에 가까운 몇해안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참으로 농촌테제에서 제시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에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축포를 남먼저 쏴올릴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닦으며 우리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려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있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구체적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다.

특히 농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농민들의 사상문화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모든 농장원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으며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을뿐아니라 그들의 문화지식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마련된 주체적인 공업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 농민들의 사상문화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고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려진 오늘 농촌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촌테제를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먹는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할데 대한 우리 당의 결심은 바로 이러한 현실발전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것이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과 드높은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학화와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41페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의 농사 제일주의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뜨락또르, 자동차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기 위한 50만정보의 분수식 밭관개건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전기화의 성과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래야 농사를 안전하게 지으면서도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우리는 몇해안으로 50만정보의 분수식 밭관개를 완성함으로써 평지대밭은 물론 비탈밭도 수리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해놓은 관개시설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완성하는것은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농촌경리를 기계화하는 목적은 농업생산능률을 높이자는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 그들이 일을 헐하게 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완성하자면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어야 하며 이미 있는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도 빨리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촌에 더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화학수단들을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하며 농촌에서는 그것을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자면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이 농민을 지도하고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며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것은 농촌테제가 밝힌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며 우리 당의 요구이다. 농촌테제의 이 원칙과 우리 당의 요구대로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지원하여야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그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있어야 하는만큼 이 사업을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오직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농촌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농촌을 지원하는데서는 특히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생산하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 관건적 고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들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50만정보의 분수식 밭관개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그런것만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떠한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투쟁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토지정리를 잘하여 농기계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며 과학적 시비체계를 세우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체의 힘으로 능률적인 중, 소농기계들을 만들어내며 지금 있는 농기계들을 더 쓸모있게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과정에는 해결하여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된다.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언제나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성능이 높고 다루기 편리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창안하며 효능높은 화학비료와 농약들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물공학을 발전시켜 현대생물학의 성과들을 농업과 축산업에 적극 받아들이며 현실에 깊이 들어가 농업근로자들과의 창조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며 이미 이룩한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농업생산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완성을 위한 투쟁을 책임적으로 밀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분수식 발관개건설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조직들과 당일군들에게 맡겨주신 영예로운 당적 과업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해당 지역과 해당 단위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완성하는데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광범한 근로자들속에 대자연개조구상을 펼친 당과 수령의 의도를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은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하며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서서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특히 농촌기술혁명수행과 련관된 단위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공장기업소와 과학연구기관, 설계기관 등 농촌건설과 직접 련관된 부문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자기 단위앞에 나서는 과업을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제기된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힘찬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주체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 대작창작

리 승 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의 창작가들과 하신 담화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20돐이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인 문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문학예술에서 대작에 관한 사상리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폭넓게 전개하시였으며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혁명적 대작에 관한 사상리론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인 대작을 창작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우리 시대 대작창작의 지도적 지침을 가지게 됨으로써 대작창작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당의 대작창작방침을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인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 *

혁명적 대작은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하여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에 적극 이바지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작이 지난날의 대작과 구별되는 기본특징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혁명발전과정을 보여주며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현시대의 준엄한 계급투쟁과 혁명발전 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데 보통작품과 다른 대작의 본질적특징이 있는것입니다.》

대작은 지난 시기 흔히 말해오던 서사시적 형식의 큰 작품과 같은것이 아니다. 대작은 규모가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

대작의 본질적 특징은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인 심오성에 있다.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중요한 문제를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깊이있게 풀어 사람들의 혁명교양, 혁명적 세계관 형성에 큰 도움을 주는 작품이라야 대작이라고 할수 있다.

혁명적 대작이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발전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내고있다는데 있다.

혁명발전의 본질을 그리는것은 대작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사명을 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며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형상적 요구이다.

혁명발전의 본질을 그리는것이 대작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주되는 형상적 요구로 되는것은 대작의 중요한 인식교양적 역할과 관련되여있다.

혁명적 대작은 사람들에게 혁명을 인식시키고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주며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주어 그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을 주되는 사명으로 하고있다. 대작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

법칙성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하여 혁명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발생발전하고 승리하게 되는가, 사람은 왜 혁명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혁명의 근본원리와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작은 사람들에게 혁명에 대한 옳은 인식과 리해를 주고 혁명적 열정을 안겨줄수 있으며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주고 혁명투쟁에 나서도록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줄수 있으며 그들을 강의한 투지와 필승의 신념을 안고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그리는 문제를 떼여놓고 혁명적 사상교양의 위력한 수단이며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서의 대작의 풍격과 가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말할수 없게 되는것이다.

혁명발전의 본질을 그리는것이 대작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주되는 형상적 요구로 되는것은 대작의 다른 일련의 특징들이 혁명발전의 본질을 그리는데 이바지한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여있다.

대작은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인공의 성격창조, 생활반영과 구성조직 등 형상요소와 그 수단들의 리용에서 보통작품과 다른 일련의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특징들을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혁명발전의 본질을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로 된다. 다시말하여 혁명의 근본문제를 밝히는데서 철학성있는 종자를 잡는 문제, 주인공의 성격을 혁명발전과정에서 성장하는 인간으로 그리는 문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 그리고 력사적 사건을 줄거리로 하는 구성조직을 주되는 형태로 하는 문제들이 다 어떻게 하면 혁명발전의 본질을 깊이있게 그리겠는가 하는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 대작은 혁명발전의 본질을 그리는 문제를 주축으로 하여 예술창조의 여러 형상요소들을 하나로 통일하고있으며 이 기본특징을 뚜렷이 살리는데 모든 특징들을 복종시켜나가고있다.

혁명적 대작은 혁명발전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것을 가장 중요한 형상적 요구로 내세우고 예술적으로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적 심오성을 보장하고 사람들에게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본질과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주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이다.

혁명적 대작이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고있다는데 있다.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내는것은 대작의 기본특성의 하나이며 중요한 형상적 요구로 된다. 그것은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대작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대작은 력사의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형상을 본보기로 내세워 그의 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한다. 특히 대작에서는 혁명적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에 크게 작용하게 된다.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서는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직접 그려서 보여주는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빠른 길로 된다. 사람들은 작품을 통하여 주인공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관이 서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게 될 때 거기에서 커다란 공감을 받고 혁명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며 투쟁에 나서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투쟁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확립에 적극

이바지하는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대작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주인공을 그리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새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탄생과정을 그리는 문제로 된다. 그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란 곧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형성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가 확립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혁명적 세계관이 서는 과정에는 일반적 합법칙성이 작용한다.

혁명적 세계관은 착취계급과 착취사회의 반동적 본질을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미워하며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를 뒤집어엎고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각오하는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은 혁명을 인식하고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것과 함께 공산주의자로서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갖추었을 때라야 비로소 완전히 섰다고 말할수 있다. 누구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사상수양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의지를 키우며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에서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이 서나가는 과정을 그리는것은 혁명가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공산주의자로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를 갖추어나가는 과정을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인간의 산 모범을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다.

혁명적 세계관의 형성과 공고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이다. 혁명적 세계관 형성의 기본단계들과 공고발전에서 계급의식을 키우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갖추는것은 결국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여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소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 주체의 세계관의 형성 및 공고발전 과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줄 때 작품은 사람들을 주체의 수령관,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며 따라서 대작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 대작이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대작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해내는 작품들이 대작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창작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작품을 대작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작창작방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먼저 혁명발전의 본질을 밝히는 철학적인 종자를 골라잡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내용을 대작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줄수 있는 종자, 철학성을 띤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는 것이 필요하다.》(《영화예술론》, 63페지)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는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지으며 그

생명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다. 종자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데 따라 작품의 사상적 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사람들에게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줄수 없고 철학성을 띤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없는 종자를 골라잡으면 그 작품은 결국 규모에만 매달리는 형식주의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작의 종자는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사상교양적 목적을 해결할수 있는 종자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종자가 바로 사람들에게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줄수 있는 종자, 철학성을 띤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 종자이다.

사람들에게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줄수 있는 종자, 철학성을 띤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 종자는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인 생활에 있다. 대작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보수적이며 반동적인것을 때려부시고 새롭고 선진적이며 진보적인것을 창조하는 혁명의 기본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대작이라고 하면 혁명발전과정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주어야 하는것만큼 언제나 혁명투쟁과정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혁명의 운명과 그 발전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들,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을 개조하며 력사를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나서는 의의있는 문제들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혁명투쟁과정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취급될수 있다. 사회혁명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문제들, 혁명의 근본문제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혁명을 전진시키는데 의의있는것일 때에는 얼마든지 취급될수 있다. 그러나 대작이라고 하면 혁명발전과정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주어야 하는것만큼 혁명투쟁과정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를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작의 종자는 혁명의 기본문제,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풀수 있는 종자로 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영화로 옮긴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다같이 나라를 잃고 권리를 빼앗긴 피압박근로대중이 혁명에 떨쳐나서야 하며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며 피압박인민은 무장투쟁으로써만 자신의 해방과 행복한 미래를 쟁취할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내고 있다. 이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가 극악한 단계에 이르렀던 1930년대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혁명의 기본문제를 제기한것으로 된다.

이러한 혁명의 기본문제를 풀기 위하여 예술영화 《피바다》에서는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종자를 심음으로써 수난의 피바다속에서 남편을 잃고 헤매이던 한 어머니가 생활의 모진 시련속에서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아 점차 혁명을 인식하고 투쟁에 나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기본흐름을 폭넓게 보여줄수 있었다.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는 혁명의 기본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종자를 심고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주인공과 그의 두 친우들의 운명을 통하여 왜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게 되는가 하는것을 밝힘으로써 당대 우리 인민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본원인이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에 있다는것을 폭로하며 놈들의 요구에 순종해도 죽고 거

역해도 죽는 막다른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길뿐이라는것을 깊이있게 해명할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본질을 밝히는 철학적인 종자를 골라잡는것을 대작창작의 중요방도로 제시하심으로써 작품창작의 기본고리를 풀게 되고 창작적 성과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작창작방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대작에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혁명가로 자라나는 주인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은 풍부한 생활속에서 튼튼히 서게 된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사회현상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혁명의식을 키우고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며 혁명의 원리와 투쟁방법을 체득하면서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대작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여러모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대작에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 때에는 그 생활이 어디까지나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생활, 전형적인 생활로 되여야 한다. 전형적인 생활은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하고있다. 전형적인 생활을 그려야 혁명발전의 본질을 밝히고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혁명가의 전형을 옳게 보여줄수 있다.

대작에서는 혁명적인 생활의 흐름을 기본으로 끌고나가야 한다. 그 혁명적인 생활의 기본흐름에 대한 전형화는 취급되는 개개의 생활자료와 사건들에 대한 전형화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개별적인 사건들을 취급해도 해당 사건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고 의의있게 처리할수 있다.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의 창작초기에 창작가들이 고난의 행군시기의 《소금사건》을 잘못 처리했던 사실은 귀중한 교훈으로 되고있다.

이 영화를 만들던 초기에 창작가들은 주인공 준혁의 동생인 준호를 적들이 독약을 친 소금을 먹고 희생되는것으로 사건을 설정함으로써 주인공의 극적 체험을 심화시키고 영화의 흐름에 굴곡을 줄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력사적 사실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이 사실의 본질적 의의를 그릇되게 해석한데로부터 나온 부족점이였다.

《소금사건》이 있었던 고난의 행군으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몸소 진두에 서시여 혁명의 길에 가로놓였던 엄혹한 시련과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신 자랑찬 승리의 행군이였다.

이러한 력사발전의 본질적인 흐름을 탔다면 《소금사건》도 응당 그 사건을 적들의 흉계에 의하여 희생되는 혁명가를 그릴것이 아니라 그 흉계를 짓부시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혁명가를 보여주는것으로 처리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리 적들의 흉계를 간파하시고 파탄시켜버리신 엄연한 력사적 사실이며 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라는 작품의 사상을 힘있게 확증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밑에 《소금사건》처리에서의 초기 결함이 극복됨으로써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는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면서도 혁명발전의 기본흐름을 뚜렷하게 살리는 전형화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줄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작창작방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형상을 집약화하고 집중화하는것이다.

형상을 집약화하고 집중화한다는것은

이야기를 벌려놓지 않고 하나의 사건이나 생활을 그려도 그것을 여러모에서 깊이있게 그려내여 그 한가지 사실을 통하여 많은것을 느끼고 알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형상을 집약화하고 집중화하는것은 대작의 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고드는것과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대작의 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만드는 형상방도로 된다.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을 보장해야하는 대작에서는 필요없는 생활, 진실하지 못한 인물, 군더디기로 되는 사건들을 끌어내여 한몫 보려고 할것이 아니라 어느 한 생활, 어느 한 인물, 어느 한 사건이라도 똑바로 골라잡고 그것을 여러모로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특히 인간의 사상의 식발전과 혁명운동의 전진을 방향짓고 추동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데 형상을 집중해야 작품은 사람들을 력사발전의 진리로 무장시켜 혁명투쟁에 더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교양할수 있다.

대작에서는 인물, 생활, 사건을 집약화하고 집중화할뿐아니라 구성조직도 잘 짜야 한다. 그러자면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고 구성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빈틈없이 맞물려야 한다. 인물선에서는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의 선을 돋구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갈등선에서는 여러개의 부차적 갈등들이 기본갈등선에 매여야 하며 사건선에서는 부선들이 주선에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작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고 빛나는 모범으로 창작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대작창작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을 가장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영화와 가극, 소설, 연극들에 재현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위대한 풍모를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를 비롯한 장편소설들과 혁명영화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을 비롯한 총서형식의 작품들 그리고 대기념비적 미술작품들과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예술영화 《보증》,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등 수많은 작품들을 우리 시대의 대작으로 창작하였다.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빛내이는 우리의 기념비적 작품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 대작창작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과시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혁명적 세계관 확립과 수령관 확립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수령형상창조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에 바쳐진 혁명적 대작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세워주며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올바른 자세와 립장을 실생활로써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전투적 호소따라 200일전투의 나날을 빛나는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벅찬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문예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적이며 당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수령관, 세계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의 모든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서생활을 풍부히 하고 근로자들의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고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하는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

리 문 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북과 남의 격페상태를 마스고 조선반도의 정세를완화하며 온 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구국방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을 내놓으심으로써 조국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길이 마련되게 되였다.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그 합리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통일을 념원하는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구국통일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 기치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북남련석회의 소집방안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남련석회의가 마련되면 북과 남의 격페상태를 마스고 온 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을것입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12페지)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이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는데있다.

현시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우선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통일문제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인 문제이며 통일문제해결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필수적인 요구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상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인 동시에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다시 합치는 문제인것만큼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동족을 반대할것이 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켜야 하며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면서 반목질시하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수천년을 두고 하나의 강토에서 한 피줄을 이어오며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은 본연의 자세이다. 반목과 대립은 그자체가 지배와 예속을 추구하는 적대적 국가들사이의 관계문제로서 동족사이에는 있을수 없는것이다. 물론 북과 남에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지 못할 리유로는 될수 없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40여년간 민족분렬의 재난을 당하고있는것은 우리

민족내부에 그 원인이 있는것이 아니다. 민족분렬의 비극적 상태는 우리 민족이 민족분리운동의 결과 빚어진것도 아니며 민족내부에서 벌어진 계급들사이의 공민전쟁에 의하여 산생된 문제도 아니다. 우리 민족의 분렬은 분할하여 통치하는것을 상투적 수법으로 삼고있는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민족의 반목과 대결은 바로 이로부터 생기게 된것이다. 그러므로 북과 남의 광범한 애국력량이 한자리에 모여앉는다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또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이다.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는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낳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오늘 북과 남사이에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남조선에는 4만여명의 미군과 함께 100만명의 괴뢰군이 있으며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들이 전개되여있다.

북과 남에 방대한 무력이 대치되여있는 오늘과 같은 정세하에서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들에 의해서도 온 나라를 전화에 휩싸이게 할수 있다.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면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한다. 대화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군축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은 미제침략군과 한짝이 되여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리고있으며 특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확대강화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거듭되는 군축제안과 일방적인 군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력증강과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계속 다그치고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놈들은 이른바 《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운운하면서 남조선에 방대한 전쟁물자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해역에 미태평양함대까지 전진배치하려 하고있다.

남조선에 이와 같이 방대한 무력이 집결되고있는 조건에서는 나라의 긴장상태가 해소될수 없는것은 물론 설사 대화마당이 다시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결실을 볼수 없는것은 명백한것이다.

북과 남은 마땅히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실 용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민족참화를 가져올 전쟁요인을 제거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을 모색할수 있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북과 남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민족의 리익과 관련되고 온 겨레의 의사에 맞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다. 이처럼 첨예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마주앉아 협의해결할수는 없는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대화가 남긴 력사적 총화이며 귀중한 교훈인 동시에 절대다수 남조선 인민들의 강렬한 요구이기도 하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여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히 대두하고있으며 통일문제해결에 직접 참가하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더우기 지난해 12월에 남조선에서 있은 《대통령선거》결과는 집권자들이 결코 절대다수 인민들의 의사를 대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전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의에 특정한 정당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각 당, 각 파, 각계 인사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북남련석회의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

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이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들을 풀고 올해 조선반도정세를 완화시킬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구국방안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세상사람들이 주시하고있는 올해의 조선반도정세를 결정적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환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12페지)

올해에 조선반도정세를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환시키자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다국적 군축회담을 마련하는 문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문제, 호상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이 시급히 협의해결되여야 한다. 이러한 당면한 몇가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것은 불신과 오해의 매듭을 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로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방도로 된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하는것은 조선반도정세를 결정적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널리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해마다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과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범죄적인 전면전쟁연습이며 핵전쟁연습이다. 북과 남의 군사적 대결과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중요하게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함께 계통적으로 고조되여왔다. 1976년에 4만 6천명의 병력투입으로 시작된 이 침략전쟁연습은 1978년에는 벌써 10만명을 뛰여넘었으며 1984년에는 20만명선을 돌파하였다. 특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올해에도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매해 벌어지고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그자체가 고조되고있는 긴장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조선반도의 긴장도를 높이는 가장 주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남조선의 내부형편으로 보나 북남관계로 보나 1988년도가 가장 긴장하고 복잡한 시기로 될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오늘 조선반도정세를 결정적으로 완화에로 돌려세우자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를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할수 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과 남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완화에로 방향전환을 시작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단되였던 북과 남의 정치적 및 비정치적 대화도 전면적 재개를 보게 될것이다.

우리가 내놓은 다국적 군축회담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서는 또하나의 절박한 문제이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하는것만으로는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할수 없다.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은 군비자체를 축감해버림으로써만 중지될수 있으며 북과 남이 서로 불신하고 오해할 뿌리

를 짧아버리는것으로 될수 있다.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와 함께 군축문제를 협의해결하여야 할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과 남의 군비를 대규모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는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다국적 군축회담을 마련하는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고있을뿐아니라 괴뢰군부를 통하여 남조선군사파쑈정권을 배후조종하고있으며 남조선괴뢰들과 맺은 각종 《군사협정》을 공간으로 하여 남조선의 군사비를 통제하고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의 군비축소문제는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이 참가하는 다국적 군축회담을 마련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로부터 지난해에 이미 다국적 군축회담을 마련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거기에서 북과 남의 무력을 각각 10만명이하로 줄이고 외국군사기지를 철폐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시킬 구체적인 조치들을 협의할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방대한 무력을 축소하는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군축협상을 마련하기 위한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다국적 군축회담을 마련하여 군축문제를 협의해결하는것은 북과 남이 서로 힘을 가지고 승벽내기를 하면서 대결하는데로부터 동족끼리 서로 신뢰하고 화해하며 단합에로 나가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우리가 내놓은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문제도 역시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도록 하기 위한데서 시급히 협의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로 된다.

원래 올림픽경기대회는 친선과 단결, 평화를 리념으로 하는 세계적인 체육경기이다. 그러므로 올림픽경기대회가 본래의 사명을 다하자면 그것이 제민족간의 친선과 단결을 두터이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할뿐아니라 주최하는 나라의 민족적 리익에 부합되게 진행되여야 한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한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지고 북과 남이 정치군사적으로 서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진행되는 올림픽경기대회는 마땅히 조선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분렬된 우리 나라에서 올림픽경기대회를 그의 본래의 사명에 맞게 진행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그것을 어느 일방에서만 개최할것이 아니라 조선의 북과 남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여야 한다. 그래야 올림픽경기대회를 둘러싸고 북과 남사이에 새롭게 생기는 또하나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할수 있으며 올림픽경기대회가 제민족간의 단결과 친선, 평화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체육축전으로 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제안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민족분렬을 심화시키고 《두개 조선》 조작을 추구하면서 의연히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의 단독개최의 길로 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앞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리정표로 될것인가 아니면 반목과 대결, 분렬을 심화시키는 또하나의 계기로 될것인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체육경기로 될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접어들고있다.

지난 1월 17일에 제24차 올림픽경기신청이 마감지어진 실정에서 이 절박하고 신중한 문제는 오직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옳게 풀릴수 있다.

우리가 내놓은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역시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는데서 시급히 협의해결하여야 할 또하나의 중요한 당면문제이다.

원래 호상 비방하고 중상하는것은 그 자체가 불신과 오해의 산물이며 대결과 분렬의 뗄수 없는 동반물이다. 그러므로 불신과 오해를 가시고 민족적으로 화해하고 단합하자면 무엇보다도 호상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호상비방중상을 중지하는것은 신뢰회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비방중상이 전례없이 심해지고있는 형편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대결과 분렬을 막고 화해와 단합으로 나가자면 응당 비방중상하는 것부터 중지하여야 한다.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올해 조선반도정세를 결정적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다.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우리 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이러한 초미의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가 소집되면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오해와 불신을 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평화애호적이고 애국애족적인 노력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단합을 도모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며 자세이다.

우리는 민족분렬의 검은구름이 삼천리금수강산을 무겁게 드리우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분렬을 막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특히 우리는 나라에 민족분렬과 전쟁위협이 새롭게 조성될 때마다 폭넓은 대화마당을 마련하고 북과 남이 공동으로 구국대책을 협의해결할것을 거듭 제의하여 왔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렸던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는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련석회의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주구들과 함께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을 반대하고 《유엔조선위원단》을 비법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여 괴뢰단독선거를 준비함으로써 조성된 민족분렬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대화마당이였다.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거부파탄시키는것이 우리 민족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나섰던 시기에 소집된 남북련석회의에는 나라의 통일을 념원하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련석회의에는 사상과 정견이 서로 다른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그렇지만 남북련석회의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달성할데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구국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민족사에서 사상과 정견이 서로 다른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론의하고 견해의 일치를 본 남북련석회의의 력사적 경험은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다면 그가 좌익이건 중간이건 지어 우익이라 할지라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능히 서로 화해하고 단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감으로 남북련석회의는 북과 남의 세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대화방식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화방식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그후에도 남북련석회의의 력사적 경험과 거대한 생활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북과 남의 제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적 인사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와 아량을 다 보였다. 우리는 1956년 4월과 1960년 8월, 1972년 9월과 1973년 6월 그리고 1975년 10월과 1976년 3월, 1980년에 정치협상회의와 련석회의, 대민족회의 소집방안을 내놓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조선괴뢰들은 우리가 발기한 협상제안들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특히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가 내놓은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대해서도 남조선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고있다. 그들은 우리가 북남련석회의소집을 위하여 남조선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낸지도 오래되고 북남련석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의날자가 지난 오늘까지 아직 반응이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애국애족적이며 공명정대한 방안에 대하여 헐뜯는 비렬한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으며 려객기실종사건을 날조하여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들이 의연히 반대화, 반협상의 립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으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에 의하여 나라에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놈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 긴장완화와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정책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북남련석회의를 성과적으로 소집할수 있을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대결과 전쟁정책을 단호히 반대하고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하며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외세의 침략적 요구에 추종하면서 대화와 완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민족반역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심사숙고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 북남련석회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할것이다.

근로자 1988년 제4호(루계 552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8년 4월 1일　　발 행• 1988년 4월 3일

ㄱ—8565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

-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제 5 호(55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력사적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다섯해가 된다.

론문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굽임없이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위대한 승리와 그 과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심오히 총화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 해명을 주었다. 론문에서 제시된 사상리론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운동에서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어려운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향도적 기치로 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시대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과 인민대중에 대한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조선혁명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따라 변혁과 승리로 빛나는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혁명실천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밑에 전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확증하여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력사적 위업이다

위대한 사상은 시대의 기치이며 실천의 지침이다. 인류력사발전의 새 시대를 대표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하며 그들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운동의 승패는 그에 참가하는 대중의 준비정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의식화되지 못한 대중의 투쟁은 일시적으로는 고조될수 있어도 종당에는 실패를 면할수 없다.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선진적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출현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의식화됨으로써 비로소 높은 의식성을 띠고 힘차게 전개되게 되였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맑스-레닌주의가 나옴으로써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발전의 법칙을 파악하게 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인 맑스-레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사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혁명투쟁의 종국적 목적으로 내세우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기초한 옳바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에서 공산주의운동의 목적과 그 실현방도를 해명한것은 맑스-레닌주의의 고귀한 혁명적 재부이다.

혁명사상의 발전은 계승과 혁신의 두 면을 가지고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사상리론적 재부는 계승되여야 하며 력사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더 발전풍부화되여야 한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거세하여도 안되며 변천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 명제들을 교조적으로 되풀이하여도 안된다.

혁명운동은 각이한 시대적 조건과 다양한 구체적 현실에서 진행되는것만큼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시대적 조건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혁명리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이 붉은 기발을 들고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인류는 바야흐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오늘에 와서는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비하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훨씬 높아졌으며 사회발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도 크게 달라졌다. 이로부터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 맞게 혁명의 리론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인것만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 혁명의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립장을 지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요구이다.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 조건에서 주체적 립장을 지켜야 할 요구는 더욱 절실하게 나선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주체적 립장에 서서 잘해나가면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반세기가 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며 조선혁명의 사상리론적 총화이다. 주체사상에는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발전풍부화되고 새롭게 제시된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으며 시대와 혁명발전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인간해방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는 주체사상이 밝혀준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발전풍부화시킴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로 해결함으로써 과학적인 전략과 투쟁방침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9~10페지)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류

의 자주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펼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혁명적 기치를 마련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인간해방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라는것을 밝힌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모든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인류해방투쟁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회혁명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고 그들의 자주성은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노예소유제도를 뒤흔들어놓은 노예폭동도, 봉건통치배들을 전률케 한 농민봉기도, 자본주의아성을 폭파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청산하는 피압박민족의 과감한 투쟁도 다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기 위한 투쟁이였다.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인류력사는 근로인민대중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한걸음한걸음 전진하였으며 마침내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오늘의 혁명실천은 공산주의건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해명을 줄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의 실현을 인간의 사회계급적 해방과 동일시할수는 없다. 계급이 없어지고 무계급사회가 되였다고 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가 실현되는것이 아니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가 끝장났다고 하여 공산주의위업이 완수되는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상정신생활령역에서나 물질생활령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이다. 이러한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장구한 투쟁이 필요하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쥐고 사회주의길에 들어선 다음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하며 이 과정에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위업이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한 다음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곧바른 길을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결국 사람과 그의 생활환경을 개조하는 투쟁,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귀착된다.

사람과 그의 생활환경, 사상과 물질적 조건의 두 고리를 어떻게 틀어쥐고 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옳게 풀지 못할 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침체와 난관을 피할수 없고 간고한 투쟁으로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지켜낼수 없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사회의 주인인 사람부터 개조하여야 하며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에서는 그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상을 개조하는데 일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사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사회관계를 개조하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한다.

사람과 그의 생활환경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아니라 인간개조사업만 내세우거나 경제건설을 먼저 한 다음 인간개조, 사회

개조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발양시킬수 없고 공산주의위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없다.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인 사람과 그의 생활환경을 다같이 훌륭히 개조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힌 여기에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의 위대성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투쟁과 변혁의 길을 따라 계속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 기치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력사적 전환으로 되지만 그것은 결코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는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를 극복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들이 마련되여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혁명투쟁과정으로 보고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할때 사회주의사회는 그 어떤 답보와 침체도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끊임없는 발전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여야 그 어떤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않고 사회의 상승적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이것은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이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전진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주체사상에는 인류가 세기에 세기를 두고 념원하여온 인간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시대를 전진시키고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다그칠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탁월한 령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될 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광범한 대중을 하나로 굳게 뭉치게 하자면 그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가 필요한것이다. 사회적 집단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 유일적인 지휘밑에서만 그들을 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움직일수 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수령은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적 령도의 중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며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인 수령은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당을 창건하여 인민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묶어세움으로써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

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게 되며 혈연적인 련계를 맺게 된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혁명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반드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의 힘있는 동력으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는 구경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귀착된다. 령도를 떠나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있을수 없는것처럼 군중을 떠난 령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을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게 하자면 자기 활동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혁명적 군중로선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키는것을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일관하게 관철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군중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혁명적 군중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이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전체 인민이 당의 품을 진심으로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숭고한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령도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운동의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5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개척기로부터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전기간에 걸쳐 로동계급의 수령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과학적 공산주의 학설의 창시자인 맑스에 의하여 그 시원이 열리였으며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는 맑스의 위업을 계승한 레닌의 투쟁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우리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그 시원이 열리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력사적 승리와 위대한 성과들은 모두가 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당과 수령의 정치적 령도를 실현하는 것은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기 위한 공산주의운동의 첫 시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공산주의사회를 운영해나가는 전기간에 걸쳐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이다.

공산주의사회는 그 어떤 무정부적인 사회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 옳바른 정치적 령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조직하고 지휘할수 없다.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계속되는 공산주의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려면 당과 수령의 정치적 령도가 필요한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근본문제는 그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하나의 중심에 의하여 통일단결되여야 하며 그들의 모든 활동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정치적 령도는 인민대중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을 본성적 요구로 제기한다. 령도의 유일한 중심은 수령이며 수령은 바로 사회적 집단 전체를 대표하기때문에 인민대중을 유일적으로 령도해나가게 되는것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 때에만 사람들은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의 정치적 령도의 유일성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당과 수령의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하는 여기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순결성과 정치적 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당과 수령의 정치적 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인 위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도 일관하게 보장되여야 하며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령도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심각하고 다방면적인 투쟁과정에 그 현명성이 확증된것으로 하여 끝없이 귀중하며 혁명승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전과정에 당과 수령의 령도가 변함없이 보장되여야 대를 이어 계속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완성될수 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하는데서 기본은 세대교체에 상응하게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이어나가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가진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워야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계승할수 있다.

수령이 개척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옳게 계승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후계자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수령의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훌륭히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와 혁명발전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위대한 승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정치적 령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끝없는 신뢰와 결합될 때 참으로 위대한것으로 된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로 결합되여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 대중과 떨어진 당과 수령은 력사를 향도하는 정치적 령도자로 될수 없으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난 대중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다.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실성은 자기 운명을 개척해주고 보살펴주는 최고

령도자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것이다. 그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려는 혁명적 신념을 지니고 당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참으로 주체사상이 밝힌 당과 수령의 정치적 령도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길은 간고하지만 그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인류력사는 이 고귀한 진리가 밝혀주는 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할것이다.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다.**》(우와 같은 문헌, 9페지)

사회주의는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진군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의 집중적 발현과정이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부동한 지도적 지침으로, 우리 민족의 생명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참으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세기적인 위대한 변혁을 창조하였다.

오늘 우리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다.

반세기전에 시작된 우리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먼길을 가야 한다.

우리앞에는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엄혹하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려면 당과 수령이 마련하여놓은 불멸의 혁명업적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하며 당의 모든 혁명적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

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가며 혁명의 개척기에 높이 들었던 투쟁의 기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마련된 단결의 전통, 충실성의 전통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지켜나가야 당의 위업, 수령의 위업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이 제시한 혁명적 로선들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다.

당과 수령이 제시한 모든 혁명적 로선들은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투쟁전략이며 공산주의혁명가들의 행동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혁명실천에 의하여 그 과학성과 정당성이 검증된 혁명의 지침으로서 공산주의위업완성의 길을 밝혀주는 절대적 진리이다.

공산주의위업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 위업이며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는 복잡한 사업이다. 력사의 흐름을 따라 세대가 바뀌여지는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세대가 바뀌우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하여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는것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내놓은 모든 혁명적인 전략적 로선들은 혁명의 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고수되고 견지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동안 제시한 모든 전략적 로선들은 가장 옳고 정당한것이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방도를 밝혔으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가장 우월한 사업방법과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투쟁방침들을 내놓았다.

우리 당의 모든 전략적 로선들에 의하여 당건설과 국가건설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서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가장 째인 당으로, 가장 위력있고 혁명성이 강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조국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해나가는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다. 당과 수령이 마련하여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으며 위대한 당, 위대한 정권, 위대한 인민이 있고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가 세워져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으로, 더없는 긍지로 된다.

당과 수령이 제시한 혁명적 로선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경험은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때에만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혁명적 원칙성과 일관성을 튼튼히 고수하고 올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옹호관철하여야 하며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준엄한 난관과 시련 앞에서 흔

들리지 않고 언제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에 넘쳐 혁명을 보다 큰 앙양에로 이끌어나간다. 난관과 시련앞에 동요하면서 대담하게 전진하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투쟁기풍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는 승리와 전진의 힘의 원천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빛나는 승리들은 우리 인민이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신심에 넘쳐 용기백배, 충천한 기세로 용감하게 투쟁한 결과에 얻어진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이긴것이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한것은 결코 우리가 군사장비에서 더 우월하였기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전후에 재더미우에서 인민경제복구건설을 진행하고 다시 일떠선것도 우리에게 그 무슨 큰 밑천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에 비할바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고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인민이 있으며 모든것을 제힘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있다.

우리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류례없이 엄혹하였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렸던 그 고상한 투쟁 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주체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요구이며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혁명적 의지이다.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다. 제3차 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지금 우리 당은 전당, 전국, 전민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20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바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 락관주의를 지니고 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호소한 200일전투에서 기적의 창조자, 위훈의 창조자가 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민족의 사활적 요구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 뉴대속에서만 종국적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함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령도 예술의 사상리론적 기초

정 동 욱

옳바른 령도예술을 확립하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 특히 대중령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고 대중의 열성이 높다 하더라도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가지지 못하면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당의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령도적 수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가져야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당의 령도예술은 혁명의 지도사상,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세워지며 령도예술의 본질과 특징, 과학성과 혁명성은 옳바른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의 옳바른 지도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함으로써 혁명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고 그에 맞게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령도예술의 사상리론적 기초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예술은 오직 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혁명의 지도사상에 기초할 때만이 우월한것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기초로 하고있는 주체의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02페지)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기초에 놓여있는 근본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이다.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령도예술의 사상리론적 기초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사상리론적 기초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대중령도의 출발점으로 된다는데 있다.

당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바로 가지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옳바로 가지는것은 참다

운 령도예술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바로 가질 때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세울수 있고 반대로 인민대중을 멸시하는 낡은 반동적 관점에 기초할 때에는 인민대중에 대하여 오직 다스리는 방법, 착취와 억압에 복종할것을 강요하는 관료주의적 통치방법이 있게 된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줌으로써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확립할수 있게 하여준다.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적용하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로 구체화된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령도예술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규정하여주고있다.

령도예술의 목적과 방향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령도예술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히 규정되여야 대중령도방법의 전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을 보장하여 참다운 령도예술을 확립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대중령도의 목적을 규정하여주는 참다운 혁명사상이다. 령도예술의 목적은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새로운 진리를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예술은 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주체사상은 당의 령도예술의 방향도 옳게 규정하여주고있다. 당의 령도예술은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주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부단히 높여주는 방향에서 끊임없이 심화되고 발전하게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령도예술의 방향이 옳바로 설정되자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높여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된다.

주체사상은 당의 령도예술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여줄뿐아니라 대중령도의 옳바른 방법론을 확립할수 있게 한다.

방법론을 옳게 세우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에서나 대중을 령도하는데서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다. 대중령도의 성과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 맞는 방법론을 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일하는가 안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대중령도의 옳바른 방법론을 확립할수 있는

출발점으로 된다.

대중령도의 비결은 광범한 군중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이렇게 하자면 당이 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하나로 결합시키고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야 한다.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을 확립함으로써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대중을 령도할수 있는 참다운 지도적 지침을 준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사람의 리익을 기준으로, 자로 하여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가치를 평가하며 세계를 개조하는 모든 활동이 사람에게 리로운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과 립장에서 보면 대중에 대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모든 활동이 대중에게 리로운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것이다. 그래야 대중이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대중이 혁명과 건설에 떨쳐나서는것은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에 대한 옳바른 령도를 보장하자면 언제나 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대중령도의 목적을 옳바로 세우고 그에 맞게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게 되며 따라서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이 대중령도의 옳바른 방법론을 확립할수 있게 하는것은 그것이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하는 견지에서 세계의 운동법칙을 파악하며 사람자신의 힘과 객관적 힘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대중령도의 옳바른 방법론을 세울수 있는 출발점으로, 기초로 된다.

당이 대중을 옳바로 령도하자면 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하나로 일치시킬뿐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세상에는 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그 발현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맡아 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기의 요구를 자신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실현해나간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대중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동시에 대중의 활동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당이 대중의 지혜와 힘을 발동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인다면 그 어떤 애로와 난관에 부닥쳐도 그것을 뚫고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을 밝혀줌으로써 대중령도의 옳바른 방법론을 확립할수 있게 하여주는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같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힘으로써 대중령도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며 대중령도의 올바른 방법론을 확립할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사상리론적 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령도예술의 내용에 일관하게 관통하고있는 근본사상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 사업작풍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02페지)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가자면 그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여나갈수 있는 정연한 제도와 질서가 확립되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 품성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의 내용을 담고있다.

정연한 당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그것은 철저히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에 일관하게 관통하고있는 근본사상이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제도와 질서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이끌어나가는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과 활동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일정한 규범과 질서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질서와 제도를 정연하게 세워야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에 대한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떠나서는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없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이끌어나가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 당사업체계는 로동계급의 당이 참다운 령도예술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나선다.

주체사상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확립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 속성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데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그리하여 당사업체계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사업체계로 되게 하고있다.

주체사상은 혁명적 사업방법의 기초로 된다. 령도예술에서 사업방법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중에 대한 령도는 일정한 사업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업방법은 대중령도의 위력한 무기이며 대중령도의 성과는 결국 어떠한 사업방법에 의거하는가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사업방법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기울이게 된다.

혁명적 사업방법의 기본은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며 대중의 지혜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있다. 이것은 혁명적인 사상에 기초할 때 세워지게 되며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적

사업방법확립의 사상리론적 기초로 된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혁명적 사업방법의 지도적 지침을 준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다. 인민대중은 또한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인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혁명적 사업방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정치사업을 선행하는것도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지도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도 혁명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사업을 구체적인 현실과 조건에 맞게 하는것도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는것도 광범한 군중의 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주체사상이 밝힌 근본원리와 요구들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적 사업방법뿐아니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는데서도 지도사상으로 된다.

당사업작풍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기풍이며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도덕적 풍모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일군들의 태도와 관점, 그들의 정치도덕적 풍모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대중에 대한 일군들의 태도와 관점, 그들의 정치도덕적 풍모는 주체사상에 기초할 때 옳바로 확립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일군들이 대중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 정치도덕적 풍모를 규정하는 지도적 지침을 준다.

일군들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을 때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 기풍,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가질수 있다. 그리고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민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든 일에서 언제나 앞장서며 사업과 생활, 로동과 학습의 모든 면에서 대중의 본보기가 될수 있다. 겸손하고 소박하며 결백한 품성도 일군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을 때 지니게 된다. 이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는 참다운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렇듯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새로운 진리를 밝힘으로써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령도예술의 튼튼한 사상리론적 기초를 마련하여 주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사상리론적 기초로 되고있음으로 하여 그것은 대중동원의 모든 방법과 묘술을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로, 사람중심의 령도예술로 되는것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에 맞는것으로서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사람들을 더욱더 힘있

는 존재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완성된 공산주의적 령도예술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 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령도예술이다.

령도예술의 위력은 그 구성과 내용의 과학성과 다방면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전투적 구호의 제시, 대중운동의 조직과 지도,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 등 대중동원의 위력한 방법들로 구성되여있다. 이 령도예술의 내용에는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일반적이며 근본적인 방법들과 함께 모든 분야에 대한 령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조직동원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혁명적 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묘술을 다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이 이처럼 가장 폭넓고 다양하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로 될수 있은것은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서 발전풍부화된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된 령도예술로 빛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을 지니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참신하게 보시고 풀어나가시는 혁신적 안목과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시는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왕성한 사업의욕,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 정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면서 당의 령도예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계신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체계와 방법, 형식은 물론 구체적인 묘술과 수단들까지도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서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령도예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주체의 령도예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당의 면모는 더욱 새로와지고 당사업과 당활동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게 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인것으로 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령도예술을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을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웠으며 그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우리 당과 인민이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승리는 주체의 령도예술의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대중을 힘있게 움직이고 이끌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령도예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것은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

김 창 원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을 어떻게 제기하고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철학적 세계관의 전반 체계와 내용, 그 진보성과 생활력을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이다.

철학은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힌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철학적 세계관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철학적 세계관은 자기의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며 원리와 명제, 리론과 방법을 밝혀준다. 철학적 세계관의 모든 체계와 내용, 원리와 명제, 리론과 방법은 철학적 세계관이 내세운 근본사명에 맞게 제기되고 체계화되며 해명된다.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총적 과업이다.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이 옳바로 밝혀져야 그에 따라 철학의 근본문제,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 등 철학적 세계관의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그 혁명성과 생활력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을 명시하고 그것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하게 론증하시였을뿐아니라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특징과 우월성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학적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4폐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것이다.

철학적 세계관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활동의 근본목적과 관련된다.

인간의 활동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의 속성과 본질,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알아내는 인식활동과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실천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의 근본목적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다. 사람이 사회적 인간으로서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 문제는 자신의 운명문제이다. 그것은 운명문제가 사람의 사회적 처지, 생사존망,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사람의 운명문제는 인간의 삶과 죽음,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서 처하게 되는 생존상태, 인간의 사회적 처지와 삶의 전도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의 운명이 개척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며 그들의 생활이 보다 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로 개변된다는것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것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절실한 요구로부터

현재 자기가 처하여있는 사회적 처지에 대하여 최대의 관심을 가지게 되며 현재뿐아니라 앞으로 자기의 생활이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전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생활처지를 보다 훌륭한것으로 개변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려는 지향과 념원을 가지고 투쟁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간의 모든 활동의 근본목적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자는데 귀착되게 된다.

철학적 세계관의 목적과 사명도 인간활동의 이 근본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

원래 철학적 세계관은 그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로 되는 인간의 운명 개척의 요구에 의하여 발생한것이다. 철학적 세계관은 운명개척에 대한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를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한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이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개척되는것만큼 사람이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세계의 시원은 무엇이며 세계가 어떻게 발생발전하는가 하는 세계관적 문제를 옳게 풀어야 하였다.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한다고 하는 종교적 미신을 반대하고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것 물, 불, 흙, 공기 또는 물질적 기에서 찾은 소박한 유물론적 견해나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이 《신》의 의지에 따라 운동변화하는것이 아니라 그자체로 존재하며 끊임없이 운동변화한다고 본 소박한 변증법적 견해를 내놓은 최초의 철학사상은 결코 순수 리론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였다. 그것은 노예사회에서 반동적 지배계급들이 세계와 사람의 운명을 초자연적인 《신》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종교신비주의에 의거하여 저들의 특권적 지위를 신성화하고 유지옹호하려고 한것과 관련하여 반동적 지배계급의 정신적 억압의 수단으로 되고있는 종교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현세에서 행복을 찾게 하려는 진보적 세력의 계급적 요구를 반영한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철학적 세계관은 운명개척에 대한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발생발전하여온것만큼 그것은 자기의 근본목적을 달성하자면 마땅히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철학적 세계관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는것은 또한 사람이 세계관을 세우는 목적과도 관련된다.

세계관이란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 관점과 립장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사람이 세계관을 세우는 목적은 단순히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알자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길을 찾자는데 있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라는 세계속에서 살고있으며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자연은 인간의 로동대상이고 인간생활의 물질적 원천이며 사회는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이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떠나서 생존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며 행동하는것만큼 세계란 무엇이며 세계의 수많은 사물현상들이 어떻게 운동변화발전하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사람과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풀어야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사람이 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법칙을 해명하는것은 순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옳바른 세계관을 세워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찾자는데 있다.

사람이 세계관을 연구하는 목적은 이처럼 세계관을 세우는것을 통하여 운명개척의 길을 밝히자는데 근본목적이 있

는것이다.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데서 철학적 세계관은 개별과학과 구별된다.

물론 철학은 사람의 운명 개척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개별과학과 공통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학의 임무는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는 길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운명 개척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과 개별과학은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철학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데서 개별과학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그런데 사람의 개조대상인 객관세계는 자기의 고유한 본질적 특성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지고 존재하며 운동변화한다. 때문에 객관세계를 사람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자기에게 복무하는것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운동법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은 바로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의 본질과 특성과 운동법칙, 그 개조방도에 대한 지식을 주는것을 통하여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에 이바지하게 된다.

개별과학은 자연과 사회의 개별적 령역, 측면의 본질적 특성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찾고 그 개조의 방도를 해명함으로써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준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들은 자연의 사물현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현상들의 특성과 그 운동법칙들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인간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방도를 해명하는것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준다면 경제학, 법학, 미학, 문예학, 언어학, 력사학과 같은 사회과학들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의 본성과 그 발전법칙을 밝히고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를 개조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는것으로써 사람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준다.

개별과학들과는 달리 철학은 자연과 사회의 일정한 분야의 특성과 법칙을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포괄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고 세계의 존재와 운동의 일반적 특성을 밝히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일반적 방법론을 줌으로써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준다. 여기에 개별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본질적 특성이 있으며 철학적 세계관의 본질적 내용이 있다.

세계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의 개별적 사물현상들에 대한 지식이나 그러한 지식의 단순한 종합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세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운동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것과 같은 세계의 존재와 운동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리해를 준다. 어느 개별과학도 세계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견해를 주지 못한다. 오직 철학만이 세계관의 한 측면을 이루는 세계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견해를 준다.

세계의 개별적 령역, 사물현상의 본질과 운동법칙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의 존재와 운동의 일반적 특징과 같은 세계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알아야만 사람은 세계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세계를 개조변혁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과 사람이 출현한 이후의 세계에 공통적인 존재와 운동의 일반적 특징만 알아가지고서는 현재 사람이 살고있는 세계가 어느 정도로 발전된 세계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가겠는가 하는 세계와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완성된 리해를 줄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발전에서 결정적 역

할을 놀고있는 현실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지 못하기때문이다.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로서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있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질수록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고있는 현실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알려면 물질세계의 공통적인 일반적 특징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 세계에서 특출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리해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리해하여야 한다.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사람의 본질적 특성,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밝혀야 사람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기초적 문제인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며 세계를 개조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운명의 주인은 누구이며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옳은 해답을 줄수 있다.

철학적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견해와 함께 인간이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관점과 립장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을 벌려야 한다.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은 옳은 관점과 립장에 의거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옳은 방법론을 세우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세우려고 하는것도 결국은 세계를 개조변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에서 의거하여야 할 정확한 방법론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목적은 인간의 운명문제에 의하여 규정되게 되며 옳은 세계관을 주는것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것은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으로 된다.

이처럼 인간활동의 근본목적과 세계관 자체의 목적이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자는데 있는것만큼 철학적 세계관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한다.

❀ ❀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인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힌 철학적 세계관이다.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는것만큼 세계관의 진보성과 생활력은 결국 세계관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철학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것을 근본사명으로 내세워도 세계관적 문제들을 옳바로 설정하고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철학적 세계관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방도를 정확히 밝혀주어야 자기의 근본목적에 맞게 사명을 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철학이 나오기 이전시기에는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는것을 근본사명으로 내세운 철학적 세계관은 없었다.

반동적 착취계급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억누르고 착취제도를 유지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세계를 그릇되게 해석하였다.

반동적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변한 관

념론철학은 세계가 자기자체로 존재한다는것을 부인하고 현실세계의 모든것이 초자연적인 정신적 실체인 《절대리념》이나 주관적인 《의식》, 《감각》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세계와 사람의 운명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비주의를 설교하였다.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경우에도 세상만물이 서로 련관되여있고 끊임없이 운동변화발전한다는것을 부인하고 그것이 서로 고립되여있으며 고정불변한 상태에 있다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숙명론을 고취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운명 개척의 옳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반동적 통치제도를 합리화하는데 철학적 세계관을 복종시키였다.

지난 시기에 진보적 역할을 논 철학들도 기껏해야 자연을 개조하며 반동적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 복무하는것을 사명으로 삼는데 그치고 착취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을 밝히는것을 사명으로 내세우지 못하였다. 봉건을 반대하는 신흥자본가계급의 철학인 근세유물론철학에서 세계의 시원이 무엇인가, 사람의 사유가 현실세계를 정확히 인식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람의 운명 개척과 관련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푸는것을 철학의 과업으로 제기하였지만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것을 철학의 사명으로 삼고 그에 옳바른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은 인민대중에게 복무하지 못한 종래 철학의 계급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철학의 과업이 세계를 해석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개변하는데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철학이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사회계급적 해방의 사상적 무기로 될수 있게 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이 발생하던 시기 철학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극복하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확립하여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로동계급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것이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맑스주의철학은 자연과 사회, 인간사유의 가장 일반적인 합법칙성과 옳은 인식의 방법론을 해명함으로써 로동계급에게 과학적인 철학적 세계관을 주는것을 철학의 직접적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철학이 사람의 운명 개척의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자면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사람의 본질적 특성,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운명개척의 합법칙성, 운명개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과 같은 세계관적 문제들을 정확히 설정하고 과학리론적으로 밝혀야 한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사람의 운명에 대한 신비주의적이며 숙명론적인 견해를 부정한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이 확립된 조건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뚜렷이 제기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세계관적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근본특징과 비할바없는 우월성도 바로 그것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준다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5페지)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사람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인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 철학적 원리, 사람의 운명 개척의 근본원리를 밝혔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람의 운명 개척의 합법칙성, 운명개척에서 견지하여야 할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를 개조변혁하여

자기의 지배권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개척되는것만큼 철학이 사람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히려면 무엇보다도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며 세계를 개조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운명의 주인은 누구이며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여야 한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사람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인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그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원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밝히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인것만큼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할뿐아니라 세계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때문에 자기 운명을 지배하는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근본원리로 되게 된다.

철학적 세계관이 자기의 근본사명을 다하려면 운명개척의 근본원리뿐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사람의 운명 개척의 합법칙성을 해명하여야 한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은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세계를 개조변혁하여 자기를 위하여 복무하는 세계로 만들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천명함으로써 사람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 과정에 개척되여나간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것은 자연과 사회가 사람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통제되고 복종된다는것을 말하며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것은 자연과 사회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사람에게 리로운 환경과 조건으로 전변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하고 창조적 활동이 강화되면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계의 령역은 더욱더 확대되며 사람이 지배하는 세계의 령역이 넓어지면 그만큼 그들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수 있게 된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의 높이, 사람이 지배하는 세계의 령역의 크기는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개척되였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사람은 자기가 지배하는 생활권의 범위안에서만 살수 있기때문에 자기가 지배하는 생활권을 확대하면 그만큼 사람이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광활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것이다. 한편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인간의 창조적 역할이 커질수록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며 세계는 더욱더 인간에게 복무되는 세계로 개변되여나간다. 인간은 세계를 개조하는 자기의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를 높이는것과 함께 높아진 주인의 지위를 리용하여 창조적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은 끊임없이 더욱 빨리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인간에게 복무하는 세계의 령역은 한층 넓어지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세계

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합법칙성을 해명함으로써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정확히 밝혀주고있다.

철학적 세계관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인간의 운명 개척의 합법칙성과 함께 사람의 운명 개척에서 견지하여야 할 옳은 방법론을 주어야 한다.

사람은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세계를 개조변혁하여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을 통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운명개척의 옳은 방법론을 주자면 철학적 세계관은 마땅히 사람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고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이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이라는것을 해명함으로써 인간의 운명 개척의 옳은 방법론을 준다.

자주적 립장은 세계의 주인인 인간이 모든 인식과 실천 활동에서 주인의 지위를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는 립장이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자각하고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에서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며 모든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주인의 지위를 철저히 지킬수 있다. 창조적 립장은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간이 주인으로서의 창조적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는 립장이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이처럼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것을 근본사명으로 뚜렷이 내세우고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세계관적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줌으로써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안겨주었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특징과 비할바없는 우월성, 위대한 생활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다는것을 심오하게 천명한것은 철학의 사명에 대한 리해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룩하고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빛나게 확증하며 그 견인력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특출한 의의를 가진다.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이 가장 과학적으로 제시되고 해명됨으로써 철학의 사명에 대한 리해가 완성되게 되였으며 철학의 근본문제를 비롯한 철학상의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데서 나서는 세계관적 문제들을 풀수 있게 가장 옳바로 설정되고 전개해나갈수 있는 리론적 초석이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가장 혁명적인 사명을 지니고 인간의 운명 개척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철학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위대한 철학사상으로 될수 있었다.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특징과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빛나게 확증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을 위한 투쟁의 불멸의 기치인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견인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간해방의 참다운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준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심원한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과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의 혁명적 본분

리 봉 길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0돐이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밝히신 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는것과 더불어 그 정당성이 더욱더 과시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일군들과 당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투쟁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변혁들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맺어진 빛나는 열매이다.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더욱 튼튼히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이다.

* *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의 혁명적 본분이며 투쟁기풍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일군들의 본분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척도입니다.》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관철한다는것을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혁명가로서의 의무를 다할수 있다.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이 일군들의 혁명적 본분으로 되는것은 혁명가의 본성과 관련된다.

공산주의자, 혁명가란 원래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것을 맹세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자각적인 투사이다. 공산주의혁명가는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것이 아니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그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우리 일군들은 이 땅우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이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공산주의자,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이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우리 일군들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지침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임무와 투쟁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떠나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빛나게 관철해나갈 때라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고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이 일군들의 혁명적 본분으로 되는것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지도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지도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전달침투되며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이 설계되고 현실속에서 집행된다. 따라서 당정책이 얼마나 폭넓고 깊이있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과 건설의 매개 단위, 매개 초소에서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쥐고있는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사업을 책임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당의 로선과 정책이 끝까지 관철되고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일군들의 혁명적 본분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수령님의 손길아래 혁명의 진리를 배우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난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도리이다.

주체형의 혁명전사란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 세계관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소유한 혁명가들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화, 신조화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그들

실현하기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투쟁한다. 바로 여기에 자기를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수령과 당에 대한 주체형의 혁명전사의 의리가 있으며 숭고한 사상정신적 특질이 있다.

당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다.

가장 값있고 보람있게 살려는것은 사람들의 일치한 지향이다.

삶의 가치와 보람에 관한 문제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자기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혁명하는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은 혁명을 하면서 사는데 있다. 무의도식하면서 한생을 다 산 기나긴 인생보다 혁명을 하면서 산 순간의 인생이 더 귀중하고 값높은것이다.

혁명을 하면서 사는 삶이 그처럼 숭고한것은 혁명이 자기자신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에게 있어서 가장 값높은 삶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데 있다. 여기에서의 리탈은 곧 참다운 삶을 저버리는것으로 된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오직 이 투쟁의 길에서만이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숭고한 위업을 수행해나갈수 있고 더없이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일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길외에 다른 값높은 삶과 투쟁의 길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높은 사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참된 인생의 길을 걸으며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값높은 삶의 요구로 된다.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특히 이미 큰걸음을 내디던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대건설행군이 비할바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패기있게 밀고나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패기있게 밀고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는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당면하여서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서 제시된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선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의 혁명적 기치따라 힘있게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새로

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서 제시된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시한번 일대 혁명적 대고조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것을 높은 충성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받아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어떤 사상관점에서 얼마나 뜨겁게 받아안는가 하는것은 당정책을 빛나게 끝까지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당적 자각이 높은 사람만이 자기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사활적인 요구로 접수하고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천공작기계공장 생산능력확장공사를 진행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 교시를 접수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벌린 자강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당정책을 불타는 심장으로 받아안을 때 그 어떤 과업도 능히 해낼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희천공작기계공장 생산능력확장공사를 자강도가 맡아서 수행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를 받아안은 도당위원회는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 다음 건설전투를 전격적으로 지휘해나갔다. 책임일군들은 우선 건설자들과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가 정치사업에서 모를 박고 진행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희천공작기계공장 생산능력확장공사를 진행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 교시를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뜨겁게 받아안도록 한것이다. 도당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해나가는데서 충성심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일군들과 건설자들,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를 불타는 심장으로 받아안게 되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게 되였다. 그들은 대소한의 강추위속에서도 공사장에 첫 삽을 박은지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수백개의 기둥기초공사와 기둥세우기공사를 해제끼고 방대한 량의 벽체축조작업을 단시일내에 끝냈다. 그들은 또한 당이 안겨준 담력과 의지를 지니고 트라스를 묶음식으로 조립하여 통채로 들어올리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도입하여 지붕트라스조립속도를 5~6배로 높임으로써 수천톤에 달하는 강철구조물공사를 2월말 현재로 완전히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공사를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조업을 앞당기고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접수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상적으로 동원되는가 하는것이 당정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였다.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이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심장은 언제나 주체형의 피로 맥박쳐야 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기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드높은 혁명적 기백과 열정으로 불타야 한다. 이러한 혁명정신, 이러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자그마한 난관앞에서도 주저하게 되고 동요를 일으키게 되며 열려진 문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높은 혁명정신,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제힘으로 해내고야말겠다는 혁명적 립장과 강의한 투지, 이것이 오늘 투쟁하는 시대, 혁명하는 시대에 우리 일군들이 소유하여야 할 투쟁기풍이며 사업방식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있어야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있을수 있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능히 이겨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이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언제나 모든것이 충분히 마련된 조건에서 순조롭게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조건이 불리하게 제기될수도 있고 예견하지 않았던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나설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부닥친 난관을 맞받아나갈 때 역경이 순경으로 전환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며 혁명과 건설에서는 굽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운 우리 당과 인민의 지난 영광스러운 투쟁의 빛나는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투쟁과 생활의 신조로 삼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이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 페허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나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사회주의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수 있었다. 또한 안팎의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이 강화되고 난관과 시련이 중중첩첩히 앞을 가로막아나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과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었으며 오늘 우리 혁명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가 뚜렷이 바라보이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하는 위대한 기적과 혁신의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을 헤쳐나가는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과감히 돌진함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이 하루빨리 현실로 전환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대오의 앞장에 서서 새로운 전

건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대중의 앞장에 서서 출로를 헤쳐나가는 선봉투사가 있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항일의 혈전만리 불바다속을 뚫으며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간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혁명투사들의 숭고한 모범을 언제나 거울로 삼고 일해나가야 한다. 어렵고 힘든 일에 서슴없이 어깨를 들이밀어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맡아 수행하는 일군이 오늘 자기앞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자각한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진짜배기혁명가이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하여 늘 사색하고 아글타글 애쓰며 전투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정치실무적 자질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따라세우는것은 당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부문사이의 련계가 복잡하여졌으며 기술장비수준도 매우 높아졌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는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과학기술적으로, 경제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군들을 요구한다.

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줄 아는 조직적 수완이 있어야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날로 심화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옳게 지휘해나갈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수행하는 제3차 7개년계획은 나라의 선진적인 과학기술발전에 그 실현이 담보되여있는 경제건설강령으로서 그것은 높은 경제지식과 선진적인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한 능력있는 일군들의 조직과 지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자면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할뿐아니라 풍부한 경제지식과 선진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지난날에는 일군들이 열성만 있으면 그럭저럭 일해나갈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가지지 못하고 머리가 비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없으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적 생산과 건설을 옳게 지휘할수 없다.

지도일군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따라서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높은 경제지식과 현대적 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결코 단순한 실무적 과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다.

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몇갑절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고 당의 두터운 신임에 높은 사업성과로 보답할수 있다.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격적으로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 앙양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것이다.

높은 혁명성을 지니는것은 참다운 혁명가가 되기 위한 근본요구

김 유 선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온 나라가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200일전투로 들끓고있는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여 대건설행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유한 사상정신적 풍모의 하나이다. 혁명성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그것은 혁명의 리익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는 헌신적 복무정신이며 당과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혁명성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성을 확고히 지니고 가장 높이 발양시키는 근본바탕이다. 높은 혁명성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발휘된다.

높은 혁명성을 지니는것은 참다운 혁명가가 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전위들입니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지니는것은 무엇보다도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참다운 혁명가들은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자각적인 투사들이다. 높은 혁명성을 지닌 공산주의혁명가의 삶과 모든 영예와 행복은 혁명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나가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영광스럽고 보람찬 사업이지만 그 길은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로정이다. 따라서 혁명가에게는 혁명을 위해 만난을 무릅쓸 결심이 확고해야 하며 혁명에 몸바쳐 견결히 싸워나가는 높은 혁명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으며 참다운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혁명의 길이 간고하고 복잡하다고 하여 일신의 안락만 생각하면서 어려운 투쟁앞에서 동요하며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지 않으면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혁명성이 없는 사람은 말그대로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일군들은 높은 혁명성을 지녀야 혁명의 수령께 충성다하기 위한 자기의 가장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참다운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사명은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함으로써 수령의 령도따라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있다.

혁명투쟁이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며 완성된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혁명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 수령께 충실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천에서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수령께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라고 말할수 없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지니는것은 또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사람들의 혁명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은 더 커지며 또한 그들의 혁명성이 더욱 높아질 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반세기이전에 시작된 우리 혁명은 앞으로 멀리 전진하여 지금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우리앞에는 더욱더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당 제6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7개년계획의 두번째해의 전투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내놓은 제3차 7개년계획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이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에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기 위하여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당이 제시한 200일전투과제는 매우 높은 속도로 달려나가야 완수할수 있는 어렵고도 방대한 과업이다.

우리 당은 나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거대한 잠재력과 함께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언제나 당의 요구를 끝까지 실현하고야마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정신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이 방대하고 아름찬 200일전투의 설계도를 펼쳐주었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문제는 일군들이 얼마나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200일전투를 힘있게 조직전개하는가에 달려있다.

더우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하여 조성된 복잡한 정세는 우리 일군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성을 견지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고있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제국주의는 교활한 신식민주의적 방법으로 발전도상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는 한편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의 군비확장과 군비경쟁에 매달리면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반동들을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자들을 규합하여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 침략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발악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력사는 반혁명세력의 공세가 우심해질 때마다 정반대되는 두 흐름이 나타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에 대한 신념이 약하고 비겁한자들은 혁명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투항하는 길로 나가지만 참다운 혁명가들은 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원쑤들의 공세를 맞받아나가며 혁명을 보다 큰 앙양에로 이끌어나간다.

우리 일군들은 마땅히 적들의 발악적 공세가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복잡한 정세에 대처하여 높은 혁명성을 견지함으로써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참다운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의 혁명성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

여 당이 펼쳐준 대건설행군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당정책집행행정은 곧 혁명투쟁과정이다. 일군들이 오늘의 장엄한 대건설행군에서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 우리 혁명의 리익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다.

대건설행군에서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순탄할수 없다. 대건설행군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며 걸린 문제들도 수많이 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은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당경제정책관철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걸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지 않고 말공부나 하는것은 혁명가의 일본새가 아니다.

일군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명령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에서 제힘으로 끝까지 관철해나간 항일혁명선렬들과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기어이 수행하고야만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을 헤쳐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이 살며 일하는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집행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대건설행군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발휘되여야 한다. 군중속에 들어가 경제건설의 예비를 찾으려 하지 않고 사무실에 주저앉아 맴돌면서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것은 혁명가적 기풍이 아니다.

일군들은 대건설행군에서 자기들이 설 자리는 바로 전투현장이라는것을 깊이 새기고 언제나 전투현장에서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힘있는 정치사업, 패기있는 선동으로 그들의 심장속에 위훈의 불씨를 더욱 뜨겁게 심어주고 200일전투를 더한층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은 언제나 일정한 주객관적 조건에서 진행되며 이 과정에는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이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은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일감을 찾아내고 일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달라붙으며 애써 일하는데서 발휘되여야 한다. 조건타발만 하면서 당경제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써 일하지 않는 일군에게서 혁명성이란 찾아볼수 없다.

일군들은 언제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객관적 조건에 맞게 일감을 찾아내며 주동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역전시키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이악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혁명성은 다음으로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혁명투쟁은 온갖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한다. 혁명의 원쑤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한다. 그리고 온갖 기회주의자들은 계급적 원쑤와 한짝이 되여 혁명투쟁에 나선 사람들에게 혁명적 원칙을 저버리도록 갖은 책동을 다하며 그들속에 부르죠아적 생활양식을 퍼뜨리려고 여러모로 날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과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적인 본성은 놈들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환상을 가지면 사상적으로 무장해

제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그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 원칙, 로동계급의 계급적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것은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일군들은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로동계급의 집단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옹호관철하여야 한다.

어떻게 살며 일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일군들이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야 높은 혁명성을 유지할수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원칙을 견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은 온갖 낡고 퇴폐적인 부르죠아생활방식을 견결히 반대하고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 혁명가답게 언제나 긴장하고 검박하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데서 발휘되여야 한다. 우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적인 생활원칙,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생활양식만을 받아들여야 하며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대로 자주적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혁명성은 또한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 기풍에서 높이 발휘된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다.

그리고 한 단계의 과업을 끝내고 련이어 새로운 높은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은 언제나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앞날에 대한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끊임없이 투쟁하며 전진해나가는데서 발휘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이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일제의 패망과 혁명승리를 확고히 내다보면서 굴함없이 싸운것처럼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굳게 믿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데서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승의 신념이란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확고부동한 필승의 신념이며 혁명적 락관이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락관이다. 일군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 앞에 주저하지 않고 이미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혁명성은 또한 그들의 높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에서 나타난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가들의 고유한 사상정신적 특질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운동은 고도로 조직화된 운동이며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을 하나의 통일적인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는 집단적인 투쟁이다. 공산주의운동은 수령의 령도밑에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전일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강철같은 규률밑에 조직적인 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특히 로동계급의 최고조직이며 계급투쟁의 무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인 당의 생명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보장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참말로 혁명

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당의 령도밑에 공산주의혁명의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언제나 옳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과 국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높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려면 그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성은 혁명적 사상, 세계관이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기풍에서 반영된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적 사상, 세계관을 가져야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최상으로 높여주는 위대한 사상이며 그것은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지닐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 량식이다.

일군들이 위대한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실천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적 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주체의 세계관을 확고히 세움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혁명적 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더욱 굳게 가져야 한다. 혁명적 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우리는 혁명적 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혁명성이 없는 온갖 낡은 사상과 요소들을 극복하는것과 함께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혁명적으로 단련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일군들은 혁명적 조직생활을 당이 펼쳐준 200일전투를 위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혁명적인 조직관념

강 춘 금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잘하여야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고 혁명적 당생활기풍과 사업기풍을 확립할수 있으며 당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다.

혁명적 조직관념은 혁명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성실히 집행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조직생활기풍이며 사업기풍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조직관념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적 조직관념의 빛나는 모범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 조직관념을 지니는것을 공산주의자의 기본품성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항일혁명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몸소 실천적 모범으로 유격대원들을 높은 조직관념을 가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인 조직관념을 지니고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조직생활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대오내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혁명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전투력의 원천이며 승리의 중요한 담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직이 주는 임무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혁명대오를 좀먹는 사소한 자유주의적행동도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내에 조직성과 자각성에 기초한 엄격한 혁명규률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94페지)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혁명조직을 사랑하고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였으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위임분공을 충실히 집행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비판과 자기비판에 성실히 참가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혁명적 조직관념은 무엇보다도 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은 조직관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것은 조직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지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조직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칠수 있으며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은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혁명조직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였다. 그들은 조직의 지도밑에서만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길에서 혁명전사의 의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가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의 한 성원으로 되는것을 더없는 영예와 긍지로 여겼으며 조직을 언제나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쳐 지켜나갔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 싸워나가시면서 당조직은 곧 장군님이시며 살아서 저버릴수 없고 죽더라도 기어이 지켜야 할 혁명의 품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계시였다. 그러기에 1937년 도천리와 신파지구에서 혁명활동을 하시면서 언제나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였으며 임무를 수행하시던중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시였을 때에는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조직에 보내시였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시고도 혁명조직을 먼저 생각하시고 심려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속에는 육체적 생명은 잃을지언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조직을 지켜내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더럽히지 않으시려는 고결한 혁명정신이 력력히 어려있으며 조직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태도의 숭고한 모범이 깃들어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혁명적 조직관념은 또한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은 혁명적 조직관념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한다는것은 자신이 조직의 한 성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것을 전적으로 조직에 의탁하며 조직의 의견과 결론에 따라 혁명활동을 벌려나간다는것을 말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였다. 그들은 항상 혁명가의 량심을 가지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성근하게 조직을 대하였으며 결함이 나타나면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성실하게 비판하고 조직과 동지들의 의견을 받아 고쳐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조직에 빠짐없이 보고하였으며 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는 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기였다. 하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무장투쟁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조직을 떠나서는 자기의 정치생활, 혁명활동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깊이 확신하였다.

이러한 조직생활기풍은 항일혁명투사 박순일동지의 투쟁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1937년 그는 부상을 당한데다가 동상까지 입어 두발을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그는 혁명을 계속하기 위해 자기의 두다리를 자르려고 결심하였으며 이러한 마음속 결심을 당원으로서 당조직에 보고하고 허락해줄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그가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오직 당조직만이 옳고그른것을 똑똑히 가르쳐주며 힘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어머니품이라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였기때문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기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말못할 사연이 있을 때에도 먼저 찾은것은 조직이였으며 조직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였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인 조직관념이 항일유격대오를 지배하였기에 그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오직 혁명조직과 운명을 같이할수 있었으며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었으며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생활기풍을 확립해나갈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혁명적 조직관념은 또한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이 주는 과업을 제때에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이 주는 과업을 기어이 완수하는것은 혁명적 조직관념을 지니기 위한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이 주는 과업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는것은 혁명적 조직관념이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조직규률을 지키지 않고 조직이 주는 과업을 태공하는 사람은 조직에 대한 자세와 립장이 바로섰다고 말할수 없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조직의 위임분공을 제때에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혁명적인 조직규률을 확립하고 조직의 전투력을 높여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직을 강화하여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근본담보로 된다는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였다. 그들은 정황이 수시로 변하고 개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때가 많은 조건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대로 행동하고 맡겨진 임무를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조직을 지켜낼수도 없고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수도 없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혁명적 조직규률을 엄격히 지키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때와 장소,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조직별 회의와 생활총화, 강연회와 학습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였으며 조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는 물론 적들에게 체포되였을 때에도 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드팀없이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이 주는 과업,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였다. 걸음마다 총검의 숲을 헤치고 강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나가야 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어김없이 끝까지 집행하기 위한 투쟁은 쉬임없이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고난의 행군이 진행되던 때에 당세포회의에서는 당원들이 어려운 행군에서 앞장서며 나어린 대원들을 적극 도와주어 한사람의 락오자도 내지 말데 대한것과 행군과정에 계획된 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으며 구체적인 분공들도 조직되였다. 당원들은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웠으나 나어린 대원들을 부축해주고 이끌어주고 총과 배낭도 메다주었으며 휴식의 짬시간에는 그들의 찢어진 옷도 기워주고 가지고있던 마지막 예비신발까지 아낌없이 내주었다. 또한 치렬한 전투와 간고한 행군이 련속되는 속에서도 당원들은 끼니를 건느는적은 수없이 많았으나 학습은 단 하루, 단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품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으며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처럼 어렵고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도 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혁명적 조직관념이 높이 발휘될수 있었던것은 독창적인 혁명조직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조직건설에 관한 사상을 밝혀주시였으며 혁명조직들을 무으시고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단련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혁

명적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 몸소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특히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직 당조직의 일상적인 지도와 강한 통제에 의해서만 일군들속에서 건전한 당생활기풍이 서고 모든 일이 잘되여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적 조직관념을 확립하자면 자각성과 함께 반드시 조직의 옳은 지도와 통제가 안받침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친히 중대당세포회의를 비롯한 혁명조직들의 회의에 참석하시여 항일유격대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안의 당 및 공청 조직들이 유격대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큰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당 및 공청 조직들은 항일유격대원들속에 혁명조직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 무기이며 그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되도록 이끌어주는 정치적 생명의 참다운 보호자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 모두가 진심으로 조직을 믿고 따르게 되였으며 비록 자그마한 문제라도 조직에 보고하고 의견을 받아 처리해나가는 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유격대원들에게 분공을 빠짐없이 주고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이끌어주며 다시 분공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조직의 분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늘 움직이면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도록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유격대원들의 조직생활이 혁명임무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도록 하시였으며 조직생활에 대한 평가도 혁명임무수행정형을 중심에 놓고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결과 조직생활이 혁명임무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으며 총을 잘 쏘고 싸움에서 용감한 유격대원들이 조직생활을 잘한것으로 평가되게 되였다.

이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가 강화됨으로써 높은 차원에서 혁명적 조직관념이 형성되고 공고발전되게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조직관념은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공고한 조직관념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혁명적 조직관념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조직관념으로 되였다.

조직관념은 조직에 대한 관점과 립장으로서 사상,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정신이며 그 종합적 표현이다. 따라서 조직관념은 어떠한 세계관을 사상정신적 바탕으로 하고있는가에 따라 그 높이가 규정되게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 곧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통일단결의 중심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중대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있었다.

하기에 그들은 조직에 대하여 그처럼 혁명적이고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질수 있었으며 조직관념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지니고 발현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혁명적 조직관념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근본바탕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한 조직관념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조직관념은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이라는 견해와 관점, 립장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한 조직관념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이 있고서야 자기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있었으며 언제나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조직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쳤으며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참가해나가는 과정에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조직관념은 엄혹하고 준엄한 투쟁속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가장 생활력있는 조직관념으로 되였다.

조직관념이 얼마나 혁명적이며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은 그것이 창조되고 발휘되여온 혁명실천의 간고성과 복잡성과 중요하게 련관되여있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조직관념은 어떤 난관과 시련도 극복하고 혁명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꿋꿋이 걸어나가게 하는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간고성에 있어서나 장기성에 있어서 류례없이 엄혹하고 시련에 찬 투쟁이였다. 그러나 가렬처절한 전투와 행군이 낮과 밤을 잇고 혹한과 기아로 하여 제몸 하나 일으켜세우기 어려운속에서도 언제나 높이 발휘된것은 혁명적 조직관념이였으며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우에서도, 천고의 밀림속에서도 항일유격대원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모든 삶과 투쟁은 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빛내여나가려는 투철한 조직관념에 기초한것이였다. 하기에 그들이 지닌 조직관념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뜨릴수 없고 허물어버릴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조직관념이였으며 가장 투철하고 견결한 혁명적인 조직관념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처럼 혁명적인 조직관념을 지니고있었기에 일제놈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사상군사적 공세와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었으며 민족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인 조직관념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현시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임무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주체적인 혁명적 당풍이 서있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은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혁명적인 조직관념의 빛나는 모범이 그대로 이어지고 새로운 높이에서 발현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혁명적 조직관념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며 대전설행군에서 불굴의 혁명투사가 되여야 할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박 정 호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내용이며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당의 모든 활동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며 사람들을 움직이고 발동하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람과의 사업은 대상의 구체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은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형식은 사업의 목적과 함께 사업대상의 특성과 대상이 처한 구체적 환경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대상의 특성과 대상이 처한 구체적 환경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것은 어떤 사업에서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로 나선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사회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업이며 사상의식수준과 준비정도가 같지 않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하는 창조적 사업이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은 천이면 천사람, 만이면 만사람이 다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각이한 환경속에서 살며 활동하고있다. 그런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은 반드시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한다는것은 사람들의 각이한 준비정도와 다양한 심리, 그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혁명임무와 처하여있는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여 창조적으로 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하는것은 사람마다 사상의식수준과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준비정도는 대상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대상의 특성은 사상의식수준과 준비정도의 차이에서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의 지식정도와 사상의식수준에서의 차이는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는데서도 차이를 가지게 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자기가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은 아는것이 많을수록 현실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받아들일수 있다. 그러나 아는것이 적고 수준이 높지 못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는데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상의식수준이 각이하고 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사람과의 사업을 한가지 내용, 한가지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하여서는 정통을 찌를수 없고 심금을 울릴수 없다. 같은 병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르게 약을 써야 고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사업도 마땅히 그들의 준비정도와 수준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여 창조적으로 하여야 명중할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초보적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동한 실례와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일깨워주어야 하며 수준이 높은 대상과의 사업에서는 요구성을 높이면서 무엇이든지

원리적으로 론리정연하게 해설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타난 결함을 고쳐주는 경우에도 준비정도와 수준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불러서 타일러주는식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무슨 과업을 주는데서도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과업을 주면 신심과 용기를 잃고 주저하게 되고 반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쉬운 과업을 주면 자만하면서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게 된다. 이 모든것은 대상의 사상의식수준과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사람들을 실속있게 교양할수 있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하는것은 사람마다 다양한 심리와 개성을 가지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람과의 사업을 군중의 심리에 맞게 하는것은 그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일정한 생각과 마음 또는 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게 된다.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가지 생각과 마음, 일정한 사상과 의지, 감정은 하나로 어울리여 그들의 내면세계를 이루게 된다. 심리란 바로 사람들이 가지는 이러한 생각이나 마음, 객관세계의 반영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체험의 총체를 말한다.

요구와 지향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심리현상이다. 이러한 심리현상은 욕망과 리상, 흥미와 취미로 구체화된다.

때문에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매 개인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하며 사람들이 훌륭한 욕망과 리상, 고상한 흥미와 취미를 가지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매 사람들의 리상과 욕망, 흥미와 취미에 맞게 분공을 잘 주는것이다.

사람들의 리상과 욕망, 흥미와 취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에 맞게 분공을 주면 그들은 힘든줄 모르고 성수가 나서 일하게 된다.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은 품성과 성격을 통하여 표현된다. 품성과 성격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마다 품성과 성격이 다르고 기호와 개성이 같지 않다.

원래 개성이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개별적 특성이다.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루는 자주성과 창조성은 개별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때 개성으로 표현되며 개인에게 고유한 여러가지 특성과 결합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다.

창조적 능력 역시 개별적인 사람에게서 다양하게 발현된다. 창조적 능력은 자주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공통적 속성이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재능과 소질로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세상에 꼭같은 사람이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능력과 소질도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

이처럼 백사람, 천사람의 기호와 성격, 개성이 다 다른 조건에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없으며 좋은 품성과 긍정적인 성격을 조장발전시킬수 없다. 사람과의 사업은 반드시 성격과 품성, 기질과 개성을 비롯한 대상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능동적으로 적용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하는것은 매 사람들에게 맡겨진 혁명임무가 다르고 그것을 수행하는 조건과 환경도 같지 않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람들이 수행하는 혁명임무의 내용은 서로 같지 않으며 그것이 수행되는 조건과 환경도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혁명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실천활동을 벌려나가게 된다.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그들이 그것을 옳게 리용하여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하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에서 사람과의 사업이 진행되여야 하며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들이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키고 완강한 의지와 인내성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 방향에서 사람과의 사업이 진행되여야 한다. 만일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꼭 같은 형식과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하거나 환경과 조건이 달라졌으나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한다면 아무런 효과도 나타낼수 없게 된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임무와 각이한 장소와 시간,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능동적으로 하여야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낼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실천적 체험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 염주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그런것만큼 농촌당사업, 농민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는것은 군당위원회앞에 언제나 중요한 임무로 제기되고있다.

농민들은 로동자들과 달리 자연과 계절의 제약을 받으면서 넓은 포전에서 분산되여 일하며 그들의 생산성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나타난다. 더우기 생물체를 다루는 농사일은 한번 잘못하면 그해에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생물체를 가꾸는 농사일과 분산적으로 일하게 되는 농업로동의 특성은 농촌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한해농사의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영농공정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농업로동의 특성에 맞게 농민들속에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나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올해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길 때였다.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심어나가던 우리는 스쳐버릴수 없는 하나의 사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밭이랑의 여기저기에 강냉이포기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것이 있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 되돌려 세워 욕설을 퍼붓고 다시 심게 하고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그것이 일시적인 대책으로 될수는 있어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수 없었다. 심금을 울리는 선동, 요진통을 찌르는 정치사업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빈포기가 난 자리에 표식을 하였다. 농장원들이 타고나가던 이랑을 마치고 되돌아나오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는 모두가 허리를 펴고 각자가 심어놓은 이랑을 살펴보게 하였다. 어느 이랑에나 형식적으로 심은 포기와 빈포기들이 한두대씩 있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평당 한포기가 비면 정보당 3,000개의 강냉이이삭을 잃게 되고 이삭당 100그람의 강냉이가 나는것으로 환산하여도 300키로그람이상의 강냉이를 잃어버리게 되며 이렇게 되면 그만큼 나라의 쌀독이 비게 된다. 그러니 단 한포기의 강냉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모두가 주인다운 자각과 태도를 가지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격식과 틀이 없이 작업장의 구체적 실정과 농업로동의 특성에 맞게 진행된 정치사업은 요진통을 찌르고 심금을 울리였으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였다. 모든 농장원들이 주인답지 못한 자기들의 일본새에 대하여 심각한 자책속에 돌이켜보게 되였으며 하나의 빈포기도 내지 않고 포기마다에 정성을 담아 강냉이모를 실속있게 심어나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농장원들이 수행하는 혁명임무의 구체적 특성

과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진행되는 정치사업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고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높여주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는 산 정치사업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원리들을 빛나게 계승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과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다. 우리 당의 적극적인 조치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람과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던 편향들이 극복되고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생기발랄하고 참신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가 더욱 높이 발휘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과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정치하는 당,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으로서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조직되고 세련된 위대한 혁명적 당으로, 생기발랄하고 활력에 넘치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 사업과 활동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명적 전환, 이것은 전적으로 당사업과 당활동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더욱 심화시켜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려면 그들을 깊이 알아야 하며 매 사람의 생활처지와 성격, 취미, 건강상태와 수준과 능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사업하여야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료해파악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사람에 대한 료해는 사람과의 사업의 출발점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에 대한 료해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에 대하여 모르면서 사람과의 사업을 한다는것은 사실상 똑똑한 진단과 처방도 없이 치료를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막연한 진단, 떨떨한 처방이 환자의 병을 고칠수 없듯이 사람에 대하여 똑똑히 모르고 진행하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며 이러한 사업은 한갖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사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여야만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잘할수 있다.

사람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다.

당일군들이 진정으로 군중속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헤쳐보지 못하고서는 참말로 군중속에 들어갔다고 말할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가 군중과 한데 어울리고 서로 진정을 주고받아야 당일군들

이 군중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수 있으며 마음속 생각과 가슴속 깊은 사연까지 다 알아낼수 있다. 이렇게 되여야 잘 파악하지 못하고있었거나 피상적으로 알고있던 많은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며 그에 맞게 그들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사람을 정확히 료해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현상그대로 볼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해부학적으로 갈라보는것이다.

현상은 본질의 발현형식이다. 본질은 현상을 통해서만 발현되며 현상은 본질을 가져야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을 료해하는데서도 현상적인것만 보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본질을 보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사상은 말과 행동에서 표현되지만 한마디의 말, 한번의 행동이 모두 그의 본심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속단하여서는 안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더 말할것도 없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표현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이 자기 의사를 똑바로 알도록 말을 못할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리유로 하여 속마음과는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료해파악하는데서 현상적인 측면만을 일면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나타난 현상과 여러가지 요인들을 밀접히 련관시켜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면서 로출된 현상에서 은폐된 본질을 꿰뚫어볼줄 알아야 한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의지를 굳세게 해주고 행동에 적극성을 부여해주려면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요구와 지향, 리상과 포부, 흥미와 취미를 비롯한 여러가지 심리현상까지 다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들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해나가는것이다.

방법론은 사업방법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내용을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옳게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이다. 사람과의 사업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내용들은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사람과의 사업에 구현된다.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것처럼 똑같은 교양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그 어떤 일률적인 공식에 맞추어 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공식에 맞추어 할수 없는것이 사람과의 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방법은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교양방법, 다시말하여 전당, 사람당으로 방법론을 찾는데 있다. 방법론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는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대책안과 묘술을 찾아내게 하는것으로 하여 사람과의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방도로 된다.

방법론은 제기된 과업의 내용과 요구, 대상의 특성과 사업환경을 세밀히 따져가며 그에 알맞게 세워야 하며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둘수 있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집체적 협의를 강화하여 올바른 방법론을 세워야 하며 왕성한 탐구력을 가지고 진지하게 연구하여 정확한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당일군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단위와 부문, 자기가 대상하는 매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의 방법론을 창조적으로 세우고 구현해나가야 한다.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만나 담화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말은 담화의 기본수단이며 말은 곧 사상의 표현이다. 사람의 사상감정과

기호와 취미는 모두 말을 통하여 표현되며 그의 지식정도, 문화도덕수준도 말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해나가자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아야 하며 마주앉아 담화해보아야 한다.

담화는 개별적 사람들의 특성을 옳게 살리고 여러가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 둘이 마주앉거나 같은 부류의 제한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속생각을 스스로 털어놓고 말할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리한 분위기와 조건을 조성하여준다. 담화는 또한 환경과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아무때 어디서나 할수 있다. 그리고 담화는 특별한 격식과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실속있게 하는데서 담화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여기고 담화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능숙하게 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사람과의 사업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얼마나 심도있게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맡아하는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에 달려있다.

당일군들은 직업과 지식정도, 성격과 년령, 생활경위 등이 각이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하여 사업하게 된다. 그런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잘하자면 그들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알고있어야 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예리한 정치적 안목과 풍부한 지식, 넓은 식견을 가져야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 선에서 보고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하나를 통해서도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알수 있고 남이 새겨듣지 못하는 심장의 호소를 남먼저 가려들을수 있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군중의 심리에 맞게 능란하고 수완있게 해나갈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이란 다감하고 은근하며 로숙하고 여유작작한 그러한 세련된 령도예술을 요구하는것만큼 당일군들은 어느 모로 보나 빈틈이 없도록 정치, 경제, 과학,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 알고있어야 한다.

당일군들은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풍부한 정서와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져야 한다. 당일군들이 정서가 없고 문화적 소양이 낮으면 군중과 어울릴수 없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리적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해나갈수 없다. 당일군들은 생활의 론리에 따라 때로는 말로,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노래로, 사람들의 정서적 감정이나 사상감정에 자극을 줄수 있도록 누구보다 생활을 즐길줄 알며 향유할줄 아는 감성적인 인간, 풍만한 정서를 가진 다정다감한 인간이 되여야 한다.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문화적 소양은 열정의 산물이며 피타는 노력의 열매이다. 당일군들의 수준은 저절로 높아지지 않으며 그것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학습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타고난 혁명가란 없으며 완성된 혁명가도 없다. 당일군들은 항상 자기를 완성된 인간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학습하여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실력있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로 들끓고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200일전투의 성과적 수행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본성적 요구

김 보 경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그들속에 깊이 뿌리박아야 불패의 위력을 가진 혁명의 전위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48～349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선봉투사들로 조직된 혁명의 전위부대이며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령도적 정치조직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본성적 요구에 맞게 존재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인민대중과 혈연적 련계를 강화한다는것은 당과 인민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며 당이 인민대중을 지반으로 하여 존재하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활동한다는것을 말한다.

당과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고 혈연적으로 련결되는것은 당과 대중이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하고 활동하기 위한 근본요인이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 그런것만큼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난 대중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으며 대중과 떨어진 당과 수령도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없다.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될 때 당과 인민이 운명을 같이하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될수 있으며 당이 자기의 본성적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것이 당의 본성적 요구로 되는것은 그것이 당의 존재와 공고발전의 근본조건으로 된다는데 있다.

당의 본성은 당이 로동계급의 당으로 존재하고 활동할수 있게 하는 본질적 특성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당의 본성적 요구로 되자면 그것이 당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조건으로 되여야 한다.

당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조건의 하나는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것이며 튼튼한 대중적 지반을 가지는것이다.

당이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것은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당의 존재와 발전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당의 혁명적 성격이 고수되고 유지되여야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정당으로 존재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본성적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당의 성격은 지도사상과 함께 구성성분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당의 구성성분으로 하는 공고한 계급적 지반과 가

장 넓은 사회적 지반을 가지고있다는데 로동계급의 당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당은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인민대중과 떼여놓을수 없는 그의 가장 선진적인 한 부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대중의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조직된다. 당은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로 당대렬을 량적으로 확대하면서 질적 구성을 계통적으로 개선해나가야 자기의 계급적 성격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당의 대중적 지반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것은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된다.

광범한 군중은 로동계급의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 당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아야 군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을수 있으며 튼튼한 대중적 지반우에서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발전할수 있다.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며 튼튼한 대중적 지반을 가지고 존재하고 발전하기 위한 당의 본성적 요구는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는 로동계급의 당의 존재방식이다. 생명체없이 단백체가 존재할수 없듯이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떠나서 당자체가 존재할수 없다. 인민대중을 지반으로 하여 존재하고 활동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에 의하여 튼튼히 다져진 당의 대중적 지반은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정예화할수 있게 하는 원천이다. 혈연적 련계에 기초하여 인민대중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여있는 당은 근로대중속에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우수한 핵심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내여 자기 대렬을 량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공고화해나가게 된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또한 당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꾸려 원쑤들의 공격과 파괴책동으로부터 당을 보호하고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것으로 하여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존재와 발전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이와 같이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당으로 하여금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끝까지 고수하며 튼튼한 대중적 지반을 가진 근로대중의 전위조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당의 본성적 요구로 된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것이 당의 본성적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원래 당의 사명은 당이 자기의 본성적 요구로부터 항구적으로 내세우는 기본임무이다. 따라서 당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은 방도로 되는 사업이라야 당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것으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본성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령도적 정치조직이다.

지도사상의 견지에서 볼 때 로동계급의 당의 기본사명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며 사회계급적 기초의 견지에서 볼 때 로동계급의 당의 기본사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집대성되여있는것만큼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곧 수령의 사상을 실

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의 사명은 온 사회를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당의 사명을 이룩하기 위한 당의 활동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는 인민대중과 혈연적 련계를 맺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데 있다. 당이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으며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이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활동하며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선차적 요구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는것이며 그 관철에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인민대중과의 밀접한 련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당이 대중과 일상적으로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어야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다. 이렇게 세워진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을 옳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된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한다.

대중에 대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의식화, 조직화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당이 대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련계를 가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에 의하여 사상적으로 각성되여 의식화되며 조직적으로 결속되여 조직화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당이 령도하고 인민대중이 담당수행한다. 당은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인민대중은 혁명의 담당자이다. 당의 령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하고 활동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자기 생명활동의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당의 령도가 인민대중속에서 철저히 실현될수 없다.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는것과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것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실현하는데서 뗄수 없는 두 측면을 이루고있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가 강화되여야 당의 령도가 대중에게 접근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위력과 결합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들어나가게 된다. 결국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에 기초하여 지도와 대중의 참다운 결합이 이루어지고 인민대중이 의식화, 조직화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당의 사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는것이다.

이것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것이 당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당의 본성적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이룩하는것을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요인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 문제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 련계를 빛나게 실현한 고귀한 모범이 창조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당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당활동에서 언제나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당의 방침과 총적 과업, 그 실현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였으며 인민에게 튼튼히 의거하고 시종일관 인민적인 정책만을 실시하여왔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있다.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 풍모가 온 사회에 차고넘치도록 한것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실현하는데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의 하나로 빛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실현된 당과 인민의 혈연적 련계는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하고있는 불패의것이며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편단심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는 철석같은것이다. 그것은 또한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굳세여진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는 불패의것으로 굳건히 다져지고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계속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은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에 있으며 이것을 강화하여야만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420~421페지)

당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을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은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에 기초하여 발현된다.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하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게 한다.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그들을 존엄있게 대하는 관점을 가져야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일상 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군중과 련결되여있고 군중속에서 활동하고있는 당일군들이 인민대중을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충실히 일하여야 당의 사랑과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인민들은 우리 당을 더욱더 믿고 따르게 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신념을 가지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된다.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충실히 일해나감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해나갈수 있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갈 때에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각계각층 군중에게 실제적인 당적 신임을 안겨주는것이다.

사람들이 뭉치는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믿음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련계의 공고성도 결국 믿음의 확고성에 달려있다.

당일군들은 군중이 당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믿어준다는것을 확고히 인식하도록 빈말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천적으로 당적 신임을 표시해주어야 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책임적인 사업이 제기되면 외면하거나 멀리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믿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오로지 당에 충성다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이 진심으로 믿고 포섭하여야 하며 초소를 맡기고 과업을 안겨주는데서뿐아니라 공로를 평가해주고 영예와 표창을 안겨주는데서도 사소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에게 실천적 믿음을 안겨주어야 그들이 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열성적으로 일할수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있다.

우리 당의 군중사업방침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군중사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군중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당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광범한 대중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 잘 보장할수 있다.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안에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는것이다. 당풍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사업기풍이며 당생활기풍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며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워나가는 여기에 온갖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뽑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당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광범한 대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더욱 밀접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만일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군중과 리탈되면 당이 군중과 떨어지게 된다. 군중과 혼연일체가 되는것은 우리 당의 생명선이다. 당이 군중과 혼연일체가 되자면 당일군들이 어디에 가건 군중과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자기의 생리로, 생존방식으로, 힘의 원천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과 같이 살고 일하여야 하며 군중과 같이 숨쉬면서 현실

속에 있어야 한다. 대중이 있는곳에는 어디에나 당일군들이 내려가고 일군들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게 될 때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참으로 공고하고 밀접한 혈연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정치공작원들이 국내 인민들속에 들어가 정치공작을 한것처럼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침식을 함께 하고 호흡을 같이하면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그들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대중의 교양자이며 정치활동가이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방법에서 로숙하고 작풍에서 원만하여야 하며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져야 한다. 당일군들이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지니고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군중을 대하여야 모든 사람들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게 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비상히 강화되게 된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있는것만큼 사람문제를 특별히 신중하게 다루고 로숙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당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를 절대로 경솔하게 대하거나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즉흥은 실수의 전제이다. 순간적인 기분이나 충격적인 자극으로 즉흥에 사로잡혀 사람과의 사업을 되는대로 하거나 제기된 문제를 망탕 처리하면 실패를 면할수 없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때문에 당일군들은 사람문제처리에서 언제나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에게는 또한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방법이 서툴고 작풍이 거칠면 사람들이 진실로 따르지 않게 된다. 꽃이 향기로우면 그 어디에 피여있어도 여러가지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게 되듯이 당일군들의 경우에도 작풍이 좋고 겸손하고 소탈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된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뜨겁고 살뜰하게 대해주고 친혈육처럼 돌봐주고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당조직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며 어머니가 있는 방문을 아무때나 열듯이 당위원회의 문을 스스럼없이 열고 정다운 마음으로 항상 찾아오게 된다. 당일군들은 어느때 누구든지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과 마음속 깊은 사연까지 다 이야기할수 있도록 당위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며 울면서 찾아왔던 사람들도 웃으면서 당위원회의 문을 나서도록 사람들을 뜨겁고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잘하는것이다.

근로단체는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근로단체는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은 근로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련계를 실현하고 군중속에서 핵심을 키워 자기 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해나가게 된다.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당의 대중적 지반을 공고히 하고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수 있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된 당과 인민의 통일체는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다.

우리는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감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해나가며 일심단결된 혁명대오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할것이다.

당원은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값있게 살아야 한다

김 의 순

당원은 혁명가이다. 혁명가인 당원들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원은 한생을 혁명에 바칠 굳은 결심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다. 당원들이 한생을 걸어가야 할 혁명의 길은 결코 탄탄하지 않다. 그 길우에는 난관도 있고 시련도 있으며 원쑤들과 목숨걸고 판가리를 하여야 하는 때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 당원들이 삶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심장의 고동이 멎는 순간까지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으며 혁명가로서 한생을 깨끗하고 빛나게 살수 있다.

당원들이 삶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는것을 가장 값높은 삶으로, 참된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당원은 삶의 순간, 순간마다를 오직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값있게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산다는것은 순간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고 당과 수령을 받들고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다한다는것이다.

혁명가의 한생은 순간순간의 삶으로 이어진다. 순간이 모여 시간을 이루고 시간이 모여 날과 달을 이루며 날과 달이 모여 년을 이루고 나아가서 혁명가의 한생을 이룬다. 삶의 순간, 순간마다를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혁명가들이 자기의 한생을 빛내일수도 있고 반대로 한생에 씻을수 없는 수치를 남길수도 있다.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라는것은 결국 어느 한순간도 수치스럽지 않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직하게 살라는것이다.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는 것은 당원들이 한생을 값있게 살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그것은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는 여기에 당원들이 자기의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영원히 빛내여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 있기때문이다.

당원이 사회적 인간으로서 값있게 사는 문제는 사회정치적 생명과 관련되여 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빛내여나가는 문제이다.

사회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 이 두생명가운데서 어느것을 더 귀중한 제일생명으로 여기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삶에 대한 근본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인것만큼 사회정치적 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길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며 사람답게 살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도 귀중하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것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무병장수》라는 말이 생겨나고 의학과학을 발전시키며 장생불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것

은 그때문이다. 그러나 육체적 생명만을 가지고서는 사람답게 살수 없다. 사람의 삶의 가치는 단순히 목숨을 이어가며 편안히 오래 사는데 있지 않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제 한몸이나 돌보면서 사는것은 사람의 생활이 아니다. 그러한 생활은 동물의 생활과 다름없다.

사람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사람답게 살수 있다.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 개인의 육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육체적 생명과는 달리 사회적 집단의 운명 개척에 이바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이기때문이다.

순간을 살아도 오직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며 그러한 삶으로 일생을 마무리하는것, 이것이 사람이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사는 참된 삶이다.

우리 나라의 혁명투쟁력사에는 항일혁명투쟁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혁명가, 영웅전사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은 목숨이 아까운줄 몰라서 그렇게 한것은 아니다. 그들도 다 자기의 목숨이 귀중한줄을 아는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겼기때문에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쳤던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길 때 사람들은 또한 영원한 삶을 누릴수 있게 된다.

사회적 집단은 개별적 사람들이 생을 마치는데는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으며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리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집단과 더불어 길이 살아 빛나게 된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간 김혁, 차광수, 오중흡 등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이름은 그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에 한목숨 바친 영웅적 투쟁업적과 더불어 혁명의 세대와 세대에 이어 길이 전해지고있으며 그들의 영상은 혁명렬사릉의 반신상이나 혁명영화 《조선의 별》,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 등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생동하게 영원히 남아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일동무는 우리의 곁을 떠나는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하였으며 일생을 혁명투쟁에 바쳤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고 50여년을 일해온 일군이다. 말년에 부주석으로 사업한 그의 생은 높은 직위나 명예로 빛나는것이 아니라 일생을 혁명에 바치고 위대한 령도자에게 충실한 혁명전사의 이름으로 빛나고있다.

참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이야말로 당원이 한생을 인간답게, 존엄있게 살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기 위한 제일생명이다.

혁명가인 당원의 보람있는 생활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가는 투쟁속에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 참가할 때 지니게 되는 생명이며 그 투쟁속에서만 빛나는 생명이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것은 곧 혁명투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것으로서 그것은 한생을 보람있게 사는가 헛되게 보내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며 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의 일생이다. 투쟁이 없는 혁명가의 삶은 아무런 가치도 못가진다.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허송세월하며 보낸 백날, 천날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혁명에 몸바쳐 투쟁하면서 산 하루가 더 보람있고 귀중하다고 본다.

예술영화《월미도》에서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중대장이 당분조장과 삶의 보람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아바이, 전 생을 떠난다고 해도 아쉬운것이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그 행복을 이룩하는데 바쳐진 생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난 유감스러운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조국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할수 있거던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몸바쳐 싸우는것, 이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는것이며 그 투쟁속에만 참된 혁명가의 긍지높고 보람있는 삶과 생활이 있다.

이와 같이 당원들이 혁명가로서 한생을 값있게 사는 문제는 사회정치적 생명과 관련되여있으며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며 영원히 빛내여나가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원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에 대한 이러한 혁명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값있게 살아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삶의 순간순간마다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직하게 사는것이다.

당과 수령은 당원들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도록 늘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호자이다.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사람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당과 수령이 준다. 수령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게우쳐주고 혁명조직을 무어 정치생활에 참가시키며 혁명투쟁에로 이끌어준다. 이것은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이다.

사회의 개별적 성원들은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밑에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진 수령의 혁명전사로 되게 되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빛내여나가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육체적 생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당과 수령을 떠나서 사회정치적 생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원들이 받아안은 사회정치적 생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신것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따사로운 품이 있기에 가장 존엄있는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원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은인이시고 보호자이시며 그 품은 우리 당원들이 참된 삶과 끝없는 행복을 누리며 안겨사는 자애로운 어머니품이다.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라는 요구가 바로 여기로부터 제기되는것이며 그렇게 사는 삶만이 당원들이 자기의 제일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사는 더없이 보람있는 값높은 삶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은 류례없이 복잡하고 고난에 찬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은 멀리 전진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가 바라보이는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였다.

승승장구하여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의 갈피갈피마다에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우리 당원들의 충성의 자욱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우리 당원들은 오직 당과 수령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고락을 같이하며 충성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여기에서 삶의 참된 보람을 찾았다.

참으로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인 우리 당원들의 삶과 투쟁의 승

고한 목적이며 혁명적 신조로 되고있다.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혁명의 앞길은 의연히 간고하고 험난하다. 우리 혁명은 특히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더욱 복잡하고 간고하다.

혁명의 앞길이 간고하고 복잡할수록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더욱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워나가야 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드는 충성의 한길에서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삶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당원들이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값있게 살아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한 사람이라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혁명가로 키워준 수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 만일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하지 못하면 자그마한 난관앞에서도 혁명의 전도에 대한 신념을 잃고 동요하게 되며 나중에는 당과 수령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우리 당원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바치는 우리 당원들의 충성심은 금과 같이 물과 불속에서 억년 가도 변색하지 말아야 하며 옥과 같이 티없이 맑고 깨끗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이 혁명적 수령관을 바로세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의 머나먼 길, 험난하고 시련으로 가득찬 혁명의 길을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변함없이 걸어나갈수 있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답게 한생을 값있는 삶으로 빛내일수 있다.

모든 사색과 활동을 수령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바치는것은 우리 당원들이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값있게 사는데서 언제나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철칙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 혁명관이 똑바로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6페지)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가 하는것은 혁명적 실천에 의하여 검증된다. 삶의 순간순간마다를 당과 수령을 위하여 바치는 당원들의 혁명적 실천이란 곧 수령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수령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 실천은 끊임없는 사색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끊임없는 사색이 없이는 수령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묘술을 찾아낼수 없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떠나서는 수령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끝까지 관철할수 없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모든 사색과 활동을 바치는 사람만이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는 참다운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 일과 책 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여주신 정준택동지는 자기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하여 언제나 밤을 지새우며 학습하고 연구하고 사색하는 일군이였다. 그의 학습과 연구와 사색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나라의 경제사업에 더 잘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사업과정이였다. 오래동안 나라의 계획사업을 맡아본 그는 정

책을 작성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언제나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된 자료를 내놓군하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창조적인 사색과 정력적인 활동으로 수령님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보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회상하시는 강영창동지도 당과 인민을 위하여 한가지 일이라도 더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쓴 일군이였다.

강영창동지는 자신의 모든 사색과 활동을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더 잘, 더 빨리 관철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겠는가 하는데 바치였다.

그는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한의 원철로를 당장 폭파해버리라고 하시였을 때에는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에 탄복하여 자기 사무실에 실험실을 꾸리고 밤을 밝혀가며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여 마침내 새로운 제강법을 연구해냈다. 전쟁시기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류탄을 만들라고 하시였을 때에는 전시의 그처럼 어려운 조건을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오두막에서 북데기를 덮고 쪽잠을 자면서 용선로를 일떠세워 끝내 수류탄을 만들어냈다. 그는 전후복구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황해제철소 1호용광로를 복구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을 때에는 그것을 다음해 5.1절까지 일떠세우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떠벌이는 종파분자들의 잡소리를 단호히 물리치고 수령님의 교시를 어기면 당증을 벗어놓고 법앞에서 무릎을 꿇어 벌을 청해야 한다고 하며 로동자들과 현장에서 침식을 같이하면서 기어이 1호용광로를 기한전에 일떠세웠다. 과학원 원장으로 일하던 시기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학기술용어사전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을 때에는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사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식과 재능, 지혜와 정력을 깡그리 쏟아부었으며 그 길에서 생을 마치였다.

정준택, 강영창 동지들의 한생은 우리 당원들에게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자면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생활의 진리를 똑똑히 가르쳐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에서 제시된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바쳐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200일전투기간에 총돌격전을 벌려 방대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완공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켜 웅대한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을것을 호소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당원들의 충성심을 믿고 200일전투의 거창한 대진군을 펼치였다. 이것은 우리 전체 당원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믿음의 표시로 된다.

우리 당원들은 언제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당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당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왔다. 당과 혁명 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우리 당이 새로운 대진군에로 부르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원들이 또다시 결연히 떨쳐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당원의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할 때이다.

당이 내세운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기대에 실천적으로 보답하는것이며 이 전투에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순간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는 우리 당원들의 값높은 삶을 더욱 빛내일수 있다. 우리 당원들은 당이 맡겨준 전투과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자신의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아야 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평안남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총진군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 새로운 위훈과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당이 호소한 200일전투기간에 우리 도에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쳐 비날론 10만톤 능력을 조성하고 순천땅에서 비날론과 함께 질소비료, 단백질먹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또한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능력확장공사, 청년수지마대공장, 흥보산비료공장을 빨리 완공하며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안주지구, 순천지구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새 탄광을 더 많이 개발하여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있는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석탄, 전력, 자동차, 세멘트, 화학비료,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만풍년을 안아오며 전군중적으로 바다가양식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사업에서도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며 인민보건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200일전투과업은 실로 방대하며 매우 높은 목표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는 못해낼 일이란 없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원들이 혁명적으로 분발하여 투쟁할 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들끓게 되고 중요대상건설장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200일전투에서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전투에서 승리의 열쇠가 작전과 지휘에 달려있듯이 200일전투의 승리는 결국 일군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해나가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전투대오를 혁명적으로 이끌어나갈 때 대중은 200일전투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를 발휘하게 되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려는 그들의 높은 충성심과 창조적 적극성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할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대오의 앞장에 서서 어려운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200일전투를 힘있게 조직지휘하여나가야 한다.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며 그 품속에서 오늘도 살고 래일도 살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우리 당원들의 삶의 보람은 우리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자기 맡은 혁명초소에서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데 있다.

우리 당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당이 세워준 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한생을 충성의 자욱자욱으로 아로새기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생산의 정상화는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송 주 규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대건설행군을 적극 다그쳐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을 정상화한다는것은 공장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낼뿐아니라 공장다운 면모를 완전히 갖추도록 한다는것을 말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8권, 260페지)

생산을 정상화한다는것은 있는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국가의 생산계획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생산을 체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며 나라의 경제활동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단위들이 반드시 국가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경제를 주동적으로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 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만약 인민경제의 어느 한 고리에서라도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다른 련관된 부문의 생산계획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계획에 예견된 계획과제를 제때에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무엇보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건설행군은 그 규모가 전례없이 방대하며 최상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방대한 경제건설사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중요대상건설의 단계별 목표와 매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투쟁과업을 명확히 세우고 일정계획에 예견된대로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대건설행군을 벌리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건설계획을 세우고 력량을 집중하여 그것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방대한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며 새로 건설되는 공장, 기업소들의 조업기일을 제때에 보장할수 있다. 만일 건설을 정상화하지 못하여 건설계획과제들을 제때에 수행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건설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없고 건설기간도 앞당길수 없다.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건설을 정상화하여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건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당이 의도하는대로 대건설행군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다.

건설부문에서뿐아니라 인민경제 여러부문과 단위들에서 국가계획을 제때에 철저히 수행할 때 우리는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방대한 규모와 높은 속도로 진행되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에는 많은 기계설비와 자재가 요구된다.

생산을 정상화하여 철강재,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기계설비를 계획대로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할수록 중요대상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만일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여 건설장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한다면 건설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많은 사회적로동을 랑비하게 된다. 그런것만큼 대건설행군의 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과 인민이 바라는대로 중요대상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할수 있으며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경제를 빠른 속도로 장성시켜 사회주의적 축적원천을 끊임없이 늘임으로써 대건설행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건설행군은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많이 마련하며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건설을 비롯한 일련의 대상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제3차 7개년계획은 이미 마련되여있는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많이 조성하여야 원만히 수행될수 있다. 그 규모가 전례없이 방대한 사회주의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는 많은 설비, 자재와 함께 자금이 요구된다.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건설행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면 사회주의적 축적원천을 많이 조성함으로써 기본건설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면 사회주의 축적원천을 확대하여 기본건설투자를 적극 늘이게 한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 할수록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로력과 생산수단을 절약하고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며 나아가서 사회총생산물가운데서 순소득부분의 몫이 커지게 된다. 이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는 기초우에서만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할수 있는 자금원천을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국가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은 대건설행군을 적극 다그쳐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경제건설로

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토대가 마련되였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대규모의 중앙공업공장들과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서고 그 기술장비가 더욱 현대화되였으며 공업의 부문구조가 보다 더 완비되였다. 이러한 튼튼한 경제토대는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충분히 지어주고있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방대한 규모의 대건설전투를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으며 물질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현시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양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온갖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감으로써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공산주의적 투쟁기풍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높이 발양하여야 할 일본새이다. 이러한 혁명정신을 가져야 어떤 어려운 난관도 뚫고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건설행군을 적극 다그쳐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생산정상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대건설행군을 직접 조직지휘하는 지휘성원들께 대오의 앞장에 서서 혁명과업수행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며 맡겨진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가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투쟁기풍이다. 일군들은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리용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 연료, 동력을 절약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우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현시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생산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인민경제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되고있으며 경제부문사이, 공장, 기업소사이, 직장과 직장사이의 련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군들이 생산 조직과 지휘를 잘 짜고들어야 원료와 연료, 자재, 협동품을 제때에 보장하여 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으며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를 비롯한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합리

화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생산조직사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이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생산조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다. 설비를 잘 정비하고 관리하여야 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설비관리를 잘하자면 모든 기계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매 기대들마다 설비경력서를 정확히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는 제도를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설비의 관리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똑똑히 알고 설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다루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설비들을 알뜰히 관리하며 만가동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생산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원료와 연료, 자재 보장사업을 짜고들며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것이다.

생산과정은 수많은 원료와 연료, 자재들의 소비과정이며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이러한 요소들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원료와 연료, 자재를 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그것을 충분히 마련하여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원료와 연료, 자재의 보장과 그 소비정형을 늘 꿰들고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기동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생산품을 15일전으로 먼저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자재를 사장시키거나 랑비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그것을 극력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수송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생산조직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수송은 생산과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는 물질적 생산부문이며 생산의 련속과정이다. 생산에 수송을 적극 따라세워 원료, 자재, 생산된 제품들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교통운수부문의 일군들은 수송계획을 수요와 능력을 세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맞물려 여러가지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야 한다. 특히 당의 수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집중수송, 집합수송을 잘하며 철도와 자동차, 배 사이의 련대수송을 강화함으로써 수송에서의 기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국가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계획적 생산이며 고도로 발전된 협동생산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 때 전사회적 범위에서 협동생산이 잘 이루어지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계획을 현물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술경제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그것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대건설행군의 속도를 더욱 높이며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생산장성의 확고한 담보

리 하 섭

오늘 농촌경리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만풍년으로 빛내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당의 의도대로 농업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이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큰 힘을 넣고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들의 일상적인 물질문화생활에서 선차적인것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이며 그가운데서도 먹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다. 먹는 문제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과 같이 먹을것이 풍족해야 인민들의 의식상태도 더 좋아지고 모든 일이 다 잘되여 나간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농업에 힘을 넣어 쌀을 많이 생산하는것이다.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 쌀을 많이 생산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쌀을 수요에 따라 공급할수 있게 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다. 농업생산을 높이는것은 쌀공급에서부터 먼저 공산주의적 분배를 실시하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농사제일주의 방침을 제시하시고 주체농법을 창조하여 농업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농업생산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농업생산을 높이는것은 당면하게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는 현실에 맞게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농법을 관철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농법이며 현대과학의 성과와 공고한 농업생산토대에 의거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고도로 집약화된 농법이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농업생산장성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기때문이다.

인민경제 2대부문의 하나인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으며 생산과정이 주로 농작물을

가꾸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되여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은 토지와 기상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농작물의 생물학적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는가에 의하여 그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나라마다 자연조건이 같지 않고 재배하는 농작물에서도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토양조건과 기상기후조건,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과학적인 농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은 지대마다 다르고 물짜기마다 다르며 한 물짜기안에서도 필지마다 서로 다르다. 자연환경속에서 자라는 농작물들은 매 생육단계마다 온도와 빛, 영양물질, 물기 등에 대한 요구도 같지 않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자면 나라의 모든 지역의 구체적인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야 하며 농작물의 생물학적 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원만히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주체농법은 바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농법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모든 작물과 그 품종들을 토지와 기상기후 조건에 맞게 정확히 배치하고 가꾸는데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이와 함께 개별적 지대와 포전의 토양조건과 기상기후조건을 정확히 조사분석하며 그에 맞게 농사를 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규정해주고있다.

주체농법은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농사방법뿐아니라 농작물의 생물학적 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방도들도 뚜렷이 제시해주고있다.

농작물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생육단계별로 농작물의 생물학적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주체농법은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온도, 영양물질, 물기 등 생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철저히 앞세우고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 리치에 맞게 짜고들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전반적인 생산기술공정과 재배방법들을 과학화하고있다.

이처럼 주체농법에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모든 원칙적인 방도와 구체적인 방법들이 집대성되여있다. 그러므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면 그 어떤 불리한 환경과 이상기후현상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전하고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농업생산장성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이기때문이다.

현대적인 농업에서 집약화는 최신농업과학과 선진영농기술에 기초하여 토지의 단위면적에 생산수단과 로력을 집중적으로 들이댐으로써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영농방법이다. 농업생산을 집약화하면 부침땅면적의 자연적 제한성을 일정하게 극복할수 있으며 농작물의 단위생산물당 로력과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높은 소출을 이룩하여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농업을 집약화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농업과학기술수준이 비교적 낮은 단계에서는 토지의 단위면적에 로력을 많이 투하하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되지만 농업과학기술수준이 높은 단계에서는 생산수단을 많이 들이미는것이 기본적인 방법으로 된다. 토지의 단위면적에 보다 많은 기계와 비료, 농약을 투하하여야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적은 면적의 부침땅으로도 농업생산을 효과적으로 늘일수 있다.

농업생산을 집약화하는데서 중요한것

은 논밭의 지력을 높이고 토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그 생산성을 높이는것이다. 주체농법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포전별로 세밀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랭습한 땅, 물이 새는 논, 산성토양, 간석지토양, 식은논토양 등을 적극 개량하며 모든 논밭에 유기질비료와 함께 여러가지 화학비료들을 구색에 맞게 침으로써 논밭의 지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메마른 땅은 기름진 땅으로 전변시키며 토지의 리용과정에서 소모되는 영양요소들을 끊임없이 보충해주고 지력을 더욱 높여 농업생산을 집약화할수 있는 튼튼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해준다. 주체농법은 논밭의 지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것과 함께 최대한으로 배게 심고 포기관리를 잘하여 포기마다 옹근 소출을 낼수 있게 한다.

농업생산의 집약화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주체농법은 토지를 기름지게 하고 병충해를 미리 막으며 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등 모든 영농공정들을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에 의거하여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주체농법을 관철하는것이 농업생산의 집약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토지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그 생산성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실천적 경험은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농업생산장성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빠른 속도로 장성해온 우리 나라 농업생산은 1973년이래 새로운 획기적 전환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이 1973년에는 그전해에 비하여 136%로 장성하였으며 1974년에는 1973년에 비하여 131%로 장성하여 700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주체농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는 1979년에 900만톤, 1984년에는 해방직후인 1946년에 비하여 5.3배나 늘어난 1,0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해냈다.

오늘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정보당 알곡수확고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농법이 관철되여 우리 평안북도 농사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도적인 알곡총수확고가 1972년에 비하여 1985년에는 118%, 1985년에 비하여 1987년에는 118%로 각각 장성하였으며 정보당 알곡수확고는 1972년에 비하여 1984년에 벼는 148.8%, 강냉이는 무려 208.6%로 늘어났다.

농업생산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농법을 창조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결과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농촌경리부문의 당조직들과 근로자들, 전체 인민을 주체농법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성과는 해마다 안전하고 높은 수확을 튼튼히 담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생산토대의 위력과 주체농법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농법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실정과 현대농업과학의 발전추세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우월한 농법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

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주체농법을 계속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올해에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하며 가까운 앞날에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짓자면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철두철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는것이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의 농업정책은 그 어느것이나 다 가장 정당하고 정확한것이였으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언제나 당의 농업정책이 가리키는대로만 투쟁하여왔기때문이다. 우리 혁명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는 오늘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담보는 당의 농업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으며 알곡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방도도 바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는데 있다.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당정책대로만 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주체농법이외에는 다른 농법이 없으며 철두철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농법학습을 폭넓게 진행하여 그 정당성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며 현대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학습도 강화하여 새로운 농업과학기술지식을 풍부히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농촌경리부문의 지도일군들이 영농공정에 따르는 조직지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농작물은 일반적으로 생산주기가 길며 생육단계별로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을 늘이자면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영농공정을 정확히 정하고 매 영농공정에 따르는 생물학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농사의 어느 한 공정이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칠 때에는 농업생산에 큰 후과를 미치게 된다. 더우기 농업생산이 고도로 과학화, 집약화되여있는 오늘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지도하지 않고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할수 없으며 농작물의 안전하고 높은 소출을 기대할수 없다.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은 영농준비로부터 모내기, 김매기, 비료치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농공정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화하고 매개 영농공정별로 제기되는 영농작업들을 어김없이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해당 지역의 농업생산을 직접 장악지도하는 도농촌경리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대로 아래를 적극 도와주고 아래단위의 영농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실속있게 하며 현실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조직지도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당면한 영농사업인 모내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에 따르는 기계기술수단들과 영농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과 함께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서는 또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다운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주인이며 농업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이다. 날로 늘어나는 식량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다름아닌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맡겨져있다.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임무를 얼마나 깊이 자각하고 주체농법을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 농업에서는 원래 로동이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로동의 결과가 농작물의 수확기에 가서야 나타나게 되는것만큼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든 농사일을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하여야 주체농법을 제대로 관철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농업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다.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일할 때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은 우리 도의 여러 군과 협동농장들에서 이룩된 성과가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우리 도안의 정주군과 창성군에서는 당조직과 3대혁명소조의 지도밑에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모든 농사일을 주인답게 함으로써 지난 기간 알곡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여왔다. 그리하여 1987년에는 1985년에 비하여 정주군에서는 113%, 창성군에서는 130.4%로 알곡생산을 장성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산간지대인 창성군 약수협동농장에서는 같은 기간에 알곡수확고를 무려 145.9%나 늘이였다.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극진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 된 높은 영예와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깐지게 지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어려운 일에서 언제나 어깨를 들이밀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농장원들로 하여금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밑에 모든 농사일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하게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주체농법은 과학농법, 집약농법이다.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는 농기계와 영농물자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많이 요구된다.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뜨락또르, 자동차, 여러가지 농기계와 부속품, 화학비료를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하며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도와줄 때 주체농법은 더 잘 관철되고 농업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 당이 농촌테제에서 제시한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빨리 완성하며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 문제도 구경에는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지원사업과 크게 련관되여있다.

주체농법을 관철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을 영원히 빛내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우리는 주체농법을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올해에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야 할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자

김 경 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과 과학기술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　　　*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은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지배하는 정도, 자연을 정복하고 리용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노는것은 과학과 기술이다.

과학과 기술은 세계를 개조하고 물질문화적 부를 창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물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과학과 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것이 노는 역할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더 증대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과학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적 지혜의 산물인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줍니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세계경제발전의 기본추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2페지)

우리는 지금 과학과 기술이 전례없이 빨리 발전하고 사회적 생산에서 그 역할이 비상히 커지고있는 시대에 살고있다. 특히 20세기중엽이후 인류를 경탄시킨 최신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끊임없이 개척됨으로써 현대과학기술이 자연을 지배하고 생산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예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있다. 현시대는 최신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사회적 생산을 발전시켜나가는것이 경제발전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는 시대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야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발전의 주인이며 그 결정적 요인이다.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 요인에는 과학기술을 소유한 사람과 과학기술수단

과 물질적 조건들이 있다. 그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노는것은 사람이다.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사물현상의 운동법칙과 원리들을 찾아내며 그것을 실천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창조해나간다. 사회생산력의 발전력사는 바로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힘이 장성하고 그 역할을 높여온 력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진다.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자면 보다 새로운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기술수단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은 오직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역할을 높임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 담당자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에 의하여 과학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고 기술적 진보가 이룩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역할을 떠나서 사회적 진보와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 전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은 일찌기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인테리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한데 기초하여 그들을 굳게 믿고 중요한 과업을 맡겼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조건을 훌륭히 마련해주었다. 인테리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돌리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오늘 130여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나고 그들이 보람찬 삶을 누리면서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이 있기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의 한길에서 언제나 충직하게 살아올수 있었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할수 있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앞당길수 있다.

오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짧은 시일안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에는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높은 봉우리에 하루빨리 올라서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한 과학부문을 발전시켜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선진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이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참으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릴것을 예견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다.

우리 당이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구상을 펼

치고있는 오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크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매우 무겁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도 전자공학을 빨리 발전시켜 선진수준에 따라세우는것이다.

전자공학은 오늘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를 기술발전의 높은 경지에로 이끌어가고있으며 생산을 고도로 현대화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거대한 작용을 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경제의 전반적 부문이 기계화되고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진 조건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는 커다란 예비는 전자공학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전자공학을 발전시키는데서 기본은 집적회로와 전자계산기의 자립적인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고히 마련하는것이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전자공학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전자재료들과 전자요소, 여러가지 집적회로, 전자계산기, 자동화장치, 수치조종공작기계, 로보트들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연구개발하여야 하며 일용전자장치들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빛섬유통신에 필요한 빛요소와 전자장치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통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또한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다.

생물학은 농업과 축산업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오늘 세계는 생물학 특히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 미생물공학과 같은 생물공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 현대생물학의 성과들을 농업과 축산업에 적극 받아들이고 바다가양식을 비롯하여 바다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특히 미생물공학을 적극 발전시켜 단백질먹이문제를 해결하며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생물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길러내야 한다.

열공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열동력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열동력문제는 오늘 세계적 문제로 제기되고있으며 열동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열공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열동력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열동력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열공학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연료자원의 특성에 맞는 열동력설비들을 적극 개발하며 특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저열탄을 많이 리용하고 지방도시와 농촌의 난방화, 가스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태양열, 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화학공업과 금속공업, 채취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며 최신과학기

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하여 물리학과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을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주체적 립장을 가지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우리 식대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이 요구되며 주체적 관점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요구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의 높은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과학연구사업을 벌려나가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난관을 뚫고나가며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를 거듭할 때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게 되고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뿐아니라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사람들의 창조적 사색과 창발성을 마비시키고 나라의 주체적인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한다.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때 과학연구사업에서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선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질은 과학연구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질이 높아야 과학연구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과학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기술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오늘 우리앞에 제시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남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뒤따라 가는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밀고나가 짧은 기간에 선진적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높은 목표를 예견하고있는 계획이며 과학기술의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과학기술발전계획으로서 그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각적인 학습기풍을 세워 전공분야에 깊이 정통하고 최신과학기술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완강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최신과학기술의 원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과 수단들에 정통하며 습득한 과학적 원리와 기술을 창조적으로 써먹을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누구나 다 창조적 능력, 실천능력이 높은 실력있는 과학자, 기술자로, 높은 과학기술적 성과로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우리 시대의 과학자, 기술자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바로 주고 연구단위와 과학기술부문들이 긴밀히 협력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바로 주고 그 수행을 위한 연구력량을 옳게 편성하여야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집단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연구성과를 확대해나갈수 있다.

현대과학기술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는 과학연구사업은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개별적 과학자나 한두분야의 전문가,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으며 서로 련관된 각이한 분야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과학리론과 기술기능이 결합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실현될수 있다.

과학연구기관과 과학기술행정기관들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그들의 전공에 따라 세부적으로 맞물려 분담해주는 한편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연구를 조직하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기관본위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연구사업을 전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도서는 물론 현대적인 실험수단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재, 설비, 실험실과 중간시험공장들이 보장되여야 한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의 보장정도에 의하여 과학연구사업의 속도와 질이 담보된다. 특히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현대적인 실험수단과 시약을 비롯한 자재보장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우리는 당의 요구대로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과학연구기지를 훌륭하게 건설하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과학자, 기술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이 바로서고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당적 신임이 클수록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창조적 지혜와 정력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며 그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평가해주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이룩하는데서 당조직들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뜨겁게 대해주고 밀어주며 적극 이끌어주는것은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맡겨진 연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을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과학과 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휘황한 전망이 열려져있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과학의 요새는 높고 수행해야 할 과제는 방대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토대가 마련되여있으며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부대가 있다. 문제는 모든 지도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결정을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의도와 이번 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령마루에 올려세우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할것이다.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새로운 창작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

백 인 준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서 제시된 문학예술부문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울것을 강조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이란 우리 당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혁명적으로 생활하는 기풍을 말한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혁명적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문학예술작품창작의 주인이며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창작과 생활에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을 일으키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하여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고무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게 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갈 때만이 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혁명적 열정과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창작의욕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수 있으며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로 보나 문학예술작품창작의 본성적 요구로 보나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혁명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과 오늘의 벅찬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울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혁명은 지금 비상히 빠른 속도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여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고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게 될것이다.

우리가 리상으로 그려오던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그날이 가까와오는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마땅히 이러한 혁명의 전진에 보조를 맞추어 높은 속도로 힘차게 전진하여야 우리 인민의 정서생활을 풍부히 하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 할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문학예술부문앞에는 매 시기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를 제때에 민감하게 받아물고 작품에 훌륭히 구현하며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사상예술적 수준에서 그것을 릉가하는 깊이있고 특색있는 작품들을 더 많이 세상에 내놓아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이와 함께 과거에 만든 좋은 작품들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충하여 더 기름지게 풍부화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이 문학예술앞에 제기하는 이 절박한 과업은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혁명적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갈 때에만 비로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이처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이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다해나가며 새로운 창작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또한 문학예술작품창작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의 본성은 그 독창성에 있다. 창작은 독창적이여야 예술만이 가지는 커다란 사상정서적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교양할수 있으며 문학예술발전에도 독자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그런데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학예술에서 새것을 탐구하고 발견하는것도 어렵지만 새것을 형상에 구현하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요행수를 바라거나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결코 성공할수 없다. 오직 불타는 열정을 안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만이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불타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은 높은 사상의식에 기초하여서만 생겨날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충성다하겠다는 높은 사상적 각오를 가진 작가, 예술인들은 깊은 사색과 창조적 열정, 완강성,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동지적 협조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작품창작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경험은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사상적 량식을 풍부히 하고 혁명적 열의에 차넘칠 때 종전보다 몇배나 더 큰 힘을 내여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영화로 옮기고 5대혁명가극을 창조하던 때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혁명정신과 창작적 열정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창작전투를 벌렸기때문에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영화혁명, 가극혁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질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이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이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라는것은 작품창작의 본성자체가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갈 때만이 끊임없는 창작적 앙양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이다.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 사업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조성된 정세와도 관련된다.

오늘 우리 혁명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복잡하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광란적인 반공화국 소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우리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특히 미제가 보다 음흉한 방법으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저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작가, 예술인들 속에 부르죠아사상과 같은 불건전한 사상독소들이 침습할수 있는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적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우리 혁명을 주동적으로 전진사키기 위해서도, 부르죠아사상의 침습을 결정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작가, 예술인들은 결코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혀있을수 없으며 사소한 안일해이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작가, 예술인들은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창작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반혁명세력의 공세가 우심해질 때마다 혁명에 대한 신념이 약하고 비겁한자들은 혁명을 배반하고 적에게 투항하는 길로 나가지만 참다운 혁명가들은 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적들의 공세를 맞받아나가며 혁명을 보다 큰 앙양에로 이끌어나간다.

작가, 예술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건 누가 무엇이라고 하건 주체적 문예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하며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이 대고조의 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정세가 긴장할수록 작가, 예술인들이 일심단결하여 혁명적으로 창작하고 생활해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예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실현에 힘있게 복무하는 참다운 주체의 문학예술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은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을 문학예술작품창작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이 당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은 무엇보다먼저 당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당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은 당정책을 대하고 집행하는데서 나타나는 기풍이다.

당정책을 어떻게 대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이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가늠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당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이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기본척도로 되는것은 당정책이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사업과 생활의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 지침이며 창작사업자체가 당정책을 옹호관철하는 사업이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어느 한 정책도 력사발전의 객관적 법칙과 혁명투쟁의 원리,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것이란 없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침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방침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전면적으로 주어져있고 창작방향과 실천적 방도까지 다 밝혀져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떠나서 우리는 앞으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주체의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의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숭고한 의무로 된다.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생활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조건타발을 하면서 당의 방침과 지시를 홍정하는것은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과 당적 량심이 없는 표현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해방직후나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이 지녔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작가, 예술인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불과 40일동안에 영화로 옮기고 1년 남짓한 기간에 5대혁명가극을 창조해내던 그런 투쟁정신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일으키던 때의 그런 정신, 그런 기백이 요구된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수행하던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창작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문예방침을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적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이 우리 당의 문학예술부문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인다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문예리론, 창조체계와 창작방법을 견결히 옹호하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창작공연된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 수준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창작력량을 보존강화한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여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 문예전통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킬수 있으며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나날에 높이 발양된 혁명정신과 창작기풍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창작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또한 문학예술부문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여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우리 세대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우리 문학예술을 참다운 주체의 혁명적 문학예술로 찬란히 꽃피워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문학예술부문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면 우선 새 세대 작가, 예술인들에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여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진군을 시작하던 때로부터 20여년이 흘러갔다. 그리하여 력사의 흐름을 따라 세대가 바뀌여지고 지금은 그때 10대의 젊은이들이였던 새 세대들이 문학예술창조사업의 기둥이 되여 우리 문학예술의 운명을 떠메고나가고있다. 그런데 새 세대들은 영화혁명, 가극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였는가, 그때 작가, 예술인들이 어떻게 살며 창작공연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모르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이룩하여놓은 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그들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면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으며 100년, 200년이 지난 먼 후날에도 우리의 문학예술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 문학예술로 꽃피워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이룩하여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면 또한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나날에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에 충성다해온 작가, 예술인들부터 늘 그때의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으로 살며 일하여야 한다. 그래야 새 세대 작가, 예술인들에게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의 생동한 모범을 보여줄수 있으며 오랜 작가, 예술인 자신들도 비록 육체적으로는 로쇠하였지만 사상정신적으로는 로쇠를 모르는 혁명가로 참답게 살며 일해나갈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그들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독창성과 창작적 주견, 대담성을 적극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독창성과 창작적 주견, 대담성을 적극 발휘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혁명적 창작기풍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낡은 사상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뿌리빼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한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민족적 형식에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주체사상을 담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문학예술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 특성에 맞을뿐아니라 그 사상적 내용의 수준이 가장 높은것으로 될수 있다. 조선사람에게는 조선음악이 제일이고 조선화가 제일이고 조선춤이 제일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풍습을 무시하는 현상을 없애고 철저히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 튼튼히 의거하여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 지향과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음악부문에서는 민요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적 미감에 맞게 잘 형상하며 새로운 민요풍의 노래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또한 소설과 영화, 연극, 미술, 무용을 비롯한 다른 문학예술작품에서도 우리 인민에게는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민족적인것을 틀고 나와야 한다. 그래야 조선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고 세계 문학예술발전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다.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다.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독창적이고 비반복적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자면 작가, 예술인들에게 언제나 새롭고 독창적인것을 발견하고 개척하려는 탐구정신이 강하여야 한다. 이러한 탐구정신은 창작적 사색을 통하여 표현된다. 창작은 사색의 과정이며 작품은 사색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이고 특색있는 형상을 창조하자면 창작적 사색을 깊이 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사색은 반드시 사회현실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야 한다. 오직 주체의 관점과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주적인 인간의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창작적 사색을 무르익히며 왕성한 열정을 내여 창작활동을 벌릴 때에만 인민대중이 좋아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창작적 주견과 대담성은 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립장과 자세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의 주인이라는 높은 정치적 자각과 예술로써 혁명에 복무한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 창작적 주견을 가지고 자기의 창작적 의도를 실현해나가야 하며 창작적 대담성을 가지고 생활속에서 새롭고 절박한것을 탐구하고 형상으로 옮기는 과정에 통이 크게 생각하면서 대담하게 창작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

창작적 주견이 없으면 작품의 대를 똑바로 세울수 없고 특색있는 형상을 창조할수 없을뿐아니라 나중에는 당정책과 어긋나는 작품을 만드는것과 같은 엄중한 과오를 범할수도 있다. 그리고 창작적 대담성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작품의 류사성과 반복성을 피할수 없고 창작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없다.

창작적 주견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제 주견만 옳다고 고집하여서는 안된다. 창작적 주견과 고집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창작적 주견은 어디까지나 당의 의도와 인민의 지향에 맞아야 하며 생활의 진실과 형상의 론리에 맞는것이여야 한다. 창작적 주견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하여야 한다. 심오한 사상적 내용을 가진 창작적 주견만이 참다운 생활력을 가질수 있다. 창작적 주견이 확고한 창작가라야 문학예술작품을 대담하게 창작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확고한 창작적 주견을 가지고 대담하게 새로운것을 창작하려면 당정책을 잘 알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하며 변화되는 현실에 민감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대담성을 발휘한다고 하여 대작주의를 하여서는 안된다. 대작주의적 창작경향은 단편물의 질도 떨어뜨리고 장편물의 질도 떨어뜨리게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대작주의적 경향을 없애고 전문화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높은 정치적 식견과 세련된 예술적 재능을 가진 능수가 되여야 한다. 그리고 작가, 예술인들은 정책가요와 함께 통속적인 대중가요를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하고 창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속에서 생활을 체험하고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배낭을 메고 현실에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침식도 같이하며 생활을 체험하고 생산현장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체험을 위한 사업을 제도화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우리 문학예술의 생명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 주체적 문예방침으로 꾸준히 무장함으로써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 문예전사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가슴마다에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려는 충성의 열정이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수행하던 그때처럼 창작전투장마다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혁신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며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경제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한 구역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리 광 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다하자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완전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개조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매우 보람차고 거창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진척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현실적 가능성, 조성된 정세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령도해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자면 당이 옳은 령도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혁명적인 령도방법은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경제건설을 지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 정치조직인것만큼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87폐지)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령도하는것은 당사업, 당활동의 본성적 요구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경제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한다는것은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지도하는데서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정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이 당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하도록 이끌어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 열의와 자각성을 가지고 경제과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 기간 대동강구역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당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언제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특히 구역당위원회는 구역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구역당위원회를 비롯한 구역안의 모든 당조직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는 한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적극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로력적 위훈을 떨치도록 이끌어왔다.

그리하여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구역적으로 공업생산은 131%,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은 126%, 수출품생산은 112.6%로 장성하였으며 탄광기계공장과 철제일용품공장, 영예군인자동차부속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의 생산기술적 토대가 더욱 개선강화되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벽돌생산기지와 세멘트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많은 건재를 생산하여 구역의 면모를 한층 개선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을 걷는 정신으로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게 되였으며 경제과업수행과 기업관리운영, 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옳바로 하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구역당위원회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옳바로 지도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왔다.

구역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각급 당위원회들이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세우며 맡겨진 경제과업수행에 일군들과 당원들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자기 단위앞에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당정책에 근거하여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며 그 실현을 위한 분공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는것은 당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며 경제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 협의에 기초하여 명확히 세우고 거기에 면밀한 분공조직사업을 따라세워야 한다. 그래야 경제사업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매 시기 제시되는 경제과업수행에로 일군들과 당원들을 힘있게 동원할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상수문기계공장에 대한 지도방조과정에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였다.

지난 시기 기상수문기계공장은 구역적으로 생산이 비교적 잘되는 단위로 알려져있었다.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우리는 기상수문기계공장에도 생산을 더 늘일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많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이 공장사업을 추켜세우고 그 경험을 구역안의 전반적 단위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벌리기로 하였다.

우리는 먼저 조직부, 선전부의 일군들을 동원하여 공장의 매 작업반, 기대에까지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생산자들과 마주앉아 생산예비를 찾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게 하였다. 이렇게 한데는 공장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 그리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묘술을 찾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을 개선하며 공장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장당위원회 일군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제시된 경제과업수행대책들을 명확히 세우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는 일정한 기간 공장에 내려가있으면서 공장당위원회 일군들이 높은 정치적 안목과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힘을 옳게 동원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그리고 구역당위원회 여러 부서일군들을 발동하여 그들이 공장당위원회 위원들을 늘 만나 서로 배

워주고 배우면서 공장사업을 적극 내밀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론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공장당위원회를 비롯한 중요한 회의들에 계획적으로 참가하여 거기에서 광범한 대중의 집체적 지혜가 충분히 발양되도록 이끌어주었다. 특히 우리는 공장당위원회의 분공안을 검토하고 나타나는 부족점을 바로잡아주는 사업에 관심을 돌려 당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분공조직사업을 잘하도록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공장당위원회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집체적 협의에 기초하여 더 잘 풀어나가게 하였으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자기의 준비정도와 사업상 특성에 맞는 정확한 분공을 가지고 활발히 움직일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동안에만 하여도 국가의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생산을 종전에 비해 훨씬 장성시킬수 있었으며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공업용 쌍금속온도계와 표준온도계를 비롯한 기상기술수단들은 물론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

우리는 기상수문기계공장의 사업을 추켜세운데 기초하여 그 경험을 구역안의 전반적 단위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많은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의 사업을 더욱 개선할수 있었다.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의 집체적 지도기능이 강화된 결과 철제일용품공장에서는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탱간압연기지, 철연신기지, 열처리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게 되였으며 문수식료생산협동조합에서는 생산능력을 늘이고 여러가지 식료품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경험은 생산을 책임진 당위원회들이 집체적 지도를 실속있게 보장할 때 당 경제정책을 힘있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집체적 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제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구역당위원회는 또한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의 초소에서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도와주며 그들의 사업상 권위를 옳게 보장하여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행정경제일군들은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행정경제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는 그것을 직접 책임지고있는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행정경제일군들이 응당한 사업상 권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일할 때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업들을 제때에 수행할수 있으며 해당 단위들이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다할수 있다.

대동강수출품피복생산협동조합 당조직에 대한 구역당위원회의 지도과정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수출품생산을 담당한 이 기업소는 구역당위원회가 힘을 넣어 추켜세워야 할 중요한 사업대상의 하나이다. 구역당위원회가 지난 기간 이 단위의 사업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은 문제의 하나는 기업소의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의 직책상 의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잘 보장해주는것이였다.

우리는 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으로부터 지도원에 이르는 모든 당일군들의 사업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개별교양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구역당위원회의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집행하였다. 이것은 기업소의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이끌어나가는데서 정치일군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일뿐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사업범위와 임무를 옳게 인식하고 행정경제일군들과의 사업을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데서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당일군들의 사업수준을 높이면서 기업소안에 정연한 행정사

업 체계와 규률을 세우도록 하였다. 우리는 기업소당위원회가 행정사업규률을 세우는데 관심을 돌리고 일정한 기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적인 사상사업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당회의들과 생산총화회의들에서 행정적 지시집행정형을 총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포치한 사업을 잘 수행하는 단위들의 긍정적인 자료들을 종합하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짜고들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기업소안에 행정적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하는 기풍이 더 잘 서게 되었으며 행정경제일군들속에서 맡겨진 본신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열의를 발휘하게 되였다.

우리는 이와 함께 공장당위원회가 행정경제일군들에게 임무를 명확히 준 다음에는 기술실무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집중시켜 그들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사업질서를 세우도록 하였다. 우리는 공장당위원회가 행정경제일군들의 사업정형을 일상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이 사업을 힘있게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자립성을 높이고 그들의 사업상 권위를 더 잘 보장하며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과 기술혁명수행에서는 물론 생산토대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업소는 오늘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고 생산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실천적 경험은 당위원회들이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사업상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옳게 벌려나갈 때 그들이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자기의 직책상 의무를 다하며 생산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행정경제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구역당위원회는 또한 당경제정책집행정형을 철저히 장악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 원칙을 옳게 구현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하부지도는 어디까지나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의 지도입니다. 장악과 통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도한다면 그 지도가 실속있는 지도로 될수 없습니다.〉

경제과업수행정형을 철저히 장악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은 당의 정치적 지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경제과업수행정형을 철저히 장악한데 기초하여 지도해야 당의 경제정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당조직들이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장악하지 않으면 당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없고 옳은 지도대책을 세울수도 없다.

행정경제사업을 철저히 장악하여야 구체적인 실태를 환히 꿰들고 당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옳게 이끌어줄수 있으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실속있게 할수 있다.

우리는 구역이 맡은 바다가양식을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장악지도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바다가양식사업은 현시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정책적 과업이다. 그런것만큼 당조직들은 마땅히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바다가양식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해설침투하는 한편 그 역안의 기관, 기업소 책임일군들과 함께 현지에 직접 내려가 작업조건과 사업내용을 료해하고 단위별로 구체적인 사업분담을 하였으며 당조직들이 그것을 적극 밀어

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행정경제일군들과의 사업을 통하여 바다가양식을 위한 준비사업과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였으며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게 하였다.

우리는 바다가양식을 위한 준비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그리고 포치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당적으로 밀어주면서 그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옳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는 바다가양식사업에 절실히 요구되는 띄우개, 바줄만 하여도 처음에 예견한것보다 3~4배나 많은 예비를 찾게 되였으며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안도 세울수 있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바다가양식을 위한 준비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한 조건에서 필요한 설비, 자재,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분담을 개선하도록 행정경제일군들을 밀어주었으며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해당 단위에서 맡은 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적극 보채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수십정보의 면적에 되장을 늘이고 바다가양식사업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였으며 초기에 조성한 양식장들에서는 많은 량의 다시마를 수확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바다가양식뿐아니라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옳게 장악지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그리하여 연 1만 4,000메터에 이르는 기본수로굴착작업과 14개의 양수장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많은 건설설비와 자재를 생산보장함으로써 분수식발관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우리는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행정경제사업을 옳게 장악지도하는것이 경제사업을 당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경제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구역당위원회는 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적극 발양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생산자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경제과업수행에 대한 당적 지도, 정치적 지도의 기본과업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 정치적 지도는 기술실무적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떠난 당사업, 당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생산자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일군들이 당원들을 교양하고 당원들은 군중을 교양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정치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구역당위원회는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경제정책 수행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우리는 언제나 당의 의도에 맞게,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구역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구역안의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나갈 때에는 해당 단위의 구체적 실태를 잘 반영한 해설담화제강을 만들어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갔으며 해설담화사업을 진행한 다음에는 생산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도를 의논하였다. 중요한 작업이 벌어질 때에는 집중적인 경제선동을 들이대는 한편 구역당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앞장에 서서 한몫 해제끼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대중적 혁신에로 불러일으켰다.

우리 구역에서 자체의 힘으로 세멘트생산기지를 꾸리는 과정에 진행한 정치사업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세멘트생산기지를 꾸리는데서 제일 걸린 고리는 여기에 필요한 설비를 만드는것이였다. 세멘트생산설비를 만들 과업을 받은 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처음에는 주저하였으나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10여차례 협의회를 진행하여 해결방도를 찾는 한편 현장에서 집중적인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벌리고 온 구역이 떨쳐나 공장을 지원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든 결과 기술을 혁신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해당한 설비들을 훌륭히 제작할수 있었다.

이 과정에 구역안의 책임일군들은 각기 자기가 담당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적지 않은 예비를 찾아내였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벌리는데서 우리는 일반적인 호소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제기하고 그 해결대책을 찾는데 모를 박았으며 구역안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업들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중의 앙양된 정치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에 의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 기간 버럭탄으로 벽돌을 만드는 공장을 꾸릴 때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는 세멘트생산기지를 꾸리는데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구역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공장건설을 적극 지원하게 하였으며 내부예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공장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해결하도록 밀어주었다.

경험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열의를 발동하는 여기에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구역당위원회가 행정경제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 거둔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우리앞에는 할 일이 많다.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더 많은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특히 구역안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구역을 웅장화려하게,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구역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생산단위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앙양이 일어나게 하는것이다.

우리는 구역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높은 공산주의적 혁명성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

렴 태 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선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진 첫날부터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분렬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시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설방안을 제시하시였으며 올해 신년사에서 그 합리성을 다시금 천명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신년사》, 1988년, 1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련방국가창설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며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국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련방국가를 창설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련방국가창설방안은 외세에 의한 분렬을 종식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적 일념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우리 나라가 처한 구체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를 반영한 이 련방국가창설방안은 철저하게 민족문제의 해결을 첫자리에 놓고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고려한 민족공동의 구국강령이며 민족적 리념이 뜨겁게 관통되고있는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이 련방국가창설방안은 북과 남이 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확약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빠르고 확신성있는 길을 밝힌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도이다.

우리의 련방국가창설방안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에 전적으로 맞는 민족통일방안이다.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강점당하고있는 나라들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이다.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민족적 자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그 나라 인민들은 억압과 예속을 면할수 없으며 노예적 굴종을 강요당하기마련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에 의하여 산생된 모든 민족문제는 본질상 민족적 자주권에 관한 문제에 귀착되게 되며 민족적 자주권문제의 해결을 떠난 민족문제의 해결이란 있을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받고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선결문제로 나서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는 문제인 동시에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나라의 분렬이 민족적 재난과 고통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가 통일된 민족, 독립국가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기 위한것인만큼 그것이 통일문제의 본질적 내용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은 통일문제의 두 측면 민족외적인 요소와 관련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적 자주권의 확립과 민족내적 문제로서의 민족적 단합을 이룩할데 대한 요구를 다같이 실현할수 있게 한다.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의 현실과 주변정세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지금 40여년동안이나 분렬이 지속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으며 그 차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가고있다. 만일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라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하게 대결과 충돌을 격화시키고 분렬을 심화시키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립장을 가져야 한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며 그것이 오랜 기간에 굳어질대로 굳어진 조건에서 조국통일의 력사적 과업을 수행하려면 이 문제를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로 보거나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문제로 보아서는 안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문제는 오직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련방국가를 창설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한 나라, 한 민족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다. 사상은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로 될수 없으며 그 차이가 민족을 갈라놓는 조건으로 될수 없다. 민족과 사상의 이러한 호상관계로 하여 사상에서의 차이가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련방국가의 창설을 불가능하게 할수 없다.

련방국가의 창설은 민족과 사회제도의 호상관계로 보아도 가장 적합한 통일방식이다.

민족은 제도의 선택을 위한 단위로서 각이한 제도우에 존재할수 있지만 제도는 민족안에 존재하며 민족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 따라서 민족은 절대적이지만 제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제반 사실은 민족적 통일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력사적 단계에서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민족적 리념에 따라 풀어나가는것이 통일문제해결의 기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련방국가의 창설은 우리의 주변나라들과 세계평화의 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남조선에 미제침략군과 미국의 방대한 핵무기가 전개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주변나라들도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위협을 받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도 위협을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 련방국가가 창설되여 중립화로선과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는 주변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것이며 외국의 군사기지와 군대가 더는 존재하지 않고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이 금지된 비핵, 평화지대로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에 맞게 조선에서 새 전쟁발원지가 제거될것이며 세계평화의 유지공고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우리 민족이 련방국가의 창설을 가능케 하는 공동의 기초를 가지고있는데 있다.

우리의 련방국가창설방안은 통일국가의 창설과 민족적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통일적인 과정속에서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우리 민족은 장구한 력사적 기간 통일국가의 테두리안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왔기때문에 국가와 민족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통일국가의 창설문제와 민족적 통일의 실현문제는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그러므로 통일국가의 창설과 민족적 통일의 실현을 통일적인 과정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결국 민족적 통일을 위한 전략적 목표는 통일국가의 창설로 된다.

우리의 련방국가의 본질적 특징은 단일민족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국가를 형성하되 북과 남을 두개의 국가로가 아니라 두개의 자치지역으로 그 법적 지위를 규정하여 서로 다른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게 하는데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의 두 자치지역사이의 련합의 형태로 민족적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련방형식, 통일방식에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것이다.

상반되는 두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의 련합을 가능케 하는 공동의 기초는 바로 같은 혈통을 가지고 오래동안 한 강토에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단일민족의 민족적 공통성이다. 민족적 공통성이 존재하는것은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합을 실현하게 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북과 남이 분렬되여 승벽내기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힘을 합쳐나간다면 능히 련방국가를 창설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련방국가창설방안은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한결같은 의사를 구현한 가장 정당한 통일헌장이며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구국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각이한 제도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국가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또 하나의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빛나는 공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하나의 민족, 두개의 사회제도에 기초한 련방국가를 창설할데 관한 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제시된 전혀 새로운 련방국가에 관한 리론이다.

일반적으로 련방국가에 관한 문제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주권을 장악한 계급의 사상과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제도의 문제로 제기되였다. 사회주의련방국가제도는 로동계급의 사상을 실현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복무한다면 자본주의련방국가제도는 자본주의사상을 실현하며 자본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복무한다. 이것은 련방국가는 단일한 사회제도에 기초하며 한 련방국가안에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존재할수 없다는 기성의 련방국가에 관한 리론에 기초하고있다.

또한 일련의 련방국가들에서는 같은

제도우에서 주로 민족을 단위로 련방제가 실시되는것만큼 단일한 사회정치적 리해관계를 실현하는 범위에서 해당 민족의 독자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련방국가창설방안은 한 나라, 한 민족안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는 범위에서 서로 다른 제도의 독자성을 보장하자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설방안을 제시하시면서 통일국가의 창설방도와 함께 통일국가의 형태와 국호, 통일국가의 기구와 운영형식, 통일국가가 실시하여야 할 정강에 이르기까지 단일민족과 두 제도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단결, 합작, 통일의 리념에 맞게 밝히심으로써 련방국가창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의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련방국가창설방안은 통일에 대한 전민족의 불타는 열망과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오늘 조선사람으로서 민족적 량심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이것은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며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본질적 우월성의 발현이다. 바로 전민족이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을 한결같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여기에 련방국가창설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55～35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구현하시여 올해 신년사에서 다시금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이 한결같이 성스러운 민족적 위업실현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의 형성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애국력량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결속하여 분렬세력에 대한 통일력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함으로써 민족분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게 한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통일문제해결에서 각계각층 인민의 주인된 자각과 역할을 높이고 민족주체적 력량을 비상히 확대강화하여 통일도상의 모든 장애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련방공화국의 창립을 담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련방국가창설방도로서의 민족대통일전선형성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단결의 무기와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련방국가창설방안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밝힌 구국의 홰불이며 민족이 나아갈 휘황한 진로를 밝힌 민족재생의 리정표이다.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 통일과 재생의 길, 번영의 활로를 열어주는 련방국가창설방안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구상하시고 내놓으실수 있는 위대한 방안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사랑이

빛나게 구현된 민족적 단합과 통일의 웅대한 설계도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련방국가창설방안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된 첫날부터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공화국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민족공동의 협의기구로서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제의,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제의,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가질데 대한 제의를 비롯하여 전민족적인 대화를 통하여 련방국가를 창설하며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거듭 취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북과 해외동포의 각계대표들은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여러차례에 걸친 여러가지 형식의 대화들을 통하여 자주, 민주, 평화, 중립적인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이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공동으로 천명하였다.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한 해외동포들사이의 대화와 접촉도 광범히 진행되였다. 특히 여러차례의 민족통일을 위한 범해외동포학자들의 토론회들에서 련방국가창설에 의한 통일이 가장 적합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거듭 주장하여왔다.

우리의 련방국가창립방안이 발표되자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물론 괴뢰들의 반공선전에 속히웠던 사람들까지도 《북이 남을 공산화한다기에 그런줄 알았는데 이번에 련방국가창설방안을 보니 절대로 그런것이 아니다. 당국자들의 역선전에 속아 청맹과니로 살아온 지난날이 한스럽다.》고 하면서 련방국가창립방안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놈들의 탄압이 우심한 조건에서도 통일론의의 자유와 북남관계의 개선, 북남대화와 민족적 화해의 실현을 강력히 주장하며 련방국가의 창립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있다.

이처럼 오늘 조국통일은 반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련방국가창설방안을 통하여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굳은 신념으로 간직되게 되였다.

련방국가창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운동도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의 련방국가창설방안을 처음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하여온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오늘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와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함께 세계적 판도우에 300여개의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과 련대성조직들을 내오고 조선통일지지운동을 각 방면으로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것은 련방국가를 창설하여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련방국가창설방안이 내외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은 공명정대한 련방국가창설방안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다.

놈들은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따라 북과 남이 서로 대립되는 두개의 적대국가로 존재하면서 《실력》을 《배양》하여 우리를 먹어보려는 《멸공통일》, 《승공통일》을 떠들며 대결의 길로 나가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러한 분렬론에 기초하여 처음에는 격에 어울리지도 않는 이른바 《최고당국자의 호상방문 제의》라는것을 들고나왔다가 배격당하게 되자 분렬주의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놓고 《2000년대통일론》이라는것을 들고나왔으며 그것이 저들의 《백년대계》이며 《목표》라고 하면서 분렬을 로골적으로 고취하였다. 그러다가 1982년에 와서 그

무슨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놈들이 들고나온 이 《방안》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헌법》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며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정치학상의 도식에 불과한 공념불이며 《통일》의 간판밑에 통일을 거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분렬론리는 결코 《통일》의 언사로 가리워질수 없다. 《통일》로 분칠한 이 《방안》의 분렬주의적 본질은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남북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맺고 쌍방에 《상주련락대표부》를 설치하여 통일국가가 아니라 두개 국가로 살아가자고 한데서 낱낱이 드러났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분렬주의적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라는것도 처음부터 인민들의 배격을 받게 되자 우리의 련방국가창설방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면서 이미 안팎으로 규탄을 받아 거덜이 난지 오랜 《유엔동시가입》론과 《교차승인》론과 같은 낡은 보따리를 들고나왔다. 놈들이 지금도 다른 나라들에까지 들고다니는 《유엔동시가입》론이 유엔의 이름으로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기 위한것이라면 《교차승인》론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자본주의나라들이 조선의 북과 남을 《엇바꾸어 승인》하는 방법으로 《두개 조선》 조작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자는것이라는것은 이미 폭로된지 오래다.

남조선괴뢰들은 지어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도 나라의 통일위업실현과 세계평화에 리로운 우리의 공동주최안을 끝끝내 반대하고 단독개최를 강행하려 함으로써 북남대결과 《두개 조선》 조작에 악용하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감행되는 남조선괴뢰도당의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에서 영구분렬의 위험이 더욱 커가고있다.

얼마전에 《정권교체》의 간판밑에 새로 군부파쑈《정권》에 들어앉은 로태우일당이 이전 독재자의 분렬주의책동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통일》을 운운하다가 인민들의 지탄속에 된서리를 맞은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최근 남조선잡지 《월간조선》 3월호가 《남북이 불가침조약을 맺고 강대국들이 량측을 교차승인하며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대표부를 서로 교환하는것이 결국은 분단을 고정시키고 두개 국가를 만들게 된다.》고 신랄히 규탄한 사실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저들의 분렬주의적 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통일을 위한 인민대중의 거세찬 투쟁을 막을수 없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하며 온갖 범죄적인 분렬주의적 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철거시키며 우리의 합리적인 련방국가창설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조선인민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투쟁하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련방국가를 창설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을 제패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

리 행 호

오늘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정세는 미제와 그와 공모결탁한 일본반동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긴장해지고있다.

지난날 아세아태평양지역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던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나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군사적 침투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면서 이 지역을 제패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의 독립과 안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가고 있다.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침략적 야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 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21페지)

근대 일본자본주의발전력사는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일관되여 있다.

일찌기 《대동아공영권》의 침략적 야망을 들고나온 일본반동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세아대륙뿐아니라 멀리 태평양의 섬들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쳤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대동아공영권》의 허황한 망상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있으며 현시기에 와서 그것은 더욱 음흉하게 재현되고 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아세아태평양전략에 편승하는것을 저들의 해외팽창을 위한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고 미제를 등에 업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독점자본이 팽창되면 독점적인 해외시장을 요구하며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현시기 팽창될대로 팽창된 일본독점자본은 국내 시장이 협소해진데다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파동이 겹쳐 불안에 휩싸여있으며 그로부터의 출로를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침략하고 략탈하는데서 찾으려 하고있다.

아세아태평양지역은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리해관계》가 얽혀있는 더없이 중요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아세아태평양지역은 지구면적의 거의 절반과 세계해양면적의 70%를 차지하고있다. 여기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 2이상이 살고있으며 이 지역 나라들에는 자연부원이 풍부히 매장되여있다.

아세안성원국들에서는 세계 총생산량의 50～80%에 달하는 생고무, 주석, 야자유, 고뿌라를 비롯한 중요자원들이 생산되고있다. 오스트랄리아에는 세계 우라니움광의 15%가 매장되여있다. 이밖에도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에는 세계 총매장량에서 몰리브덴의 77.8%, 은의 61.6%, 아연의 57.9%, 동의 42.9%, 철광석의 30.5%, 탕그스텐의 32.9%를 비롯한 수많은 자연부원이 매장되여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풍부한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살아가고있다. 일본은 생고무, 석, 천연가스, 원목, 철광석, 우라니움의 거의 100%를 비롯하여 자원수입총량의 80%이상을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에서 들여오고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일본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활적인 지대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아세아태평양지역은 지리적 위치로 볼 때에도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아세아태평양지역에는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제수로와 해협 그리고 군사요충지들이 적지 않다.

대륙과 떨어져있는 섬나라이며 원료,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일본에 있어서 해상항로들을 장악하는것은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페르샤만지역의 호르므즈해협과 동남아세아지역의 말라까해협과 같은 전략적인 해협들이 있는 남방항로는 매우 중요한 해상관문으로 되고있다.

일본이 중근동지역으로부터 들여오는 원유는 전부 말레이시아반도와 인도네시아의 수마뜨라사이에 좁게 뻗은 말라까해협을 통과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원유도 이 해협을 거치고있다. 이것은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0%이상이 말라까해협을 통하여 들어오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수입하고있는 원유의 50%만 줄어들면 일본의 공업생산량은 57.3%나 감소되게 되며 일본경제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본반동들은 해상교통로들을 장악하는것을 일본의 존망과 직접 관련된다고 하면서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저들이 이 지역을 세계의 그 어느 다른 지역들보다 손쉽게 제패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아세아태평양지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의 일부 나라들을 침략하고 통치해본 경험을 가지고있다.

지난날 《대동아공영권》확립의 악명높은 침략적 구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동북아세아와 동남아세아 그리고 태평양상의 일부 섬들을 강점하고 극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자원의 분포와 매장 상태, 매개 나라들의 민족적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이것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침략하는데서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입만 벌리면 일본이 아세아의 《주역》을 놀아야 한다고 떠들면서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고있다.

지난 조선전쟁을 통하여 해외경제침략을 강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기본상 축성한 일본독점자본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섰으며 특히 아세아태평양지역에 경제적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쳐왔다.

일찍부터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풍부한 자원에 탐욕적인 눈독을 들여온 일본독점자본은 이 지역 나라들에 침투하여 저들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원료들을 략탈하였으며 해마다 그 량을 더욱더 늘이고있다.

공업의 주되는 원료와 연료의 년간수입량만 보더라도 1970년부터 1982년까지의 사이에 철광석은 1억 209만톤으로부터 1억 2,182만톤으로, 석탄은 5,017만톤에서 8,000만톤으로, 석유는 1억 9,710만키로리터에서 2억 1,225만키로리터로, 생고무는 27만톤에서 40만톤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원료연료수입총액은 같은 기간에 120억딸라로부터 991억딸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일본독점자본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의 값싼 로동력에 저들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여 값눅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막대한 초과리윤을 얻을 목적으로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자본의 침투를 강화하고있다.

1970년까지 동남아세아에 대한 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최대투자국으로 되여왔으나 그후부터는 일본이 미국을 릉가하여 첫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일본이 198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이에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년간 직접투자액은 13억 4,400만딸라에서 23억 7,100만딸라로, 대양주에 대한 년간 직접 투자액은 4억 4,100만딸라에서 9억 9,200만딸라로 각각 늘어났다. 1986년 말현재 일본의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직접투자루계액은 248억 6,200만딸라였으며 대양주나라들에 대한 직접투자루계액은 52억 3,400만딸라에 이르렀다.

제국주의자들의 오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아직 공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있는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에는 값싼 로동력의 원천이 많다. 지금 아세아지역 로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일본로동자들에 비하여 5분의 1～10분의 1밖에 안되고있다. 이것은 일본독점자본이 아세아나라들의 값싼 로동력을 리용하면 일본로동자들을 고용하는것보다 몇배의 초과리윤을 얻을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일본독점자본이 아세아나라들의 값싼 로동력을 략탈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일본국내에서는 《경영합리화》의 간판밑에 로동자들을 대량적으로 해고하면서도 아세아나라들에 설치된 새끼회사들에서는 로동자들의 고용을 급격히 늘이고있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1983년 6월말현재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설치된 일본독점자본의 새끼회사수는 5,500여개에 달하였으며 거기에 고용된 현지로동자수는 90여만명이나 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차관》의 형태로도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차관》을 통하여 해당나라의 재정금융부문을 틀어쥐는 한편 일련의 정치적 부대조건을 붙임으로써 그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있다.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에 대한 일본의 《차관》제공액은 1983년에 26억 3,200만딸라에 이르렀으며 1986년부터 시작된 《7개년정부개발원조계획》기간에는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원조》액을 종전에 비해 2배나 늘이려 하고있다.

이처럼 일본반동들은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 나라들을 저들의 원료원천지, 상품판매시장, 자본투하지, 로동력공급지로 영원히 틀어쥐려고 획책하고있다.

일본반동세력은 아세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실현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경제대국의 지위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지는것은 응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침략하기 위한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내세우고있는 《1,000마일 해상교통로방위》와 《해협봉쇄》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내들고있는 《1,000마일 해상교통로방위》와 《해협봉쇄》는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국제수로들과 해협들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결국은 이 지역을 저들의 침략적인 군사작전행동권안에 몰아넣으려는 악랄한 침략계획인것이다.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작전계획까지 짜놓은 일본반동들은 그 실현을 위한 고리로서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을 대대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일본의 군사비는 1970년에 5,695억엔이였던것이 1987년에는 3조 5,000억엔으로서 국민총생산액의 《1%한계선》을 초과하였으며 1988년 군사예산은 지난해

보다 5.2%로 늘어난 3조 7,000억엔(근 300억딸라)으로 책정되였다.

일본반동들은 방대한 군사비를 투하하여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

미국방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일본은 미제7함대가 가지고있는 구축함의 2배이상, 반잠수함초계기는 3배이상을 가지고있으며 전투기는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고있는 수만큼 가지고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1986년부터 시작하여 1990년에 끝나게 되는 《제6차 5개년무력증강계획》기간에 《자위대》의 현 장비수준의 5~6배에 달하는 장비목표를 달성하며 모든 함선들을 미싸일화하고 최신예항공기들을 배비하는 한편 장갑타격력을 대폭 증강하려 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반동들이 먼거리공격을 위한 항공모함을 건조하려 하고있으며 자체의 핵무기까지 생산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악랄하게 다그치고있는 이와 같은 무력증강책동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수행할수 있는 군사력을 소유하려는 매우 모험적인 책동이다.

일본반동세력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자국내의 정치적 반동화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른바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는것을 내놓고 이것을 통하여 일본의 정치적 반동화를 실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내세우고있는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는것은 가장 반동적이고 침략적인 《천황제》를 복구하고 군국주의를 부활하는데 장애로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아세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으려는 책동이다.

일본반동들은 바로 저들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핵무장과 군사적인 해외침략을 위한 이른바 《유사시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전시파쑈체제를 합법적으로 세워보려 하고있다. 지난 8월 일본국회에서 정부로 하여금 침략무력인 《자위대》를 《재해구제단》의 미명으로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전에도 《유엔경찰군》의 이름으로 《자위대》를 분쟁지역들에 파견하려고 책동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이 《재해구제》의 간판밑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해놓은것은 결국 일본령토밖에서의 군사작전을 결속짓는 지상무력의 상륙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놓은 매우 위험한 책동이다.

그리고 일본반동들은 온갖 사상문화적 수단들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침략하려는 군국주의를 찬미하고 고취하기 위한 책동도 로골적으로 벌리고있다.

침략과 전쟁의 상징으로서 응당 처단되여야 할 《천황》은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 다시 우상화되고 지난날 일제가 감행한 죄악에 찬 침략전쟁은 《동진하는 서방세력을 배제한 성전》으로 찬미되고있으며 전범자로서 처단된 전쟁광신자들의 망령들을 일본정부의 우두머리들이 공공연히 《참배》하고있다. 지어 일본반동들은 일제가 패망한 8월 15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국치의 날》이라고 떠벌이면서 패전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할 때가 되였다고 공개적으로 선전하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아세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환태평양공동체》를 조작하려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나라들과 지역, 대륙을 단위로 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군사적 뭉칠력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다.

일본반동들이 들고나온 《환태평양공동체》론은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을 망라하여 이른바 《경제협력기구》를 만든다는것이다. 이 반동적 구상에는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호상의존하고 번영도 같이 누린다》는 이른바 《공탁공존》론이 놓여있다.

일본반동들은 《환태평양공동체》가 마치도 아세아태평양지역나라들의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마련해주기 위한것인듯이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군사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침략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이 들고나온 《환태평양공동체》는 철두철미 《대동아공영권》의 현대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두 《공동체》가 추구하고있는 침략적 목적과 기본교리가 본질상 같은데서 찾아볼수 있다. 달라진점이 있다면 《환태평양공동체》는 《대동아공영권》에 비하여 그 범위가 북미주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까지 확대되고 그 수법에 있어서 더욱더 교활하고 음흉해진것뿐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려는데서 조선반도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22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은 경제적 침투로부터 시작되였고 그것을 위주로 하여 감행되여왔다.

조선반도를 지배하려는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 기술투자 침투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공공차관은 1970년에 890만딸라였던것이 1985년에는 공공 및 상업 차관, 《청구권자금》을 포함하여 51억 1,200만딸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일본독점자본의 직접투자는 1986년에 11억 4,000만딸라였으며 지난 한해동안에는 4억 9,400만딸라나 더 추가투자되였다. 남조선에 침투한 기업체수는 1987년 7월말현재 343개에 이르고있으며 이밖에도 일본기업소지사들(상사형태)은 240개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이미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식민지로 만들어놓았다는것을 의미하며 남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놓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어놓았을뿐아니라 남조선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하여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침투를 보다 강화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른바 《운명공동체》론을 내놓고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이 《일본의 운명선》, 《일본에 있어서 전선기지, 경제기지》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를 다그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괴뢰들과 《의원안보회의》를 비롯한 각종 《협력기구》들을 재편성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있으며 올해 3월에 있은 일본남조선 《정기외상회담》에서는 일본남조선《현인회》라는것을 설치함으로써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정치적 밀착이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군사적 일체화책동도 무모한 단계에서 감행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괴뢰들과 이미 조기경보체계, 통신련락체계, 무기수리 및 보급 체계를 세워놓았을뿐아니라 구체적인 전투행동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있다. 이와 함께 조선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서부지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집중배치하고 조선의 지리적 조건과 기후풍토에 적응하기 위한 군사훈

련을 진행하고있으며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까지 직접 참가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괴뢰들과의 공모결탁을 강화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는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 《교차승인》을 떠들면서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최근에는 남조선려객기사건을 계기로 우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반총련깜빠니야를 벌리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한 모략선전의 앞장에 나서고있다.

모든 사실은 일본반동들이 아세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의 첫 걸음을 조선반도에서 시작하려 하며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려 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가고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어제날의 패망을 앙갚음하려는 끝없는 복수심과 《식민지제국》을 다시 일떠세우며 기어이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려는 광신적 침략성,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국력을 몇배나 릉가한 경제군사대국으로 되였다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일본반동들의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책동을 절음마다 철저히 짓부셔버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멸시받던 어제날의 인민이 아니다.

오늘의 아세아태평양지역인민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새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변화된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끝끝내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각성된 아세아태평양지역인민들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일본반동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제패하려는 침략야망을 버려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아세아태평양지역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해외팽창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근로자 1988년 제5호 (루계 553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8년 5월 1일 발 행•1988년 5월 3일

ㄱ—858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근로자

제6호(55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편집국론설〕

〔정치사상론설〕

〔당건설론설〕

〔경제건설론설〕

〔과학문화론설〕

〔경험론설〕

〔조국통일문제〕

〔국제문제〕

당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봉적 역할을 높이자

지금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는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와 충직한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마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200일전투는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영예로운 전투이며 주체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떨치고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이 장엄한 전인민적 대진군의 앞장에 우리 당원들을 불러주었다. 이것은 당원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의 표시이며 우리 당원들의 더없는 긍지이며 영예이다.

당원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200일전투의 앞장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업수행에서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당원들이 선봉적 역할을 한다는것은 언제 어디서나 투쟁의 기수가 되고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자신의 헌신적 투쟁과 실천적 모범으로 군중을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하여 당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혁명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원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은 당과 수령, 혁명과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것을 맹세하고 당에 들어온 자각적인 혁명가들이며 우리 당의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 당, 조선로동당의 당원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혁명적 본분으로 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계급의 눈을 뜨고 혁명의 진리를 배워 어엿한 혁명가로 자라나 오로지 당의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혁명전사들이 바로 우리 당원들이다. 수령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당원의 존재와 영예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삶의 가치와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의 전위투사로서의 당원의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 영원한 삶은 당과 수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서는데 있으며 당의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싸워나가는데 있다.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살며 싸우는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 고귀한 땀을 바치는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은 없다. 우리 당원들이 언제나 충성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뜨거운 인정과 무한한 헌신성을 가지고 당의 위업 실현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가는 여기에 바로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을 지닌 당원의 보람찬 삶이 있으며 혁명의 전위투사로

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것은 20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가 지금 벌리고있는 200일전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제3차 7개년인민경제계획 수행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전투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제3차 7개년인민경제계획 수행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200일전투는 전례없이 거창하고 방대한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앞에는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면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

200일전투는 또한 매우 긴장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며 반공화국소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미친듯이 벌리고 있다.

우리 당원들앞에는 적들의 이러한 횡포한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고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야 할 엄숙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정세가 긴장하고 복잡하며 당과 혁명앞에 어렵고 방대한 전투과업이 나섰을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난관을 맞받아 돌진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간고분투하는것이 우리 당원들의 혁명적 투쟁기풍이며 전투적 인본새이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제3차 7개년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보다 앞당기기 위한 20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와 높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또다시 일대 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우리에게는 승리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다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결속된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있으며 그 어떤 방대한 건설도 능히 감당할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확정적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200일전투의 승리와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자기의 선봉적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오늘 우리 당은 당과 혁명에 대한 당원들의 충실성을 굳게 믿고있으며 이번 200일전투에서도 그들의 헌신성과 선봉적 역할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있다.

당과 혁명 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수백만 우리 당원들이 결연히 떨쳐나서 영웅적 위훈과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며 당원의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할 때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200일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선봉적 역할을 다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다.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선봉적 역할을 높여나간다면 우리에게는 극복 못할 난관이 있을수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원들이 혁명적으로 분발하여 투쟁할 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들끓게 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이 이룩되게 된다.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는 우리 당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며 시대와 력사 앞에 매개인의 충실성과 혁명

성, 애국심과 헌신성의 높이를 검열받는 책임적인 시각이다. 당원들은 먼 후날에 가서도 우리 당 력사에 빛나게 기록될 200일전투에 참가하여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세웠다고 긍지높이 말하고 떳떳하게 자랑할수 있도록 자기의 선봉적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200일전투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여 영웅적 위훈을 세우는 사람만이 로동당시대에 태여난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영예를 떳떳이 지닐수 있으며 력사와 인민 앞에 자기의 충실성을 인정받을수 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200일전투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하여 위훈의 창조자, 혁신의 선구자가 되는 바로 여기에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참된 길이 있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력사와 후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살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원들은 지난날 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들고 우리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선봉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의 력사에는 자기 수령, 자기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온 당원들의 고귀한 업적이 깃들어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체 인민을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불렀을 때 총창을 비껴들고 결사진의 앞장에 나선것도,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고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제낀것도 우리의 로동당원들이였다. 모든것이 파괴되여 성한 벽돌 한장, 세멘트 한줌, 강재 한쪼박 없던 전후의 그 어려운 복구건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중의 앞장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것도 당과 수령의 부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당원들이였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과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천리마대진군의 앞길을 열어나간것도 그리고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대비약을 이룩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선구자들도 바로 우리의 당원들이였다.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 70일전투의 앞장에도,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100일전투의 선두에도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한 우리 당원들이 서있었다.

참으로 우리 혁명의 자랑찬 로정우에는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난관과 시련 앞에서 순간의 주저나 추호의 동요도 없이 견결하게 투쟁하며 전진해온 당원들의 빛나는 위훈이 아로새겨져있으며 붉은 피와 고귀한 땀이 스며있다.

당원들은 자기의 선봉적 역할과 헌신적 투쟁으로 당과 수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여온 이러한 자랑찬 전통을 오늘의 보람찬 200일전투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대렬을 질적으로 꾸리며 그들의 선봉적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굴함없이 투쟁하며 전진하는것이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미래에 대한 락관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혁명적 열정과 불굴의 투지, 무비의 헌신성을 안겨주는 사상정신적 원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어렵고도 복잡한 혁명의 길에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는 신심을 가진 혁명가들, 승리를 락관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높이 발휘될수 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자그마한 난관도 뚫고나갈수 없고 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신심을 잃고 비관하게 되면 시련앞에서 동요하게 되고 난관앞에서 주저앉게 된다. 력사적 교훈은 신심을 잃고 비관에 빠지면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적과의 결전에서나 자연과의 투쟁에서나를 막론하고 모든 승리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전도를 락관하는 혁명가들의 승리였으며 모든 패배는 일시적인 난관과 시련 앞에서 희망과 신심을 잃고 자기의 전도를 비관하는 비겁한 사람들의 패배였다.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은 화도 복으로 만들수 있고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불가능도 가능으로 되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신심과 락관만 있으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며 불타는 강, 험한 진펄길도 웃으며 헤쳐나갈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과 수령을 따라 준엄한 시련과 무수한 난관을 헤치고 승리하며 전진해온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혁명의 길에서 신심과 락관에 넘쳐 굴함없이 투쟁하면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준엄한 전쟁과 전후 시련의 나날에도 굴함없이 싸워 승리할수 있었다.

모든 당원들은 과업이 아름차고 방대하다고 하여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1211고지용사들과 전후시기 우리 당원들이 지니고 발휘하였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혁명의 선봉투사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기 당이 위력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제일이며 자기 제도가 가장 좋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의 신심을 가질수 있으며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하고 불패인 당과 혁명정권,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가지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가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200일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원래 200일전투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야 할 거창한 사업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200일전투의 방대한 과업앞에서 우는소리를 하고 조건타발을 하게 된다. 방대한 과업앞에서 동요하고 주저하거나 조건타발을 하면 혁명을 할수 없고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없다.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길만이 혁명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조건이 결코 문제로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200일전투과제수행에서 어려운것과 쉬운것, 조건이 불리한것과 유리한것이 따로 있을수 없으며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제힘으로 해나간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오래고도 간고한 투쟁로정에서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준 전투적 기치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선과 혈로를 헤치며 두 제국주의《강적》도 타승하였고 새 사회건설의 생소한 길도 승리적으로 개척해왔다.

위대한 우리 당을 따라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것, 바로 이것이 지난날에나

오늘에나 래일에도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며 우리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조국의 번영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자기 힘을 믿고 굴함없이 투쟁하여 승리한것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가 빛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력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의 전통적 투쟁기풍인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할 때이다.

모든 당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을 가지고 200일전투를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원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것은 200일전투에서 선봉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은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서며 어려운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당원들이 언제나 높이 발휘하여야 할 혁명적 투쟁기풍이다. 200일전투에서의 승리와 성과의 비결도 당원들이 혁명의 선봉투사가 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있다.

당원들은 늘 군중의 앞장에 서야 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나서고 방대한 전투과업이 제기되면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고 무겁고 방대한 전투과업이 나서면 대중은 당원들의 얼굴부터 쳐다보게 되며 그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을 지켜보게 된다. 만일 당원들이 혁명의 전위투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애로와 난관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거나 어렵고 방대한 과업앞에서 당황하게 되면 군중도 사기를 잃고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당원들이 혁명의 전위투사답게 앞장에서 애로와 난관을 뚫고 힘차게 전진하면 군중도 신심과 용기를 내여 따라나서게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매일매일의 투쟁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는 당원은 일하고 또 일하여도 시간이 부족하고 뛰고 또 뛰여도 힘든줄 모르게 된다.

200일전투의 책임적인 나날은 하루하루 지나가고있다. 지금은 누구나 다 분발하여 두몫, 세몫, 열몫씩 해제껴야 할 때이다.

모든 당원들은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분초를 아끼고 날자를 따져가면서 당이 맡겨준 전투과업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00일전투의 나날을 영웅적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하며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당원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전투적 기세는 매우 높으며 200일전투의 전반적 분위기도 대단히 좋다. 지도일군들이 대중의 앙양된 기세와 열의에 맞게 200일전투의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잘하여야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당원들, 일군들은 오늘의 대진군운동의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잡고 200일전투의 앞장에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하며 전투 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고 수완있게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하는 나라, 혁명

하는 당의 지휘성원답게 높은 혁명성과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군중정치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각성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은 자신이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데서뿐아니라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언제나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군중을 발동하고 적극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여기에 당원들이 자기의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원들은 오늘의 긴장한 정세와 방대한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군중정치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더 많은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을 200일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정치공작원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능숙한 정치공작으로 대중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킨것처럼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호흡을 함께 하면서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군중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천리마대고조시기나 70일전투때와 같이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일대 혁명적 대고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원들은 누구나 다 당조직에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고있으며 당조직의 지도밑에 혁명활동을 벌려나가고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당이 맡겨준 전투과업을 단순한 지시나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끝없는 기쁨과 영광,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함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 열정과 락관이 차넘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은 당조직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방조 밑에 당원들속에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 때 높아지게 된다.

당조직들은 당안에 혁명적 당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성을 단련하며 분공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모든 당원들이 200일전투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원들의 충성심과 헌신성을 믿고계시며 이번 전투에서도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갈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 당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봉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모두가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선구자, 위훈의 창조자가 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

서 봉 창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할 우리 혁명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주체는 혁명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담당자이며 추동력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의 주체와 그것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히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에 과학리론적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라는것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그것이 혁명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

혁명투쟁은 일정한 조건에서 벌어진다.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객관적 조건, 환경은 혁명운동의 발전과 그 성과적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객관적 조건, 환경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데 따라 혁명운동이 비교적 쉽게 전개될수도 있으며 빨리 진척될수도 있고 지연될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객관적 조건, 환경이 혁명운동의 발전과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것은 아니다. 혁명운동에 유리한 조건, 환경을 마련하는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리용하는것도 사람이다. 어떠한 조건, 환경에서나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떠나서는 혁명운동자체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혁명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데서 결정적 작용을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은 결코 저절로 혁명운동의 중심에 서서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것은 아니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착취계급사회에서도 력사를 발전시킨것은 인민대중이였지만 그들은 자기 의사대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지배계급의 의사에 따라 력사를 창조하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의식화, 조직화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이 의식화, 조직화되는 문제는 오직 수령이 출현하고 당의 령도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실질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됨으로써 비로소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등장할수 있게 된다. 혁명의 주체로 된 인민대중만이 혁명운동의 중심에 서서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의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운동발전에서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혁명의 주체이다. 혁명의 주체가 어떠한가에 따라 혁명운동의 승패와 장래운명이 좌우되게 된다. 혁명의 주체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는 근본리치를 밝힌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이다. 여기로부터 이 위대한 사상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을 자기의 근본요구로 제기하게 된다.

주체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로서의 생활력을 가질수 있게 되는것은 근본에 있어서 이 사상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는 혁명사상인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자주적인 본성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의 강력한 무기로, 인민대중을 력사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수 있게 하는 불멸의 전투적 기치로 되고있다.

문헌에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라는것을 해명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원리와 방법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주고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인다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모든 성원들을 힘있는 존재로 만들고 그들을 당의 령도밑에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묶어세워 인민대중이 혁명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혁명의 주체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그들을 힘있는 존재로 만드는 사업을 떠나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의 주체는 그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모든 성원들이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강화발전되게 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는 인민대중의 모든 성원들을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 그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하며 그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해나가자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될 때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결국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만들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워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 문제에 귀착되게 된다. 이 문제는 혁명의 주체의 본질적 특성과 그 결합 및 활동 방식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와 방법을 구현함으로써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우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인민대중을 이루고있는 매 성원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는것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 재부와 수단들을 얼마나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그들의 존재와 활동이 이러저러하게 달라지게 되는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힘

있는 존재로 되는가 하는것을 그 어떤 물건이나 돈에 의하여 평가할수는 없다.

아무리 가치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고 리용된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만들어내며 또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는 사상과 능력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사상과 능력을 가지는가 하는것이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사상과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가운데는 반동적이고 퇴페적인것, 저렬하고 속된것도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러한 사상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회를 위해서는 쓸모없는 정신적 불구자로, 저속하고 무맥한 존재로 되고만다.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상과 능력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다같이 가져야 하지만 그가운데서도 기본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을 때는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에 충분히 리용할수 없게 되고 오히려 자기자신을 남의 치부와 향락을 위한 밑천으로 만드는데 리용당하게 된다. 그런것만큼 인간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키우는 사업과 창조적인 능력을 습득시키는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는 문제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는 문제는 주체사상교양을 통하여 해결된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철학적 세계관과 사회력사관, 혁명관과 인생관을 심오히 밝혀주고있는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함으로써만 사람들은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을 하나로 결속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평등의 원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하는것이라는것을 밝혀주고 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것만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결코 고립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결합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만 개인으로서는 가질수 없는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실현할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살아나가자면 반드시 매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와 그들을 사회적으로 결합시키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단위로 하여 볼 때 매개 성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그들사이의 관계에서 평등이 보장되여야 높이 발양될수 있다. 평등은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함으로써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물론 매개 성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양시키는것은 그들의 사회적 결합을 실현하는데서 필수적 요구로 된다. 만일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구속되고 억제당하면 그들사이에는 불가피적으로 반목과 대립, 분렬과 리간의 관계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매개 성원들의 자주성

과 창조성이 발양되기만 하면 그들사이의 사회적 결합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매개 성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양시키는 문제와 그들의 사회적 결합을 실현하는 문제는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면서도 서로 구별된다. 매개 성원들의 사회적 결합은 그 매 성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이 발양되는 조건에서 그들이 서로 믿고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실제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그런것만큼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려면 평등의 원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평등의 원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하는데서 동지애의 원리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동지애의 원리가 평등의 원리와 같은 차원의 원리가 아니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동지애의 관계는 평등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평등의 관계가 있다고 하여 거기에 반드시 동지애의 관계가 있게 되는것은 아니다. 하나의 사회적 집단안에서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개인들사이의 관계에서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개인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한다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사람들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집단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양시키는데 힘있는 작용을 한다. 이것은 평등의 원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하는데서 평등의 원리에 비하여 동지애의 원리에 우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높이 발휘하여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감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증대시켜나갈수 있게 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자면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활동은 그가 가지는 립장과 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어떤 립장과 방법을 견지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할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수도 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서 견지하여야 할 립장은 모든것을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생사존망이 좌우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것을 자주적으로 대하는 립장을 혁명의 주체로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라고 말할수 있다. 자주적 립장을 견지함으로써 혁명운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리익을 지키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자기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자주적 립장이 혁명운동에서 혁명의 주체가 의거하여야 할 방법의 전부를 대신할수 있다는것은 아니다.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모든것에 자주적으로 대하는 립장뿐아니라 모든것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구체적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만일 혁명운동에서 자주적 립장을 견지하였다 하더라도 옳은 방법에 의거하지 못하면 혁명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높여나갈수 없다.

혁명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

하는 방법은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창조적 방법은 모든 인식과 실천 활동에서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된다.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자주적 립장과 함께 창조적 방법을 견지할 때 혁명운동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된다.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만들고 그들속에서 평등의 원리와 혁명적 동지애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며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오직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로부터 그들의 물질경제생활에 이르기까지, 집단의 사회정치생활로부터 매개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을 근본요구로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원리와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이처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라는것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리와 방법을 심오히 해명하심으로써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근본문제가 과학리론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온 력사로 빛나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ㅌ. ㄷ》에서 뿌리내리고 탄생한 조선혁명의 주체는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과 계급해방을 위한 혁명의 간고하고 시련에 찬 로정을 거쳐 오늘은 인간해방을 위한 초행길을 앞장서 나가는 위대한 력량으로 자라났다.

우리 혁명의 앞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다. 혁명의 이 길을 어떻게 뚫고나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얼마나 높이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갈것이다.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

박 수 영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온 나라가 대건설전투로 들끓고 우리앞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선전일군들은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은 대중을 사회주의대건설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이며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당경제정책선전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경제정책을 주로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는 정치사업이며 경제선동은 대중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직접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이다.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로서 다같이 일련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서로 민접히 련관되여있다. 아무리 강한 호소성을 띤 경제선동도 당경제정책의 본질과 그 진리를 론리적으로 깊이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그리고 당경제정책을 리론적으로 전개하여 해설하는 선전사업도 당면한 경제과업수행에로 추동하는 힘있는 경제선동사업과 배합되지 못할 때에는 그 은을 제대로 낼수 없게 된다.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뜨겁게 심어주고 충성심을 높이 불러일으켜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에만 편중하여도 안되며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시기 당선전선동사업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요구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데 이바지되여야 하며 당사상사업의 성과는 어디까지나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경제건설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

이며 경제건설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경제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추동하고 그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한다. 사상의식수준에 따라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가 규정되며 생산과 건설에서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창조적 로동에 더욱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없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앞에는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전선동을 잘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강화하는것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당면한 200일전투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 제6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강령이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여기에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우리 당과 공화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간고하고 착잡한 내외정세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의 요구로부터 공화국창건 40돐기념일까지 200일전투를 진행할것을 호소하였다. 200일전투는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력을 시위하는 영예로운 투쟁이며 전례없는 높은 속도로 내달려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대진군전투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탁월한 령도력과 비범한 조직력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총동원하여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오랜 기간 간고분투하여 마련하여놓은 튼튼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가 있다.

문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중정치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혁명적 인민이다. 보람찬 200일전투의 나날을 충성으로 빛내여나가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각오는 대단히 높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도 확고하다. 충성의 열정으로 끓어번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그들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때 어렵고 방대한 200일전투의 목표도 앞당겨 점령할수 있다.

이와 같이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강화하는것은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현시기 당사상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어려운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대중정치사업

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진공적인 경제선전선동으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고조를 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우리 당의 경제선전선동활동의 전로정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경제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특히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제선전선동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대중정치사업의 고귀한 모범과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대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진행된 집중적인 경제선동과 70일전투와 100일전투 때 벌어진 대규모의 경제선동은 생산자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의 생동한 본보기로 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게 한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정연한 선전선동체계를 세워주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릴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당의 조치로 중앙과 도들에는 예술선전대가 무어지고 큰 공장, 기업소들에는 기동예술선전대가 꾸려진것은 경제선동활동을 정상적으로 벌려 대중을 새로운 진군속도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양하고 생동한 경제선전선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당사상사업이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기동성있게 진행되게 되였으며 당경제정책이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놀라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이 창조되여온 우리 혁명의 진군력사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위력을 뚜렷이 과시한 자랑찬 행로였다. 이 로정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경제선전선동방침을 구현해나갈 때 생산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는 200일전투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강화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려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경제선전, 경제선동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200일전투의 주공전선과 중요부문들에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여 여기에서 먼저 승리의 포성이 울려나오게 하는것이다.

200일전투에서 주공전선은 기본건설이다. 전력, 석탄, 금속, 화학 등 중요대상건설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야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나갈수 있다.

우리는 공화국창건 40돐기념일까지 비날론 10만톤 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 석탄, 강재 생산을 늘이기 위한 발전소건설, 탄광건설, 금속공업기지건설과 경금속생산기지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밀고나가기 위한 경제선전선동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리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담당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짧은 기간에 20리 날바다우에 세계적인 대갑문을 일떠세운 그 기백으로 충성의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건설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기도록 하여야 한다.

주공전선에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세멘트와 통나무 생산을 늘이고 수송문제를 풀며 자기 단위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전선동사업에도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공업부문에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정상화하여 국가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농촌테제와 우리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농촌경리발전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도록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짜고들어 근기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수산업을 발전시키며 대외무역과 대외경제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나가도록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강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오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것은 웅대한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경제선전선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이 주체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로 된 영예를 안고 온갖 창조적 재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며 200일전투의 승리를 과학과 기술로써 튼튼히 안받침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200일전투과제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 결정과 결부하여 선전선동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과학과 교육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200일전투과제수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전선동사업에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람들의 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경제과업수행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영웅주의를 낳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불러일으킬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혁명적 기백이 차넘치게 되고 제기된 과업도 끝까지 수행하게 된다.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은 혁명전사의 본분이며 도리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믿고 200일전투를 포치하였으며 당이 내세운 전투과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안겨주시는 또하나의 두터운 신임의 표시이다. 200일전투는 바로 이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충성심과 사업성과로써 보답하기 위한 충성의 대진군이다. 따라서 전투의 승패는 그 어떤 행정경제적 타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충실성의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대중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반복해설선전함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200일전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제선전선동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고귀한 혁명정신을 지니도록 하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 방위자들이 적의 총포탄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불비속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굳게 믿고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에 넘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한 그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을 본받도록 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1211고지 용사들의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높은 혁명성을 지니고 그 어떤 애로와 난관에 부닥쳐도 신심드높이 그것을 뚫고나가며 자기 부문앞에 나선 200일전투과업을 자신만만하게 해제끼는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경제선전선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우에서 대주면 좋고 대주지 않아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겠다는 립장에 서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여 맡겨진 전투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충성의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벌려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모든 선전선동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전선동을 중단없이 강하게 들이대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선전선동은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서 진행되며 각이한 수준과 특성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적인 사업이다. 경제선전선동은 그 어떤 한가지 처방이나 틀에 맞추어 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당이 마련하여준 위력한 선전선동 력량과 수단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전문선전일군외에도 수십만명에 달하는 강사, 선동원들을 비롯한 직외선전선동일군들이 있으며 또한 출판보도부문과 문학예술부문의 대부대가 있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선전차를 비롯하여 위력한 선전선동수단들이 있다. 우리는 이 위력한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들이댐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풍이 차넘치고 200일전투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과 광복거리 건설장,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지고있는 경제선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선전선동 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적인 경제선동을 통이 크게 벌릴 때 전투장이 들끓고 대중의 기세가 높아지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당조직들은 출판물과 방송, 속보와 선전화, 구두선동과 직관선동, 예술선동 같은 모든 선전선동 수단과 형식들을 리용하여 200일전투의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200일전투기간에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70년대에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모범을 창조하여 주신 가장 전투적이고 생활력있는 경제선전선동 형식과 방법

을 구현하여 모든 전투장들에서 대중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하여야 한다.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벌려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선전선동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격식과 틀을 차리지 말고 정치사업을 진행하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대중의 교양자이며 정치사업은 일군들의 본분이다. 모든 일군들이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자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당사상사업의 대상은 군중이며 사상사업의 성과도 군중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군중과 접촉해야 그들의 사상을 알고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군중의 사상의식수준과 심리에 맞게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적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200일전투가 벌어지는 들끓는 건설장들과 생산현장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경제선전, 경제선동을 전투적으로 벌려야 한다. 일군들은 기대옆과 포전에서 군중과 일도 휴식도 같이하면서 당경제정책선전도 하고 군중의 기세를 돋구는 선동연설도 하며 신문에 실린 200일전투 소식과 경험도 알려주고 해당 단위에서 발현되고있는 혁신적 성과와 긍정적 모범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등 격식과 틀을 차리지 말고 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야 한다.

대중을 200일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선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은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이 거창한 사업은 사상부문 일군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선전선동사업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200일전투의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포치하며 전개하는데서 언제나 경제선전선동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전일군들은 200일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선전선동을 강화하기 위한 작전을 잘하고 능숙하게 지휘해나가야 한다.

참으로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은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벌려 사회주의 대건설행군을 힘차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며 현시기 당사상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선전선동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나라에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게 하며 보람찬 20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투쟁기풍

박 래 환

지금 온 나라는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으로 들끓고있다.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이 거창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혁명가적 기풍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철저한 자주적인 투쟁기풍이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면서 굽힘없이 전진하는 창조적인 투쟁기풍, 백전불굴의 투쟁기풍이다. 그것은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 백두밀림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타개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는 고상한 혁명정신과 기풍으로 살며 투쟁한다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투쟁 정신과 기풍은 혁명의 길이 아무리 간고하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철저한 혁명적 립장을 구현하고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에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힘차게 싸운 혁명선렬들의 고상한 투쟁 정신과 기풍을 빛나게 계승하고 계속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간고한 투쟁을 예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7권, 103페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간고한 시기에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에 발양된 투쟁 정신과 기풍은 혁명과 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와 전진을 위한 고귀한 재부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은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이며 따라서 그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것을 요구한다. 자체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야 온갖 가능성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주체적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자체의 힘을 믿고 이악하게 투쟁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면 아무 일도 할수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에서 높이 발휘되여온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투쟁정신이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 땅우에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을 마련하여온 불패의 힘의 원천이

다.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류례없이 간고하고 험난한 조건에서도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고조기를 맞이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국가적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수 있은것도, 전후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은것도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왔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가적 기풍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나라의 중요한 혁명초소들을 맡고있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 서서 실현해나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모든 사업이 당의 의도대로 전개되게 하고 당이 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빛나는 결실을 맺도록 하는것이 곧 일군들의 기본임무이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이러한 책임적인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은 일군들로 하여금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당과 혁명 앞에서 맡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순탄한 환경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난관과 애로들이 제기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가리지 말고 언제나 조건을 주동적으로 조성하면서 이악하게 투쟁하며 완강하게 전진하는 기풍,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쟁기풍을 소유한 사람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진실로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그 어떤 난관과 애로에 부닥쳐도 동요없이 억세게 전진하는 일군들에게는 결코 혁명임무수행에서 무슨 조건을 탓하거나 흥정하는 일이 있을수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지닌 일군들은 언제나 혁명임무를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수행하고야말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왕성한 사업의욕과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이악하게 투쟁한다.

이것은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지니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참된 길이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혁명적 본분을 다해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군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지닐 때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은 실천에 의하여 확증된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 황주군의 일군들은 경제과업수행에서의 모범적인 단위들의 사업경험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깊이 체득하였다.

황주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수십차례에 걸쳐 황주군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경제사업으로부터 교육문화사업에 이르기까지 군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군안의 인민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거듭 돌려주시였다.

해방전에 황주군은 넓은 긴등벌과 룡새벌, 매상벌을 끼고있으면서도 초보적인 수리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아 농사를 변변히 짓지 못하였으며 인민들은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초가집과 오막살이에서 마지 못해 살고있었다. 지나가던 길손에게 마실 물 한그릇마저 후하게 대접할수 없었다는곳이 바로 긴등벌이였으며 여러가지 토질병으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고 귀중한 생명을 잃던곳이 다름아닌 황주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주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몸소 어지돈관개공사를 발기하시고 군안의 이르는곳마다에 생명수를 보내주시였으며 군적으로도 가장 뒤떨어져있던 룡천리에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분수식 발관개의 본보기를 꾸리시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황주군에는 위력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가진 현대적인 농업과 지방공업이 일떠서고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이 알뜰히 꾸려졌으며 앞으로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황주군에서 이룩한 성과에는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다. 황주직물공장의 일군들은 언제나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고귀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감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해마다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왔으며 오늘은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늘이는데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지닌 군안의 일군들은 최근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분수식 발관개를 완성해나가며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석정리, 외상리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관생산기지를 꾸리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봄씨붙임전으로 계획된 분수식 발관개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룡천리, 신상리의 일군들은 협동농장자체의 로력과 기술수단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논발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해나가는 좋은 모범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군안의 일군들속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철저히 세워 당의 의도에 맞게 지방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조성된 정세는 모든 일군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간고분투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당면하게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

되고있다. 우리앞에는 오늘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며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할 전투적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영예롭고도 방대한 과업을 적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복잡한 환경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사회주의동방 초소에서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있으며 어느때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를지 모를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적들의 악랄한 도발책동을 짓부시면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게 하고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며 대담하게 밀고나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를 깊이 자각하고 조성된 정세에 맞게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철저히 지님으로써 자기들이 맡은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하며 사회주의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일군들의 혁명가적 기풍은 높은 혁명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높은 혁명성과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일할 때에만 온갖 난관과 애로를 주동적으로 대담하게 뚫고나갈수 있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모든 잠재력을 적극 동원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체로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이 제기한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불굴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힘있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은 시련의 고비고비를 넘고넘어야 하였던 엄혹한 조건에서도 언제나 높은 혁명성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억세게 전진함으로써 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새날을 승리적으로 맞이한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은 높은 혁명성과 완강한 투쟁기풍을 가지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바로 이런 일군이 항일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혁명가, 오늘의 벅찬 대진군운동에 맞는 일본새를 갖춘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일군들의 혁명가적 기풍은 또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에 넘쳐 모든 일을 전투적으로 패기있게 해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혁명적 신념없이 조건만 앞세우면서 주저앉는 사람은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그것을 동원할수 없지만 어떠한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과 락관에 넘쳐 일하는 일군은 기발하게 착상하고 옳은 방도를 찾아내여 어떤 혁명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대건설행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현시기 당이 제시한 웅대한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어떠한 어려운 전투과업도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해결해나가는 창조적 정신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은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몰랐으며 언제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에 넘쳐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또 수행할수 있다는 혁명적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승리의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대담하게 밀고나가 높은 성과를 이룩하는 일군이 바로 오늘 당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참된 일군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가적 기풍은 있는 생산밑천을 가장 효과있게 리용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고 건설하는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크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생산과 건설을 비상히 높은 속도로 다그칠수 있다.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실태를 깊이 분석하고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있는 밑천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것을 호소하였다.

일군들은 마땅히 당의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하며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항일의 그날처럼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여기에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일군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철저히 지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상한 투쟁기풍이다. 주체사상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관점에 튼튼히 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의 이 요구대로 살며 투쟁한다는것은 곧 자력갱생, 간고분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군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자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는 견결한 혁명정신, 그 어떤 시련도 용감히 뚫고 언제나 승리해나가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철저히 지닐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일군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주체사상교양의 원전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사상의 원리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언제나 공산주의적 혁명성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지니고 전투적으로 일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일군들이 맡은 혁명임무를 제때에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묘술과 방법론을 옳게 가질수 있으며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일군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철저히 지니기 위하여서는 또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수양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은 백두밀림에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가는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과정에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어떠한 정신세계를 지니고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만난을 무릅쓰고 승리에로 전진해나가는 고귀한 전통이 마련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혁명가들이 높이 발휘하여야 할 고상한 투쟁 정신과 기풍의 본보기가 창조되였다. 바로 이 투쟁 정신과 기풍이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이 고상한 투쟁 정신과 기풍은 해방후 새사회건설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간고한 전후복구건설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 과정에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으며 실천에서 그 거대한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모든 일군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본받기 위한 투쟁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하며 자신의 사상수양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고상한 투쟁 정신과 기풍,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다시한번 떨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백두밀림에서 싸운 혁명선렬들의 고상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믿음직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켜 나가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

김 평 해

당활동을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켜나가는것을 근본원칙으로 삼고 당활동을 벌려나가고있다.

당활동에서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킨다는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당활동의 전과정에 통일적으로 구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며 이와 함께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해나간다는것이다.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킨데 대한 원칙은 당의 본성에 맞는 당활동원칙이다.

당활동은 당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그것은 반드시 당의 본성에 맞게 진행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이 자기의 령도적 기능과 력사적 사명을 다할수 있다. 만일 당이 자기의 본성과 어긋나게 활동한다면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해나갈수 없으며 력사적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본성에 맞는 고유한 원칙에 기초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당활동을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본성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 무기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지도되며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며 수령은 그것을 정치적 무기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고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간다. 한마디로 말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수령의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이러한 본성적 요구대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을 옳바로 이끌어나가자면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정치적 령도자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또하나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당활동을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속에서 배우며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 인민대중의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 요구에 완전히 맞는 당활동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을 구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그와 함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을 통하여 확고히 실현되게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서 향도적 력량을 이룬다. 수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묶어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등을 창건한다. 수령이 창건하고 이끄는 모든 조직들은 다같이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이루지만 그 지위와 역할은 꼭 같지 않다.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조직으로서 다른 모든 조직들을 령도하고 움직이는 혁명의 참모부이며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당의 통일적인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다른 모든 조직들이 활동하게 되고 그에 망라되여있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정치활동이 진행되게 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게 된다. 여기에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서 당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와 역할이 있다. 그러므로 당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바로 당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지만 저절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당이 참말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에 따라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과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고 모든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게 하면 전당이 수령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체로 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이 백방으로 높아지게 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의

기위와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 수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이다. 당이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것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 담당자이다. 군중을 옳게 조직하고 발동하는것은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로 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만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만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게 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런데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는 옳바른 령도방법, 혁명적 령도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이 문제는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해나갈 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령도방법을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적령도방법의 기본요구는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28페지)

혁명적 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존중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으며 대중의 창조적 힘과 혁명적 열의를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에 따라 당활동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면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혁명적 사업방법에 의하여 그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도와 대중이 옳게 결합되게 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을 당활동에 구현해나갈 때 한편으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서 향도적 력량인 당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져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와 대중이 옳게 결합되게 되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렇게 당의 령도적 역할과 인민대중의 역할이 높아지게 되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힘있게 전진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활동의 전과정에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며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이 두 문제를 다같이 틀어쥐고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구현해나가야 한다. 만일 당활동에서 이 두 문제를 서로 분리시키며 그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차요시한다면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

할수 없는것은 물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반드시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켜나가는것을 근본원칙으로 삼고 당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을 다같이 틀어쥐고 당활동을 벌려왔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자기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깊이 헤아리시고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여기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안에는 당의 령도체계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튼튼히 확립되게 되였다.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이 더욱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는 한편 혁명적 군중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게 하시는 한편 일군들이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참다운 일군으로, 대중에게 의거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혁명의 능숙한 지휘성원으로 준비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우리 당은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이겨내면서 그 투쟁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높여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천리마의 속도로 비상히 빨리 달려온 우리 혁명이 오늘은 또다시 《80년대속도》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뚜렷이 바라보이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 당의 실천적 경험은 당활동에서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을 옳게 구현할 때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기 위한 200일전투의 거창한 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실로 방대하고 높은 목표인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대중을 총진군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각급 당위원회들이 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당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참모부이다. 당위원회들이 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울수 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규률을 세워야 한다. 특히 일군들과 당원들이 200일전투에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이 제시한 전투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200일전투과업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며 일단 포치한 문제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하는것은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켜나갈데 대한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혁명적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킨것으로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대중지도 원칙이며 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하여야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200일전투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에게 의거하고 군중을 발동시켜 모든 사업이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평북 도당위원회와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생산현장에 내려가 군중을 200일전투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작업복을 입고 군중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강연, 해설담화, 경제선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벌리는 한편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이끌어주고있다.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맡겨준 200일전투과업수행에서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면서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여나가고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전투장마다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우리 당이 200일전투를 호소하면서 제시한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그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건설로 들끓는 전투현장에 내려가 군중속에서 맹렬히 활동함으로써 그들이 모두다 200일전투에서 영예의 승리자가 되도록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당이 제기한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우리 당일군들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고 이번 전투에서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그 집행의 적극적인 조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가야 할것이다.

당일군은 혁명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가야 한다

고 송 백

혁명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것은 주체형의 당일군의 품성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당일군은 혁명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공산주의적 도덕품성과 높은 자질을 지니게 되며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되게 된다.

오늘 전례없이 방대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거창한 대건설전투는 당일군들로 하여금 혁명적 수양을 더 높이 쌓아나갈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구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사상수양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의지를 키우며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혁명적 수양을 쌓는다는것은 사상과 도덕을 비롯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극복하고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며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춘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일군들이 낡은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사업방법, 사업작풍, 생활습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공산주의적인 사상, 정신, 도덕적 풍모를 갖춘다는것을 의미한다.

수양은 원래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참답게 살아나가는데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회적 관계속에서 살며 발전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존엄있게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집단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 풍모를 가져야 하며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할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수 있으며 사람들사이에 옳은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바로해나갈수 있다.

사람은 준비되고 수양된것만큼 사회현실을 대하게 되며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된다. 수양된 사람은 언제나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게 되며 집단과 동지들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나갈수 있게 된다.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만이 집단생활에 적극 기여할수 있으며 높은 사회적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당일군이 혁명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는것은 직업적 혁명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풍격을 원만히 갖추어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주체형의 당일군은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정치사상적 풍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당일군은 우리 시대의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하고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다시말하여 당일군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사상과 정신도덕적 풍모를 원만히 갖춘 참된 혁명가이다.

당일군의 이러한 풍모와 풍격은 결코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는것이 아니다. 세상에 완성된 당일군이란 없으며 타고난 당일군도 있을수 없다. 당일군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풍격은 오직 끊임없는 혁명적 수양과 단련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공고화될수 있다. 로동자의 가정이나 혁명가의 가정에서 태여나고 자라난 당일군이라고 하더라도 혁명적 수양과 단련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에만 주체형의 당일군으로서의 풍모와 풍격을 갖출수 있다.

당일군은 혁명적인 사상정신도덕적 풍모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도 혁명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야 한다.

사람의 사상의식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사회적 실천과정에서 부단히 변한다. 쇠를 공기속에 내버려두면 산소의 작용을 받아 녹이 쓸어 못쓰게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부단히 자신을 수양하지 않으면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과 외부로부터의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으로 하여 머리에 녹이 쓸어 변질될수 있는것이다. 온 사회의 혁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의 영향이 있게 되며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자본주의적 사상문화적 침투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심화되는 과정에는 이러저러한 불건전한 경향들이 나타날수 있다.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은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유리한 환경에서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으며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어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는 과정에 승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부닥치는 난관에 동요하고 주저하며 일시적인 시련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나타날수 있다. 이것은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단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자체를 단련하지 않고 혁명적 수양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변질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끊임없는 혁명적 수양, 이것은 혁명가가 일생동안 혁명을 끝까지 할수 있게 하는 원천이며 잠시도 미룰수 없는 당일군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혁명적 수양은 또한 당일군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능력은 당일군의 풍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당일군은 사상, 정신, 도덕적 면에서뿐아니라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높아야 한다. 당일군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사업을 지도해야 하는것만큼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지휘관이 되여야 한다. 당일군이 수준이 낮으면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울수 없으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당사업과 당활동은 당일군들의 정치리론적 자질과 실무수준,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지휘능력에 의해서만 그 성과가 확고히 담보된다.

당일군의 높은 자질과 능력은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다. 당일군의 정치실무수준과 능력은 저절로 높아지지 않으며 그것은 당일군들이 쉬임없이 노력하여야 높일수 있다. 이것은 끊임없는 자체수양을 쌓아야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가질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당일군은 혁명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갈 때 주체형의 당일군으로서의 풍격을 원만히 갖출수 있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당일군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혁명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가는것은 또한 심화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과 조성된 정세는 당일군들로 하여금 혁명적 수양을 높이 쌓아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해나가는 높은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대

건설행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높은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 풍모를 지니게 하는 사업이며 위대한 사회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일군들로 하여금 혁명적 수양과정을 세계관의 공고성, 확고성에 있어서나 사상정신도덕적 풍모와 자질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경지를 이룬 당의 정수분자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일관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바로 당일군들의 높은 사상정신도덕적 풍모와 자질에 의해서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어렵고 복잡하며 간고한 투쟁이다. 우리는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불바다도 건너야 하고 진펄길도 걸어야 하며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내달려야 하며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와 낡은 풍조의 침습도 막으면서 대담하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알고 그에 맞게 부단히 수양하지 않는다면 발전하는 현실에 자신을 따라세울수 없으며 사상적으로 도태되여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다.

더우기 당일군대렬에 혁명의 시련과 곤난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은 당일군속에서 혁명적 수양을 더 높이 쌓아나갈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당일군들이 혁명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가지 않을 때에는 자기를 키워준 당과 수령의 은덕을 저버리고 당일군이 된것을 벼슬로 여기면서 세도를 쓰고 전횡과 독단, 관료주의를 부리게 되며 일을 주인답고 책임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성과 요령주의를 부리게 된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자체수양을 끊임없이 하여야 당과 수령께 충성다할수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에 자신을 따라세울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현시기 당일군들이 혁명적 수양을 높이 쌓아나가는것은 발전하는 혁명의 요구, 시대의 요구를 감당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당일군들은 심화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실무적 자질을 높이며 높은 사상정신도덕적 풍모를 갖추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잡은 일군답게 일할수 있으며 당과 혁명의 참된 고임돌이 될수 있다.

우리 당일군들은 혁명적 수양을 쌓는것을 혁명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목적의식적으로 자체를 끊임없이 수양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자체의 수양을 쌓기 위하여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혁명적 수양을 쌓는 과정은 곧 그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고 자기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개변해나가는 과정인것만큼 그것은 간단히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하루이틀사이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일군은 모든 사업과 생활을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 벌려나가며 언제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으로 자체수양을 쌓아나가야 한다.

혁명적 수양을 쌓아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당일군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창조적 활동가이며 자각적인 투사이다. 당일군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혁명의 량식은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된다. 학습은 사상수양에서 요구되는 사상정신적 량식을 얻기 위한 기본원천이며 정치사상의식수준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

수단이다. 당일군은 학습을 통하여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 당일군은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대중의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지휘하는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학습을 혁명하는 사람의 본분으로 여기고 쉬임없이 배워나감으로써 사회를 적극적으로 떠밀어나가는 추동력으로, 쉼임없이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전당이 학습하는것은 우리 당의 고유한 전통적인 기풍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는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학습의 기본요구이며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기본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학습의 기본교재는 로작과 당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에는 매 시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당일군들은 로작과 당문헌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당정책의 요구들을 환히 꿰뚫고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라 하더라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로작과 당문헌 학습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제학과 과학기술,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학습도 정상적으로 해야 하며 정세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계획을 긴장하게 세우고 높은 학습목표를 내걸고 그대로 수행해나가는 혁명적인 학풍을 세워야 한다.

혁명적 수양을 쌓아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나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자기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으며 건전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닐수 있다. 당생활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혁명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사상수양을 끊임없이 쌓게 하며 혁명적 단련을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당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수양에 대하여 늘 생각하며 당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야 한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며 자신을 단련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관념은 당조직을 대하는 당원들의 관점과 태도이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져야 당조직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정치적 조직으로,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당일군들은 높은 당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일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당과 수령을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따르며 그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당과 수령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자신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벌리는데서도 당원들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당일군은 자신을 당생활을 지도하는 사람으로만 간주하면서 자기의 당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당우에 군림하게 되고 대중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수 없게 된다. 당일군이라면 언제나 비판과 자기비판에서 누구보다도 성근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도 자기에

게는 그런 부족점이 없는가를 스스로 검토해보아야 하며 혁명적인 당생활, 당사업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혁명적 수양을 쌓아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적 실천을 통한 단련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적 실천은 사상단련의 힘있는 수단이며 혁명적 수양의 중요한 방도이다. 혁명가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며 혁명가로서의 높은 자질과 풍격을 갖추게 된다. 쇠는 수천도의 고열로 끓어번지는 로속에서 강철로 되고 꽃나무는 비바람을 맞으며 들판에서 자라나야 억세고 아름다와지는 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성장될수 있다. 당일군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만 자신의 사상의지를 단련하고 자기의 준비정도를 검열받을수 있으며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사상정신도덕적 풍모를 더욱 완성해나갈수 있다. 혁명실천은 그자체가 강의한 의지와 혁명성을 동반하는것만큼 당일군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벌어지는 벅찬 현실속에서 혁명성과 전투성을 가지고 강의한 의지를 지닌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따라서 혁명실천은 당일군의 풍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출수 있게 한다.

당일군에게 있어서 혁명실천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중을 교양하고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당일군은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지 사업과정에 수령의 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고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며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 과정에 혁명성, 조직성, 규률성도 더욱 높이게 되고 사업 방법과 작풍도 개선해나가게 된다.

당일군들은 사회주의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는 실천투쟁속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자신을 끊임없 단련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며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걸리고있는 문제,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성심성의로 풀어주는 참된 지휘관이 되여야 한다.

혁명적 수양을 쌓아나가는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이며 오직 불타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바로해나갈수 있다. 혁명적 수양에서 기본은 자체수양이며 그것은 높은 정치적 자각성과 책임성에 의해서 수행된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혁명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감으로써 직업적 혁명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한 봉 춘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대건설행군은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 생산과 건설에서는 전례없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으며 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만부하로 돌려 국가의 생산계획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데서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원료와 연료, 동력, 자재이다. 석탄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연료, 동력, 원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석탄은 그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하여 연료, 동력의 기본자원으로, 공업의 중요한 원료로 널리 쓰인다. 야금공업과 건재공업을 비롯한 여러 공업부문들에서는 석탄을 기술공정용연료로, 열동력용 연료로 쓰며 화력발전소들에서는 그것을 전기동력용 연료로 리용하고있다.

석탄은 연료로서의 가치를 가질뿐아니라 화학공업, 금속공업 등 공업의 여러 분야에서 원료로 널리 리용된다. 그러므로 생산의 중요요소인 연료, 원료로, 동력의 기본자원으로 되는 석탄을 많이 생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생산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없다.

사회적 생산순환의 첫 공정인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석탄생산을 적극 늘여나갈 때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늘여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다. 연료, 동력, 원료는 기계설비들처럼 생산과정에 오래동안 머물러있으면서 리용되는것이 아니라 한 생산과정에 완전히 소비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석탄생산을 늘여 공장, 기업소들에 석탄예비를 조성하는 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석탄공업은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다른 공업부문에 앞세워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자원을 캐내는 석탄공업은 생산조건이 불리하고 투자가 많이 들며 단순재생산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건설을 동반하게 된다. 이런 특성으로 하여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켜야 다른 공업부문과의 적극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우지 않고서는 석탄을 리용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많이 건설해놓았다고 하여도 생산능력

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없으며 그것을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공업부문 구조의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석탄은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식량이다.

우리의 공업은 주로 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공업건설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석탄은 공업연료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수력과 함께 기본동력자원으로 되고있다. 무연탄과 석회석을 기본원료로 하는 현대적인 화학공업이 창설됨으로써 우리는 석탄으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였으며 세계적인 연료위기, 원유위기때에도 그띠없이 경제를 주동적으로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공업의 귀중한 연료, 동력, 원료 자원인 석탄을 많이 생산하여야 화력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열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나라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있는 오늘 연료, 동력, 원료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늘어나는 연료, 동력, 원료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새로 조성되는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져 우리 자원에 의거하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새롭게 일떠서는 공장, 기업소들이 조업을 개시한 다음 자기의 능력을 다 내게 하자고 하여도 연료, 동력, 원료 문제를 풀어야 하며 그러자면 석탄생산을 늘여야 한다. 늘어나는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신설, 확장되는 공장, 기업소들을 제대로 운영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석탄공업에 큰 힘을 넣어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석탄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무연탄을 비롯한 질좋은 석탄들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으며 다량채굴할수 있는 중요탄전들이 수많이 마련되여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이 개건확장되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채취설비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 우리 나라의 지질조건과 탄광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채굴설비들과 성능높은 기계화수단들이 많이 생산됨으로써 탄광의 종합적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가 꾸려져있다.

우리에게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마다 석탄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온 석탄공업부문의 근로자들과 기술자들의 튼튼한 대오가 있으며 전당과 전국가적인 힘있는 지원이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석탄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휘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

조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전망이 크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중요탄광들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전망이 크고 채굴조건이 좋은 중요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한다는것은 로력, 설비, 자재와 자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유망한 중요탄광들에 힘을 집중하여야 비교적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짧은 기간에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투자의 효과성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안주, 순천, 북창지구와 북부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구의 대규모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탄광들을 적극 개발하며 탄광들의 기술장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석탄생산능력을 빨리 늘여야 한다.

이 지구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하기 위하여서는 지질탐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석탄매장량과 탄층놓임상태를 확정하고 탄광의 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기본건설투자의 규모를 옳게 설정하고 석탄생산에 힘을 집중할수 있다. 또한 탄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채탄장들에 로력, 설비, 자재를 집중하여 채탄장과 갱도의 규모를 크게 하고 현대적인 탄광설비들과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받아들여 채탄능력과 함께 운탄능력을 현저히 높여야 한다.

현시기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기술혁명을 벌려야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오늘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예비는 결정적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석탄생산공정에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을 도입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이고 앞선 채탄법과 기술공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부쩍 늘여나가게 된다.

석탄공업부문에 복무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우리 나라 탄광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며 탄광작업의 기계화, 종합적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굴진, 채탄, 운탄 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다량채굴, 다량운반,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자계산기를 도입하여 경영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탄광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지펴준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자그마한것으로부터 큰것에로, 단순한것에서 복잡한것에로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능률높은 기계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갱을 영구화하고 대형 기계설비들의 작업조건을 잘 마련하여야 한다.

현시기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드는것이다.

석탄생산은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이 맡아해야 할 기본혁명과업이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은 석탄생산을 책임진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데서는 지질탐사와 굴진, 갱건설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지질탐사와 굴진, 갱건설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석탄공업발전에서 하나의 법칙이며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선결

조건이다.

지질탐사사업에서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를 옳게 배합하여 유망한 탄광개발후보지를 적극 찾아내고 석탄공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도록 하며 탄광주변 및 심부에서의 확보탄량을 정확히 확정함으로써 석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은 탄광들에서 굴진과 박토를 앞세울수 있도록 굴진과 채탄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투하비률을 5대 5로 하고 준비굴진을 6개월이상 앞세울데 대한 당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예비채탄장을 마련하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또한 석탄생산에서 기본생산시설의 하나인 갱도를 영구화하기 위한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운탄능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갱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서 생산지휘를 기동성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석탄생산은 주로 지하막장에서 진행되며 수많은 물동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인것만큼 생산지휘를 짜고들지 않고서는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탄광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계획화사업을 잘하고 주타격방향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석탄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로력, 설비, 자재 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채굴조건이 좋은 갱들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해나가야 한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은 탄광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며 탄부들에 대한 당의 배려가 정확히 미치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탄광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석탄생산이 올해에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공전선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석탄산을 높이 쌓아올림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석탄이 잘 나와야 자기 부문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는 관점을 확고히 가지고 석탄전선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석탄공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이다. 금속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석탄생산에 필요한 철강재와 통나무, 세멘트들을 먼저 생산공급하는것을 제도화하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압축기, 권양기, 자동차, 굴착기, 탄차, 착암기를 비롯한 탄광설비와 장비들을 계획대로 어김없이 생산보장하며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대형 기계설비들을 많이 만들어 보내주어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당의 집중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탄광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때에 실어다주며 생산된 석탄을 빨리 소비지들에 수송하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석탄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며 초무연탄, 저열탄을 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열설비를 만들어도 저열탄을 쓸수 있게 제작하며 저열탄을 연료로 광범히 리용하기 위한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석탄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석탄생산을 부쩍 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생산적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내부예비의 동원리용과 사회주의대건설

조 철 준

오늘 우리 인민은 앞날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쳐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200일전투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과 경공업,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200일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 우리 당의 사회주의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것을 극력 아껴쓰고 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여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내부축적을 장성시키고 확대재생산의 원천을 늘임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 문제는 생산을 늘일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만이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생산의 장성은 추가적인 투자없이 이미있는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등 생산요소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거나 추가적인 투자를 늘여 생산요소들의 지출규모를 늘이는것과 같은 두가지 방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투자를 늘이는 경우에도 투자 방향과 방법을 개선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 생산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여 그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인다면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다. 내부예비는 바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추가적 투자없이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생산을 더 늘이거나 보다 적은 추가적 투자로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내부예비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활동, 창발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성되는 생산장성의 가능성, 있는 경제적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되는 가능성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생산을 늘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직접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므로 생산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게 된다. 자기의 창조적 로동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창발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널리 탐구되며 내부예비가 효과적으로 동원리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경

제제도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내부예비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그것은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지도와 기업관리가 개선되고 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높이 발양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할수록 로력과 기계설비, 자재와 자금을 더 들이지 않거나 적게 들이면서도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으며 원가를 낮추고 수익성과 축적을 늘일수 있다. 이것은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오늘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여기에 대건설행군을 적극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것이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사회주의대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로력, 설비, 자재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생산요소들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의 하나이다.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장성속도가 높을수록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

지금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은 그 규모와 속도, 질적 수준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창한 경제건설사업이다.

200일전투로 들끓고있는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는 더 많은 자재와 설비, 로력과 자금을 보내줄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늘어나는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록 대건설행군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다.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벌리는데 필요한 생산요소의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자면 지금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새롭게 투하되는 생산자원의 리용에서 효과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할수록 더욱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내부예비동원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는 자원의 추가적 지출이 없이 또는 보다 적은 추가적 지출로 생산을 더 늘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지금있는 생산요소들을 잘 리용하면 생산자원을 그만큼 절약하여 축적에 돌리는것과 같은 은을 내게 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여 적은 추가적 지출로 더 많이 생산하면 투자를 늘이거나 축적을 장성시키는것과 같은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는것이 생산자원을 절약하고 축적에 더 많은 몫을 돌릴수 있게 함으로써 대건설행군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이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보다 적은 지출로써 더 큰 경제적 성과를 이룩해야 할 대건설사업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보다 적은 지출로써 더 큰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나서는 일반적 요구이다. 더우기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방대한 대건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아야 한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적은 지출로써 더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룩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자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기본건설을 다그쳐 새로운 생산능력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투자를 늘이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추가적인 투자를 늘이는 문제는 국민소득의 장성에 의존하게 되므로 그것을 무한정 늘일수 없다. 그러므로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건설행군을 더욱 다그치자면 투자를 늘이는것과 함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잠재하고있는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적은 지출로써 보다 큰 경제적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물질적 부의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방침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동원함으로써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왔다.

우리 인민앞에 준엄한 시련이 가로놓였던 전후시기, 제1차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은 1956년 12월전원회의결정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높일데 대한 1958년 6월전원회의결정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할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은 경제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적극 발양되여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왔다.

실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인민경제의 생산잠재력을 적극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건설해놓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은 대단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는 많은 내부예비가 잠재해있다.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원료, 자재, 협동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이미 건설해놓은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설비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다 내게 하는 여기에만도 생산장성의 커다란 예비가 있다.

나라의 공작기계대수만 하여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 조건에서 지금있는 공작기계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기술개조를 하여 자동화, 전자계산기화하며 설비관리와 보수 사업을 잘하고 기계설비의 가동률과 가공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면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것이다.

기계공업부문에서 대형 불도젤과 굴착기, 대형 적재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많이 생산하여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원료, 연료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수 있게 된다.

지금 온 나라의 도처에서 대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건설부문에서 설계를 개선하고 합리화하여도

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으며 세멘트와 강재, 목재를 절약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 있는것을 가지고도 더 많은 건설물들을 일떠세울수 있는것이다.

특히 건설부문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건설속도와 질을 높이고 건설자재를 절약하여 더 많이 건설할수 있는 커다란 예비가 있다.

지금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에 파견된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많은 자재예비를 찾아내고 건설속도도 높이고 있다.

기술대대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흔한 원료를 가지고 카바이드를 생산할수 있게 함으로써 종전에 예견하였던 건조로와 산화로, 배풍기를 비롯하여 200대의 설비를 쓰지 않고 생산공정을 꾸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무려 2,000톤의 강재를 절약하였다.

건설설계대대 과학자, 기술자들은 30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찾아 시공에 받아들임으로써 건설총투자액을 14.4%, 건설조립액은 14.6%, 강재는 12.6%, 목재는 14.4%, 세멘트는 8.8%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과 창조적 지혜를 적극 발양한다면 거대한 내부예비를 찾아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생산을 늘이고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은 지난 3월 한달동안에 그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6,000여톤의 선철, 1만 7천여톤의 강철, 1만 4천여톤의 압연강재를 더 생산해낸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의 투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원료, 연료 보장사업을 개선하고 제선, 제강, 압연 부문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전투조직을 개편하였으며 기술혁신운동을 적극적으로 들이대였다. 그리하여 3월에 들어와서만도 그전같은 기간에 비해 용광로직장에서는 2만 3천여톤의 선철을 더 생산하여 새 기록을 세웠으며 분피압연직장에서는 1.2배, 조강직장에서는 무려 2.3배, 선재직장에서는 1.7배 이상으로 생산을 늘이였다.

20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사회주의대건설 전투장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생산잠재력이 대단하며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록 아무리 높은 경제건설목표라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극력 아껴쓰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내부예비는 어디까지나 재생산과정에 인입하여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내부예비를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것은 생산과 관리, 기술의 주인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사업기풍, 일본새와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간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불비속을 헤치고 용선로를 복구하여 많은 수류탄을

만들어 전선에 보내였으며 전후에는 재더미속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대형 양수기를 생산해낸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 투쟁정신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은 예비를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경험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있는 내부예비를 제대로 동원리용하지 못할뿐아니라 유리한 조건에서도 여러가지 타발을 하면서 앉아뭉갠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는 강의한 혁명가적 기풍을 높이 발휘할것을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혁명적 구호이며 이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대건설행군을 적극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과학적인 경제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는 과학성과 면밀성이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그것은 경제발전과 함께 인민경제부문들사이, 기업소들사이의 경제적 련계가 강화되고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날처럼 손쉽게 찾을수 있는 예비는 적어지며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더우기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하여서는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경제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시기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는 경제관리의 기초로 되는 각종 소비기준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는것이다.

물자소비기준, 로력리용기준을 비롯한 각종 소비기준들을 과학적으로 제정하는것은 증산과 절약을 위한 출발적 기초이다.

소비기준들이 과학적으로, 동원적으로 설정되여야 절약과 증산을 위한 투쟁에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더 많은 내부예비를 조성하여 물자자원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이러한 경제조직사업들은 주로 경제관리사업을 맡고있는 지도일군들에 의하여 수행되는것만큼 이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옳은 방법론과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경제관리를 해나가는 여기에 많은 경제적 예비를 동원리용하여 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새 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새 기술과 앞선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은 적은 자재와 로력, 자금을 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내부예비동원에서 새 기술도입이 가지는 의의는 그것이 더 많은 자원을 새롭게 생산과 건설에 인입할수 있게 하

며 절약과 증산의 규모와 속도를 비할바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특히 그것은 페설물의 근절과 원자재리용범위의 확대, 생산요소들의 효과적리용, 제품의 질제고 등을 통하여 사회적 로동을 절약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준다.

현시기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데서 선차적인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생산과 건설에서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하는것은 근로자들의 로동을 헐하고 능률적인것으로 되게 할뿐아니라 생산 조직과 방법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있는 자재와 로력, 자금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게 한다. 더우기 그것은 사람의 힘이 미치기 힘든 부문에서 사람들의 로동을 대신하며 인간의 육체적 제한성을 극복할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밝혀준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생산장성을 위한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내는 한편 이미 마련된 물질적 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군중적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하는것이다.

모든 사업이 그러한바와 같이 내부예비동원사업도 그것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될때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잠재하는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나라의 부를 끊임없이 늘이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부터 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경제실무적 자질을 높이는것은 내부예비동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내부예비를 열성하나만 가지고도 비교적 손쉽게 찾을수 있었던것은 어제날의 일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큰 규모로 늘어나는 방대한 예비동원사업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함께 높은 과학적 자질과 실천능력을 요구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사는 주인답게 현대적 기술을 소유하고 창조적 능력을 높여 증산과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대건설진군을 다그쳐야 한다. 특히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절약하는 여기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는 커다란 예비가 있다. 거창한 규모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이 벌어지고있는것만큼 모든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원료, 자재의 1%만 절약하여도 그 량은 대단히 많으며 그것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는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절약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한토막의 칠강재, 한그람의 세멘트, 한방울의 연유라도 더 절약함으로써 대건설행군을 적극 벌리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일본새이며 혁명적 사업태도이다.

우리는 1956년 12월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내놓은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의 구호밑에 증산절약의 예비를 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왔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김 호 달

지금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천리마의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당이 펼쳐준 웅대한 설계도를 따라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은 력사적인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보다 높은 속도로 다그쳐지고있으며 그 과정에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인 경제건설성과들은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현시기 당의 의도대로 대건설행군의 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4～485페지)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대건설행군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대규모의 기본건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전례없이 거창한 투쟁이다. 그 규모와 속도, 질적 높이에서 지난 시기의 수준을 훨씬 릉가하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성과여부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늘이는가 늘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여있다. 모든 부문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커다란 잠재력에 의거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켜야 사회주의대건설에 필요한 동력, 설비, 자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 조건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으며 대건설행군의 진군속도를 더욱 다그칠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전반적 경제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비상히 강화된 오늘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로 된다.

대안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의 경제관리형태이다.

기업관리운영에서 대안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옳바로 구현해나갈 때 생산자대중을 제기된 경제과업수행에 적극 동원하고 생산장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기술적 요인들의 작용을 강화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대건설행군의 높은 목표를 훌륭히 점령할수 있다.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해당 부문과 단위들에서 제기된 사회주의대건설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세우고 그것을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앞에

는 방대한 대건설과업들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위의 생산기술적 토대와 생산요소들의 상태를 잘 타산하며 끊임없이 변화되는 생산조건과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업 등을 옳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단위에서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어떻게 세우며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만일 이 문제를 바로 풀지 못하게 되면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주되는 생산목표에 화력을 집중할수 없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매개 부문과 단위들이 대건설행군에서 맡고있는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며 나아가서 련관된 부문과 단위들의 사업에도 지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인민경제 부문과 단위들에서 경제사업의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세우고 그것을 옳게 조직집행하기 위하여서는 기업관리운영에서 집체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있는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는 결코 한두사람의 총명에 의하여 관리운영될수 없다. 더우기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차지하는 생산자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고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그들의 창조적 능력이 발전하는 조건에서 해당 단위앞에 나서는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옳게 세우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자면 반드시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대안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기본핵으로 하고있는 경제관리체계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처리해나가는 우월한 당적 지도방법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위원회가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장악통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게 되면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의사를 종합하여 당정책과 해당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명확한 경제사업 방향과 방도를 세울수 있으며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들을 제때에 강구할수 있다. 또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아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제기된 경제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인민경제 부문과 단위들에서 주공방향을 옳게 정하고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대건설행군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또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대건설행군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로동당시대를 자랑하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대건설행군의 목표는 매우 아름차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방대한 사업은 그 직접적 담당자인 생산자대중을 사상적으로 발동하고 그들의 창조적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할 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에 있다. 생산자대중이 사상적으로 동원될 때 기계설비, 원료, 자재 등 생산요소들의 리용수준이 개선되고 로동

생산능률이 높아지게 되며 더 많은 예비가 재생산과정에 적극 탐구리용되게 된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여기에 대건설행군성과의 근본열쇠가 있다.

대안체계의 위력은 생산자대중이 관리의 주인, 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하게 한다는데 있다.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강화될수록 모두가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가지게 되며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하게 된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힘있는 정치사업과 함께 지도와 대중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더욱 높이 발양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아래 단위의 사업을 도와주고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대안체계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일군들이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을 적극 도와줄 때 그들은 맡겨진 경제과업수행에서 더욱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되며 혁명적 락관과 신심에 넘쳐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된다.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과학적인 경제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과학적인 경제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은 대건설행군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진척됨에 따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 사이에는 더욱더 다양하고 밀접한 경제적 련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여기에 동원되는 로력과 물질기술적 수단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과학적인 경제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과학적인 경제기술적 타산을 바로하여야 생산 단위들과 고리들사이의 련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맞물릴수 있으며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적은 지출로 보다 큰 경제적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대건설행군을 다그치자면 계획화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과 자재보장 사업을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전반을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과학적인 경제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과학적인 경제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하고있는 경제관리형태이다.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게 되면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여 복잡한 경제현상들의 본질을 환히 꿰들고 경제법칙의 요구를 경영활동의 모든 측면에 정확히 구현할수 있으며 생산요소들의 현실태와 생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기초우에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경제기술적 대책을 세울수 있다. 특히 대안체계는 관철하여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강화할수록 계획화사업, 기술준비사업, 생산지도 등 생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구체적으로 짜고들며 현대적 생산의 기술공학적 요구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

이렇듯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대건설행군을 다그

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생산과 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한데 그 중요한 요인이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로정은 위대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를 빛나게 관철하여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해옴으로써 우리 인민은 기업관리분야에 남아있던 낡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실한 문제들을 주체적 립장에 서서 가장 옳바로 풀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언제나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대안체계를 일관하게 관철한 결과 나라의 경제를 사소한 우여곡절이 없이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옳게 관리운영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완성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세기되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하게 된것도 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공산주의적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해온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실천적 경험은 대안체계야말로 가장 우월한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이며 이 체계를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며 공산주의물질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대안체계와 같은 훌륭한 경제관리체계를 가지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복이며 자랑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대건설행군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 앙양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열쇠의 하나는 바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대건설행군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기간공업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발전소건설, 탄광건설, 금속공업기지건설, 대화학공업기지건설, 경금속생산기지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생명선으로 되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 화력을 집중하여 공화국창건 40돐까지 비날론 10만톤 능력조성공사를 끝내며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앞에는 전력생산과 수송을 확고히 앞세우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국가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제기되는 이러한 방대한 과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기된 과업이 무겁고 방대한 사업이 나설수록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우월성이 검증된 대안의 사업체계

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하며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대안체계를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려는 견결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것이다.

사람들의 립장과 관점은 사상의식의 발현이며 사상의식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한다.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바로 가지야 한다.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요구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분야에서 당과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으로 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규모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길밖에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그러자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관리사상을 원리적으로 학습하여 대안체계의 본질과 우월성, 그 기본요구를 깊이 체득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에서 옳게 가려보고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을 경제사업에서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대안체계는 반드시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만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으며 그 위력과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대안체계는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에 의하여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것을 요구한다. 나라의 경제규모와 그 생산잠재력이 전례없이 커지고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가 비상히 높아진 오늘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게 되면 대안체계의 요구를 경영활동전반에 옳게 구현할수 없게 되며 생산과 건설을 빨리 다그칠수 없게 된다. 계획작성으로부터 생산조건을 보장하고 기술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쓰며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사업이 대중의 지향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되여야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올바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그러므로 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옳게 세우며 정치사업을 통하여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구체적인 기술경제적 보장사업에 의하여 실제적인 생산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도를 더욱더 아래에 접근시켜 자재보장사업과 협동생산조직, 수송조직 등 경영활동의 모든 측면을 당정책과 현실적 요구에 립각하여 실속있게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생산자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야 한다.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안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해당 단위의 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지도해야 할 임무를 맡고있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기업관리의 전반실태를 환히 꿰들고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해야 할 책임

이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에게 지워져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대건설행군을 이끌어나가는 지휘성원답게 대안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 요구대로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알아보고 군중과 마주앉아 문제해결을 위한 옳바른 방도를 찾아내는것은 대안체계를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일군들은 자신이 먼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생산자대중을 동원하는 방법으로부터 생산요소들을 타산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관리운영방법과 함께 최신과학기술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하여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 본분을 다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기의 힘을 믿고 자체의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하여야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으며 어떤 어려운 과업도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지난날 백두밀림을 헤쳐온 항일혁명선렬들처럼 대건설행군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공산주의적 혁명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과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낸다는 주인다운 립장과 관점을 가지며 모든 사업을 혁명적 락관과 신심에 넘쳐 대담하고 통이 크게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이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에 힘을 넣어 설비마다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한와트의 전력, 한그람의 석탄, 한토막의 강재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빨리 늘어나는 사회주의대건설의 물질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모든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경제관리운영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기업관리운영에서 높은 조직성과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대로 객관적 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 요구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관리 규범과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이 관리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도록 그들을 적극 도와주며 원료, 자재, 설비부속품 공급과 수송조직을 비롯한 모든 보장사업을 제정된 규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높은 공산주의적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건설행군을 더욱 다그치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 소유의 발전방향과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

한 득 보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야말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혁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는 오늘 농촌테제를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협동적 소유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소유의 낮은 형태인 협동적소유는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결국에는 사회주의적소유의 높은 형태인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77페지)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수준을 높이며 나아가서 그것을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는 다같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집단주의는 소유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회관계가 전사회적인 공동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은 모든 물질적 부의 생산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조직진행하고 생산물도 전사회적으로 리용할 때 더욱더 강화되게 된다.

협동적 소유에서는 농업생산이 주로 개별적인 협동농장의 범위에서 조직진행되지만 농민들의 개인적 소비를 충족시키고 남는 농업생산물은 전사회적 수요충족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농업생산을 협동농장의 범위에만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점차 전인민적 소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조직진행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 문제해결의 기본고리, 기본방향이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수준을 높이며 결국에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 소유는 그것이 보다 높은 형태의 소유와 련결되여있는 특성과 관련하여서도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전인민적 소유에로 전환될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없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 소유는 오직 전인민적 소유와만 련결되여있으며 일상적으로 전인민적 소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보다 높은 소유형태와 련결되여있고 그 영향을 많이 받는 협동적 소유에는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발전방향, 전인민적 소유에로 전환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 소유가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결국에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는것이 사회주의적 협동적 소유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합법칙성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 소유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심으로써 협동적 소유의 정확한 발전방향이 명시되게 되였다.

협동적 소유가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것은 협동적 소유의 생산수단이 협동농장단위의 공동적 요구에 맞게 리용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맞게 리용되여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협동적 소유의 공동적 성격이 협동농장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점차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의 사회적 성격을 실현하는데로 접근할수 있으며 결국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수준을 높이고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경제관리는 소유관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그것은 소유관계의 변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경제관리와 소유관계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련관관계가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경제관리에 대하여 규제적 작용을 한다. 소유관계가 경제관리에 대하여 규제적 작용을 하는것은 생산수단이 그 소유자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리용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이 자신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리용되도록 관리 기구와 체계를 세우고 기업활동을 조직한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는 국가소유의 생산수단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 리용되도록 지도관리 체계와 방법을 세우고 전반적 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생산수단을 어떠한 제품생산에 어떻게 리용해야 한다는것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말할수 없다.

경제관리에는 소유관계와 함께 생산의 기술경제적 특성과 생산수단의 기술적 수준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들도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그가운데서도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소유관계이다. 경제관리에 작용하는 생산의 기술경제적 특성, 생산수단의 기술적 수준의 영향만 중시하고 소유관계의 규제적 작용을 소홀히 하면 소유 그자체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기능이 약화되게 된다.

경제관리는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제되는 동시에 소유관계의 변화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확립된 소유관계는 일정한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에 의하여 공고발전하게 된다. 소유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행정경제적인 규정이나 법적 조치는 많은 경우에 현존 소유관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는 달리 경제관리는 생산과 경영에서 소유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관계의 변화발전에 적극 작용한다. 그것은 경제관리가 소유담당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기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이 그 관리와 리용에 관심을 돌리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생산의 확대, 생산수단의 보다 빠른 갱신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그 소유에 의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이 빨리 장성하고 그에 따라 이미 가지고있던 생산수단이 보다 새로운것으로 갱신될수록 더욱더 공고발전하게 된다. 생산의 확대와 빠른 갱신은 경제관리에서 생산수단을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같은 생산수단을 리용하는 경우에도 그 관리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며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는 속도와 규모도 다르게 된다. 그것은 소유형태에 상응한 경제관리에서도 생산조직과 로동조직, 기술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방법들이 서로 다를수 있다는것과 관련된다.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이 째이고 기술경제적 조건이 개선될수록 생산수단의 리용수준이 높아지고 생산발전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은 일상적인 사회적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경제관리의 형태와 방법이 생산의 발전과 소유관계의 변화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제관리는 소유관계의 발전방향에도 영향을 준다.

모든 소유형태는 자기 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지고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나 협동적 소유는 아무리 공고한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에 맞게 소유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문제는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협동적 소유의 경우에 관리 체계와 방법을 개선할수록 생산수단리용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여 협동적 소유의 좁은 울타리를 전사회적 범위에로 성과적으로 넓혀나갈수 있다. 생산에 대한 지도관리가 소유관계의 변화발전에 주는 이러한 작용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더욱 강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적 소유를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협동적 소유의 발전방향과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식의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 로작들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과업,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으며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는 전제들이 더욱 튼튼히 마련되고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온 우리 당의 세련된 지도의 자랑찬 결과이다.

오늘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에 의하여 농촌경리의 기술장비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더욱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강화하여 협동적 소유를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결국에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여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가일층 계획화, 조직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지도의 강화, 모든 경영활동의 가일층의 계획화와 조직화, 바로 이것이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기본방향이며 경제관리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는 기본방향이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205~206페지)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가일층 계획화, 조직화하는것은 협동적 소유를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게 한다.

협동적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에 비하여 비록 사회화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농업생산력의 성격과 수준, 농민들의 준비정도에 맞는 소유형태이다. 때문에 협동적 소유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수단리용의 공동적 성격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협동적 소유의 사회적 성격, 공동적 성격을 강화해나가는 기본방향이 바로 기술지도의 강화, 모든 경영활동의 가일층의 계획화와 조직화이다. 그것은 계획화, 조직화, 기술적 지도가 가지고있는 본질적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농업경영활동을 계획화, 조직화한다는것은 협동적 소유의 생산수단을 협동농장범위에서 공동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협동적 소유로 되여있는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을 공동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영활동의 계획화, 조직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협동적 소유로 되여있는 생산수단리용의 공동적 성격, 사회적 성격은 보다 강화되게 된다.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는 토지의 성질, 농작물의 생물학적 요구 그리고 기계와 전기,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기술적 특성에 맞게 그 리용에서 과학성,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여 생산수단리용의 효과성을 높일수록 그 공동적 성격, 사회적 성격은 더욱더 강화되게 된다.

이처럼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에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가일층 계획화, 조직화하는것은 협동적 소유의 공동적인 리용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그 사회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경제관리수준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고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담보를 마련해주게 된다.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의 유기적 결합을 강화하는것이다.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을 개선하여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수준을 높이는것은 그것을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기는 하지만 협동적 소유는 그자체의 공고발전을 통하여 스스로 전인민적 소유에로 전환되는것이 아니다. 협동적 소유의 공고발전과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은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이며 주도적인 역할과 두 소유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서만 촉진될수 있고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의 련계는 경제생활의 여러 령역에서 이루어지지만 기본은 생산령역에서의 련계이다.

생산령역에서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에는 상품화폐관계를 통

하여 공업적 생산수단이 협동적 소유로 전환리용되는 상업적 형식과 공업적 생산수단이 국가소유로 있으면서 농업생산에 참가하여 협동적 소유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의 형식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있고 그것들사이의 생산물교환이 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공업부문에서 생산하는 이러가지 생산수단을 다 국가소유로 규정해놓고 농업생산에 참가시키는것은 효과적인것으로 되지 못한다. 생산수단가운데서 뜨락또르를 비롯한 중요한 기계설비들과 농기계들을 제외하고 간단한 소농기구나 화학비료, 농약 같은것들은 농업생산과정에서 그 가치가 인차 생산물에 옮겨지는것만큼 협동농장자체로 사다쓰게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농기계와 같은 생산수단들은 국가소유로 고착시켜놓고 농업생산에 쓰이게 하는것이 원칙이다. 만약 공업에서 생산된 크고작은 모든 생산수단들이 매매를 통하여 협동적 소유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에서 국가소유의 지도적 역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소유에 의하여 협동적 소유가 확대되는 결과가 조성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경향을 막고 농업생산에서 국가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옳바른 길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국가의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들을 내오고 그것이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과 물질기술적 수단들, 기술력량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게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농업지도체계에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생산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실현하는것을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하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 지도는 국가소유의 기계기술수단들이 협동적 소유에 적극 작용하게 하며 협동농장들에 상업적 형식으로 들어가는 화학비료, 농약 등도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게 한다. 이것은 기업적 지도를 실현하는것이 농업생산에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사상문화적 영향을 주어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자면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두 소유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업생산이 협동적 소유의 생산수단에 의하여서만 조직진행될 때에는 그 사회적 성격은 주로 협동농장의 범위에 국한되게 된다. 그러나 농업생산에 국가소유의 생산수단이 많이 참가할수록 협동적 소유의 사회적 성격은 협동농장의 범위를 벗어나 전사회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공업의 발전에 의하여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소유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빨리 늘어나면 협동농장의 농업생산에 참가하는 고정재산가운데서 협동적 소유의 비중은 점차 적어지고 전인민적 소유의 비중은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

농업생산에서 국가소유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늘어나고 그 역할이 높아질수록 국가소유에 대한 협동적 소유의 의존성은 커지고 농업생산의 국가적, 전사회적 성격이 강화되게 된다. 협동농장의 농업생산에서 전인민적 소유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들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농업생산이 좌우되게 될 때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것으로 된다.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국가의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실천적 경험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야말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의 유기적 결합을 강화하는 우월한 우리 식의 농업지도체계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바로 여기에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협동농장들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기술적 지도를 잘하며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방조가 원만히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들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모든 농기계들을 제때에 수리할수 있는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관리와 리용 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농기계작업소들의 작업계획을 협동농장의 생산계획과 밀접히 맞물려 정확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협동농장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협동농장들은 협동적 소유의 단위이다.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협동적 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전인민적 소유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제를 더 잘 마련할수 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협동농장관리운영규범을 철저히 지키며 기본생산단위인 작업반의 역할을 높이고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옳게 실시하며 농업생산의 장성과 협동경리의 공고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현실은 이 길만이 사회주의적 길이고 협동적 소유발전의 합법칙적 방향에 맞는 옳은 길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대풍작으로 빛내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그것은 더없이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이다. 당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

우리는 주체적인 농업지도체계와 협동농장관리운영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따라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수준을 높이고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교육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

최 금 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는 과학, 보건 사업과 함께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가 교육부문앞에 제시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유능한 혁명인재를 키워내는것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여 그들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은 우리 당이 교육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워내야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새세대들을 일반기초지식과 함께 현대적기술을 가진 문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일군으로 키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187페지)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부문에서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여 새 세대들이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객관세계를 인간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구체적 방법을 소유하며 로동수단을 만들고 리용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높이 지니도록 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현시기 교육부문에서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지녀야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인재로 될수 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은 사람이 힘있는 사회적 존재, 참다운 혁명인재로 되기 위한 품모와 자질의 두 구성부분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자면 반드시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지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을 담보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과정은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해나가기 위한 창조적 활동을 힘있게 벌릴수 없게 된다. 그것은 과학기술지식이 곧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은 그들의 육체적 힘과 함께 과학기술지식을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한다. 사람의

창조적 능력을 대표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소유한 과학기술지식이다. 과학기술지식은 사람들이 객관적 대상의 운동법칙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지식에 기초하지 않는 사람의 창조적 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과학기술지식은 사람의 창조적 능력을 이룰뿐아니라 혁명적 세계관 확립의 전제로 된다. 사람의 사상, 세계관은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의 본질과 운동법칙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해서만 성과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을 이루며 혁명적 세계관 확립의 전제로 되는 과학기술지식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며 또 저절로 높아지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과학기술교육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체득되고 높아지게 된다.

과학기술교육은 사람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인식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체득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안에 그들을 창조적 능력을 지닌 힘있는 사회적 존재,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게 한다.

물론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활동과정에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할수 있다. 그러나 실천도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전제로 하여야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키울데 대한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원만히 실현하자면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또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이 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현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분화와 전문화가 심화되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수많이 개척되고있으며 과학연구성과들이 경제건설분야에 광범히 도입되고있다.

현대과학기술수단에 의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세계경제발전의 기본추세이다.

기계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계공업분야에서는 고속도화, 정밀화, 경량화, 로보트화에로 나가고있으며 용접분야에서는 전자용접, 레이자용접, 로보트용접, 수중용접을 비롯하여 새로운 용접부문들이 끊임없이 개척되고있다.

전자공학의 빠른 발전으로 전자관과 반도체를 쓴 전자계산기의 세대를 거쳐 오늘은 대규모집적회로식 전자계산기의 세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1990년대 또는 2000년대에 가서는 초대규모집적회로식 전자계산기의 세대가 시작될것을 예견하고있다. 대규모집적소자의 출현과 반도체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로보트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계산기와 기계제작기술의 유기적인 결합의 산물인 지능로보트가 개발되여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보급됨으로써 생산공정이 자동화, 원격조종화되여가고있다.

생물학분야에서는 생물체의 생리생태적 기능과 전합성기구가 밝혀지고 시험관속에서 생명체를 합성해내고있다. 지금 이 분야에서 조직배양법을 도입하여 짧은 기간에 목적하는 새로운 생물품종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고있다.

열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수력이나 화력과 같은 제한된 동력원천을 리용하던데로부터 무궁무진한 태양에네르기와 해동력과 같은 대동력을 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참으로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날로 커지고있는 우리 시대는 사람들을 현대적 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과학기술의 새로운 분야들을 적극 개척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요구는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야 사람들의 전반적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이고 능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더 많이 키워냄으로써 시대의 추세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현시기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특히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멀리 전진하여 오늘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 있다.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더욱 튼튼히 건설하고 경영활동을 과학화하여야 하며 농업을 공업화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장비수준을 훨씬 높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풀어야 한다. 당면하게 우리는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혁명의 심화발전과 우리 당과 인민앞에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능력있는 일군들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우리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야 자체의 튼튼한 과학기술력량으로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고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는 문제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 여기에 새 세대들을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우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선진수준에 이르게 하며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교육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교육사업전반에 확고히 보장됨으로써 사람들을 힘있는 창조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나라의 과학기술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맞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힘있는 사회적 인간,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도록 교육 체계와 내용, 방법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였으며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수준이 체계적으로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오늘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교육사업은 오늘 높은 수준의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훌륭히 실시하고있으며 244개의 각종 대학들에서 새 세대들이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로 훌륭히 자라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새 세대들이 중등일반교육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소유하고있으며 고등교육을 통하여 130여만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튼튼히 키워졌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배우며 발전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이다. 이것은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더없는 자랑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 과학기술교육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임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교육부문앞에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인민교육사업과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2페지)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중등일반교육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일반과학지식과 전문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할수 있는 기초를 닦아준다.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학생들에게 과학기술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의 전반적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며 고등교육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기초가 닦아지는가 못닦아지는가 하는것이 중요하게 좌우되게 된다.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새 세대들이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하여야 대학들에서 쓸모있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잘 키워낼수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과학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들에서 학생들의 나이와 지적 발전수준에 맞게 교육내용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그들에게 현대 과학과 기술을 체득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아주며 풍부한 일반지식과 예술적 기량, 건장한 체력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교육과 예능교육,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편성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모든 학생들이 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현대생산과 결부된 기초기술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가지며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생산과 건설에 널리 쓰이는 기계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중등교육단계에서 뛰여난 과학적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적극 찾아내여 체계적으로 키우는것이 중요하다.

집단의 발전을 보장하면서도 개성의 발전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우리는 학생들의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 키워주어 남다른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현대과학기술의 최첨단을 개척해나갈 과학기술핵심으로 믿음직하게 키워내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고등교육부문에서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빨리 높이며 최신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며 최신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전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나가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 내용을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바로 편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기술기초교육을 강화하는 조건에서 전문기술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이도록 과학기술교육내용을 편성하는것이다.

기술기초교육은 전문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주기 위한 교육이다.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원리를 학생들에게

깊이있게 체득시켜야 그들이 최신과학기술을 더 잘 소유할수 있고 대학기간에 완성된 전문지식을 소유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기초교육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전문기술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대학들에서는 전공학과들을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대학들에서는 또한 해당 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과학기술발전의 최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전문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고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대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실험실습교육과 설계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자연과학기술부문 학과들의 실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험실들을 훌륭히 꾸리고 현대적인 실험수단들과 전자계산기를 리용하게 하며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실습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기술대학들에서는 설계교육에 큰 힘을 넣어 학생들이 어떤 설계도면이든지 다 자유롭게 보며 여러가지 현대화된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훌륭히 창안설계할수 있도록 교육수준을 높이며 그들을 현행설계과제를 수행하는데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

대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데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요구에 맞게 공장대학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들을 체계적으로 늘이고 그 교육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외국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빨리 높이며 나라의 대외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중등교육단계에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외국어를 기본적으로 소유하도록 하며 대학에서 제1외국어를 완성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어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에게 외국어학습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 동시에 필요한 학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교육사업의 중요한 원칙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우리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울수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과학기술교육은 옳은 교육방법에 의거하여야 그 질을 더욱 높일수 있다. 아무리 교육내용이 훌륭하고 원칙이 혁명적인것이라 하더라도 과학적인 교육방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교육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고활동을 적극화할수 있도록 교수 조직형식과 방법을 개선하며 대학생들을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참가시켜 그들이 과학연구의 방법론을 체득하고 창조적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널리 진행하

며 낡은 시험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배운 내용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과 그 응용능력을 위주로 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방향에서 시험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는것은 학교교육을 높은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고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그러므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교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교육사업의 성과여부는 그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을 어떻게 키우며 그들의 자질을 얼마나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교원들이 혁명적 세계관,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지식에 정통하여야 후대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울수 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원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교원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교원양성사업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사범교육을 강화하는것이다. 사범교육은 원종을 키우는 교육이다. 어미닭이 좋아야 좋은 병아리를 키울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범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야 그들이 학생들을 잘 교육할수 있다.

수준이 높고 능력있는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하여서는 사범교육부문의 교육강령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좋은 학생들을 대학에 받아들여 그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의 연구원과 박사원에 보내여 전공과목 특히 최신과학기술분야의 교원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유능한 교원들을 키워내는것과 함께 그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곧 학생들의 학과실력으로 나타나며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자면 그들속에서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습을 정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들에서 교수사업을 과학연구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 조직진행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의 과학리론적 자질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교육의 물질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오늘 교육부문의 물질적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교육설비와 수단에 대한 요구수준이 더욱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데 맞게 교육수단과 필요한 여러가지 물질적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어주며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교육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교육행정기관들의 지도적 기능을 높이는것은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은 당의 교육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며 교육행정기관들에서는 학교사업을 정규화하고 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능력있는 혁명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할것이다.

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

리 종 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이미 마련하여놓은 우월한 인민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들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고 증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의학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보건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인민보건사업을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

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혁명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사업입니다.》

보건사업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튼튼한 체력과 위생문화적인 생활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장한 체력이 겸비되여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아무리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재능을 가지고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원만히 할수 없다. 사람은 건강하여야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위생문화적인 생활 환경과 조건은 사람들의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정한 생활 환경과 조건에서 살게 된다. 사람을 둘러싸고있는 생활 환경과 조건은 그들의 건강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 비위생문화적인 생활 환경과 조건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구속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파괴하며 질병을 발생시킨다.

사람들은 위생문화적인 생활 환경과 조건이 충분히 보장되고 질병이 없이 건강하여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으며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면 보건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보건사업은 사람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인 질병의 구속,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건강을 담보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질병을 제때에 예방하고 위생문화적인 생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는 인민보건사업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영예로운 사업으로 된다.

보건사업은 또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문명화수준을 높임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튼튼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건설의 기초로 된다. 사람이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적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사

회적 전진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다.

보건사업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특히 보건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문화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문화혁명수행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비위생적이며 비문화적인 생활관습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이다.

보건사업은 근로자들속에서 전염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을 없앨뿐아니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위생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한다.

그러므로 보건사업은 혁명과 건설 특히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비위생적이며 비문화적인 생활관습과 문화적 락후성을 없앰으로써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매우 보람찬 혁명사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생활과 혁명과 건설에서 보건사업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인민보건사업의 발전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히시고 그 성과적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인민보건사업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였으며 해방후 우리나라의 보건사업은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초석으로 하여 눈부시게 발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그것은 그후 더욱더 발전하여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로 전변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보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우리 당의 보건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됨으로써 보건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인민보건법에 의하여 더욱 공고화되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법적 담보밑에 더 잘 보호되고 증진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보건법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있다.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의료봉사체계가 세워지고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와 전문화된 치료예방기관이 튼튼히 꾸려져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의료상 혜택을 받고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보건사업의 전반적 수준이 한계단 높아짐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의 평균수명은 74.3살에 이르게 되였으며 우리나라는 점차 누구나 병을 모르고 오래사는 무병장수의 나라로 되여가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의학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은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인민대중이 나라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보람찬 생활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보건사업이 노는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있다.

보건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야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며 의료봉사조건을 더욱 원만히 마련해줌으로써 건강과 장수에 대한 그들의 념원을 더 잘 실현시킬수 있다.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거창한 자연개조사업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고 생산과 건설이 방대한 규모에서 확대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이에 맞게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 그들의 창조적 의욕과 로동생산능률을 더한층 높이며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공업부문에서 끊임없이 도입되는 새로운 원료, 동력, 기술수단들이 인체와 자연환경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위생학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더 잘 마련할수 있다. 보건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고 당의 보건정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인민보건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감으로써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심적인 과업은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예방치료사업의 질을 훨씬 높이고 보건 시설과 설비를 더욱더 현대화하며 보건경영활동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이다.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예방의학적 방침은 사회주의의학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인민보건사업의 기본방침이다.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 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이다.

우리는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타날수 있는 온갖 유해요소와 여러가지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고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살아야 할 우리의 생활환경을 더 잘 꾸려나가야 한다.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기본은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려면 위생방역기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은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초기지이며 위생방역사업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담당자이다.

보건부문에서는 위생방역기관들을 현대적 시설과 설비들로 잘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예방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위생방역규률과 검열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공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은 단순한 기술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인 사업이다.

위생방역기관들에서는 환경보호법의 요구에 맞게 공해감시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위생실험분석사업의 전문화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은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질병을 낳을수 있는 사회적 근원이 완전히 없어졌으며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던 무서운 질병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속에 낡은

생활습성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소홀히 할수 없다.

질병을 미리 막자면 예방원식 의료봉사를 잘하여야 한다. 예방원식 의료봉사는 병을 미리 막거나 제때에 찾아내여 없애기 위한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구강예방원을 비롯한 모든 예방원들을 더 잘 꾸리며 치료예방기관들에서 예방원식 의료봉사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위생선전사업은 대중을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여 병을 막기 위한 사업을 광범한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대중의 문화수준이 높아진 오늘의 조건에 맞게 위생선전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고 대중위생선전을 활발히 벌리며 병없는 리를 만드는 운동을 비롯하여 대중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예방의학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적인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우리는 의사수가 많이 늘어나고 인민들의 건강상태가 훨씬 좋아진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심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의사대렬이 늘어나는데 따라 의사담당구역제를 점차 20호담당제, 10호담당제로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5호담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또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의료봉사사업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온 나라가 조밀한 의료망으로 뒤덮여있고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전체 인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봉사를 받고있는 오늘 의료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주되는 과업은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의학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현실에 맞게 진단과 치료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보건부문에서는 새로운 림상검사방법과 기능진단법, 장기이식과 미세수술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앞선 진단치료방법을 치료예방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최신의학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한 새로운 의약품과 현대적 기술기구들을 도입적용하여 진단과 치료 수준을 더한층 높여야 한다.

동의학적 방법과 신의학적 방법을 옳게 배합하는것은 치료예방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치료예방사업에서 동의학적 방법과 신의학적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야 동의학과 신의학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 환경과 습성, 체질적 특성에 맞는 옳은 치료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일수 있다.

우리는 동의학적 진단과 치료 방법을 더욱 과학화하고 신의학적 진단과 동의학적 치료를 잘 배합하는 한편 보건일군들의 동의기술수준을 높이고 동약의 약물형태를 개선하며 민간료법을 체계화하여 치료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은 의학발전추세에 맞게 의료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치료예방사업의 과학기술적 수준과 그 효과를 높이는 기본방도이다. 우리는 의학과학기술발전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의료봉사를 전문화하기 위한 순차와 단계를 바로 정하고 필요한 전문병원들과 각급 병원의 전문과들을 더 잘 꾸리며 전문과의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여 치료예방사업을 계통별 전문화로부터 장기별, 질병별 세부전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료양의료봉사를 강화하며 회복치료부문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

어야 한다. 온천과 약수 지대들에 료양의료봉사시설을 더욱 늘이며 자연치료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병원들에 회복치료과를 조직하고 일부 료양소를 회복치료전문료양소로 개편하여 회복치료부문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의료봉사조직을 개선하는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치료예방기관들에서는 외래의료봉사와 구급의료봉사를 더욱 개선하며 탄광, 광산을 비롯한 산업지구와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강화하며 어린이들과 녀성들, 로인들의 건강관리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탁아소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도, 시, 군들에 어린이식료공장들을 꾸리고 각종 남새와 과일 가루를 비롯한 어린이성장발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탁아소들에 충분히 공급해주어야 한다.

병원을 잘 꾸리고 현대화하는것은 의료봉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우리는 각 도에 있는 의학대학병원을 비롯하여 병원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시, 군 인민병원들과 리인민병원들을 잘 꾸려 의료봉사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의료봉사수준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훨씬 줄여야 한다.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또한 중요한것은 의학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보건일군양성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이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보건사업실천에서 절박하게 나서고있는 당면한 의학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나라의 공업발전전망에 맞게 환경공해를 방지하고 로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위생학적 대책을 바로세우며 동의학을 과학화하고 효능높은 의약품과 현대적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의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분야를 적극 개척하며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보건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의학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의학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의학과학기술자들속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또한 치료예방기관이 늘어나고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맞게 보건일군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현직보건일군들에 대한 재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능력있는 보건일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현시기 보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고리는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을 늘이는것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을 늘여야 보건 기구와 설비를 현대화하고 예방치료사업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의 생산을 늘이고 제약 및 의료기구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여 늘어나는 의약품과 의료기구에 대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는 시, 군들에 약초를 가공하여 동약을 생산하는 지방제약공장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약물형태를 개선하여 먹기 좋고 쓰기 편리한 효능높은 동약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보건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보건일군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꾸준히 벌려나가는것이다.

보건일군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당의 믿음직한 보건전사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의료일군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지니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 높은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가지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의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의료일군들은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의료봉사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의료일군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활동하는가 하는데 따라 의료봉사사업의 성과가 좌우된다. 의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치료예방사업을 잘 해나갈수 없다.

의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환자에 대한 정성을 다하도록 하는것이다.

정성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 풍모이다. 우리는 의료일군들속에서 정성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환자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치료예방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일군들속에서 림상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의료봉사수준은 림상기술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의료일군들이 림상기술수준을 높여야 병을 바로 진단하고 제때에 치료할수 있다.

우리는 의료일군들속에서 혁명적 학습기풍과 기술학습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자기의 전공분야에 정통하게 하여 그들이 높은 의술로써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한 중요한것은 보건행정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이다.

우리는 보건행정부문에서 정연한 보건행정지도체계를 세우고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며 보건행정규률을 강화하고 국가의 보건법과 규정들을 정확히 집행하며 지금 있는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보건기관들의 경영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광범한 대중을 보건위생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보건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인 동시에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지역안의 기관기업소와 사회단체들에서 보건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며 전군중적 운동으로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비롯한 보건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보건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참으로 무겁고도 영예로우며 보건부문 일군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

보건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내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고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야 할것이다.

당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창작가, 예술인들의 영예로운 과업

리 봉 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여기에서 문학예술작품, 특히 당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린 문학예술작품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에 대한 문학예술작품은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널리 선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을 끝없이 신뢰하며 당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충성 다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당의 은덕을 잊지 않고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나가도록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한다.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위대성 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자면 이 주제분야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오늘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과업입니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이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문학예술로서의 전투적 사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통일체를 이룬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한 근본조건은 당과 수령의 령도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인민대중은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이다.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로동계급의 당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그것은 당이 수령을 최고뇌수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있기때문이다. 당은 대중을 수령과 혈연적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당은 수령의 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고 혁명조직에 묶어세움으로써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시킨다. 당은 대중을 수령이 제시한 사상과 로선,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한다. 당의 이러한 역할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혈맥을 잇게 되며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며 그 생명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게 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일반주제의 작품들도 례외없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

을 빛내이는데 이바지한다. 특히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있는 당의 지위와 역할을 생활적으로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몸바쳐나서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영예로운 사업으로 된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이 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옳게 실현해나가게 할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하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나라에서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친 원대한 구상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의 나날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전진하고 그 승리와 성과가 크면 클수록 그에 질겁한 적들의 공세는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우리와 직접 맞서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새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싸워나가게 한다. 또한 사람들은 작품에 형상된 생활화폭을 통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에 넘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 것은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으로 된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이 작가, 예술인들의 영예로운 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우리 당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렸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 혁명적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있으며 열렬한 존경과 흠모를 반

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모시게 된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더 없는 영광이며 행복이며 자랑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예술작품에 담아 격조높이 칭송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인민대중의 지향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은 작가, 예술인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최대의 충성심을 담아 가장 훌륭하게 형상해냄으로써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이처럼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주체의 문학예술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문학예술로서의 전투적 사명을 더 잘 수행하고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영예로운 과업으로 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이 가지는 의의와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주제분야의 작품을 더 훌륭하게,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다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사상미학적 요구는 그 형상의 폭과 깊이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위대성이 매우 폭넓고 다면적이며 내용에서 깊고 심오하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위대성을 옳게 보여주자면 무엇보다도 형상의 폭을 넓히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위대성은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에 있다. 그러므로 이 주제분야의 작품창작에서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돌려주고있는 사랑과 믿음, 배려 등 은덕일면에 치우쳐 형상한다면 우리 당의 위대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폭넓게 체득시킬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물론 당의 은덕을 노래한 문학예술작품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있으며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있다. 당의 은덕에 대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은덕을 늘 잊지 않고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도록 교양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당의 위대성의 폭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의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의 은덕일면만을 노래하여서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완벽하게 형상해낼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체득시킬수 없게 된다.

당의 위대성을 잘 형상하자면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의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지 말고 그 전반을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여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당의 위대성을 잘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또한 이 주제분야의 모든 작품들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이 주제를 취급하고있는 모든 작품들이 그 주제사상적 지향에서나 예술적 형상에서 인간학적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독창적이고 철학적인 종자를 골라잡고 잘 꽃피우는것은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심오성과 인간학적 요구, 그 가치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원칙적 문제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은 예외없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에서 소재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하고 숭고한 풍모가 그대로 체현되여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에서 선택한 혁명사적은 그자체만으로써도 커다란 감화력을 가

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러나 문학예술작품은 혁명사적의 그대로의 기록이나 반영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그 문학예술작품은 자기의 고유한 본성을 살릴수 있으며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줄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빛나게 실현시킬수 있는 관건적 고리가 바로 작품의 핵으로 되는 철학적인 종자를 발견해내는데 있다. 창작실천은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독창적이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틀어쥐지 못하고 창작한 작품들은 례외없이 회상실기나 덕성실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실로 당의 위대성을 형상적으로 구현할수 있는 종자를 발견해내는것은 이 주제분야의 작품들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의 인간학적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력사적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창작하는것이 중요하다. 력사적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형상하여야 한다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력사에 기초하며 거기에 의거하여 형상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성형상의 소재로 되는 력사적 사실자체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은 력사문헌적 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실재한 력사적 사실자료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원칙적 문제로 된다. 따라서 이 주제분야의 작품창작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사적에서 소재를 선택하게 되는것만큼 그 어느 하나의 사건,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대하여야 하며 그 사건, 사실들의 본질과 의의를 빛나게 부각하여야 한다. 실재한 력사적 사실자료에 기초한 형상의 진실성, 이것은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성과 인간학적 품격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당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요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문학예술작품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여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풍부화시켜나가시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은 영광스러운 과거와 오늘에 이어 찬란한 래일에로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최근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애독되고있는 장편소설 《아침해》는 이것을 웅변으로 시사해주고있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은률광산장거리벨트콘베아 건설을 발기하시고 힘있게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폭넓게 감동적으로 형상한 첫 장편소설이다. 소설에는 은률광산의 버력처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이 주어져있다. 소설은 그 인간들의 운명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무비의 담력과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등을 실생활에서처럼 여러모에서 훌륭하게 보여주고있다.

그밖에도 서정시 《어머니》, 가요 《당중앙의 불빛》, 《내 언제 다 알가》, 서사시 《불타는 해》 그리고 적지 않은 단편소설들이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게 창

작되여 우리 당의 위대성을 칭송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룩한 가장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으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귀한 영상을 서사시적 화폭에 정면으로 정중하게 모심으로써 위대성의 전모를 여러 측면에서 잘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건설과 경제건설, 문화건설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전개된 화폭속에서 격조높이 칭송할수 있다.

이와 함께 창작가, 예술인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을 널리 리용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을 널리 리용하는것은 이 주제분야의 창작사업을 더욱 본격화하고 활발히 벌리기 위한 담보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모든 문학예술형태의 특성을 잘 살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널리 리용함으로써 이 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서사적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창작에 큰 힘을 돌려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시대와 혁명의 절실한 요구이며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 창작은 매우 보람차면서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사상예술적 수준에서나 그 품격에서 일반주제의 작품에 비길수 없이 높은 경지에 이를것을 요구하는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창작은 아무 창작가나 쉽게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지니고 굽임없이 자기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며 사색하는 작가, 예술인들만이 담당수행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 자질이 높아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활동사적과 불멸의 업적의 그 어느 한 갈피에서도 문학적인 종자를 골라잡을 수 있으며 거기에 깃들어있는 빛나는 예지와 숭고한 풍모를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그려낼수 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고 주체사상학습과 주체적 문예사상학습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울수 있으며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전공부문의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깊은 지식과 높은 예술적 기량을 소유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위대한 현실을 똑똑히 볼수 있고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그속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꽃피울 수 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창작해내는것은 우리 당이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면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일으키던 때의 그런 정신, 그런 기백으로 창작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기적과 혁신으로 200일전투의 나날을 수놓아가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욱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시당위원회의 지도

김 태 복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앙양된 열의속에서 200일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200일전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제3차 7개년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앞당기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전투이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례없이 거창하고 방대한 규모에서 벌어지는 력사적인 전투이다.

우리앞에 나선 200일전투목표는 거창하고 방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훌륭히 해낼수 있는 모든 조건과 담보를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탁월한 령도력과 비상한 조직력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총동원하여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오랜 기간 간고분투하여 마련해놓은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한 토대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 군 당위원회들이 당의 령도밑에 200일전투를 어떻게 조직하고 지도하는가 하는데 전투의 승리와 성과여부가 중요하게 달려있다.

김책시당위원회는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일정한 경험을 체득하였다.

200일전투를 벌려나가는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가 새로운 높이에서 확립되였다. 200일전투의 세찬 불길속에서 중앙공업과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매달 생산계획이 넘쳐수행되고있다.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와 생산과 건설에서 이룩된 혁신적 성과들은 당의 령도밑에 시당위원회가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시당위원회의 지도에서 우리가 힘을 넣은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에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도록 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200일전투를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200일전투가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자면 사회적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야 온 사회가 200일전투로 들끓게 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이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명적 자각을 가지고 20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200일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

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밀고나가자면 그 직접적 담당자인 사람부터 움직이고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일은 사람이 하며 전투는 대중이 담당수행한다.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모든것은 사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상이 힘을 낳고 기적을 창조한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혁명적 열의와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거대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켜야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시당위원회는 모든 선전선동 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200일전투의 의의와 목적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도록 하였으며 선전선동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이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지향되고 복종되도록 하였다. 우리는 선동연설이나 해설담화가 필요할 때에는 구두선동을 감동적으로 들이대도록 하였으며 구호나 전투속보를 가지고 생산의욕을 북돋아주어야 할 때에는 박력있게 직관선동을 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선동과 해설담화를 작업반이나 분조성원들을 다 모여놓고도 하고 두세사람 모인데서도 하며 일터에 나갈 때에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하며 일하면서도 하고 쉴참에도 하는 식으로 때와 장소를 가림이 없이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치사업은 사회에 들끓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긍정적 작용을 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높은 혁명적 열의와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200일전투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였다.

전투과정에 창조된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본받게 하는것은 200일전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시당위원회는 200일전투를 잘하고있는 전투원들의 모범을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가 성진내화물공장에서 혁신자들을 축하하고 고무하기 위하여 진행한 다양한 사업은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200일전투의 성과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개선전하는 한편 퇴근시간마다 혁신자축하모임을 조직하였으며 혁신자들을 환영장식을 한 뻐스에 태운 다음 그앞에 방송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거리와 가두마다에서 그들의 모범을 소개선전하고 그들처럼 200일전투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될것을 격동적으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실효도 컸으며 반영도 좋았다. 축하를 받는 당사자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가족, 친척들에게도 고무를 주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강한 자극을 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온 시가 200일전투의 분위기로 들끓게 하였으며 사람들모두가 저절로 마음이 동하고 힘이 용솟음쳐 스스로 200일전투의 벅찬 투쟁속에 뛰여들게 하였다.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을 내세우고있는 200일전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견결히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모든 전투원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목숨으로 지켜싸운 1211고지의 영웅적 방위자들의 불굴의 투지로 200일전투를 다그쳐나가게 하는것이 중요하였으며 그들이 지녔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투쟁을 벌려나가게 하는것이 필요하였다.

시당위원회는 시앞에 제기된 아름차고 방대한 전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의 하나를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서 찾고 여기에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우리는 1211고지전투에서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용감히 싸운 전시공로자들을 준비시켜 원쑤들과의 치렬한 격전을 벌리던 당시의 체험담을 가지고 이야기모임을 조직하였다. 이야기모임은 회의실과 회관에서도 진행되였고 공장의 기대옆과 농장의 포전, 수산사업소의 배전에서도 벌어졌다. 그것은 광범한 군중속에서도 계속되였으며 학교의 강당에도 이어졌다. 이야기모임에서 전시공로자들은 지금은 총포성이 울부짖는 전시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나 1211고지의 영웅적 방위자들이 지녔던 그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어렵고 힘든 과업이 제기되고 난관과 애로에 부닥칠 때마다 영웅조선의 기상과 불굴의 힘을 과시한 1211고지의 용사들처럼 신심과 락관에 넘쳐 싸워야 한다는 그들의 절절한 호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놓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으며 사람마다의 가슴에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다.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게 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완강한 전투를 벌리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사상을 발동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정치사업이 구체적 실정과 계기에 맞게 진행되여야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줄수 있으며 그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게 할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실천적 경험은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갈 때 광범한 대중이 200일전투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할수 있으며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 혁신의 선구자가 되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시당위원회의 지도에서 우리가 힘을 넣은 중요한 문제는 당조직을 움직이고 당원들을 적극 발동하도록 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이 움직이고 전체 당원대중이 발동되여야 전투가 활발히 벌어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당조직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다 조직되여있다. 군중이 있는곳에는 당원이 있고 당원이 있는곳에는 어디에나 당조직이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바로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는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조직되여있고 대중이 있는 모든곳에 혈맥처럼 뻗어있는 당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당원들이 적극 발동되여야 당의 구상과 의도가 빛나게 실현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질수 있다.

당조직을 움직이고 당원들을 발동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장악과 통제는 당적 지도실현의 기본형식이며 당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가르쳐주고 도와주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것이 지도인것만큼 아래에 대한 장악과 통제가 없이는 지도가 이루어질수 없다. 지도는 항상 장악을 전제로 하며 통제를 동반하게 된다. 장악과 통제를 잘하여야 아래당조직들의 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편향과 부족점을 제때에 바로잡아주면서 실속있는 지도를 할수 있으며 당조직들을 활발히 움직이고 당원들을 적극 발동하여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이로부터 시당위원회는 200일전투를 포치한 다음 그 추진정형을 하부담당 지도원들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었으며 이러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켰다. 우리는 아래당조직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담당 지도원들을 통하여 료해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당의 책임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료해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사업에 일상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이와 함께 모든 부서들이 담당한 단위의 200일전투진행정형을 책임적으로 장악통제하도록 하였으며 부서들사이의 배합 및 협동 작전을 긴밀히 하여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편향들이 제때에 종합되도록 하였다.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이 자기 역할을 바로하도록 잘 도와주는것은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공장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공장당위원회이다. 공장당위원회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200일전투의 성과가 좌우된다.

시당위원회는 자료를 종합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일정한 력량을 파견하여 아래당조직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에 의하여 200일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공장당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였다. 시당위원회가 자전거공장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200일전투가 벌어지고있던 초기에 자전거공장에서는 전투가 힘있게 조직전개되지 못하고있었으며 생산도 정상화되지 않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게 된 우리는 책임일군을 비롯한 여러명의 시당일군들을 내려보내여 공장당조직을 도와주게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넣은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가 철저히 200일전투의 성과적 보장에 지향되고 복종되도록 초급당조직을 이끌어준것이다.

당생활이란 당원이 당에서 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는 목적도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시당위원회는 초급당위원회로 하여금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생활을 지도하는 모든 고리들이 200일전투의 성과적 수행과 옳게 결부되게 하는데 심중한 당적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는 개별담화와 당학습, 당적 분공, 당생활총화를 비롯한 당생활지도의 모든 고리들에서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이 200일전투와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도록 하였다. 특히 당원들이 당생활총화에서 200일전투과제수행정형을 놓고 자기의 조직사상생활을 총화하며 호상비판도 전투과제수행에서 나타난 결함을 놓고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0일전투과제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정형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당적 분공도 200일전투의 성과적 수행에 이바지할수 있게 주도록 하였다. 결과 당조직이 활발히 움직이고 일군들이 분발해나섰으며 당원들이 발동되였다. 이리하여 자전거공장에서는 200일전투가 활기를 띠고 벌어지게 되였으며 전례없는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고 매달 생산계획이 넘쳐 수행되고있다.

실천적 경험은 시당위원회가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정형을 철저히 장악통제하고 그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줄 때 당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당원들이 적극 발동되여 200일전투에서는 커다란 혁신적 성과들이 이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시당위원회의 지도에서 우리가 틀어쥐고 나간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이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휘하며 그들이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당이 제시한 200일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당이 제시한 200일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은 당의 령도밑에 지도일군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휘되며 포치되고 지도된다. 그런것만큼 200일전투가 해당 지역, 해당 단위에서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그것을 조직지도하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200일전투를 실속있게 조직지휘하며 총화와 재포치 사업을 심화시켜 전투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는것이다.

200일전투를 벌려나가는 과정에는 우결함이 나타날수도 있으며 경험과 교훈도 얻게 된다. 따라서 진행한 전투를 제때에 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할수 있고 일군들에게 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줄수 있으며 련이어 제기되는 새로운 과업들을 언제나 훌륭한 성과로 결속할수 있다.

시당위원회는 200일전투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일군들에게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직관물을 리용하여 진행한 총화는 그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다. 우리는 200일전투과정에 이룩된 공장, 기업소별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도표와 직관물을 준비한 다음 과학적인 통계와 수자를 가지고 총화를 진행함으로써 일군들에게 많은 자극과 신심을 줄수 있었다.

사업총화는 결코 일반적인 지적이나 강조로써는 실속있게 될수 없다. 사업의 성과를 현물로 보게 될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큰 자극을 주게 되고 새로운 신심과 분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우리는 해당 부문 일군들을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200일전투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직접 보게 하는 방법으로 총화의 실효를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총화과정은 많은 일군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200일전투를 확신성있게 밀고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생활은 구체적인 준비에 기초하여 실속있게 하여야 총화사업이 일군들에게 할수 있다는 신심과 해내고야말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200일전투의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생산과정은 원료, 자재가 가공처리되여 생산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때문에 생산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원료, 자재가 제때에 보장되고 공급되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고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그런데 성진내화물공장에서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원석이 제때에 보장되지 못하여 생산에 지장을 받고있었으며 200일전투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있었다. 일군들이 책임지는 립장에서서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 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하였다.

방도는 과학적이여야 하며 실천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의견에 기초하고 집체적 협의를 강화할 때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고 정확한 방도를 찾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우리는 로동자들속에 들어갔다. 공장합숙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호흡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전후복구건설시기 우리 인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맥을 놓지 않았으며 수송이 딸리면 등짐으로 져나르면서도 다발을 몰랐다, 자재가 없으면 깊은 땅속에 파묻혀있는것까지 다 찾아내서라도 기어이 계획과제를 해내고야말았다, 우리모두 이런 정신, 이런 투지와

기풍으로 예비를 찾아내고 조건을 마련해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한편 우리는 초급일군들과 협의도 하고 기술자들도 만났으며 당원들과 담화도 하였다. 방도를 찾고 예비를 동원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였다.

어떻게 하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를 빛나게 관철하여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려고 아글타글 애쓰며 이악하게 뛰여다니는 책임일군들의 진심이 사람들의 심장의 벽을 두드리고 마음을 움직였다. 시당책임일군들의 자세와 절절한 호소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자각하게 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저마다 결의를 다지며 나섰고 창발적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분광을 회수하여 다광을 빚어 소성하는 방법으로 원료를 보충하자는 발기가 나왔고 립광을 선별하여 원료로 쓰자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도처에서 혁신적 방도가 제기되였고 막대한 예비들이 쏟아져나왔다. 실로 예비는 조직사업에 있고 힘과 지혜는 군중에게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부족되는 원료를 자체로 보충하면서 내화물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었으며 200일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현실은 일군들이 무슨 과업이 제기되면 조건타발부터 앞세울것이 아니라 자력갱생하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방도가 생기고 예비가 솟아나며 그 어떤 아름찬 과제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것은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당의 일군들의 전투적인 일본새이며 200일전투를 앞장에서 이끌어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지도작풍이다.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실천행동이 더 큰 호소력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지도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실천적 모범을 보여야 대중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일군들의 호소에 광범한 군중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적극 호응해나서게 할수 있다.

김책선박공장에서 4월말 배무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지도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이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김책선박공장에서는 용접이 딸려 전투과제가 미달되고있었으며 배무이속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있었다. 현장에 달려나간 일군들은 용접공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도 하고 걸린 문제도 발벗고 나서 풀어주면서 배무이전투에 달라붙었다. 시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지도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은 사람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으며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그들을 고무추동하였다. 시급 기관 일군모두가 200일전투의 중요한 단위에 달려나갔고 기관, 기업소 종업원전체가 떨쳐나섰다. 사로청원들과 직맹원들이 궐기하였고 상업, 편의봉사, 사회급양 부문 일군들이 분발해 나섰다. 온 시가 월말전투로 들끓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긴장한 계획과제를 앞당겨 수행하면서 200일전투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우리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지도일군들이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안되는 일, 풀리지 않는 문제란 없으며 지도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에 비할바없는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경험은 지도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몸을 적시면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곳에서는 언제나 커다란 혁신과 거대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고 200일전투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비해볼 때 극히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앞에는 아직도 방대한 전투과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적 지도를 계속 강화하여 200일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결속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는것으로써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나갈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자

박 제 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와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가 발표된지 열다섯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들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로골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 앞에 영구분렬의 위험이 닥쳐왔던 시기에 발표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70년대초에 북과 남사이에는 우리측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인도주의회담의 형태로나마 대화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으며 뒤이어 적십자본회담과 조절위원회 회담들이 여러차례 진행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북남대화들이 진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완화와 화해의 기운이 조성되고 우리 인민앞에는 조국통일의 서광이 비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들은 민족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도래한 긍정적인 사태발전을 귀중히 여기면서 이러한 추세가 확대발전되여 자주적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려지기를 한결같이 기대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 완화와 화해를 바라지 않고있던 남조선괴뢰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대화장안에서 지연전술을 쓰고 대화장밖에서 대결과 전쟁 책동을 강화해오던 끝에 1973년 6월에 와서 《두개 조선》 조작을 공공연히 《정책》으로 선포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이 《6.23특별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모처럼 도래했던 완화와 화해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우리 인민앞에는 영구분렬의 위험이 조성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남조선괴뢰들의 범죄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영구분렬의 위험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놓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통일이냐 영구분렬이냐 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영구분렬의 위험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히시기 위하여 1973년 6월 23일과 25일에 력사적인 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와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를 련이어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들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 조국통일 5대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다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며 우리 인민에게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투쟁의 기치이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5대

방침에서 천명하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한 방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8권, 387페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 요구이다.

민족적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낳는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거기에서 기본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다.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되여있고 전쟁위험이 떠도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할수 없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속에 칼을 품고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겠는가고 의심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선의도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없으며 실지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신의있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수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북남대화의 경험이 실증해주는 객관적 현실이다.

1970년대초부터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였으며 일련의 결실도 이룩되였다.

그러나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날을 따라 더욱 악화되고있으며 대화와 협상도 처음부터 우여곡절을 겪던 끝에 중단되고말았다. 이렇게 되게 된것은 주요하게는 북과 남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태와 긴장상태가 극도로 첨예화되여있는데 기인된다.

그러므로 북과 남이 오해와 불신을 풀고 민족적으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가자면 반드시 군축을 실현하여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며 당면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또한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와도 관련된다.

우리 인민뿐아니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려하고있는바와 같이 오늘 조선반도는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집결된 가운데 오래동안 지속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는 쌍방사이의 적대감을 끝없이 조장시키고있으며 그것이 쌓이고쌓여 오늘에 와서는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전면전쟁,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 핵전쟁 위험은 최근년간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이 발악적으로 강행하고있는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래일의 문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되고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여있는 조건에서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은 명백하며 조선경내를 벗어나 아세아와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확대되

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에 대하여 말할 수도 없게 될것이며 우리 민족은 돌이킬수 없는 핵참화를 피할 길이 없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자면 무엇보다먼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실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계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과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5대방침을 천명하신 이후 북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와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3자회담제안을 내놓았으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문제를 우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수 있는데까지 풀어나가려는 념원으로부터 1985년 4월에는 북남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국회회담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여 미군이 철거하고 북과 남의 무력이 축소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의 근원이 제거되고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하게 될것이다.

또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는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면한 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하여 군사당국자회담제안과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과 같은 합리적인 평화제안들을 거듭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였다.

사실상 군사당국자회담제안과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격화되는 나라의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화협상제안이며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우리 민족을 새 전쟁, 핵참화로부터 구원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애국애족의 투철한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서 북남사이의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여러 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해결한다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겨레는 서로 대결하지 않고 민족적으로 화목과 단합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며 무력축소와 군비경쟁의 중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큰 규모의 군사연습의 중지와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면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일도 없게 될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높일데 대한 대책을 협의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기구로서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한다면 그것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수 있게 할것이다.

참으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과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구국대책으로 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제안들을 모조리 거부하는 조건에서도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1986년초 미제와 남조선괴뢰

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긴장한 정세하에서도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지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15만명의 병력을 전연과 초소에서 철수시켜 평화적 건설에 돌리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우리 나라에서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북과 남의 무력을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여 1992년부터 각각 10만명이하의 병력을 유지하며 북과 남의 병력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할것을 예견하고있다. 그리고 북과 남사이의 무력축소정형과 미군무력철수정형을 호상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할데 대한 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 감시군을 주둔시킬데 대한 문제, 이 모든것을 토의하기 위한 다국적 군축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이 담겨져있다. 특히 이 제안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는것을 천명하였으며 그것을 이미 지난해말까지 실행하였다.

이 단계적 군축제안은 우리 나라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군축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다.

현시기 큰 나라들사이에 군축이 실현되고있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군사적 대치상태와 전쟁위험이 가장 첨예한 우리 나라에서 군축이 실현되지 못하는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군축은 반드시 실현되여야 하며 군축을 위한 회담에는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의 무력을 호상 10만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이 철거하면 어느 일방도 대방을 공격할수 없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쌍방이 다같이 침략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 어떤 무력충돌도 없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은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을수 있는 획기적인 구국대책으로 된다.

올해 우리 나라의 정세는 남조선내부형편으로 보나 북남관계로 보나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무력을 증강하고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극도로 격화될것이 예견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의 조선반도정세를 결정적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의 중지, 다국적 군축회담마련,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주최, 호상 비방중지 문제를 토의할데 대한 획기적인 구국방안을 제시하시였다.

북남련석회의가 소집되여 여기에서 다국적 군축회담이 마련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군사연습중지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나라에는 완화의 분위기가 도래하게 될것이다.

참으로 지난 기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평화제안들이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였다면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는 현저히 완화되고 평화의 새 국면이 열렸을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애당초 우리 나라에서 완화와 평화를 바라지 않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평화제안들을 모조리 거부하고 무분별한 무력증강과 군비확장,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측의 3자회담제안과 군사당국자회담제안, 단계적 무력축감제안에 대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남북당사자간회담의 선행》을 구실로 거부하였으며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기존회담의 재개》와 지어는 《금강산발전소 건설문제》를 들고나와 회피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떠드는 《남북당사자간회담의 선행》 주장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에서 군축을 실현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회담에는 반드시 미국이 참가해야 한다.

미국의 참여없이 군축을 실현하고 전쟁위험을 가신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다.

미국은 남조선에 4만여명의 군대를 항시적으로 주둔시키고있을뿐아니라 100여만에 달하는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틀어쥐고 침략무력을 증강시키며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리는 장본인이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아무런 실권도 가지고있지 못한 남조선괴뢰들과만 마주앉아서는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초보적인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남북당사자간회담의 선행》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합리적인 평화제안들을 거부하는것은 그들이 말로는 《완화》와 《평화》에 대하여 떠들어도 실지로는 군축을 반대하고 긴장완화를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모든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누가 진실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있고 누가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를 반대하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태해소와 긴장상태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완화》와 《평화》에 대하여 떠들것이 아니라 우리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화협상제안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는 무력증강정책과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조선에 끌어들인 4만여명의 군대와 1,000여개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과 군사기지들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방대한 무력을 대치시켜놓고 민족참화를 가져올 전쟁요인을 그대로 둘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할 용의를 가져야 하며 무력을 축소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을것을 확약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자

최 룡 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 로작 《**세계로동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마흔돐이 되여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조선청년들이 국제무대에서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한 대외활동방침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조선청년운동과 세계청년운동의 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튼튼히 다지고 세계청년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혁명적 방침이다. 이 탁월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조선청년들은 해방된 첫날부터 국제무대에 당당히 진출하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칠수 있었으며 세계 진보적 청년들의 공동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세계로동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의 대외활동방침을 휘황히 밝혀주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과 세계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을 마련하여준 불멸의 전투적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력사적 로작 발표 40돐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사로청일군들과 청년들은 로작에 밝혀져있는 심오한 사상과 혁명적 방침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그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이 대외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혁명적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청년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청년들과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어깨겯고 싸워나갈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93페지)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가는 역군들이며 자주의 새 세계를 건설하는 혁명적 세대, 전진하는 세대이다. 청년들의 국제적 친선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자기 나라 혁명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조선청년들이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다.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은 세계혁명앞에 지닌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이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국제혁명력량,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전투적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청년들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

한 전세계 청년들의 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늘이면 늘일수록 조선혁명발전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할수 있다.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조선청년들이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국제청년운동을 강한 혁명력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된다.

씩씩하고 용감한 청년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다. 새 세대의 청년들은 자기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할뿐아니라 반제자주를 위한 우리 시대 인류의 공동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국제청년운동을 강한 혁명력량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제청년운동은 세계적 범위에서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한 청년들의 영광스러운 운동이다. 혁명은 한 나라의 범위에서뿐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도 대를 이어 계속된다. 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족적 독립과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전취물을 고수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없고 지배와 예속,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다.

국제청년운동을 강한 혁명력량으로 발전시키는 여기에 시대앞에서 청년들이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다해나가게 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국제청년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전투적 기치는 단결의 기치이다. 국제청년운동이 력사무대에 등장하면서 추켜든것도 바로 단결의 기치였다. 단결은 국제청년운동을 강한 혁명력량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자주성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투쟁대렬을 튼튼히 결속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청년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그리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 지역, 대륙 청년들의 투쟁을 하나의 흐름에 합류시켜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세계청년들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게 할수 있다.

참으로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민족적 요구로 보나 국제적 요구로 보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할 대외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이 혁명적 원칙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혁명과 국제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은 지난 기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나라와 쁠럭불가담나라 청년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 인민들과 청년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성원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세계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으며 세계청년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자주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의 활동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더욱 통이 크게, 다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제무대에서 견결한 반제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청년운동발전에 이바지한 커다란 공적으로 하여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은 세계청년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세계청년운동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다.

오늘 사로청은 160여개 나라의 400여개 청년학생단체와 국제 및 지역 청년학생기구들과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고 전투적 련대성과 친선의 뉴대를 두터이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혁명위업을 지지하는 세계청년들의 국제적 련대성운동도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사로청과 청년들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빛나는 결실이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지금 혁명의 길우에 있다. 우리 인민과 청년들앞에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국제적 환경도 매우 복잡하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비롯한 반동세력, 전쟁세력들이 아직 세계 여러곳에 도사리고있으며 반제자주위업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조국의 밝은 미래와 자주의 새 세계를 개척해나갈 우리 청년들은 잠시도 투쟁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혁명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투쟁에서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오늘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것이다.

세계청년학생축전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어깨겯고 나가는 세계청년학생들의 단결된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는 대정치축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리념밑에 발족한 세계청년학생들의 축전운동은 세계의 모든 대륙과 지역, 나라 청년학생들을 망라하는 가장 광범한 국제적 회합으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우리 시대의 힘있고 존엄있는 국제적 운동으로 발전하여왔다.

세계청년학생축전운동의 숭고한 리념에 충실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언제나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국제평화의 해인 1986년에는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평화위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1989년에 열리게 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할것을 발기하였다. 이 발기는 세계의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청년조직들, 국제 및 지역 청년학생기구들의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1987년 2월에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국제준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이것을 정식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이 결정은 조선청년학생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세계 진보적 청년학생들의 공동의 의사에 부합될뿐아니라 국제정세와 세계청년학생운동발전의 요구에도 전적으로 맞는 가장 정당한것이다.

평양축전은 5대륙 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의 가장 성대한 축전으로 될것이며 세계청년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뜻깊은 정치행사로 될것이다.

평양축전은 무엇보다도 반제, 평화의 기치밑에 세계 광범한 청년학생들의 전투적 련대성을 강화하고 그들을 평화옹호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현시기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시대가 제기하는 가장 절박하고 엄숙한 과제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과 핵무기증강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구우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 인류는 핵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세대는 청년들이다. 아름다운 리상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할 사람은 청년들이며 평화로운 세계에서 제일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사람도 바로 청년들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광범한 청년들은 사상과 리념, 사회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이 투쟁에서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지지협조하여야 한다.

평양축전은 시대의 이 절박한 과제와 세계 인민들과 청년들의 념원을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할것이다.

조선반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평화애호력량과 침략전쟁세력사이의 첨예한 대결의 집결처이며 세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이다. 바로 이러한곳에서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구호밑에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된다는 사실자체가 핵전쟁의 위험성과 반핵, 평화옹호 투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며 이 투쟁에서 청년들의 국제적 단결과 련대성의 중요성을 가일층 부각시켜줄것이다. 그리하여 축전은 세계의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제국주의자들의 핵참화의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평양축전은 또한 아세아청년학생들과 다른 대륙 청년학생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세계청년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될것이다.

지금까지 세계청년학생들의 축전은 꾸바에서 열린 제11차 축전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구라파지역에서 진행되였다. 제13차 세계축전을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하게 됨으로써 아세아가 처음으로 축전을 주최하는 대륙으로 되게 되였다.

아세아는 세계에서 면적이 제일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으로서 여기에는 세계청년학생들의 3분의 2이상이 살고 있다. 오늘 아세아 인민들과 청년들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일떠서고 있다.

평양축전은 아세아의 광범한 청년학생들이 축전에 참가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 세계청년운동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는 활무대를 펼쳐줄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청년학생들아 아세아청년학생들의 투쟁과 생활을 더 잘 알수 있게 하며 그들사이의 접촉과 협조,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로 될것이다. 이것은 평양축전이 축전운동의 지역적 범위를 훨씬 넓히고 이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청년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평양축전은 또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청년학생들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평양축전에는 세계 5대륙의 방방곡곡에서 수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전례없는 일이다. 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세계의 진보적 청년학생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며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죄행을 목격하게 될것이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인민과 청년들이 기울이고있는 성의있는 꾸준한 노력을 현실적으로 보게 될것이다. 속담에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그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빠르고 정의감이 강한 청년학생들이 우리 나라의 판이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것이며 우리 인민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게 될것이다. 이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고 우리 인민과 청년학생들에게는 힘있는 고무로 된다.

참으로 평양축전은 반제투쟁과 평화옹호위업수행에서 세계청년학생들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청년운동발전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뜻깊은 대정치축전으로, 조선청년학생들과 세계 진보적 청년들사이에 친선단결을 보다 두터이하고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 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게 하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될것이다.

우리가 축전행사준비를 잘하여 평양축전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 세계에 널리 시위할수 있으며 로동당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영예와 자랑을 떨칠수 있다.

우리는 평양축전이 가지는 커다란 정치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축전을 5대륙 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의 성대한 축전으로 빛내임으로써 축전운동력사를 새로운 장으로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은 세계청년들의 단결된 위력을 시위하게 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이번 축전행사들이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세계 진보적 청년들은 단결하여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단행본, 6페지)

평양축전을 5대륙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의 성대한 축전으로 진행되도록 하는것은 사로청과 조선청년학생들이 세계청년운동과 세계청년학생들 앞에 지닌 중요한 국제적 과업이며 그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는 숭고한 의리로 된다.

평양축전이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축전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반제, 평화, 친선, 단결은 세계청년학생축전운동의 숭고한 리념이다. 축전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축전운동의 이 리념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내세운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철저히 구현하여 평양축전을 5대륙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의 성대한 축전으로 되게 하려는것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청년학생들의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는 평양축전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을것이며 축전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세계의 모든 청년학생들을 사상과 리념, 사회제도와 신앙, 피부색과 언어 등에 관계없이 뜨겁게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할것이다.

우리는 모든 축전행사들을 철저히 광범성, 민주주의, 자유의 원칙에서 다채롭게 조직함으로써 평양축전장이 5대륙의 청년학생들이 친선의 뜨거운 정을 나누는 단결과 협조의 무대로, 반제, 평화를 위한 투쟁결의를 더 굳게 다지는 청년들의 정열과 기백, 랑만으로 약동하는 광장으로 되게 할것이다.

평양축전이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진

행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 준비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축전의 모든 행사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축전주최국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그 준비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지금 우리 나라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축전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우리 나라 축전준비위원회에서는 이미 필요한 축전 분과들과 기구들을 내오고 전국적으로 여러 부문의 현상응모사업을 조직하여 축전 마크와 가요, 선전화를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축전에서 진행할 각종 행사들을 특색있게 준비하고있으며 축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물질적 준비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웅장화려한 광복거리와 안골체육촌, 축전 개막과 폐막 장소로 리용될 릉라도경기장을 비롯한 260여개의 축전대상건설이 마감고비에서 추진되고있다.

축전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청년학생들이 충천한 기세를 늦추지 말고 축전대상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축전지원의 날 애국로동을 비롯한 축전지원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세계 청년조직들과 청년학생들이 축전준비사업에 광범히 참가하는것은 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지구상의 각계각층 청년학생들이 참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정치적 대회합이며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행사인것만큼 세계 광범한 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밑에서만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축전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축전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으며 세계적 범위에서 축전지원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평양축전에 대한 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및 각국의 청년학생조직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세계의 더욱 많은 청년학생들이 축전에 참가하며 축전준비사업을 적극 지원해나서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청년학생들과 세계 진보적 청년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축전준비사업이 훌륭히 진행됨으로써 평양축전은 5대륙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의 가장 성대한 축전으로, 축전운동의 년대기에 새로운 빛나는 장을 수놓는 국제적 대회합으로 될것이다.

조선청년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세계의 모든 진보적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가 없고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담보

허 섭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

그러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저들의 옛지위를 되찾고 세계를 제패해보려는 야망밑에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현시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그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화근이고 세계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이며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장본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는 평화의 파괴자이며 전쟁의 화근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곳에서 평화가 교란되고있으며 새 전쟁의 위험이 커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07페지)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략탈의 결과로 생겨났으며 끊임없는 침략과 략탈로 살쪄왔다. 제국주의가 생겨난후 인류는 거듭되는 침략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겪어왔으며 헤아릴수 없이 많은 재부와 로동의 열매를 략탈당하였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두차례의 세계대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일으켰던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인류력사에 기록된 그 어느 시기의 전쟁보다도 규모가 크고 가혹하였다. 이 두차례의 세계대전기간에 세계의 90여개의 나라들이 전쟁에 말려들고 무려 수억의 인구가 생명을 잃었거나 불구가 되였으며 인류가 수세기를 두고 창조하여온 수많은 물질문화적 재부들이 무참히 파괴되였다.

그러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이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그 이후에도 조선전쟁과 인도지나전쟁을 비롯하여 200여회이상의 국부전쟁과 무력충돌을 일으켰거나 그에 직접 관여하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가 생겨난 때로부터 지구상에서는 어느 한시도 평온한 때가 없었으며 인민들은 항상 전쟁의 재난을 겪거나 아니면 침략과 전쟁의 위험속에서 불안하게 살아오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인류력사에서 가장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반동세력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침략과 전쟁의 화근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더욱더 커가고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핵무기를 휘두르면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세계전략이다. 미제는 이러한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미제는 겉으로는 《평화》와 《긴장완화》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으나 뒤에서는 군비를 대폭 늘이고있다.

미제가 1938—1940년 기간에 지출한 군사비는 년간 10억딸라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3년에 이르러 그것은 1948년에 비하여 무려 거의 20배나 뛰여올랐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는 근 3,000억딸라로 늘어났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지출되는 군사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방대한것이다.

미제는 군비를 급속히 늘이는것과 함께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륙무기의 개발과 생산, 배비도 적극 다그치고있다. 1981년부터 1987년 기간에만 하여도 미국의 핵무기공장들에서는 약 1만 1,000개의 핵탄두와 10개 종류의 새로운 핵폭탄이 생산되였다.

미제의 군비확장과 새 전쟁 준비책동에서 특히 엄중한것은 그들이 집요하게 추진하고있는 《별세계전쟁》계획이다.

미제가 추진시키고있는 《별세계전쟁》계획은 본질에 있어서 우주공간을 핵전쟁기지로 전변시켜 저들의 《핵우세》를 보장하며 미국만이 핵보복타격을 받음이 없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임의의 지점들과 대상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하려는데 있다.

미제는 이 모험적인 계획수행에 이미 90억딸라를 소비하였다. 앞으로 5년간에 370억딸라를 더 지출하려 하고있으며 나아가서 20년동안에는 무려 8,000억딸라나 더 들이밀려 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핵군비지출과 군사적 모험정책으로 하여 인류의 머리우에는 새로운 전쟁, 열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더욱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미제는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또한 세계도처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미제는 중근동지역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면서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고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민족적 해방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반대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있다. 미제는 중미주지역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반대하여 무력간섭을 감행하고있으며 진보적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 위협과 전복파괴활동을 강화하고있다.

오늘 미국은 《21세기는 태평양시대》라고 하면서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돌리고있다.

미제가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추구하는 기본목적은 《힘》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 력량을 견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려는것이다.

미제는 아세아 태평양 전략수행에서 특히 남조선의 지위를 매우 중요시하고있으며 남조선을 아세아에서의 식민지지탱점으로, 공화국북반부와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기지로,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반대하는 거점으로 리용하려하고있다.

미제는 이미 남조선에 방대한 미군무력과 핵무기를 끌어들여 그곳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최근 미제는 남조선의 전략적 지위에 대하여 더욱 떠들면서 거기에 여러가지 새로운 핵운반수단들을 련속 투입하고 대규모의 핵저장고들을 건설하고있으며 미, 일, 남조선 사이의 군사적 결탁을 보다 강화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 해역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사실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국제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주되는 근원이 바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 앞에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류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6페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 모험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굳게 단결하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력량은 제국주의침략세력보다 비할바없이 우세하며 강력하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단결된 힘은 필승불패이며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과 전쟁 책동도 능히 지지파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세계평화애호력량이 굳게 단결되는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련합하여 자주와 평화, 사회적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으며 어떻게 하나 세계평화애호력량을 분렬리간시켜 각개격파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긴절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인민들이 단결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배한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비록 정견과 신앙을 달리하고 각이한 사회제도에서 살고있지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리념과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결하여 함께 싸워나갈수 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자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이며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 립장을 지켜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한 대오에서 함께 나갈수 있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할수도 없고 약화될수도 없다. 제국주의에 있어서 변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적 본성이 아니라 침략수법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변장술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침략수법의 변화를 제국주의의 본성의 변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으며 그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할수 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 립장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사면팔방으로부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에 드센 집단적 공격을 들이대여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

모험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핵참화로부터 인류의 생존과 인류의 문명을 구원하고 모든 나라 인민들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평화옹호운동의 주체는 모든 나라 인민대중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 모험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은 핵전쟁의 실제적 요인과 위험을 제거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위력한 평화옹호운동이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넓혀나간다면 핵전쟁의 위험을 막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궁극에 가서는 모든 핵무기를 없앨수 있다.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 아프리카와 중근동, 인도양과 남태평양, 발칸반도와 구라파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넓혀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쁠럭정책과 군사기지화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군사쁠럭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의 발판이며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침략적인 외국군사기지와 외국군대는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군사쁠럭이 존재하고 그들의 침략적 군사기지와 침략군대가 있는곳에서는 례외없이 전쟁의 위험이 떠돌고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오직 지구우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쁠럭들, 침략과 전쟁 수단들이 완전히 청산될 때 비로소 항구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들과 침략군대를 철거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쁠럭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 력량과 평화애호인민들이 반제, 반전, 반핵, 평화의 기치밑에 평화옹호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책동, 모험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은 이르는곳마다에서 배격을 받고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게 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자주화된 세계는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침략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종식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성과 침략전쟁은 량립될수 없다.

침략전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가장 란폭하게 짓밟는 폭력행위이며 그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존재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반제투쟁속에서 탄생한 운동이며 이 운동에서 기본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자주화의 길로 나가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 력량과 평화애호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은 저지파탄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이 확고히 보장될것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반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섬사리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며 그렇게 되면 조선민족뿐아니라 전인류가 핵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것이다.

조선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 직결되여있으며 조선의 평화를 떠나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합리적인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로부터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제안들을 외면하면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가고있다.

현실은 누가 진정으로 조선과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며 누가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근로자 1988년 제6호 (루계 554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8년 6월 1일 발 행•1988년 6월 3일

ㄱ—8599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 1동 값 70전